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2001

대표성서무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2004

대한성서공회

THE HOLY BIBLE with REFERENCE
Old and New Testament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2001*

RN73E 3rd Printing, 11,000 ; January 2002
Printed in Korea

ISBN 89-412-1016-X 03230 RN72E
ISBN 89-412-1017-8 03230 RN77E
ISBN 89-412-1022-4 03230 RN73E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RN73E)**

본문편집을 위 성경에 근거하여 문단 및 문단 제목을 편집하였습니다.

Version: 1 (2015.10.15)

성경 목록

[구약전서](#)

[신약전서](#)

구약전서

[창세기 \(창\)](#)

[출애굽기 \(출\)](#)

[레위기 \(레\)](#)

[민수기 \(민\)](#)

[신명기 \(신\)](#)

[여호수아 \(수\)](#)

[사사기 \(삿\)](#)

[룻기 \(룻\)](#)

[사무엘기상 \(삼상\)](#)

[사무엘기하 \(삼하\)](#)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하 \(왕하\)](#)

[역대상 \(대상\)](#)

[역대하 \(대하\)](#)

[에스라기 \(스\)](#)

[느헤미야기 \(느\)](#)

[에스더기 \(에\)](#)

[욥기 \(욥\)](#)

[시편 \(시\)](#)

[잠언 \(잠\)](#)

[전도서 \(전\)](#)

[아가 \(아\)](#)

[이사야 \(사\)](#)

[예레미야 \(렘\)](#)

[예레미야 애가 \(애\)](#)

[에스겔 \(겔\)](#)

[다니엘 \(단\)](#)

[호세아 \(호\)](#)

[요엘 \(욥\)](#)

[아모스 \(암\)](#)

[오바댜 \(옵\)](#)

[요나 \(욘\)](#)

[미가 \(미\)](#)

[나훔 \(나\)](#)
[하박국 \(합\)](#)
[스바냐 \(습\)](#)
[학개 \(학\)](#)
[스가랴 \(스\)](#)
[말라기 \(말\)](#)

신약전서

[마태복음 \(마\)](#)
[마가복음 \(막\)](#)
[누가복음 \(눅\)](#)
[요한복음 \(요\)](#)
[사도행전 \(행\)](#)
[로마서 \(롬\)](#)
[고린도전서 \(고전\)](#)
[고린도후서 \(고후\)](#)
[갈라디아서 \(갈\)](#)
[에베소서 \(엡\)](#)
[빌립보서 \(빌\)](#)
[골로새서 \(골\)](#)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디모데전서 \(딤후\)](#)
[디모데후서 \(딤후\)](#)
[디도서 \(딤후\)](#)
[빌레몬서 \(몬\)](#)
[히브리서 \(히\)](#)
[야고보서 \(약\)](#)
[베드로전서 \(벧전\)](#)
[베드로후서 \(벧후\)](#)
[요한1서 \(요일\)](#)
[요한2서 \(요이\)](#)
[요한3서 \(요삼\)](#)
[유다서 \(유\)](#)
[요한계시록 \(계\)](#)

창세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Genesis 1](#) • [Genesis 2](#) • [Genesis 3](#) • [Genesis 4](#) • [Genesis 5](#) • [Genesis 6](#) • [Genesis 7](#) • [Genesis 8](#) •
[Genesis 9](#) • [Genesis 10](#) • [Genesis 11](#) • [Genesis 12](#) • [Genesis 13](#) • [Genesis 14](#) • [Genesis 15](#) • [Genesis](#)
[16](#) • [Genesis 17](#) • [Genesis 18](#) • [Genesis 19](#) • [Genesis 20](#) • [Genesis 21](#) • [Genesis 22](#) • [Genesis 23](#) •
[Genesis 24](#) • [Genesis 25](#) • [Genesis 26](#) • [Genesis 27](#) • [Genesis 28](#) • [Genesis 29](#) • [Genesis 30](#) • [Genesis](#)
[31](#) • [Genesis 32](#) • [Genesis 33](#) • [Genesis 34](#) • [Genesis 35](#) • [Genesis 36](#) • [Genesis 37](#) • [Genesis 38](#) •
[Genesis 39](#) • [Genesis 40](#) • [Genesis 41](#) • [Genesis 42](#) • [Genesis 43](#) • [Genesis 44](#) • [Genesis 45](#) • [Genesis](#)
[46](#) • [Genesis 47](#) • [Genesis 48](#) • [Genesis 49](#) • [Genesis 50](#)

창세기

천지창조

GENESIS 1 ¹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²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³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³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⁴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⁵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⁶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⁷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⁸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⁹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¹⁰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¹¹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¹²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¹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¹⁴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¹⁵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¹⁶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¹⁷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¹⁸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¹⁹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²⁰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 다녀라" 하셨다. ²¹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²²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²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²⁴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짐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²⁵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²⁶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c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c 히, '아담') ²⁷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c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하셨다. ²⁸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²⁹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³⁰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³¹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셋날이 지났다.

GENESIS 2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²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a엿셋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a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이렛날까지') ³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⁴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⁵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⁶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⁷○주 하나님이 b땅의 흙으로 c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b 히, '아다마' c 히, '아담')

⁸○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⁹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⁰○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¹¹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¹²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¹³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¹⁴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¹⁵○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¹⁶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¹⁸○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¹⁹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²⁰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c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c 히, '아담') ²¹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²²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²³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d남자에게서 나왔으니
e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d 히, '이쉬' e 히, '잇샤')

²⁴○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²⁵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의 불순종

GENESIS 3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²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³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⁴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⁵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⁶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⁷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⁸○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⁹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¹⁰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¹¹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¹²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¹³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꾀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

¹⁴○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¹⁵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날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20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a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a '생명') **21**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다

22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
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
다." **23**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
게 하셨다. **24**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b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
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b 살아 있는 피조물, 날개와 얼굴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겔 1:5-12; 10:21))

가인과 아벨

GENESIS 4 a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b얻었다."(a 또는 '그 남자가' b 히브리어 동사 '얻다'(또는 '생산하다')의 발음이 가인이라는 말과 비슷함) ²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³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⁴아벨은 양 떼 가운데서 말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⁵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⁶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⁷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옳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⁸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c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c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⁹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¹⁰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¹¹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¹²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¹³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¹⁴오늘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뵈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¹⁵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d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d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그러므로') ¹⁶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e곳 땅에서 살았다.(e '떠돌아 다님' (12, 14절을 볼 것))

가인의 자손

¹⁷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 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¹⁸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¹⁹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쉰라이다.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²²또한 쉰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구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²³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쉰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24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일곱 갑절이다."

셋과 에노스

25○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f셋이라고 하였다.(f'허락하다') **26**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자손

GENESIS 5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2**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a '사람'이라고 하셨다.(a 히, '아담')

3○아담은 백서른 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4**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5**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6○셋은 백다섯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7**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팔백칠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8**셋은 모두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9○에노스는 아흔 살에 게난을 낳았다. **10**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팔백십오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11**에노스는 모두 구백오 년을 살고 죽었다.

12○게난은 일흔 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13**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팔백사십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14**게난은 모두 구백십 년을 살고 죽었다.

15○마할랄렐은 예순다섯 살에 야렛을 낳았다. **16**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팔백삼십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17**마할랄렐은 모두 팔백구십오 년을 살고 죽었다.

18○야렛은 백예순두 살에 에녹을 낳았다. **19**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20**야렛은 모두 구백육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21○에녹은 예순다섯 살에 므두셀라를 낳았다. **22**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뒤에,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23**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24**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25○므두셀라는 백여든일곱 살에 라멕을 낳았다. **26**므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칠백팔십이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27**므두셀라는 모두 구백육십구 년을 살고 죽었다.

28○라멕은 백여든두 살에 아들을 낳았다. **29**그는 아들의 이름을 b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b '위로') **30**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오백아흔다섯 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

다. ³¹라멕은 모두 칠백칠십칠 년을 살고 죽었다. ³²노아는 오백 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인류의 악행

GENESIS 6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²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³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다." ⁴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⁵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⁶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 ⁷주님께서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 구나." ⁸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⁹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¹⁰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¹¹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¹²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¹³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¹⁴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¹⁵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삼백 자, 너비는 쉰 자, 높이는 서른 자로 하고, ¹⁶그 방주에는 a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a 또는 '창') ¹⁷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¹⁸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¹⁹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 남게 하여라. ²⁰새도 그 종류대로, 짐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 남게 하여라. ²¹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²²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홍수

GENESIS 7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²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a두 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a 사마

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한 쌍씩') ³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 남게 하여라. ⁴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릴 것이다." ⁵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⁶○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육백 살 되던 해이다. ⁷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⁸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⁹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¹⁰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¹¹○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b둘째 달, 그 달 열이렛날,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b '시브월', 양력 사월 중순 이후) ¹²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¹³바로 그 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¹⁴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¹⁵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¹⁶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¹⁷○땅 위에서는 홍수가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¹⁸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¹⁹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²⁰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열 다섯 자나 더 불어났다. ²¹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²²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²³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 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 남았다. ²⁴물이 불어나서, 백오십 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홍수가 그치다

GENESIS 8 그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²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³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백오십 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⁴a일곱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쉬었다.(a '티스리월', 양력 구월 중순 이후) ⁵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b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b '테베스월', 양력 십이월 중순 이후)

⁶○사십 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⁷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⁸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⁹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 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었다. **10**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11**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짖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12**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3○노아가 육백한 살 되는 해 c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c '아빕월', 양력 삼월 중순 이후) **14**둘째 달, 곧 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다 말랐다. **15**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17**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18**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19**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다

20○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21**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 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22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다

GENESIS 9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2**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3**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4**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5**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6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7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8○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10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11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 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13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15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16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17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18○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19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20○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21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22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23셈과 야벳은 겹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24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25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26○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27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a '증가하다' 또는 '흥하게 하다')

28○홍수가 있는 뒤에도, 노아는 삼백오십 년을 더 살았다. 29노아는 모두 구백오십 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자손(대상 1:5-23)

GENESIS 10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²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³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⁴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a스페인과 b키프로스와 c로도스이다.(a 히, '다시스' b 히, '깃딤' c 히, '도다님') ⁵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⁶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⁷구스의 자손은 쓰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⁸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⁹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¹⁰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¹¹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앗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¹²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¹³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¹⁴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¹⁵가나안은 말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헛과 ¹⁶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¹⁷히위와 알가와 신과 ¹⁸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 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¹⁹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²⁰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²¹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²²셈의 자손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룿과 아람이다. ²³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²⁴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²⁵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d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욥단이다.(d '나뉘다') ²⁶욥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²⁷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²⁸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²⁹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욥단의 자손이다. ³⁰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³¹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³²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바벨 탑

GENESIS 11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²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³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⁴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⁵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⁶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⁷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⁸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흠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⁹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a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b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a 히, '발랄(뒤섞다)' b '바빌론'을 가리킴. '뒤섞다'라는 뜻을 지닌 발랄과 바빌론을 뜻하는 바벨의 발음이 비슷함)

셈의 자손(대상 1:24-27)

- ¹⁰○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이 년 뒤, 백 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¹¹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오백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¹²○c아르박삿은 서른다섯 살에 셀라를 낳았다.(c 12-13절이 칠십인역에는 '아르박삿은 서른다섯 살에 가이난을 낳고, 13. 가이난을 낳은 뒤에 아르박삿은 사백삼십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고 죽었다. 가이난은 백서른 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뒤에 가이난은 삼백삼십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눅 3:35, 36을 볼 것)) ¹³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사백삼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¹⁴○셀라는 서른 살에 에벨을 낳았다. ¹⁵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사백삼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¹⁶○에벨은 서른네 살에 벨렉을 낳았다. ¹⁷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사백삼십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¹⁸○벨렉은 서른 살에 르우를 낳았다. ¹⁹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이백구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²⁰○르우는 서른두 살에 스룩을 낳았다. ²¹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이백칠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²²○스룩은 서른 살에 나홀을 낳았다. ²³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이백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²⁴○나홀은 스물아홉 살에 데라를 낳았다. ²⁵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백십구 년을 더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 ²⁶○데라는 일흔 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자손

- ²⁷○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²⁸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²⁹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³⁰사래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 ³¹○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사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 다다 자리를 잡고 살았다. ³²데라는 이백오 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GENESIS 12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²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

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³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⁴○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⁵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⁶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⁷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⁸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⁹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겜에 이르렀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

¹⁰○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¹¹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래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¹²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¹³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¹⁴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¹⁵바로와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들어갔다. ¹⁶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¹⁷○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¹⁸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¹⁹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²⁰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람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브람과 롯이 따로 살림을 내다

GENESIS 13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겜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²○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³그는 네겜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 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⁴그 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⁵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⁶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

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⁷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⁸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⁹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¹⁰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¹¹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¹²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¹³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¹⁴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¹⁵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¹⁶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¹⁷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 보고, 너비로도 걸어 보아라." ¹⁸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GENESIS 14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²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³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싯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⁴지난날에 이 왕들은 십이 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⁵십사 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룟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웨기라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⁶세일 산간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⁷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온 들판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까지 쳤다.

⁸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싯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⁹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싸웠다. ¹⁰싯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¹¹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12○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13○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때에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딸,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14**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삼백열여덟 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15**그 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16**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다

17○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웨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18**그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19**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재,
a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a 히, '엘엘리온') **20**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a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a 히, '엘엘리온') **21**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 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22**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23**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 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4**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몫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GENESIS 15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2**아브람이 여쭙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3**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4**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⁵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⁶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⁷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a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a 또는 '갈대아') ⁸아브람이 여쭙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⁹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¹⁰아브람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¹¹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람이 쫓아 버렸다.

¹²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¹³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¹⁴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¹⁵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¹⁶너의 자손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¹⁷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¹⁸바로 그 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¹⁹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²⁰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²¹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하갈과 이스마엘

GENESIS 16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²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따랐다. ³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십 년이 지난 뒤이다. ⁴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⁵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⁶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다.

⁷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⁸천사가 물었다. "사래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하갈이 대답하

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⁹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¹⁰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¹¹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a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a '하나님께서 들으심') ¹²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¹³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뵈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b"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b 히, '엘로이') ¹⁴그래서 그 샘 이름도 c브엘라해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c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

¹⁵○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¹⁶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여든여섯이었다.

할례:언약의 표

GENESIS 17 아브람의 나이 아흔아홉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²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³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⁴"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⁵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a아브람이 아니라 b아브라함이다.(a '존귀한 아버지' b '많은 사람의 아버지') ⁶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⁷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⁸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⁹○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¹⁰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¹¹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¹²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¹³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¹⁴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¹⁵○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래를 이제 사래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¹⁶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

게 하겠다." ¹⁷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백 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¹⁸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¹⁹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c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c '그가 웃다') ²⁰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열두 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²¹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²²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²³○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²⁴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아흔아홉 살 때이고, ²⁵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열세 살 때이다. ²⁶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²⁷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GENESIS 18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²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³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⁴물을 좀 가져 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⁵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⁶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⁷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⁸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⁹○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¹⁰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¹¹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¹²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¹³그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¹⁴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이다." ¹⁵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브라함이 소동을 위하여 빌다

¹⁶○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동이 내려다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라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¹⁷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¹⁸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¹⁹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²⁰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동과 고모라에서 들려 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²¹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 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²²○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동으로 갔으나, a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a 마소라 본문을 따름.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²³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²⁴그 성 안에 의인이 쉰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쉰 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²⁵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²⁶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동 성에서 내가 의인 쉰 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²⁷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²⁸의인이 쉰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마흔다섯 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²⁹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마흔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³⁰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서른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서른 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³¹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스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스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³²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³³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소동의 죄

GENESIS 19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²"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³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 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 준 것을 먹었다. ⁴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⁵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⁶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⁷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⁸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려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⁹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¹⁰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걸고, ¹¹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롯이 소돔을 떠나다

¹²○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¹³우리는 지금 이 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¹⁴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악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 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¹⁵○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¹⁶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¹⁷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¹⁸이 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¹⁹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²⁰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²¹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성은 멸하지 않겠소. ²²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a소알이라고 하였다.(a '작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23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췌다. **24**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25**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덮어 멸하셨다.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7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 곳에 이르러서, **28**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용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29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의 기원

30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31**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32**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33** 그 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35** 그래서 그 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36**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37**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b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b '아버지로부터')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c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c '내 백성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GENESIS 20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겟 지역으로 옮겨 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2**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3** 그런데 그 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4**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5**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

다." **6**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8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9**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시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10**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시오?" **11**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2**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13**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14**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 떼와 소 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15**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16**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천 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 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17**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18**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 را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이삭이 태어나다

GENESIS 21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 را를 돌보셨다. 사 라는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2**사 라는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 라는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3**아브라함은 사 라는가 낳아 준 아들에게 a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a '그가 웃다') **4**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5**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백 살이었다. **6**사 라는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7**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 라는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지 않았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⁸○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⁹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¹⁰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¹¹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¹²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 주어라. ¹³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¹⁴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다.

¹⁵○가축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덩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¹⁶"아이가 죽어 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¹⁷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¹⁸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¹⁹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축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²⁰○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²¹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

²²○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²³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²⁴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²⁵○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²⁶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²⁷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²⁸아브라함이 양 떼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²⁹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³⁰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 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³¹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 곳을 b브엘세바라고 한다.(b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³²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³³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³⁴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다

GENESIS 22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³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엮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⁴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⁵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⁶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⁷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⁸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⁹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¹⁰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¹¹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¹²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¹³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¹⁴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 이름을 a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b'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a 히, '아도나이이레(주님께서 준비하심)' b 또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¹⁵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¹⁶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¹⁷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¹⁸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¹⁹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나홀의 자손

²⁰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²¹말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²²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²³브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²⁴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사다

GENESIS 23 사라는 백 년 하고도 스물일곱 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²그는 가나안 땅 기랴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³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⁴"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⁵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⁶"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⁷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⁸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 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⁹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¹⁰헷 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¹¹"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¹²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¹³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¹⁴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¹⁵"저의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사백 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¹⁶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사백 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¹⁷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¹⁸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¹⁹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²⁰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이삭의 아내

GENESIS 24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²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³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⁴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⁵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

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⁶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⁷주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⁸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⁹그래서 그 좋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¹⁰그 좋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열 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¹¹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데였다. ¹²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¹³제가 여기 우물 곁에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¹⁴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 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¹⁵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브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¹⁶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¹⁷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 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¹⁸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¹⁹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²⁰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 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²¹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²²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 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십 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²³물었다. "아가씨는 뉘 덕 따님이시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²⁴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브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²⁵소녀는 말을 계속 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²⁶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²⁷"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끝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²⁸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²⁹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³⁰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 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³¹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³²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³³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³⁴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³⁵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 떼와 소 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³⁶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³⁷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³⁸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³⁹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⁴⁰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네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 주실 것이다. ⁴¹네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네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⁴²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⁴³제가 여기 우물 곁에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으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말하고, ⁴⁴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⁴⁵그런데 제가 마음 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⁴⁶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⁴⁷제가 따님에게 '뉘 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브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 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⁴⁸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⁴⁹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 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려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51**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52○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53**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54**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 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55**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56**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7**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 봅시다." **58**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59**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60**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61○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62○그 때에 이삭은 이미 브엘라해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겟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63**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 떼 오고 있었다. **64**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65**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구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66**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67**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

GENESIS 25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2**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3**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앓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4**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5**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 주고, **6**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7○아브라함이 누린 햇수는 모두 백일흔다섯 해이다. 8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10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때에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이스마엘의 자손

12○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뭇이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16 이 열둘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열두 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17 이스마엘은 모두 백서른일곱 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18 그의 자손은 모두 하월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앓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19○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마흔 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21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22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23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24○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25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a에서라고 하였다.(a '털') 26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b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다.(b '발뒤꿈치를 잡다' 즉 '속이다'를 뜻하는 '야아케브'에서 온 말)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팔다

27○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씬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어더니 에서를 사

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²⁹○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³⁰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c에돔이라고도 한다.(c '붉은') ³¹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³²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보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³³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³⁴야곱이 빵과 팔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삭이 그랄에서 살다

GENESIS 26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2**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3**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4**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5**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6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7**그 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8**이삭이 그 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 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9**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0**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11**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14**그가 양 떼와 소 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15**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17이삭은 그 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18**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20**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a에섹이라고 불렀다.(a '다툼') **21**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b싯나라고 하였다.(b '반대') **22**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c르호봇이라고 하였다.(c '넓은 곳')

23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24**그 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25**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협약

26○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27**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28**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29**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31**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32**그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33**이삭이 그 우물을 d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e브엘세바라고 한다.(d '맹세' 또는 '일곱' e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34○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해에, 헷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35**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GENESIS 27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3**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4**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5○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6**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7**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 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8**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9**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두 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10**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11**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12**아버지께서 만져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13**어머니가 아들에게 말

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¹⁴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¹⁵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말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¹⁶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 주고 나서, ¹⁷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 주었다.

¹⁸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¹⁹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²⁰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²¹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 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²²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 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²³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²⁴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²⁵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²⁶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²⁷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²⁸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²⁹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축복받기를 간청하다

30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31**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 온 게 누구란 말이나?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34**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36**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까?" (a '발뒤꿈치를 잡다' 즉 '속이다')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38**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소리로 울었다.

39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40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41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 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42**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43**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44**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갈을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46○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헛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넋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헛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GENESIS 28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이제 곧 밋단아람에 계시는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3a**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a 히, '엘샤다이') **4**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5**이렇게 복을 빌어 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밋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6○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그를 밋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7**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밋단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8**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9**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10○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12**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b**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b 또는 '사닥다리') **13**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 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18○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그 곳 이름을 **c**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c '하나님의 집') **20**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

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²²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GENESIS 29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²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 떼 세 무리가 엮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곳은 목자들이 양 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³양 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⁴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⁵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⁶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옵니다." ⁷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 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⁸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 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 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러내고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⁹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 떼를 치는 목동이다. ¹⁰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 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¹¹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소리로 울면서, ¹²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¹³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¹⁴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붙이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안일을 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¹⁵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 보자."

¹⁶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¹⁷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다. ¹⁸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칠 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 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¹⁹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²⁰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칠 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칠 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21○칠 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22**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24**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25**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26**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27**그러니 이레 동안 초례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칠 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28**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레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9**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30**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31○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32**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a르우벤이라고 하였다.(a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또는 '보아라, 아들이다!') **33**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b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b 히, '샤마') **34**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c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c 히, '라와') **35**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d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d 히, '오다')

GENESIS 30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새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2**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यो?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यो?" **3**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십시오.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 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4**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5**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6**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a단이라고 하였다.(a '그가 판단하였다') **7**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8**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b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b 히, '납달')

9○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10**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11**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c갓이라고 하였다.(c '행운') **12**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¹³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d아셀이라고 하였다.(d '행복')

¹⁴○보리를 거두어들일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 줘요." ¹⁵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 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세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¹⁶그 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 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¹⁷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 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¹⁸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e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하였다.(e 히, '사갈') ¹⁹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²⁰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f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f 히, '자발') ²¹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²²○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²³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²⁴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g요셉이라고 하였다.(g '더하다')

야곱이 라반과 흥정하다

²⁵○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 ²⁶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 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²⁷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²⁸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삷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²⁹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 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 떼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³⁰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떼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³¹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 떼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³²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 떼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 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 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샅으로 주십시오. ³³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샅으로 주신 가축 떼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 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³⁴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³⁵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 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³⁶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 떼를 쳤다.

³⁷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송아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껌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³⁸야곱은, 껌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 놓고, 양 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 앞에 세워 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³⁹양들은, 껌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⁴⁰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 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 떼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 떼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⁴¹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껌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⁴²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⁴³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 떼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GENESIS 31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²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³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⁴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 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⁵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⁶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렸소. ⁷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⁸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 떼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 떼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⁹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 떼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¹⁰가축 떼가 새끼를 뱌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¹¹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¹²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¹³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¹⁴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¹⁵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떼 나라 사람으로 여

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편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16**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17**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18**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19**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 냈다. **20**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낚시줄을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21**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a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a 유프라테스 강)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다

22야곱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23**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24**그 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25**야곱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26**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 포로 잡아갔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27**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복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28**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29**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30**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31**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32**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 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b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b 히, Gen 31:'그것들을') **33**야곱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34**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35**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36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37**장인 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 보셨는데, 장인 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 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

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³⁸제가 무려 스무 해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동안 장인 어른의 양 떼와 염소 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 떼에서 숫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³⁹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⁴⁰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⁴¹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스무 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십 년 하고도 사 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렸고, 지난 여섯 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 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⁴²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시며,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 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협정

⁴³○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 떼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 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⁴⁴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⁴⁵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 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⁴⁶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 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⁴⁷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c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⁴⁸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c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c'증거의 무더기'를 아람어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 함) ⁴⁹이 돌무더기를 달리 d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d'망루') ⁵⁰"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⁵¹○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⁵²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⁵³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⁵⁴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 날 밤을 보냈다.

⁵⁵○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GENESIS 32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²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 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a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a '두 진지')

³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⁴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웁니다. 저는 그 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⁵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 떼와 염소 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⁶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⁷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 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⁸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⁹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¹⁰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¹¹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¹²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¹³그 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 냈다. ¹⁴암염소 이백 마리와 숫염소 스무 마리, 암양 이백 마리와 숫양 스무 마리, ¹⁵젖을 빨리는 낙타 서른 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마흔 마리와 황소 열 마리, 암나귀 스무 마리와 새끼 나귀 열 마리였다. ¹⁶야곱은 이것들을 몇 떼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¹⁷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낚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¹⁸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¹⁹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²⁰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 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 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²¹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 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

²²○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압박 나루를 건넜다. ²³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²⁴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²⁵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찼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²⁶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놀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²⁷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²⁸**b**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c**이스라엘이다."(**b** 히, '그가' **c**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시다') ²⁹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³⁰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d**브니엘이라고 하였다.(**d** '하나님의 얼굴') ³¹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³²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의 힘줄을 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GENESIS 33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²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져서 따라오게 하였다. ³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⁴○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⁵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⁶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⁷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⁸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 떼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⁹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¹⁰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 ¹¹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므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¹²○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¹³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렵습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 떼와 소 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¹⁴형님께서도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 떼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¹⁵○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¹⁶그 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¹⁷야곱은 a속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이 속곳이 되었다.(a '초막') ¹⁸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¹⁹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 냥을 주고 샀다. ²⁰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b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b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GENESIS 34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²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³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⁴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⁵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 떼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⁶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⁷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⁸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맥의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맥의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⁹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¹⁰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¹¹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¹²신부를 데려오는 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 주시고, 제가 가져 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¹³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¹⁴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¹⁵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¹⁶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 불어 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¹⁷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¹⁸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¹⁹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²⁰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²¹"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²²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거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²³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 떼와 재산과 짐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²⁴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²⁵○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²⁶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²⁷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²⁸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²⁹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³⁰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³¹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 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GENESIS 35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²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³이제 우리는 이 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⁴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⁵○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⁶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⁷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 곳 이름을 a엘베델이라고 하였다. (a '베델의 하나님') ⁸○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b알론바곳이라고 하였다. (b '통곡의 상수리나무')

⁹○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¹⁰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¹¹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c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

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c 히, '엘샤다이') ¹²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¹³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¹⁴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¹⁵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다

¹⁶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¹⁷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¹⁸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d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e베냐민이라고 하였다.(d '내 슬픔의 아들' e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남쪽의 아들') ¹⁹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²⁰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²¹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²²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들(대상 2:1-2)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²³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다. ²⁴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²⁵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²⁶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이삭이 죽다

²⁷야곱이 기랏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랏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²⁸이삭의 나이는 백여든 살이었다. ²⁹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에서의 자손(대상 1:34-37)

GENESIS 36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²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 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a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³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뿃의 누이이다. ⁴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⁵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⁶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⁷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⁸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 산에 자리를 잡았다.

⁹○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¹⁰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¹¹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¹²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딘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¹³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¹⁴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시브온의 a딸 아나의 소생)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a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아들')

¹⁵○에서에게서 나온 b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b 또는 '족장들' (15-43절에서도)) ¹⁶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¹⁷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¹⁸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아나의 딸)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¹⁹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세일의 자손(대상 1:38-41)

²⁰○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²¹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²²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딘나(로단의 누이)이다. ²³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알완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²⁴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²⁵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아나의 딸)이다. ²⁶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험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²⁷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²⁸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²⁹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³⁰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에돔의 왕들(대상 1:43-54)

³¹○이스라엘에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³²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³³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³⁴요밥이 죽으니, 데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³⁵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³⁶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³⁷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³⁸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³⁹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

의 뒤를 이어서 c하닷이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c 마소라 사본 가운데 일부와 사마리아 오경과 시리아어역(대상 1:50)을 따름. 대다수의 마소라 사본에는 '하달')

40○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딘나와 알와와 여덫과 41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42그나스와 데만과 밍살과 43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요셉과 형제들

GENESIS 37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2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3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a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a 또는 '채색 옷') 4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5○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6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곧 꿈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श्य. 7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8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9○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 보श्य.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10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곧 그 꿈이 무엇이나?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나?" 11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다

12○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 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13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14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 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15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16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17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18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 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19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²⁰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²¹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 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²²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 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²³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²⁴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²⁵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²⁶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나? ²⁷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붙이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²⁸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²⁹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³⁰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나?"

³¹그들은 숫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³²그들은 피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³³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³⁴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³⁵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b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³⁶그리고 c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c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메단 사람들')

유다와 다말

GENESIS 38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²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³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⁴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⁵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a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a 칠십인역은 유다의 아내를 가리키고, 마소라 본문은 유다를 가리킴)

⁶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⁷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⁸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⁹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

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10**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11**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12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딘나로 올라갔다. **13**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딘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14**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딘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16**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 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17**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 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18**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19**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20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21**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 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22**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23**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24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25**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26**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27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28**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29**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b베레스라고 하고, (b '터뜨림') **30**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c세라라고 하였다. (c '홍색' 또는 '밝음')

GENESIS 39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²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³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⁴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⁵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⁶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⁷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꺾었다. ⁸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⁹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¹⁰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¹¹○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¹²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 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¹³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 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¹⁴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향을 질렀더니, ¹⁵그는 내가 고향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¹⁶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¹⁷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¹⁸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향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 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¹⁹○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올랐다. ²⁰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²¹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²²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²³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다

GENESIS 40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2**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3**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4**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5**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6**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7**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8**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9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곧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10**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11**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12**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13**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16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17**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18**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19**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20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 나갔다. **21**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22**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23**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

GENESIS 41 그로부터 만 이 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 가에서 있는데, **2**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3**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⁴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⁵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일곱 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⁶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⁷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⁸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꾸는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⁹○그 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합니다. ¹⁰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¹¹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¹²그 때에 그 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꾸는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¹³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¹⁴○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¹⁵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¹⁶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¹⁷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 가에서 있는데, ¹⁸살이 찐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¹⁹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²⁰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²¹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²²a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일곱 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에는 이 본문 앞에, '내가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가 더 있음) ²³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²⁴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 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²⁵○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입니다. ²⁶그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도 일곱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²⁷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일곱 마리나, 열풍에 말라 버린 쓸모 없는 이삭 일곱 개도, 역시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일곱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²⁸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입니다. ²⁹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³⁰그런데 곧 이어서,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³¹풍년

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³²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³³이제 임금님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³⁴임금님께서 전국에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³⁵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³⁶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 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³⁷○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³⁸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³⁹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⁴⁰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⁴¹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⁴²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⁴³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b"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b 또는 '무릎을 꿇어라!'. 마소라 본문의 아브레크는 '무릎 꿇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한 이집트어임)

⁴⁴○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⁴⁵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넛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넛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⁴⁶○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⁴⁷풍년을 이룬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⁴⁸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⁴⁹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⁵⁰○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넛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⁵¹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c므넛세라고 지었다.(c '잊게 하다') ⁵²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d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d '갑절로 열매를 맺다')

⁵³○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⁵⁴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

도 먹거리가 있었다. ⁵⁵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⁵⁶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⁵⁷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

GENESIS 42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²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³그래서 요셉의 형 열 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⁴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팔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⁵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⁶그 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⁷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⁸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⁹그 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곧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¹⁰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¹¹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¹²그가 말하였다. "아니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¹³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¹⁴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¹⁵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¹⁶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 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¹⁷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¹⁸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¹⁹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²⁰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하기로 하였다. ²¹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²²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²³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²⁴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²⁵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²⁶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²⁷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²⁸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²⁹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 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³⁰"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³¹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³²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³³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 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³⁴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 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³⁵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³⁶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³⁷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³⁸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GENESIS 43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²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³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

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⁴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⁵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⁶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⁷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날날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⁸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⁹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¹⁰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¹¹○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를 담아라. ¹²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¹³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¹⁴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a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 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a 히, '엘샤다이')

¹⁵○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¹⁶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요." ¹⁷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¹⁸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 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¹⁹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²⁰"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 간 일이 있습니다. ²¹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²²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²³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 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맥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맥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맥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²⁴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²⁵그들은 거기에

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26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27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었다. 28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29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30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31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32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33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34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잔이 없어지다

GENESIS 44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2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3 다음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4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5 a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 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a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6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7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8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9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10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11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12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13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15**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16**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17**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다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 그 때에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늘그막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 그 때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22**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25**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26**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7**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28**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29**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30**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31**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32**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33**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GENESIS 45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²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³"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⁴○"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⁵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시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⁶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⁷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⁸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⁹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서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¹⁰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¹¹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쭙십시오. ¹²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¹³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¹⁴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¹⁵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¹⁶○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¹⁷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십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¹⁸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¹⁹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십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 오도록 하시오. ²⁰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²¹○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²²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삼백 세겔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²³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²⁴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닦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²⁵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²⁶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들을 수가 없었다. ²⁷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²⁸"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암, 가고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간다

GENESIS 46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²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⁴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⁵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⁶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짐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⁷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⁸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⁹르우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¹⁰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¹¹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¹²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¹³잇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 ¹⁴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 ¹⁵이들은 밧단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서른세 명이다.

¹⁶갓의 아들들인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¹⁷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¹⁸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열여섯 명이다. ¹⁹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²⁰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²¹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빔과 ?빔과 아룻, ²²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열네 명이다. ²³단의 아들인 후심, ²⁴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²⁵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²⁶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

람들은, 머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여섯 명이다. ²⁷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a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b일흔 명이다.(a 칠십인역에는 '아홉 자녀' b 칠십인역에는 '일흔다섯 명'(행 7:14에서도))

야곱 일행이 이집트에 도착하다

²⁸○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²⁹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³⁰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 있구나!" ³¹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³²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³³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어?' 하고 물으시거든, ³⁴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GENESIS 47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 떼와 양 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²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³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었어?"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⁴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 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⁵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⁶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⁷○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⁸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⁹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햇수가 백 년 하고도 삼십 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햇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햇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¹⁰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¹¹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¹²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기근이 심해지다

13○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아워어 갔다. **14**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15**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16**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17**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18**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19**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21**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a**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a**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에는 '요셉이 백성을 강제노동에 징용하였다') **22**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23**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24**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오분의 일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오분의 사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25○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뵈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26**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야곱의 마지막 요청

27○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28**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열일곱 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백마흔일곱 살이었다.

29○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30**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 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1**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

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끝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GENESIS 48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2**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3**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a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a 히, '엘 샤다이') **4**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5**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6**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7**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8○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9**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10**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1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12**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려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13**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14**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15○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16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18**"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이야,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겨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겨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20○그 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21**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22**그리고 네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야곱의 유언

GENESIS 49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2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3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4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5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6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여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7그 노여움이 흑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다.

8^a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먹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a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에서 유래함) **9**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옆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10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b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b** 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그가 통치 지팡이를 쥔 자에게 오기까지' (시리아어역))

11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겹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12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흰 것이다.

13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14잇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15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16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17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18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9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20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21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물이 귀여울 것이다.

22^c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c 또는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다.'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함) **23**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과녁으로 삼아도,

24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25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d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d 히, '샤다이')

26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28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죽다

29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30** 그 묘실은 가
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31**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
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
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32**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헛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33** 야곱은 자
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GENESIS 50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옆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2**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3** 꼬박
사십 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칠십 일을 곡하였다.

⁴○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⁵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⁶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⁷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⁸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⁹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 만하였다. ¹⁰그들은 요단 강 동쪽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¹¹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a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 곳은 요단 강 동쪽이다.(a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

¹²○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¹³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¹⁴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다

¹⁵○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¹⁶요셉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¹⁷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¹⁸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¹⁹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²⁰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²¹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죽다

²²○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백 년 하고도 십 년을 더 살면서, ²³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²⁴○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²⁵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

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 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 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26 ○요셉이 백열 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Footnotes

[1] 1:1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
셨을 때에'

Footnote from Genesis 1:2 ([Back](#))

[\[2\]](#) 1:7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Footnote from Genesis 1:8 ([Back](#))

[\[3\]](#) **1:8** Or *Sky*; also verses 9, 14, 15, 17, 20, 26, 28, 30; 2:1

Footnote from Genesis 1:10 ([Back](#))

[\[4\]](#) **1:10** Or *Land*; also verses 11, 12, 22, 24, 25, 26, 28, 30; 2:1

Footnote from Genesis 1:11 ([Back](#))

[\[5\]](#) **1:11** Or *small plants*; also verses 12, 29

Footnote from Genesis 1:14 ([Back](#))

[\[6\]](#) 1:14 Or *appointed times*

Footnote from Genesis 1:20 ([Back](#))

[\[7\]](#) **1:20** Or *flying things*; see Leviticus 11:19–20

Footnote from Genesis 1:26 ([Back](#))

[\[8\]](#) **1:26** The Hebrew word for *man* (*adam*) is the generic term for mankind and becomes the proper name *Adam*

Footnote from Genesis 2:5 ([Back](#))

[\[1\]](#) 2:5 Or *open country*

Footnote from Genesis 2:5 ([Back](#))

[\[2\]](#) 2:5 Or *earth*; also verse 6

Footnote from Genesis 2:6 ([Back](#))

[\[3\]](#) 2:6 Or *spring*

Footnote from Genesis 2:17 ([Back](#))

[\[4\]](#) 2:17 Or *when you eat*

Footnote from Genesis 2:18 ([Back](#))

[\[5\]](#) **2:18** Or *corresponding to*; also verse 20

Footnote from Genesis 2:19 ([Back](#))

[\[6\]](#) **2:19** Or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Footnote from Genesis 2:20 ([Back](#))

[\[7\]](#) **2:20** Or *the man*

Footnote from Genesis 2:22 ([Back](#))

[\[8\]](#) 2:22 Hebrew *built*

Footnote from Genesis 2:23 ([Back](#))

[\[9\]](#) **2:23** The Hebrew words for *woman* (*ishshah*) and *man* (*ish*) sound alike

Footnote from Genesis 3:1 ([Back](#))

[\[1\]](#) **3:1** In Hebrew *you* is plural in verses 1–5

Footnote from Genesis 3:6 ([Back](#))

[\[2\]](#) 3:6 Or *to give insight*

Footnote from Genesis 3:8 ([Back](#))

[\[3\]](#) 3:8 Hebrew *wind*

Footnote from Genesis 3:9 ([Back](#))

[\[4\]](#) **3:9** In Hebrew *you* is singular in verses 9 and 11

Footnote from Genesis 3:15 ([Back](#))

[\[5\]](#) **3:15** Hebrew *seed*; so throughout Genesis

Footnote from Genesis 3:16 ([Back](#))

[\[6\]](#) 3:16 Or *against*

Footnote from Genesis 3:20 ([Back](#))

[\[7\]](#) **3:20** *Eve* sounds like the Hebrew for *life-giver* and resembles the word for *living*

Footnote from Genesis 4:1 ([Back](#))

[\[1\]](#) **4:1** *Cain* sounds like the Hebrew for *gotten*

Footnote from Genesis 4:7 ([Back](#))

[\[2\]](#) **4:7** Hebrew *will there not be a lifting up* [of your face]?

Footnote from Genesis 4:7 ([Back](#))

[\[3\]](#) 4:7 Or *against*

Footnote from Genesis 4:8 ([Back](#))

[\[4\]](#) **4:8** Hebrew; Samaritan, Septuagint, Syriac, Vulgate add *Let us go out to the field*

Footnote from Genesis 4:13 ([Back](#))

[\[5\]](#) **4:13** Or *My guilt is too great to bear*

Footnote from Genesis 4:16 ([Back](#))

[\[6\]](#) **4:16** *Nod* means *wandering*

Footnote from Genesis 4:25 ([Back](#))

[\[7\]](#) **4:25** *Seth* sounds like the Hebrew for *he appointed*

Footnote from Genesis 5:2 ([Back](#))

[\[1\]](#) 5:2 Hebrew *adam*

Footnote from Genesis 5:22 ([Back](#))

[\[2\]](#) **5:22** Septuagint *pleased God*

Footnote from Genesis 5:24 ([Back](#))

[\[3\]](#) **5:24** Septuagint *was not found*

Footnote from Genesis 5:29 ([Back](#))

[\[4\]](#) **5:29** *Noah* sounds like the Hebrew for *rest*

Footnote from Genesis 6:3 ([Back](#))

[\[1\]](#) **6:3** Or *My Spirit shall not contend with*

Footnote from Genesis 6:4 ([Back](#))

[\[2\]](#) 6:4 Or *giants*

Footnote from Genesis 6:13 ([Back](#))

[\[3\]](#) **6:13** Hebrew *The end of all flesh has come before me*

Footnote from Genesis 6:14 ([Back](#))

[\[4\]](#) **6:14** An unknown kind of tree; transliterated from Hebrew

Footnote from Genesis 6:15 ([Back](#))

[\[5\]](#) **6:15**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Genesis 6:16 ([Back](#))

[\[6\]](#) **6:16** Or *skylight*

Footnote from Genesis 7:2 ([Back](#))

[\[1\]](#) **7:2** Or *seven of each kind of clean animal*

Footnote from Genesis 7:3 ([Back](#))

[\[2\]](#) **7:3** Or *seven of each kind*

Footnote from Genesis 7:4 ([Back](#))

[\[3\]](#) 7:4 Hebrew *all existence*; also verse 23

Footnote from Genesis 7:20 ([Back](#))

[\[4\]](#) **7:20**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Genesis 8:21 ([Back](#))

[\[1\]](#) **8:21** Or *dishonor*

Footnote from Genesis 9:7 ([Back](#))

[\[1\]](#) 9:7 In Hebrew *you* is plural

Footnote from Genesis 9:19 ([Back](#))

[\[2\]](#) **9:19** Or *from these the whole earth was populated*

Footnote from Genesis 9:20 ([Back](#))

[\[3\]](#) **9:20** Or *Noah, a man of the soil, was the first to plant a vineyard*

Footnote from Genesis 9:27 ([Back](#))

[\[4\]](#) **9:27** *Japheth* sounds like the Hebrew for *enlarge*

Footnote from Genesis 10:8 ([Back](#))

[\[1\]](#) **10:8** Or *he began to be a mighty man on the earth*

Footnote from Genesis 10:14 ([Back](#))

[\[2\]](#) **10:14** Or *from where*

Footnote from Genesis 10:25 ([Back](#))

[\[3\]](#) **10:25** *Peleg* means *division*

Footnote from Genesis 11:9 ([Back](#))

[\[1\]](#) **11:9** *Babel* sounds like the Hebrew for *confused*

Footnote from Genesis 12:1 ([Back](#))

[\[1\]](#) 12:1 Or *had said*

Footnote from Genesis 12:1 ([Back](#))

[\[2\]](#) 12:1 Or *land*

Footnote from Genesis 12:3 ([Back](#))

[\[3\]](#) **12:3** Or *by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less themselves*

Footnote from Genesis 12:6 ([Back](#))

[\[4\]](#) 12:6 Or *terebinth*

Footnote from Genesis 13:8 ([Back](#))

[\[1\]](#) 13:8 Hebrew *we are men, brothers*

Footnote from Genesis 13:18 ([Back](#))

[\[2\]](#) **13:18** Or *terebinths*

Footnote from Genesis 14:13 ([Back](#))

[\[1\]](#) 14:13 Or *terebinths*

Footnote from Genesis 14:19 ([Back](#))

[\[2\]](#) **14:19** Or *Creator*; also verse 22

Footnote from Genesis 14:22 ([Back](#))

[\[3\]](#) **14:22** Or *I have taken a solemn oath*

Footnote from Genesis 15:2 ([Back](#))

[\[1\]](#) 15:2 Or *I shall die*

Footnote from Genesis 15:4 ([Back](#))

[\[2\]](#) **15:4** Hebrew *what will come out of your own loins*

Footnote from Genesis 15:18 ([Back](#))

[\[3\]](#) 15:18 Or *have given*

Footnote from Genesis 16:2 ([Back](#))

[\[1\]](#) **16:2** Hebrew *be built up*, which sounds like the Hebrew for *children*

Footnote from Genesis 16:4 ([Back](#))

[\[2\]](#) **16:4** Hebrew *her mistress was dishonorable in her eyes*; similarly in verse 5

Footnote from Genesis 16:11 ([Back](#))

[\[3\]](#) **16:11** *Ishmael* means *God hears*

Footnote from Genesis 16:13 ([Back](#))

[\[4\]](#) **16:13** Or *You are a God who sees me*

Footnote from Genesis 16:13 ([Back](#))

[\[5\]](#) **16:13** Hebrew *Have I really seen him here who sees me?* or *Would I have looked here for the one who sees me?*

Footnote from Genesis 16:14 ([Back](#))

[\[6\]](#) **16:14** *Beer-lahai-roi* means *the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

Footnote from Genesis 17:1 ([Back](#))

[\[1\]](#) 17:1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17:5 ([Back](#))

[\[2\]](#) **17:5** *Abram* means *exalted father*

Footnote from Genesis 17:5 ([Back](#))

[\[3\]](#) **17:5** *Abraham* means *father of a multitude*

Footnote from Genesis 17:15 ([Back](#))

[\[4\]](#) **17:15** *Sarai* and *Sarah* mean *princess*

Footnote from Genesis 17:16 ([Back](#))

[\[5\]](#) 17:16 Hebrew *have given*

Footnote from Genesis 17:19 ([Back](#))

[\[6\]](#) **17:19** *Isaac* means *he laughs*

Footnote from Genesis 18:1 ([Back](#))

[\[1\]](#) 18:1 Or *terebinths*

Footnote from Genesis 18:3 ([Back](#))

[\[2\]](#) 18:3 Or *My lord*

Footnote from Genesis 18:6 ([Back](#))

[\[3\]](#) **18:6** A *seah* was about 7 quarts or 7.3 liters

Footnote from Genesis 18:14 ([Back](#))

[\[4\]](#) **18:14** Or *wonderful*

Footnote from Genesis 18:15 ([Back](#))

[\[5\]](#) **18:15** Or *acted falsely*

Footnote from Genesis 18:19 ([Back](#))

[\[6\]](#) **18:19** Hebrew *known*

Footnote from Genesis 18:21 ([Back](#))

[\[7\]](#) **18:21** Or *they deserve destruction*; Hebrew *they have made a complete end*

Footnote from Genesis 19:22 ([Back](#))

[\[1\]](#) 19:22 *Zoar* means *little*

Footnote from Genesis 19:37 ([Back](#))

[\[2\]](#) **19:37** *Moab* sounds like the Hebrew for *from father*

Footnote from Genesis 19:38 ([Back](#))

[\[3\]](#) **19:38** *Ben-ammi* means *son of my people*

Footnote from Genesis 20:16 ([Back](#))

[\[1\]](#) **20:16** Hebrew *It is a covering of eyes for all*

Footnote from Genesis 21:3 ([Back](#))

[\[1\]](#) **21:3** *Isaac* means *he laughs*

Footnote from Genesis 21:9 ([Back](#))

[\[2\]](#) **21:9** Possibly *laughing in mockery*

Footnote from Genesis 21:30 ([Back](#))

[\[3\]](#) 21:30 Or *you*

Footnote from Genesis 21:31 ([Back](#))

[\[4\]](#) **21:31** *Beersheba* means *well of seven* or *well of the oath*

Footnote from Genesis 22:5 ([Back](#))

[\[1\]](#) **22:5** Or *young man*; also verse 12

Footnote from Genesis 22:14 ([Back](#))

[\[2\]](#) 22:14 Or *will see*

Footnote from Genesis 22:14 ([Back](#))

[\[3\]](#) **22:14** Or *he will be seen*

Footnote from Genesis 22:17 ([Back](#))

[\[4\]](#) 22:17 Or *their*

Footnote from Genesis 23:3 ([Back](#))

[\[1\]](#) **23:3** Hebrew *sons of Heth*; also verses 5, 7, 10, 16, 18, 20

Footnote from Genesis 23:6 ([Back](#))

[\[2\]](#) 23:6 Or *a mighty prince*

Footnote from Genesis 23:15 ([Back](#))

[\[3\]](#) **23:1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Genesis 24:10 ([Back](#))

[\[1\]](#) **24:10** Hebrew *Aram-naharaim*

Footnote from Genesis 24:14 ([Back](#))

[\[2\]](#) 24:14 Or *By her*

Footnote from Genesis 24:16 ([Back](#))

[\[3\]](#) **24:16** Or *a woman of marriageable age*

Footnote from Genesis 24:22 ([Back](#))

[\[4\]](#) **24:2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Genesis 24:48 ([Back](#))

[\[5\]](#) 24:48 Or *faithfully*

Footnote from Genesis 24:60 ([Back](#))

[\[6\]](#) **24:60** Or *hate them*

Footnote from Genesis 25:18 ([Back](#))

[\[1\]](#) **25:18** Hebrew *fell*

Footnote from Genesis 25:22 ([Back](#))

[\[2\]](#) **25:22** Or *why do I live?*

Footnote from Genesis 25:23 ([Back](#))

[\[3\]](#) 25:23 Or *from birth*

Footnote from Genesis 25:26 ([Back](#))

[\[4\]](#) **25:26** *Jacob* means *He takes by the heel*, or *He cheats*

Footnote from Genesis 25:30 ([Back](#))

[\[5\]](#) **25:30** *Edom* sounds like the Hebrew for *red*

Footnote from Genesis 26:8 ([Back](#))

[\[1\]](#) 26:8 Hebrew may suggest an intimate relationship

Footnote from Genesis 26:20 ([Back](#))

[\[2\]](#) **26:20** *Esek* means *contention*

Footnote from Genesis 26:21 ([Back](#))

[\[3\]](#) **26:21** *Sitnah* means *enmity*

Footnote from Genesis 26:22 ([Back](#))

[4] **26:22** *Rehoboth* means *broad places*, or *room*

Footnote from Genesis 26:33 ([Back](#))

[\[5\]](#) **26:33** *Shibah* sounds like the Hebrew for *oath*

Footnote from Genesis 26:35 ([Back](#))

[\[6\]](#) **26:35** Hebrew *they were bitterness of spirit*

Footnote from Genesis 27:36 ([Back](#))

[\[1\]](#) **27:36** *Jacob* means *He takes by the heel*, or *He cheats*

Footnote from Genesis 27:39 ([Back](#))

[\[2\]](#) 27:39 Or *Behold, of*

Footnote from Genesis 27:39 ([Back](#))

[\[3\]](#) 27:39 Or *and of*

Footnote from Genesis 27:46 ([Back](#))

[\[4\]](#) **27:46** Hebrew *daughters of Heth*

Footnote from Genesis 28:3 ([Back](#))

[\[1\]](#) 28:3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28:12 ([Back](#))

[\[2\]](#) **28:12** Or *a flight of steps*

Footnote from Genesis 28:13 ([Back](#))

[\[3\]](#) **28:13** Or *beside him*

Footnote from Genesis 28:19 ([Back](#))

[4] **28:19** *Bethel* means *the house of God*

Footnote from Genesis 29:17 ([Back](#))

[\[1\]](#) 29:17 Or *soft*

Footnote from Genesis 29:24 ([Back](#))

[\[2\]](#) **29:24** Or *had given*; also verse 29

Footnote from Genesis 29:32 ([Back](#))

[\[3\]](#) **29:32** *Reuben* means *See, a son*

Footnote from Genesis 29:33 ([Back](#))

[\[4\]](#) **29:33** *Simeon* sounds like the Hebrew for *heard*

Footnote from Genesis 29:34 ([Back](#))

[\[5\]](#) **29:34** *Levi* sounds like the Hebrew for *attached*

Footnote from Genesis 29:35 ([Back](#))

[\[6\]](#) **29:35** *Judah* sounds like the Hebrew for *praise*

Footnote from Genesis 30:3 ([Back](#))

[\[1\]](#) 30:3 Hebrew *on my knees*

Footnote from Genesis 30:3 ([Back](#))

[\[2\]](#) **30:3** Hebrew *be built up*, which sounds like the Hebrew for *children*

Footnote from Genesis 30:6 ([Back](#))

[\[3\]](#) **30:6** *Dan* sounds like the Hebrew for *judged*

Footnote from Genesis 30:8 ([Back](#))

[\[4\]](#) **30:8** Hebrew *With wrestlings of God*

Footnote from Genesis 30:8 ([Back](#))

[\[5\]](#) **30:8** *Naphtali* sounds like the Hebrew for *wrestling*

Footnote from Genesis 30:11 ([Back](#))

[\[6\]](#) **30:11** *Gad* sounds like the Hebrew for *good fortune*

Footnote from Genesis 30:13 ([Back](#))

[\[7\]](#) **30:13** *Asher* sounds like the Hebrew for *happy*

Footnote from Genesis 30:18 ([Back](#))

[\[8\]](#) **30:18** *Issachar* sounds like the Hebrew for *wages*, or *hire*

Footnote from Genesis 30:20 ([Back](#))

[\[9\]](#) **30:20** *Zebulun* sounds like the Hebrew for *honor*

Footnote from Genesis 30:24 ([Back](#))

[\[10\]](#) **30:24** *Joseph* means *May he add*, and sounds like the Hebrew for *taken away*

Footnote from Genesis 30:27 ([Back](#))

[\[11\]](#) **30:27** Or *have become rich and*

Footnote from Genesis 31:20 ([Back](#))

[\[1\]](#) **31:20** Hebrew *stole the heart of*; also verses 26, 27

Footnote from Genesis 31:21 ([Back](#))

[\[2\]](#) **31:21**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Genesis 31:29 ([Back](#))

[\[3\]](#) **31:29** The Hebrew for *your*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Genesis 31:47 ([Back](#))

[\[4\]](#) **31:47** Aramaic *the heap of witness*

Footnote from Genesis 31:47 ([Back](#))
[5] 31:47 Hebrew *the heap of witness*

Footnote from Genesis 31:49 ([Back](#))

[\[6\]](#) **31:49** *Mizpah* means *watchpost*

Footnote from Genesis 31:55 ([Back](#))

[\[7\]](#) **31:55** Ch 32:1 in Hebrew

Footnote from Genesis 32:2 ([Back](#))

[\[1\]](#) **32:2** *Mahanaim* means *two camps*

Footnote from Genesis 32:3 ([Back](#))

[\[2\]](#) 32:3 Or *had sent*

Footnote from Genesis 32:20 ([Back](#))

[\[3\]](#) **32:20** Hebrew *appease his face*

Footnote from Genesis 32:20 ([Back](#))

[\[4\]](#) **32:20** Hebrew *he will lift my face*

Footnote from Genesis 32:22 ([Back](#))

[\[5\]](#) 32:22 Or *sons*

Footnote from Genesis 32:28 ([Back](#))

[\[6\]](#) **32:28** *Israel* means *He strives with God*, or *God strives*

Footnote from Genesis 32:30 ([Back](#))

[\[7\]](#) **32:30** *Peniel* means *the face of God*

Footnote from Genesis 33:8 ([Back](#))

[\[1\]](#) 33:8 Hebrew *camp*

Footnote from Genesis 33:12 ([Back](#))

[\[2\]](#) 33:12 Or *along with*

Footnote from Genesis 33:17 ([Back](#))

[\[3\]](#) **33:17** *Succoth* means *booths*

Footnote from Genesis 33:18 ([Back](#))

[\[4\]](#) **33:18** Or *peacefully*

Footnote from Genesis 33:19 ([Back](#))

[\[5\]](#) **33:19** Hebrew *a hundred qesitah*; a unit of money of unknown value

Footnote from Genesis 33:20 ([Back](#))

[\[6\]](#) **33:20** *El-Elohe-Israel* means *God, the God of Israel*

Footnote from Genesis 34:8 ([Back](#))

[\[1\]](#) **34:8** The Hebrew for *your*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Genesis 34:12 ([Back](#))

[\[2\]](#) **34:12** Or *engagement present*

Footnote from Genesis 35:7 ([Back](#))

[\[1\]](#) **35:7** *El-bethel* means *God of Bethel*

Footnote from Genesis 35:8 ([Back](#))

[\[2\]](#) **35:8** *Allon-bacuth* means *oak of weeping*

Footnote from Genesis 35:9 ([Back](#))

[\[3\]](#) 35:9 Or *had appeared*

Footnote from Genesis 35:11 ([Back](#))

[\[4\]](#) **35:11**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35:11 ([Back](#))

[\[5\]](#) **35:11** Hebrew *from your loins*

Footnote from Genesis 35:16 ([Back](#))

[\[6\]](#) **35:16** Or *about two hours' distance*

Footnote from Genesis 35:18 ([Back](#))

[\[7\]](#) **35:18** *Ben-oni* could mean *son of my sorrow*, or *son of my strength*

Footnote from Genesis 35:18 ([Back](#))

[\[8\]](#) **35:18** *Benjamin* means *son of the right hand*

Footnote from Genesis 36:2 ([Back](#))

[\[1\]](#) **36:2** Hebrew; Samaritan, Septuagint, Syriac *son*; also verse 14

Footnote from Genesis 36:37 ([Back](#))

[\[2\]](#) 36:37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Genesis 37:3 ([Back](#))

[\[1\]](#) **37:3** See Septuagint, Vulgate; or (with Syriac) *a robe with long sleeves*.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also verses 23, 32

Footnote from Genesis 37:20 ([Back](#))

[\[2\]](#) **37:20** Or *cisterns*; also verses 22, 24

Footnote from Genesis 37:28 ([Back](#))

[\[3\]](#) **37:28**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Genesis 38:5 ([Back](#))

[\[1\]](#) 38:5 Hebrew *He*

Footnote from Genesis 38:21 ([Back](#))

[\[2\]](#) **38:21** Hebrew *sacred woman*; a woman who served a pagan deity by prostitution; also verse 22

Footnote from Genesis 38:24 ([Back](#))

[\[3\]](#) **38:24** Or *has committed prostitution*

Footnote from Genesis 38:24 ([Back](#))

[\[4\]](#) **38:24** Or *by prostitution*

Footnote from Genesis 38:29 ([Back](#))

[\[5\]](#) **38:29** *Perez* means *a breach*

Footnote from Genesis 41:16 ([Back](#))

[\[1\]](#) **41:16** Or (compare Samaritan, Septuagint) *Without God it is not possible to give Pharaoh an answer about his welfare*

Footnote from Genesis 41:34 ([Back](#))

[\[2\]](#) **41:34** Or *over the land and organize the land*

Footnote from Genesis 41:38 ([Back](#))

[\[3\]](#) 41:38 Or *of the gods*

Footnote from Genesis 41:40 ([Back](#))

[\[4\]](#) **41:40** Hebrew *and according to your command all my people shall kiss the ground*

Footnote from Genesis 41:43 ([Back](#))

[\[5\]](#) **41:43** *Abrek*, probably an Egyptian word, similar in sound to the Hebrew word meaning *to kneel*

Footnote from Genesis 41:51 ([Back](#))

[\[6\]](#) **41:51** *Manasseh* sounds like the Hebrew for *making to forget*

Footnote from Genesis 41:52 ([Back](#))

[\[7\]](#) **41:52** *Ephraim* sounds like the Hebrew for *making fruitful*

Footnote from Genesis 41:56 ([Back](#))

[\[8\]](#) **41:56** Hebrew *all that was in them*

Footnote from Genesis 43:14 ([Back](#))

[\[1\]](#) **43:14**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43:34 ([Back](#))

[\[2\]](#) **43:34** Hebrew *and became intoxicated*

Footnote from Genesis 44:4 ([Back](#))

[\[1\]](#) **44:4** Septuagint (compare Vulgate) adds *Why have you stolen my silver cup?*

Footnote from Genesis 45:20 ([Back](#))

[\[1\]](#) **45:20** Hebrew *Let your eye not pity*

Footnote from Genesis 45:22 ([Back](#))

[\[2\]](#) **45:2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Genesis 46:23 ([Back](#))

[\[1\]](#) 46:23 Hebrew *sons*

Footnote from Genesis 47:21 ([Back](#))

[\[1\]](#) **47:21** Samaritan, Septuagint, Vulgate; Hebrew *he removed them to the cities*

Footnote from Genesis 47:31 ([Back](#))

[\[2\]](#) 47:31 Hebrew; Septuagint *staff*

Footnote from Genesis 48:3 ([Back](#))

[\[1\]](#) 48:3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48:7 ([Back](#))

[\[2\]](#) **48:7** Or *about two hours' distance*

Footnote from Genesis 48:16 ([Back](#))

[\[3\]](#) **48:16** Or *let them be like fish for multitude*

Footnote from Genesis 48:19 ([Back](#))

[\[4\]](#) **48:19** Hebrew *fullness*

Footnote from Genesis 48:22 ([Back](#))

[\[5\]](#) **48:22** Or *one portion of the land*; Hebrew *shekem*, which sounds like the town and district called *Shechem*

Footnote from Genesis 49:10 ([Back](#))

[\[1\]](#) **49:10** By a slight revocalization; a slight emendation yields (compare Septuagint, Syriac, Targum)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Hebrew *until Shiloh comes*, or *until he comes to Shiloh*

Footnote from Genesis 49:14 ([Back](#))

[\[2\]](#) **49:14** Or *between its saddlebags*

Footnote from Genesis 49:19 ([Back](#))

[\[3\]](#) **49:19** *Gad* sounds like the Hebrew for *raiders* and *raid*

Footnote from Genesis 49:21 ([Back](#))

[\[4\]](#) **49:21** Or *he gives beautiful words*, or *that bears fawns of the fold*

Footnote from Genesis 49:22 ([Back](#))

[\[5\]](#) **49:22** Or *Joseph is a wild donkey, a wild donkey beside a spring, his wild colts beside the wall*

Footnote from Genesis 49:24 ([Back](#))

[\[6\]](#) **49:24** Hebrew *the arms of his hands*

Footnote from Genesis 49:24 ([Back](#))

[\[7\]](#) **49:24** Or *by the name of the Shepherd*

Footnote from Genesis 49:25 ([Back](#))

[\[8\]](#) **49:25** Hebrew *Shaddai*

Footnote from Genesis 49:26 ([Back](#))

[\[9\]](#) **49:26** A slight emendation yields (compare Septuagint) *the blessings of the eternal mountains,*
the bounties of the everlasting hills

Footnote from Genesis 50:11 ([Back](#))

[\[1\]](#) **50:11** *Abel-mizraim* means *mourning* (or *meadow*) of *Egypt*

Footnote from Genesis 50:20 ([Back](#))

[\[2\]](#) **50:20** Or *a numerous people*

Footnote from Genesis 50:23 ([Back](#))

[\[3\]](#) **50:23** Hebrew *were born on Joseph's knees*

출애굽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xodus 1](#) • [Exodus 2](#) • [Exodus 3](#) • [Exodus 4](#) • [Exodus 5](#) • [Exodus 6](#) • [Exodus 7](#) • [Exodus 8](#)
• [Exodus 9](#) • [Exodus 10](#) • [Exodus 11](#) • [Exodus 12](#) • [Exodus 13](#) • [Exodus 14](#) • [Exodus 15](#)
• [Exodus 16](#) • [Exodus 17](#) • [Exodus 18](#) • [Exodus 19](#) • [Exodus 20](#) • [Exodus 21](#) • [Exodus 22](#)
• [Exodus 23](#) • [Exodus 24](#) • [Exodus 25](#) • [Exodus 26](#) • [Exodus 27](#) • [Exodus 28](#) • [Exodus 29](#)
• [Exodus 30](#) • [Exodus 31](#) • [Exodus 32](#) • [Exodus 33](#) • [Exodus 34](#) • [Exodus 35](#) • [Exodus 36](#)
• [Exodus 37](#) • [Exodus 38](#) • [Exodus 39](#) • [Exodus 40](#)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를 받다

EXODUS 1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2**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5**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a**일흔 명이다.(**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일흔다섯 명'(행 7:14절에서도))

6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7**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8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9**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10**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11**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b**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b** '파라오'로도 음역함) **12**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13**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므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15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6**"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18**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19**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20**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22**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c**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c**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타르굼을 따름. 히, '모든 남자 아이')

모세의 탄생

EXODUS 2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3**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

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⁴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⁵○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⁶열어 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⁷그 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⁸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⁹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¹⁰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a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b모세라고 지었다.(a 히, '마샤' b 히, '모세')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¹¹○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¹²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¹³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¹⁴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시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¹⁵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¹⁶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¹⁷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¹⁸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¹⁹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였습니다." ²⁰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²¹c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심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c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샅 1:16과 4:11에서는 호باط이고, 출 2:21에서는 르우엘이고, 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²²심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낫선 땅에서 d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라고 지었다.(d 히, '게르')

²³○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²⁴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²⁵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EXODUS 3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a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a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삿 1:16과 4:11에서는 호박이고, 출 2:21에서는 르우엘이고, 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²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³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⁶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⁷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⁸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 ⁹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¹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¹¹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¹²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¹³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¹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b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b 칠십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¹⁵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c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c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14절의 '나는.....이다(또는 있다)'와 발음이 비슷하고, 뜻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이 있음. 6:3의 주를 볼 것)

¹⁶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¹⁷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¹⁸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

고 요구하여라. ¹⁹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d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d 히, '전능한 손이 강제로 시키지 않고서는') ²⁰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²¹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 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²²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EXODUS 4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²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³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⁵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 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⁶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⁷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⁸"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a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b표징은 믿을 것이다.(a 히, '소리를 듣지 않는다' b 히, '소리는') ⁹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¹⁰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¹¹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¹²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¹³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¹⁴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¹⁵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¹⁶그가 너를 대신 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¹⁷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다

18○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19**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20**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 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21○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22**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말아들이다. **23**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말아들을 죽게 하겠다.'"

24○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 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25**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c모세의 d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e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c 히, '그의' d '발'은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 e 또는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 **26**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27○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28**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29**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30**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굶어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서다

EXODUS 5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2**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3**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4**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5**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6○바로는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7**"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8**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⁹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¹⁰○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쥬을 주지 않겠다. ¹¹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쥬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¹²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쥬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들였다. ¹³"너희는, 쥬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¹⁴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든 오늘든,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 그쳤다.

¹⁵○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¹⁶저희 종들은 쥬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¹⁷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¹⁸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쥬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¹⁹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²⁰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²¹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 셈이오."

모세가 주님께 호소하다

²²○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 곳에 보내셨습니까? ²³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EXODUS 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²○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³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a'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b'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a 히, '엘 샤다이' b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어 네 자음 글자를 유대교에서는 '아도나이(주)' 또는 '엘로힘(하나님)'으로 읽고, 같은 이름을 칠십인역과 신약에서는 '퀴리오스(주)'로 부르고 있음. 16세기 이래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번역이 오랜 전통을 따라 '주'로 부르고 있음) ⁴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⁵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⁶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

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⁷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⁸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⁹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¹⁰주님께서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¹¹"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¹²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¹³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 ¹⁴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เบน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เบน 가문이다.
 - ¹⁵○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 ¹⁶○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 ¹⁷○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립니와 시므이이다.
 - ¹⁸○고핫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인데, 고핫은 백삼십삼 년을 살았다.
 - ¹⁹○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 ²⁰○암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암람은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 ²¹○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벅과 시그리이다.
 - ²²○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 ²³○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 ²⁴○고라의 아들들은 앓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삼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 ²⁵○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 ²⁶○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²⁷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주님의 명령

28○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29**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30**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EXODUS 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2**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3**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4**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5**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6**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7**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세 살이었다.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8○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9**"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10**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11**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12**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13**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째 재앙:물이 피가 되다]

1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15**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16**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7**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9○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필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필 것이다." **20**○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21**그러자 강에 있

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²²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²³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²⁴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²⁵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레가 지났다.

둘째 재앙:개구리 소동

EXODUS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²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³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⁴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⁶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⁷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⁸그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 주겠다." ⁹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¹⁰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¹¹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¹²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¹³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 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¹⁴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¹⁵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셋째 재앙:이 소동

¹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¹⁷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¹⁸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¹⁹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a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

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a 히, '손가락')

넷째 재앙:파리 소동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 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21**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22**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23**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b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속량할 것이니') **24**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 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6**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27**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8**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29**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Exo 8:바랍니다." **30**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31**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하셨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다섯째 재앙:집짐승의 죽음

EXODUS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2**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3**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5**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6**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7**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

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피부병 전염

8○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9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10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11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12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곱째 재앙:우박

13○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14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15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6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17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18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것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19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20바로와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21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23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24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25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26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옳으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28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 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29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

치려는 것입니다. ³⁰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³¹이 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³²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떨어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³³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³⁴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³⁵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덟째 재앙:메뚜기 소동

EXODUS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²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 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³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⁴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⁵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⁶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⁷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⁸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러 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⁹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¹⁰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 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¹¹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¹²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¹³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 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¹⁴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¹⁵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

성귀를 모두 먹어 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17**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18**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19**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a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a 히, '암 썬프') **20**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째 재앙: 어두움이 땅을 덮다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22**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 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25**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26** 우리는 우리의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 지를 알 수 없습니다." **27**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28**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EXODUS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2**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불이와 금불이를 요구하게 하여라." **3**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4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5**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말아들을 비롯하여, 멧돌질하는 몸종의 말아들과 모든 짐승의 말배가 다 죽을 것이다. **6**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7**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8**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¹⁰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유월절

EXODUS 12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a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a 아빕월, 양력 삼월 중순 이후) ³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⁴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⁵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⁶너희는 그것을 이 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 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⁷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⁸그 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⁹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¹⁰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¹¹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b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b 히, '페싸흐(넘다)'. 우리말 '유월'은 '넘어가다' 또는 '지나가다'는 뜻(13, 27절의 주를 볼 것)) ¹²그 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¹³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c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 남을 것이다.(c 히, '파싸흐') ¹⁴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무교절

¹⁵○"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¹⁶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¹⁷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¹⁸너희는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그 달 스무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¹⁹이레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²⁰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 번째 유월절

21○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22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23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24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25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26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27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앞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d '유월절(페싸흐)'과 '지나가다(파Exo 12:싸흐)'가 같은 어원에서 나옴)

28○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열째 재앙:처음 난 것들의 죽음

29○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말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말아들과 짐승의 말배까지 모두 치시니, 30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 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31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32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33○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34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메고 나섰다. 35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36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37○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육십만 가량이 되었다. 38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39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40○이스라엘 자손이 e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다.(e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 역에는 '이집트와 가나안') 41마침내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42그 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

우면서 지켜 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유월절 규제

43○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제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44**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45**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46**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47**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48**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49**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50○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51**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만이 봉헌

EXODUS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무교절

3○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4**첫째 달인 아빕월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5**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6**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7**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8**그 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9**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10**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만이

11○"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12**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

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¹³ 그러나 나귀의 말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말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¹⁴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¹⁵ 그 때에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말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¹⁶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¹⁷ ○바로 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¹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a 히, '암 쭈프') ¹⁹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²⁰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²¹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 길을 비추어 주셨다. ²²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홍해를 건너다

EXODUS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므딤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³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터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⁵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⁶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⁷ 그는 특수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⁸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a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a 히, '높은 손으로') ⁹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10○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11**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3**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15○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6**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꺾**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17**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8**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9○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20**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 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21○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22**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23**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24**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25**주님께서 b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b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병거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26○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27**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28**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29**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30○바로 그 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주검을 보게 되었다. **31**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의 노래

EXODUS 15 그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려나.

3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4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빠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5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6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7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킵니다.

9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10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11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13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a 또는 '가나안 땅') **14**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떨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15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16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17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 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18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19○바로와 그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
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²⁰그 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²¹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 물

²²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²³마침내 그들이 b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b '쓰다') ²⁴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²⁵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 곳이다. ²⁶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²⁷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 곳 물가에 진을 쳤다.

만나와 메추라기

EXODUS 1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a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a '시브월', 양력 사월 중순 이후) ²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³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⁵매주 엿셋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⁶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⁷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⁸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9○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10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11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13○그 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 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15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b"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b 히, '만 후(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옴) 16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17○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18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19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다. 20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남겨 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21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22○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23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24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날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6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 것입니다."

27○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28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29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0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31○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c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c 이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15절의 주를 볼 것) 32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33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 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34그래서 아론은, 주님

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³⁵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³⁶(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바위에서 물이 솟다(민 20:1-1c

EXODUS 1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²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³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⁴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⁶이제 내가 저기 호렙 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⁷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a므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b맛사라고도 한다.(a '다툼' b '시험함')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

⁸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⁹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¹⁰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¹¹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¹²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¹³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¹⁴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¹⁵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c'여호와눗시'라 하고,(c 히, '아도나이 눗시(주님은 나의 깃발)') ¹⁶d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d 또는 '한 손이 주님의 보좌 위에 있으니' 또는 '주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함)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EXODUS 18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a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a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샛 1:16과 4:11에서는 호박이고, 출 2:21에서는 르우엘이고, Exo 18: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²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³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숨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b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b 히, '게르') ⁴또 한 아들의 이름은 c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c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⁵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⁶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⁷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⁸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⁹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¹⁰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¹¹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¹²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재판관 임명(신 1:9-18)

¹³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¹⁴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 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¹⁵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를 찾아옵니다. ¹⁶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¹⁷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¹⁸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¹⁹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²⁰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 주게. ²¹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²²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 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²³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24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25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 26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 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27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움을 받으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 산에 이르다

EXODUS 19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a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a 시반월, 양력 오월 중순 이후) 2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3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4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5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7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8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10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11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 12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3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14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15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16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18 그 때에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

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¹⁹나 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²⁰주님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²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²²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²³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에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²⁴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²⁵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십계명(신 5:1-21)

EXODUS 20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²"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³너희는 a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a 또는 '나 밖에는')

⁴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⁵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⁶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⁷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⁸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⁹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¹⁰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¹¹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¹²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¹³살인하지 못한다.

¹⁴간음하지 못한다.

¹⁵도둑질하지 못한다.

¹⁶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¹⁷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신 5:22-33)

18○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19**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20**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21**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제단에 관한 법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23**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24**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25**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26**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종에 관한 법(신 15:12-18)

EXODUS 21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a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a 또는 '재판장')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8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 안 된다. 9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10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 안 된다. 1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훗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7**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유자의 책임

28○"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도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9**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도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30**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31**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32**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도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36**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배상에 관한 법

EXODUS 22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3**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4**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5○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6○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날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7○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8**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a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댄는지 안 댄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9○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a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

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10○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11**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12**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13**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14○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15**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16○"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꺾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7**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18○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19○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0○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21○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22**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23**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24**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5○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26**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걸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7**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28○너희는 a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a 또는 '재판장')

29○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빙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말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30**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31○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EXODUS 23 "너희는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²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³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⁴○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⁵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러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한다.

⁶○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⁷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⁸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⁹○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¹⁰○"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¹¹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¹²○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¹³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출 34:18-26; 신 16:1-17)

¹⁴○"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¹⁵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a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 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a 양력 삼월 중순 이후)

○너희는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¹⁶○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¹⁷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¹⁸○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¹⁹○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약속과 지시

²⁰○"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 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²¹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

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2○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23○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24**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25**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26**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27○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28**내가 b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b 또는 '재앙' 또는 '전염병')

29○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30**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31**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32**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33**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다

EXODUS 2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일흔 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2**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3**○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4○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5**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6**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7**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8**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9○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일흔 명과 함께 올라갔다. **10**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11**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내 산에서 사십 일을 보내다

1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13**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14**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15○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16**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옛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렛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17**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18**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사십 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성소를 지을 예물

EXODUS 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3**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4**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5**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6**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7a**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a 조끼 모양의 옷.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뭉을 넣음)

8○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언약궤 모형(출 37:1-9)

10○"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 높이가 한 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11**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의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13**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14**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뭉 수 있게 하고, **15**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16**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17○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18**금을 두들겨서 그룹 두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여라. **19**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20**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21**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22**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께 차리는 상(출 37:10-16)

²³○"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너비가 한 자,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²⁴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²⁵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²⁶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²⁷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²⁸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²⁹상에 올려 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 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³⁰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 두도록 하여라."

등잔대 모형(출 37:17-2d)

³¹○"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³²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세 개를 나오게 하여라. ³³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³⁴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 잔 네 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³⁵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여섯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³⁶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³⁷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³⁸등잔불 집게와 불뚱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³⁹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⁴⁰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성막(출 36:8-38)

EXODUS 26 "열 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릇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²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³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⁴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⁵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스물 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⁶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스물 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⁷○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 털로 짠 열한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⁸각 폭의 길이는 서른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⁹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10**다섯 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쇠 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쇠 개를 만들어라. **11**또 낫쇠 갈고리 쇠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12**그리고 여분으로 남아 있는 천막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13**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 있는 것은,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14○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15○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16**각 널빤지는, 길이를 열 자, 너비를 한 자 반으로 하고, **17**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어라. **19**그 스무 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침 밑받침은 은으로 마흔 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꽃이를 꽃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20**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어라. **21**밑받침 마흔 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침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22**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개를 만들어라. **23**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어라. **24**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25**그러면 그것은 여덟 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두 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다.

26○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29**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쥔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세워라.

31○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32**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33**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a증거궤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4**지성소에 있는 a증거궤는 b속죄판으로 덮여라.(a 또는 '법궤' b 또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35**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36○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37**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다섯은 낫쇠를 부어 만들어라."

제단(출 38:1-7)

EXODUS 27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 자로 하여라. **2**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낫쇠를 입혀야 한다. **3**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⁴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⁵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⁶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⁷이 채들을 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⁸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뜰 울타리(출 38:9-20)

⁹○"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백 자가 되게 하여라. ¹⁰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밀받침 스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¹¹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백 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밀받침 스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¹²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쉰 자로 하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¹³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쉰 자로 하여라. ¹⁴동쪽의 정문 한쪽에 밀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쳐라. ¹⁵다른 한쪽에도 밀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쳐라. ¹⁶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스무 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밀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¹⁷○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 갈고리를 달고, 그 밀받침은 놋쇠로 하여라. ¹⁸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백 자, 너비는 쉰 자, 높이는 다섯 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 치되,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¹⁹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등불 관리(레 24:1-4)

²⁰○"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짚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 두어라. ²¹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a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 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a 또는 '법궤')

제사장의 예복(출 39:1-7)

EXODUS 28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²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³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⁴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받이와 에봇과 겹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⁵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6 그들은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7**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8** 에봇 위에 떨어뜨리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9** 너는 홍옥수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10**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11**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테에 물려라. **12**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13**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14**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가슴받이(출 39:8-21)

15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받이를 만들어야 한다. **16**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 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17**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18**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19**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박고, **20**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마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테에 물려라. **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열둘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22 가슴받이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23** 그리고 가슴받이에 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고리 두 개를 가슴받이의 양쪽 끝에 달아라. **24**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받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어라. **25**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테에 매달아라. **26**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받이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27**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28** 청색 실로 꼰 꼰으로 가슴받이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29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받이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30** 판결 가슴받이 안에 a우림과 b똥뭍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a '빛' b '완전함')

제사장의 또다른 예복(출 39:22-31)

31 "에봇에 딸린 겹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32** 그 겹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깃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겹옷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34**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35**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36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c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c 또는 '주님께 거룩') **37**이것을 청색 실로 끈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38**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 줄 것이다.

39너는 가는 모시 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 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수를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40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띠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41**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42**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 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43**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제사장 위임식 준비(레 8:1-36)

EXODUS 29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2**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3**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숫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4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5**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받이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띠게 하여라. **6**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7**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8**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9**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10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11**회막 어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12**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13**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 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14**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15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숫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16**그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17**그 숫양의 각을 뜯은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뜯은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18**이렇게 하여, 그 숫양 전

제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19너는 다시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20그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컷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컷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21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22이 숫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 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 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23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 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24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25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26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숫양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뚝으로 가져라.

27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숫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28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29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게 하여라. 30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31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숫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32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숫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둔 빵을 먹는다. 33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34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 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35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36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37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번제(민 28:1-8)

38"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39숫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숫양은 저녁에 바쳐라. 40첫 번째 숫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어 짠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 주 사분의 일 힌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⁴¹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숫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⁴²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⁴³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⁴⁴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⁴⁵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⁴⁶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분향단(출 37:25-28)

EXODUS 30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²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놓아라. ³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⁴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⁵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⁶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 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⁷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⁸저녁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⁹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¹⁰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회막 세금

¹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²"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¹³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¹⁴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¹⁵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 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¹⁶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 줄 것이다."

놋 물두멍

17○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19**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20**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21**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성별하는 향유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몰약을 오백 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이백오십 세겔, **24**계피를 오백 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힌을 취하여라. **25**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26**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28**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29**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30**○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31**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32**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이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33**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가루 향

3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35**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36**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37**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8**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회막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출 35:30-36:1)

EXODUS 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3**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4**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고, **5**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6○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⁷회막과 a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b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a 또는 '법궤' b 또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⁸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⁹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¹⁰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¹¹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안식일

¹²○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³"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¹⁴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거래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¹⁵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¹⁶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¹⁷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증거판

¹⁸○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c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c 히, '손가락')

금송아지(신 9:6-29)

EXODUS 32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²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 오시오." ³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 왔다. ⁴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⁵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⁶○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⁷○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⁸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⁹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 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¹⁰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11○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12**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4**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15○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16**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17**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18**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19**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 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20**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21○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 두셨습니까?" **22**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23**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24**내가 그들에게, 금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 오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금불이를 가져 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25○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26**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27**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28**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 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삼천 명쯤 죽었다. **29**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30○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31**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픔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33**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34**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35○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EXODUS 3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2**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3**너희는 이제 곧 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5**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6**이스라엘 자손은 호렙 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회막

7○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8**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9**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10**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11**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다]

12○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 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15**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 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16**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17○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 주마." **18**그 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9**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20**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21**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22**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23**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돌판(신 10:1-5)

EXODUS 3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2**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 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3**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4**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5**그 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6**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7**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8**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9**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시다(출 23:14-19; 신 7:1-5; 16:1-7)

10○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11**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12**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다. **13**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14○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5**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

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¹⁶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꺾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¹⁷○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¹⁸○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빕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¹⁹○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말배이든지 양의 말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²⁰나귀의 말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말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 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²¹○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²²○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a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a 또는 '가을에는')

²³○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²⁴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²⁵○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²⁶○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 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²⁷○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²⁸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사십 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다

²⁹○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³⁰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³¹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³²그 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³³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³⁴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³⁵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안식일 규제

EXODUS 35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 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²옛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³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성막 자재의 헌납(출 25:1-9)

⁴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⁵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 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⁶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⁷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⁸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⁹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회막 기구들(출 39:32-43)

¹⁰"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¹¹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¹²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¹³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¹⁴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¹⁵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¹⁶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¹⁷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¹⁸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¹⁹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²⁰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²¹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 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 왔다. ²²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 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²³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 왔다. ²⁴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 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 왔다. ²⁵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 왔다. ²⁶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²⁷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²⁸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 왔다. ²⁹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

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회막 기술자(출 31:1-11)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31**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32**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어, 그 생각해 낸 것을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고, **33**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4**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35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EXODUS 36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재 헌납

2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모았다. **3**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 왔다. **4**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5**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6**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성막을 만들다(출 26:1-37)

8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 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곧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9**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씩이요, 너비는 넉 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10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11**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12**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쉰 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13** 금 갈고리를 쉰 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14○그들은 염소 털로 짠 천 열한 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15**폭의 길이는 서른 자요, 너비는 넉 자로,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16**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17**다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쉰 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쉰 개를 만들었다. **18**놋쇠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19○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20○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21**널빤지는 길이를 열 자, 너비를 한 자 반으로 하고 **22**널빤지에 두 축꽃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23**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24**그 널빤지 스무 개 밑에 받칠 밀받침은 은으로 마흔 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꽃을 밀받침을 두 개씩 만들었다. **25**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26**밀받침 마흔 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밀받침을 두 개씩 받치게 하였다. **27**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개를 만들었다. **28**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29**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30**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밀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 밀받침이 모두 열여섯 개였다.

31○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 **32**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다섯 개를 만들었다. **33**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34**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35○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36**이것을 칠 기둥 네 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네 개도 부어 만들었다. **37**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짚으며, **38**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밀받침 다섯 개를 놋으로 만들었다.

언약궤를 만들다(출 25:10-22)

EXODUS 37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 높이가 한 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2**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3**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4**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5**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였다.

6○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 반이요 너비가 한 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7**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였다. **8**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

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⁹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상을 만들다(출 25:23-30)

¹⁰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¹¹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¹²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¹³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¹⁴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¹⁵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¹⁶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 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출 25:31-40)

¹⁷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¹⁸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¹⁹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의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²⁰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송아꽃 모양 잔 네 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²¹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여, 곁가지 여섯 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²²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²³등잔 일곱 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뿔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²⁴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분향단을 만들다(출 30:1-5)

²⁵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 ²⁶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²⁷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²⁸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성별하는 기름과 향(출 30:22-38)]

²⁹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번제단을 만들다(출 27:1-8)

EXODUS 38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 자로 하였다. **2**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3**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4**제단에 쓸 그물을 놋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5**놋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6**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7**이 채들을 번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놋 물두멍을 만들다(출 30:18)

8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출 27:9-19)

9그는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러쌌다. 그 남쪽 휘장은 백 자로 하였다. **10**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그 밑받침 스무 개를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11**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 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무 개와 밑받침 스무 개를 놋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12**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 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열 개와 밑받침 열 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13**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 자로 하였다.

14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15**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16**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짠 것이다. **17**기둥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18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스무 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다섯 자이다. **19**그것을 칠 기둥 네 개와 그 밑받침 네 개를 놋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20**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성막 공사 물자 명세

21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22**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23**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24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이십구 달란트 칠백삼십 세겔이다. 25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다. 26 스무 살이 넘어서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 세겔 곧 한 베가씩 낸 셈이다. 27 성소 밀받침과 휘장 밀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은 백 달란트가 들었으니, 밀받침 백 개에 백 달란트 곧 밀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28 천칠백칠십오 세겔을 들어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29 흔들어 바친 놋쇠는 칠십 달란트 이천사백 세겔인데, 30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밀받침과 놋제단과 이에 딸린 놋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31 울타리 사면의 밀받침과 뜰 정문의 밀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다(출 28:1-14)

EXODUS 39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2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3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 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섞어 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4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5 에봇 위에 띠 허리띠는 에봇을 찢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6 홍옥수 두 개를 깎아서 금테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7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가슴받이를 만들다(출 28:15-30)

8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가슴받이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9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받이다. 10 거기에 보석을 네 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11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12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박고, 13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마노와 벽옥을 박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테에 물렸다. 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15 가슴받이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16 금테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고리를 가슴받이의 양쪽 끝에 달았다. 17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받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었다. 18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테에 매고, 19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받이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20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²¹청색 실로 곧 곧으로 가슴받이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도 매어서,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제사장의 또다른 예복을 만들다(출 28:31-43)

²²그들은 에봇에 딸린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²³그 겹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깃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²⁴그들은 겹옷 자락 둘레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곧 모시 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²⁵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겹옷 자락에 달린 석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²⁶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입을 수 있게, 겹옷 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⁷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²⁸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곧 모시 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²⁹가늘게 곧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³⁰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³¹그것을 청색 실로 곧 곧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성막 완공 검사(출 35:10-19)

³²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³³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 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밀받침과, ³⁴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³⁵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³⁶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³⁷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³⁸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³⁹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⁴⁰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밀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⁴¹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 들이다. ⁴²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⁴³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회막 봉헌

EXODUS 4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²"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³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⁴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

려 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⁵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⁶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⁷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⁸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드리워라.

⁹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¹⁰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¹¹너는 물두멍과 그 밀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¹²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¹³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¹⁴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¹⁵그리고 네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¹⁶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¹⁷마침내 제 이 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¹⁸모세는 밀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꺾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¹⁹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⁰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꺾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²¹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²회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²³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 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⁴회막 안의 상 맞은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²⁵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⁶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들여놓고, ²⁷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²⁸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²⁹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³⁰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³¹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³²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³³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주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다(민 9:15-23)

³⁴그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³⁵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³⁶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걷히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³⁷그러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걷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³⁸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Footnotes

Footnote from Exodus 1:22 ([Back](#))

[\[1\]](#) **1:22** Samaritan, Septuagint, Targum; Hebrew lacks *to the Hebrews*

Footnote from Exodus 2:3 ([Back](#))

[\[1\]](#) **2:3** Hebrew *papyrus reeds*

Footnote from Exodus 2:10 ([Back](#))

[\[2\]](#) **2:10** *Moses* sounds like the Hebrew for *draw out*

Footnote from Exodus 2:11 ([Back](#))

[\[3\]](#) 2:11 Hebrew *brothers*

Footnote from Exodus 2:22 ([Back](#))

[\[4\]](#) **2:22** *Gershom* sounds like the Hebrew for *sojourner*

Footnote from Exodus 3:14 ([Back](#))

[\[1\]](#) **3:14** Or *I AM WHAT I AM*, or *I WILL BE WHAT I WILL BE*

Footnote from Exodus 3:15 ([Back](#))

[2] **3:15** The word *LORD*, when spelled with capital letters, stands for the divine name, *YHWH*, which is here connected with the verb *hayah*, “to be” in verse 14

Footnote from Exodus 3:19 ([Back](#))

[\[3\]](#) **3:19** Septuagint, Vulgate; Hebrew *go, not by a mighty hand*

Footnote from Exodus 4:6 ([Back](#))

[\[1\]](#) 4:6 Hebrew *into your bosom*; also verse 7

Footnote from Exodus 4:6 ([Back](#))

[\[2\]](#) **4:6**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Exodus 4:25 ([Back](#))

[\[3\]](#) 4:25 Hebrew *his*

Footnote from Exodus 5:5 ([Back](#))

[\[1\]](#) **5:5** Samaritan *they are now more numerous than the people of the land*

Footnote from Exodus 6:3 ([Back](#))

[\[1\]](#) **6:3** Hebrew *El Shaddai*

Footnote from Exodus 8:1 ([Back](#))

[\[1\]](#) **8:1** Ch 7:26 in Hebrew

Footnote from Exodus 8:3 ([Back](#))

[\[2\]](#) **8:3** Or *among your people*

Footnote from Exodus 8:5 ([Back](#))

[\[3\]](#) **8:5** Ch 8:1 in Hebrew

Footnote from Exodus 8:12 ([Back](#))

[4] 8:12 Or *which he had brought upon Pharaoh*

Footnote from Exodus 8:22 ([Back](#))

[\[5\]](#) **8:22** Or *that I the LORD am in the land*

Footnote from Exodus 8:23 ([Back](#))

[\[6\]](#) **8:23** Septuagint, Vulgate; Hebrew *set redemption*

Footnote from Exodus 9:14 ([Back](#))

[\[1\]](#) **9:14** Hebrew *on your heart*

Footnote from Exodus 9:32 ([Back](#))

[\[2\]](#) **9:32** A type of wheat

Footnote from Exodus 10:10 ([Back](#))

[\[1\]](#) **10:10** Hebrew *before your face*

Footnote from Exodus 12:6 ([Back](#))

[\[1\]](#) **12:6** Hebrew *between the two evenings*

Footnote from Exodus 12:44 ([Back](#))

[\[2\]](#) **12:44** Or *servant*; the Hebrew term “*ebed*” designates a range of social and economic roles (see [Preface](#))

Footnote from Exodus 13:19 ([Back](#))

[\[1\]](#) **13:19** Samaritan, Septuagint; Hebrew *he*

Footnote from Exodus 14:20 ([Back](#))

[\[1\]](#) **14:20** Septuagint *and the night passed*

Footnote from Exodus 14:25 ([Back](#))

[\[2\]](#) **14:25** Or *binding* (compare Samaritan, Septuagint, Syriac); Hebrew *removing*

Footnote from Exodus 14:27 ([Back](#))

[\[3\]](#) 14:27 Hebrew *shook off*

Footnote from Exodus 15:1 ([Back](#))

[\[1\]](#) **15:1** Or *its chariot*; also verse 21

Footnote from Exodus 15:23 ([Back](#))

[\[2\]](#) 15:23 *Marah* means *bitterness*

Footnote from Exodus 15:25 ([Back](#))

[\[3\]](#) 15:25 Or *tree*

Footnote from Exodus 15:25 ([Back](#))

[\[4\]](#) **15:25** Hebrew *he*

Footnote from Exodus 16:15 ([Back](#))

[\[1\]](#) **16:15** Or “*It is manna.*” Hebrew *man hu*

Footnote from Exodus 16:16 ([Back](#))

[2] 16:16 An *omer* was about 2 quarts or 2 liters

Footnote from Exodus 16:36 ([Back](#))

[\[3\]](#) **16:36**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Exodus 17:7 ([Back](#))

[\[1\]](#) **17:7** *Massah* means *testing*

Footnote from Exodus 17:7 ([Back](#))

[\[2\]](#) **17:7** *Meribah* means *quarreling*

Footnote from Exodus 17:16 ([Back](#))

[\[3\]](#) **17:16** A slight change would yield *upon the banner*

Footnote from Exodus 18:3 ([Back](#))

[\[1\]](#) **18:3** *Gershom* sounds like the Hebrew word for *sojourner*

Footnote from Exodus 18:4 ([Back](#))

[\[2\]](#) **18:4** *Eliezer* means *My God is help*

Footnote from Exodus 18:6 ([Back](#))

[\[3\]](#) **18:6** Hebrew; Samaritan, Septuagint, Syriac *behold*

Footnote from Exodus 18:11 ([Back](#))

[\[4\]](#) **18:11** Hebrew *with them*

Footnote from Exodus 19:13 ([Back](#))

[1] 19:13 That is, shot with an arrow

Footnote from Exodus 20:3 ([Back](#))

[\[1\]](#) 20:3 Or *besides*

Footnote from Exodus 20:6 ([Back](#))

[2] 20:6 Or *to the thousandth generation*

Footnote from Exodus 20:13 ([Back](#))

[3] 20:13 The Hebrew word also covers causing human death through carelessness or negligence

Footnote from Exodus 20:18 ([Back](#))

[\[4\]](#) **20:18** Samaritan, Septuagint, Syriac, Vulgate; Masoretic Text *the people saw*

Footnote from Exodus 21:2 ([Back](#))

[\[1\]](#) **21:2** Or *servant*; the Hebrew term “*ebed*” designates a range of social and economic roles; also verses 5, 6, 7, 20, 21, 26, 27, 32 (see [Preface](#))

Footnote from Exodus 21:8 ([Back](#))

[\[2\]](#) **21:8** Or *so that he has not designated her*

Footnote from Exodus 21:17 ([Back](#))

[3] 21:17 Or *dishonors*; Septuagint *reviles*

Footnote from Exodus 21:23 ([Back](#))

[\[4\]](#) **21:23** Or *so that her children come out and it is clear who was to blame, he shall be fined as the woman's husband shall impose on him, and he alone shall pay. If it is unclear who was to blame . . . ;*

Footnote from Exodus 21:32 ([Back](#))

[\[5\]](#) **21:3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Exodus 22:1 ([Back](#))

[\[1\]](#) **22:1** Ch 21:37 in Hebrew

Footnote from Exodus 22:2 ([Back](#))

[\[2\]](#) **22:2** Ch 22:1 in Hebrew

Footnote from Exodus 22:15 ([Back](#))

[3] 22:15 Or *it is reckoned in* (Hebrew *comes into*) *its hiring fee*

Footnote from Exodus 22:16 ([Back](#))

[4] **22:16** Or *a girl of marriageable age*; also verse 17

Footnote from Exodus 22:16 ([Back](#))

[\[5\]](#) **22:16** Or *engagement present*; also verse 17

Footnote from Exodus 22:20 ([Back](#))

[6] 22:20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Exodus 23:25 ([Back](#))

[\[1\]](#) 23:25 Septuagint, Vulgate *I*

Footnote from Exodus 23:28 ([Back](#))

[\[2\]](#) **23:28** Or *the hornet*

Footnote from Exodus 23:31 ([Back](#))

[\[3\]](#) **23:31**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Exodus 24:3 ([Back](#))

[\[1\]](#) **24:3** Or *all the just decrees*

Footnote from Exodus 25:5 ([Back](#))

[\[1\]](#) **25:5** Uncertain; possibly *dolphin skins*, or *dugong skins*; compare 26:14

Footnote from Exodus 25:10 ([Back](#))

[\[2\]](#) **25:10**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25:17 ([Back](#))

[\[3\]](#) **25:17** Or *cover*

Footnote from Exodus 25:25 ([Back](#))

[4] 25:25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25:39 ([Back](#))

[\[5\]](#) **25:39**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Exodus 26:2 ([Back](#))

[\[1\]](#) **26: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27:1 ([Back](#))

[\[1\]](#) **27: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28:16 ([Back](#))

[1] 28:16 A *span* was about 9 inches or 22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28:17 ([Back](#))

[\[2\]](#) **28:17** The identity of some of these stones is uncertain

Footnote from Exodus 28:32 ([Back](#))

[\[3\]](#) **28:32**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possibly *coat of mail*

Footnote from Exodus 29:12 ([Back](#))

[\[1\]](#) 29:12 Hebrew *all*

Footnote from Exodus 29:18 ([Back](#))

[\[2\]](#) 29:18 Or *an offering by fire*; also verses 25, 41

Footnote from Exodus 29:40 ([Back](#))

[\[3\]](#) **29:40** Possibly an ephah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Exodus 29:40 ([Back](#))

[4] 29:40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Exodus 30:2 ([Back](#))

[\[1\]](#) **30: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30:13 ([Back](#))

[\[2\]](#) **30:13**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Exodus 30:13 ([Back](#))

[\[3\]](#) **30:13** A *gerah* was about 1/50 ounce or 0.6 gram

Footnote from Exodus 30:20 ([Back](#))

[\[4\]](#) **30:20** Or *an offering by fire*

Footnote from Exodus 30:24 ([Back](#))

[\[5\]](#) **30:24**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Exodus 31:10 ([Back](#))

[\[1\]](#) **31:10** Or *garments for worship*

Footnote from Exodus 32:4 ([Back](#))

[\[1\]](#) **32:4** Hebrew *cast metal*; also verse 8

Footnote from Exodus 33:9 ([Back](#))

[\[1\]](#) 33:9 Hebrew *he*

Footnote from Exodus 34:7 ([Back](#))

[\[1\]](#) **34:7** Or *to the thousandth generation*

Footnote from Exodus 34:19 ([Back](#))

[\[2\]](#) **34:19** Septuagint, Theodotion, Vulgate, Targum;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Exodus 34:28 ([Back](#))

[\[3\]](#) **34:28** Hebrew *the ten words*

Footnote from Exodus 34:29 ([Back](#))

[\[4\]](#) 34:29 Hebrew *him*

Footnote from Exodus 35:7 ([Back](#))

[\[1\]](#) **35:7**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also verse 23; compare 25:5

Footnote from Exodus 35:19 ([Back](#))

[\[2\]](#) **35:19** Or *garments for worship*; see 31:10

Footnote from Exodus 36:9 ([Back](#))

[\[1\]](#) **36:9**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36:10 ([Back](#))

[\[2\]](#) **36:10** Probably Bezalel (compare 35:30; 37:1)

Footnote from Exodus 37:1 ([Back](#))

[\[1\]](#) **37: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37:12 ([Back](#))

[\[2\]](#) **37:12**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37:24 ([Back](#))

[\[3\]](#) **37:2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Exodus 38:1 ([Back](#))

[\[1\]](#) **38: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xodus 38:24 ([Back](#))

[\[2\]](#) **38:2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Exodus 38:26 ([Back](#))

[\[3\]](#) **38:26** A *beka* was about 1/5 ounce or 5.5 grams

Footnote from Exodus 39:1 ([Back](#))

[\[1\]](#) **39:1** Or *garments for worship*

Footnote from Exodus 39:9 ([Back](#))

[\[2\]](#) **39:9** A *span* was about 9 inches or 22 centimeters

레위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Leviticus 1](#) • [Leviticus 2](#) • [Leviticus 3](#) • [Leviticus 4](#) • [Leviticus 5](#) • [Leviticus 6](#) • [Leviticus 7](#)
• [Leviticus 8](#) • [Leviticus 9](#) • [Leviticus 10](#) • [Leviticus 11](#) • [Leviticus 12](#) • [Leviticus 13](#)
• [Leviticus 14](#) • [Leviticus 15](#) • [Leviticus 16](#) • [Leviticus 17](#) • [Leviticus 18](#) • [Leviticus 19](#)
• [Leviticus 20](#) • [Leviticus 21](#) • [Leviticus 22](#) • [Leviticus 23](#) • [Leviticus 24](#) • [Leviticus 25](#)
• [Leviticus 26](#) • [Leviticus 27](#)

레위기

번제

LEVITICUS 1 주님께서 모세를 a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a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 나시는 곳(출 26장)) 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 로 바쳐라.

3○바치는 제물이 소를 b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 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b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바치는 제사) 4제 물을 가져 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 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5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6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 며 놓으면, 7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8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여 놓아야 한다. 9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0○바치는 제물이 가축 떼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11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12제물 을 가져 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 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여 놓아야 한다. 13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내장 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 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 다.

14○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c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 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c 짐승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대신 날짐승을 번 제물로 바침) 15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 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16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제물의 먹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 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17그 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제물

LEVITICUS 2 "나 주에게 곡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2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 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

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³곡식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⁴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⁵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⁶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제물이다.

⁷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⁸이렇게 하여 곡식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 갈 것이다. ⁹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¹⁰곡식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¹¹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¹²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 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¹³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에는 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¹⁴네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찢은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¹⁵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제물이다. ¹⁶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 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제사

LEVITICUS 3 "a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a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몸을 일부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음) ²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³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⁴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⁵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6○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7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8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9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 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10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11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 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제물로 바칠 것이다.

12○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13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14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15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16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 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17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LEVITICUS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3○특히,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4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5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6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a취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a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려고 친 것(출 26:31-3c) 7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8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야 한다. 떼어 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9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10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 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 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11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12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 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1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14**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면, **15**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16**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7**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8**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19**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20**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21**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22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23**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24**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25**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26**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27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28**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29**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30**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3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32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 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 와서, **33**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34**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35**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 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 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LEVITICUS 5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3.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4.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5.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6.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7.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 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10. 번제물로 가져 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11.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에 바를 가져 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12.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 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13.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건제에 관한 규례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 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16.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숫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7.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

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 그는 가축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 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9**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LEVITICUS 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 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 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 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6** 그는 주에게 바치 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야 한다. **7**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 다."

번제를 드릴 때의 규례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10**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 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11**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 때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12** 제단 위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 여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13**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

14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 에 바쳐야 한다. **15**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16**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17**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 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18**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19○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21**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 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22**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23**제사장이 바치는 곡식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

2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26**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7**그 고기에 달는 것은 a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a 또는 '누구든지') **28**그 제물을 삶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29**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30**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 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

LEVITICUS 7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2**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4**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5**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6**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7**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와 곡식제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

8○"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 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9**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솔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10**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화목제

11"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2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13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14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15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6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 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17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18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19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20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1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24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25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6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27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

28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9"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30나 주에게 화목제사에서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 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 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31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32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33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

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뒤통으로 차지한다. **34**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맺는 말(1)

35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36**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맺는 말(2)

37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38**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LEVITICUS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3**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모아라." **4**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모으고 **5**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7**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 주고, 띠를 띠워 주고, 겹옷을 입혀 주고, 에봇을 걸쳐 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a**에봇 띠를 띠워 주었다. (**a** 조끼 모양의 옷,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달림) **8**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받이를 달아 주고, 그 가슴받이 속에다가 **b**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b** 이 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 사용한 것임. 사용 방법은 알려지지 않음) **9**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10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11**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밀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12**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3**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 주고, 띠를 띠워 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14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 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15**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밀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

다. **16**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떼어 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17**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족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 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18○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숫양을 끌어 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19**모세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20**그리고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21**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숫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22○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끌어 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23**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컹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24**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컹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25**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 냈다. **26**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27**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 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28**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29**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30○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31○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32**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33**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34**주님께서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5**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36**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LEVITICUS 9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2**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 오십시오. **3**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 오게 하고, **4**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 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5○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 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 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6**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7**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8○이 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9**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 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10**그러나 속죄제물에서 떼어 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11**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 가서 불에 태웠다.

12○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 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13**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 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14**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15○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16**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17**아론은 이어서 곡식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떼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18○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숫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 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19**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 낸 기름기와, 숫양에게서 떼어 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20**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21**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22○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 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23**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24**그 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LEVITICUS 10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 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²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³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⁴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⁵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⁶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⁷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 마십시오. 거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회막에 들어올 때에 지켜야 할 규제

⁸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⁹"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거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제이다. ¹⁰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¹¹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제물

¹²모세는, 아론 및 살아 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¹³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¹⁴그러나 흔들여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⁵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여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¹⁶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애써서 찾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 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¹⁷"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¹⁸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¹⁹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²⁰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럴것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LEVITICUS 1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³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⁴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⁵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⁶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⁷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⁸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⁹○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¹⁰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기 떼나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¹¹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¹²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¹³○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¹⁴검은소리개와 각종 붉은소리개와 ¹⁵각종 모든 까마귀와 ¹⁶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¹⁷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¹⁸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¹⁹고니와 각종 푸른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²⁰○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²¹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뿔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²²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아깨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²³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²⁴○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 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²⁵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²⁶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²⁷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²⁸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 타게 한다.

²⁹○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도마뱀과 ³⁰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³¹○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³²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³³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³⁴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³⁵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³⁶그렇지만 샘과 물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³⁷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³⁸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³⁹○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⁴⁰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된다. ⁴¹○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⁴²기어 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 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⁴³○너희는,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닿아,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⁴⁴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⁴⁵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⁴⁶○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기 떼와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⁴⁷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

LEVITICUS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³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⁴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삼십삼 일 동안,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⁵○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두 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육십육 일 동안을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⁶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짐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⁷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⁸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LEVITICUS 1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³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⁴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 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⁵이레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더 격리시킨다. ⁶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⁷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⁸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⁹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¹⁰제사장은 그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¹¹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¹²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 끝까지 퍼졌으면, ¹³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¹⁴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¹⁵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¹⁶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¹⁷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¹⁸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¹⁹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²⁰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²¹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²²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²³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²⁴○살갗을 불에 데었는데, 덴 자리의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²⁵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덴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²⁶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²⁷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²⁸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덴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덴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²⁹○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카락이 턱에 헌데가 생겼을 때에는, ³⁰제사장이 그 헌데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카락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³¹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³²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³³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³⁴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³⁵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³⁶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의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환 상태이다. ³⁷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³⁸○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³⁹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⁴⁰○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⁴¹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⁴²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데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⁴³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⁴⁴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⁴⁵○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⁴⁶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천이나 가죽 제품에 생기는 곰팡이

⁴⁷○"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⁴⁸또는 베나 털로 짠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⁴⁹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⁵⁰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레 동안 따로 두었다가, ⁵¹이레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⁵²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베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⁵³○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⁵⁴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레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⁵⁵곰팡이가 묻은 옷을 빨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⁵⁶그러나 천을 빨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 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⁵⁷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⁵⁸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⁵⁹○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

LEVITICUS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3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4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 있는 정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 오게 한다. 5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그릇에 담게 한다. 6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 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7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 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8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9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10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 와야 한다. 11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12제사장은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a록과 함께 속건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여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a 1록은 0.54리터(약 두 홑 반)) 13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숫양 한 마리를 잡는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14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15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16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17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 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18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19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20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21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여 바칠 속건제물로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 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십분의 일 에바만 가져 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22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23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 와야 한다. 24그러면 제사

장은 속건제물로 바칠 숫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²⁵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²⁶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²⁷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²⁸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곳에 덧바른다. ²⁹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³⁰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달는 대로 가져 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³¹ 힘이 달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³²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³³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³⁴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b**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b** '피부병'과 같은 뜻으로 사용됨) ³⁵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³⁶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³⁷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고,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³⁸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 두게 하여야 한다. ³⁹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⁴⁰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⁴¹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 낸 흙도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⁴²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 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 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⁴³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 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 안에 다시 퍼졌으면, ⁴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⁴⁵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재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⁴⁶ 특히 그 집을 잠가 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날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⁴⁷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⁴⁸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⁴⁹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두 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 오게 한다. ⁵⁰ 그 집 임자가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그릇에 담으면, ⁵¹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과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 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⁵²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⁵³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 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 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⁵⁴○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⁵⁵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⁵⁶또는 부스럼이나 뽕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⁵⁷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LEVITICUS 15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³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⁴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⁵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⁶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⁷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⁸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⁹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¹⁰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¹¹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¹²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¹³○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레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¹⁴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¹⁵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¹⁶○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¹⁷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¹⁸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19○"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0**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21**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2**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3**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4**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겨서 이레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25○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26**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27**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8**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29**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 와야 한다. **30**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31○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32○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33**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속죄일

LEVITICUS 16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다음은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a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a 지성소를 가리킴(출 26:31-35))

3○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훌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5**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6○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7또한 그는 숫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 놓고, 8그 숫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b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9아론은 주의 뿔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10b아사셀의 뿔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 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b 또는 '속죄의 염소'를'. 아사셀은 들 귀신의 이름(26절에서도))

11○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2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 있는 솥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3주 앞에서 향가루를 솥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c증거궤 위의 d뿔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c 또는 '법궤' d 또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14-15절에서도)) 14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뿔개 너머 곧 뿔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뿔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5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뿔개 너머와 뿔개 앞에 뿌려야 한다. 16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 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17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18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19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20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 둔 숫염소를 끌고 와서, 21살아 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22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23○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 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 두고, 24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25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26○e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e 또는 '염소를 속죄 염소로 보낸 그 사람도') 27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28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29○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f일곱째 달, 그 달 십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f 히, '티스리'월, 양력 구월 중순 이후) ³⁰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³¹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³²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³³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³⁴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LEVITICUS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³○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⁴그것을 회막 어귀로 가져 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⁵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 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⁶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⁷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솥염소 a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a 또는 '우상들') ⁸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⁹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피는 먹지 못한다

¹⁰○"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 버리고야 말겠다. ¹¹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¹²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¹³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¹⁴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¹⁵○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똥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

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¹⁶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성 관계에 관한 규례

LEVITICUS 1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³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⁴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⁵○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⁶○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⁷○너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로 네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⁸○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⁹○너는 네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네 아버지의 딸이든지 네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¹⁰○너는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네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¹¹○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네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네 누이이기 때문이다.

¹²○너는 네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¹³○너는 네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¹⁴○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 곧 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네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네 숙모이다.

¹⁵○너는 네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¹⁶○너는 네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¹⁷○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¹⁸○너는 네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네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¹⁹○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 20**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 21** ○너는 네 자식들을 **a**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a** 암몬 사람들의 신(왕상 11:7))
- 22**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 23**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 24**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25**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 내게 되었다. **26**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27**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28**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 냈듯이, 너희를 토해 낼 것이다. **29**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LEVITICUS 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3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4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죄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5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 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6**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 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7**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8**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9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10**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1○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12**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3○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14○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15○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16**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네 이웃의 a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a 히, '피')

17○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19○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20○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1**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 와야 한다. 이 때의 속건제물은 숫양이어야 한다. **22**제사장이 그 숫양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23○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b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해 동안은 그 과일을 b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b 히, '할레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24**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25**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들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6○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피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27○c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28○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c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c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 이방 종교의 의식)

29○너는 네 딸을 d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d 이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농경신을 섬기는 성소에서 일하였음)

30○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31○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 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2○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33○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34**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5○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36**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힌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7○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

LEVITICUS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3**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4**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5**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6○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7**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8**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9○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0○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1**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2**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3**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4**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15**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16**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

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7○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18**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 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 나는 샘을 열어 보인 것이므로,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19**너는 또 네 이모들의 몸이나, 네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붙이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20**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21**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22○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23**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24**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5**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26**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못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27○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LEVITICUS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3**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4**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5○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레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6○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7**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8**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⁹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¹⁰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¹¹그는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¹²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¹³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¹⁴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¹⁵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¹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⁷"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제물을 바치려 나올 수 없다. ¹⁸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¹⁹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²⁰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²¹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아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제물을 바치려 나올 수 없다. ²²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²³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²⁴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제사음식을 먹는 규례

LEVITICUS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³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⁴○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a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a 전통적으로 나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뜻함) ⁵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⁶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⁷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을 수 있다. ⁸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⁹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¹⁰○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¹¹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을 수 있다. ¹²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을 수 없다. ¹³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¹⁴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¹⁵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¹⁶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¹⁷○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⁸"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¹⁹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²⁰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²¹○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 떼나 양 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²²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²³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 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²⁴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²⁵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²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⁷"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레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²⁸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29 ○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30** 제물로 바친 것은 그 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31 ○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32**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33**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여러 절기

LEVITICUS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

3 ○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유월절과 무교절

4 ○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5** 첫째 달 열나흘날 a해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a 히, '두 저녁 사이에는') **6**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8**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레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9 ○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12**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일 년 된 흙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13**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바치면 된다. **14**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 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¹⁵○"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¹⁶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오십 일이 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¹⁷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서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 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십분의 이 에 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¹⁸이 빵과 함께, 너희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소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때에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¹⁹너희는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²⁰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두 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²¹바로 그 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²²○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또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칠월 초하루 안식일

²³○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⁴"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²⁵이 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일

²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⁷"일곱째 달 열흘날은 b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b 히, '욥 킴푸르') ²⁸이 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 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²⁹이 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³⁰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³¹이 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³²이 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초막절

³³○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³⁴"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c초막절이다.(c 또는 '장막절') 35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36이레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 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37○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38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의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39○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40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짠 열매를 가져 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41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42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43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44○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성소 안에 켜 둘 등불

LEVITICUS 2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 두어라. 3아론을 시켜 회막 안 a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 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a 또는 '법궤') 4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 두어야 한다."

상]

5○"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십분의 이 b에바를 들어, 과자 열두 개를 구워,(b 1에바는 약 4.5리터) 6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 놓아라. 7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8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9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외국 사람에 대한 법

10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번은 집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11**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12**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15**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16**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같은 정도로 물어주어라

17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8**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19**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20**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21**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2**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3**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안식년

LEVITICUS 25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쉬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3**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5**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6**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7**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히년

8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칠 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사십구 년이 끝난다.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

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10**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11**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12**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13**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삼갈 것

14○"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15**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헛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16**소출을 거둘 헛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헛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헛수이기 때문이다. **17**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8**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19**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20○'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21**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22**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23**○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24○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5**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6**그것을 무를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7**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헛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28**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29○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0**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31**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

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32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무를 수 있다. **33**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34** 레위 사람의 성읍에 팔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35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36**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37**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38**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9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 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41**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43**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44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47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 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48** 종으로 팔려 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 주고 풀려 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49**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50**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햇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햇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1** 아직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남은 햇수 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햇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 때에도

그는 일한 햇수와 남은 햇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53○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54**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 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 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 난다. **55**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LEVITICUS 26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상과 벌

3○"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4**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5**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6**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7**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8**그들 백 명이 너희 다섯 명에게 쫓기고, 그들 만 명이 너희 백 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9**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10**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11**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12**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3**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14○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15**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 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16**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쑥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 버릴 것이다. **17**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8**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벌하여, **19**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20**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21○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22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지고, 너희의 가축 떼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23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24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보복하겠다. 25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 주겠다. 26내가 먹거리를 끊어 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27○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28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29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30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31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32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33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 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 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34그 때에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35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36○너희 가운데 살아 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37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앞치락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38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39너희 가운데 살아 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40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41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42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43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44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5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려고, 못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46○이상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서약예물의 값

LEVITICUS 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 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3그 값은 다음과 같다.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오십 세겔이고, 4여자의 값은 삼십 세겔이다. 5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이십 세겔이고, 여자는 십 세겔이다. 6난 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삼 세겔이다. 7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십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십 세겔이다. 8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9○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10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11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12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13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14○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은 적은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15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에 오분의 일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16○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오십 세겔이다. 17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18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19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오분의 일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20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21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22○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23제사장이 희년까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 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²⁴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 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²⁵○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이십 게라를 일 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말배

²⁶○"짐승의 말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말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²⁷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얹어 그것을 무를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무를 수 없는 제물

²⁸○"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²⁹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무를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주님께 바친 십분의 일

³⁰○"땅의 십분의 일 곧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³¹누가 그 십분의 일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얹어야만 한다. ³²소 떼와 양 떼에서도, 각각 십분의 일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 가게 하여, 열 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³³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무를 수 없게 된다." ³⁴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Leviticus 1:9 ([Back](#))

[\[1\]](#) **1:9** Or *an offering by fire*; so throughout Leviticus

Footnote from Leviticus 1:16 ([Back](#))

[\[2\]](#) 1:16 Or *feathers*

Footnote from Leviticus 4:2 ([Back](#))

[\[1\]](#) **4:2** Or *by mistake*; so throughout Leviticus

Footnote from Leviticus 4:13 ([Back](#))

[\[2\]](#) 4:13 Or *makes a mistake*

Footnote from Leviticus 4:13 ([Back](#))

[\[3\]](#) **4:13** Or *suffer for their guilt*, or *are guilty*; also verses 22, 27, and chapter 5

Footnote from Leviticus 5:6 ([Back](#))

[\[1\]](#) **5:6** Hebrew *his guilt penalty*; so throughout Leviticus

Footnote from Leviticus 5:7 ([Back](#))

[\[2\]](#) **5:7** Septuagint *two young pigeons*; also verse 11

Footnote from Leviticus 5:11 ([Back](#))

[\[3\]](#) **5:11**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5:13 ([Back](#))

[\[4\]](#) **5:13** Septuagint; Hebrew *it*

Footnote from Leviticus 5:15 ([Back](#))

[\[5\]](#) 5:15 Or *flock, or its equivalent*

Footnote from Leviticus 5:15 ([Back](#))

[\[6\]](#) **5:1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Leviticus 5:19 ([Back](#))

[\[7\]](#) **5:19** Or *he has paid full compensation to*

Footnote from Leviticus 6:1 ([Back](#))

[\[1\]](#) **6:1** Ch 5:20 in Hebrew

Footnote from Leviticus 6:8 ([Back](#))

[\[2\]](#) **6:8** Ch 6:1 in Hebrew

Footnote from Leviticus 6:20 ([Back](#))

[\[3\]](#) **6:20**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6:21 ([Back](#))

[4] 6:21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Leviticus 8:7 ([Back](#))

[\[1\]](#) **8:7** Hebrew *with it*

Footnote from Leviticus 8:15 ([Back](#))

[\[2\]](#) **8:15** Probably Aaron or his representative; possibly Moses; also verses 16–23

Footnote from Leviticus 10:1 ([Back](#))

[\[1\]](#) 10:1 Or *strange*

Footnote from Leviticus 11:13 ([Back](#))

[\[1\]](#) **11:13** Or *things that fly*; compare Genesis 1:20

Footnote from Leviticus 11:13 ([Back](#))

[\[2\]](#) **11:13** The identity of many of these birds is uncertain

Footnote from Leviticus 12:8 ([Back](#))

[\[1\]](#) **12:8** Septuagint *two young pigeons*

Footnote from Leviticus 13:2 ([Back](#))

[\[1\]](#) **13: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Footnote from Leviticus 13:45 ([Back](#))

[\[2\]](#) 13:45 Or *mustache*

Footnote from Leviticus 14:4 ([Back](#))

[1] 14:4 Or *wild*

Footnote from Leviticus 14:5 ([Back](#))

[\[2\]](#) **14:5** Or *running*; Hebrew *living*; also verses 6, 50, 51, 52

Footnote from Leviticus 14:10 ([Back](#))

[\[3\]](#) **14:10**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14:10 ([Back](#))

[\[4\]](#) **14:10** A *log* was about 1/3 quart or 0.3 liter

Footnote from Leviticus 14:31 ([Back](#))

[\[5\]](#) **14:31** Septuagint, Syriac; Hebrew *afford*, ³¹*such as he can afford, one*

Footnote from Leviticus 15:2 ([Back](#))

[\[1\]](#) **15:2** Hebrew *flesh*; also verse 3

Footnote from Leviticus 16:8 ([Back](#))

[\[1\]](#) **16:8** The meaning of *Azazel* is uncertain; possibly the name of a place or a demon, traditionally a scapegoat; also verses 10, 26

Footnote from Leviticus 16:29 ([Back](#))

[\[2\]](#) **16:29** Or *shall fast*; also verse 31

Footnote from Leviticus 16:34 ([Back](#))

[\[3\]](#) 16:34 Hebrew *he*

Footnote from Leviticus 17:14 ([Back](#))

[\[1\]](#) **17:14** Hebrew *all flesh*

Footnote from Leviticus 17:14 ([Back](#))

[\[2\]](#) **17:14** Hebrew *it is in its life*

Footnote from Leviticus 18:4 ([Back](#))

[\[1\]](#) **18:4** Or *my just decrees*; also verse 5

Footnote from Leviticus 18:21 ([Back](#))

[\[2\]](#) **18:21** Hebrew *to make them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Leviticus 19:16 ([Back](#))

[\[1\]](#) **19:16** Hebrew *blood*

Footnote from Leviticus 19:23 ([Back](#))

[\[2\]](#) **19:23** Hebrew *as its uncircumcision*

Footnote from Leviticus 19:36 ([Back](#))

[\[3\]](#) **19:36**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20:10 ([Back](#))

[\[1\]](#) **20:10** Hebrew repeats *if a man commits adultery with the wife of*

Footnote from Leviticus 20:21 ([Back](#))

[\[2\]](#) **20:21** Literally *menstrual impurity*

Footnote from Leviticus 21:13 ([Back](#))

[\[1\]](#) **21:13** Or *a young wife*

Footnote from Leviticus 21:14 ([Back](#))

[\[2\]](#) **21:14** Hebrew *young woman*

Footnote from Leviticus 22:11 ([Back](#))

[\[1\]](#) 22:11 Or *servant*;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Leviticus 22:11 ([Back](#))

[\[2\]](#) **22:11** Hebrew *he*

Footnote from Leviticus 23:5 ([Back](#))

[\[1\]](#) **23:5** Hebrew *between the two evenings*

Footnote from Leviticus 23:13 ([Back](#))

[\[2\]](#) **23:13**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23:13 ([Back](#))

[3] **23:13**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23:27 ([Back](#))

[\[4\]](#) **23:27** Or *shall fast*; also verse 32

Footnote from Leviticus 23:34 ([Back](#))

[\[5\]](#) 23:34 Or *tabernacles*

Footnote from Leviticus 24:4 ([Back](#))

[\[1\]](#) 24:4 Hebrew *the pure lampstand*

Footnote from Leviticus 24:5 ([Back](#))

[\[2\]](#) **24:5**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24:6 ([Back](#))

[\[3\]](#) 24:6 Hebrew *the pure table*

Footnote from Leviticus 25:6 ([Back](#))

[\[1\]](#) **25:6** That is, the Sabbath produce of the land

Footnote from Leviticus 25:6 ([Back](#))

[\[2\]](#) 25:6 Or *servants*

Footnote from Leviticus 25:8 ([Back](#))

[\[3\]](#) 25:8 Or *Sabbaths*

Footnote from Leviticus 25:12 ([Back](#))

[\[4\]](#) **25:12** Or *countryside*

Footnote from Leviticus 25:42 ([Back](#))

[\[5\]](#) **25:42** Hebrew *slaves*

Footnote from Leviticus 25:55 ([Back](#))

[\[6\]](#) 25:55 Or *slaves*

Footnote from Leviticus 26:11 ([Back](#))

[\[1\]](#) **26:11** Hebrew *tabernacle*

Footnote from Leviticus 26:26 ([Back](#))

[\[2\]](#) 26:26 Hebrew *staff*

Footnote from Leviticus 26:34 ([Back](#))

[\[3\]](#) **26:34** Or *pay for*; twice in this verse; also verse 43

Footnote from Leviticus 27:3 ([Back](#))

[\[1\]](#) **27:3**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Leviticus 27:9 ([Back](#))

[\[2\]](#) 27:9 Hebrew *it*

Footnote from Leviticus 27:16 ([Back](#))

[3] **27:16** A *home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Leviticus 27:25 ([Back](#))

[\[4\]](#) **27:25** A *gerah* was about 1/50 ounce or 0.6 gram

Footnote from Leviticus 27:29 ([Back](#))

[\[5\]](#) **27:29**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민수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Numbers 1](#) • [Numbers 2](#) • [Numbers 3](#) • [Numbers 4](#) • [Numbers 5](#) • [Numbers 6](#) • [Numbers 7](#)
• [Numbers 8](#) • [Numbers 9](#) • [Numbers 10](#) • [Numbers 11](#) • [Numbers 12](#) • [Numbers 13](#) • [Numbers 14](#)
• [Numbers 15](#) • [Numbers 16](#) • [Numbers 17](#) • [Numbers 18](#) • [Numbers 19](#) • [Numbers 20](#)
• [Numbers 21](#) • [Numbers 22](#) • [Numbers 23](#) • [Numbers 24](#) • [Numbers 25](#) • [Numbers 26](#)
• [Numbers 27](#) • [Numbers 28](#) • [Numbers 29](#) • [Numbers 30](#) • [Numbers 31](#) • [Numbers 32](#)
• [Numbers 33](#) • [Numbers 34](#) • [Numbers 35](#) • [Numbers 36](#)

민수기

첫 번째 병적 조사

NUMBERS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 년이 되던 해 a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b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a 시브월, 양력 사월 중순 이후 b 하나님 이 백성을 만나시는 곳) **2**"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c 모세와 아론) **3**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스무 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4**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5**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 잇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 갓 지파에서는 d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d 히, '드우엘'. 2:14절을 따름)
-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18**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19**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21**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사만 육천오백 명이다.
-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23**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오만 구천삼백 명이다.
- 갓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25**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다.
-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27**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칠만 사천육백 명이다.

28○잇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29**잇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오만 사천사백 명이다.

30○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31**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오만 칠천사백 명이다.

32○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33**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사만 오백 명이다.

34○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35**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삼만 이천이백 명이다.

36○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37**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삼만 오천사백 명이다.

38○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39**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다.

40○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41**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사만 천오백 명이다.

42○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43**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오만 삼천사백 명이다. **44**○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45**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46**등록된 이들은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다. **47**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레위 지파의 병역 면제

48○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49**"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50**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e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e 또는 '법막' 또는 '증거막') **51**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52**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안의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53**그러나 레위 사람은 e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e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e 또는 '법막' 또는 '증거막')

54○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부대 편성 및 행군 순서

NUMBERS 2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3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4**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칠만 사천육백 명이다. **5**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잇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잇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6**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오만 사천사백 명이다. **7**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8**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오만 칠천사백 명이다. **9**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십팔만 육천사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10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11**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사만 육천오백 명이다.

12 르우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13**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오만 구천삼백 명이다. **14** 르우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15**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다. **16**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십오만 천사백오십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르우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17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18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19**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사만 오백 명이다.

20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21**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삼만 이천이백 명이다. **22**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23**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삼만 오천사백 명이다. **24**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십만 팔천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25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26**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다. **27**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28**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사만 천오백 명이다.

29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30**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오만 삼천사백 명이다. **31**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32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다. **3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34○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

NUMBERS 3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2**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3**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4**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5○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7**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써,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8**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써,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9**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10**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 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11○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말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 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13**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레위 사람 인구조사

14○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16**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17**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18**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립니와 시므이이다. **19**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다. **20**므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1○게르손에게서는 립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22**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칠천오백 명이였다. **23**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24**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25**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26들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들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27○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웃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28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팔천육백 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29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30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31그들의 임무는 a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a 또는 '증거궤') 32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33○므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므라리의 가족들이다. 34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육천이백 명이다. 35므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36므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37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38○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어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39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b이만 이천 명이었다.(b 22, 28, 34절의 전체 숫자는 '이만 이천삼백 명')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40○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41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족 말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족 말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42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등록시켰다. 43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이었다.

4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말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족 말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46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효가 레위 사람보다 이백칠십삼 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 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47한 사람에 오 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48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49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50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었다. 51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고핫 자손의 임무

NUMBERS 4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4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5"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a증거개를 덮고,(a 또는 '법궤') 6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켜다.

7"다음에는 늘 차려 놓는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8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켜다.

9"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게와 불뿔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그릇을 싸고, 10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11"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켜다. 12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13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14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잡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켜다.

15"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b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메고 간다. 이 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b 또는 '성소와 성소에 딸린')

16"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17"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8"너희는 고핫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19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20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c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c 또는 '성소를')

게르손 자손의 임무

21"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23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24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25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26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27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짐 나르

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²⁸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므라리 자손의 임무

²⁹○"너는 므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³⁰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³¹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³²뿔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밀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³³이 일들은 므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레위 사람 인구조사

³⁴○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³⁵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³⁶가족별로 등록시키니, 이천칠백오십 명이었다. ³⁷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³⁸○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³⁹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⁴⁰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⁴¹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⁴²○므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⁴³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⁴⁴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삼천이백 명이었다. ⁴⁵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⁴⁶○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⁴⁷그들은 모두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⁴⁸등록된 사람은 모두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⁴⁹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NUMBERS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a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a 전통적으로 나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뜻함) ³남

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4○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잘못에 대한 보상

5○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7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오분의 일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8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9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10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 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11○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13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져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14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15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16○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17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의 흙을 곁어서 그 물에 탄다. 18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19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21(이 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네 겨레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b 성기를 말함) 22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네 몸 속으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²³○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²⁴(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²⁵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²⁶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 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²⁷○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거레 가운데서 저주 받은 자가 된다. ²⁸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²⁹○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³⁰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³¹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실 사람 규율

NUMBERS 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a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a 주님께 자기를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 ³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⁴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⁵○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⁶○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⁷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⁸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⁹○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주검에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¹⁰그리고 여드렛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¹¹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주검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 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¹²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일 년 된 새끼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

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13○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14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 년 된 흠 없는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일 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15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 빈 과자들을 한 광 주리 담아,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16○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17또 숫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18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19○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 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20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21○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제사장의 축복 선언

2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 24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 25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 26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27○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

NUMBERS 7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²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³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 왔는데, a 덮개가 있는 수레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에게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 왔을 때에, (a 또는 '짐수레') 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⁵"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⁶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⁷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⁸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⁹그러나 모세가 고탃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¹⁰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 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¹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¹²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¹³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¹⁴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¹⁵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¹⁶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¹⁷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¹⁸둘째 날에는 잇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¹⁹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²⁰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²¹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²²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²³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²⁴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²⁵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²⁶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²⁷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²⁸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²⁹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³⁰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³¹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³²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³³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³⁴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³⁵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³⁶○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³⁷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³⁸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³⁹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⁴⁰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⁴¹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⁴²○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⁴³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⁴⁴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⁴⁵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⁴⁶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⁴⁷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⁴⁸○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⁴⁹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⁵⁰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⁵¹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⁵²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⁵³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⁵⁴○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⁵⁵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⁵⁶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⁵⁷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⁵⁸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⁵⁹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⁶⁰○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⁶¹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⁶²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⁶³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⁶⁴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⁶⁵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⁶⁶○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⁶⁷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⁶⁸십 세겔 나

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69**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70**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71**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72○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73**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74**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75**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76**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77**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78○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79**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80**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81**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82**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83**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새끼 숫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84○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열둘, 은대접이 열둘, 금잔이 열둘이다. **85**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백삼십 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칠십 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이천사백 세겔이다. **86**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열둘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십 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백이십 세겔이다.

87○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 숫양이 열두 마리, 일 년 된 숫양이 열두 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다. 숫염소 열두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88**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스물네 마리, 숫양이 예순 마리, 숫염소가 예순 마리, 일 년 된 숫양이 예순 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89○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 때마다 모세는, **b**증거궤와 **c**속죄판 위에서, 곧 두 **d**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b** 또는 '법궤' **c** 또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d** 날개를 가진 피조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상징)

등잔을 차려 놓는 방식

NUMBERS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3**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4**○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봉헌식

5○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7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8그들 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 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 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9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10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11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12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13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14○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15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16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말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17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말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말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8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말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19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20○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21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22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23○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스물다섯 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25스물 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26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두 번째 유월절 행사

NUMBERS 9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a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a 아빕월, 양력 삼월 중순 이후) 28"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

절을 지켜야 한다. ²⁹그 정해진 때 곧 이 달 십사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³⁰○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³¹그래서 정월 곧 그 달 십사일 해거름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³²○그런데 주검에 몸이 달아 부정을 타서, 그 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 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³³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³⁴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 봐야겠소."

³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³⁶"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³⁷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십사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³⁸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³⁹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⁴⁰○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길을 안내한 구름(출 40:34-38)

⁴¹○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b증거케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b 또는 '법막' 또는 '증거막') ⁴²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⁴³구름이 성막 위로 걷혀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⁴⁴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⁴⁵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⁴⁶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 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⁴⁷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⁴⁸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걷혀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⁴⁹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NUMBERS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³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⁴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⁵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⁶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⁷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⁸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⁹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 온 침략자들에게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¹⁰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떠날 준비

¹¹○제 이년 둘째 달, 그 달 이십일에 a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걸렸다. (a 또는 '법막' 또는 '증거막') ¹²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른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¹³○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였다. ¹⁴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¹⁵뒤이어 따라나선 잇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¹⁶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¹⁷○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가지고 출발하였다.

¹⁸○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¹⁹뒤이어 따라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²⁰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²¹○뒤따라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²²○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²³뒤이어 따라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²⁴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²⁵○맨 마지막으로,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²⁶뒤이어 따라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²⁷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²⁸○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29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b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샅 1:16과 4:11에서는 호밥이고, 출 2:21에서는 르우엘이고, 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30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31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32**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행군 시작

33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34**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35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흠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36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다베라

NUMBERS 11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3**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 이름을 a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a '불사름')

모세가 장로 일흔 명을 뽑다

4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5**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6**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7 만나의 모양은 b갓 씨와 같고, 그 빛깔은 브돌라와 같았다. (b 식물의 일종) **8**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9**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10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11** 모세가 주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12**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13** 백성

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¹⁴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¹⁵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¹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네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일흔 명을 나에게로 불러 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¹⁷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 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¹⁸○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¹⁹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스무 날 동안만도 아니다. ²⁰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²¹○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²²그들을 먹이려고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²³○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²⁴○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일흔 명을 불러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웠다. ²⁵그 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 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일흔 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²⁶○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²⁷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²⁸○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²⁹○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³⁰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

31○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c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 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c 아카바 만 쪽 이라고 추측됨) **32**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 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33**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34**바로 그 곳을, 사람들은 d기브릇 핫다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d '탐욕의 무덤')

35○백성은 기브릇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미리암이 벌을 받다

NUMBERS 12 모세가 a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a 미디안(합 3:7) 또는 에티오피아)

2○"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3**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4○주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5**주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 서자 **6**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b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b 고대역을 따름) **7**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8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9○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10○구름이 장막 위에서 걷히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11**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12**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¹³○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¹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레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레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¹⁵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¹⁶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나안 땅 탐지(신 1:19-33)

NUMBERS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³○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⁴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⁵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⁶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⁷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⁸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⁹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¹⁰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¹¹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¹²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¹³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¹⁴납달리 지파에서는 웅시의 아들 나비요, ¹⁵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¹⁶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a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a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의 두 형태로서 '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 여기에서 그리스어 이름 '예수'가 나옴(마 1:21))

¹⁷○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겟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¹⁸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¹⁹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²⁰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 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²¹○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²²그들은 또 네겟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새 부족과 달매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일곱 해 먼저 세운 곳이다. ²³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땀다. ²⁴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곳을 가리켜 b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b '송이')

²⁵○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사십 일 만에 돌아왔다. ²⁶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 온 과일을 보여 주었다. ²⁷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 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²⁸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큼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

손도 보았습니다. ²⁹아말렉 사람은 네겅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³⁰○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³¹○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³²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³³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백성의 불평

NUMBERS 14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²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³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⁴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⁵○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⁶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⁷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⁸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⁹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¹⁰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다. 그 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다

¹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¹²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¹³○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¹⁴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¹⁵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¹⁶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

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7**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18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19**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21**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 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23**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24**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 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25**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불평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26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7**"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28**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29**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30**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31**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32**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33**너희 자식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a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a 또는 '방황하면서') **34**너희가 그 땅을 사십 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35**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36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

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³⁸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 남았다.

첫 번째 점령 시도(신 1:41-46)

³⁹○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⁴⁰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⁴¹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⁴²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⁴³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⁴⁴○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⁴⁵그 때에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희생제사

NUMBERS 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³그러면 너희는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해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⁴○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반죽한 곡식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⁵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사분의 일 힌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⁶○제물이 숫양 한 마리면, 곡식제물로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⁷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삼분의 일 힌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⁸○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⁹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반죽한 곡식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 와야 하고, ¹⁰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힌을 가져 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¹¹○수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나, 양 떼나 염소 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¹²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효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¹³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 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¹⁴○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같이 그렇게 하여

야 한다. **15**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16**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17○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19**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 때에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20**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21**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 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22○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23**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24**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5**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주 앞에 가져 와야 한다. **26**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27○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28**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29**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30**○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31**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32○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33**나무하는 이를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34**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35**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36**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37○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8**"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³⁹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⁴⁰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⁴¹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NUMBERS 16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탓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²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백오십 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³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⁴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⁵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실 것이오. 주님께서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오. ⁶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⁷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⁸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⁹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¹⁰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 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¹¹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¹²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¹³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¹⁴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a뿔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요."(a히, '꺾꿍을')

¹⁵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¹⁶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¹⁷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오십 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 와야 하오." ¹⁸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¹⁹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²⁰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²¹"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²²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²³○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⁴"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²⁵○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²⁶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²⁷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²⁸그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²⁹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³⁰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 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³¹○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³²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³³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³⁴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³⁵○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이백오십 명을 살라 버렸다.

향로

³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³⁷"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³⁸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³⁹○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낫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⁴⁰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구하다

41○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42**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43**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44**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46**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47**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염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48아론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49**이 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사천칠백 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50**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

NUMBERS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열두 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3**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 앞에 두어라.(a 또는 '법궤') **5**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돌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6○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열두 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7**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8○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송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9**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10○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앞에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11**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12○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13**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의무

NUMBERS 18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2**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a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a 또는 '법의') **3**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4**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5**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6**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7**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사장의 몫

8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9**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10**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11**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13**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 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4**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15**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 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말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16**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 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 당 스무 게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네가 은 다섯 세겔로 정해 주어라. **17**그러나 암소의 말배나, 양의 말배나, 염소의 말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

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¹⁸그러나 흔들여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¹⁹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²⁰○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레위 사람의 몫

²¹○"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드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²²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²³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²⁴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의 십일조

²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²⁶"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²⁷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 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²⁸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²⁹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³⁰○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 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³¹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³²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

NUMBERS 19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3**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4**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5**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6**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 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7**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8**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9**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10**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검에 닿은 경우

11○"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다. **12**a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a 히, '그가 사흘째 되는 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 이레째 되는 날 그는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레째 되는 날 그는 정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13**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14○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다. **15**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의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16**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레 동안 부정하다. **17**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18**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 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19**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 준다. 그러면 이레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20**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1**○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2**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가데스에서 생긴 일(출 17:1-7)

NUMBERS 20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 곳에 묻혔다.

2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3**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4** 어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5**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6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7**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 때가 마시게 하여라."

9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10**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11**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 때가 마셨다.

12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13**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a'므리바 샘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a'다툼')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다

14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15**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16**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17**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b'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b'주요 도로'. 사해 동남쪽으로 나 있음. 아카바 만의 북단 엘랏으로부터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난 큰 길)

18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19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의 가축 때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²⁰○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²¹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²²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다. ²³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 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⁴"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므리바 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²⁵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으로 올라가서, ²⁶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²⁷○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²⁸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²⁹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

호르마를 점령하다

NUMBERS 21 네겔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a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a '정탐') ²그 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³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곳 이름을 b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b '완전히 멸함')

구리 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⁴○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⁵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⁶○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⁷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였다.

⁸○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⁹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호르 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10○이스라엘 자손은 그 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12**또 그 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13**또 그 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14**그래서 c'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헴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c 고대의 전쟁시를 모은 책. 지금은 분실되고 없음) **15**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16○그들은 그 곳을 떠나서 d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d'우물)
17○그 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18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19**맛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뭇에 이르렀다. **20**바뭇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e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e 히, '여시몬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신 **2:26-3:11**)

21○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훈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22**"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23○그러나 시훈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24**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압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25**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26○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훈의 도성이었다. 시훈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27**○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29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혼에게 꿈쩍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30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31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32**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33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34**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35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NUMBERS 22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 곳은 요단 강 건너, 곧 어리고 맞은편이다.

2 ○심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3**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4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심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5** 그는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브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때에 발람은 큰 강 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브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잡았습니다. ⁶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⁷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⁸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⁹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¹⁰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¹¹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¹³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¹⁴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¹⁵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¹⁶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¹⁷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¹⁸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¹⁹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 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²⁰그 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과 그의 나귀

²¹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엮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²²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 ²³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²⁴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²⁵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²⁶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²⁷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²⁸그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

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²⁹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³⁰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³¹○그 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³²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³³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³⁴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³⁵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람을 환영하다

³⁶○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³⁷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 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³⁸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³⁹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숫 마을까지 갔다. ⁴⁰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 주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⁴¹○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NUMBERS 23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 곳에다가 제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 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²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³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제물 곁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⁴○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⁵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⁶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⁷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a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a 또는 '메소포타미아') ⁸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⁹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¹⁰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b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b 히,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

¹¹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¹²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

¹³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¹⁴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일곱 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¹⁵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¹⁶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¹⁷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

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8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20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21 주님께서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22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23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24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찢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눅지 아니할 것이다."

25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

27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발락은 발람을 c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c

히, '여시몬이') **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 곳에다가 제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 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NUMBERS 24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으레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2**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3**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a전능자를 뵈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a 히, '샤다이') **5**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6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넋가의 백향목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넢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8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꺾을 것이다.

9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 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11**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 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 받는 것을 막으셨소." **12**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13**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14**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16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뵈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17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b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b '소동하는') ¹⁸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¹⁹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 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²⁰○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²¹○또 그는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²²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앗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²³○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 남을 수 있으랴?

²⁴함대들이 c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앗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c 히, '깃딤')

²⁵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브올에서 생긴 일

NUMBERS 25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²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³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a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a 또는 '여러 사람 앞에') ⁵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브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6○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7**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8**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9**그러나 그 염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이만 사천 명이었다.

10○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1**"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12**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13**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14○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15**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16○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7**"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죽여라. **18**그들은 브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브올에서 생긴 일로 염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구조사

NUMBERS 26 염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 수를 세어라. 스무 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3**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4**"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 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5○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6**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7**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다.

8○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9**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10**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이백오십 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11**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12○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13**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14**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이만 이천이백 명이다.

15○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가족과, **16**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17**아룻에게서 난 아룻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18**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사만 오백 명이다.

19○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20○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21**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22**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칠만 육천오백 명이다.

23○잇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24**야숨에게서 난 야숨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25**이들은 잇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육만 사천삼백 명이다.

26○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알르엘에게서 난 알르엘 가족이다. **27**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육만 오백 명이다.

28○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29○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30**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31**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32**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33**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34**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오만 이천칠백 명이다.

35○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36**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37**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삼만 이천오백 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38○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39**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40**벨라 자손은 아룻과 나아만이다. 아룻에게서 난 아룻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41**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사만 오천육백 명이다.

42○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43**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육만 사천사백 명이다.

44○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45**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46**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47**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오만 삼천사백 명이다.

48○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49**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50**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사만 오천사백 명이다.

51○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다.

5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3**"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54**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55**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56**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57○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다. **58**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립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59**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60**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61**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62○난 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63○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64**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다. **65**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슬로브핫의 딸들

NUMBERS 27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2**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3**"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4**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5○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6**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8**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9**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10**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11**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신 31:1-8)

12○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13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같이, 너 또한 너의 a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a 히, '백성') 14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므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므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5○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16"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8○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19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20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21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쭙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22○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제사(출 29:38-46)

NUMBERS 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3○"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4숫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5첫째 숫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짙어 짠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이다. 6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시내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7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숫양 한 마리마다 사분의 일 힌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8저녁에 둘

째 숫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 제물

9"안식일에도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곡식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10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초하루 제물

11"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12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씩이다. 숫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이다. 13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4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 힉씩이고, 숫양 한 마리에 한 삼분의 일 힉씩이고, 어린 숫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힉씩이다. 이것이 일 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15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도,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유월절 제사(레 23:5-14)

16"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17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18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19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20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을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 한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21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22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23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24너희는 이레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25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칠칠절 제사

26"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a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a 유월절 이후 오십일(레 23:15-16)) 27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28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을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²⁹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³⁰또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³¹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신년 제사(레 23:23-25)

NUMBERS 29 "a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a '티스리'월, 양력 구월 중순 이후) ²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³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⁴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⁵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⁶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속죄일 제사(레 23:26-32)

⁷o"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⁸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⁹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¹⁰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¹¹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장막절 제사(레 23:33-44)

¹²o"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레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¹³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¹⁴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바치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바치고, ¹⁵열네 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¹⁶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¹⁷o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¹⁸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

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19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1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2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4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2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7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28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9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0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3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36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7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8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39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40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서원한 것

NUMBERS 30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3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4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10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14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16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다

NUMBERS 3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a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a 히, '백성')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4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5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만 이천 명이었다. 6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

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⁷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 버렸다. ⁸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브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죽였다.

⁹○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 떼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¹⁰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¹¹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¹²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¹³○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¹⁴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¹⁵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 두었소? ¹⁶이 여자들이야말로 브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꺾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염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오. ¹⁷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¹⁸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 두시오. ¹⁹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²⁰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축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²¹○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레이오. ²²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²³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²⁴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소."

전리품 분배

²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⁶"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 수를 세어라. ²⁷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²⁸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 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 떼든, 그 오백분의 일을, ²⁹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 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³⁰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오십분의 일을 떼어 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³¹○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³²○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 ³³소가 칠만 이천 마리, ³⁴나귀가 육만 천 마리였으며, ³⁵처녀는

모두 삼만 이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36○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37**그 양 가운데서 육백일흔다섯 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38**소는 삼만 육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일흔두 마리이다. **39**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예순한 마리이다. **40**사람은 만 육천 명이고, 그 가운데서 서른두 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41**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42○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몫, **43**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 **44**소가 삼만 육천 마리, **45**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이고, **46**사람이 만 육천 명이다. **47**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오십분의 일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48○군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49**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50**주님께 예물을 가져 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51**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52**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나 되었다. **53**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54**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 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요단 강 동쪽 지파들(신 3:12-22)

NUMBERS 3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 떼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 떼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2**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3**"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은, **4**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 떼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5**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 강을 a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a 서쪽으로 도강하는 것을 뜻함)

6○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7**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8**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9**그들은 기럇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10**그리하여 그 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11**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

함파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¹²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¹³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¹⁴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¹⁵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 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¹⁶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¹⁷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¹⁸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¹⁹또한 요단 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 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²⁰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²¹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 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 강을 건너다면, ²²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소.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오. ²³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오.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²⁴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²⁵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²⁶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 떼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²⁷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 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²⁸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²⁹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 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³⁰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 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³¹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³²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 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³³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혼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³⁴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³⁵아다롯소반과 야스엘과 욱브하와 ³⁶벳니므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

었다. ³⁷르우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³⁸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므온과 십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³⁹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⁴⁰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⁴¹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 곳을 b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b '야일의 촌락') ⁴²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이집트에서 모압까지

NUMBERS 33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²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³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십오일, 곧 유월절 다음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흰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⁴그 때에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⁵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⁶숙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⁷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믁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⁸비하히롯을 떠나서는 a바다 한가운대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a '홍해'. 히, '암수프') ⁹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¹⁰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¹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²신 광야를 떠나서는 돛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³돛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⁴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¹⁵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⁶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핫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⁷기브롯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⁸하세롯을 떠나서는 릿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¹⁹릿마를 떠나서는 림몬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⁰림몬베레스를 떠나서는 립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¹립나를 떠나서는 릿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²릿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³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⁴세벨 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⁵하라다를 떠나서는 막헬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⁶막헬롯을 떠나서는 다חת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⁷다חת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⁸데라를 떠나서는 밋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²⁹밋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⁰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¹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²브네야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³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욱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⁴욱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⁵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⁶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³⁷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38○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 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39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이다.

40○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겔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41○이스라엘 자손은 호르 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42살모나를 떠나서는 부논에 이르러 진을 쳤다. 43부논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44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예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45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46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47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48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49요단 강 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싯딤에까지 이르렀다.

가나안 땅 분할 지시

50○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1"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 버려라. 53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54땅은 주 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55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56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가나안 땅의 경계

NUMBERS 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3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4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랍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5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6○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7○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8또 호르 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9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10○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11**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12**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13○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땅은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을 유산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14**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리고 갓 자손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들의 유산을 받도록 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유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15**나머지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그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유산 분할 책임자

16○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18**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19**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20**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요, **21**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22**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복기 족장이요, **23**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24**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므엘 족장이요, **25**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26**잇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앓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27**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28**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 족장이다. **29**○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NUMBERS 35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a목초지도 함께 주어라.(a 또는 '들') **3**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4**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b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b 히, '천 자') **5**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이천 자, 남쪽으로 이천 자, 서쪽으로 이천 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6**○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 **7**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8**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 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

도피성(신 19:1-13; 수 20:1-9)

⁹○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⁰"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¹¹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¹²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¹³○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¹⁴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¹⁵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¹⁶○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¹⁷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¹⁸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¹⁹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²⁰○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²¹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²²○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²³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²⁴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²⁵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²⁶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²⁷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²⁸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²⁹○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³⁰○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³¹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³²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³³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³⁴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결혼한 여자의 유산

NUMBERS 36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²"이 땅을 제비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핫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³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⁴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a회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a 레 25:8-17을 볼 것)

⁵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⁶주님께서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⁷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⁸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⁹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¹⁰그리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은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¹¹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¹²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¹³이것은 주님께서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Numbers 3:22 ([Back](#))

[\[1\]](#) 3:22 Hebrew *their listing was*

Footnote from Numbers 3:38 ([Back](#))

[\[2\]](#) **3:38** Hebrew *guard*

Footnote from Numbers 3:47 ([Back](#))

[\[3\]](#) **3:47**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4\]](#) 3:47 A *gerah* was about 1/50 ounce or 0.6 gram

Footnote from Numbers 4:6 ([Back](#))

[\[1\]](#) **4:6**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compare Exodus 25:5

[\[1\]](#) **5: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Numbers 5:7 ([Back](#))

[\[2\]](#) **5:7** Hebrew *they shall confess their sin that they have committed*

Footnote from Numbers 5:15 ([Back](#))

[\[3\]](#) **5:15**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6:2 ([Back](#))

[\[1\]](#) **6:2** *Nazirite* means *one separated*, or *one consecrated*

Footnote from Numbers 6:4 ([Back](#))

[\[2\]](#) **6:4** Or *Naziriteship*

Footnote from Numbers 6:26 ([Back](#))

[\[3\]](#) 6:26 Or *face*

Footnote from Numbers 7:13 ([Back](#))

[\[1\]](#) **7:13**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Numbers 8:24 ([Back](#))

[\[1\]](#) **8:24** Hebrew *he*; also verses 25, 26

Footnote from Numbers 8:26 ([Back](#))

[\[2\]](#) **8:26** Hebrew *He ministers*

Footnote from Numbers 9:16 ([Back](#))

[\[1\]](#) **9:16**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lacks *by day*

Footnote from Numbers 11:3 ([Back](#))

[\[1\]](#) **11:3** *Taberah* means *burning*

Footnote from Numbers 11:31 ([Back](#))

[\[2\]](#) **11:3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Numbers 11:32 ([Back](#))

[\[3\]](#) **11:32** A *home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11:34 ([Back](#))

[\[4\]](#) **11:34** *Kibroth-hattaavah* means *graves of craving*

Footnote from Numbers 12:10 ([Back](#))

[\[1\]](#) **12:10**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Numbers 12:11 ([Back](#))

[\[2\]](#) **12:11** Hebrew *do not lay sin upon us*

Footnote from Numbers 13:24 ([Back](#))

[\[1\]](#) **13:24** *Eshcol* means *cluster*

Footnote from Numbers 15:3 ([Back](#))

[\[1\]](#) **15:3** Or *an offering by fire*; so throughout Numbers

Footnote from Numbers 15:4 ([Back](#))

[\[2\]](#) **15:4**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15:4 ([Back](#))

[\[3\]](#) **15:4**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15:22 ([Back](#))

[\[4\]](#) **15:22** Or *by mistake*; also verses 24, 27, 28, 29

Footnote from Numbers 15:39 ([Back](#))

[\[5\]](#) 15:39 Hebrew *to spy out*

Footnote from Numbers 16:5 ([Back](#))

[\[1\]](#) **16:5** Septuagint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Footnote from Numbers 16:36 ([Back](#))

[\[2\]](#) **16:36** Ch 17:1 in Hebrew

Footnote from Numbers 17:1 ([Back](#))

[\[1\]](#) **17:1** Ch 17:16 in Hebrew

Footnote from Numbers 18:7 ([Back](#))

[\[1\]](#) 18:7 Hebrew *service of gift*

Footnote from Numbers 18:16 ([Back](#))

[2] 18:16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Numbers 19:17 ([Back](#))

[\[1\]](#) **19:17** Hebrew *living*

Footnote from Numbers 20:13 ([Back](#))

[\[1\]](#) **20:13** *Meribah* means *quarreling*

Footnote from Numbers 21:2 ([Back](#))

[\[1\]](#) **21:2**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 3

Footnote from Numbers 21:3 ([Back](#))

[\[2\]](#) **21:3** *Hormah* means *destruction*

Footnote from Numbers 21:9 ([Back](#))

[\[3\]](#) 21:9 Or *copper*

Footnote from Numbers 21:16 ([Back](#))

[\[4\]](#) 21:16 *Beer* means *well*

Footnote from Numbers 21:20 ([Back](#))

[\[5\]](#) 21:20 Or *Jeshimon*

Footnote from Numbers 21:28 ([Back](#))

[\[6\]](#) **21:28** Septuagint; Hebrew *the lords of*

Footnote from Numbers 21:30 ([Back](#))

[\[7\]](#) **21:30** Compare Samaritan and Septuagint; Hebrew *and we laid waste as far as Nophah, which is as far as Medeba*

Footnote from Numbers 22:5 ([Back](#))

[\[1\]](#) **22:5** Or *the people of his kindred*

Footnote from Numbers 22:32 ([Back](#))

[\[2\]](#) 22:32 Or *reckless*

Footnote from Numbers 23:10 ([Back](#))

[\[1\]](#) **23:10** Or *dust clouds*

Footnote from Numbers 23:28 ([Back](#))

[\[2\]](#) 23:28 Or *Jeshimon*

Footnote from Numbers 24:3 ([Back](#))

[\[1\]](#) **24:3** Or *closed*, or *perfect*; also verse 15

Footnote from Numbers 24:6 ([Back](#))

[\[2\]](#) 24:6 Or *valleys*

Footnote from Numbers 24:17 ([Back](#))

[\[3\]](#) **24:17** Hebrew *corners* [of the head]

Footnote from Numbers 25:4 ([Back](#))

[\[1\]](#) 25:4 Or *impale*

Footnote from Numbers 26:4 ([Back](#))

[\[1\]](#) **26:4** *Take a census of the people* is implied (compare verse 2)

Footnote from Numbers 28:5 ([Back](#))

[\[1\]](#) **28:5**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28:5 ([Back](#))

[\[2\]](#) **28:5**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29:3 ([Back](#))

[\[1\]](#) **29:3**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Numbers 29:7 ([Back](#))

[\[2\]](#) 29:7 Or *and fast*

Footnote from Numbers 29:40 ([Back](#))

[\[3\]](#) **29:40** Ch 30:1 in Hebrew

Footnote from Numbers 30:13 ([Back](#))

[\[1\]](#) **30:13** Or *to fast*

Footnote from Numbers 30:13 ([Back](#))

[\[2\]](#) **30:13** Or *may allow to stand*

Footnote from Numbers 31:52 ([Back](#))

[\[1\]](#) **31:5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Numbers 32:41 ([Back](#))

[\[1\]](#) **32:41** *Havvoth-jair* means *the villages of Jair*

Footnote from Numbers 33:8 ([Back](#))

[\[1\]](#) **33:8** Some manuscripts and versions *Pi-hahiroth*

Footnote from Numbers 34:6 ([Back](#))

[\[1\]](#) **34:6** Syriac; Hebrew lacks *its*

Footnote from Numbers 35:4 ([Back](#))

[\[1\]](#) **35:4**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신명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Deuteronomy 1](#) • [Deuteronomy 2](#) • [Deuteronomy 3](#) • [Deuteronomy 4](#) • [Deuteronomy 5](#)
• [Deuteronomy 6](#) • [Deuteronomy 7](#) • [Deuteronomy 8](#) • [Deuteronomy 9](#) • [Deuteronomy 10](#)
• [Deuteronomy 11](#) • [Deuteronomy 12](#) • [Deuteronomy 13](#) • [Deuteronomy 14](#) • [Deuteronomy 15](#)
• [Deuteronomy 16](#) • [Deuteronomy 17](#) • [Deuteronomy 18](#) • [Deuteronomy 19](#) • [Deuteronomy 20](#)
• [Deuteronomy 21](#) • [Deuteronomy 22](#) • [Deuteronomy 23](#) • [Deuteronomy 24](#) • [Deuteronomy 25](#)
• [Deuteronomy 26](#) • [Deuteronomy 27](#) • [Deuteronomy 28](#) • [Deuteronomy 29](#) • [Deuteronomy 30](#)
• [Deuteronomy 31](#) • [Deuteronomy 32](#) • [Deuteronomy 33](#) • [Deuteronomy 34](#)

신명기

서론

DEUTERONOMY 1 이것은 모세가 a요단 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 때에 그들은 습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a 히, '요단 강 저편') **2**(호렘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3**이집트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가 되는 해의 b열한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b 세bat월, 양력 일월 중순 이후) **4**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5**모세는 요단 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6"우리가 호렘 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8**내가 너희 앞에 보여 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모세가 지도자를 임명하다(출 18:13-17)

9"그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10**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1**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 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2**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3**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14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15**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16**그 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십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17**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 오시오. 내가 들어 보겠소.' **18**그 때에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찰대를 보내다(민 13:1-33)

¹⁹○"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렘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²⁰그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일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²¹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²²○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²³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²⁴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²⁵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²⁶○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²⁷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²⁸우리가 왜 그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 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²⁹○그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³⁰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³¹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 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³²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³³당신들이 진 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민 14:20-45)

³⁴○"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³⁵'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³⁶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렘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³⁷주님께서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³⁸그러나 너의 c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c 히, '앞에 서 있는 사람')

³⁹○주님께서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

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⁴⁰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⁴¹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⁴²○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⁴³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⁴⁴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 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⁴⁵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

⁴⁶○"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DEUTERONOMY 2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 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²○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³'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⁴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⁵그들의 땅은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⁶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⁷○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사십 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⁸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⁹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¹⁰(옛적에 그 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¹¹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¹²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¹³이제 일어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개울을 건넜습니다. ¹⁴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¹⁵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16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1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19**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 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20** (이 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숨밌이라고 하였다. **21**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 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 곳에 살았다. **22**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23**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 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24**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25**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혼을 치다(민 21:21-30)

26 "그래서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27**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 가겠습니다. **28**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9**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 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0**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32** 시혼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33**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34** 그 때에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습니다. **35**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36**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압복 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쳐부수다(민 21:31-35)

DEUTERONOMY 3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²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³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죽였습니다. ⁴그 때에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예순 개나 되었습니다. ⁵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⁶우리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⁷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짐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⁸그 때에 우리는, 요단 강 동쪽 아르논 개울 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⁹(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론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¹⁰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¹¹(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a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랍바에 있다. 그것은, b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아홉 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a 또는 '관' b 히, '사람의 자로 재어서')

요단 강 동쪽에 자리잡은 지파들(민 32:1-42)

¹²"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¹³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¹⁴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c하봇야일이라고 한다.)(c '야일의 촌락')

¹⁵"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¹⁶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압복 강까지를 주었습니다. ¹⁷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 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¹⁸그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 강을 건너가십시오. ¹⁹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짐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짐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²⁰주님께서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 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1○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너는, 주 d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22**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d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d 히, '당신들의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허락받지 못하다

23○"그 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4**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26○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27**너는 이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28**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29○그 때에 우리는 벳브올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DEUTERONOMY 4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 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3**주님께서 브올 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브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4**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5○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6**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7○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8**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9○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10**당신들이 호렙 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11○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가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12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13그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a십계명입니다.(a 히, '열 가지 말씀') 14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숭배 금지 경고

15○"주님께서 호렙 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16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17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18땅 위에 기어 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9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20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21○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22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23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4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5○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26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27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흠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 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 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28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29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30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31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³²○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난 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³³당신들 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 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³⁴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퍼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³⁵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³⁶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³⁷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³⁸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³⁹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 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⁴⁰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요단 강 동쪽의 도피성

⁴¹○그 때에 모세는 b요단 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세 성읍을 지정하였다.(b 히, '요단 강 저편') ⁴²그 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⁴³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다

⁴⁴○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⁴⁵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⁴⁶그 곳은 요단 강 동쪽 벳브올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훈의 땅이다. 시훈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⁴⁷이스라엘 백성은 시훈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 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의 왕이다. ⁴⁸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 강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c시리온 산까지와,(c 시리아어역과 신 3:9를 따름. 히, '시온') ⁴⁹요단 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십계명(출 20:1-17)

DEUTERONOMY 5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²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³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⁴주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⁵그 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a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a 마소라 본문에는 단수, 사해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와 타르굼에는 복수)

⁶○'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⁷○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⁸○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⁹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¹⁰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¹¹○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b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b 또는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¹²○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¹³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¹⁴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짐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¹⁵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¹⁶○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¹⁷○살인하지 못한다.

¹⁸○간음하지 못한다.

¹⁹○도둑질하지 못한다.

²⁰○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²¹○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²²○주님께서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다(출 20:18-21)

²³○"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 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²⁴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²⁵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²⁶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²⁷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²⁸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²⁹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³⁰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³¹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³²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³³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큰 계명

DEUTERONOMY 6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²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³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a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a 또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한 주님이시다.' 또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⁵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⁶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⁷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⁸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⁹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불순종에 대한 경고

¹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¹¹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¹²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주

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¹³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¹⁴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¹⁵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¹⁶○당신들이 맛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¹⁷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¹⁸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¹⁹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²⁰○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²¹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²²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²³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²⁴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²⁵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출 34:11-16)

DEUTERONOMY 7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 족과 기르가스 족과 아모리 족과 가나안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²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 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³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⁴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⁵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a아세라 b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a 가나안 종교의 풍요의 여신, 바알은 그 상대역인 남신 b 아세라 여신의 상징) ⁶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⁷○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⁸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입니다. ⁹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

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10**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11**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신 28:1-14)

12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13**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 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4**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15**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16**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라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19**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 팔로 당신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20**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꺾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 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c 또는 '재앙' 또는 '전염병') **21**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22**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23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24**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25**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라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26**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좋은 땅

DEUTERONOMY 8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²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
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
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³주님께서 당신들을 낫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
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주시
려는 것이었습니다. ⁴지난 사십 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해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
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⁵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겨 두십시오. ⁶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⁷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⁸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
이 생산되는 땅이며, ⁹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
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¹⁰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

¹¹○"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¹²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
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¹³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
산이 늘어날지라도, ¹⁴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
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¹⁵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
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¹⁶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
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
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⁷당신들이 마음 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
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¹⁸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
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¹⁹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²⁰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
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의 불순종

DEUTERONOMY 9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
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
입니다. ²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
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³그러나 당신

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4○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5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6○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7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8○당신들은 이미 호렙 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9그 때에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사십 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10그 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밤낮 사십 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12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13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14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15○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16그 때에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17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18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사십 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9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0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그 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21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22○당신들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룻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23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²⁴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²⁵○그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사십 일을 엮으려 있으면서, ²⁶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²⁷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²⁸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 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²⁹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출 34:1-10)

DEUTERONOMY 10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궤도 하나 만들어라. ²네가 깨뜨린 먼저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³○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⁴주님께서,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a십계명을, 먼저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a 히, '열 가지 말씀') ⁵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⁶○(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브네야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 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⁷또 그 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윗바다에 이르렀다. ⁸그 때에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 온다. ⁹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¹⁰○"내가 먼저번과 같이 밤낮 사십 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¹¹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¹²○"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¹³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b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b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¹⁴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¹⁵그런데 주님께서 오직 당신들의 조상

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활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17**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18**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0**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21**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 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2**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일흔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DEUTERONOMY 11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2**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3**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4**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a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a 히, '암 썩프', 다음과 같은 지역을 암시하고 있음. (1) 수에즈 만과 지중해의 하구 사이에 있는 호수들과 늪지대 (2) 수에즈 만 (3) 아카바 만) **5** 또 당신들이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6**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7**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8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9**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10**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11**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댍니다. **12**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선달 그믐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13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b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b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나의') **14** c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d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 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c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내가' d 히, '이른

비와 늦은 비') ¹⁵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¹⁶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¹⁷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¹⁸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¹⁹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²⁰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²¹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²²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²³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²⁴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²⁵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²⁶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²⁷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²⁸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²⁹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³⁰이 두 산은 요단 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레 상수리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 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선택된 예배 처소

³¹"당신들은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³²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DEUTERONOMY 12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²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³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 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⁴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⁵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

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⁶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 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⁷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⁸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⁹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 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¹⁰그러나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 때에는, ¹¹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¹²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¹³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¹⁴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¹⁵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¹⁶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¹⁷당신들이 십일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¹⁸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¹⁹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²⁰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²¹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²²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²³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²⁴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²⁵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²⁶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²⁷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결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28**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상숭배 경고

29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30**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옳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 번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1**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32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 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DEUTERONOMY 13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2**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3**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4**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5**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6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꺾거나, **7**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8**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9**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10** 그는 당신들을 꺾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어야 합니다. **11**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12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13** 당신들 가운데서 a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a 히, '브네 불리야알') **14**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

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¹⁵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¹⁶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 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 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¹⁷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¹⁸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지된 애도 풍속

DEUTERONOMY 14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²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레 11:1-47)

³○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⁴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⁵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⁶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⁷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과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⁸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⁹○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¹⁰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¹¹○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¹²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¹³매와 붉은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¹⁴각종 모든 까마귀와 ¹⁵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¹⁶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¹⁷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¹⁸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¹⁹○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²⁰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²¹○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a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키 마십시오."(a 가나안 토착민의 풍요제에서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의식이 있었음)

십일조 규정

22○"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23**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4**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당신들은 그것을 **b**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b** 히, '은으로') **26**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27**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28○당신들은 매 삼 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9**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빛을 면제해 주는 해(레 25:1-7)

DEUTERONOMY 15 "매 칠 년 끝에는 빛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2**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그 빛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a**주님께서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빛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a** 또는 '주님의 면제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3**이방 사람에게 준 빛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빛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4○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5**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6**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7○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 쥐지 마십시오. **8**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9**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b**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b** 히,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며') **10**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 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11**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출 21:1-11)

12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13**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 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14**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 떼와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15**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16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17**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18**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두 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19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20**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21**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22**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23**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유월절(출 12:1-20)

DEUTERONOMY 16 "당신들은 a아빕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빕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셨기 때문입니다. (a 유다인의 정월. 후에 닛산이라고 부름. 양력 삼월 중순 이후) **2**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3**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4** 이레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5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7**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

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⁸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칠칠절(출 34:22; 레 23:15-21)

⁹○"그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레를 세십시오. ¹⁰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¹¹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¹²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초막절(레 23:33-43)

¹³○"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¹⁴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¹⁵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¹⁶○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¹⁷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

¹⁸○"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¹⁹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²⁰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²¹○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 안 됩니다. ²²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DEUTERONOMY 17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²○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³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엮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⁴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

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⁵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도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⁶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⁷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도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도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⁸○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a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a 또는 '살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구타 사건으로') ⁹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 때에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입니다. ¹⁰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 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¹¹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 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¹²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¹³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¹⁴○"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¹⁵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겨레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겨레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¹⁶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¹⁷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둬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¹⁸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b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묶겨 적어, (b '이 율법책의 복사본'을 칠십인역이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번역하였고, 여기에서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나옴) ¹⁹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²⁰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겨레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

DEUTERONOMY 18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²그들이 그 겨레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³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⁴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⁵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⁶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곳이 어디든지, ⁷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⁸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이교 풍속에 관한 경고

⁹"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¹⁰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a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a 또는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사람과') ¹¹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¹²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¹³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를 보낼 약속

¹⁴"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¹⁵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¹⁶이것은 당신이 호렙 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 때에 당신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¹⁷그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¹⁸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¹⁹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²⁰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²¹○그런데 당신들이 마음 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²²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피성(민 35:9-28; 수 20:1-9)

DEUTERONOMY 19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²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³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⁴○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⁵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⁶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a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a 히, '고엘 핫담(피의 보수자)') ⁷내가 세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⁸○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⁹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¹⁰그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¹¹○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¹²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¹³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

¹⁴○"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 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증인에 대한 규정

¹⁵○"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b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b 히,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이 있어야만') ¹⁶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¹⁷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¹⁸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¹⁹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²⁰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²¹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전쟁에 관한 법

DEUTERONOMY 20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²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³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⁴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⁵○"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⁶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⁷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⁸○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⁹○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¹⁰○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¹¹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¹²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¹³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¹⁴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

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15**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16○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면 안 됩니다. **17**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18**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19○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20**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

DEUTERONOMY 21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2**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3**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4**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5**그 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6**이 때에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7**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8**주님,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9**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10○"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11**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12**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13**잡혀 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14**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

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아들의 상속권

15"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만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16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 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만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17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만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만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

18"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19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20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21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타 규정

22"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23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DEUTERONOMY 22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반드시 끌러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러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3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4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5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6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7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8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9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

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10○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받을 갈지 마십시오.
11○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12○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겹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순결에 관한 법

13○"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14'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a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a 또는 '그가 처녀라는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15'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16'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17'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18'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19'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백 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20'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21'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2'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3'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24'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5'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26'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7'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28'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29'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30'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b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b 히,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못한다')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DEUTERONOMY 23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2○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십 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3○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십 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4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브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5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6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7○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8그들에게서 태어난 삼 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을 깨끗하게 하는 법

9○"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10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뒀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1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당신들은 진 바깥의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 곳에 갈 때에는, 13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14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기타 규정

15○"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16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a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a 가나안의 풍요 종교에는 신전 창녀와 신전 남창이 있어서 풍요의 신을 숭배하였음) 18창녀가 번 돈이나 b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b 히, '개의 소득')

19○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0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21○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22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23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24○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25○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c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c 히, '곡식 밭에')

이혼과 재혼

DEUTERONOMY 24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2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4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규정

5○"아내를 맞은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6○맷돌은, 전부나 그 위쪽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7○어떤 사람이 같은 겨레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8○a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a 전통적으로 나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뜻함)

9○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10○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11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12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의 집에 잡아 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13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겹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14○같은 겨레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5그 날 품삷은 그 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 품삷을 그 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날 품삷을 못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16○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17○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잡아서는 안 됩니다. 18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20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1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2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EUTERONOMY 25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3그러나 매를 마흔 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마흔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거래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5○"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6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7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잇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8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9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10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다른 법

11○"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12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13○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당신들의 집에 크고작은 다른 되가 두 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5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

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16**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라는 명령

17○"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18**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19**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햇곡식 예물

DEUTERONOMY 26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2**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3**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4**○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5**○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7**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주님께서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주님, 주님께서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11**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12**○세 해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13**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

다. **14**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일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15**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16○"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17**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8**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9**주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돌에 새긴 율법

DEUTERONOMY 27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2**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3**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4**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5**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6**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또 a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a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몸을 일부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음) **8**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9**○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에발 산에서 선포한 저주

11○그 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12**○"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13**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 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¹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¹⁵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¹⁶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¹⁷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¹⁸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¹⁹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¹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²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³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⁵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²⁶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여 받는 복(레 26:3-13; 신 7:12-24)

DEUTERONOMY 28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² 당신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³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⁴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⁵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⁶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⁷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⁸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⁹ 당신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¹⁰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1**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 주님께서,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13**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15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16**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7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8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9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0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a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a 히, '나를') **21** 주님께서,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22** 주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23**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늦이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24**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25 주님께서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26**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27**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8** 주님께서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29**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30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31**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 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 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 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

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³²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³³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³⁴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³⁵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³⁶○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 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³⁷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 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³⁸○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 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³⁹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갇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⁴⁰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⁴¹당신들이 아들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 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⁴²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⁴³○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⁴⁴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⁴⁵○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⁴⁶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⁴⁷○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⁴⁸당신들은 굶주리고 목 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 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⁴⁹주님께서 땅 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⁵⁰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⁵¹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⁵²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⁵³○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⁵⁴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 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⁵⁵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⁵⁶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밭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끓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⁵⁷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⁵⁸○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⁵⁹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⁶⁰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⁶¹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⁶²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⁶³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⁶⁴○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흠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⁶⁵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⁶⁶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⁶⁷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⁶⁸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DEUTERONOMY 29 이것은, 주님께서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²○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³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⁴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⁵('나는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⁶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⁷이 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싸우려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⁸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⁹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10 ○오늘 당신들은, **a**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지도자들과 지파와 장로들과 관리들을') **11**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 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12**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13**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14**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15**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16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17**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18**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20**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21**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22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23**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24**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25**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26**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27**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28**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 버리신 것이다.'

29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 받는 길

DEUTERONOMY 30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

저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²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³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⁴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⁵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⁶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⁷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⁸그 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⁹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¹⁰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¹¹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¹²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¹³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¹⁴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¹⁵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¹⁶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¹⁷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¹⁸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¹⁹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²⁰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

DEUTERONOMY 31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²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가 백스무 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

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³주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⁴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⁵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⁶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⁷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⁸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일곱 해마다 회중에게 율법을 읽어 주라

⁹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¹⁰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일곱 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빗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¹¹온 이스라엘이 주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¹²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¹³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¹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¹⁵그 때에 주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¹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¹⁷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¹⁸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 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¹⁹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²⁰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²¹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22○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23○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24○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25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6"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27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28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29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오.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오."

모세의 노래

30○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DEUTERONOMY 32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2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3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4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5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6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갇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7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 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8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에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a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
대로')

9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10주님께서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 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 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11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12주님께서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13주님께서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14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15 b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b 히, '여수룬(의인 또는 정직한 사람)')

16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17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18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19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20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21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22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스올까지 타들어 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리고,
멧부리까지 살라 버릴 것이다.

23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24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 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 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25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26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 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27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28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29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30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천 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31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32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33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34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35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36그들이 기진맥진 하고,
갇힌 사람도 놓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37그 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38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39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40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41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42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43c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c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하늘아, 주님의 백성을 찬양하여라. 모든
신들아,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서 그 자녀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주님께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의 백성
의 땅을 정결하게 하신다')

모세의 마지막 말

44○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45**모
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46**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
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47**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48"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9"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50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네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51이는, 네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므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2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의 축복

DEUTERONOMY 33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2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3주님께서 a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a 또는 '그의 백성')

4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5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6b"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b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두고 하는 말)

7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c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c 히, '유다가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8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d됨임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d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d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 사용한 것임. 그 사용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음)

9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10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12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 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13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14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15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16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17 그들은 e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낏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e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그의 첫 수송아지')

18 스불론 지파와 잇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잇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19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일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20갓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 지파의 땅을 넓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21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22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23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f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남쪽)

24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25쇠와 놋으로 만든 문빋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26"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27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28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29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런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모세의 죽음

DEUTERONOMY 34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 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a**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 주셨다.(**a** 요단 동편) **2**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3**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 주셨다. **4**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5**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6**모압 땅 벳브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8**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다.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10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11**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1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Footnotes

Footnote from Deuteronomy 2:21 ([Back](#))

[\[1\]](#) 2:21 Hebrew *them*

Footnote from Deuteronomy 2:34 ([Back](#))

[\[2\]](#) **2:34**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3:6 ([Back](#))

[\[1\]](#) **3:6**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Deuteronomy 3:11 ([Back](#))

[\[2\]](#) **3:1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Deuteronomy 3:11 ([Back](#))

[\[3\]](#) **3:11** Hebrew *cubit of a man*

Footnote from Deuteronomy 4:1 ([Back](#))

[\[1\]](#) **4:1** Or *just decrees*; also verses 5, 8, 14, 45

Footnote from Deuteronomy 4:13 ([Back](#))

[\[2\]](#) 4:13 Hebrew *words*

Footnote from Deuteronomy 4:37 ([Back](#))

[\[3\]](#) 4:37 Hebrew *his offspring after him*

Footnote from Deuteronomy 4:48 ([Back](#))

[\[4\]](#) **4:48** Syriac; Hebrew *S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5:7 ([Back](#))

[\[1\]](#) 5:7 Or *besides*

Footnote from Deuteronomy 5:10 ([Back](#))

[\[2\]](#) **5:10** Or *to the thousandth genera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5:15 ([Back](#))

[\[3\]](#) 5:15 Or *servant*

Footnote from Deuteronomy 5:17 ([Back](#))

[\[4\]](#) **5:17** The Hebrew word also covers causing human death through carelessness or negligence

Footnote from Deuteronomy 5:29 ([Back](#))

[\[5\]](#) **5:29** Or *sons*

Footnote from Deuteronomy 6:1 ([Back](#))

[\[1\]](#) **6:1** Or *just decrees*; also verse 20

Footnote from Deuteronomy 6:4 ([Back](#))

[\[2\]](#) **6:4** Or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or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or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alone*

Footnote from Deuteronomy 7:2 ([Back](#))

[\[1\]](#) **7:2**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7:22 ([Back](#))

[\[2\]](#) 7:22 Or *quickly*

Footnote from Deuteronomy 7:26 ([Back](#))

[\[3\]](#) **7:26**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Deuteronomy 8:3 ([Back](#))

[\[1\]](#) **8:3** Hebrew *by all*

Footnote from Deuteronomy 9:16 ([Back](#))

[\[1\]](#) **9:16** Hebrew *cast metal*

Footnote from Deuteronomy 10:4 ([Back](#))

[\[1\]](#) **10:4** Hebrew *words*

Footnote from Deuteronomy 10:6 ([Back](#))

[\[2\]](#) **10:6** Or *the wells of the Bene-jaakan*

Footnote from Deuteronomy 11:2 ([Back](#))

[\[1\]](#) 11:2 Or *instruc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11:10 ([Back](#))

[\[2\]](#) **11:10** Hebrew *watered it with your feet*

Footnote from Deuteronomy 11:14 ([Back](#))

[\[3\]](#) **11:14** Samaritan, Septuagint, Vulgate; Hebrew *I*; also verse 15

Footnote from Deuteronomy 11:24 ([Back](#))

[\[4\]](#) **11:24** Hebrew *and*

Footnote from Deuteronomy 11:30 ([Back](#))

[\[5\]](#) **11:30** Septuagint, Syriac; see Genesis 12:6. Hebrew *oaks*, or *terebinths*

Footnote from Deuteronomy 12:5 ([Back](#))

[\[1\]](#) **12:5** Or *name as its habita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12:32 ([Back](#))

[\[2\]](#) **12:32** Ch 13:1 in Hebrew

Footnote from Deuteronomy 13:5 ([Back](#))

[\[1\]](#) **13:5** Or *evil person*

Footnote from Deuteronomy 13:6 ([Back](#))

[\[2\]](#) **13:6** Hebrew *the wife of your bosom*

Footnote from Deuteronomy 13:15 ([Back](#))

[\[3\]](#) **13:15** That is, setting apart (devoting)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14:5 ([Back](#))

[\[1\]](#) 14:5 Or *addax*

Footnote from Deuteronomy 14:12 ([Back](#))

[\[2\]](#) **14:12** The identity of many of these birds is uncertain

Footnote from Deuteronomy 15:9 ([Back](#))

[\[1\]](#) **15:9** Or *be evil*; also verse 10

Footnote from Deuteronomy 15:12 ([Back](#))

[\[2\]](#) **15:12** Or *sells himself*

Footnote from Deuteronomy 15:17 ([Back](#))

[3] **15:17** Or *servant*; the Hebrew term “*ebed*” designates a range of social and economic roles (see [Preface](#))

Footnote from Deuteronomy 15:17 ([Back](#))

[\[4\]](#) 15:17 Or *servant*

Footnote from Deuteronomy 17:7 ([Back](#))

[\[1\]](#) 17:7 Septuagint *drive out*; also verse 12

Footnote from Deuteronomy 17:7 ([Back](#))

[\[2\]](#) 17:7 Or *evil person*; also verse 12

Footnote from Deuteronomy 17:18 ([Back](#))

[\[3\]](#) **17:18** Hebrew *from before*

Footnote from Deuteronomy 18:1 ([Back](#))

[\[1\]](#) **18:1** Or *the offerings by fire to the LORD*

Footnote from Deuteronomy 18:1 ([Back](#))

[\[2\]](#) 18:1 Hebrew *his*

Footnote from Deuteronomy 18:6 ([Back](#))

[\[3\]](#) **18:6** Or *lives—if he comes enthusiastically*

Footnote from Deuteronomy 18:8 ([Back](#))

[\[4\]](#) **18:8**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Deuteronomy 18:10 ([Back](#))

[\[5\]](#) **18:10** Hebrew *makes his son or his daughter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Deuteronomy 18:20 ([Back](#))

[\[6\]](#) 18:20 Or *and*

Footnote from Deuteronomy 19:3 ([Back](#))

[\[1\]](#) 19:3 Hebrew *road*

Footnote from Deuteronomy 19:13 ([Back](#))

[\[2\]](#) **19:13** Or *the blood of the innocent*

Footnote from Deuteronomy 19:19 ([Back](#))

[\[3\]](#) 19:19 Or *evil person*

Footnote from Deuteronomy 20:17 ([Back](#))

[\[1\]](#) **20:17**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Deuteronomy 21:15 ([Back](#))

[\[1\]](#) **21:15** Or *hated*; also verses 16, 17

Footnote from Deuteronomy 22:9 ([Back](#))

[\[1\]](#) 22:9 Hebrew *become holy*

Footnote from Deuteronomy 22:18 ([Back](#))

[\[2\]](#) **22:18** Or *discipline*

Footnote from Deuteronomy 22:19 ([Back](#))

[\[3\]](#) **22:19**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Deuteronomy 22:19 ([Back](#))

[\[4\]](#) 22:19 Or *girl of marriageable age*

Footnote from Deuteronomy 22:30 ([Back](#))

[\[5\]](#) **22:30** Ch 23:1 in Hebrew

Footnote from Deuteronomy 22:30 ([Back](#))

[6] 22:30 Hebrew *uncover his father's skirt*

Footnote from Deuteronomy 23:15 ([Back](#))

[\[1\]](#) **23:15** Or *servant*; the Hebrew term “*ebed*” designates a range of social and economic roles (see [Preface](#))

Footnote from Deuteronomy 23:18 ([Back](#))

[\[2\]](#) **23:18** Or *male prostitute*

Footnote from Deuteronomy 24:8 ([Back](#))

[\[1\]](#) **24:8**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Deuteronomy 25:10 ([Back](#))

[\[1\]](#) **25:10** Hebrew *its name*

Footnote from Deuteronomy 25:15 ([Back](#))

[2] 25:15 Or *just*, or *righteous*;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Deuteronomy 26:8 ([Back](#))

[\[1\]](#) 26:8 Hebrew *with great terror*

Footnote from Deuteronomy 27:6 ([Back](#))

[\[1\]](#) 27:6 Hebrew *whole*

Footnote from Deuteronomy 27:20 ([Back](#))

[\[2\]](#) **27:20** Hebrew *uncovered his father's skirt*

Footnote from Deuteronomy 28:22 ([Back](#))

[\[1\]](#) 28:22 Or *sword*

Footnote from Deuteronomy 28:29 ([Back](#))

[2] **28:29** Or *shall not succeed in finding your ways*

Footnote from Deuteronomy 28:42 ([Back](#))

[\[3\]](#) 28:42 Identity uncertain

Footnote from Deuteronomy 28:54 ([Back](#))

[\[4\]](#) **28:54** Hebrew *the wife of his bosom*

Footnote from Deuteronomy 28:56 ([Back](#))

[\[5\]](#) **28:56** Hebrew *the husband of her bosom*

Footnote from Deuteronomy 29:1 ([Back](#))

[\[1\]](#) **29:1** Ch 28:69 in Hebrew

Footnote from Deuteronomy 29:2 ([Back](#))

[\[2\]](#) **29:2** Ch 29:1 in Hebrew

Footnote from Deuteronomy 29:9 ([Back](#))

[\[3\]](#) 29:9 Or *deal wisely*

Footnote from Deuteronomy 29:10 ([Back](#))

[\[4\]](#) **29:10** Septuagint, Syriac; Hebrew *your heads, your tribes*

Footnote from Deuteronomy 30:16 ([Back](#))

[\[1\]](#) **30:16** Septuagint; Hebrew lacks *If you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Footnote from Deuteronomy 30:16 ([Back](#))

[\[2\]](#) **30:16** Or *his just decrees*

Footnote from Deuteronomy 31:23 ([Back](#))

[\[1\]](#) **31:23** Hebrew *he*

Footnote from Deuteronomy 32:8 ([Back](#))

[1] 32:8 Or *territories*

Footnote from Deuteronomy 32:8 ([Back](#))

[\[2\]](#) **32:8** Compare Dead Sea Scroll, Septuagint; Masoretic Text *sons of Israel*

Footnote from Deuteronomy 32:14 ([Back](#))

[\[3\]](#) **32:14** That is, with the best

Footnote from Deuteronomy 32:14 ([Back](#))

[\[4\]](#) **32:14** Hebrew *with the kidney fat*

Footnote from Deuteronomy 32:18 ([Back](#))

[\[5\]](#) 32:18 Or *fathered*

Footnote from Deuteronomy 32:35 ([Back](#))

[\[6\]](#) **32:35** Septuagint *and I will repay*

Footnote from Deuteronomy 32:36 ([Back](#))

[\[7\]](#) **32:36** Septuagint *judge*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1 ([Back](#))

[\[8\]](#) **32:41** Hebrew *the lightning of my sword*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9\]](#) **32:43** Dead Sea Scroll, Septuagint; Masoretic Text *Rejoice his people, O nations*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10\]](#) **32:43** Masoretic Text lacks *bow down to him, all gods*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11\]](#) **32:43** Dead Sea Scroll, Septuagint; Masoretic Text *servants*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12\]](#) **32:43** Dead Sea Scroll, Septuagint; Masoretic Text lacks *He repays those who hate him*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13\]](#) 32:43 Or *atones for*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3 ([Back](#))

[\[14\]](#) **32:43** Septuagint, Vulgate; Hebrew *his land his people*

Footnote from Deuteronomy 32:44 ([Back](#))

[\[15\]](#) **32:44**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Hoshea*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 ([Back](#))

[\[1\]](#) **33:2**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them*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 ([Back](#))

[\[2\]](#) **33:2**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Deuteronomy 33:3 ([Back](#))

[\[3\]](#) **33:3** Septuagint; Hebrew *peoples*

Footnote from Deuteronomy 33:3 ([Back](#))

[\[4\]](#) 33:3 Hebrew *your*

Footnote from Deuteronomy 33:3 ([Back](#))

[\[5\]](#) **33:3**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Deuteronomy 33:5 ([Back](#))

[\[6\]](#) 33:5 Hebrew *Thus he*

Footnote from Deuteronomy 33:7 ([Back](#))

[\[7\]](#) **33:7** Probable reading; Hebrew *With his hands he contended*

Footnote from Deuteronomy 33:8 ([Back](#))

[\[8\]](#) **33:8** Dead Sea Scroll, Septuagint; Masoretic Text lacks *Give to Levi*

Footnote from Deuteronomy 33:12 ([Back](#))

[\[9\]](#) **33:12** Septuagint; Hebrew *dwells in safety by him. He*

Footnote from Deuteronomy 33:13 ([Back](#))

[\[10\]](#) **33:13** Two Hebrew manuscripts and Targum; Hebrew *with the dew*

Footnote from Deuteronomy 33:17 ([Back](#))

[\[11\]](#) **33:17** Dead Sea Scroll, Septuagint, Samaritan; Masoretic Text *His firstborn bull*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3 ([Back](#))

[\[12\]](#) 33:23 Or *west*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7 ([Back](#))

[\[13\]](#) **33:27** Or *a dwelling place*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7 ([Back](#))

[\[14\]](#) **33:27** Revocalization of verse 27 yields *He subdues the ancient gods, and shatters the forces of old*

Footnote from Deuteronomy 33:28 ([Back](#))

[\[15\]](#) **33:28** Hebrew *the abode of Jacob was alone*

여 호 수 아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oshua 1](#) • [Joshua 2](#) • [Joshua 3](#) • [Joshua 4](#) • [Joshua 5](#) • [Joshua 6](#) • [Joshua 7](#) • [Joshua 8](#) • [Joshua 9](#)
• [Joshua 10](#) • [Joshua 11](#) • [Joshua 12](#) • [Joshua 13](#) • [Joshua 14](#) • [Joshua 15](#) • [Joshua 16](#) • [Joshua 17](#)
• [Joshua 18](#) • [Joshua 19](#) • [Joshua 20](#) • [Joshua 21](#) • [Joshua 22](#) • [Joshua 23](#) • [Joshua 24](#)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다

JOSHUA 1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嫩的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a**요단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a** 요단 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3**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4b**광야에서부터 **c**레바논까지, **d**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헛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b** 남쪽 경계 **c** 북쪽 경계 **d** 동쪽 경계) **5**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6**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7**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e**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e** 또는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9**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10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 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12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13**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f**요단 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f** 히, '이 땅을') **14**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g**요단 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g** 히, '요단 이편의') **15**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 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16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18**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

억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JOSHUA 2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 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a창녀가 살고 있었다.(a 요세푸스, '여관 주인') **2**그 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웁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3**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4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5**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6**그러나 그 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 놓은 삼대 속에 숨겨 놓은 뒤였다. **7**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8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9**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10**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b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c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b 히, '암 쉰프' c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 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11**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12**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13**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 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14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d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d 히, '우리의 생명은 너희의 생명')

15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16**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17○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18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 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매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19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20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21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22○그들은 그 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23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e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e 요단 강 동쪽으로 돌아옴) 24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다

JOSHUA 3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싯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곳에 진을 쳤다. 2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3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4당신들이 이전에 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이천 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5○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6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7○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8이제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의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9○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 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0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 강을 건널 것입니다. 12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13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 물에 닿으면, 요단 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 줄기가 끊기고, 독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14○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15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차 올랐다. 그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에 닿았을 때에, 16위에서부

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독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17**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기념비를 세우다

JOSHUA 4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넌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3**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 요단 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4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5**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6**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7**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8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 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 곳에 내려놓았다. **9** 여호수아는 요단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a** 다른 열두 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a**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을 따름. 히, '열두 개의 돌') **10**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었다.

11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2**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13**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14** 약 사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15** 그 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16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7**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18**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19**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20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번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21**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서 가져 온 돌 열두 개를 길갈에 세우고 **22**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23**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24**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25**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JOSHUA 5 요단 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2○그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a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a '할례 산') **4**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 때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5**그 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6**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사십 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7**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8○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낮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9**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b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c길갈이라고 한다.(b 히, '갈랄' c 길갈은 '굴리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갈랄과 발음이 비슷함)

10○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11**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12**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칼을 든 사람

13○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14○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리고 성의 함락

JOSHUA 6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2**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3**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옛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4**제사장 일곱 명을, 숫양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 **5**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6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7**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8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9**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10**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소리로 외쳐라." **11**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12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13**제각기 숫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14**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옛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15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 **16**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17**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a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 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a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18**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19**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20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21**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22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 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23**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 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24**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25**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 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만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27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간의 죄

JOSHUA 7 이스라엘 자손이, a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삼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a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b베델 동쪽 c벳아웬 곁에 있는 d아이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였다.(b '하나님의 집' c '악한 자의 집',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벳아웬(악한 자의 집)과 베델(하나님의 집)이 대조되어 나옴. 칠십인역에는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임 d '폐허') **3**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 명이나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 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 백성 가운데서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5** 아이 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서른여섯 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6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7**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 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8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 버릴 터인데,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10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 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2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3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14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15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 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16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17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18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19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e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f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e 진실을 말하게 하는 엄숙한 명령 f또는 '그를 찬양하여라')

20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22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23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데로 가져 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24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25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26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g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g'고통'. 아골은 '괴롭히다'(25절)라고 번역된 '아갈'과 같은 어원임)

아이 성의 붕괴

JOSHUA 8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²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³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⁴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리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⁵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 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⁶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⁷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⁸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⁹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성 서쪽,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 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¹⁰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 성을 향하여 쳐올라갔다. ¹¹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 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 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¹²그는 오천 명을 뽑아서 아이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¹³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북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¹⁴아이 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의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북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¹⁵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¹⁶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¹⁷아이 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a 칠십인역에는 '베델'이 없음)

¹⁸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 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켰다. ¹⁹그가 손을 쳐든 순간, 북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 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²⁰아이 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²¹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북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 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²²북병들도 아이 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 성 사람들은 앞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 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²³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²⁴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 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²⁵그 날 아이 성 사람 남녀 만 이천 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²⁶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주민을 b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b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²⁷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²⁸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²⁹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에발 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³⁰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 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³¹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³²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³³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³⁴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³⁵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JOSHUA 9 요단 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²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³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⁴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축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⁵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⁶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⁷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⁸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9○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10또 주님께서 요단 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11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12우리가 가져 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썰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13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14○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 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15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 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16○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17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여아림이었다. 18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19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20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 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21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22○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23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24○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25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26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27바로 그 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건지다

JOSHUA 10 예루살렘 왕 a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b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a '의의 주' b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2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3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갈을 보냈다. 4"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침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5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6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7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8그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9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10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11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2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3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c'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c '의로운 자의 책'. 영웅담을 수록한 책, 현존하지 않음. 삼하 1:18에도 인용되었음) 14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15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 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다섯 왕을 사로잡다

16○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17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 왔다. 18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19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20○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 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21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22○그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23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뫣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24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25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26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 두었다. 27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 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28○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29○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건너가서, 립나와 싸웠다. 30주님께서 립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립나의 왕도 무찔렀다.

31○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32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립나에서 한 것과 꼭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33그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34○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35그들은 그 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꼭 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36○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37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꼭 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38○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39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립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40○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겟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41**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42**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43**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JOSHUA 1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삼의 왕과, **2**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3**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4**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효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5**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6○그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7**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롬 물가로 돌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8**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a미스르봇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a '불타는 물'. 온천지대를 말함) **9**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10○그 때에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 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11**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b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b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12○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13**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14**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다. **15**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

16○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겟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17**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죽였다. **18**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19**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20**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21○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22**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23○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

JOSHUA 12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2**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압복 강까지를 다스렸다. **3**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티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4○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 족 가운데서 살아 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5**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6**○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7○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할락 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8**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9**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의 아이 왕이 하나, **10**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11**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12**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13**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14**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15**립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16**막게다 왕

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¹⁷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¹⁸아벡 왕이 하나, 랏사론 왕이 하나, ¹⁹마돈 왕이 하나, 하술 왕이 하나, ²⁰시므론므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²¹다아낙 왕이 하나, 므깃도 왕이 하나, ²²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욱느암 왕이 하나, ²³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²⁴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서른한 명이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

JOSHUA 13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²남아 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³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⁴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므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⁵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⁶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⁷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요단 강 동쪽 지역의 분할

⁸○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 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⁹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¹⁰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¹¹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¹²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¹³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¹⁴○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a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a 칠십인 역에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시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땅

¹⁵○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¹⁶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¹⁷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b바뭇바알과 ^c벳바알므온과(^b'바알의 산당' ^c'바알 므온의 집') ¹⁸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¹⁹^d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d'두 성읍') ²⁰벳브올과 비스가 기슭과 벳여시못과 ²¹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혼에게 한 대로 에워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

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혼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²²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브울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²³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 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갓 지파의 땅

²⁴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²⁵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²⁶헤스본에서 라맛미스바와 브도님까지와 e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e'두진영') ²⁷요단 강 계곡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속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 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²⁸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동쪽 므낫세 지파의 땅

²⁹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³⁰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³¹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³²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 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³³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요단 강 서쪽 지역의 분할

JOSHUA 14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a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a'하나님이 도우셨다') ²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아홉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³모세가 이미 요단 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⁴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⁵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다

⁶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⁷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⁸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

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⁹그래서 모세는 그 날 b'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b 신 1:36) ¹⁰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마흔다섯 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든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¹¹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¹²이제 주님께서 그 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¹³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¹⁴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¹⁵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유다 지파의 땅

JOSHUA 15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예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 광야에까지 이른다. ²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³아그랍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앓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⁴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⁵○동쪽 경계선은 요단 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 강이 끝나는 곳, 요단 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⁶벳호글라로 뻗고, 벳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⁷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돔뎀 비탈 맞은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a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 로겔에 이른다.(a '태양의 샘') ⁸그 경계선은 다시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 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⁹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랴여아림에 이른다. ¹⁰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 산에 이르고, 여아림 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b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딘나에 이르고,(b '태양의 집') ¹¹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식그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압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¹²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다(삿 1:11-15)

¹³○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

람의 조상이다. ¹⁴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다. ¹⁵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¹⁶그 때에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¹⁷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그 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¹⁸결혼을 하고 나서, c악사는 자기의 남편 웃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c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사본 가운데 몇몇은 악사가 그의 남편 웃니엘을 시켜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칠십인역 사본 가운데 더러는 웃니엘이 그의 아내 악사를 Jos 15:시켜 장인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함) ¹⁹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d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d 히, '네킵 땅' 또는 '남방 땅')

유다의 성읍들

²⁰o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²¹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²²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²³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²⁴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²⁵하솔하닷다와 그리웃헤스론, 곧 하솔과 ²⁶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²⁷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²⁸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²⁹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³⁰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³¹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³²르바롯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³³o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³⁴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³⁵야르롯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³⁶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³⁷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³⁸딜르안과 미스바와 욱드엘과 ³⁹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⁴⁰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⁴¹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열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⁴²립나와 에델과 아산과 ⁴³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⁴⁴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⁴⁵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⁴⁶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⁴⁷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⁴⁸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⁴⁹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⁵⁰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⁵¹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⁵²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⁵³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⁵⁴훔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⁵⁵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윗다와 ⁵⁶이스르엘과 욱드암과 사노아와 ⁵⁷가인과 기브아와 딘나, 이렇게 열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⁵⁸그리고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⁵⁹마아랏과 벳아놋과 엘드곤,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⁶⁰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랍바, 이 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⁶¹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아

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⁶²납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다.

⁶³○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JOSHUA 16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a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a 히, '여리고의 요단', 요단 강의 옛날 이름이었음) ²그리고 b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b 칠십인역에는 '베델 곧 루스에서부터') ³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호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⁴○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⁵○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앗달에서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⁶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아낫실로에 이르고, 그 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⁷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 강으로 나아가고, ⁸또 담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개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⁹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¹⁰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서쪽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

JOSHUA 17 요단 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 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²요단 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a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겔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a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³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⁴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⁵그래서 요단 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⁶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⁷○므낏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⁸답부아 주변의 땅은 므낏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⁹또 그 경계선은 가나 개울로 내려간다. 그 개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낏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낏세의 경계선은 그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¹⁰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낏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잇사갈에 맞닿았다. ¹¹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아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므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셋째는 나벳인데), 잇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낏세의 소유이다. ¹²므낏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¹³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과 므낏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함

¹⁴○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¹⁵○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 곳을 개간하십시오."

¹⁶○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 병거가 있습니다."

¹⁷○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낏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¹⁸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 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 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나머지 땅 분할

JOSHUA 18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²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³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⁴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 오도록 하겠소. ⁵그 땅은 일곱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⁶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⁷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 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8○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 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9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의 땅

11○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12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벳아웬 광야에 이르고, 13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앗달로 내려가서, 벳호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14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벳호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랴바알 곧 기랴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15남쪽 경계선은 기랴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아 샘의 수원에 이르고, 16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17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돔뎀 비탈 맞은편의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간다. 18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19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 강 남쪽 끝 곧 요단 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20동쪽 경계선은 요단 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21○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22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23아웬과 바라와 오브라와 24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25또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27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28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랴,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시므온 지파의 땅

JOSHUA 19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몫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2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3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4엘돌랏과 브돌과 호르마와 5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6벳르바웃과 사루헨, 이렇게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7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8또 남쪽 라마 곧 바알랏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9시므

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뭇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뭇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뭇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스불론 지파의 땅

10○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뭇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11**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담베셋을 만나서 욱느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12**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13**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서 옛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14**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15**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6**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잇사갈 지파의 땅

17○네 번째로 잇사갈 곧 잇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뭇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18**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빔과 **19**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20**랍빃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21**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22**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 강이다.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23**이것이 잇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셀 지파의 땅

24○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뭇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25**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26**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홀림 낫과 만난다. **27**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불을 지나며, **28**에브론과 르흠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에까지 이른다. **29**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30**또 움마와 아벅과 르흠이라는 스물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31**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납달리 지파의 땅

32○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뭇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33**그 경계선은 헬렘과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겔과 압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 강이다. **34**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놋다볼을 돌아서 그 곳에서 흑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뜨는 요단 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35**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싯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36**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37**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38**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³⁹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단 지파의 땅

⁴⁰○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⁴¹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⁴²사알랍빈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⁴³엘론과 딘나와 에그론과 ⁴⁴엘드게와 김브돈과 바알랏과 ⁴⁵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⁴⁶메알곤과 락곤과 옴바 맞은쪽 지역이다. ⁴⁷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 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⁴⁸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땅 분할 완료

⁴⁹○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⁵⁰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딘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 곳에서 살았다. ⁵¹○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도피성 제도

JOSHUA 20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³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 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⁴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⁵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⁶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⁷○그래서 그들은 요단 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⁸또 여리고 동쪽, 요단 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⁹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

JOSHUA 21 그 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²그 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³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⁴고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열세 성읍이 돌아갔다. ⁵고핫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열 성읍이 돌아갔다.

⁶게르손 자손에게는 잇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열세 성읍이 돌아갔다.

⁷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열두 성읍이 돌아갔다.

⁸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⁹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¹⁰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¹¹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랴아르바 곧 유다 산간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¹²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¹³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립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¹⁴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¹⁵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¹⁶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윗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아홉 성읍을 주었다. ¹⁷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¹⁸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¹⁹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열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²⁰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²¹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²²킵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²³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킵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²⁴아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²⁵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다. ²⁶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열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²⁷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브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²⁸잇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²⁹야르뭇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³⁰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³¹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³²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뿔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³³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³⁴○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므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욱느암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³⁵딤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³⁶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³⁷그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므바앗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³⁸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³⁹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⁴⁰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열두 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⁴¹○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마흔여덟 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⁴²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다

⁴³○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⁴⁴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⁴⁵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JOSHUA 22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 놓고, ²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³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⁴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 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⁵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⁶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⁷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 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 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다. ⁸"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나누어 가

지십시오." 9○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 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요단 강 가에 제단을 쌓다

10○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 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11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12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13○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14요단 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15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16"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17우리가 브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18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오. 19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20세라의 아들 아간이, a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오?"(a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함(6:17, 18, 21; 7:1, 11, 12, 13, 15;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22:20).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전멸시켜야 할 물건' 등으로 번역함)

21○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22"b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겨레인 여러분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b '잘못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여 맹세의 형식을 빌어 말할 때에,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름) 23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24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 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²⁶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²⁷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⁸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²⁹우리는, 번제나 곡식제사를 아무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³⁰○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³¹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 내었소."

³²○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 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³³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³⁴○c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c 시리아어역에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이에서 증명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엷이라고 하였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JOSHUA 23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²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³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⁴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⁵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 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⁶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⁷당신들과 이웃한, 남아 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

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8**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하십시오. **9**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10**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2**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 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13**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울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4**○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5**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 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16**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당부함

JOSHUA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2**그 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3**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 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5**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 곳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6**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7**너희의 조상이 살려 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 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8**나는 너희를 요단 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9**그 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10**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11**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헛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12**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13**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14○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15**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16○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7**주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18**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9○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21○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2**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23**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24**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25○그 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26**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27**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8**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 보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다

29○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백십 세였다. **30**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딘밋세라에 장사하였다. 그 곳은 가아스 산 북쪽에

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다.

31○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32○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 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 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백 냙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33○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Footnotes

Footnote from Joshua 1:7 ([Back](#))

[\[1\]](#) 1:7 Or *may act wisely*

Footnote from Joshua 2:1 ([Back](#))

[\[1\]](#) 2:1 Or *had sent*

Footnote from Joshua 2:8 ([Back](#))

[\[2\]](#) 2:8 Hebrew *they*

Footnote from Joshua 2:10 ([Back](#))

[\[3\]](#) **2:10**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Joshua 2:16 ([Back](#))

[\[4\]](#) 2:16 Or *had said*

Footnote from Joshua 3:4 ([Back](#))

[\[1\]](#) **3:4**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Joshua 3:11 ([Back](#))

[\[2\]](#) **3:11** Hebrew *the ark of the covenant, the Lord of all the earth*

Footnote from Joshua 4:8 ([Back](#))

[\[1\]](#) 4:8 Or *to rest*

Footnote from Joshua 4:9 ([Back](#))

[\[2\]](#) 4:9 Or *Joshua had set up*

Footnote from Joshua 4:24 ([Back](#))

[\[3\]](#) 4:24 Or *all the days*

Footnote from Joshua 5:3 ([Back](#))

[\[1\]](#) **5:3** *Gibeath-haaraloth* means *the hill of the foreskins*

Footnote from Joshua 5:9 ([Back](#))

[\[2\]](#) **5:9** *Gilgal* sounds like the Hebrew for *to roll*

Footnote from Joshua 6:5 ([Back](#))

[\[1\]](#) **6:5** Hebrew *under itself*; also verse 20

Footnote from Joshua 6:17 ([Back](#))

[\[2\]](#) **6:17**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s 18, 21

Footnote from Joshua 7:12 ([Back](#))

[\[1\]](#) **7:12**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Joshua 7:19 ([Back](#))

[\[2\]](#) 7:19 Or *and make confession*

Footnote from Joshua 7:21 ([Back](#))

[\[3\]](#) **7:21**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Joshua 7:26 ([Back](#))

[\[4\]](#) **7:26** *Achor* means *trouble*

Footnote from Joshua 8:14 ([Back](#))

[\[1\]](#) **8:14** Hebrew *appointed time*

Footnote from Joshua 8:26 ([Back](#))

[\[2\]](#) **8:26**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Joshua 8:35 ([Back](#))

[\[3\]](#) **8:35** Or *traveled*

Footnote from Joshua 10:1 ([Back](#))

[\[1\]](#) **10:1**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s 28, 35, 37, 39, 40

Footnote from Joshua 10:2 ([Back](#))

[\[2\]](#) **10:2** One Hebrew manuscript, Vulgate (compare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they*

Footnote from Joshua 10:10 ([Back](#))

[\[3\]](#) 10:10 Or *and he*

Footnote from Joshua 11:11 ([Back](#))

[\[1\]](#) **11:11** That is, setting apart (devoting)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s 12, 20, 21

Footnote from Joshua 12:4 ([Back](#))

[\[1\]](#) **12:4** Septuagint; Hebrew *the boundary of Og*

Footnote from Joshua 12:23 ([Back](#))
[\[2\]](#) **12:23** Septuagint; Hebrew *Gilgal*

Footnote from Joshua 13:8 ([Back](#))

[\[1\]](#) 13:8 Hebrew *With it*

Footnote from Joshua 13:26 ([Back](#))

[\[2\]](#) **13:26**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Lidebir*

Footnote from Joshua 14:15 ([Back](#))

[\[1\]](#) **14:15** *Kiriath-arba* means *the city of Arba*

Footnote from Joshua 14:15 ([Back](#))

[\[2\]](#) **14:15** Hebrew *He*

Footnote from Joshua 17:11 ([Back](#))

[\[1\]](#) **17:11**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shua 18:15 ([Back](#))

[\[1\]](#) **18:15** See 15:9; Hebrew *westward*

Footnote from Joshua 18:18 ([Back](#))

[\[2\]](#) **18:18** Septuagint; Hebrew *to the shoulder over against the Arabah*

Footnote from Joshua 18:28 ([Back](#))

[\[3\]](#) **18:28**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the Jebusite*

Footnote from Joshua 18:28 ([Back](#))

[\[4\]](#) **18:28** Hebrew *Gibeath*

Footnote from Joshua 18:28 ([Back](#))

[\[5\]](#) **18:28** Septuagint; Hebrew *Kiriath*

Footnote from Joshua 19:29 ([Back](#))

[\[1\]](#) **19:29** Compare Septuagint; Hebrew *Mehebel*

Footnote from Joshua 23:14 ([Back](#))

[\[1\]](#) **23:14** Or *words*; also twice in verse 15

Footnote from Joshua 24:2 ([Back](#))

[\[1\]](#) 24:2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Joshua 24:32 ([Back](#))

[\[2\]](#) **24:32** Hebrew *for a hundred qesitah*; a unit of money of unknown value

사사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udges 1](#) • [Judges 2](#) • [Judges 3](#) • [Judges 4](#) • [Judges 5](#) • [Judges 6](#) • [Judges 7](#) • [Judges 8](#) • [Judges 9](#)
• [Judges 10](#) • [Judges 11](#) • [Judges 12](#) • [Judges 13](#) • [Judges 14](#) • [Judges 15](#) • [Judges 16](#) • [Judges 17](#)
• [Judges 18](#) • [Judges 19](#) • [Judges 20](#) • [Judges 21](#)

사사기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섹을 잡다

JUDGES 1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쭙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2**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3**그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4**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섹에서 만 명이나 무찔렀다. **5**그 곳 베섹에서 그들은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6**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7**그러자 아도니베섹은 "내가 일흔 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8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 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9**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지방과 네겟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10**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랴트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웃니엘이 드빌을 정복하다(수 15:13-19)

11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트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12**그 때에 갈렙이, 기랴트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13**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그 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14**결혼을 하고 나서, a악사는 자기의 남편 웃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뭘,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a 칠십인역 사본 가운데 더러는 웃니엘이 그의 아내 악사를 시켜 장인 갈렙에게서 받을 얻어내라고 재촉함. 수 15:18 본문과 주를 볼 것) **15**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16b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랫 c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d백성 가운데 자리잡고 살았다.(b 칠십인역에는 '장인 호باط'.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삿 4:11에서는 호باط이고, 출 2:21에서

는 르우엘이고, 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c 히, '네겔' d 칠십인역 사본 가운데 몇몇과 고대 라틴어역에는 '아말렉 백성 가운데'임. 삼상 15:6을 볼 것) ¹⁷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e호르마라고 부른다.(e '전멸', '멸망') ¹⁸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f점령하였다.(f 칠십인역에는 '점령하지 못하였다') ¹⁹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 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²⁰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²¹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²²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²³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²⁴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²⁵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 보냈다. ²⁶그 사람이 헛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²⁷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²⁸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꾼으로 삼았다.

²⁹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³⁰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룰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꾼이 되었다.

³¹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g아벡과 르흠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g 히, '아벡') ³²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³³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꾼으로 삼았다.

³⁴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³⁵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꾼이 되었다.

³⁶h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랍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h 칠십인역과 고대 라틴어역과 아랍어역과 시리아어역과 헉사플라에는 '에돔 사람')

보킴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

JUDGES 2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²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³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a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움아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a 고대 라틴어역과 불가타와 칠십인역에는 '찌르는 가시' 또는 '적대자들'. 마소라 본문에는 '그들이 너희 편 안에 있고') ⁴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소리로 울었다. ⁵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b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b '우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죽다

⁶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흠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⁷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⁸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백열 살에 죽었다. ⁹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아스 산 북쪽 딘낫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¹⁰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하다

¹¹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¹²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¹³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겼다. ¹⁴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 낼 수 없었다. ¹⁵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¹⁶그 뒤에 주님께서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¹⁷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¹⁸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¹⁹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²⁰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

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²¹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²²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²³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 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땅에 남아 있는 민족들

JUDGES 3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 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 두신 민족들이 있다. ²전에 전쟁을 겪어 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 두신 것이다. ³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⁴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⁵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⁶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 웃니엘

⁷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⁸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여덟 해 동안 섬겼다. ⁹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다. ¹⁰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웃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웃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웃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¹¹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 에훗

¹²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력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¹³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¹⁴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열여덟 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¹⁵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원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¹⁶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¹⁷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

이 썸 사람이었다. 18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19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 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 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20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21그 때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22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23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24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a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a 히, '발을 가리다') 25그러나 b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b 히,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다려도')

26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락로 도망쳤다. 27그가 그 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28"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 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29그 때에 그들이 쳐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만 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30그 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팔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 삼갈

31에훗 다음에는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쳐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사사 드보라

JUDGES 4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2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3야빈은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4그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5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불 산으로 가거라. 7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 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8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9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10**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모았다.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11○그런데 **a**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a** 칠십인역에는 '장인 호باط'은'. 모세의 장인은 민 10:29 및 샅 4:11에서는 호باط이고, 출 2:21에서는 르우엘이고, 출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12○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13**그의 전 병력 곧 구백 대의 철 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 가로 불러모았다. **14**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 산에서 쳐내려갔다. **15**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16**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17**○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18**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이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19**"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20**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21**○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22**바로 그 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 **23**○이렇게 하나님이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24**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JUDGES 5 그 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2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a주님을 찬양하여라. (**a** 또는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하는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3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4주님,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5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6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7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8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사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9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쏘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10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11물 길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 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12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아.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암의 아들아.

13 그 때에 살아 남은 이들이
b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b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로 내려왔고, 주님의 백성이 용
사들과 함께 나에게로 왔다')

14 에브라임에게서는
c아말렉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c 칠십인역에는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고')

15 잇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잇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16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 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17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 강 건너에 자리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19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돋우었다.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의 물 가 다아낙에서
싸움을 돋우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 가지 못하였다.

20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21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22그 때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23"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려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려 나오지 않았다."

24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25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26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27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d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d 칠십인역과 타르굼에는 '창살 틈으로 내다 보았다'. 마소라
본문에는 '창살 틈으로 울부짖었다')

29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30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31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사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사사 기드온

JUDGES 6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 **2**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
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
는 것이었다. **4**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
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

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⁵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⁶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기를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⁷○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⁸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⁹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¹⁰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¹¹○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 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¹²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¹³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¹⁴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¹⁵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¹⁶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¹⁷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¹⁸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¹⁹○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²⁰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²¹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²²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뵈었습니다." ²³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²⁴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a'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a 히, '아도나이 살롬(주님은 평화)')

²⁵○그 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b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일곱 해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

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b 또는 '수소 곧 일곱 해 된 수소를')²⁶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c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c 또는 '그 수소를')²⁷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열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²⁸○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²⁹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 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³⁰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소."

³¹○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한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두시오."³² 그래서 그 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d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d '바알이 싸우게 하여라')

³³○그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³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³⁵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³⁶○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³⁷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 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³⁸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³⁹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⁴⁰ 그 날 밤에 하나님은 그 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쫓아내다

JUDGES 7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룻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²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³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5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6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삼백 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7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8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삼백 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9○그 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10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11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12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3○기드온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14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15○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하고 외쳤다. 16그는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17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백 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20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21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22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싯다와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23○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24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렘과 스엿을 사로잡아,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

이고, 스엿은 스엿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렘과 스엿의 머리를 요단 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 왔다.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JUDGES 8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2**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3** 하나님은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렘과 스엿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4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삼백 명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5** 기드온은 숙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줌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6** 이 말을 들은 숙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시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7**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찢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르고야 말겠소." **8**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 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9**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 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 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만 오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 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십이만 명이 전사하였다. **11**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욱브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12**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14** 숙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묻으니, 그 젊은이가 일흔일곱 명이나 되는 숙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15** 기드온은 숙곳에 이르러 그 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시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16**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찢레를 가져다가, 숙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17**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18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 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19**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 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20** 기드온은 말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21**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22○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23**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24**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25**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걸쭉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26**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패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러싼 사슬이 있었다. **27**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 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에 올라가미가 되었다.

28○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다

29○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30**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일흔 명이나 되었다. **31**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32**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33**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 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35**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비멜렉

JUDGES 9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2**"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 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3**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4**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일흔 냇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5**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 남았다. **6**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7○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8○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9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10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11그러나 무화과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12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13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14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15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16○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론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17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18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일흔 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19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20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 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 버릴 것입니다."

21○요담은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22○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23그 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24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피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25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 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26○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27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28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니까?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룹바알과 그의 심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29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a그리고 아

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a 칠십인역에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말하였다. '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나오너라!'")

30○그 때에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31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32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33아침 일찍 동틀 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34○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35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36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소!"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37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 때는 므오느님 상수리나무쪽에서 내려오고 있소!" 38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 보시오!" 39b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b 또는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장서 나가') 40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41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 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42○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43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때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죽였다. 44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때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때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죽였다. 45아비멜렉은 그 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46○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47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48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49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 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천 명쯤 되었다.

50○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 곳을 점령하였다. 51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 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52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53그러나 그 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위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 버렸다. 54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

르니, 그가 죽었다. ⁵⁵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⁵⁶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일흔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⁵⁷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사 돌라

JUDGES 10 아비멜렉 다음에는 잇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²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삼 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사사 야일

³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⁴그에게는 아들이 서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른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서른 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a하봇야일이라 불린다.(a '야일의 촌락들') ⁵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사사 입다

⁶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⁷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⁸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 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⁹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 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¹⁰그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¹¹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¹²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¹³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¹⁴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¹⁵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¹⁶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¹⁷그 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¹⁸그 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JUDGES 11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²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³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돛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⁴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⁵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⁶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⁷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⁸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⁹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 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¹⁰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¹¹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¹²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¹³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압복 강과 요단 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¹⁴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¹⁵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¹⁶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a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a 히, '암 쑤프') ¹⁷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¹⁸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¹⁹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²⁰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²¹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²²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압복 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 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²³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²⁴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²⁵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26**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삼백 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 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27**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28○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9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30**그 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31**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32**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33**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밍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의 딸

34○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35**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나!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나!" **36**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37**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39**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40**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JUDGES 12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 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2**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3**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4**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⁵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 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 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⁶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 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 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사만 이천이나 되었다.

⁷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사사 입산

⁸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⁹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서른 명을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¹⁰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사사 엘론

¹¹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십 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¹²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알론에 묻혔다.

사사 압돈

¹³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¹⁴그에게는 마흔 명의 아들과 서른 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일흔 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여덟 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¹⁵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삼손의 출생

JUDGES 13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²그 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³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⁴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⁵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a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a 삭도를) ⁶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⁷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9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 때에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10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11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12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13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14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15○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16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17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 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18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19○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20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1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22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 23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24○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25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삼손과 딘나의 처녀

JUDGES 14 삼손이 딘나로 내려갔다가, 딘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2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딘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3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썩시로 데려

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⁴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⁵○삼손이 부모와 함께 딘나로 내려가서, 딘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⁶그 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⁷○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⁸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 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 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⁹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¹⁰○그의 아버지는 사돈 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¹¹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¹²그 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레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겹옷 서른 벌을 내놓고, ¹³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겹옷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¹⁴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¹⁵○a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올려대었다. "신랑을 꺾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새댁과 새댁의 친정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나흘째가 되던 날') ¹⁶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¹⁷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레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레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¹⁸이레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19○그 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끼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20**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JUDGES 15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 주게." **3**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4**나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끼러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화를 하나씩 매달았다. **5**그는 그 화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 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 버렸다. **6**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 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덩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덩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7○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8**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a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a 히, '정갱이 넓적다리를 치고')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9○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10**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 주겠소." **11**그래서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 **12**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13**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14○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 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15**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이나 쳐죽이고 나서, **16**이렇게 외쳤다.

b나귀 턱뼈 하나로
c주검을 d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쳐죽였다. (b 히, '하모르' c 또는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다' d 히, '하모라'.
나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무더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같음)

17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 곳 이름을 e라맛레히라고 불렀다.
(e '나귀 턱뼈 언덕')

18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레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
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19**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
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f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f '부르짖는 사람의 샘')

20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이 가사에 가다

JUDGES 16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2** 삼손이 거기에 왔
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 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3** 그러나 삼손은 밤늦
도록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
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삼손과 들릴라

4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
라였다. **5**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꺾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천백 세겔씩 주겠소."

6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
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7** 삼손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르
지 않은 푸른 칙 일곱 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8**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칙 일곱 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9** 미리 옆 방에 사람들을 숨겨 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
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
오라기를 꿇듯이 꿇어 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 하는지 말해 주세요." **11**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
로 나를 꿇꿇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12**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 방에 사람들을 숨겨 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
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
라기 꿇듯이 꿇어 버렸다. **13**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
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 하는
지 말해 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a"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베틀 낱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a 칠십인역에는 "'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베틀 낱실에 섞어 짜서 그것을 베틀 말뚝에
꼭 잡아매면 나는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래서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들릴라가

그의 머리칼 일곱 가닥을 베틀 낱실에 섞어 짜고, 14. 그것을 베틀 말뚝에 꽂 잡아매었다. 그리고 삼손에게 '삼손,!'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베틀 말뚝과 베틀과 머리칼이 섞여 짜여진 천을 함께 끌어 올렸다") 14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꽂 잡아 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베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15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16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17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 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b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b 삭도를) 18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19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뿔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20 그 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 번처럼 뛰쳐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21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낚사줄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22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죽다

23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다!"

24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 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25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 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두었다. 26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27 그 때에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천 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28○그 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29**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30**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31○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미가 집의 제사장

JUDGES 17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2**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천백 냙을 훔쳐 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3**그는 은돈 천백 냙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 주마." **4**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이백 냙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5○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6**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7○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8**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9**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0**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일 년에 은돈 열 냙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11**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12**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13**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가와 단 지파

JUDGES 18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2**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다섯 명을 뽑

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³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 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⁴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⁵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⁶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⁷그래서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 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⁸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다섯 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⁹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¹⁰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¹¹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육백 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¹²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랴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 곳은 바로 기랴여아림 서쪽에 있다. ¹³그들은 그 곳에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¹⁴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¹⁵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¹⁶단 자손 육백 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¹⁷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¹⁸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¹⁹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²⁰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²¹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²²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²³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 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²⁴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²⁵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²⁶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²⁷○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²⁸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흙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 곳에서 살았다. ²⁹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³⁰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³¹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

JUDGES 19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헬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²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헬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³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⁴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⁵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⁶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좋게 쉬게." ⁷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⁸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⁹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 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¹⁰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¹¹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¹²○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¹³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¹⁴그래서 그들이 그 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¹⁵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16○마침 그 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 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17**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18**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헬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19**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21**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22○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23○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24**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졸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25**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26○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27**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28**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택으로 갔다. **29**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열두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30**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 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이 전쟁준비를 하다

JUDGES 20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2**이 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사십만 명이나 모였다. **3**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4**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5**그 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6**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 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7**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8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10**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백 명마다 열 명을, 천 명마다 백 명을, 만 명마다 천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11**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12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리오? **13**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14**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 들었다. **15**그 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칠백 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만 육천 명이 합세하였다. **16**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칠백 명 왼손잡이들은, 무릿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17**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사십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18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19**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20**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21**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22**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놓아 울면서 여쭙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 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 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23**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놓아 울면서 여쭙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 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 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24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25**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26**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27**주님께 여쭙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28**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겠다."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30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31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꾀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 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 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서른 명 가량 죽였다. 32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꾀어 내자" 하고 말하였다. 33 그 때에 모든 이스라엘 주력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34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만 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35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 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모두 쳐죽였다. 36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

○이스라엘의 주력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 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37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죽였다. 38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매복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39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서른 명 가량을 쳐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꿈쩍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40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치솟아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41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42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여 협살당하고 말았다. 43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44 그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만 팔천 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45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오천 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동에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이천 명을 죽였다. 46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만 오천 명이 그 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47 ○그러나 육백 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48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닦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

JUDGES 2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2**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3**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4**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5**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6**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7**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8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9**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10**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11**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12**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사백 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13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14**그 때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15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6**그 때에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17**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 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8**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19**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20**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21**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22**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23**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효만큼 여자들을 붙들어서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

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²⁴그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 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 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²⁵○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Footnotes

Footnote from Judges 1:17 ([Back](#))

[\[1\]](#) **1:17** *Hormah* means *utter destruction*

Footnote from Judges 2:5 ([Back](#))

[\[1\]](#) **2:5** *Bochim* means *weepers*

Footnote from Judges 3:16 ([Back](#))

[\[1\]](#) **3:16**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Judges 3:23 ([Back](#))

[\[2\]](#) **3:23**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udges 5:10 ([Back](#))

[\[1\]](#) **5:10**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it may connote *saddle blankets*

Footnote from Judges 5:11 ([Back](#))

[\[2\]](#) **5:11** Or *archers*;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udges 5:14 ([Back](#))

[\[3\]](#) **5:14** Septuagint; Hebrew *in Amalek*

Footnote from Judges 5:14 ([Back](#))

[\[4\]](#) **5:14** Hebrew *commander's*

Footnote from Judges 6:13 ([Back](#))

[\[1\]](#) **6:13** Or *Please, my Lord*

Footnote from Judges 6:14 ([Back](#))

[\[2\]](#) **6:14** Septuagint *the angel of the LORD*; also verse 16

Footnote from Judges 6:19 ([Back](#))

[\[3\]](#) **6:19**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Judges 6:32 ([Back](#))

[\[4\]](#) 6:32 Hebrew *he*

Footnote from Judges 7:22 ([Back](#))

[\[1\]](#) **7:22** Some Hebrew manuscripts *Zeredah*

Footnote from Judges 8:3 ([Back](#))

[\[1\]](#) 8:3 Hebrew *their spirit*

Footnote from Judges 8:26 ([Back](#))

[2] **8:26**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Judges 8:30 ([Back](#))

[\[3\]](#) **8:30** Hebrew *who came from his own loins*

Footnote from Judges 9:29 ([Back](#))

[\[1\]](#) **9:29** Septuagint; Hebrew *and he said*

Footnote from Judges 9:31 ([Back](#))

[\[2\]](#) **9:31** Or *at Tormah*

Footnote from Judges 9:31 ([Back](#))

[\[3\]](#) **9:31** Hebrew *besieging*, or *closing up*

Footnote from Judges 9:36 ([Back](#))

[\[4\]](#) **9:36** Hebrew *You see*

Footnote from Judges 11:31 ([Back](#))

[\[1\]](#) 11:31 Or *whoever*

Footnote from Judges 11:31 ([Back](#))

[\[2\]](#) 11:31 Or *him*

Footnote from Judges 12:7 ([Back](#))

[\[1\]](#) **12:7** Septuagint; Hebrew *in the cities of Gilead*

Footnote from Judges 13:19 ([Back](#))

[\[1\]](#) **13:19** Septuagint, Vulgate; Hebrew *LORD, and working*

Footnote from Judges 14:15 ([Back](#))

[\[1\]](#) **14:15** Septuagint, Syriac; Hebrew *seventh*

Footnote from Judges 15:17 ([Back](#))

[\[1\]](#) **15:17** *Ramath-lehi* means *the hill of the jawbone*

Footnote from Judges 15:19 ([Back](#))

[2] 15:19 *En-hakkore* means *the spring of him who called*

Footnote from Judges 16:14 ([Back](#))

[\[1\]](#) **16:14** Compare Septuagint; Hebrew lacks *and fasten it tight . . . ; into the web*

Footnote from Judges 16:24 ([Back](#))

[\[2\]](#) **16:24** Or *who has multiplied our slain*

Footnote from Judges 17:5 ([Back](#))

[\[1\]](#) **17:5** Hebrew *filled the hand of*; also verse 12

Footnote from Judges 18:7 ([Back](#))

[\[1\]](#) **18:7** Compare 18:10;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udges 18:12 ([Back](#))

[\[2\]](#) **18:12** *Mahaneh-dan* means *camp of Dan*

Footnote from Judges 18:30 ([Back](#))

[\[3\]](#) **18:30** Or *Manasseh*

Footnote from Judges 19:2 ([Back](#))

[\[1\]](#) 19:2 Septuagint, Old Latin *became angry with*

Footnote from Judges 19:18 ([Back](#))

[\[2\]](#) **19:18** Septuagint *my home*; compare verse 29

Footnote from Judges 20:33 ([Back](#))

[\[1\]](#) **20:33** Some Septuagint manuscripts *place west of Geba*

Footnote from Judges 20:43 ([Back](#))

[\[2\]](#) **20:43** Septuagint; Hebrew [at their] *resting place*

룻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Ruth 1](#) • [Ruth 2](#) • [Ruth 3](#) • [Ruth 4](#)

룻기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

RUTH 1 a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 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a 또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사 또는 재판관 :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 **2**그 남자의 이름은 b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c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d말론과 e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b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c '기쁨' d '질병' e '황폐') **3**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4**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f한 여자의 이름은 g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h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쯤 살았다.(f 히,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말론과 룻, 기론과 오르바의 부부 관계의 혼란을 막으려고 기록. 순서를 바꿈 (4:10 룻은 말론의 아내임) g '아름다움', '친구' h '이마 갈기', '후방') **5**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다

6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준비를 차렸다. **7**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8**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9**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소리로 울면서 **10**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겨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i아직, 내 뱃속에 아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나?(i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을 염두에 둔 것(신 25:5-10)) **12**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면 하더라도, **13**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나? 그 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나?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14**그들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15**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겨레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6**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18나오미는 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19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20**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c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j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k마라라고 부르십시오.(c '기쁨' j 히, '샤다이' k '괴로움') **21**나는 가득 찬 채로 이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j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l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j 히, '샤다이' l 또는 '쳐서 시험하셨는데') **22**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룯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룯이 보아스를 만나다

RUTH 2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a보아스이다.(a '빠름', '쾌속')

2어느 날 모압 여인 룯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룯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3**그리하여 룯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웠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4**그 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5**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뉘 집 아낙인가?" **6**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7**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8**보아스가 룯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새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깥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⁹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맥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¹⁰그러자 룯은 옆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¹¹보아스가 룯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맥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맥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¹²맥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맥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맥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¹³룯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¹⁴○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룯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룯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¹⁵룯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¹⁶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¹⁷○룯은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¹⁸룯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룯은 주워 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¹⁹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룯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²⁰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²¹모압 여인 룯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깥 따라다니라고 하였습시다." ²²나오미가 며느리 룯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²³그리하여 룯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깥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웠다. 그러면서 룯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룯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RUTH 3 시어머니 나오미가 룯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²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즈음 그 집 여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 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³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⁴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⁵룯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⁶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⁷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날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룯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⁸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⁹"누구요?" 하고 물었다. 룯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룯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말아야 할 분이십니다." ¹⁰보아스가 룯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룯,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 준 가룩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¹¹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룯.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¹²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말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¹³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 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¹⁴룯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¹⁵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겹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룯이 겹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 주고는 a성읍으로 들어갔다.(a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함. 그러나 다른 히브리어 사본들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에는 '(룯이)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음)

¹⁶룯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룯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¹⁷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 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 준 것입니다." ¹⁸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 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룯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RUTH 4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²보아스는 성읍 원로 열 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³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⁴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 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⁵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a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룯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a 고대 라틴어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나오미와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룯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고인의 이름으로 그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시오') ⁶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저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⁷○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⁸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⁹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¹⁰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룯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¹¹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¹²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¹³○보아스는 룯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¹⁴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¹⁵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그막에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¹⁶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¹⁷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¹⁸○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¹⁹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²⁰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²¹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²²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Footnotes

Footnote from Ruth 1:20 ([Back](#))

[\[1\]](#) **1:20** *Naomi* means *pleasant*

Footnote from Ruth 1:20 ([Back](#))

[\[2\]](#) **1:20** *Mara* means *bitter*

Footnote from Ruth 2:7 ([Back](#))

[\[1\]](#) 2:7 Compare Septuagint,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Ruth 2:17 ([Back](#))

[\[2\]](#) **2:17**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Ruth 3:9 ([Back](#))

[\[1\]](#) **3:9** Compare 2:12; the word for *wings* can also mean *corners of a garment*

[\[1\]](#) 4:4 Hebrew *he*

Footnote from Ruth 4:5 ([Back](#))

[\[2\]](#) **4:5** Masoretic Text *you also buy it from Ruth*

사무엘상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Samuel 1](#) • [1 Samuel 2](#) • [1 Samuel 3](#) • [1 Samuel 4](#) • [1 Samuel 5](#) • [1 Samuel 6](#) • [1 Samuel 7](#)
• [1 Samuel 8](#) • [1 Samuel 9](#) • [1 Samuel 10](#) • [1 Samuel 11](#) • [1 Samuel 12](#) • [1 Samuel 13](#)
• [1 Samuel 14](#) • [1 Samuel 15](#) • [1 Samuel 16](#) • [1 Samuel 17](#) • [1 Samuel 18](#) • [1 Samuel 19](#)
• [1 Samuel 20](#) • [1 Samuel 21](#) • [1 Samuel 22](#) • [1 Samuel 23](#) • [1 Samuel 24](#) • [1 Samuel 25](#)
• [1 Samuel 26](#) • [1 Samuel 27](#) • [1 Samuel 28](#) • [1 Samuel 29](#) • [1 Samuel 30](#) • [1 Samuel 31](#)

사무엘상

엘가나의 실로 순례

1SAMUEL 1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솥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솥이다. **2**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a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b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a '풍성한 은혜' b '홍보석') **3**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 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4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5**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6**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7**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8**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나와 엘리

9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c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c 히, '헤칼 아도나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므로, '성막'을 가리킴) **10**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1**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15**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d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d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도수가 높은 술(히, 세카르)) **16**이 종을 e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e 히, '뱃 불리야알(불리야알의 딸)', '악한 여자') **17**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18**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19**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²⁰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f사무엘이라고 지었다.(f'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또는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²¹○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제사와 서원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²²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뵈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 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g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g 사해 사본에는 이 말이 더 있음. 나실 사람은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 ²³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떼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h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떼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h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²⁴○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i삼 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족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i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수소 세 마리') ²⁵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²⁶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²⁷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²⁸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j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j 칠십인역(사해 사본 참조)에는, '그(한나)는 그(사무엘)를 거기에 두어 주님을 섬기게 하였다')

한나의 기도

1SAMUEL 2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a이제 나는
b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c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큼니다. (a 또는 '주님 안에서 내 힘이 높아졌다'. 히, '주님 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힘'을 상징함 b 칠십인역에는 '하나님' c 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²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 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4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5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6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7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9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10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어 세우신 왕에게
d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d 히, '뿔을 높이실 것이다')

11o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

12o엘리의 아들들은 e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e 히, '브네 블리아알(악한 남자)'. 1:16 '나쁜 여자', '밧 블리아알'과 비교) 13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세 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14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15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 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16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 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오.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 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17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실로에 머문 사무엘

18o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19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 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겹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20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21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22o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23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24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25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f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

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f 또는 '법관 이') ²⁶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의 집안에 내린 저주

²⁷○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 서 바로의 집에 g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h나타내 주지 않았느냐?(g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노예였을 때에' h 칠십인역과 타르굼과 시리아어역에는 '나타내 주었다') ²⁸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예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²⁹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i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i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탐내느냐?') ³⁰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³¹j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j 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서' 또는 '내가 네 기운 곧 네 가문의 기운을 끊어서') ³²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k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k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히, '멸시할 것이다') ³³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 버리지 않고 살려 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l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m변사를 당할 것이다.(l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히, '너도' m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히, '죽을 것이다') ³⁴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한 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³⁵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³⁶그 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 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

1SAMUEL 3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²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³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⁴주님께서 a"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⁵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

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6**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7**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8**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10○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1**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12**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13**엘리는, 자기의 아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14**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15○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16**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17**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18**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b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b 히, '선하신 소견대로')

19○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20**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21**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1SAMUEL 4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3**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4**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⁵○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⁶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나?"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⁷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⁸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⁹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¹⁰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저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 때에 아주 크게 저서, 보병 삼만 명이 죽었다. ¹¹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이 때 전사하였다.

엘리가 죽다

¹²○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 나와, 그 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¹³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¹⁴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¹⁵그 무렵, 엘리는 아흔여덟 살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¹⁶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¹⁷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¹⁸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다

¹⁹○그 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²⁰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²¹그 아이의 이름을 a이가봇이라고 지어 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a '영광이 없음') ²²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법궤

1SAMUEL 5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벰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 갔다. ²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³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⁴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⁵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⁶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⁷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⁸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⁹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¹⁰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 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¹¹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소!"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¹²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법궤가 돌아오다

1SAMUEL 6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일곱 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²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우리가 a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a 히, '주님의 궤') ³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⁴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다섯 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⁵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⁶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⁷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8**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 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9**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게 가두었다. **11**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 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싣었다. **12**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13 그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14**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 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15**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 놓았다. 그 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16**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17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뭍으로 하나, 가사 뭍으로 하나, 아스글론 뭍으로 하나, 가드 뭍으로 하나, 에그론 뭍으로 하나였다.

18 금 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다섯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 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기랏여아림으로 간 법궤

19 그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오만 칠십 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20**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21** 그들은 기랏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1 SAMUEL 7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 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⁴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⁵그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⁶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⁷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⁸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⁹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¹⁰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¹¹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벧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¹²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¹³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¹⁴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¹⁵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¹⁶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¹⁷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1 SAMUEL 8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²만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³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⁴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⁵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⁶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⁷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⁸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⁹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

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11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12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13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14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당신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16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a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a 칠십인역에는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짐승들과') 17 그는 또 당신들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8 그 때에야 당신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22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1 SAMUEL 9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2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3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 보라고 말하였다. 4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5 그들이 솥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6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 7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 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 있는 것이 좀 있느냐?" 8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

겠습니다." ⁹(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¹⁰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¹¹○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¹²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¹³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¹⁴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¹⁵○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¹⁶"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a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나의 백성을 보았고')

¹⁷○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¹⁸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¹⁹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드시다. 물어 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²⁰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²¹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²²○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²³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 두었던 부분을 가져 오게." ²⁴요리사가 넓적다리wa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²⁵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b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c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b 칠십인역을 따름. 히,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를 하였다' c 칠십인역을 따름)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다

²⁶○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²⁷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SAMUEL 10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a(a 칠십인역과 불가타에는 1절 끝에 '이제 그대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의 내용이 더 있음)²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려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³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⁴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⁵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 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거문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⁶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⁷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⁸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⁹○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날로 다 나타났다.¹⁰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¹¹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¹²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떨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¹³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¹⁴○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¹⁵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¹⁶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17○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고, **18**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다. **19**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 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20○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21**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22**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작 사이에 숨어 있다." **23**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24**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25○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 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26**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27**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다

1SAMUEL 11 a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a 사해 사본에는 1절 앞에 다음 내용이 있음.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칠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2**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3**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4**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소리로 울었다.

5○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6**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7**사울은 거릿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나섰다. **8**사울이 그들을 베섹에 모으고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에서 b삼십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삼만 명이 왔다.(b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칠십만')⁹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별이 뜨겁게 내리쬐릴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¹⁰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 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¹¹○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¹²○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¹³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¹⁴○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¹⁵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의 고별사

1 SAMUEL 12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 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²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³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a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a 칠십인역을 따름) ⁴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⁵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⁶○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b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b 칠십인역에는 '주님이 바로 증인이시다') ⁷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⁸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c(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c 칠십인역에는 괄호 속의 본문이 있음) ⁹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10**조상들은 주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11**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2**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13**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14**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15**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d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d 칠십인역에는 '너희와 너희의 왕을 쳐서') **16**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17**지금은 밀을 거두어들이는 때가 아닙니까? 그럴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18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9**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20**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21**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22**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3**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24**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25**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1 SAMUEL 13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a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b마흔두 해였다.(a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음. 칠십인역에는 1절 전체가 없음. 여기 '서른 살'이라고 한 것은 칠십인역 후대 사본에 나와 있는 것임. '개역한글판'에는 '사십 세' b 히브리어 본문의 '둘(두)'은 앞의 10단위가 빠져 있는 것임. 그가 대략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에 근거하여(행13:2a, 최근의 역본들을 따라 '마흔두 해'라고 함) **2**그는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과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³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⁴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서 사울을 따랐다.

⁵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에다가,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⁶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⁷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 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⁸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⁹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¹⁰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¹¹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¹²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¹³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¹⁴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¹⁵○사무엘이 일어나서 c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 보니, 약 육백 명쯤 되었다.(c 칠십인역에는 '길갈을 떠나 자기의 갈 길로 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 군대에 합세하였고,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¹⁶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¹⁷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¹⁸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¹⁹○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²⁰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²¹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데는 d삼분의 이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e삼분의 일 세겔이 들었다.(d 히, '2/3핍' 1/4온스 (약 8그램) e 히, '1/3핍' 1/8온스 (약 4그램)) ²²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²³○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블레셋을 습격한 요나단

1SAMUEL 14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사울은 그 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육백 명쯤 되었다. **3a**(아히야가 예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둡이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a '주님의 형제') **4**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5**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게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6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레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 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7**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8**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9**그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10**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11**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12**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13**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죽였다. **14**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15**이 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서로 쳐죽이는 블레셋 군인들

16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17**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 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18**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b 칠십인역에는 '예봇') **19**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20**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

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죽이고 있었다. ²¹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²²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²³그 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²⁴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²⁵c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c 또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²⁶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²⁷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²⁸그 때에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 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²⁹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³⁰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³¹○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 날, 므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³²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째로 고기를 먹었다. ³³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러 오시오!" ³⁴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 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³⁵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³⁶○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어 보아야 합니다." ³⁷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³⁸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³⁹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⁴⁰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⁴¹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d"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d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저에게 둠밈을 보여주십시오') ⁴²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 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⁴³○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⁴⁴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⁴⁵이 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 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⁴⁶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

⁴⁷○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e늘 이겼다.(e 칠십인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들에게 형벌을 과하였다') ⁴⁸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⁴⁹○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워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⁵⁰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⁵¹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⁵²○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 들였다.

아말렉과의 전쟁]

1 SAMUEL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3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 떼와 양 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4○사울이 백성을 불러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5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6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 나갔다.

7○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월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8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 버렸다. 9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10○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11"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12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13○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14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 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 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15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16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17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18주님께서 임금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19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20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²¹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 떼와 소 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²²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²³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²⁴○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²⁵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²⁶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²⁷○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²⁸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²⁹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³⁰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³¹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³²○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a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주저하면서') ³³○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못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못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34○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왕이 되다

35○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 SAMUEL 16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2**사무엘이 여쭙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3**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4**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5**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6○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8**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9**이번에는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10**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11○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a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a 몇몇 칠십인역 사본에는 '얹지 않겠소') **12**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훙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14○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15**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6**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이 나으실 것입니다." **17**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18**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9**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 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20**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21**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22**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23**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 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도전하다

1 SAMUEL 17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2**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3**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4**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a여섯 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a 약 3미터,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네 규빗') **5**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되었다. **6**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8○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 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9**그가 나를 쳐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11**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사울의 진에 나타난 다윗

12○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13**이

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14**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15**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16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아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 왔고, 그런 지가 벌써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이 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볍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 덩 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18**그리고 이 치즈 열 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19**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20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 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21**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22**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23**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24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25**"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26**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구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27**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28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29**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 보지도 못합니까?" **30**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 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31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32**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나?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뺨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

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³⁷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 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³⁸○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³⁹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⁴⁰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릿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⁴¹○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⁴²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흉안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⁴³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⁴⁴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⁴⁵○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⁴⁶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⁴⁷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⁴⁸○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⁴⁹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⁵⁰이렇게 다윗은 무릿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⁵¹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⁵²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아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⁵³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⁵⁴○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다

⁵⁵○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⁵⁶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⁵⁷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⁵⁸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1 SAMUEL 18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²사울은 그 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³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⁴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⁵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⁶○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팽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⁷이 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⁸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⁹그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¹⁰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 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¹¹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¹²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¹³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¹⁴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¹⁵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¹⁶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 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¹⁷○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 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¹⁸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¹⁹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드물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20○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 된 일이라고 여기고, 21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22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십시오." 23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24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25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백 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 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26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a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a 또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27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이백 명을 쳐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8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29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30○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다

1SAMUEL 19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2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3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 주겠네."

4○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5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6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7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 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다

8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9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10**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 날 밤에, **11**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12**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13** 한편, 미갈은, 집 안에 있는 a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14**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15**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16**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 안에 있던 a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누어 놓은 것이었다.(a 히, '테라빔') **17**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 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18**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뭇으로 가서 살았다. **19**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20** 사울은 다윗을 잡아 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21**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22**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뭇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23**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뭇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뭇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24**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요나단이 다윗의 탈출을 도와 주다

1SAMUEL 20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몃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2**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3**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⁴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 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⁵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⁶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⁷그 때에 자네의 아버님이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⁸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a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 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a 또는 '거룩한 언약을 맺었으니') ⁹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 주지 않겠는가?" ¹⁰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 주겠는가?"

¹¹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¹²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¹³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¹⁴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¹⁵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끝지 말고 지켜 주게." ¹⁶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¹⁷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¹⁸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¹⁹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 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²⁰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세 번 쏘겠네. ²¹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 때에 내가 그 종에게 큰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²²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²³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b증인이 되실 걸세."(b 칠십인역에는 '증인이'가 있음)

²⁴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²⁵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c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c 칠십인역을 따름. 히, '요나단은 섰고') ²⁶그런데도그 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²⁷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든 오늘든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²⁸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²⁹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 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³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³¹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 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³²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³³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³⁴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의 이튿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³⁵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³⁶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³⁷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 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³⁸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³⁹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⁴⁰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⁴¹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d결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d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남쪽에서')

⁴²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

1 SAMUEL 21 다윗은 농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²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따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³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

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⁴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⁵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 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이삼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⁶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 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 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 낸 것이었다.

⁷○(그런데 바로 그 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엑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⁸○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⁹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한 다윗

¹⁰○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¹¹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¹²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¹³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영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¹⁴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 왔느냐? ¹⁵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사울이 놈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다

1SAMUEL 22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²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사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³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 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 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⁴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⁵

그 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6○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 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 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7사울이 둘러 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8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민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9○바로 그 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여 있던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농으로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10그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쭙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11그러자 왕은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농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12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둡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13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14○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15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16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17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 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18그러자 왕이 도엑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엑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 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여든다섯 명이나 되었다. 19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농에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 떼나 나귀 떼나 양 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20○아히둡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21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2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 날 내가 에돔 사람 도엑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 때에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23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다]

1SAMUEL 23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2**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쭙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3**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4**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쭙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5**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 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6○(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7○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독 안에 든 쥐다." **8**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9**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10**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11**a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a 여기 나오는 첫 질문이 사해 사본에는 없음) **12**다윗이 다시 한 번 여쭙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주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넘겨 줄 것이다." **13**그래서 다윗은 육백 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 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이 산성으로 피하다

14○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 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b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 주지 않으셨다. **15**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16**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b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b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주님') **17**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18**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9○십 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20**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²¹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²²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 하시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²³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 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 내고야 말겠소."

²⁴○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심 광야로 떠나갔다. 이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 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²⁵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 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²⁶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 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 데, ²⁷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 다고 보고하였다. ²⁸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 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c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c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다]

²⁹○d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d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24장이 시작됨)

1 SAMUEL 24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 고, ²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³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 울이 a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a 히, '발을 가리려고') ⁴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 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 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겔옷자락 을 몰래 잘랐다. ⁵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겔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 게 되었다. ⁶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⁷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⁸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 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 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⁹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 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¹⁰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b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 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1Sa 24:타르굴과 불가타를 따름. 히, '그것(나의 눈)이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¹¹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겔

웃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겹웃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¹²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¹³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¹⁴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¹⁵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¹⁶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놓아 울었다. ¹⁷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¹⁸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¹⁹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²⁰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²¹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 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²²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의 죽음

1 SAMUEL 25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다윗과 아비가일

○그 뒤에 다윗은 a바란 광야로 내려갔다.(a 칠십인역 사본 가운데 더러는 '마온') ²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 떼가 삼천 마리, 염소 떼가 천 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³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⁴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⁵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열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⁶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⁷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⁸일꾼들에게 물어 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

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돌려 보내 주십시오."

9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10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즈음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11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12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13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사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가고, 이백 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14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15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 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 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16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17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앙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 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18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뭉치 백 개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19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 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20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굽이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21 다윗은 단단히 버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 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22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 둔다면, b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다윗의 원수들은')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24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데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5 장군께서는 나의 몸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c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c '어리석음') 26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 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 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27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28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 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²⁹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³⁰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데, ³¹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것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³²○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³³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³⁴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할 뻔하였소." ³⁵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³⁶○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³⁷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³⁸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³⁹○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⁴⁰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⁴¹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⁴²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다섯이 따라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⁴³○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⁴⁴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 주다

1SAMUEL 26 십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a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a 또는 '황폐한 땅 맞은쪽') ²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 광야로 내려갔다. ³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 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

다. ⁴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⁵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 보았다. 다윗이 그 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⁶그래서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⁷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 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⁸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⁹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¹⁰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¹¹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¹²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 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¹³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¹⁴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¹⁵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¹⁶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 보도록 하여라."

¹⁷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¹⁸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¹⁹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b 히, '주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²⁰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려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21○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22**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23**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4**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25**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다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다

1 SAMUEL 27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2**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육백 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3**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4**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5○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6**그러자 아기스는 그 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 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7**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일 년 넷 달이었다.

8○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9**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10**아기스는 으레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a 사해 사본과 칠십 인역과 불가타에는 '누구를 습격하였소?') **11**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12**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SAMUEL 28 그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고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십시오." **2**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다

3○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4○바로 그 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빔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5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6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7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 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 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8○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 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9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라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10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11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12○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 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13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a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a 또는 '신' 또는 '신들') 14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겹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15○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빙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16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17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18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19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요."

20○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 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있었다. 21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 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²²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²³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²⁴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²⁵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 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다

1SAMUEL 29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²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³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오.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⁴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 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 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⁵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⁶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⁷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⁸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⁹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¹⁰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a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a 칠십인역에는 '장군은 내가 살라고 지정해 준 그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장군께서는 내 앞에서 늘 잘 하셨으니 나쁜 소식에 너무 마음 쓰지 않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¹¹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르엘로 올라갔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다

1SAMUEL 30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2**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3**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4**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5**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6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7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8**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9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육백 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10**그래서 브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이백 명은 그 자리에 남겨 두고, 다윗은 사백 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11**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12**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한 개와 건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13**다윗이 그에게 물어 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14**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15**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16**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17**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사백 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18**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19**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20**다윗은 또 양 떼와 소 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21**다윗이 브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 곳에 남아 있던 낙오자 이백 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22**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 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²³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랐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²⁴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²⁵다윗이 이 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²⁶○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²⁷베델과 라못네킵과 야딕과 ²⁸아로엘과 심뭇과 에스드모아와 ²⁹라갈과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³⁰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³¹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대상 10:1-14)

1SAMUEL 3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²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³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⁴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레발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⁵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⁶○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 날 다 함께 죽었다. ⁷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⁸○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⁹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¹⁰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¹¹○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들었다. ¹²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¹³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Footnotes

Footnote from 1 Samuel 1:5 ([Back](#))

[\[1\]](#) **1:5** Syriac;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Septuagint *And, although he loved Hannah, he would give Hannah only one portion, because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Footnote from 1 Samuel 1:20 ([Back](#))

[\[2\]](#) **1:20** *Samuel* sounds like the Hebrew for *heard of God*

Footnote from 1 Samuel 1:24 ([Back](#))

[\[3\]](#) **1:24** Dead Sea Scroll, Septuagint, Syriac; Masoretic Text *three bulls*

Footnote from 1 Samuel 1:24 ([Back](#))

[\[4\]](#) **1:24**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1 Samuel 2:11 ([Back](#))

[\[1\]](#) **2:11** Hebrew *naʿar* “*ar*” can be rendered *boy* (2:11, 18, 21, 26; 3:1, 8), *servant* (2:13, 15), or *young man* (2:17),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1 Samuel 2:29 ([Back](#))

[\[2\]](#) **2:29** Hebrew *kick at*

Footnote from 1 Samuel 2:33 ([Back](#))

[\[3\]](#) **2:33** Septuagint; Hebrew *your*;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Samuel 2:33 ([Back](#))

[\[4\]](#) 2:33 Hebrew *increase*

Footnote from 1 Samuel 2:33 ([Back](#))

[\[5\]](#) **2:33** Septuagint; Hebrew *die as men*

Footnote from 1 Samuel 3:13 ([Back](#))

[\[1\]](#) **3:13** Or *blaspheming for themselves*

Footnote from 1 Samuel 4:3 ([Back](#))

[1] 4:3 Or *he*

Footnote from 1 Samuel 4:21 ([Back](#))

[\[2\]](#) 4:21 Or *gone into exile*; also verse 22

Footnote from 1 Samuel 6:19 ([Back](#))

[\[1\]](#) **6:19** Most Hebrew manuscripts *struck of the people seventy men, fifty thousand men*

Footnote from 1 Samuel 7:12 ([Back](#))

[\[1\]](#) 7:12 Hebrew; Septuagint, Syriac *Jeshanah*

Footnote from 1 Samuel 7:12 ([Back](#))

[\[2\]](#) **7:12** *Ebenezer* means *stone of help*

Footnote from 1 Samuel 8:16 ([Back](#))

[\[1\]](#) **8:16** Septuagint *cattle*

Footnote from 1 Samuel 9:5 ([Back](#))

[1] 9:5 Hebrew *young man*; also verses 7, 8, 10, 27

Footnote from 1 Samuel 9:8 ([Back](#))

[\[2\]](#) 9:8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1 Samuel 9:16 ([Back](#))

[\[3\]](#) **9:16** Or *leader*

Footnote from 1 Samuel 9:16 ([Back](#))

[4] 9:16 Septuagint adds *the affliction of*

Footnote from 1 Samuel 9:24 ([Back](#))

[\[5\]](#) 9:24 Hebrew *appointed, saying, “I have invited the people”*

Footnote from 1 Samuel 9:25 ([Back](#))

[\[6\]](#) **9:25** Septuagint; Hebrew *and he spoke with Saul*

Footnote from 1 Samuel 9:26 ([Back](#))

[\[7\]](#) **9:26** Septuagint; Hebrew *And they arose early and at the break of dawn*

Footnote from 1 Samuel 10:1 ([Back](#))

[\[1\]](#) **10:1** Or *leader*

Footnote from 1 Samuel 10:1 ([Back](#))

[\[2\]](#) **10:1** Septuagint; Hebrew lacks *over his people Israel? And you shall . . . 4; to be prince*

Footnote from 1 Samuel 10:5 ([Back](#))

[3] 10:5 *Gibeath-elohim* means *the hill of God*

Footnote from 1 Samuel 10:10 ([Back](#))

[\[4\]](#) 10:10 *Gibeah* means *the hill*

Footnote from 1 Samuel 10:21 ([Back](#))

[\[5\]](#) **10:21** Septuagint adds *finally he brought the family of the Matrites near, man by man*

Footnote from 1 Samuel 12:3 ([Back](#))

[\[1\]](#) **12:3** Septuagint; Hebrew lacks *Testify against me*

Footnote from 1 Samuel 12:6 ([Back](#))

[\[2\]](#) **12:6** Septuagint; Hebrew lacks *is witness*

Footnote from 1 Samuel 12:8 ([Back](#))

[\[3\]](#) **12:8** Septuagint; Hebrew lacks *and the Egyptians oppressed them*

Footnote from 1 Samuel 12:9 ([Back](#))

[4] 12:9 Septuagint *the army of Jabin king of Hazor*

Footnote from 1 Samuel 12:11 ([Back](#))

[\[5\]](#) **12:11** Septuagint, Syriac; Hebrew *Bedan*

Footnote from 1 Samuel 12:15 ([Back](#))

[\[6\]](#) **12:15** Septuagint; Hebrew *fathers*

Footnote from 1 Samuel 13:1 ([Back](#))

[\[1\]](#) **13:1** Hebrew *Saul was one year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two years over Israel* (see 1 Samuel 10:6); some Greek manuscripts give Saul's age when he began to reign as thirty years

Footnote from 1 Samuel 13:14 ([Back](#))

[\[2\]](#) **13:14** Or *leader*

Footnote from 1 Samuel 13:15 ([Back](#))

[\[3\]](#) **13:15** Septuagint; Hebrew lacks *The rest of the people . . . ; from Gilgal*

Footnote from 1 Samuel 13:20 ([Back](#))

[\[4\]](#) **13:20** Septuagint; Hebrew *plowshare*

Footnote from 1 Samuel 13:21 ([Back](#))

[\[5\]](#) **13:21** Hebrew *was a pim*

Footnote from 1 Samuel 13:21 ([Back](#))

[\[6\]](#) **13:21**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1 Samuel 13:21 ([Back](#))

[\[7\]](#) **13:21**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Samuel 14:2 ([Back](#))

[\[1\]](#) 14:2 Or *under the pomegranate* [tree]

Footnote from 1 Samuel 14:7 ([Back](#))

[\[2\]](#) 14:7 Septuagint *Do all that your mind inclines to*

Footnote from 1 Samuel 14:14 ([Back](#))

[3] 14:14 Hebrew *a yoke*

Footnote from 1 Samuel 14:15 ([Back](#))

[\[4\]](#) 14:15 Or *became a panic from God*

Footnote from 1 Samuel 14:16 ([Back](#))

[\[5\]](#) **14:16** Septuagint; Hebrew *they went here and there*

Footnote from 1 Samuel 14:18 ([Back](#))

[\[6\]](#) **14:18** Hebrew; Septuagint “*Bring the ephod.*” *For at that time he wore the ephod before the people*

Footnote from 1 Samuel 14:25 ([Back](#))

[\[7\]](#) **14:25** Hebrew *land*

Footnote from 1 Samuel 14:33 ([Back](#))

[\[8\]](#) **14:33** Septuagint; Hebrew *this day*

Footnote from 1 Samuel 14:41 ([Back](#))

[\[9\]](#) **14:41** Vulgate and Septuagint; Hebrew *Therefore Saul said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Give Thummim.”*

Footnote from 1 Samuel 15:3 ([Back](#))

[\[1\]](#) **15:3**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s 8, 9, 15, 18, 20, 21

Footnote from 1 Samuel 15:9 ([Back](#))

[\[2\]](#) 15:9 The meaning of the Hebrew term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Samuel 15:11 ([Back](#))

[\[3\]](#) **15:11** See also verses 29, 35

Footnote from 1 Samuel 15:32 ([Back](#))

[4] 15:32 Or *haltingly* (compare Septuagint);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Samuel 16:11 ([Back](#))

[\[1\]](#) 16:11 Or *smallest*

Footnote from 1 Samuel 17:4 ([Back](#))

[\[1\]](#) 17:4 Hebrew; Septuagint, Dead Sea Scroll and Josephus *four*

Footnote from 1 Samuel 17:4 ([Back](#))

[\[2\]](#) **17:4**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1 Samuel 17:5 ([Back](#))

[3] 17: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1 Samuel 17:12 ([Back](#))

[\[4\]](#) **17:12** Septuagint, Syriac; Hebrew *advanced among men*

Footnote from 1 Samuel 17:17 ([Back](#))

[\[5\]](#) **17:17**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1 Samuel 17:52 ([Back](#))

[\[6\]](#) **17:52** Septuagint; Hebrew *Gai*

Footnote from 1 Samuel 18:6 ([Back](#))

[1] 18:6 Or *triangles*, or *three-stringed instruments*

Footnote from 1 Samuel 18:21 ([Back](#))

[\[2\]](#) **18:21** Hebrew *by two*

Footnote from 1 Samuel 19:13 ([Back](#))

[\[1\]](#) **19:13** Or *a household god*

Footnote from 1 Samuel 20:12 ([Back](#))

[\[1\]](#) **20:12** Hebrew lacks *be witness*

Footnote from 1 Samuel 20:15 ([Back](#))

[\[2\]](#) **20:15** Or *but if I die, do not cut off*

Footnote from 1 Samuel 20:16 ([Back](#))

[\[3\]](#) **20:16** Septuagint *earth*, ¹⁶*let not the name of Jonathan be cut off from the house of David. And may*

Footnote from 1 Samuel 20:19 ([Back](#))

[\[4\]](#) **20:19** Septuagint; Hebrew *the stone Ezel*

Footnote from 1 Samuel 20:25 ([Back](#))

[\[5\]](#) **20:25** Compare Septuagint; Hebrew *stood up*

Footnote from 1 Samuel 20:41 ([Back](#))

[\[6\]](#) **20:41** Septuagint; Hebrew *from beside the south*

Footnote from 1 Samuel 20:42 ([Back](#))

[\[7\]](#) **20:42** This sentence is 21:1 in Hebrew

Footnote from 1 Samuel 21:1 ([Back](#))

[\[1\]](#) **21:1** Ch 21:2 in Hebrew

Footnote from 1 Samuel 22:2 ([Back](#))

[\[1\]](#) 22:2 Or *discontented*

Footnote from 1 Samuel 22:3 ([Back](#))

[\[2\]](#) **22:3** Syriac, Vulgate; Hebrew *go out*

Footnote from 1 Samuel 22:14 ([Back](#))

[\[3\]](#) **22:14** Septuagint, Targum; Hebrew *and has turned aside to*

Footnote from 1 Samuel 23:28 ([Back](#))

[\[1\]](#) **23:28** Or *Rock of Divisions*

Footnote from 1 Samuel 23:29 ([Back](#))

[\[2\]](#) **23:29** Ch 24:1 in Hebrew

Footnote from 1 Samuel 24:1 ([Back](#))

[\[1\]](#) **24:1** Ch 24:2 in Hebrew

Footnote from 1 Samuel 24:3 ([Back](#))

[\[2\]](#) 24:3 Hebrew *cover his feet*

Footnote from 1 Samuel 24:10 ([Back](#))

[\[3\]](#) **24:10** Septuagint, Syriac, Targum; Hebrew *it* [my eye] *spared you*

Footnote from 1 Samuel 25:18 ([Back](#))

[\[1\]](#) **25:18** A *seah* was about 7 quarts or 7.3 liters

Footnote from 1 Samuel 25:22 ([Back](#))

[\[2\]](#) **25:22** Septuagint *to David*

Footnote from 1 Samuel 25:25 ([Back](#))

[\[3\]](#) **25:25** *Nabal* means *fool*

Footnote from 1 Samuel 25:30 ([Back](#))

[\[4\]](#) 25:30 Or *leader*

Footnote from 1 Samuel 30:2 ([Back](#))

[\[1\]](#) **30:2** Septuagint; Hebrew lacks *and all*

Footnote from 1 Samuel 30:6 ([Back](#))

[\[2\]](#) **30:6** Compare 22:2

Footnote from 1 Samuel 30:20 ([Back](#))

[\[3\]](#) 30:20 The meaning of the Hebrew clause is uncertain

사무엘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Samuel 1](#) • [2 Samuel 2](#) • [2 Samuel 3](#) • [2 Samuel 4](#) • [2 Samuel 5](#) • [2 Samuel 6](#) • [2 Samuel 7](#)
• [2 Samuel 8](#) • [2 Samuel 9](#) • [2 Samuel 10](#) • [2 Samuel 11](#) • [2 Samuel 12](#) • [2 Samuel 13](#)
• [2 Samuel 14](#) • [2 Samuel 15](#) • [2 Samuel 16](#) • [2 Samuel 17](#) • [2 Samuel 18](#) • [2 Samuel 19](#)
• [2 Samuel 20](#) • [2 Samuel 21](#) • [2 Samuel 22](#) • [2 Samuel 23](#) • [2 Samuel 24](#)

사무엘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다

2 SAMUEL 1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2**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3**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 나왔습니다." **4**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5**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6**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쭙었더니, **8**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9**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 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제가 보기에,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11○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12**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13**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14**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15**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16**그 때에 다윗이 죽어 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지은 조가

17○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18**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19이스라엘아,
a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a 히, '너의 영광이 산 위에 누워 있다') ²⁰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²¹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제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²²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²³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²⁴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 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 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²⁵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²⁶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꿈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²⁷어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 없이 되었는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2 SAMUEL 2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쭙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 주셨다. ²그리하여 다윗이 그 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³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⁴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⁵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⁶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⁷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⁸○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⁹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¹⁰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마흔 살이었다. 그는 두 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¹¹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¹²○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¹³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 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 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¹⁴그 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¹⁵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열두 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열두 명이 나왔다. ¹⁶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 곳을 헬갓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¹⁷그 날에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 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18○마침 그 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달음박질을 잘 하였다. **19**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20**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21**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22**아브넬이 다시 한 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23**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24○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 가의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25**그 때에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26**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27**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28**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29**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 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고, 비드로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30○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열아홉 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31**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삼백육십 명이나 쳐죽였다. **32**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2 SAMUEL 3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의 아들들(대상 3:1-4)

2○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3**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4**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야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댜이고, **5**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6○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7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8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에 빌붙어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9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10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11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12○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14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 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15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16그 때에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17○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18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20○아브넬이 부하 스무 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21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이신 임금님 앞에 모아 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브넬이 살해되다

22○그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 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23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 곳을 떠나갔습니다." 24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

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²⁵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²⁶○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²⁷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²⁸○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²⁹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³⁰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브넬의 장례식

³¹○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 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³²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³³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³⁴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 번 울었다.

³⁵○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³⁶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³⁷그 때에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³⁸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³⁹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이스보셋이 살해됨

2 SAMUEL 4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²이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써, 베냐민 사람이다.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³일찍이 브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⁴○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므비보셋이다.

⁵○브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 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⁶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아나는 도망하였는데, ⁷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⁸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신 임금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⁹○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아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신 확실히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¹⁰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¹¹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 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 버리겠다." ¹²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 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대상 11:1-3)

2 SAMUEL 5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²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³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⁴○다윗은 서른 살에 왕이 되어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⁵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다(대상 11:4-9; 14:1-b)

6○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 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7**(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8**그 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 먼 자들'을 쳐죽여라!" (그래서 '눈 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9○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10**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11○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 주게 하였다. **12**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의 자녀들(대상 14:3-7)

13○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14**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밤과 나단과 솔로몬과 **15**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벅과 야비아와 **16**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다(대상 14:8-17)

17○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18**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19**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20**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21**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 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22○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23**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24**뽕나무 발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25○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대상 13:1-14; 15:25-16:6, 43)

2SAMUEL 6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징집하여서, ²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³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⁴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⁵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팽과리와 심벌즈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⁶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⁷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⁸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a베레스 웃사라고 한다.(a '웃사를 침')

⁹그 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¹⁰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¹¹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¹²누군가가,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¹³다윗은, 주님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¹⁴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¹⁵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 왔다.

¹⁶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¹⁷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¹⁸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고, ¹⁹그 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²⁰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²¹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댈 것이요. ²²내가 스스로

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23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나단의 예언(대상 17:1-15)

2 SAMUEL 7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2**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4 그러나 바로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6**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a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a 또는 '지도자에게도' 또는 '지파 지도자에게도'(대상 17:6 참조))

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0**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1**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6** 네 집과 네 나라가 b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b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네')

17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감사 기도(대상 17:16-27)

18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며,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9**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느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20**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21**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22**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 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3**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 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24**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5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6**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7**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28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9**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국의 성립과 그 판도(대상 18:1-17)

2 SAMUEL 8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았다.

2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 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3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4**그에게서 기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 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 버렸다.

5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쳐죽이고, **6**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7**그 때에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다. **8**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대에서는, 낫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9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0**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놋으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11**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12**그것들은, 그가 a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a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대상 18:11, 12 참조).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아람'. 히브리어 자음 본문에서 에돔과 아람은 혼동되기 쉬움) **13**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a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이름을 떨쳤다.(a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대상 18:11, 12 참조).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아람'. 히브리어 자음 본문에서 에돔과 아람은 혼동되기 쉬움) **14**그 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15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16**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17**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다윗과 므비보셋

2 SAMUEL 9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 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2**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 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3**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4**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5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6**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7**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8**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9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10**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 다섯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11**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2**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

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¹³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암몬과의 전쟁(대상 19:1-19)

2 SAMUEL 10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²다윗은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³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⁴그래서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⁵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⁶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훅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천 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만 이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⁷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⁸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훅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⁹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¹⁰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¹¹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¹²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¹³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¹⁴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¹⁵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¹⁶그 때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¹⁷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 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¹⁸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칠백 명과 기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¹⁹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다윗과 밋세바

2SAMUEL 11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 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3**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 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라고 하였다. **4**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밋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밋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5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6**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서, 헛 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7** 우리야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8**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야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9** 그러나 우리야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10**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 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야에게 물었다. **11**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별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 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12**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야는 그 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13**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14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15**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16**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야를 배치하였다. **17**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 때에 헛 사람 우리야도 전사하였다.

18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19**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20**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쏘 줄도 몰랐단 말이냐?' **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맏돌 위 짖을 던져서,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헛 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22○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23**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24**그 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헛 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25○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26○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27**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2 SAMUEL 12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2**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3**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4**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자기의 양 떼나 소 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5○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6**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7○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8**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 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10**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 보이게 하겠다. **12**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13○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밋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15**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16**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17**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18**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19**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20**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 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21**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22**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23**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24○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25**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다(대상 20:1-3)

26○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27**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28**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

성을 직접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²⁹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³⁰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³¹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논과 다말

2 SAMUEL 13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²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³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⁴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⁵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체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⁶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체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 때에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 주게 하여 주십시오."

⁷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⁸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⁹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¹⁰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손수 나에게 먹여 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¹¹다말이 그에게 먹여 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¹²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¹³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¹⁴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¹⁵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¹⁶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큼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¹⁷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¹⁸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 때에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수를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¹⁹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²⁰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애야, 암논도 네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²¹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²²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웬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압살롬의 복수

²³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²⁴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²⁵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이야.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²⁶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만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²⁷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²⁸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 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²⁹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³⁰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³¹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³²그 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까.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³³그러니 이제 높이신 임금님께서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³⁴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 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³⁵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 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³⁶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37○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a암미훗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a 히, '암미훗') **38**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 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39**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다

2 SAMUEL 14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2**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십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3**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십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4○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5**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6**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7**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 있는 불씨마저도 꺼 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8○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9**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10**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11**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 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2○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13**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것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15**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 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16**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끌어 버리려고 하지마는,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7**이 좋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

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18○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19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랴?"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20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시므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21○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22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 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23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24○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다

25○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26그는 머리 술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 보면, 왕궁 저울로 이백 세겔이나 되었다. 27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뻐다.

28○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뵈지 못하였다. 29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 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30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발 곁에 요압의 발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31○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32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쭙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뿐 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뵈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 주시오." 33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2 SAMUEL 15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쉰 명이나 거느렸다. ²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³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⁴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요." ⁵또 누가 가까이 와서 옆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⁶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a사로잡았다.(a 히, '도적하였다')

⁷이렇게 b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마흔 해') ⁸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시다. ⁹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¹⁰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¹¹그 때에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¹²c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기적인 제사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c 또는 '제사를 드리는 동안,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다윗이 요단 강 쪽으로 도망하다

¹³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¹⁴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 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¹⁵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¹⁶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열 명만 남겨 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¹⁷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d'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d 히, '벧메르학') ¹⁸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온 모든 가드 군인 육백 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¹⁹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²⁰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엇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²¹그러나 잇대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²²그러자 다윗이 잇대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 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잇대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 갔다. ²³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 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²⁴○그런데 그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아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²⁵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²⁶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²⁷○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²⁸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 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²⁹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³⁰○다윗은 올리브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³¹그 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여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³²○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새가 슬픔을 못이겨서 겹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³³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³⁴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십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³⁵그 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십시오. ³⁶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 곳에 데리고 있소.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³⁷○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새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다윗과 시바

2SAMUEL 16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엮고, 그 위에다가는 빵 이백 개와 건포도 뭉치 백 덩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왔다. **2**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 왔습니다." **3**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므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시므이

5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6**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7**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한당 같은 자야! **8**네가 사울의 집안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9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10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11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12**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13**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 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14**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a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a 또는 '아예빔에 이르러')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

15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16**그 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17**그러자 압살롬이 후새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18**후새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19**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20○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 보시오." **21**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 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22**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 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23**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쭙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후새가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다

2 SAMUEL 17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만 이천 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3**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a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a 칠십인역을 따름. 히, '백성 전체가 임금님께 돌아오고 안오고 하는 문제는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는 '임금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은 모두 임금님께로 돌아옵니다') **4**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5○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새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 보자고 하였다. **6**후새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7**후새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8**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9**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 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10**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12**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13**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굶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맹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14○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락이 아히도벨의 모락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락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의 작전과 아히도벨의 자살

15○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락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락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16**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17○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b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b '로겔 샘') **18**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탄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 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19**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 놓고, 그 위에 짙은 보리를 넣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20**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 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22**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 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23○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매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24○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 강을 건넜다. **25**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c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c 히, '이스라엘' 또는 '이스르엘'(대상 2:17 참조)) **26**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27○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찾아왔다. **28**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29**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압살롬의 패전

2SAMUEL 18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2**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떼로 나눈 뒤에, 삼분의 일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3**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우리들 만 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4**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서 있으니, 온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5**그 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6**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7**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 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이만 명이나 죽었다. **8**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 날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9**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10**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 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11**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12**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천 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제가 임금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14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 산 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15**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16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17**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 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8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19○그 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그러나 요압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21**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22**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했다. "아히마아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 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23**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24○그 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25**파수꾼이 큰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26**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27**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28○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 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a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a 히, '임금님의 종') **30**왕이 "물러나서 곁에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31○바로 그 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 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32**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2 SAMUEL 19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2**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 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 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3**그래서 그 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 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4**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5○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6임금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7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8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다윗의 귀환 준비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9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10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 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11○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12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 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3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도 알려 주십시오." 14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5○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 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 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16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17그는 베냐민 사람 천 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열다섯 명과 자기의 종 스무 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 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18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다윗과 시므이

○왕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9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

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²⁰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²¹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²²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a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a 히, '사탄이') ²³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과 므비보셋

²⁴○그 때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영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²⁵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²⁶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엮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²⁷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²⁸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뿐인데, 임금님께서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²⁹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³⁰므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떨습니까?"

다윗과 바르실래

³¹○그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 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 가에 이르렀다. ³²바르실래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여든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³³왕이 바르실래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³⁴그러나 바르실래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³⁵제 나이가 지금 여든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³⁶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 강을 건너려는 것 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³⁷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b이 종의 아들 김함아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임금님의 종 김함')

38○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39○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 주니, 바르실래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40**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남북 분쟁의 재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 강을 건너갔다. **41**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42**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 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43**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세바의 반란

2 SAMUEL 20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 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써,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2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 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3○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 둔 후궁 열 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4○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 오고, 그 대도 함께 오시오." **5**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6**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7**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8.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나와 있었다. 9.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10.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11.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12. 그 때에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13.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14.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15.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 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16.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 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17.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18.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19.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 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 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20.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21.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22.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 드리겠소." 23.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관리들

24.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25.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²⁵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²⁶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다

2 SAMUEL 21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²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 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 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³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⁴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 주겠소." ⁵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 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⁶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 주겠소." ⁷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⁸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아다가, ⁹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¹⁰그 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베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 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¹¹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¹²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¹³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¹⁴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쉘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장들(대상 20:4-8)

15○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16**^a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논이라는 사람이 삼백 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17**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18○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에 후사 사람 심브개가 ^a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죽였다.(^a 히, '라파') **19**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들 앞다리같이 굵었다. **20**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넷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21**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죽였다. **22**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다윗의 승전가(시 18)

2 SAMUEL 22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2**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3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a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a 힘을 상징함. '나의 보호자') **4**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5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6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7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8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9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10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11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12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13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숯덩이들이 쏟아졌다.

14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15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흠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16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כות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17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8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 주셨다.

19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20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21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22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23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4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25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 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26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27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28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29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30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1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32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33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34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35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눅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36주님,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 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 주셨습니다.

37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어져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38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9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40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41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42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3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땅의 먼지처럼 날려 보내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서 흘렸습니다.

44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45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46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47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48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49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50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1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2 SAMUEL 23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2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3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4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5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6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7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의 용사들(대상 11:10-47)

8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팔백 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9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10**그 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 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11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 곳에는 팔을 가득 심은 팔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12**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다.

13○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삼십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14**그 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15**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16**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17**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 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18○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a삼십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삼백 명을 쳐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a 두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삼인의 우두머리') **19**그는 b삼십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삼십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b 시리아어역을 따름(대상 11:25 참조). 히, '삼인 안에서 제일 뛰어난')

20○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갓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21**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22**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23**그는 삼십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24○삼십인 특별부대에 들어 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26**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27**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므분내와, **28**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넛가에 사는 히대와, **31**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훅 사람 아스마윗과, **32**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33**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갈멜 사람 헤스래와, 아랍 사람 바아래와, **36**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헷 사람 우리야까지, 모두 합하여 서른일곱 명이다.

인구조사(대상 21:1-27)

2 SAMUEL 24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2**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³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⁴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⁵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쪽으로 갔고, ⁶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닛딤훗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⁷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⁸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⁹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팔십만이 있고, 유다에는 오십만이 있었다.

¹⁰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¹¹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¹²"너는 다윗에게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¹³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¹⁴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¹⁵그리하여 그 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칠만 명이나 되었다. ¹⁶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¹⁷그 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 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¹⁸그 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¹⁹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²⁰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²¹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²²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땀감

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²³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은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²⁴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쉰 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²⁵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Footnotes

Footnote from 2 Samuel 1:18 ([Back](#))

[\[1\]](#) **1:18** Septuagint; Hebrew *the Bow*, which may be the name of the lament's tune

Footnote from 2 Samuel 1:18 ([Back](#))

[\[2\]](#) **1:18** Or *of the upright*

Footnote from 2 Samuel 1:21 ([Back](#))

[\[3\]](#) 1:21 Septuagint *firstfruits*

Footnote from 2 Samuel 2:16 ([Back](#))

[1] **2:16** *Helkath-hazzurim* means *the field of sword-edges*

Footnote from 2 Samuel 3:12 ([Back](#))

[\[1\]](#) **3:12** Or *where he was*; Septuagint *at Hebron*

Footnote from 2 Samuel 4:6 ([Back](#))

[\[1\]](#) **4:6** Septuagint *And behold, the doorkeeper of the house had been cleaning wheat, but she grew drowsy and slept. So Rechab and Baanah his brother slipped in*

Footnote from 2 Samuel 5:2 ([Back](#))

[\[1\]](#) 5:2 Or *leader*

Footnote from 2 Samuel 5:5 ([Back](#))

[\[2\]](#) **5:5** Dead Sea Scroll lacks verses 4–5

Footnote from 2 Samuel 5:20 ([Back](#))

[3] 5:20 *Baal-perazim* means *lord of bursting through*

Footnote from 2 Samuel 6:3 ([Back](#))

[\[1\]](#) 6:3 Or *and his brother*; also verse 4

Footnote from 2 Samuel 6:3 ([Back](#))

[\[2\]](#) **6:3** Compare Septuagint; Hebrew *the new cart, and brought it out of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Footnote from 2 Samuel 6:5 ([Back](#))

[\[3\]](#) **6:5** Septuagint, 1 Chronicles 13:8; Hebrew *fir trees*

Footnote from 2 Samuel 6:8 ([Back](#))

[4] **6:8** *Perez-uzzah* means *the breaking out against Uzzah*

Footnote from 2 Samuel 6:19 ([Back](#))

[\[5\]](#) **6:19**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term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Samuel 6:21 ([Back](#))

[\[6\]](#) 6:21 Or *leader*

Footnote from 2 Samuel 6:22 ([Back](#))

[\[7\]](#) **6:22** Septuagint; Hebrew *my*

Footnote from 2 Samuel 7:7 ([Back](#))

[\[1\]](#) 7:7 Compare 1 Chronicles 17:6; Hebrew *tribes*

Footnote from 2 Samuel 7:8 ([Back](#))

[\[2\]](#) 7:8 Or *leader*

Footnote from 2 Samuel 7:16 ([Back](#))

[\[3\]](#) 7:16 Septuagint; Hebrew *you*

Footnote from 2 Samuel 7:23 ([Back](#))

[\[4\]](#) **7:23** With a few Targums, Vulgate, Syriac; Hebrew *you*

Footnote from 2 Samuel 7:23 ([Back](#))

[\[5\]](#) **7:23** Septuagint (compare 1 Chronicles 17:21); Hebrew *for your land*

Footnote from 2 Samuel 8:18 ([Back](#))

[\[1\]](#) **8:18** Compare 20:23, 1 Chronicles 18:17, Syriac, Targum, Vulgate; Hebrew lacks *was over*

Footnote from 2 Samuel 9:11 ([Back](#))

[\[1\]](#) **9:11** Septuagint; Hebrew *my*

Footnote from 2 Samuel 10:2 ([Back](#))

[\[1\]](#) 10:2 Or *kindly*;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Samuel 10:16 ([Back](#))

[\[2\]](#) 10:16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2 Samuel 12:3 ([Back](#))

[\[1\]](#) **12:3** Hebrew *bosom*; also verse 8

Footnote from 2 Samuel 12:14 ([Back](#))

[\[2\]](#) **12:14** Masoretic Text *the enemies of the LORD*; Dead Sea Scroll *the word of the LORD*

Footnote from 2 Samuel 12:25 ([Back](#))

[\[3\]](#) 12:25 *Jedidiah* means *beloved of the LORD*

Footnote from 2 Samuel 12:30 ([Back](#))

[4] 12:30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Samuel 12:31 ([Back](#))

[\[5\]](#) **12:31** Hebrew *pass through*

Footnote from 2 Samuel 13:12 ([Back](#))

[\[1\]](#) **13:12** Or *humiliate*; also verses 14, 22, 32

Footnote from 2 Samuel 13:16 ([Back](#))

[\[2\]](#) **13:16** Compare Septuagint,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Samuel 13:18 ([Back](#))

[\[3\]](#) **13:18** Or *a robe of many colors* (compare Genesis 37:3); also verse 19

Footnote from 2 Samuel 13:21 ([Back](#))

[4] 13:21 Dead Sea Scroll, Septuagint add *But he would not punish his son Amnon, because he loved him, since he was his firstborn*

Footnote from 2 Samuel 13:34 ([Back](#))

[\[5\]](#) **13:34** Septuagint *the Horonaim Road*

Footnote from 2 Samuel 13:39 ([Back](#))

[\[6\]](#) **13:39** Dead Sea Scroll, Septuagint; Hebrew *David*

Footnote from 2 Samuel 13:39 ([Back](#))

[\[7\]](#) **13:39** Compare Vulgate *ceased to go out*

Footnote from 2 Samuel 14:26 ([Back](#))

[\[1\]](#) **14:26**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Samuel 14:30 ([Back](#))

[\[2\]](#) **14:30** Septuagint, Dead Sea Scroll add *So Joab's servants came to him with their clothes torn, and they said to him, "The servants of Absalom have set your field on fire."*

Footnote from 2 Samuel 15:7 ([Back](#))

[\[1\]](#) **15:7** Septuagint, Syriac; Hebrew *forty*

Footnote from 2 Samuel 15:8 ([Back](#))

[\[2\]](#) 15:8 Or *will serve*

Footnote from 2 Samuel 15:12 ([Back](#))

[\[3\]](#) 15:12 Or *sent*

Footnote from 2 Samuel 15:20 ([Back](#))

[\[4\]](#) **15:20** Septuagint; Hebrew lacks *may the LORD show*

Footnote from 2 Samuel 15:27 ([Back](#))

[\[5\]](#) **15:27** Septuagint *The king also said to Zadok the priest, “Look, go back*

Footnote from 2 Samuel 16:12 ([Back](#))

[\[1\]](#) **16:12** Septuagint, Vulgate *will look upon my affliction*

Footnote from 2 Samuel 16:14 ([Back](#))

[\[2\]](#) **16:14** Septuagint; Hebrew lacks *at the Jordan*

Footnote from 2 Samuel 17:3 ([Back](#))

[\[1\]](#) **17:3** Septuagint; Hebrew *back to you. Like the return of the whole is the man whom you seek*

Footnote from 2 Samuel 17:8 ([Back](#))

[\[2\]](#) 17:8 Hebrew *bitter of soul*

Footnote from 2 Samuel 17:9 ([Back](#))

[\[3\]](#) **17:9** Or *And as he falls on them*

Footnote from 2 Samuel 17:14 ([Back](#))

[\[4\]](#) **17:14** Hebrew *commanded*

Footnote from 2 Samuel 17:20 ([Back](#))

[\[5\]](#) **17:20**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Samuel 17:25 ([Back](#))

[6] 17:25 Compare 1 Chronicles 2:17; Hebrew *Israelite*

Footnote from 2 Samuel 17:28 ([Back](#))

[\[7\]](#) **17:28** Hebrew adds *and parched grain*

Footnote from 2 Samuel 18:9 ([Back](#))

[\[1\]](#) 18:9 Or *terebinth*; also verses 10, 14

Footnote from 2 Samuel 18:13 ([Back](#))

[\[2\]](#) **18:13** Or *at the risk of my life*

Footnote from 2 Samuel 18:18 ([Back](#))

[\[3\]](#) 18:18 Or *Absalom's hand*

Footnote from 2 Samuel 18:33 ([Back](#))

[\[4\]](#) **18:33** Ch 19:1 in Hebrew

Footnote from 2 Samuel 19:11 ([Back](#))

[\[1\]](#) **19:11** Septuagint; Hebrew *to the king, to his house*

Footnote from 2 Samuel 19:26 ([Back](#))

[\[2\]](#) **19:26** Septuagint, Syriac, Vulgate *Saddle a donkey for me*

Footnote from 2 Samuel 20:6 ([Back](#))

[\[1\]](#) **20:6** Hebrew *and snatch away our eyes*

Footnote from 2 Samuel 20:14 ([Back](#))

[\[2\]](#) **20:14** Compare 20:15; Hebrew *and Beth-maacah*

Footnote from 2 Samuel 20:14 ([Back](#))

[\[3\]](#) 20:14 Hebrew *Berites*

Footnote from 2 Samuel 21:8 ([Back](#))

[\[1\]](#) **21:8** Two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Michal*

Footnote from 2 Samuel 21:16 ([Back](#))

[\[2\]](#) **21:16**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Samuel 21:19 ([Back](#))

[\[3\]](#) 21:19 Contrast 1 Chronicles 20:5, which may preserve the original reading

Footnote from 2 Samuel 22:3 ([Back](#))

[\[1\]](#) **22:3** Septuagint (compare Psalm 18:2); Hebrew lacks *my*

Footnote from 2 Samuel 22:5 ([Back](#))

[\[2\]](#) 22:5 Or *terrified me*

Footnote from 2 Samuel 22:9 ([Back](#))

[3] 22:9 Or *in his wrath*

Footnote from 2 Samuel 22:33 ([Back](#))

[\[4\]](#) **22:33** Or *his*; also verse 34

Footnote from 2 Samuel 22:33 ([Back](#))

[5] 22:33 Compare Psalm 18:32; Hebrew *he has blamelessly set my way free*, or *he has made my way spring up blamelessly*

Footnote from 2 Samuel 22:37 ([Back](#))

[\[6\]](#) 22:37 Hebrew *ankles*

Footnote from 2 Samuel 22:41 ([Back](#))

[\[7\]](#) 22:41 Or *You gave me my enemies' necks*

Footnote from 2 Samuel 22:44 ([Back](#))

[8] 22:44 Septuagint *with the peoples*

Footnote from 2 Samuel 22:46 ([Back](#))

[9] 22:46 Compare Psalm 18:45; Hebrew *equipped themselves*

Footnote from 2 Samuel 22:51 ([Back](#))

[\[10\]](#) 22:51 Or *He is a tower of salvation*

Footnote from 2 Samuel 23:1 ([Back](#))

[1] 23:1 Or *the favorite of the songs of Israel*

Footnote from 2 Samuel 23:4 ([Back](#))

[\[2\]](#) **23:4** Hebrew *from rain*

Footnote from 2 Samuel 23:6 ([Back](#))

[\[3\]](#) 23:6 Hebrew *worthlessness*

Footnote from 2 Samuel 23:7 ([Back](#))

[\[4\]](#) 23:7 Hebrew *consumed with fire in the sitting*

Footnote from 2 Samuel 23:8 ([Back](#))

[\[5\]](#) 23:8 Or *of the captains*

Footnote from 2 Samuel 23:8 ([Back](#))

[\[6\]](#) **23:8** Compare 1 Chronicles 11:11; the meaning of the Hebrew expression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Samuel 23:18 ([Back](#))

[7] 23:18 Two Hebrew manuscripts,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three*

Footnote from 2 Samuel 23:18 ([Back](#))

[\[8\]](#) 23:18 Or *slain ones*

Footnote from 2 Samuel 23:19 ([Back](#))

[\[9\]](#) **23:19** Compare 1 Chronicles 11:25; Hebrew *Was he the most renowned of the three?*

Footnote from 2 Samuel 23:20 ([Back](#))

[\[10\]](#) 23:20 Or *the son of Ishhai*

Footnote from 2 Samuel 23:20 ([Back](#))

[\[11\]](#) **23:20** The meaning of the word *ariel* is unknown

Footnote from 2 Samuel 23:35 ([Back](#))

[\[12\]](#) 23:35 Or *Hezrai*

Footnote from 2 Samuel 24:2 ([Back](#))

[\[1\]](#) **24:2** Septuagint *to Joab and the commanders of the army*

Footnote from 2 Samuel 24:5 ([Back](#))

[\[2\]](#) **24:5** Septuagint; Hebrew *encamped in Aroer*

Footnote from 2 Samuel 24:6 ([Back](#))

[\[3\]](#) **24:6** Septuagint; Hebrew *to the land of Tahtim-hodshi*

Footnote from 2 Samuel 24:6 ([Back](#))

[\[4\]](#) **24:6** Septuagint; Hebrew *they came to Dan-jaan and*

Footnote from 2 Samuel 24:12 ([Back](#))

[\[5\]](#) 24:12 Or *hold over*

Footnote from 2 Samuel 24:13 ([Back](#))

[\[6\]](#) **24:13** Compare 1 Chronicles 21:12, Septuagint; Hebrew *seven*

Footnote from 2 Samuel 24:24 ([Back](#))

[\[7\]](#) **24:24**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열왕기상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Kings 1](#) • [1 Kings 2](#) • [1 Kings 3](#) • [1 Kings 4](#) • [1 Kings 5](#) • [1 Kings 6](#) • [1 Kings 7](#) • [1 Kings 8](#)
• [1 Kings 9](#) • [1 Kings 10](#) • [1 Kings 11](#) • [1 Kings 12](#) • [1 Kings 13](#) • [1 Kings 14](#) • [1 Kings 15](#)
• [1 Kings 16](#) • [1 Kings 17](#) • [1 Kings 18](#) • [1 Kings 19](#) • [1 Kings 20](#) • [1 Kings 21](#) • [1 Kings 22](#)

열왕기상

다윗의 말년

1KINGS 1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2**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3**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4**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마는,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5그 때에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야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쉰 명을 데리고 다녔다. **6**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야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써, 용모가 뛰어났다. **7**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야를 지지하였다. **8**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a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군들은, 아도니야에게 동조하지 않았다.(a 또는 '그의 친구들과') **9**아도니야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10**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11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12**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3**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습니까?' **14**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5**밋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중을 들고 있었다. **16**밋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17**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그런데 지금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19**아도니야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

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²⁰임금님께서서는 통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²¹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²²○이렇게 밋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²³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²⁴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²⁵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b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b 칠십인역에는 '요압 사령관') ²⁶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²⁷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²⁸○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밋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밋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서, ²⁹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³⁰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³¹○밋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³²○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³³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³⁴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³⁵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³⁶○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³⁷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³⁸○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³⁹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⁴⁰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⁴¹○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 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⁴²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 왔겠지."

43○요나단은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44**임금님께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불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45**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46**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47**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48**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9○그 말을 듣고, 아도니야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 버렸다. **50**아도니야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c제단 뿔을 붙잡았다. (c 주님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 **51**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야가 솔로몬 임금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야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2○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53**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다

1 KINGS 2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2**"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3**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4**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5○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벨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6**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a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7○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실래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8○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 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9**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죽다

¹⁰○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¹¹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¹²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도니아가 죽다

¹³○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를 찾아왔다. 밋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⁴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밋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¹⁵○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¹⁶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밋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¹⁷○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범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¹⁸○밋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¹⁹○그리하여 밋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²⁰그러자 밋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²¹○밋세바가 말하였다. "수범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²²○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범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²³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 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²⁴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²⁵○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처죽였다.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죽음

²⁶○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²⁷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 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28○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야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29**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죽여라!" 하였다. **30**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31**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32**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33**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34○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b땅에 매장되었다.(b 또는 '무덤') **35**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시므이가 죽다

36○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되오. **37**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십시오." **38**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39○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40**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에 안장을 엮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 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41**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42**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43**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44**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45**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오."

46○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다(대하 1:3-12)

1KINGS 3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2**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 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 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4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 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5**그 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6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7**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8**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9**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10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11**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12**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13**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15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솔로몬의 재판

16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17**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18**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 날 밤에 죽었습니다. **20**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 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넣어 놓았습니다. **21**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22**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 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 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23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24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 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 오니, 25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그러자 살아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 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 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27그 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28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이 거느린 관리들

1KINGS 4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2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3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4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5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밧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6아히살은 궁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7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열둘을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8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지역은 벤홀이 맡았다. 9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하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10아룻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벤헤셋이 맡았다. 11a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a 또는 '나봇 돌') 12다아낙과 므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므홀라와 욱느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다. 13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늦빛장을 갖춘 예순 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14마하나임 지역은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15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밧의 남편 아히마아스가 맡았다. 16야셀과 아룻 지역은 후새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다. 17잇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18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19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 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욱의 땅이었다.

○이 열둘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영화

20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21**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22**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서른 섬과 거친 밀가루 예순 섬과 **23** 살진 소 열 마리와 목장 소 스무 마리와 양 백 마리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 들이었다.

24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딤퓌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25**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26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b사만 칸과 군마 만 이천 필을 가지고 있었다.(b 몇몇 칠십인역 사본에는 '사천') **27**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28** 또한 군마와 역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짚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 왔다.

29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30**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31**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32** 그는 삼천 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천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고, **33**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34**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 왔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대하 2:1-18)

1 KINGS 5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2**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3**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a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a 칠십인역과 타르굼과 불가타에는 '그(다윗)의', 마소라본문에는 '그의' 또는 '나의') **4**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5**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6**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⁷○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⁸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⁹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 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¹⁰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 주었다. ¹¹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이만 섬과 짜낸 기름 b스무 섬을 보내 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b 칠십인역에는 '이만'(대하 2:10에서도)) ¹²주님께서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¹³○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삼만 명이나 되었다. ¹⁴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¹⁵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칠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팔만 명이 있었다. ¹⁶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c삼천삼백 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c 칠십인역에는 '삼천육백'(대하 2:2, 18에서도)) ¹⁷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¹⁸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d그밖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d 곧 비블로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1 KINGS 6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a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사 년째 되는 해 b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a 칠십인역에는 '사백사십 년' b 양력 사월 중순 이후) ²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예순 자이고, 너비가 스무 자이고, 높이가 서른 자이다. ³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스무 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열 자를 더 달아냈다. ⁴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불박이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⁵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 옆과 뒤로는, 쪽 돌아가면서 삼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⁶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다섯 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여섯 자이고, 삼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일곱 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서까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⁷○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⁸○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삼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⁹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¹⁰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섯 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11○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12**"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네게서 이루겠다. **13**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14○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 내부 장식(대하 3:8-14)

15○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16**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무 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17**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마흔 자였다. **18**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19○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 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20**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스무 자, 너비가 스무 자, 높이가 스무 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21**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22**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23○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열 자이다. **24**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다섯 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열 자이다. **25**두 번째 그룹도 열 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26**이쪽 그룹의 높이도 열 자이고, 저쪽 것도 열 자이다. **27**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퍼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28**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29○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30**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31○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두 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32**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두 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33**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34**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 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35**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36○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세 켠과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켠로 벽을 쳤다.

37○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 사년 시브월이고, **38**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 십일년 c불월 곧 여덟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일곱 해가 걸렸다.(c 양력 시월 중순 이후)

솔로몬의 궁전

1KINGS 7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 데, 열세 해가 걸렸다. ² 그는 '레바논 수풀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백 자이고, 그 너비는 쉰 자이고, 그 높이는 서른 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네 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서까래를 얹었다. ³ 지붕에는, 한 줄에 열다섯 개씩, 모두 마흔다섯 개의 서까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⁴ 창틀은 세 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세 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⁵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세 줄로 마주 보고 있었다. ⁶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쉰 자이고 너비가 서른 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⁷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⁸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이는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⁹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¹⁰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열 자나 되고, 어떤 돌은 여덟 자나 되었다. ¹¹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¹²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세 켤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켤를 놓아서 쌓았다.

후람의 임무

¹³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a후람을 불러 왔는데, (a 히, '히람') ¹⁴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낚시 대장장이이다. 그는, 낚시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러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두 낚시 기둥(대하 3:15-17)

¹⁵ 그는 두 개의 낚시 기둥을 만들었다. b돌 다 열여덟 자 높이에, 열두 자 둘레였다. (b 히,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자, 또 다른 기둥은 둘레가 열두 자였다') ¹⁶ 그는 또,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두 개의 기둥 머리를, 낚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 다 꼭 같이 높이가 다섯 자이다. ¹⁷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일곱 개씩 만들었다. ¹⁸ 이렇게 두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낚시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두 줄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¹⁹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는 그 높이가 넉 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²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 머리에는 낚시로 만든 석류 이백 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²¹ a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c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d보아스라고 하였다. (a 히, '히

람' c '그가 세우다' d '그에게 힘이 있다') ²²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a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a 히, '히람')

놋쇠 물통(대하 4:2-5)

²³그 다음에 a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a 히, '히람')
²⁴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²⁵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²⁶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 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이천 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놋쇠 받침대와 대야

²⁷그는 또 놋으로 받침대를 열 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 자, 너비가 넉 자, 높이가 석 자이다. ²⁸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²⁹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 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다. ³⁰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네 개의 놋쇠 바퀴와 놋쇠 축과 네 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네 개의 다리는 놋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³¹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 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 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³²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네 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자 반이었다. ³³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놋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³⁴그리고 받침대의 네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네 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³⁵받침대 꼭대기에는 반 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러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³⁶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³⁷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³⁸또 그는 놋쇠로 대야 열 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마흔 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 자이다. 받침대 열 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³⁹받침대 다섯 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다섯 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성전 기구(대하 4:11-5:1)

40○a후람은 또 솔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a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a 히, '히람') **41**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두 개와, **42**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사백 개와, **43**또 받침대 열 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열 개와, **44**바다 모양 물통 한 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열두 개와, **45**솔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 들이다.

○a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a 히, '히람') **46**왕은 이 기구들을, 숙곳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47**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48○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 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49**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의 오른쪽에 다섯 왼쪽에 다섯 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50**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쩌귀와, 성전의 바깥 문에 다는 금돌쩌귀 들이다.

51○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대하 5:2-6:2)

1KINGS 8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모았다. **2**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a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a 양력 구월 중순 이후) **3**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4**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5**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6**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7**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8**궤에서 뱀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 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9**궤 속에는 호렘에서 모세가 넣어 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렘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10○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11**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12**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솔로몬의 연설(대하 6:3-11)

14○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 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5○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17○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18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19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20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1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 있는 궤를 놓아 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대하 6:12-42)

22○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23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4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25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6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27○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28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9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 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31○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32**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33○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34**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35○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36**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37○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38**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39**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40**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41○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42**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 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43**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 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44○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 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45**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 주십시오.

46○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47**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48**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

든, ⁴⁹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 주십시오. ⁵⁰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 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⁵¹그들은, 주님께서 쇠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⁵²○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⁵³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⁵⁴○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⁵⁵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⁵⁶○"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⁵⁷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⁵⁸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⁵⁹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⁶⁰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⁶¹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전 봉헌(대하 7:4-10)

⁶²○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⁶³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이만 이천 마리이고, 양이 십이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⁶⁴그리고 바로 그 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⁶⁵○그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b**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c**이레 동안을 두 번씩 열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b** 또는 '르보 하맛')(**c** 칠십인역에는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다') ⁶⁶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

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1KINGS 9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2**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3**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4**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가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5**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겠다. **6**그러나 a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a 히, '너희') **7**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 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8**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9**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대하 8:1-2)

10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 데 스무 해가 걸렸다. **11**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12**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13**"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곳을 b가불의 땅이라고 한다.(b '쓸모 없는') **14**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백이십 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대하 8:3-18)

15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꾼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6**(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 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17**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꾼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벧호론을 재건하였다. **18**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을 세웠다. **19**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

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²⁰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 남은 백성이 있었다. ²¹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 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²²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²³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오백오십 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²⁴바로의 딸은 다윗 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 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 때에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²⁵솔로몬은, 한 해에 세 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²⁶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c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c 히, '암 쭈프') ²⁷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²⁸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사백이십 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 왔다.

스바 여왕의 방문(대하 9:1-12)

1KINGS 10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²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 보았다. ³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⁴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 보고, ⁵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 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⁶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⁷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⁸임금님의 a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부인들') ⁹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¹⁰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 본 일이 없다.

¹¹(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¹²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

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어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13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답례물을 준 것 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요함(대하 9:13-29)

14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5**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이 보내 오는 금도 있었다.

16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이백 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17**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삼 마네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18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19**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여섯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앞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 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20** 여섯 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여섯 개씩 열두 개의 사자 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21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22**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하게 하였다. 세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23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24**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25**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천사백 대, 기병이 만 이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27**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28**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29**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백오십 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1 KINGS 11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2**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3**그는 자그마치 칠백 명의 후궁과 삼백 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꺾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5**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a**밀곰을 따라가서, (**a** 또는 '몰렉') **6**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7**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8**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9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0**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11**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12**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13**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적

14이렇게 해서, 주님께서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15**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 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죽인 일이 있다. **16**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17**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 때에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18**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19**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20**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21**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22**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23○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24**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25**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26○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27**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의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28**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29**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30**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열두 조각을 내고, **31**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열 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열 지파를 너에게 준다. **32**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 둔다. **33**b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b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그들이 나를 버리고.....') **34**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35**그렇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열 지파를 너에게 주고, **36**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37**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38**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39**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40○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이 죽다(대하 9:29-31)

⁴¹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⁴²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⁴³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쪽 지파들의 반항(대하 10:1-19)

1KINGS 12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²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 때에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³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⁴"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 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 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⁵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⁶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⁷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 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⁸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⁹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 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¹⁰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¹¹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¹²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¹³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¹⁴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¹⁵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¹⁶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17○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18**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a 히, '아도람') **19**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20○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 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스마야의 예언(대하 11:1-4)

21○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십팔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22**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23**"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24**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25○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26**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7**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8**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29**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30**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31**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베델 제단 규탄

32○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

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³³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1 KINGS 13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²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³바로 그 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⁴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췌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⁵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⁶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⁷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⁸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⁹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¹⁰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

¹¹○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 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¹²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¹³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 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¹⁴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 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¹⁵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¹⁶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 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¹⁷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¹⁸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¹⁹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²⁰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²¹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²²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검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²³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²⁴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 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²⁵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 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²⁶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²⁷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워 놓으니, ²⁸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 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²⁹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 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³⁰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³¹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 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³²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의 죄

³³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³⁴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1 KINGS 14 그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²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소.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³당신은 빵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 줄 것이요." ⁴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 보지 못하였다. ⁵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네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⁶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⁷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⁸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네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⁹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¹⁰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 버리겠다. ¹¹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¹²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¹³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¹⁴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¹⁵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내어서, a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흘으실 것입니다.(a 히, '그 강') ¹⁶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¹⁷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 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¹⁸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죽음]

¹⁹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⁰여로보암은 스물두 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르호보암(대하 11:5-12:15)

²¹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마흔한 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²²유다도 주님께서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²³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²⁴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

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25○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오 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26**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 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 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 갔다. **27**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28**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 오곤 하였다. **29**○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30**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31**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b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b 칠십인역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아비암')

유다 왕 아비야(대하 13:1-14:1)

1KINGS 15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십팔년에, a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a 칠십인역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아비암') **2**그는 삼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3**a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 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a 칠십인역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아비암') **4**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 **5**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헛 사람 우리야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6**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7**a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a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8○a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a 칠십인역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아비암')

유다 왕 아사(대하 15:16-16:6)

9○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이십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10**예루살렘을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11**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2**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 버렸다. **13**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15**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16○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17**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18**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19**"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서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20**벤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윤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21**바아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22**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재목을 가져 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23**○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그막에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24**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밋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나답

25○유다의 아사 왕 제 이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6**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걸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27○잇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깃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깃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28**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 삼년이 되는 해였다. **29**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 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0**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31○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32**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

33○유다의 아사 왕 제 삼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스물네 해 동안 다스렸다. **34**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1 KINGS 16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2**"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 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3**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4**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5○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6**바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7○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므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 엘라

8○유다의 아사 왕 제 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9**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때에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궁내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10**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 이십칠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1○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아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아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다. **12**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아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13**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14**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시므리

15○유다의 아사 왕 제 이십칠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칠 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김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16**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 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17**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김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18**이 때에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19**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20**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21○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22**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23**유다의 아사 왕 제 삼십일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열두 해 동안 다스렸는데, 여섯 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24**그는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

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25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26**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27**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28**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

29 유다의 아사 왕 제 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스물두 해 동안 다스렸다.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1**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32**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도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33**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34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엘리야와 가뭄

1 KINGS 17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 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2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3** "이 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룻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4**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5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룻 시냇가에 머물렀다. **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 곳 시냇물을 마셨다. **7**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 버렸다.

엘리야와 사르밧

8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9**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 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10**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땀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11**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2**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뉘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땀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13**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14**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뉘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16** 뉘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17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누어 놓고, **20**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21**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22**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

1 KINGS 18 많은 날이 흘러서, 삼 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2**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 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3** 아합이 오바댜 궁내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4**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백 명을 쉰 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5**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 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6**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 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 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7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 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10**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

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에 사람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¹¹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¹²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 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¹³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백 명을 쉰 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¹⁴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¹⁵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¹⁶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¹⁷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¹⁸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¹⁹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사백쉰 명과 아세라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²⁰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았다.

²¹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²²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쉰 명이나 됩니다. ²³ 이제, 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뭇단 위에 올려 놓고,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뭇단 위에 올려 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²⁴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²⁵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 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²⁶ 그들은 가져 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 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²⁷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불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²⁸ 그들은 더 큰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²⁹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³⁰ ○이 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³¹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열두 개의 돌을 모았다. ³²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

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 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³³그 다음에, 나뭇단을 쌓아 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뭇단 위에 올려 놓고, 물통 네 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뭇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³⁴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세 번을 그렇게 하니, ³⁵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³⁶○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³⁷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³⁸○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나뭇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³⁹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⁴⁰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 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가뭄이 그침

⁴¹○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⁴²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⁴³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 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일곱 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⁴⁴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⁴⁵○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⁴⁶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시내 산의 엘리야

1 KINGS 19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날날이 이 세벨에게 알려 주었다. ²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³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 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 두고, (a 또는 '보고서') ⁴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렘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⁵그런 다음

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⁶엘리야가 깨어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⁷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⁸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사십 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렘 산에 도착하였다. ⁹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¹⁰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¹¹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¹²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¹³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 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¹⁴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¹⁵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¹⁶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¹⁷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¹⁸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¹⁹○엘리야가 그 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열한 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열두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²⁰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 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²¹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메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시리아와의 전쟁

1 KINGS 20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서른두 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²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

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³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네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⁴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⁵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벤하닷의 말을 전하였다. ⁶"나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⁷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네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a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 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네 눈에')

⁷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 놓고 의논하였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꺾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소." ⁸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⁹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 줄 수 없다고 전하십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¹⁰벤하닷은 다시 전갈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잣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¹¹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¹²벤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b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b 히, '성을')

¹³그 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¹⁴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¹⁵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이백서른두 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칠천 명이었다.

¹⁶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 때에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서른두 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¹⁷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벤하닷의 정찰병들이 벤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¹⁸보고를 받은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¹⁹그러나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²⁰저마다 닥치는 대로 벤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벤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²¹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²²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의 두 번째 공격

23○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24**그러므로 임금님께서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25**잃은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26**○해가 바뀌었다. 벤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27**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28**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네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9○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레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레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만에 보병 십만 명을 무찔렀다. **30**그 나머지는 아벡 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이만 칠천 명을 덮쳐 버렸다.

○벤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31**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굶은 베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 줄지도 모릅니다." **32**그래서 그들은 굶은 베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 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33**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벤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34**벤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벤하닷을 놓아 주었다.

한 예언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35○c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c 히, '예언자의 아들들 가운데서') **36**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37**○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38**그 예언자는 붓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39**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

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⁴⁰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⁴¹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 때에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⁴²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⁴³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나봇의 포도원

1 KINGS 21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²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³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⁵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⁶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 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이오." ⁷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⁸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⁹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¹⁰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¹¹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¹²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¹³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¹⁴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¹⁵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¹⁶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¹⁷ 주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¹⁸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 곳으로 내려갔다. ¹⁹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

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핏은 바로 그 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핏을 것이다." ²⁰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²¹a'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 버리겠다.(a 주님의 말) ²²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²³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르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²⁴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²⁵o(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 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²⁶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 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²⁷o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굶은 베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굶은 베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²⁸그 때에 주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²⁹"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언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대하 18:2-27)

1 KINGS 22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²그런데 삼 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³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뭇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⁴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뭇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⁵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⁶o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사백 명 가량을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뭇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⁷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 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⁸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 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⁹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¹⁰o그 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 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11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12**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뭏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3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यो." **14**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15**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뭏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곳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16**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17**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1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 서 있는데, **20**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꺾어 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뭏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21**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꺾어 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꺾어 내겠느냐?' **22**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꺾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23**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4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25**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6**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27**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28**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 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아합의 죽음(대하 18:28-34)

29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뭏으로 올라갔다. **30**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³¹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서른두 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³²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³³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³⁴○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 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³⁵그러나 특히 그 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³⁶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³⁷○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주검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 곳에 묻었다. ³⁸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 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³⁹○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 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⁴⁰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대하 20:31-21:1)

⁴¹○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 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⁴²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서른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⁴³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⁴⁴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⁴⁵○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 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⁴⁶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 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⁴⁷○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⁴⁸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⁴⁹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까"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⁵⁰○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다윗 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⁵¹○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십칠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⁵²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

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53**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Footnotes

Footnote from 1 Kings 1:2 ([Back](#))

[\[1\]](#) **1:2** Or *in your bosom*

Footnote from 1 Kings 1:14 ([Back](#))

[\[2\]](#) 1:14 Or *expand on*

Footnote from 1 Kings 1:25 ([Back](#))

[3] 1:25 Hebrew; Septuagint *Joab the commander*

Footnote from 1 Kings 1:48 ([Back](#))

[\[4\]](#) **1:48** Septuagint *one of my offspring*

Footnote from 1 Kings 2:4 ([Back](#))

[1] 2:4 Hebrew *there shall not be cut off for you*

Footnote from 1 Kings 2:5 ([Back](#))

[\[2\]](#) **2:5** Septuagint; Hebrew *placing*

Footnote from 1 Kings 2:5 ([Back](#))

[\[3\]](#) 2:5 Septuagint *innocent blood*

Footnote from 1 Kings 2:5 ([Back](#))

[\[4\]](#) **2:5** Septuagint *my*;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Kings 2:7 ([Back](#))

[\[5\]](#) 2:7 Or *steadfast love*

Footnote from 1 Kings 2:22 ([Back](#))

[\[6\]](#) **2:22**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and for him and for Abiathar*

Footnote from 1 Kings 4:21 ([Back](#))

[\[1\]](#) **4:21** Ch 5:1 in Hebrew

Footnote from 1 Kings 4:21 ([Back](#))

[\[2\]](#) 4:21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1 Kings 4:22 ([Back](#))

[\[3\]](#) **4:22**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1 Kings 4:24 ([Back](#))

[4] 4:24 Hebrew *the River*;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Kings 4:26 ([Back](#))

[\[5\]](#) **4:26** Hebrew; one Hebrew manuscript (see 2 Chron. 9:25 and Septuagint of 1 Kings 10:26) *4,000*

Footnote from 1 Kings 5:1 ([Back](#))

[\[1\]](#) **5:1** Ch 5:15 in Hebrew

Footnote from 1 Kings 5:11 ([Back](#))

[\[2\]](#) **5:11**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1 Kings 5:11 ([Back](#))

[\[3\]](#) **5:11** Septuagint; Hebrew *twenty*

Footnote from 1 Kings 6:2 ([Back](#))

[1] 6: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1 Kings 6:4 ([Back](#))

[\[2\]](#) 6:4 Or *blocked lattice windows*

Footnote from 1 Kings 6:5 ([Back](#))

[\[3\]](#) **6:5** Or *platform*; also verse 10

Footnote from 1 Kings 6:6 ([Back](#))

[\[4\]](#) 6:6 Septuagint; Hebrew *structure*, or *platform*

Footnote from 1 Kings 6:8 ([Back](#))

[\[5\]](#) **6:8** Septuagint, Targum; Hebrew *middle*

Footnote from 1 Kings 6:20 ([Back](#))

[\[6\]](#) **6:20** Vulgate; Hebrew *and before the inner sanctuary*

Footnote from 1 Kings 6:20 ([Back](#))

[\[7\]](#) **6:20** Septuagint *made*

Footnote from 1 Kings 6:31 ([Back](#))

[\[8\]](#) **6:31**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Kings 7:2 ([Back](#))

[\[1\]](#) **7: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1 Kings 7:2 ([Back](#))

[\[2\]](#) 7:2 Septuagint *three*

Footnote from 1 Kings 7:5 ([Back](#))

[\[3\]](#) 7:5 Septuagint; Hebrew *posts*

Footnote from 1 Kings 7:7 ([Back](#))

[\[4\]](#) 7:7 Syriac, Vulgate; Hebrew *floor*

Footnote from 1 Kings 7:15 ([Back](#))

[\[5\]](#) **7:15** Targum, Syriac (compare Septuagint and Jeremiah 52:21); Hebrew *fingers*. *And a line of twelve cubits measured the circumference of the second pillar*

Footnote from 1 Kings 7:17 ([Back](#))

[\[6\]](#) 7:17 Septuagint; Hebrew *seve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Kings 7:18 ([Back](#))

[\[7\]](#) **7:18** Two manuscripts (compare Septuagint); Hebrew *pillars*

Footnote from 1 Kings 7:26 ([Back](#))

[8] 7:26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1 Kings 7:26 ([Back](#))

[\[9\]](#) **7:26**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Footnote from 1 Kings 8:12 ([Back](#))

[\[1\]](#) **8:12** Septuagint *The LORD has set the sun in the heavens, but*

Footnote from 1 Kings 8:37 ([Back](#))

[\[2\]](#) **8:37** Septuagint, Syriac *in any of their cities*

Footnote from 1 Kings 8:65 ([Back](#))

[\[3\]](#) **8:65** Septuagint; Hebrew *seven days and seven days, fourteen days*

Footnote from 1 Kings 9:8 ([Back](#))

[\[1\]](#) **9:8** Syriac, Old Latin; Hebrew *will become high*

Footnote from 1 Kings 9:14 ([Back](#))

[\[2\]](#) 9:1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Kings 9:18 ([Back](#))

[3] 9:18 Hebrew lacks *of Judah*

Footnote from 1 Kings 9:21 ([Back](#))

[4] 9:21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1 Kings 9:25 ([Back](#))

[\[5\]](#) **9:25** Septuagint lacks *with it*

Footnote from 1 Kings 10:10 ([Back](#))

[1] 10:10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Kings 10:16 ([Back](#))

[\[2\]](#) **10:16**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1 Kings 10:17 ([Back](#))

[\[3\]](#) **10:17** A *mina* was about 1 1/4 pounds or 0.6 kilogram

Footnote from 1 Kings 10:19 ([Back](#))

[\[4\]](#) **10:19** Or *and at the back of the throne was a calf's head*

Footnote from 1 Kings 10:22 ([Back](#))

[\[5\]](#) 10:22 Or *baboons*

Footnote from 1 Kings 11:33 ([Back](#))

[\[1\]](#) **11:33** Septuagint, Syriac, Vulgate *he has*;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Kings 12:2 ([Back](#))

[\[1\]](#) **12:2** Septuagint, Vulgate (compare 2 Chronicles 10:2); Hebrew *lived in*

Footnote from 1 Kings 12:30 ([Back](#))

[\[2\]](#) **12:30** Septuagint *went to the one at Bethel and to the other as far as Dan*

Footnote from 1 Kings 13:11 ([Back](#))

[\[1\]](#) **13:11**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son*

Footnote from 1 Kings 13:29 ([Back](#))

[\[2\]](#) **13:29** Septuagint; Hebrew *he came to the city of the old prophet*

Footnote from 1 Kings 14:15 ([Back](#))

[\[1\]](#) 14:15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1 Kings 15:19 ([Back](#))

[\[1\]](#) 15:19 Or *treaty*;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Kings 16:24 ([Back](#))

[1] 16:2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Kings 17:1 ([Back](#))

[\[1\]](#) 17:1 Septuagint; Hebrew *of the settlers*

Footnote from 1 Kings 17:21 ([Back](#))

[\[2\]](#) **17:21** Or *soul*; also verse 22

Footnote from 1 Kings 18:32 ([Back](#))

[\[1\]](#) **18:32** A *seah* was about 7 quarts or 7.3 liters

Footnote from 1 Kings 19:12 ([Back](#))

[\[1\]](#) 19:12 Or *a sound, a thin silence*

Footnote from 1 Kings 20:39 ([Back](#))

[\[1\]](#) **20:39**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Kings 20:42 ([Back](#))

[2] 20:42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1 Kings 21:10 ([Back](#))

[\[1\]](#) 21:10 Hebrew *blessed*; also verse 13

Footnote from 1 Kings 22:34 ([Back](#))

[1] 22:34 Hebrew *in his innocence*

열왕기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Kings 1](#) • [2 Kings 2](#) • [2 Kings 3](#) • [2 Kings 4](#) • [2 Kings 5](#) • [2 Kings 6](#) • [2 Kings 7](#) • [2 Kings 8](#)
• [2 Kings 9](#) • [2 Kings 10](#) • [2 Kings 11](#) • [2 Kings 12](#) • [2 Kings 13](#) • [2 Kings 14](#) • [2 Kings 15](#)
• [2 Kings 16](#) • [2 Kings 17](#) • [2 Kings 18](#) • [2 Kings 19](#) • [2 Kings 20](#) • [2 Kings 21](#) • [2 Kings 22](#)
• [2 Kings 23](#) • [2 Kings 24](#) • [2 Kings 25](#)

열왕기하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

2 KINGS 1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a**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 보게 하였다. (**a** '파리들의 주', '바알 왕자'를 뜻하는 '바알세불'에 대칭되는 모욕적인 이름)

3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4**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5**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6**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러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7**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8**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겐 가죽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셋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9 그리하여 왕은 오십부장에게 부하 십 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오십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시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10** 엘리야가 그 오십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십 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십 명을 태워 버렸다.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에게 부하 십 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오십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시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12**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십 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십 명을 태웠다.

13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오십부장에게 부하 십 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오십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십 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14**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오십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백 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15**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16**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네 병에 관하여 물어 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쭙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나?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17**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b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이년이 되던 해였다.(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의 동생' 없음)

18 o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엘리야가 승천하다

2 KINGS 2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3 베델에 살고 있는 a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

4 o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예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예리고로 갔다. 5 예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6 o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 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7 a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쉰 명이 요단 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 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 8 그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겹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 강을 건너갔다.

9 o 요단 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1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 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o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겹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13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겹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겹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15 그 때에 예리고에서부터 따라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16 그리고 엘리

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쉰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어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¹⁷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쉰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¹⁸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엘리사의 기적

¹⁹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²⁰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 오니, ²¹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 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²²그 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²³엘리사가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 댔다. ²⁴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마흔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²⁵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갈멜 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2 KINGS 3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십팔년에 아합의 아들 a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다.(a 히, '여호람'. 히브리 이름 '요람'과 '여호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²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³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⁴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양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⁵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⁶그 때에 a요람 왕은 그 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a 히, '여호람'. 히브리 이름 '요람'과 '여호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⁷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⁸이에 a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a 히, '여호람'. 히브리 이름 '요람'과 '여호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⁹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레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¹⁰이스라엘 왕이 탄식

하였다. "아, 큰일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불려내신 것이 아닌가!" ¹¹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¹²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¹³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나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려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하십니다." ¹⁴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¹⁵이제 나에게 거문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 오십시오." 그리하여 거문고 타는 사람이 와서 거문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¹⁶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¹⁷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¹⁸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¹⁹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쪼개로 만드실 것입니다." ²⁰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²¹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²²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²³그래서 그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²⁴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²⁵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 곳도 무릿매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²⁶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칠백 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²⁷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 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과부의 기름 병

2 KINGS 4 a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빗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²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 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³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 와서,⁴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⁵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⁶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⁷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와 수넴 여인

⁸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 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⁹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¹⁰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 둬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 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¹¹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¹²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¹³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쭙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¹⁴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¹⁵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¹⁶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¹⁷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¹⁸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¹⁹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²⁰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 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²¹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²²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²³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²⁴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²⁵이 여인은 곧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벰 여인이 오고 있구나. ²⁶달려가서 맞아라.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고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 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고 없다고 대답하였다. ²⁷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 주지 않으셨다." ²⁸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²⁹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³⁰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 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³¹○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찾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³²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³³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³⁴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³⁵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 안 이곳 저곳을 한 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일곱 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³⁶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벰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³⁷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두 가지 기적

³⁸○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 곳은 엘리사가 a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솔을 걸어 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 ³⁹한 사람이 나물을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⁴⁰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 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⁴¹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 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⁴²○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⁴³그의 시종은 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⁴⁴그리하여 그것을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2 KINGS 5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a나병에 걸리고 말았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²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³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a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⁴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⁵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 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⁶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a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⁷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a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⁸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⁹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¹⁰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¹¹○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a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¹²다마스쿠스에 있는 아mana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나?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로도 한다는 말이나?"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13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15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16**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 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17**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 지 않겠습니다." **18**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20**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 와야 하겠다.' **21**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22**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24**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 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25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아내가 네게로 옮겨갈 것이고, 네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아내에게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도끼를 찾다

2 KINGS 6 a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 **2**우리가 요단으

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³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⁴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⁵그 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 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⁶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 곳을 알려 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⁷엘리사가 "그것을 잡아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 내었다.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다

⁸○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⁹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 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¹⁰이러한 전갈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 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 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¹¹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나?" ¹²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줍니다." ¹³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¹⁴왕은 곧 그 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¹⁵○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¹⁶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¹⁷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 말과 불 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¹⁸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¹⁹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²⁰○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²¹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 버려도 됩니까?" ²²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

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²³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포위된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다

²⁴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²⁵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²⁶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²⁷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²⁸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²⁹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³⁰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겔롯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³¹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 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³² 그 때에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 놓고 뒤따라 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 오고 있지 않습니까?" ³³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2 KINGS 7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²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시리아의 군대가 도망가다

³ 그 무렵에 a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⁴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5○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 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6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7황혼녘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8이들 a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 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 두었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9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10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 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 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11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12○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13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다섯 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4그래서 그들이 말 두 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 보라고 하였다. 15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 강까지 가 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 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16○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17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18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 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19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20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

2 KINGS 8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 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 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 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²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일곱 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붙여 살았다. ³ 일곱 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⁴ 마침 그 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⁵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 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 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 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 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⁶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 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 주어라."

엘리사와 시리아 왕 벤하닷

⁷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⁸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 보도록 부탁을 드려 주시오." ⁹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마흔 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께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쭙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¹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a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a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¹¹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 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¹²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¹³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¹⁴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벤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¹⁵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람(대하 21:1-20)

¹⁶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오년에 b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여호사밧이 아직

도 유다의 왕일 때에'가 없음) ¹⁷그는 서른두 살에 왕이 되어, 여덟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¹⁸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¹⁹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²⁰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²¹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 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²²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 때에 립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²³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⁴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하시야(대하 22:1-6)

²⁵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 십이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²⁶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²⁷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²⁸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²⁹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갔다.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여호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2 KINGS 9 예언자 엘리사가 a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a 히, '예언자들의 아들들') ²거기에 가면, 그 곳에서 남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밋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³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⁴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⁵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 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⁶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⁷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

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⁸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놓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⁹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¹⁰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¹¹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돌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¹²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였습니다." ¹³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¹⁴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 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¹⁵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 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¹⁶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 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¹⁷이스라엘의 망대 위에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 보아라."

¹⁸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¹⁹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²⁰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²¹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²²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²³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야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야 임금님, 반역이오." ²⁴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²⁵예후가 요람의 빗갈 시종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

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²⁶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 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살해되다

²⁷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b벧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 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부근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찢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그 곳에서 죽었다.(b'정원의 집') ²⁸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 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지냈다.

²⁹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 십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³⁰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³¹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³²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 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³³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³⁴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 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 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 었다." ³⁵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지내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³⁶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 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 먹을 것이며, ³⁷이세벨의 주검은 이 스킨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합의 자손이 살해되다

2 KINGS 10 아합의 아들 일흔 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a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b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a 칠십인역과 불가타에는 '성읍의' b 칠십인역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들들'이 없음) ²"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³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⁴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⁵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갈을 보

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6○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 오너라."

○그 때에 왕자들 일흔 명은 그들을 키워 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7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일흔 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8○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 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9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10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11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하시야 왕의 친족이 살해되다

12○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에켓하로임에 이르렀다. 13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14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벳에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마흔두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았다.

아합의 나머지 친족이 살해되다

15○예후가 그 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16그런 다음에 c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을 따름. 히, '그들은') 17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살해되다

18○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 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19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

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²⁰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²¹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²²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 오니, ²³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거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²⁴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여든 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²⁵○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²⁶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²⁷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²⁸○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 내었다. ²⁹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³⁰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 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네 사 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³¹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예후가 죽다

³²○이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 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³³그는 요단 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³⁴○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³⁵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³⁶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스물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유다의 아달랴 여왕(대하 22:10-23:15)

2 KINGS 1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²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a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 때에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a 히, '요람'. 히브리 이름 '여호람'과 '요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³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⁴○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 주었다.
⁵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⁶다른 삼분의 일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⁷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⁸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b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b 또는 '구역')

⁹○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¹⁰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¹¹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¹²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¹³○아달라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¹⁴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라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¹⁵○그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b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b 또는 '구역') ¹⁶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의 개혁(대하 23:16-21)

¹⁷○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¹⁸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¹⁹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²⁰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라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²¹○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

유다 왕 요아스(대하 24:1-16)

2 KINGS 12 예후 제 칠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마흔 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²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³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⁴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 오는 헌금을 모두, ⁵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⁶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스물세 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⁷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의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⁸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⁹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 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¹⁰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 내어 계산하였다. ¹¹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¹²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¹³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¹⁴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¹⁵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¹⁶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¹⁷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¹⁸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¹⁹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⁰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²¹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2 KINGS 13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 제 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일곱 해 동안 다스렸다. **2**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3**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4**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5**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6**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 까지도 그냥 세워 두었다.

7○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 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만이 남았다.

8○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9**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10○유다의 요아스 왕 제 삼십칠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11**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12**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3**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다

14○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15○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 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 오자, **16**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17**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18○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19**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20○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 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21**한 번은 장사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 떼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 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달라붙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22○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23**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굶어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24○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이 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유다 왕 아마샤(대하 25:1-24)

2 KINGS 14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2**그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은 예루살렘 태생이다. **3**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4**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5**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6**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7○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욥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8○그 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9**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10**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11○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12**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13**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

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사백 자를 허물어 버렸다. ¹⁴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¹⁵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¹⁶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죽다(대하 25:25-28)

¹⁷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¹⁸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¹⁹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²⁰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 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지냈다. ²¹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²²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세

²³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 십오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다. ²⁴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²⁵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a하맛 어귀로부터 b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밋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a 또는 '하맛 어귀' 또는 '르보 하맛' b 사해를 일컬음)

²⁶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²⁷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²⁸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⁹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대하 26:1-23)

2 KINGS 15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이십칠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²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야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³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⁴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 때

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⁵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a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a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

⁶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⁷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조상과 함께 장사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

⁸ 유다의 아사랴 왕 제 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⁹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¹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b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b 몇몇 칠십인역 사본에는 '이블르암에서')

¹¹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¹²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사 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왕 살룸

¹³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웃시아 왕 제 삼십구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¹⁴ 그 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¹⁵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¹⁶ 그 때에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딤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 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스라엘 왕 므나헴

¹⁷ 유다의 아사랴 왕 제 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¹⁸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¹⁹ 앗시리아의 c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c 디글랏빌레셀) ²⁰ 므나헴은, 앗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천 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앗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²¹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² 므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23 유다 왕 아사랴 제 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24**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25** 그의 부관인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쉰 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6 브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베가

27 유다의 아사랴 왕 제 오십이년에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스무 해 동안 다스렸다. **28**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29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앗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30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웃시야의 아들 요담 제 이십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1**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요담(대하 27:1-9)

32 이스라엘의 르말리야 왕의 아들 베가 제 이년에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33**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34** 그는, 아버지 웃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35**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 대문을 세웠다.

36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37** 이 때부터 주님께서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38**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하스(대하 28:1-27)

2 KINGS 16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제 십칠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2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3**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난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a 또는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였다') **4**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5○그 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6**그 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 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7**아하스는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8**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앗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9**앗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10○아하스 왕은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 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11**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 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12**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13**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14**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15**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 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쭙어 볼 때에만 쓰겠소." **16**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17○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쇠 테두리를 떼어 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쇠소가 받치고 있는 놋쇠 바다를 뜯어 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18**또 그는 앗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 버렸다.

19○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0**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2 KINGS 17 유다의 아하스 왕 제 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2**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3**앗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4**그러나 앗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앗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앗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다

5○그리고 난 뒤에 앗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6드디어 호세아 제 구년에 앗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7○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8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9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10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이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11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12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였다.

13○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14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15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16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17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a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a 또는 '불로 지나가게 하였다') 18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지파뿐이었다.

19○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20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 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21○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22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23마침내 주님께서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앗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다

24○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앗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²⁵그들은 그 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²⁶그러므로 그들이 앗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²⁷그래서 앗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 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 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 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²⁸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²⁹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³⁰바빌론 사람들은 숙곳브נות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³¹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³²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³³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³⁴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³⁵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³⁶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³⁷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³⁸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³⁹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⁴⁰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⁴¹그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유다 왕 히스기야(대하 29:1-2; 31:1)

2 KINGS 18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 삼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²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³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⁴그는 산당을 헐어 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 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까지도 a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a '느후스단'은 히브리어 '구리(느호셋)'와 '뱀(나하쉬)'의 발음과 비슷함) ⁵그

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6**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7**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므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앗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8**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9 히스기야 왕 제 사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 칠년에, 앗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10**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 육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 구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11** 앗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 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12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앗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대하 32:1-19; 사 36:1-22)

13 히스기야 왕 제 십사년에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14**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앗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앗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요구하였다. **15**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16** 그 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앗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17** 그런데도 앗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가에 포진하였다. **18**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궁내대신과 썩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20**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21**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찢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22**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 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23**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이천 필을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24** 그러니 네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25**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 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26○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썩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27○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28○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9**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30**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31**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32**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33**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34**하맛과 아르밋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35**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나?"

36○백성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37**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궁내대신과 썩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사 37:1-7)

2 KINGS 19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그는 엘리야김 궁내대신과 썩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3**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4**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앗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서는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5○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6**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앗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7**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뜰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앗시리아가 또 다른 협박을 해 오다(사 37:8-20)

8○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립나를 치고 있는 앗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9그 때에 앗시리아 왕은 a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a 또는 '누비아'. 히, '구스', 나일 강 상류 지역) 10"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11너는 앗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12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13하맛의 왕, 아르밋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14○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15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16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17주님, 참으로 앗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18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앗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19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사 37:21-38)

20○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1앗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산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네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22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네 눈을 부릅떴느냐?

23네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 속 깊숙히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24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25그러나 산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 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26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27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28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 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29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30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1살아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32○그러므로 앗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
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쏘 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
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33**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
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34**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산헤립의 최후

35○그 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앗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쳐죽였
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36○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 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37**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
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
이 되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대하 **32:24-26**; 사 **38:1-8, 21-22**)

2 KINGS 20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²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³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빚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⁴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⁵"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⁶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⁷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 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⁸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⁹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십 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십 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¹⁰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십 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¹¹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드리운 그 그림자를 뒤로 십 도 물러나게 하였다.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사 39:1-8)

¹²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므로닥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 왔다. ¹³^a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 주었다.(a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히스기야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¹⁴그 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¹⁵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¹⁶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¹⁷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 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¹⁸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¹⁹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 통치의 끝(대하 32:32-33)

²⁰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었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¹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므낫세(대하 33:1-20)

2 KINGS 21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열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²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³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⁴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⁵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⁶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a 또는 '불로 지나가게 하고') ⁷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⁸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이다. ⁹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¹⁰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¹¹"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¹²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¹³내가 사마리아를 잔 줄과 아합 궁을 달아 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얹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 내겠다. ¹⁴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¹⁵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¹⁶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¹⁷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¹⁸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웃사의 정원에 장사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몬(대하 33:21-25)

¹⁹○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므술레멧은 윗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²⁰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²¹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²²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²³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²⁴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²⁵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⁶그는 윗바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시야(대하 34:1-2)

2 KINGS 22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갓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²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겹길로 빠지지 않았다.

율법책을 발견하다(대하 34:8-28)

³○요시야 왕 제 십팔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⁴"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⁵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⁶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⁷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 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⁸○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 보았다. ⁹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 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 둔 돈을 쏟아 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¹⁰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¹¹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¹²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¹³"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쭙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¹⁴○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홀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홀다는 예루살렘의 제 이 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¹⁵그러자 홀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16**'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 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7**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a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고지 못할 것이다.'(a 또는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18**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쭙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19**이 곳이 황폐해지고 이 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준다. 나 주가 말한다. **20**그러므로 내가 이 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o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대하 34:3-7, 29-33)

2 KINGS 23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2**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 주도록 하였다. **3**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4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5**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6**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들어 내다가, 그 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7**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8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 버렸다. **9**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10**그는 또 '히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a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a 또는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11**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내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 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태워 버렸다. **12**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 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13**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

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b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b 또는 '몰렉') ¹⁴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 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¹⁵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¹⁶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 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¹⁷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나?"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¹⁸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¹⁹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²⁰ 더욱이 그는 그 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대하 35:1-19)

²¹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²²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²³ 요시야 왕 제 십팔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²⁴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 버렸다. ²⁵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²⁶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격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²⁷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야 통치의 끝(대하 35:20-36:1)

²⁸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²⁹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므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³⁰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유다 왕 여호아하스(대하 36:2-4)

31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스물세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32**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3**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34**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 곳에서 죽었다.

유다 왕 여호야김(대하 36:5-8)

35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36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스물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브다야의 딸이다. **37**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2 KINGS 24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2**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3**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4**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5**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6**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7**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대하 36:9-10)

8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열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9**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12**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 팔년이였다. **13**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14**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만 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5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16** 또 칠천 명의 용사와 천 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17**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맛다니야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유다 왕 시드기야(대하 **36:11-12**; 렘 **52:1-3**상)

18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19**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예루살렘의 멸망(대하 **36:13-21**; 렘 **52:3하-11**)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2 KINGS 25** 시드기야 왕 제 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2**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 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3** (그 해 넷째 달) 구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4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a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 나와 b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a 또는 '갈대아' b 또는 '요단 계곡') **5** 그러나 a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a 또는 '갈대아') **6**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7**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성전 붕괴(렘 **52:12-33**)

8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 십구년 다섯째 달 칠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9**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10**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a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 버렸다.(a 또는 '갈대아') **11**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¹²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¹³○a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 갔다.(a 또는 '갈대아') ¹⁴또 솔과 부삽과 부집게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 갔다. ¹⁵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 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 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 갔다. ¹⁶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 갔다. 그가 가져 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¹⁷기둥 한 개의 높이는 열여덟 자이고,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 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유다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가다(렘 52:24-27)

¹⁸○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¹⁹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예순 명이다. ²⁰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²¹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유다 총독 그달리야(렘 40:7-9; 41:1-3)

²²○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 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임명하였다. ²³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야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²⁴그 때에 그달리야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a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a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a 또는 '갈대아')

²⁵○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야의 아들로써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a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a 또는 '갈대아') ²⁶그런 다음에 a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c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a 또는 '갈대아' c 또는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다(렘 52:31-34)

²⁷○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서른일곱 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d에월므로달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e열두째 달 이십칠일에, 에월므로달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d '아멜 마르둑'이라고도 함 e 아달월, 양력

이월 중순 이후) ²⁸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²⁹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³⁰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Footnotes

Footnote from 2 Kings 3:24 ([Back](#))

[\[1\]](#) **3:24** Septuagint;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5:1 ([Back](#))

[\[1\]](#) **5:1**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2 Kings 5:5 ([Back](#))

[\[2\]](#) **5:5**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Kings 5:12 ([Back](#))

[\[3\]](#) 5:12 Or *Amana*

Footnote from 2 Kings 6:25 ([Back](#))

[\[1\]](#) **6:2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a *kab* was about 1 quart or 1 liter

Footnote from 2 Kings 7:1 ([Back](#))

[\[1\]](#) **7:1** A *seah* was about 7 quarts or 7.3 liters

Footnote from 2 Kings 7:1 ([Back](#))

[\[2\]](#) **7:1**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Kings 7:3 ([Back](#))

[\[3\]](#) **7:3**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2 Kings 8:10 ([Back](#))

[\[1\]](#) **8:10** Some manuscripts *say*, “*You shall certainly not recover,*” for

Footnote from 2 Kings 8:15 ([Back](#))

[2] 8:15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8:16 ([Back](#))

[\[3\]](#) **8:16** Septuagint, Syriac lack *when Jehoshaphat was king of Judah*

Footnote from 2 Kings 8:21 ([Back](#))

[\[4\]](#) **8:21** *Joram*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ehoram* (the son of Jehoshaphat) as in verse 16; also verses 23, 24

Footnote from 2 Kings 9:13 ([Back](#))

[\[1\]](#) **9:13**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9:27 ([Back](#))

[\[2\]](#) **9:27** Syriac, Vulgate (compare Septuagint); Hebrew lacks *and they shot him*

Footnote from 2 Kings 10:1 ([Back](#))

[\[1\]](#) **10:1** Septuagint, Vulgate; Hebrew *rulers of Jezreel*

Footnote from 2 Kings 10:1 ([Back](#))

[\[2\]](#) **10:1** Hebrew lacks *of the sons*

Footnote from 2 Kings 10:15 ([Back](#))

[\[3\]](#) **10:15** Septuagint; Hebrew lacks *Jehu said*

Footnote from 2 Kings 10:16 ([Back](#))

[\[4\]](#) **10:16** Septuagint, Syriac, Targum; Hebrew *they*

Footnote from 2 Kings 10:24 ([Back](#))

[\[5\]](#) **10:24** Septuagint *he* (compare verse 25)

Footnote from 2 Kings 11:2 ([Back](#))

[\[1\]](#) **11:2** Compare 2 Chronicles 22:11; Hebrew lacks *and she put*

Footnote from 2 Kings 11:2 ([Back](#))

[\[2\]](#) **11:2** Septuagint, Syriac, Vulgate (compare 2 Chronicles 22:11) *she*

Footnote from 2 Kings 11:6 ([Back](#))

[\[3\]](#) **11:6**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11:21 ([Back](#))

[\[4\]](#) **11:21** Ch 12:1 in Hebrew

Footnote from 2 Kings 11:21 ([Back](#))

[\[5\]](#) **11:21** *Jehoash*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oash* (son of Ahaziah) as in verse 2

Footnote from 2 Kings 12:1 ([Back](#))

[\[1\]](#) **12:1** *Jehoash*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oash* (son of Ahaziah) as in 11:2; also verses 2, 4, 6, 7, 18

Footnote from 2 Kings 13:6 ([Back](#))

[\[1\]](#) **13:6** Septuagint, Syriac, Targum, Vulgate; Hebrew *he walked*

Footnote from 2 Kings 13:10 ([Back](#))

[\[2\]](#) **13:10** *Jehoash*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oash* (son of Jehoahaz) as in verses 9, 12–14; also verse 25

Footnote from 2 Kings 14:8 ([Back](#))

[\[1\]](#) **14:8** *Jehoash* is an alternate spelling of *Joash* (son of Jehoahaz) as in 13:9, 12–14; also verses 9, 11–16

Footnote from 2 Kings 14:13 ([Back](#))

[2] 14:1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Kings 15:5 ([Back](#))

[\[1\]](#) **15:5**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2 Kings 15:5 ([Back](#))

[\[2\]](#) **15:5**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15:13 ([Back](#))

[\[3\]](#) **15:13** Another name for *Azariah*

Footnote from 2 Kings 15:19 ([Back](#))

[\[4\]](#) **15:19** Another name for *Tiglath-pileser III* (compare verse 29)

Footnote from 2 Kings 15:19 ([Back](#))

[\[5\]](#) **15:19**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Kings 15:20 ([Back](#))

[\[6\]](#) **15:20**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Kings 16:3 ([Back](#))

[\[1\]](#) **16:3** Or *made his son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2 Kings 16:17 ([Back](#))

[\[2\]](#) **16:17** Compare 1 Kings 7:23

Footnote from 2 Kings 17:17 ([Back](#))

[\[1\]](#) 17:17 Or *made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2 Kings 17:27 ([Back](#))

[\[2\]](#) 17:27 Syriac, Vulgate; Hebrew *them*

Footnote from 2 Kings 18:4 ([Back](#))

[\[1\]](#) **18:4** *Nehushtan* sounds like the Hebrew for both *bronze* and *serpent*

Footnote from 2 Kings 18:14 ([Back](#))

[\[2\]](#) **18:1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Kings 18:29 ([Back](#))

[\[3\]](#) 18:29 Hebrew *his*

Footnote from 2 Kings 18:31 ([Back](#))

[\[4\]](#) **18:31** Hebrew *Make a blessing with me*

Footnote from 2 Kings 21:6 ([Back](#))

[1] 21:6 Hebrew *made his son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2 Kings 21:12 ([Back](#))

[\[2\]](#) 21:12 Or *evil*

Footnote from 2 Kings 23:10 ([Back](#))

[1] 23:10 Hebrew *might cause his son or daughter to pass through the fire for Molech*

Footnote from 2 Kings 23:11 ([Back](#))

[\[2\]](#) **23:11**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Kings 23:12 ([Back](#))

[3] 23:12 Hebrew *pieces from there*

Footnote from 2 Kings 23:15 ([Back](#))

[4] 23:15 Septuagint *broke in pieces its stones*

Footnote from 2 Kings 23:17 ([Back](#))

[\[5\]](#) 23:17 Hebrew *called*

Footnote from 2 Kings 23:33 ([Back](#))

[\[6\]](#) **23:33**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Kings 25:17 ([Back](#))

[\[1\]](#) **25:17**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Kings 25:27 ([Back](#))

[2] 25:27 Hebrew *reign, lifted up the head of*

역대지상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Chronicles 1](#) • [1 Chronicles 2](#) • [1 Chronicles 3](#) • [1 Chronicles 4](#) • [1 Chronicles 5](#)
• [1 Chronicles 6](#) • [1 Chronicles 7](#) • [1 Chronicles 8](#) • [1 Chronicles 9](#) • [1 Chronicles 10](#)
• [1 Chronicles 11](#) • [1 Chronicles 12](#) • [1 Chronicles 13](#) • [1 Chronicles 14](#) • [1 Chronicles 15](#)
• [1 Chronicles 16](#) • [1 Chronicles 17](#) • [1 Chronicles 18](#) • [1 Chronicles 19](#) • [1 Chronicles 20](#)
• [1 Chronicles 21](#) • [1 Chronicles 22](#) • [1 Chronicles 23](#) • [1 Chronicles 24](#) • [1 Chronicles 25](#)
• [1 Chronicles 26](#) • [1 Chronicles 27](#) • [1 Chronicles 28](#) • [1 Chronicles 29](#)

역대지상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창 5:1-32; 10:1-32; 11:10-26)

1 CHRONICLES 1 아담, 셋, 에노스, ²게난, 마할랄렐, 야렛, ³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⁴a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a 칠십인역을 따름)

⁵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⁶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b디밧과 도갈마이이고,(b 많은 히브리어 사본과 불가타에는 '리밧') ⁷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a스페인과 d키프로스와 e로도스이다.(c 히, '다시스' d 히, '깃딤' e 히, '도다님')

⁸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⁹구스의 자손은 쓰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고, 라아마의 자손은 쓰바와 드단이다. ¹⁰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¹¹이집트에게서 루드 족과 아남 족과 르함 족과 납두 족과 ¹²바드룻 족과 가슬루 족과 크레테 족이 나왔다.(가슬루 족에서 블레셋 족이 나왔다.) ¹³가나안은 말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헛을 낳았다. ¹⁴가나안에게서 여부스 족과 아모리 족과 기르가스 족과 ¹⁵히위 족과 알가 족과 신 족과 ¹⁶아르왓 족과 스말 족과 하맛 족이 나왔다.

¹⁷셈의 자손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f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다.(f 한 히브리어 사본과 몇몇 칠십인역 사본을 따름(창 10:23에서도)) ¹⁸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¹⁹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때에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g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다.(g '나뉘') ²⁰욥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²¹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²²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²³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욥단의 자손이다.

²⁴셈, 아르박삿, 셀라, ²⁵에벨, 벨렉, 르우, ²⁶스룩, 나홀, 데라, ²⁷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자손(창 25:12-16)

²⁸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²⁹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뿃이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³⁰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³¹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³²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욥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욥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³³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창 36:1-19)

³⁴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³⁵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³⁶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다. ³⁷르우엘의 아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이다.

에돔의 원주민(창 36:20-30)

38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39**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딘나이다. **40**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41**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42**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에돔의 왕들(창 36:31-43)

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브올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에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44**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45**요밥이 죽으니, 데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46**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뿔으로 옮겼다. **47**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48**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49**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50**바알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인데, 그는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이다. **51**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딘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벳 족장과 **52**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53**그나스 족장과 데만 족장과 밍살 족장과 **54**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1 CHRONICLES 2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자손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4**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6**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7**가르미의 아들은 a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b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a '고통', 여호수아 기에서는 '아간' b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이나 생명. 가지면 안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을 받게끔 저주받은 것. 동사는 '전멸시키다' 또는 '전멸시켜 바치다')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다윗의 가계

9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배이다.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11**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12**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¹³○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¹⁴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¹⁵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¹⁶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¹⁷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자손

¹⁸○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러곳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¹⁹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²⁰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다.
²¹○그 뒤에 헤스론은 예순 살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스굽이 태어났다. ²²스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스물세 개를 차지하였다. ²³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낏과 그 주변의 성읍 예순 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²⁴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c아버지 아스훌을 낳았다.(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여라므엘의 자손

²⁵○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²⁶여라므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²⁷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²⁸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²⁹○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³⁰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³¹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래이다.
³²○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³³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므엘의 자손이다.
³⁴○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³⁵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앗대가 태어났다. ³⁶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³⁷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³⁸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³⁹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⁴⁰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고, 시스매는 살룸을 낳았다. ⁴¹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갈렙의 다른 자손

⁴²○여라므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c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⁴³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⁴⁴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⁴⁵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c아버지이다.(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⁴⁶○갈렘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⁴⁷(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⁴⁸○갈렘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⁴⁹또 맛만나의 c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c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렘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⁵⁰○갈렘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랏여아림의 c아버지 소발과,(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⁵¹베들레헴의 c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c아버지 하렘이다.(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⁵²○기랏여아림의 c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누훗 족의 절반이니,(c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⁵³기랏여아림 족은 이델 족과 붓 족과 수맛 족과 미스라 족이다.(이들에게서 소라 족과 에스다울 족이 나왔다.)

⁵⁴○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과 아다룻벳요압과 마하낫 족의 절반과 소라 족이다.

⁵⁵○(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은 디랏 족과 시므앗 족과 수갓 족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이다.)

다윗 왕의 자녀

1 CHRONICLES 3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²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깃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³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⁴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⁵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a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a 하나의 히브리어 사본과 불가타를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밧수아')

⁶○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⁷노가와 네벅과 야비아와 ⁸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도 ⁹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 왕의 자손

¹⁰○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¹¹그 아들은 b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b 히, '요람'. 히브리 이름 '여호람'과 '요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¹²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¹³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¹⁴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¹⁵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¹⁶여호야김의 아들은 c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c 히, '여고냐'. 히브리 이름 '여호야긴'과 '여고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여호야긴 왕의 자손

17○포로로 잡혀 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18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낏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뱌이다. 19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20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21○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난이요, 그 아들은 오바댜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22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까지 다섯이다. 23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24엘료에내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유다의 자손

1 CHRONICLES 4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2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 족이다. 3○에담의 아들은 a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보니이다.(a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조상은') 4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5○드고야의 아버지 아스홀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6아스홀과 나아라 사이에서는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7아스홀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8○고스는 아눔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을 낳았다. 9○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b야베스라고 불렀다.(b '고통') 10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다른 족보

11○수하의 형제 글롭이 므힐을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12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13○그나스의 아들은 웃니엘과 스라야이며, 웃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c므오노대이다.(c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14므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십의 아버지 요암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15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16○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17○에스라의 아들은 예텔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18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¹⁹○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 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족인 에스드모아이다. ²⁰○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헛과 벤소헛이다.

셀라의 자손

²¹○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예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벳아스 베야에서 고운 베를 짜는 가문과, ²²모압과 야수비네헬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²³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써,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온의 자손

²⁴○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²⁵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밍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²⁶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²⁷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²⁸○시므온 자손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²⁹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³⁰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³¹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³²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다섯 성읍과 ³³d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d 칠십인역에는 '바알랏')
³⁴○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샤의 아들 요사와 ³⁵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야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³⁶그리고 엘료에내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³⁷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 손이다. ³⁸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³⁹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⁴⁰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 족이 살던 곳이었다.
⁴¹○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 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므우님 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e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e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이나 생명. 가지면 안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을 받게끔 저주받은 것. 동사는 '전멸시키다' 또는 '전멸시켜 바치다') ⁴²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랏와 르바야와 웃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⁴³피하여 살아 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르우벤의 자손

1 CHRONICLES 5 이스라엘의 말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말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말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

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에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²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³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⁴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⁵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⁶그 아들은 브에라인데, 브에라는 앓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사로잡혀 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⁷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⁸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르우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므온에까지 자리 잡아 살고, ⁹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족 떼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¹⁰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갓의 자손

¹¹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¹²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아내와 사빳이 바산에 살았다. ¹³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므술람과 세바와 요래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일곱이다. ¹⁴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새의 오대 손이요, 야도의 육대 손이요, 부스의 칠대 손이다. ¹⁵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¹⁶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¹⁷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동쪽 지파의 군대

¹⁸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다. ¹⁹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²⁰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²¹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와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²²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동쪽 므낫세 지파 백성

²³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²⁴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동쪽 지파의 추방

²⁵○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 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²⁶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เบน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 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대제사장의 가계

1 CHRONICLES 6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²○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다.

³○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⁴○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⁵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웃시를 낳고, ⁶웃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웃을 낳고, ⁷므라웃은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고, ⁸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⁹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¹⁰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¹¹아사랴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고, ¹²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¹³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¹⁴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¹⁵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레위의 다른 자손

¹⁶○레위의 아들은 a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며, (a 히, '게르솜', 게르손의 변형) ¹⁷a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립니와 시므이이다. (a 히, '게르솜', 게르손의 변형) ¹⁸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고, ¹⁹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²⁰a게르손에게는 아들 립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핫이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a 히, '게르솜', 게르손의 변형) ²¹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잇도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래이다.

²²○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앗실이고, ²³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앗실이고, ²⁴그 아들은 다핫이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웃시야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²⁵○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새와 아히뫣이다. ²⁶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배이고, 그 아들은 나핫이고, ²⁷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b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b 칠십인역 사본들을 따름. (삼상 1:19, 20에서도))

²⁸○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²⁹○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립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웃사이고, ³⁰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성전 찬양대

³¹○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³²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³³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족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b사무엘의 아들이고,(b 칠십인역 사본들을 따름.(삼상 1:19, 20에서도)) ³⁴b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b 칠십인역 사본들을 따름.(삼상 1:19, 20에서도)) ³⁵도아는 슽의 아들이고, 슽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합의 아들이고, 마합은 아마새의 아들이고, ³⁶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³⁷스바냐는 다합의 아들이고, 다합은 앓실의 아들이고, 앓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³⁸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³⁹○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갸의 아들이고,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⁴⁰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고,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⁴¹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⁴²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⁴³시므이는 야합의 아들이고, 야합은 a게르손의 아들이고, a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a 히, '게르숨', 게르손의 변형)

⁴⁴○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므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⁴⁵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차의 아들이고, 아마차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⁴⁶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⁴⁷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고,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⁴⁸○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의 자손

⁴⁹○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⁵⁰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⁵¹그 아들은 북기이고, 그 아들은 웃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야이고, ⁵²그 아들은 므라웃이고, 그 아들은 아마랴이고, 그 아들은 아히둡이고, ⁵³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레위 사람의 정착지

⁵⁴○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⁵⁵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⁵⁶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⁵⁷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립나와 그 목초지, 앓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⁵⁸

할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⁵⁹아산과 그 목초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⁶⁰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이다. ⁶¹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열 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⁶²○a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a 히, '게르숨', 게르손의 변형) ⁶³므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열두 성읍을 받았다. ⁶⁴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⁶⁵(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⁶⁶○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⁶⁷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⁶⁸욕므암과 그 목초지, 벳호론과 그 목초지, ⁶⁹아알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⁷⁰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⁷¹○a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a 히, '게르숨', 게르손의 변형) ⁷²잇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⁷³라뭇과 그 목초지, 아넬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⁷⁴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⁷⁵후곡과 그 목초지, 르흠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⁷⁶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⁷⁷○므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⁷⁸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건너 동쪽의 르우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⁷⁹그데뭇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⁸⁰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뭇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⁸¹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스엘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잇사갈의 자손

1 CHRONICLES 7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숨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²돌라의 아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이만 이천육백 명이다.

³○웃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잇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⁴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삼만 육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⁵○잇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팔만 칠천 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과 단의 자손

6○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7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다.

8○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내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9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이만 이백 명이다.

10○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다. 11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만 칠천이백 명이다. 12이르의 자손은 습빔과 ?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자손

13○납달리의 아들은 a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의 손자이다.(a 히, '아시엘')

므낏세의 자손

14○므낏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15마길은 ?빔과 습빔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낏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인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다.

16○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겔이다. 17울람의 아들은 브단이다. 이들이 므낏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18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19(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겔과 릅히와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자손

20○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핫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핫이고, 21그 아들은 사밧이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예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22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23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24○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벳호론과 우센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25○브리야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26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훗이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27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28○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겔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29○벧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자손

30○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31○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32○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33○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34○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35○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36○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37**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이다. **38**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39**올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40○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뽕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이만 육천 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1 CHRONICLES 8 베냐민은 말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2**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3○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앓달과 게라와 a아비훗과(a 또는 '에훗의 아버지') **4**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6○에훗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חת으로 사로잡아 간 **7**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 간 게라가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8○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9**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10**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11○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12○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인데, 이 세멧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갓과 아얄론의 베냐민 사람

13○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14**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15**스바द्या와 아랏과 예델과 **16**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브리아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17○스바द्या와 므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18**이스므래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

다.

19○야김과 시그리와 삼디와 **20**엘리에내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21**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22○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23**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25**이브드야와 브누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26○삼스래와 스하랴와 아달라와 **27**야아레스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28○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

29○기브온의 b아버지 c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b 또는 '성읍 지도자' 또는 '군지휘관'을 뜻하기도 함 c 칠십인역 사본들을 따름) **30**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31**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32**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 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 왕의 가족

33○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d에스바알을 낳았다.(d 일명, '이스보셋') **34**요나단의 아들은 e므립바알이며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e 일명, '므비보셋')

35○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36**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윳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37**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38○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39**아셀의 아우 에섹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40○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백오십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1 CHRONICLES 9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2**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3**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4○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5**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6**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육백구십 명이 살았다.

7○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핫스누아의 증손이다. **8**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웃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므술람이 살았다.

9○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구백오십육 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10○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웃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둡의 오대 손이다.

12○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새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 손이다.

13○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써, 그 수는 천칠백육십 명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14○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므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다. **15**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맛다니야가 살았는데, 맛다니야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16**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갸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

17○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18**살룸은 이 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19○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a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a 성전 문을 말함) **20**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21○므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a회막 문의 문지기이다.(a 성전 문을 말함)

22○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이백십이 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23**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 문 곧 a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a 성전 문을 말함) **24**이 문지기들은 동서 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25**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이레씩 그들을 도왔다. **26**레위 사람인 네 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아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27**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

28○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29**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30**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31○레위 사람 맛디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32**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33**○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34○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족보(8:29-38)

35○기브온의 조상 b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b 칠십인 역 사본들을 따름) **36**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37**그돌과 아히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38**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 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39○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40**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며,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41**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42**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웁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43**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44○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사울 왕의 죽음(삼상 31:1-13)

1CHRONICLES **10**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2**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3**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4**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레발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5**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6**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7**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 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 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8○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9**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

을 전하였다. ¹⁰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¹¹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¹²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 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¹³○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¹⁴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삼하 5:1-10)

1 CHRONICLES 1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²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³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⁴○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⁵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⁶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⁷(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⁸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⁹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의 용사들(삼하 23:8-39)

¹⁰○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¹¹○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인데, 그는 a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삼백 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삼십인' 또는 '장교들') ¹²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¹³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¹⁴그는 밭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¹⁵○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삼십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¹⁶그 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

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¹⁷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¹⁸그러자 그 세 용사가 불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¹⁹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나!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²⁰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b**삼십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b**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세 용사') ²¹그는 **b**삼십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삼십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b**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세 용사')

²²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갓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²³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c**다섯 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베를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c** 약 2.3미터) ²⁴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²⁵그는 삼십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²⁶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²⁷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²⁸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²⁹후사 사람 심브개와, 아호아 사람 일래와, ³⁰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³¹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³²가아스 시넛가에 사는 후래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³³바하룸 사람 아스마윳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³⁴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³⁵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³⁶므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³⁷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와, ³⁸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밍할과, ³⁹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⁴⁰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⁴¹헛 사람 우리야와, 알래의 아들 사밧과, ⁴²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르우벤 자손의 족장이며 서른 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⁴³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⁴⁴아스드랏 사람 웃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⁴⁵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⁴⁶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배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⁴⁷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1 CHRONICLES 12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²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릿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쏘

줄 아는 사람들로써,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³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돗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⁴서른 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서른 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⁵엘루새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룸 사람인 스바द्या와, ⁶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잇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과, ⁷그들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द्या이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⁸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⁹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द्या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¹⁰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¹¹여섯째는 앓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¹²여덟째는 요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¹³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내이다.

¹⁴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a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백 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천 명을 거느렸다.(a 또는 '작은 자는 일당 백이요, 큰 자는 일당 천이었다') ¹⁵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 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¹⁶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¹⁷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¹⁸그 때에 삼십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¹⁹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

려보냈기 때문이다. ²⁰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²¹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장관이 되었다. ²²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의 병력 목록

²³○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²⁴○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육천팔백 명이고, ²⁵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칠천백 명이다.

²⁶○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사천육백 명인데, ²⁷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삼천칠백 명이고, ²⁸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스물두 명이다.

²⁹○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삼천 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 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 왔다.)

³⁰○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이만 팔백 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써,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³¹○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만 팔천 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³²○잇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이백 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³³○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오만 명이다.

³⁴○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천 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삼만 칠천 명이다.

³⁵○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이만 팔천육백 명이 나왔다.

³⁶○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사만 명이다.

³⁷○요단 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십이만 명이 나왔다.

³⁸○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³⁹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⁴⁰또 그 근처에 있는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 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 오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다.

언약궤를 옮기다(삼하 6:1-11)

1 CHRONICLES 13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²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갈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³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⁴온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⁵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랴여아림에서 옮겨 오려고,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았다. ⁶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랴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⁷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웃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⁸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⁹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¹⁰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¹¹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a베레스 웃사라고 한다.(a '웃사를 침')

¹²그 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¹³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¹⁴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벧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삼하 5:11-16)

1 CHRONICLES 14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 주게 하였다. ²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³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⁴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⁵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⁶노가와 네벅과 야비아와 ⁷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삼하 5:17-25)

⁸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⁹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¹⁰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¹¹그래서 그가 a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

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a '휩쓸어 버리는 주') **12**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 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13○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14**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15**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16**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17**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언약궤를 옮길 준비

1 CHRONICLES 15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2**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3**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4**다윗이 불러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5**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백이십 명, **6**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이백이십 명, **7a**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백삼십 명, **(a** 히, '게르숨', 게르손의 변형) **8**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이백 명, **9**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여든 명, **10**웃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백십이 명이다.

11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13**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메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4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15**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껴서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16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17**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18**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다. **19**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낫 심벌즈를 치고, **20**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뭇 방식으로 거문고를 타고, **21**맛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22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23**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24**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마새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벧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삼하 6:12-22)

25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벧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26**하나님께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27**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멘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겹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²⁸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²⁹○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 CHRONICLES 16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²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고, ³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⁴○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⁵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 ⁶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⁷그 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감사 찬송(시 105:1-15; 96:1-13; 106:47-48)

⁸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⁹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a전하여라.

(a 또는 '묵상하여라') ¹⁰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¹¹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¹²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¹³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¹⁴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¹⁵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16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17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18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 때에 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21 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22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23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24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25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26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27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28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29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30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31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32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33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 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34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35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36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37○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케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8**오벧에돔과 그의 동료 예순여덟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벧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39○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40**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41**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42**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43○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삼하 7:1-17)

1 CHRONICLES 17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케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2**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3○그러나 바로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4**"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5**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6**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7**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8**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9**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0**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11**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2**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13**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4**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15○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감사 기도(삼하 7:18-29)

16○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집안이 무엇이기예,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

까? **17**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18**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19**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20**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 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1**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 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못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22**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3○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24**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26**그리고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7**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승전 기록(삼하 8:1-18)

1 CHRONICLES 18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2**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3○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4**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 대를 빼앗고, 기마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 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 버렸다.

5○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쳐죽였다. **6**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7**그 때에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다. **8**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놋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9○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0**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

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 왔다. **11**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 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12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13**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14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15**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16**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17**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다윗이 암몬 및 시리아를 치다(삼하 10:1-19)

1 CHRONICLES 19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다윗은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논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3**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하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4○그래서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5**조문 사절이 그 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6○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하논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천 달란트를 보냈다. **7**그래서 그들은 병거 삼만 이천 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8○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9**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10○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11**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12**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13**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14○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5**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¹⁶○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¹⁷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 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¹⁸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¹⁹하닷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의 랍바 점령(삼하 12:26-31)

1 CHRONICLES 20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²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달아 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³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블레셋 거인과 싸우다(삼하 21:15-22)

⁴○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족의 자손 십배를 쳐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⁵○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 자루는 베를 앞다리같이 굽었다.

⁶○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넷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⁷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죽였다.

⁸○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다윗의 인구조사(삼하 24:1-25)

1 CHRONICLES 21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²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³○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이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⁴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⁵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백십만이 있고, 유다에는 사십칠만이 있었다. ⁶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7○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8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9○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10"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11○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12삼 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할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13○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14○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칠만 명이나 쓰러졌다. 15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16○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7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 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18○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19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 곳으로 올라갔다. 20그 때에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21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22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입니다."

23○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땀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24○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 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25그래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26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27○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28**그 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29**그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1 CHRONICLES 22 그 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 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성전 건축 준비

2○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3**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꺾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4**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5**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6○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7**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8**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 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9**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a '평화') **10**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11○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12**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13**네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14**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15**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16**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17○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18**"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 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19**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

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 놓도록 하십시오."

1 CHRONICLES 23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레위 사람의 일

2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모았다. **3** 서른 살이 넘는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삼만 팔천 명이었다. **4** 이 가운데 이만 사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육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5** 사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사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6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7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8**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9**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10**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11** 야합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12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13**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15**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16**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브엘은 족장이다. **17**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바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바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18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19**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므암이다. **20** 웃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잇시야이다.

21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22**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 들었다. **23**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24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스무 살이 넘는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25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26**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뭘 필요가 없다." **27** 다윗의 유언에 따라 스무 살이 넘는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28**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 또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곡식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30**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31**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

다. ³²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제사장이 맡은 일

1 CHRONICLES 24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²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³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⁴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열여섯 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⁵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⁶레위 사람 느다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⁷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⁸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⁹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¹⁰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¹¹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¹²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¹³열셋째는 ?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브압이고, ¹⁴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¹⁵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이고, ¹⁶열아홉째는 브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고, ¹⁷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¹⁸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야이다.

¹⁹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레위 사람 명단

²⁰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²¹르하바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바의 자손인 잇시야와, ²²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합과, ²³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고, ²⁴웃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²⁵미가의 아우 잇시야와, 잇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²⁶므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아시야의 아들인 브노가 있다. ²⁷므라리의 자손 야아시야 가문에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²⁸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²⁹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므엘이 있고, ³⁰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31○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성전 찬양대

1 CHRONICLES 25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2○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3○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4○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북기야와 맛다니야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예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웃이 있다. **5**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6**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7○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이백팔십팔 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8○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9○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a**(그 아들과 형제 **b**열두 명,) 둘째는 그달리야와 그 형제와 아들 열두 명,(**a** 칠십인역을 따름 **b** 7절을 볼 것) **10**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1**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2**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3**여섯째는 북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4**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5**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6**아홉째는 맛다니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7**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8**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19**열두째는 하사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0**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1**열넷째는 맛디디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2**열다섯째는 예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3**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4**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5**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6**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7**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8**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29**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30**스물셋째는 마하시웃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 **31**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 명이 뽑혔다.

성전 문지기

1 CHRONICLES 26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므셀레마와, ²므셀레마의 아들인 말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아드니엘과, ³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내이다.

⁴○오벧에돔의 아들은, 말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⁵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잇사갈과, 여덟째 브울래대이다. 하나님께서 오벧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⁶○오벧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⁷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벧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⁸○이들이 모두 오벧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벧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예순두 명이다.

⁹○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열여덟 명이다.

¹⁰○므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말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¹¹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열세 명이다.

¹²○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¹³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¹⁴셀레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¹⁵오벧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¹⁶습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 가에 있는 살래겟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¹⁷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여섯 사람,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 곳간에는 각각 두 사람씩, ¹⁸서쪽 문의 회랑에 네 사람, 길가의 회랑에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¹⁹이들은 고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성전 관리인

²⁰○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²¹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²²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²³○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의 자손에서는 ²⁴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²⁵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르하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²⁶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²⁷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²⁸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벨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무

29○이스할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30○헤브론 사람 하사바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천칠백 명이 요단 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31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사십 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32그의 친족 이천칠백 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군대와 시민

1 CHRONICLES 27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이만 사천 명씩이다.

2○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삼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3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4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아 사람 도대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5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6바로 이 브나야가 서른 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써 서른 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7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द्या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8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9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0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1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브개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2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3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래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4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15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웃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대이다. 그의 갈래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다.

각 지파의 영도자들

16○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द्या이고, 17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18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잇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19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द्या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20에

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²¹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²²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²³○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무 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²⁴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나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왕실 재산 관리자

²⁵○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뻬트는 왕의 곳간을 맡고, 웃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²⁶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²⁷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삼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였다. ²⁸게델 사람 바알하난은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관리하였다. ²⁹샤론 사람 시드래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 떼를 관리하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 떼를 관리하였다. ³⁰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놏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³¹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개인 고문

³²○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³³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³⁴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1 CHRONICLES 28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²○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³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⁴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⁵또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⁶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

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⁷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 줄 것이다.'

⁸○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⁹○"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¹⁰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¹¹○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¹²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¹³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¹⁴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¹⁵또 금등잔대와 금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 주었다. ¹⁶또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차려 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 주었다. ¹⁷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 주었다. ¹⁸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 주었다. ¹⁹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²⁰○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²¹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성전 건축에 쓸 예물

1 CHRONICLES 29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큼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²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의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³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⁴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정련된 은 칠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⁵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⁶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⁷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와, 동 만 팔천 달란트와, 쇠 십만 달란트를 바쳤다. ⁸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공간에 가져다 바쳤다. ⁹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의 감사 기도

¹⁰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¹¹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¹²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¹³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¹⁴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며,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¹⁵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¹⁶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¹⁷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¹⁸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¹⁹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²⁰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²¹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천 마리와 숫양 천 마리와 어린 양 천 마리와 부어 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²²그 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²³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²⁴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

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²⁵주님께서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 주시고, 그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윗 통치의 요약

²⁶○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²⁷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²⁸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²⁹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³⁰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Footnote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 ([Back](#))

[\[1\]](#) **1:1** Many names in these genealogies are spelled differently in other biblical book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6 ([Back](#))

[\[2\]](#) 1:6 Septuagint; Hebrew *Diphath*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0 ([Back](#))

[\[3\]](#) **1:10** Or *He began to be a mighty man on the earth*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7 ([Back](#))

[\[4\]](#) **1:17** Septuagint; Hebrew lacks *And the sons of Aram*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9 ([Back](#))

[\[5\]](#) **1:19** *Peleg* means *divisi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22 ([Back](#))

[\[6\]](#) **1:22** Septuagint, Syriac (compare Genesis 10:28); Hebrew *Ebal*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6 ([Back](#))

[\[7\]](#) **1:36**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12); Hebrew lacks *and of*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9 ([Back](#))

[\[8\]](#) **1:39**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22); Hebrew *Homam*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0 ([Back](#))

[\[9\]](#) **1:40**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23); Hebrew *Alia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0 ([Back](#))

[\[10\]](#) **1:40**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23); Hebrew *Shephi*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1 ([Back](#))

[\[11\]](#) 1:41 Hebrew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1 ([Back](#))

[\[12\]](#) **1:41**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26); Hebrew *Hamra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2 ([Back](#))

[\[13\]](#) **1:42** Septuagint (compare Genesis 36:27); Hebrew *Jaaka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8 ([Back](#))

[\[14\]](#) 1:48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2:7 ([Back](#))

[\[1\]](#) 2:7 Hebrew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11 ([Back](#))

[\[2\]](#) **2:11** Septuagint (compare Ruth 4:21); Hebrew *Salma*

Footnote from 1 Chronicles 2:24 ([Back](#))

[\[3\]](#) **2:24** Septuagint, Vulgate; Hebrew *in Caleb Ephrathah*

Footnote from 1 Chronicles 2:31 ([Back](#))

[4] 2:31 Hebrew *sons*; three times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 ([Back](#))

[\[5\]](#) 2:42 Septuagint; Hebrew *Mesha*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 ([Back](#))

[\[6\]](#) 2:42 Hebrew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 ([Back](#))

[\[7\]](#) **2:42** Hebrew *the father of Hebr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2:50 ([Back](#))
[8] 2:50 Septuagint, Vulgate; Hebrew *s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3:21 ([Back](#))

[\[1\]](#) **3:21** Septuagint (compare Syriac, Vulgate); Hebrew *sons of*; four times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Chronicles 3:22 ([Back](#))

[\[2\]](#) 3:22 Hebrew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4:3 ([Back](#))

[\[1\]](#) **4:3** Septuagint (compare Vulgate); Hebrew *fath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4:9 ([Back](#))

[\[2\]](#) **4:9** *Jabez* sounds like the Hebrew for *pain*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0 ([Back](#))

[\[3\]](#) 4:10 Or *evil*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3 ([Back](#))

[\[4\]](#) **4:13** Septuagint, Vulgate; Hebrew lacks *Meonothai*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4 ([Back](#))

[\[5\]](#) **4:14** *Ge-harashim* means *valley of craftsmen*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5 ([Back](#))

[\[6\]](#) 4:15 Hebrew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7 ([Back](#))

[\[7\]](#) **4:17** The clause *These are . . . ; married* is transposed from verse 18

Footnote from 1 Chronicles 4:17 ([Back](#))

[\[8\]](#) 4:17 Hebrew lacks *and bore*

Footnote from 1 Chronicles 4:22 ([Back](#))

[\[9\]](#) **4:22** Vulgate (compare Septuagint); Hebrew *and Jashubi-lahem*

Footnote from 1 Chronicles 4:22 ([Back](#))

[\[10\]](#) 4:22 Or *matters*

Footnote from 1 Chronicles 5:6 ([Back](#))

[\[1\]](#) **5:6** Hebrew *Tilgath-pilneser*; also verse 26

Footnote from 1 Chronicles 5:20 ([Back](#))

[\[2\]](#) **5:20** Or *they were helped to prevail*

Footnote from 1 Chronicles 5:24 ([Back](#))

[\[3\]](#) **5:24** Septuagint, Vulgate; Hebrew *and Ephraim*

Footnote from 1 Chronicles 6:1 ([Back](#))

[\[1\]](#) **6:1** Ch 5:27 in Hebrew

Footnote from 1 Chronicles 6:16 ([Back](#))

[\[2\]](#) **6:16** Ch 6:1 in Hebrew

Footnote from 1 Chronicles 6:28 ([Back](#))

[\[3\]](#) **6:28** Septuagint, Syriac (compare verse 33 and 1 Samuel 8:2); Hebrew lacks *Joel*

Footnote from 1 Chronicles 6:28 ([Back](#))

[\[4\]](#) **6:28** Hebrew *and Abijah*

Footnote from 1 Chronicles 6:60 ([Back](#))

[\[5\]](#) **6:60** Septuagint, Syriac (compare Joshua 21:17); Hebrew lacks *Gibe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7:1 ([Back](#))

[\[1\]](#) **7:1** Syriac (compare Vulgate); Hebrew *And to the 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7:3 ([Back](#))

[\[2\]](#) **7:3** Hebrew *sons*; also verses 10, 12, 17

Footnote from 1 Chronicles 7:23 ([Back](#))

[\[3\]](#) **7:23** *Beriah* sounds like the Hebrew for *disast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7:27 ([Back](#))

[\[4\]](#) 7:27 Hebrew *N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8:7 ([Back](#))

[\[1\]](#) **8:7** Hebrew *and Naaman*

Footnote from 1 Chronicles 8:7 ([Back](#))

[\[2\]](#) 8:7 Or *he carried them into exile*

Footnote from 1 Chronicles 8:29 ([Back](#))

[\[3\]](#) **8:29** Compare 9:35; Hebrew lacks *Jeiel*

Footnote from 1 Chronicles 9:41 ([Back](#))

[\[1\]](#) **9:41** Compare 8:35; Hebrew lacks *and Ahaz*

Footnote from 1 Chronicles 10:7 ([Back](#))

[\[1\]](#) 10:7 Hebrew *they*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11 ([Back](#))

[\[1\]](#) **11:11** Compare 2 Samuel 23:8; Hebrew *thirty*, or *captai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14 ([Back](#))

[\[2\]](#) **11:14** Compare 2 Samuel 23:12; Hebrew *they . . . ; their*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0 ([Back](#))

[\[3\]](#) **11:20** Syriac; Hebrew *three*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1 ([Back](#))

[\[4\]](#) **11:21** Compare 2 Samuel 23:19; Hebrew *more renowned among the two*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1 ([Back](#))

[\[5\]](#) **11:21** Syriac; Hebrew *three*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2 ([Back](#))

[\[6\]](#) **11:22** Syriac; Hebrew *the son of a valiant ma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3 ([Back](#))

[\[7\]](#) **11:2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27 ([Back](#))

[\[8\]](#) **11:27** Compare 2 Samuel 23:25; Hebrew *the Harorite*

Footnote from 1 Chronicles 11:34 ([Back](#))

[\[9\]](#) **11:34** Compare Septuagint and 2 Samuel 23:32; Hebrew *the sons of Hashem*

Footnote from 1 Chronicles 12:4 ([Back](#))

[\[1\]](#) 12:4 Hebrew verse 5

Footnote from 1 Chronicles 12:5 ([Back](#))

[\[2\]](#) **12:5** Hebrew verse 6

Footnote from 1 Chronicles 12:33 ([Back](#))

[\[3\]](#) **12:33** Septuagint; Hebrew lacks *David*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3 ([Back](#))

[\[1\]](#) 13:3 Or *him*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5 ([Back](#))

[\[2\]](#) **13:5** Hebrew *Shihor*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7 ([Back](#))

[\[3\]](#) **13:7** Or *and his broth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13:11 ([Back](#))

[\[4\]](#) **13:11** *Perez-uzza* means *the breaking out against Uzzah*

Footnote from 1 Chronicles 14:11 ([Back](#))

[\[1\]](#) **14:11** *Baal-perazim* means *Lord of breaking through*

Footnote from 1 Chronicles 15:1 ([Back](#))

[\[1\]](#) 15:1 Hebrew *He*

Footnote from 1 Chronicles 16:3 ([Back](#))

[\[1\]](#) **16:3** Compare Septuagint, Syriac,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6:29 ([Back](#))

[\[2\]](#) 16:29 Or *in holy attire*

Footnote from 1 Chronicles 16:38 ([Back](#))

[\[3\]](#) **16:38** Hebrew *their*

Footnote from 1 Chronicles 17:17 ([Back](#))

[\[1\]](#) **17:17**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Chronicles 17:21 ([Back](#))

[\[2\]](#) 17:21 Septuagint, Vulgate *oth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18:3 ([Back](#))

[\[1\]](#) 18:3 Hebrew *hand*

Footnote from 1 Chronicles 18:6 ([Back](#))

[\[2\]](#) **18:6** Septuagint, Vulgate, 2 Samuel 8:6 (compare Syriac); Hebrew lacks *garrison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8:6 ([Back](#))

[\[3\]](#) **18:6** Hebrew *the LORD saved David*; also verse 13

Footnote from 1 Chronicles 19:6 ([Back](#))

[\[1\]](#) **19:6**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19:16 ([Back](#))

[2] 19:16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20:2 ([Back](#))

[\[1\]](#) **20:2**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0:3 ([Back](#))

[\[2\]](#) **20:3** Compare 2 Samuel 12:31; Hebrew *he sawed*

Footnote from 1 Chronicles 20:3 ([Back](#))

[\[3\]](#) **20:3** Compare 2 Samuel 12:31; Hebrew *saw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1:25 ([Back](#))

[\[1\]](#) **21:2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1:26 ([Back](#))

[\[2\]](#) **21:26** Hebrew *h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2:14 ([Back](#))

[\[1\]](#) **22:1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3:2 ([Back](#))

[\[1\]](#) 23:2 Hebrew *H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3:4 ([Back](#))

[\[2\]](#) 23:4 Hebrew lacks *David said*

Footnote from 1 Chronicles 23:7 ([Back](#))

[\[3\]](#) **23:7** Vulgate (compare Septuagint, Syriac); Hebrew *to the Gershonit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3 ([Back](#))

[\[1\]](#) **24:23** Compare 23:19; Hebrew lacks *Hebr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3 ([Back](#))

[\[2\]](#) **24:23** Compare 23:19; Hebrew lacks *the chief*

Footnote from 1 Chronicles 24:26 ([Back](#))

[\[3\]](#) **24:26** Or *his son*; also verse 27

Footnote from 1 Chronicles 25:3 ([Back](#))

[\[1\]](#) **25:3**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lack *Shimei*

Footnote from 1 Chronicles 26:17 ([Back](#))

[\[1\]](#) **26:17** Septuagint; Hebrew *six Levite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6:18 ([Back](#))

[\[2\]](#) **26:18** Or *court*; Hebrew *parbar* (meaning unknow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6:21 ([Back](#))

[\[3\]](#) **26:21** The Hebrew of verse 21 is uncertain

Footnote from 1 Chronicles 26:28 ([Back](#))

[4] 26:28 Hebrew *Shelomith*

Footnote from 1 Chronicles 27:4 ([Back](#))

[\[1\]](#) **27:4** Septuagint; Hebrew *Ahohite and his division and Mikloth the chief officer*

Footnote from 1 Chronicles 27:6 ([Back](#))

[\[2\]](#) **27:6** Septuagint, Vulgate; Hebrew *was his division*

Footnote from 1 Chronicles 28:11 ([Back](#))

[1] 28:11 Hebrew lacks *of the temple*

Footnote from 1 Chronicles 29:4 ([Back](#))

[\[1\]](#) **29:4**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9:4 ([Back](#))

[\[2\]](#) **29:4** Septuagint; Hebrew *house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9:5 ([Back](#))

[3] 29:5 Or *ordaining himself*; Hebrew *filling his hand*

Footnote from 1 Chronicles 29:7 ([Back](#))

[4] 29:7 A *daric* was a coin weighing about 1/4 ounce or 8.5 grams

Footnote from 1 Chronicles 29:15 ([Back](#))

[\[5\]](#) **29:15** Septuagint, Vulgate; Hebrew *hope*, or *prospect*

역대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 [2 Chronicles 1](#) • [2 Chronicles 2](#) • [2 Chronicles 3](#) • [2 Chronicles 4](#) • [2 Chronicles 5](#)
- [2 Chronicles 6](#) • [2 Chronicles 7](#) • [2 Chronicles 8](#) • [2 Chronicles 9](#) • [2 Chronicles 10](#)
- [2 Chronicles 11](#) • [2 Chronicles 12](#) • [2 Chronicles 13](#) • [2 Chronicles 14](#) • [2 Chronicles 15](#)
- [2 Chronicles 16](#) • [2 Chronicles 17](#) • [2 Chronicles 18](#) • [2 Chronicles 19](#) • [2 Chronicles 20](#)
- [2 Chronicles 21](#) • [2 Chronicles 22](#) • [2 Chronicles 23](#) • [2 Chronicles 24](#) • [2 Chronicles 25](#)
- [2 Chronicles 26](#) • [2 Chronicles 27](#) • [2 Chronicles 28](#) • [2 Chronicles 29](#) • [2 Chronicles 30](#)
- [2 Chronicles 31](#) • [2 Chronicles 32](#) • [2 Chronicles 33](#) • [2 Chronicles 34](#) • [2 Chronicles 35](#)
- [2 Chronicles 36](#)

역대지하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왕상 3:1-15)

2 CHRONICLES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2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3**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4**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랴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5** 다만 흙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6**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7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8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쭙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9**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10**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12**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왕상 10:26-29)

13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4**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천사백 대, 기병이 만 이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15**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a세펠라 평원 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a 바다와 산 사이의 경사진 평지) **16**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에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에에서 사들였다. **17**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고, 말 한 필에 백오십 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왕상 5:1-18)

2 CHRONICLES 2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2**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칠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팔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삼천 육백 명을 뽑았다.

³○솔로몬은 또 두로의 a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a 히, '후람') ⁴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⁵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⁶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⁷이제 임금님께서, 금은과 놋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 둔 사람들입니다. ⁸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⁹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재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¹⁰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이만 섬, 보리 이만 섬, 포도주 이만 말, 기름 이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¹¹○두로의 a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a 히, '후람') ¹²a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a 히, '후람') ¹³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b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b 히, '후람아비') ¹⁴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놋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 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¹⁵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¹⁶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옴바까지 띄워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성전 건축 시작(왕상 6:1-38)

¹⁷○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었다. ¹⁸그 가운데서 칠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팔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삼천육백 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2 CHRONICLES 3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 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 곳을 성전 터로 잡아놓았다. ²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사 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튿날이었다. ³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

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예순 자, 너비가 스무 자이다. ⁴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높이는 a백스무 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a 시리아어역과 몇몇 칠십인역에는 '스무 자') ⁵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⁶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어온 금이다. ⁷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⁸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너비도 스무 자이다. 육백 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⁹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오십 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¹⁰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¹¹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 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¹²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¹³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 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¹⁴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베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두 놋쇠 기둥(왕상 7:15-22)

¹⁵성전 앞에는 높이 서른다섯 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다섯 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다. ¹⁶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백 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¹⁷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b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c보아스라고 불렀다.(b '그(하나님)가 세우다' c '그(하나님)의 힘으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왕상 7:23-51)

2 CHRONICLES 4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가 스무 자이고, 높이가 열 자이다. ²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³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⁴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⁵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삼천 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⁶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⁷그는 또 금등잔대 열 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⁸그는 또 상 열 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

것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백 개를 만들었다.

9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낫쇠를 입혔다. 10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11 후람은 또 솔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12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돌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두 개와, 13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사백 개를 만들었다. 14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15 바다 모양 물통 한 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열두 개와, 16 솔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a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 나는 낫쇠로 만든 것들이었다.(a 히, '후람아비')

17 왕은 이 기구들을, 숙곳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18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낫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19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 놓는 상들과, 20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 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21 순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22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손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귀,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2 CHRONICLES 5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왕상 8:1-9)

2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3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4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5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6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7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8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9 궤에서 뻗어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 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10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주님의 영광

11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과 그들의 아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도 함께 서 있었다.) **13**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즈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14**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왕상 8:12-21)

2 CHRONICLES 6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3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4** 그는 말하였다.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6**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7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8**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9**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0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1**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왕상 8:22-53)

12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13** 솔로몬이 일찍이 낫쇠로, 길이 다섯 자, 너비 다섯 자, 높이 석 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14** 이렇게 기도하였다.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5**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16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18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19**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0**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 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1**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22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23**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24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6**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27**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28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29**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30**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31**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32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 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33**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 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4○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 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35**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36○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37**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38**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39**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40○나의 하나님, 이 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41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42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전 봉헌(왕상 8:62-66)

2 CHRONICLES 7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2**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3**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4**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5**솔로몬 왕은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6**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

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7○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8○그 때에 또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9 첫 이레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10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a일곱째 달 이십삼 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a 에다님월, 양력 구월 중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왕상 9:1-9)

11○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12그 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13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염병이 돌게 할 때에, 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5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들겠다. 16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곳에 있을 것이다. 17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18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19그러나 b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b 여기서부터는 '너'가 아니라 '너희') 20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21○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22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의 업적(왕상 9:10-28)

2 CHRONICLES 8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스무 해가 걸렸다. 2 곧 이어 솔로몬은 a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

다.(a 히, '후람') ³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⁴그는 또 광야에 다드 물을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⁵또 윗 벧호론과 아랫 벧호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 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⁶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⁷○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 남은 백성이 있었다. ⁸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 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⁹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¹⁰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이백오십 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¹¹○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¹²○그 때에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¹³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세 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¹⁴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¹⁵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¹⁶○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¹⁷○그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¹⁸a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a 히, '후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왕상 10:1-13)

2 CHRONICLES ⁹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 보았다. ²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³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⁴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⁵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⁶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⁷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⁸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을 좋아하셔서 임금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⁹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백이십 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 본 일이 없다. ¹⁰(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 왔다. ¹¹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¹²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 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왕상 10:14-25)

¹³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나 되었다. ¹⁴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¹⁵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이백 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¹⁶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삼백 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¹⁷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곁에 순금을 입혔다. ¹⁸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여섯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 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¹⁹여섯 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여섯 개씩 열두 개의 사자 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²⁰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²¹왕의 배들은 a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세 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실어 오곤 하였다.(a 히, '후람')

²²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²³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²⁴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²⁵○병거 끄는 말을 매어 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천 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만 이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²⁶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²⁷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²⁸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통치 개요(왕상 11:41-43)

²⁹○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잇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³⁰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³¹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쪽 지파의 반란(왕상 12:1-20)

2 CHRONICLES 10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²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³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⁴"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⁵○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⁶○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⁷○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⁸○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⁹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 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¹⁰○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¹¹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¹²○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¹³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

었다. **14**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족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15○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6○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17**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18○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a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a 아도니람의 변형) **19**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스마야의 예언(왕상 12:21-24)

2 CHRONICLES 11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십팔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2○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3**"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4**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이 요새를 만들다

5○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6**베들레헬과 에담과 드고아와 **7**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가드와 마레사와 심과 **9**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11**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12**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오다

¹³○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¹⁴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¹⁵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숯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¹⁶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¹⁷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삼 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삼 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¹⁸○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¹⁹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 태어났다. ²⁰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잇대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²¹르호보암은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육십 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²²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²³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대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

이집트의 유다 침략(왕상 14:25-28)

2 CHRONICLES 12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a**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a 남왕국 유다를 가리킴. 대하에서는 자주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함) ²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오 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³그는 병거 천이백 대, 기병 육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슁과 **b**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 왔다.(b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⁴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⁵○그 때에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⁶○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⁷○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⁸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9○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 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 갔다. 10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11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 오곤 하였다. 12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르호보암의 통치 개요

13○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마흔한 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다. 14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15○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잇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16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왕상 15:1-8)

[2 CHRONICLES 13](#)여로보암 왕 십팔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2그는 예루살렘에서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a딸, b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a 또는 '손녀'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마아가'(대하 11:20; 왕상 15:2을 볼 것)) 3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사십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팔십만을 뽑아서 맞섰다.

4○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5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6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7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 때에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 낼 힘이 없었다. 8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 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말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9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숫양 일곱 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10○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1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고, 금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12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13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 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14** 유다 군이 둘러 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15** 유다 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16** 이스라엘 군이 유다 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17** 아비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 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오십만 명이나 되었다. **18**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19 아비아는 여로보암을 뒤쫓아 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20** 여로보암은 아비아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21 그러나 아비아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열넷을 두었으며,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다. **22** 아비아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잇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사의 통치

2 CHRONICLES 14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십 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2**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3**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4**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5**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6**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7**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 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8**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삼십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이십팔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9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a** 백만 대군에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a** 많은 군대를 뜻함. 히, '천천만만') **10**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11**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12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13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유다 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14**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 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 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15**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사의 개혁

2 CHRONICLES 15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2**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 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4**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5** 그 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6**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8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a**오렛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a**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오렛 예언자의 예언')

9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10**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십오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11** 그 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 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12**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13**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14**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소리로 맹세하였다. **15**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16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7**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18**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

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¹⁹이 때부터 아사 왕 삼십오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의 충돌(왕상 15:17-22)

2 CHRONICLES 16 아사 왕 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²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³"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⁴○벤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a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a 또는 '아벨벳마아가') ⁵바아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⁶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 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선견자 하나니

⁷○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⁸b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b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⁹주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¹⁰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 때에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통치가 끝나다(왕상 15:23-24)

¹¹○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¹²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¹³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사십일 년이 되던 해였다. ¹⁴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 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 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

2 CHRONICLES 17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²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

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³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 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⁴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⁵주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⁶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렸다.

⁷그는 왕이 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⁸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냐,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⁹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사밧의 위대성

¹⁰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¹¹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바쳤다. ¹²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¹³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¹⁴가문별로 병적에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고, ¹⁵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고, ¹⁶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이십만 명을 거느렸다. ¹⁷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¹⁸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십팔만을 거느렸다. ¹⁹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예언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왕상 22:1-28)

2 CHRONICLES 18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2**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3**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4**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5**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사백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6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 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 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8**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 오너라."

9 그 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 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10**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11**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2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13**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14**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5**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 하겠소?"

16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 서 있는데, **19** 주님께서 물으심니

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꺾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²⁰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꺾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꺾어내겠느냐?' ²¹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꺾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²²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²³○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빵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²⁴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 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²⁵○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²⁶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²⁷○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 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아합의 죽음(왕상 22:29-35)

²⁸○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²⁹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³⁰○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십시오." ³¹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³²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³³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 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³⁴그러나 그 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거름에 죽고 말았다.

한 예언자가 여호사밧을 규탄하다

2 CHRONICLES 19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²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a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a 또는 '사랑하는 것이') ³그러나 임금님께

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의 개혁

4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5**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6**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7**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8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9**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10**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11**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오.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에돔과의 전쟁

2 CHRONICLES 20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2**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a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 왔습니다." (a 한 히브리어 사본에서만 '에돔',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에는 '아람') **3**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4**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5**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6**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7**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8**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9**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 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10○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11**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앙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12**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13○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14**그 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맛다니야이다. **15**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6**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18○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0○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21**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22○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23**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죽였다. **24**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덮여져 있었다.

25○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b**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b** 불가타와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시체') **26**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c**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c** '찬양') **27**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²⁸사람들은 거문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²⁹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³⁰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나다(왕상 22:41-50)

³¹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서른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³²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 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³³산당만은 헐어 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³⁴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³⁵한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야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³⁶아하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예시온게벨이었다. ³⁷그 때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2 CHRONICLES 21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람(왕하 8:17-24)

²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댜는, 모두 a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a 남왕국 유다를 가리킴. 대하에서는 자주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함) ³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⁴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죽였다.

⁵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⁶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⁷그러나 주님께서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⁸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⁹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 나왔다. ¹⁰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립나 성읍이 반란을 일

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11**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12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다 왕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13**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걸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네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14** 이제 나 주가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15**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 나올 것이다.'"

16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17**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 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 갔다. 막내 아들 바아하시야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 두지 않았다.(b 여호아하스의 변형)

18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주님께에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19**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 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으레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20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유다 왕 아하시야(왕하 8:25-29; 9:21-28)

2 CHRONICLES 22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 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2**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a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오므리의 손녀이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왕하 8:26) 히, '마흔두 살') **3**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4**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5**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바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b 여호람의 변형) **6** 바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c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갔다. 그 때에 아합의 아들 바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d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르엘로 내려갔다.(b 여호람의 변형 c 또는 '라못 d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왕하 8:29) 히, '아사랴')

7 아하시야는 바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에서 아합 왕가를 멸망

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b 여호람의 변형) ⁸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⁹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 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다의 여왕 아달랴(왕하 11:1-3)

¹⁰○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¹¹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e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e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e 히, '여호사브앗'. 히브리 이름 '여호세바'와 '여호사브앗'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¹²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달랴에 대한 반란(왕하 11:4-16)

2 CHRONICLES 23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밀약을 맺었다. ²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³○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 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⁴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삼분의 일은 성전 문을 지키고, ⁵또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로 모입니다. ⁶그 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밖의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⁷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⁸○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⁹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¹⁰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¹¹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

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¹²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 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¹³보니, 왕이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¹⁴○그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 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 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¹⁵○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말의 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의 개혁(왕하 11:17-20)

¹⁶○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¹⁷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맛단 제사장을 죽였다. ¹⁸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¹⁹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²⁰○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²¹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유다 왕 요아스(왕하 12:1-16)

2 CHRONICLES 24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²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³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⁴○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⁵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십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⁶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베²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⁷○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⁸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⁹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¹⁰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¹¹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¹²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 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놋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¹³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¹⁴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 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손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¹⁵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햇수는 백삼십 년이었다. ¹⁶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¹⁷○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¹⁸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¹⁹주님께서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²⁰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²¹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애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죽였다. ²²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 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요아스의 통치가 끝남

²³○a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a 아마도 봄) ²⁴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²⁵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 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²⁶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²⁷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마샤(왕하 14:2-6)

2 CHRONICLES 25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은 예루살렘 사람이다. ²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³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⁴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에돔과의 전쟁(왕하 14:7)

⁵○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삼십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⁶이 밖에도 그는 은 백 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십만 명을 고용하였다. ⁷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⁸그런데도 임금님께서서 북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었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⁹○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 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백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¹⁰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¹¹○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 ¹²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만 명을 산 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¹³○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삼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¹⁴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 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¹⁵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16○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왕하 14:8-20)

17○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18**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머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19**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20○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21**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22**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23**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사백 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a 히, '여호아하스'. 히브리 이름 '아하시야'와 '여호아하스'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음) **24**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벧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불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5○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26**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7**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28**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유다 왕 웃시야(왕하 14:21-22; 15:1-7)

2 CHRONICLES 26유다의 온 백성은 웃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열여섯 살이었다. **2**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웃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3○웃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열여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4**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5**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라가 있었는데, 스가라가 살아있는 동안, 웃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6웃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7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8암몬 사람이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웃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9웃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 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10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 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11웃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12그 군대에는 이천육백 명의 장교가 있고, 13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14웃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릿매로 무장시켰다. 15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웃시야가 벌을 받다

16웃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17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18웃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웃시야 임금님께서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9웃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a 히브리어에서는 여러가지 악성 피부병을 일컫는 말임) 20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 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웃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21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22웃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23웃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담(왕하 15:32-38)

2 CHRONICLES 27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²그는 아버지 웃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³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⁴유다의 산간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⁵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석과 보리 만 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삼 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⁶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⁷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⁸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⁹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하스(왕하 16:1-4)

2 CHRONICLES 28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²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난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³'히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⁴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왕하 16:5)

⁵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⁶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십이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⁷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궁내대신과 엘가나 총리대신을 죽였다. ⁸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 갔다.

예언자 오벧

⁹사마리아에 오벧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¹⁰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11**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 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12○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13**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이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14**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15**사람들이 위의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 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아하스가 앓시리아에 구원을 요청함(왕하 16:7-9)

16○한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앓시리아의 a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a 한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왕하 16:17)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왕들') **17**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18**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벳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딘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19**b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b 남왕국 유다를 가리킴. 대하에서는 자주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함) **20**앓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 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21**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앓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하스의 죄

22○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23**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24**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고, **25**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 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26○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7**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왕하 18:1-3)

2 CHRONICLES 29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2**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성전 정화

3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4**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5**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6**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7**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8**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오. **9**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10**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11**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12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새의 아들 마합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므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13**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맛다니야가 나왔고, **14**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웃시엘이 나왔다.

15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16**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17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레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십육일에 일을 다 마쳤다.

성전 재봉헌

18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19**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20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21**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22**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23**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24**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5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26**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27**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28**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가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29**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앞드려 경배하였다. **30**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31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 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32** 회중이 가져 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칠십 마리, 숫양이 백 마리, 어린 양이 이백 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33**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육백 마리, 양이 삼천 마리였다. **34**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35**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36**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유월절 준비

2 CHRONICLES 30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갈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2**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3**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

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⁴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⁵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⁶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 있는 백성들, 곧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 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⁷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⁸당신들은 목이 굳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⁹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 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¹⁰○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¹¹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¹²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다

¹³○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¹⁴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 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¹⁵둘째 달 열나흘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 왔다. ¹⁶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 준 피를 받아 뿌렸다. ¹⁷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¹⁸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¹⁹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²⁰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²¹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²²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두 번째 축제

○이렇게 이레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²³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²⁴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²⁵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²⁶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²⁷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2 CHRONICLES 31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 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앴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²○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³왕도 자기의 가축 떼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⁴○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 오게 하였다. ⁵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 왔고,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 왔다. ⁶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 왔다. 이렇게 가져 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⁷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⁸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⁹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¹⁰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¹¹○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¹²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¹³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합과 아사헬과 예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합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열 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¹⁴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

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¹⁵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¹⁶세 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¹⁷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¹⁸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¹⁹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²⁰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²¹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앗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왕하 18:13-37; 19:14-19, 35-37; 사 36:1-22; 37:8-38)

2 CHRONICLES 32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²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³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⁴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 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앗시리아의 a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왕') ⁵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⁶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모으고, 격려했다. ⁷"군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앗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앗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⁸앗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⁹얼마 뒤에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¹⁰"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¹¹히스기야가 너희를 꺾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¹²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¹³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느냐? ¹⁴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¹⁵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 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¹⁶○산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¹⁷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¹⁸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¹⁹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²⁰○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²¹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앗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 버리셨다. 앗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²²○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²³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 왔다. 그 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왕하 20:1-3, 12-19; 사 38:1-3; 39:1-8)

²⁴○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 주셨다. ²⁵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²⁶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서는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의 부귀영화

²⁷○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²⁸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 떼를 먹였다. ²⁹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 떼와 많은 소 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³⁰위쪽 기혼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 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³¹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의 통치가 끝나다(왕하 20:20-21)

³²○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³³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므낫세(왕하 21:1-9)

2 CHRONICLES 33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열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²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³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⁴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⁵주님의 성전 안팎 두 뚝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⁶아들들을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a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a 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⁷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⁸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⁹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꺾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므낫세가 회개하다

¹⁰○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¹¹앗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 갔다. ¹²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¹³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 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¹⁴○이런 일이 있는 뒤에, 므낫세는 '다윗 성' 밖, '기훈 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¹⁵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¹⁶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¹⁷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낏세의 통치가 끝나다(왕하 21:17-18)

18○므낏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b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b 남왕국 유다를 가리킴. 대하에서는 자주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함) **19**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 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새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20**므낏세가 죽어서 그의 못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몬(왕하 21:19-26)

21○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22**그는 아버지 므낏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낏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23**그의 아버지 므낏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24○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25**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유다 왕 요시야(왕하 22:1-2)

2 CHRONICLES 34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한 해 동안 다스렸다. **2**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꺾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종교 개혁의 첫 단계

3○요시야는 왕이 된 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십이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4**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뿔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6**그는 같은 일을, 므낏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7**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뿔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율법서의 발견(왕하 22:3-20)

⁸○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열여덟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⁹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 둔 것이었다. ¹⁰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¹¹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¹²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हत과 오바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솔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¹³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¹⁴○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¹⁵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¹⁶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¹⁷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¹⁸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¹⁹○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²⁰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²¹"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 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쭙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²²○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홀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한의 아들이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홀다는 예루살렘의 제 이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²³홀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 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²⁴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²⁵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²⁶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쭙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²⁷내가 이 곳과 이 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²⁸그

러므로 이 곳과 이 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하다(왕하 23:1-20)

29○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았다. **30**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 주도록 하였다. **31**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32**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33**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왕하 23:21-23)

2 CHRONICLES 35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십사일 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2**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3**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4**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 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6**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7○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때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8**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내놓았다. **9**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오천 마리와 소 오백 마리를 내놓았다.

10○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11**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12**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

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13**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솔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14**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뭇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뭇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15**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뭇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16**이와 같이, 그 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17**그 때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18**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 본 왕이 없었다. **19**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열여덟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요시야의 통치가 끝나다(왕하 23:28-30)

20○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21**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22**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23○그 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 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24**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25○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26○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27**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여호아하스(왕하 23:30-35)

2 CHRONICLES 36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²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세 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³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⁴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유다 왕 여호야김(왕하 23:36-24:7)

⁵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⁶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⁷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 다 들여놓았다. ⁸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야긴(왕하 24:8-17)

⁹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a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열여덟 살'(왕하 24:8)) ¹⁰그 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 갔으며, 여호야긴의 b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b 히, '형제'(왕하 24:17))

유다 왕 시드기야(왕하 24:18-20; 렘 52:1-3상)

¹¹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¹²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함락(왕하 25:1-21; 렘 52:3하-11)

¹³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¹⁴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¹⁵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¹⁶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17○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18**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 갔다. **19**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20**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21**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고레스의 귀국 명령(라 1:1-4)

22○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23○"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Footnotes

Footnote from 2 Chronicles 1:5 ([Back](#))

[\[1\]](#) 1:5 Or *him*

Footnote from 2 Chronicles 1:13 ([Back](#))

[\[2\]](#) **1:13** Septuagint, Vulgate; Hebrew *to*

Footnote from 2 Chronicles 1:17 ([Back](#))

[\[3\]](#) **1:17**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1 ([Back](#))

[\[1\]](#) **2:1** Ch 1:18 in Hebrew

Footnote from 2 Chronicles 2:2 ([Back](#))

[\[2\]](#) **2:2** Ch 2:1 in Hebrew

Footnote from 2 Chronicles 2:10 ([Back](#))

[\[3\]](#) **2:10**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10 ([Back](#))

[\[4\]](#) **2:10**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1 ([Back](#))
[1] 3:1 Septuagint; Hebrew lacks *the LORD*

Footnote from 2 Chronicles 3:3 ([Back](#))

[\[2\]](#) **3:3** Syriac; Hebrew *foundation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3 ([Back](#))

[\[3\]](#) **3: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4 ([Back](#))

[\[4\]](#) **3:4** Compare 1 Kings 6:3;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Chronicles 3:8 ([Back](#))

[\[5\]](#) **3:8**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9 ([Back](#))

[\[6\]](#) **3:9**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10 ([Back](#))

[\[7\]](#) **3:10** Septuagint;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Chronicles 3:10 ([Back](#))

[\[8\]](#) **3:10** Hebrew *they overlaid*

Footnote from 2 Chronicles 3:13 ([Back](#))

[\[9\]](#) 3:13 Hebrew *they*

Footnote from 2 Chronicles 3:16 ([Back](#))

[\[10\]](#) **3:16** Hebrew *chains in the inner sanctuary*

Footnote from 2 Chronicles 4:1 ([Back](#))

[\[1\]](#) **4: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4:3 ([Back](#))

[\[2\]](#) **4:3** Compare 1 Kings 7:24; Hebrew *oxe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Chronicles 4:5 ([Back](#))

[\[3\]](#) **4:5**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4:5 ([Back](#))

[\[4\]](#) **4:5**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4:17 ([Back](#))

[\[5\]](#) 4:17 Spelled *Zarethan* in 1 Kings 7:46

Footnote from 2 Chronicles 4:22 ([Back](#))

[\[6\]](#) **4:22** Compare 1 Kings 7:50; Hebrew *the entrance of the house*

Footnote from 2 Chronicles 5:9 ([Back](#))

[\[1\]](#) **5:9** Hebrew *it is*

Footnote from 2 Chronicles 6:13 ([Back](#))

[\[1\]](#) **6:1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6:26 ([Back](#))

[\[2\]](#) **6:26** Septuagint, Vulgate; Hebrew *answer*

Footnote from 2 Chronicles 6:27 ([Back](#))

[\[3\]](#) **6:27** Septuagint, Syriac, Vulgate (compare 1 Kings 8:36); Hebrew *toward the good way*

Footnote from 2 Chronicles 7:6 ([Back](#))

[\[1\]](#) 7:6 Hebrew *by their hand*

Footnote from 2 Chronicles 7:19 ([Back](#))

[\[2\]](#) **7:19**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2 Chronicles 7:20 ([Back](#))

[\[3\]](#) 7:20 Hebrew *them*;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Chronicles 8:16 ([Back](#))

[\[1\]](#) **8:16**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to*

Footnote from 2 Chronicles 8:18 ([Back](#))

[\[2\]](#) 8:18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9:6 ([Back](#))

[\[1\]](#) 9:6 Hebrew *their*

Footnote from 2 Chronicles 9:7 ([Back](#))

[\[2\]](#) **9:7** Septuagint (compare 1 Kings 10:8); Hebrew *men*

Footnote from 2 Chronicles 9:9 ([Back](#))

[\[3\]](#) **9:9**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9:15 ([Back](#))

[4] 9:1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9:21 ([Back](#))

[\[5\]](#) **9:21** Or *baboons*

Footnote from 2 Chronicles 9:26 ([Back](#))

[\[6\]](#) **9:26**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2 Chronicles 10:6 ([Back](#))

[\[1\]](#) **10:6** Or *the elders*; also verses 8, 13

Footnote from 2 Chronicles 10:18 ([Back](#))
[2] 10:18 Spelled *Adoram* in 1 Kings 12:18

Footnote from 2 Chronicles 11:23 ([Back](#))

[\[1\]](#) **11:23** Hebrew *and sought a multitude of wives*

Footnote from 2 Chronicles 12:12 ([Back](#))

[\[1\]](#) **12:12** Hebrew *good things were found*

Footnote from 2 Chronicles 12:15 ([Back](#))

[\[2\]](#) **12:15** After *seer*, Hebrew adds *according to genealogy*

Footnote from 2 Chronicles 12:16 ([Back](#))
[3] 12:16 Spelled *Abijam* in 1 Kings 14:31

Footnote from 2 Chronicles 13:2 ([Back](#))

[\[1\]](#) **13:2** Spelled *Maacah* in 1 Kings 15:2

Footnote from 2 Chronicles 13:7 ([Back](#))

[\[2\]](#) 13:7 Hebrew *soft of heart*

Footnote from 2 Chronicles 13:9 ([Back](#))

[\[3\]](#) 13:9 Hebrew *to fill his hand*

Footnote from 2 Chronicles 13:13 ([Back](#))

[\[4\]](#) **13:13** Hebrew *they*

Footnote from 2 Chronicles 13:19 ([Back](#))

[\[5\]](#) 13:19 Or *Ephrain*

Footnote from 2 Chronicles 14:1 ([Back](#))

[\[1\]](#) **14:1** Ch 13:23 in Hebrew

Footnote from 2 Chronicles 14:2 ([Back](#))

[\[2\]](#) **14:2** Ch 14:1 in Hebrew

Footnote from 2 Chronicles 14:13 ([Back](#))

[\[3\]](#) **14:13** Hebrew *They*

Footnote from 2 Chronicles 15:8 ([Back](#))

[\[1\]](#) **15:8** Hebrew *the vestibule of the LORD*

Footnote from 2 Chronicles 16:3 ([Back](#))

[\[1\]](#) **16:3** Or *treaty*;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Chronicles 16:9 ([Back](#))

[\[2\]](#) 16:9 Or *whole*

Footnote from 2 Chronicles 18:33 ([Back](#))

[\[1\]](#) **18:33** Hebrew *in his innocence*

Footnote from 2 Chronicles 19:11 ([Back](#))

[\[1\]](#) 19:11 Hebrew *the good*

Footnote from 2 Chronicles 20:1 ([Back](#))

[\[1\]](#) **20:1** Compare 26:7; Hebrew *Ammonite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0:2 ([Back](#))

[\[2\]](#) **20:2** One Hebrew manuscript; most Hebrew manuscripts *Aram* (Syria)

Footnote from 2 Chronicles 20:9 ([Back](#))

[\[3\]](#) **20:9** Or *the sword of judgment*

Footnote from 2 Chronicles 20:24 ([Back](#))

[\[4\]](#) 20:24 Hebrew *they*

Footnote from 2 Chronicles 20:26 ([Back](#))

[\[5\]](#) **20:26** *Berakah* means *blessing*

Footnote from 2 Chronicles 21:2 ([Back](#))

[\[1\]](#) **21:2** That is, Judah

Footnote from 2 Chronicles 21:16 ([Back](#))

[\[2\]](#) 21:16 Hebrew *spirit*

Footnote from 2 Chronicles 22:2 ([Back](#))

[\[1\]](#) **22:2** See 2 Kings 8:26; Hebrew *forty-two*; Septuagint *twenty*

Footnote from 2 Chronicles 22:11 ([Back](#))

[\[2\]](#) **22:11** Spelled *Jehosheba* in 2 Kings 11:2

Footnote from 2 Chronicles 22:11 ([Back](#))

[\[3\]](#) **22:11** That is, Joash

Footnote from 2 Chronicles 23:3 ([Back](#))

[\[1\]](#) 23:3 Hebrew *he*

Footnote from 2 Chronicles 23:15 ([Back](#))

[2] 23:15 Or *they made a passage for her*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1 ([Back](#))

[\[1\]](#) **24:1** Spelled *Jehoash* in 2 Kings 12:1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10 ([Back](#))

[\[2\]](#) **24:10** Or *until it was full*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22 ([Back](#))

[\[3\]](#) 24:22 Hebrew *and seek*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24 ([Back](#))

[\[4\]](#) 24:24 Hebrew *they*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25 ([Back](#))
[\[5\]](#) **24:25** Septuagint, Vulgate; Hebrew *son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4:27 ([Back](#))

[\[6\]](#) 24:27 Hebrew *founding*

Footnote from 2 Chronicles 25:6 ([Back](#))

[\[1\]](#) **25:6**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5:19 ([Back](#))

[2] 25:19 Hebrew *you*

Footnote from 2 Chronicles 25:23 ([Back](#))

[\[3\]](#) **25:2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5:28 ([Back](#))

[\[4\]](#) 25:28 Hebrew *of Judah*

Footnote from 2 Chronicles 26:19 ([Back](#))

[\[1\]](#) **26:19**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2 Chronicles 27:5 ([Back](#))

[\[1\]](#) **27:5**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7:5 ([Back](#))

[\[2\]](#) **27:5**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8:3 ([Back](#))

[\[1\]](#) **28:3** Hebrew *made his sons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2 Chronicles 28:16 ([Back](#))

[\[2\]](#) **28:16** Septuagint, Syriac, Vulgate (compare 2 Kings 16:7); Hebrew *kings*

Footnote from 2 Chronicles 28:19 ([Back](#))

[3] 28:19 Or *wildly*

Footnote from 2 Chronicles 28:20 ([Back](#))

[\[4\]](#) **28:20** Hebrew *Tilgath-pilneser*

Footnote from 2 Chronicles 29:1 ([Back](#))

[\[1\]](#) **29:1** Spelled *Abi* in 2 Kings 18:2

Footnote from 2 Chronicles 29:31 ([Back](#))

[\[2\]](#) **29:31** Hebrew *filled your hand for*

Footnote from 2 Chronicles 30:19 ([Back](#))

[1] 30:19 Hebrew *not according to the cleanness of holines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0:21 ([Back](#))

[\[2\]](#) **30:21** Compare 1 Chronicles 13:8; Hebrew *with instruments of might*

Footnote from 2 Chronicles 32:5 ([Back](#))

[\[1\]](#) **32:5** Vulgate; Hebrew *and raised upon the tower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3:19 ([Back](#))

[\[1\]](#) **33:19**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of Hozai*

Footnote from 2 Chronicles 34:6 ([Back](#))

[\[1\]](#) **34:6**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2 Chronicles 34:22 ([Back](#))

[\[2\]](#) **34:22** Syriac, Vulgate; Hebrew lacks *had sent*

Footnote from 2 Chronicles 36:3 ([Back](#))

[\[1\]](#) **36:3**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2 Chronicles 36:9 ([Back](#))

[\[2\]](#) **36:9** Septuagint (compare 2 Kings 24:8); most Hebrew manuscripts *eight*

에스라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zra 1](#) • [Ezra 2](#) • [Ezra 3](#) • [Ezra 4](#) • [Ezra 5](#) • [Ezra 6](#) • [Ezra 7](#) • [Ezra 8](#) • [Ezra 9](#) • [Ezra 10](#)

에스라기

고레스가 유다 포로 귀환을 허락하다

EZRA 1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3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4 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유다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5 그 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6 이웃 사람들은, 자원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7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8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게 하였다. 9 넘겨 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자루요, 10 금대접이 서른 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천 개이니, 11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오천사백 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포로에서 풀려 난 사람들(느 7:4-73)

EZRA 2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2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3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4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고, 5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고, 6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고, 7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이고, 8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고, 9 샷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고, 10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고, 11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고, 12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고, 13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고, 14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이고, 15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고,

¹⁵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요, ¹⁶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¹⁷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요, ¹⁸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¹⁹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요, ²⁰깁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다.

²¹○베들레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요, ²²느도바 사람이 오십육 명이요, ²³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요, ²⁴아스마웻 사람이 사십이 명이요, ²⁵a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요,(a 칠십인역에는 '기랴여아림') ²⁶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²⁷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요, ²⁸베델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이다. ²⁹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이요, ³⁰막비스 사람이 백오십육 명이요, ³¹다른 엘람 사람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³²하림 사람이 삼백이십 명이요, ³³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칠백이십오 명이요, ³⁴여리고 사람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³⁵스나아 사람이 삼천육백삼십 명이다.

³⁶○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³⁷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³⁸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³⁹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다.

⁴⁰○레위 사람은, 호다위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⁴¹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이요, ⁴²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인데, 모두 백삼십구 명이다.

⁴³○b성전 막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롯 자손과(b 히, '느디님') ⁴⁴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⁴⁵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⁴⁶하갑 자손과 사물래 자손과 하난 자손과 ⁴⁷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⁴⁸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⁴⁹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⁵⁰아스나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⁵¹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⁵²바슬롯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⁵³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⁵⁴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⁵⁵○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⁵⁶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⁵⁷스바댜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다.

⁵⁸○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다. ⁵⁹○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⁶⁰○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육백오십이 명이다.

⁶¹○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래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래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⁶²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⁶³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⁶⁴○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다. ⁶⁵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다. ⁶⁶또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⁶⁷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이다.

⁶⁸○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⁶⁹저마다 힘 자

라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육만 천 다릭, 은이 오천 마네, 제사장의 예복이 백 벌 이나 되었다.

70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c(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c 괄호 안의 구절은 칠십인역을 따름)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다

EZRA 3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a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a '티스리월', 양력 구월 초순 이후)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3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4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횃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5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6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7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삷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옹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8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b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b '시브월', 양력 사월 중순 이후) 9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c호다위야의 자손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c 히, '예후다' 또는 '유다')

10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11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12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

었다. ¹³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

EZRA 4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²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앗시리아 왕 에살हत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³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यो.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यो.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यो." ⁴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⁵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⁶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⁷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 글로 적었고 a번역이 되었다.(a 또는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다')

⁸b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b 4:8-6:18은 아람어로 기록됨)

⁹그 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¹⁰귀족 c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c 일명, '아슈르바니발') ¹¹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o"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¹²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¹³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¹⁴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¹⁵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 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¹⁶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¹⁷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18**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19**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 왔으며, 그 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20**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 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1**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22**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3○르흠과 심새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24**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이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성전을 재건하다

EZRA 5 그 때에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2**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3○바로 그 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이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4**a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a 칠십인역을 따름. 아람어 본문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다') **5**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6○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은,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7**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8**임금님께 아웁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 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9**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10**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 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11**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12**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13**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14**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b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b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때에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

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b 또는 '궁전') ¹⁵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⁶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¹⁷○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EZRA 6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²메대 지방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³○"고레스 왕 일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육십 자가 되게 하고, ⁴벽은 돌 세 겹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⁵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다리우스 왕의 명령

⁶○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과 스달보스내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⁷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⁸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댈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⁹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숫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¹⁰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¹¹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¹²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없이 실시하여라.

성전 봉헌

¹³○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과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¹⁴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¹⁵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육년 a아달월 삼일이다.(a 양력 이월 중순 이후) ¹⁶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¹⁷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다. ¹⁸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유월절

¹⁹○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²⁰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²¹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²²그들은 이레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앗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뻐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EZRA ⁷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²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둡이요, ³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므라뫿이요, ⁴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웃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⁵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⁶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주었다. ⁷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⁸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달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칠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⁹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a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b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달을 수 있었다.(a '아빍월', 양력 삼월 중순 이후 b '아브월', 양력 칠월 중순 이후) ¹⁰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다

¹¹○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12○"c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c 7:12-26은 아람어로 기록됨)

13○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14**나와 나의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15**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16**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17○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18**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19**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20**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21○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22**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은 백 밧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없이 주도록 하여라. **23**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24**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25**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 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26**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27○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28**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EZRA 8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²○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숨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³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오십 명이요, ⁴바합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백 명이요, ⁵^a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삼백 명이요, (^a 칠십인역을 따라서 '삿두'를 보충함) ⁶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오십 명이요, ⁷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칠십 명이요, ⁸스바다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팔십 명이요, ⁹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백십팔 명이요, ¹⁰^b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못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육십 명이요, (^b 칠십인역을 따라서 '바니'를 보충함) ¹¹베배 자손 가운데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이십팔 명이요, ¹²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백십 명이요, ¹³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육십 명이요, ¹⁴비그왜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봇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칠십 명이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¹⁵○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 가에 불러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¹⁶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¹⁷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c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c 히, '느디님') ¹⁸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갓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열여덟 명과, ¹⁹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스무 명이다. ²⁰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이백이십 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다

²¹○그 곳 아하와 강 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엮으려서 빌었다. ²²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²³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바친 예물

²⁴○그 때에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열둘,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열 명을 뽑아 세우고, ²⁵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²⁶내가 그들에게 달아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요, ²⁷전체의 무게가 천 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스무 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놋그릇이 두 개였다.

²⁸○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입니다. ²⁹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 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 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³⁰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 가려고 달아 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 받았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³¹○첫째 달 십이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³²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³³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 제사장에게 넘겨 주었다. 그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다가, ³⁴하나하나 갯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³⁵○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³⁶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EZRA 9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²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³○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겹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⁴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낮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5○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겹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6**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7**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큼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9**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0**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11**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2**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3**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14**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5**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쫓다

EZRA 10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소리로 슬피 울었다. **2**그 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3**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4**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용기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⁵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⁶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 나와,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a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a '밤이 새도록'은 칠십인역을 따름)

⁷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⁸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⁹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때가 b아홉째 달 이십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b '기슬르'월, 양력 십일월 중순 이후) ¹⁰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¹¹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¹²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웁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¹³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¹⁴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¹⁵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¹⁶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c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c '테벳'월, 양력 십이월 중순 이후) ¹⁷이듬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¹⁸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야이다. ¹⁹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숫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쳤다. ²⁰임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²¹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²²바스홀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요, ²³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²⁴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²⁵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마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²⁶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맛다니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²⁷삿두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니

야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²⁸베배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²⁹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숨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³⁰바합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앓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니야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³¹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³²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³³하숨의 자손 가운데서는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³⁴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대와 아르람과 우엘과 ³⁵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³⁶와냐와 므레못과 에랴십과 ³⁷맛다니야와 맛드내와 야아수와 ³⁸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³⁹셀레먀와 나단과 아다야와 ⁴⁰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⁴¹아사렐과 셀레먀와 스마랴와 ⁴²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⁴³느보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이다. ⁴⁴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Footnotes

Footnote from Ezra 2:69 ([Back](#))

[\[1\]](#) **2:69** A *daric* was a coin weighing about 1/4 ounce or 8.5 grams

Footnote from Ezra 2:69 ([Back](#))

[2] 2:69 A *mina* was about 1 1/4 pounds or 0.6 kilogram

Footnote from Ezra 2:70 ([Back](#))

[\[3\]](#) **2:70** Hebrew *all Israel*

Footnote from Ezra 4:7 ([Back](#))

[\[1\]](#) **4:7** Hebrew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 in Aramaic*, indicating that 4:8–6:18 is in Aramaic; another interpretation is *The letter was written in the Aramaic script and set forth in the Aramaic language*

Footnote from Ezra 5:4 ([Back](#))

[\[1\]](#) **5:4** Septuagint, Syriac; Aramaic *We*

Footnote from Ezra 5:10 ([Back](#))

[\[2\]](#) **5:10** Aramaic *of the men at their heads*

Footnote from Ezra 6:3 ([Back](#))

[\[1\]](#) **6: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ra 6:6 ([Back](#))

[\[2\]](#) 6:6 Aramaic *their*

[\[1\]](#) 7:8 Aramaic *he*

Footnote from Ezra 7:12 ([Back](#))

[\[2\]](#) **7:12** Aramaic *Perfect* (probably a greeting)

Footnote from Ezra 7:22 ([Back](#))

[\[3\]](#) **7:22**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Ezra 7:22 ([Back](#))

[\[4\]](#) **7:22**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Ezra 7:22 ([Back](#))

[\[5\]](#) **7:22**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Footnote from Ezra 8:5 ([Back](#))

[\[1\]](#) **8:5** Septuagint; Hebrew lacks *of Zattu*

Footnote from Ezra 8:10 ([Back](#))

[\[2\]](#) **8:10** Septuagint; Hebrew lacks *Bani*

Footnote from Ezra 8:17 ([Back](#))

[\[3\]](#) 8:17 Hebrew lacks *and*

Footnote from Ezra 8:26 ([Back](#))

[4] 8:26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Ezra 8:26 ([Back](#))

[\[5\]](#) **8:26** Revocalization; the number is missing in the Masoretic Text

Footnote from Ezra 8:27 ([Back](#))

[\[6\]](#) **8:27** A *daric* was a coin weighing about 1/4 ounce or 8.5 grams

Footnote from Ezra 8:36 ([Back](#))

[\[7\]](#) **8:36** A *satrap* was a Persian official

Footnote from Ezra 9:2 ([Back](#))

[\[1\]](#) **9:2** Hebrew *offspring*

Footnote from Ezra 9:8 ([Back](#))

[\[2\]](#) 9:8 Hebrew *nail*, or *tent-pin*

Footnote from Ezra 9:9 ([Back](#))

[\[3\]](#) **9:9** Hebrew *a wall*

Footnote from Ezra 10:3 ([Back](#))

[\[1\]](#) 10:3 Or *of the Lord*

Footnote from Ezra 10:6 ([Back](#))

[\[2\]](#) **10:6** Probable reading; Hebrew *where he went*

Footnote from Ezra 10:16 ([Back](#))

[\[3\]](#) **10:16** Syriac; Hebrew *And there were selected Ezra . . .* ;

Footnote from Ezra 10:19 ([Back](#))

[\[4\]](#) 10:19 Or *as their reparation*

Footnote from Ezra 10:25 ([Back](#))

[\[5\]](#) **10:25** Septuagint; Hebrew *Malchijah*

Footnote from Ezra 10:38 ([Back](#))

[\[6\]](#) **10:38** Septuagint; Hebrew *Bani*, *Binnui*

Footnote from Ezra 10:44 ([Back](#))

[\[7\]](#) **10:44** Or *and they put them away with their children*

느헤미야

[\(return to table of contents\)](#)

[Nehemiah 1](#) • [Nehemiah 2](#) • [Nehemiah 3](#) • [Nehemiah 4](#) • [Nehemiah 5](#) • [Nehemiah 6](#) • [Nehemiah 7](#)
• [Nehemiah 8](#) • [Nehemiah 9](#) • [Nehemiah 10](#) • [Nehemiah 11](#) • [Nehemiah 12](#) • [Nehemiah 13](#)

느헤미야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NEHEMIAH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십년 a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a 양력 십일월 중순 이후) ²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 보았다. ³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⁴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⁵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⁶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⁷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⁸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⁹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¹⁰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¹¹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NEHEMIAH 2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a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a 양력 삼월 중순 이후) ²"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³"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⁴"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⁵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⁶○그 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⁷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⁸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⁹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¹⁰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격려하다

¹¹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¹²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¹³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b용 샘'을 지나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b 또는 '뱀') ¹⁴'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¹⁵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¹⁶그 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¹⁷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¹⁸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¹⁹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²⁰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예루살렘 성벽 재건

NEHEMIAH 3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²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³'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돈테를 만들어 달았다. ⁴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⁵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⁶○'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⁷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놏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⁸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⁹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¹⁰그 다음은 하루밧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 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냐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¹¹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인 핫숨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¹²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¹³○'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 문'까지 성벽 천 자를 보수하였다.

¹⁴○'거름 문'은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¹⁵○'샘 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a'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총계까지 보수하였다.(a '실로아' 곧 '실로암') ¹⁶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¹⁷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¹⁸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왜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¹⁹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쪽에서부터 성 굽이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²⁰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까지는, 삼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²¹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다. ²²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²³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숨이 보수하였는데, 그 곳은 그들의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 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²⁴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²⁵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 굽이 맞은쪽과 윗대궐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브다야와 ²⁶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²⁷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²⁸○'말 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쪽을 보수하였다. ²⁹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³⁰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

레마의 아들인 하나나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 곳은 자기 방 맞은쪽이다. ³¹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 문' 맞은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³²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 문'까지는, 세공장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방해를 물리치다

NEHEMIAH 4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²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³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 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면,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⁴"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⁵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⁶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⁷그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⁸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⁹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¹⁰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¹¹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¹²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¹³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¹⁴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¹⁵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16○그 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17**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18**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19**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20**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21**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22○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23**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가난한 이들이 외치다

NEHEMIAH 5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2**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 오자!" **3**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4**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5**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나?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6○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7**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거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8**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यो?"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9**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11**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12**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13**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

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느헤미아가 녹을 받지 않다

14○나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15**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사십 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16**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a우리가 밭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a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일부와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에는 '내가') **17**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18**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19○"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아에 대한 음모

NEHEMIAH 6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2**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3**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4**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 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a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a '게셈'의 변형) **7**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8○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9○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0○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므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¹¹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¹²나는 그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¹³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¹⁴○"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다

¹⁵○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b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b 양력 팔월 초순 이후) ¹⁶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¹⁷○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¹⁸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¹⁹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다

NEHEMIAH 7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²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채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³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라 2:1-70)

⁴○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⁵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일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⁶○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⁷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⁸○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요, ⁹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¹⁰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요, ¹¹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이요, ¹²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¹³삿두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이요, ¹⁴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
이요, ¹⁵빈누이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이요, ¹⁶브배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이요, ¹⁷아스갓 자손
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요, ¹⁸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이요, ¹⁹비그왜 자손이 이천육십
칠 명이요, ²⁰아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이요, ²¹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²²하숨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이요, ²³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이요, ²⁴하립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²⁵기브온 자손이 구십오 명이다.

²⁶○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백팔십팔 명이요, ²⁷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요, ²⁸
벳아스마뉼 사람이 사십이 명이요, ²⁹기랴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
이요, ³⁰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³¹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요, ³²베델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요,

³³○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오십이 명이요, ³⁴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천이백오십사 명이
요, ³⁵하림 사람이 삼백이십 명이요, ³⁶여리고 사람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³⁷로드와 하딛과 오
노 사람이 칠백이십일 명이요, ³⁸스나아 사람이 삼천구백삼십 명이다.

³⁹○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⁴⁰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
요, ⁴¹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⁴²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다.

⁴³○레위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⁴⁴노래하는 사
람은, 아삽 자손이 백사십팔 명이요, ⁴⁵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인데, 백삼십팔 명이다.

⁴⁶○성전 막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뉼 자손과 ⁴⁷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⁴⁸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⁴⁹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할 자
손과 ⁵⁰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⁵¹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⁵²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⁵³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⁵⁴바
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⁵⁵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⁵⁶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⁵⁷○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⁵⁸야알라 자
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⁵⁹스바댜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⁶⁰○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다. ⁶¹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앳돈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⁶²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
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육백사십이 명이다.

⁶³○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
운데서 바르실래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래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
어받은 사람이다. ⁶⁴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
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⁶⁵유다 총독은 그
들에게, 우림과 둠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⁶⁶○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다. ⁶⁷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칠천삼
백삼십칠 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다. ⁶⁸a또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

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a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일부를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68절이 없음)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이다.

70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천 다릭과 쟁반 오십 개와 제사장 예복 오백삼십 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71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이만 다릭이요, 은이 이천이백 마네였다. 72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이만 다릭이요, 은이 이천 마네요, 제사장의 예복이 육십칠 벌이다.

7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 주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NEHEMIAH 8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3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맛디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다. 5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6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7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8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a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a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9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10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12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13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14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5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

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17**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18**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다

NEHEMIAH 9 그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썼다. **2**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3**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사분의 일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사분의 일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5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죄를 자백하는 기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6**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7**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8**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9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10**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 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름니다. **11**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12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13**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14**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 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굽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 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뻗뻗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뻗뻗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불이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19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20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21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 다.

22○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23주님께서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24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줄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25자손은 요새화된 성채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 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26○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7○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 주시곤 하셨습니다. 28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 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29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뻗뻗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30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31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³²○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앗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 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³³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³⁴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³⁵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 앞에 펼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³⁶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³⁷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³⁸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NEHEMIAH 10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²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³바스홀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⁴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⁵하림과 므레못과 오바댜와 ⁶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⁷므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⁸마아시아와 빌개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⁹○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갓미엘과 ¹⁰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아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¹¹미가와 르훔과 하사바와 ¹²삭굴과 세레바와 스바냐와 ¹³호디아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¹⁴○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합모압과 엘람과 샷두와 바니와 ¹⁵분니와 아스갓과 베배와 ¹⁶아도니야와 비그왜와 아딘과 ¹⁷아델과 히스기야와 앗술과 ¹⁸호디아와 하숨과 베새와 ¹⁹하립과 아나돗과 노배와 ²⁰막비아스와 므술람과 헤실과 ²¹므세사벨과 사독과 앗두아와 ²²블라댜와 하난과 아나야와 ²³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숨과 ²⁴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벡과 ²⁵르훔과 하삽나와 마아세야와 ²⁶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²⁷말룩과 하림과 바아나가 있다.

²⁸○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²⁹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³⁰○"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³¹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육 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 준다."

³²○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친다. ³³이것은, 늘 차려 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³⁴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떨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³⁵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말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³⁶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말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³⁷○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뭇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뭇으로 가져 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³⁸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³⁹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백성들

NEHEMIAH 1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십분의 구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²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³○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⁴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웃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댜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⁵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야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⁶예루살렘에 자리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⁷○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므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엣이요, 그 윗대는 브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⁸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래를 비롯하여, 구백이십팔 명이다. ⁹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핫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 이 구역을 다스렸다.

¹⁰○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¹¹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므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므라윳이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둡이다. ¹²성전의 일을 맡아 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팔백이십이 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훌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¹³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이백사십이 명이다. 또 아맛새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새요, 그 윗대는 므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¹⁴큰 용사들인 a그들의 친족은 모두 백이십팔 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샴디엘이다.(a 칠십인역에는 '그의')

¹⁵○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습이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¹⁶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브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¹⁷또 맛다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가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랄이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¹⁸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다.

¹⁹○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백칠십이 명이다. ²⁰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²¹○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에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²²○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웃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맛다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웃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²³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²⁴○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성읍에 자리를 잡은 백성들

²⁵○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랴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자리를 잡고, ²⁶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²⁷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²⁸시글락과 므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²⁹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³⁰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힌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³¹○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야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³²아나돗과 눺과 아나냐와 ³³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³⁴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³⁵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³⁶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NEHEMIAH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²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³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뭇과 ⁴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⁵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⁶스마야와 요야립과 여

다야와 ⁷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⁸○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니야이고 그 가운데서 맛다니야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⁹그들의 동료 박부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 보고 섰다.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¹⁰○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¹¹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다.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

¹²○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¹³에스라 가문에서는 므술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난이요, ¹⁴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¹⁵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므라웃 가문에서는 헬개요, ¹⁶잇도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므술람이요, ¹⁷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브 가문에서는 빌대요, ¹⁸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¹⁹요야립 가문에서는 맛드내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웃시요, ²⁰살래 가문에서는 갈래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²¹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벨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²²○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²³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아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성전에서 맡은 임무

²⁴○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²⁵○맛다니야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²⁶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²⁷○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²⁸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²⁹벧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뫼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³⁰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³¹○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 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³²호세야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³³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³⁴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³⁵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맛다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굴이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³⁶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³⁷그들은 '샘 문'에서 곧바로 다윗 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³⁸○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³⁹'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 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⁴⁰○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⁴¹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⁴²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⁴³그 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

⁴⁴○그 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십일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⁴⁵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⁴⁶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⁴⁷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느헤미야의 개혁

NEHEMIAH 13 그 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다. ²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³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⁴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⁵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십일조로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뭇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⁶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⁷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 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⁸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⁹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¹⁰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뭇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¹¹그래서 나는, 어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¹²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¹³나는 셀레먀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맛다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뭇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¹⁴"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¹⁵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었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¹⁶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¹⁷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¹⁸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¹⁹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거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²⁰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²¹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들이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²²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23○그 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24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25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26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27이제 당신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28○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29○"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30○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31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Footnotes

Footnote from Nehemiah 2:20 ([Back](#))

[\[1\]](#) **2:20** Or *memorial*

Footnote from Nehemiah 3:2 ([Back](#))

[\[1\]](#) 3:2 Hebrew *him*

Footnote from Nehemiah 3:5 ([Back](#))

[\[2\]](#) 3:5 Or *lords*

Footnote from Nehemiah 3:6 ([Back](#))

[\[3\]](#) 3:6 Or *of the old city*

Footnote from Nehemiah 3:9 ([Back](#))

[\[4\]](#) **3:9** Or *foreman of half the portion assigned to*; also verses 12, 14, 15, 16, 17, 18

Footnote from Nehemiah 3:13 ([Back](#))

[\[5\]](#) **3:1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Nehemiah 3:19 ([Back](#))

[6] 3:19 Or *corner*; also verses 20, 24, 25

Footnote from Nehemiah 3:31 ([Back](#))

[\[7\]](#) **3:31** Or *Hammiphkad Gate*

Footnote from Nehemiah 4:1 ([Back](#))

[\[1\]](#) 4:1 Ch 3:33 in Hebrew

Footnote from Nehemiah 4:2 ([Back](#))

[\[2\]](#) **4:2** Or *Will they commit themselves to God?*

Footnote from Nehemiah 4:7 ([Back](#))

[\[3\]](#) 4:7 Ch 4:1 in Hebrew

Footnote from Nehemiah 4:10 ([Back](#))

[\[4\]](#) **4:10** Hebrew *Judah said*

Footnote from Nehemiah 4:12 ([Back](#))

[\[5\]](#) **4:12**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Nehemiah 4:23 ([Back](#))

[\[6\]](#) **4:23** Probable reading; Hebrew *each his weapon the water*

Footnote from Nehemiah 5:13 ([Back](#))

[\[1\]](#) **5:13** Hebrew *bosom*

Footnote from Nehemiah 5:15 ([Back](#))

[\[2\]](#) **5:15** Compare Vulgate; Hebrew *took from them with food and wine afterward*

Footnote from Nehemiah 5:15 ([Back](#))

[\[3\]](#) **5:15**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Nehemiah 5:18 ([Back](#))

[\[4\]](#) **5:18** Or *prepared for me*

Footnote from Nehemiah 6:6 ([Back](#))

[\[1\]](#) 6:6 Hebrew *Gashmu*

Footnote from Nehemiah 6:9 ([Back](#))

[\[2\]](#) **6:9** Hebrew lacks *O God*

Footnote from Nehemiah 6:11 ([Back](#))

[\[3\]](#) **6:11** Or *would go into the temple to save his life*

Footnote from Nehemiah 7:68 ([Back](#))

[\[1\]](#) **7:68** Compare Ezra 2:66 and the margins of some Hebrew manuscripts; Hebrew lacks *Their horses . . .* ; 245

Footnote from Nehemiah 7:70 ([Back](#))

[\[2\]](#) **7:70** A *daric* was a coin weighing about 1/4 ounce or 8.5 grams

Footnote from Nehemiah 7:70 ([Back](#))

[\[3\]](#) **7:70** A *mina* was about 1 1/4 pounds or 0.6 kilogram

Footnote from Nehemiah 7:70 ([Back](#))

[\[4\]](#) 7:70 Probable reading; Hebrew lacks *minas of silver*

Footnote from Nehemiah 8:7 ([Back](#))

[\[1\]](#) **8:7** Vulgate; Hebrew *and the Levites*

Footnote from Nehemiah 8:8 ([Back](#))

[\[2\]](#) **8:8** Or *with interpretation*, or *paragraph by paragraph*

Footnote from Nehemiah 8:14 ([Back](#))

[\[3\]](#) **8:14** Or *temporary shelters*

Footnote from Nehemiah 9:2 ([Back](#))

[1] 9:2 Hebrew *the offspring of Israel*

Footnote from Nehemiah 9:6 ([Back](#))

[\[2\]](#) **9:6** Septuagint adds *And Ezra said*

Footnote from Nehemiah 9:18 ([Back](#))

[\[3\]](#) 9:18 Hebrew *metal*

Footnote from Nehemiah 9:38 ([Back](#))

[\[4\]](#) **9:38** Ch 10:1 in Hebrew

Footnote from Nehemiah 9:38 ([Back](#))

[\[5\]](#) **9:38** Hebrew lacks *the names of*

Footnote from Nehemiah 10:1 ([Back](#))

[\[1\]](#) **10:1** Ch 10:2 in Hebrew

Footnote from Nehemiah 10:1 ([Back](#))

[\[2\]](#) **10:1** Hebrew lacks *the names of*

Footnote from Nehemiah 10:32 ([Back](#))

[\[3\]](#) **10:3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Nehemiah 11:1 ([Back](#))

[\[1\]](#) **11:1** Hebrew *nine hands*

Footnote from Nehemiah 11:8 ([Back](#))

[\[2\]](#) **11:8** Compare Septuagint; Hebrew *Jeshaiah, and after him Gabbai, Sallai*, 928

Footnote from Nehemiah 11:17 ([Back](#))

[\[3\]](#) **11:17** Compare Septuagint, Vulgate; Hebrew *beginning*

Footnote from Nehemiah 11:24 ([Back](#))

[\[4\]](#) **11:24** Hebrew *hand*

Footnote from Nehemiah 12:39 ([Back](#))

[\[1\]](#) **12:39** Or *of the old city*

Footnote from Nehemiah 12:46 ([Back](#))

[\[2\]](#) 12:46 Or *leaders*

Footnote from Nehemiah 13:18 ([Back](#))

[\[1\]](#) **13:18** The Hebrew word can mean *evil*, *harm*, or *disaster*, depending on the context

에 스 더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sther 1](#) • [Esther 2](#) • [Esther 3](#) • [Esther 4](#) • [Esther 5](#) • [Esther 6](#) • [Esther 7](#) • [Esther 8](#) • [Esther 9](#)
• [Esther 10](#)

에스더기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ESTHER 1 a아하수어로 왕 때에 있는 일이다. 아하수어로는 인도에서 b에티오피아에 이르기 까지 백스물일곱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a 일명, '크세르크세스' b 또는 '누비아'. 히, '구스' 곧 나일 강 상류지역) 2아하수어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3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4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백팔십 일이나 계속되었다.

5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6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끈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7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8그 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 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9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어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10이레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내시 곧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11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12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 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13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14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15"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어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16므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7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어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 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18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19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어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²⁰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²¹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아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²²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ESTHER 2 이러한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아하수어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²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³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헤개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⁴그리 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⁵그 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개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⁶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a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a 일명, '여호야긴') ⁷모르드개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개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뻐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개가 그를 딸로 삼았다.

⁸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개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 보는 헤개에게로 갔다. ⁹헤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일곱 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 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¹⁰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¹¹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갔다 하였다.

¹²처녀들은, 아하수어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열두 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여섯 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¹³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¹⁴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 보는 왕의 내시 사아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¹⁵드디어 모르드개의 사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개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¹⁶그가 아하수어로 왕의 침전으로 불러 들어간 것은, 아하수어로가 다스린 지 칠 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¹⁷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¹⁸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

¹⁹○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 때에, 모르드개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²⁰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개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슬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개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²¹○모르드개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b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b 일명, '빅다나') ²²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개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²³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c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c 또는 '기둥에')

하만이 유다 사람 말살을 음모하다

ESTHER 3 이런 일들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아하수어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²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³모르드개가 그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⁴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개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⁵하만은, 모르드개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⁶더욱이, 모르드개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어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개와 같은 겨레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⁷○아하수어로 왕 십이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a주사위가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에 떨어졌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열두째 달인 아달월이었다') ⁸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⁹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만 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임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¹⁰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말했다. **11**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12○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 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도장을 찍었다. **13**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14**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15**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 성은 술렁거렸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겠다고 약속하다

ESTHER 4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2**그런데 굵은 베 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3**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 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4○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개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개는 듣지 않았다. **5**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 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개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6**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로 갔다. **7**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임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8**모르드개는, 수산 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 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겨레를 살려 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9**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개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10**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11**"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삼십 일이나 되었습니다." **12**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13**모르드개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15**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16**"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¹⁷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다

ESTHER 5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 보고 섰다. 그 때에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²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 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³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 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⁴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⁵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⁶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⁷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 것이 아닙니다. ⁸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 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만의 음모

⁹그 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¹⁰꼭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놓고, ¹¹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 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¹²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¹³그러나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개라는 유대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¹⁴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쉰 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왕이 모르드개를 높이다

ESTHER 6 그 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²실록에는, 대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a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개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a 히, '그들의 손을 왕에게 놓으려고 한 음모를') ³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개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 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⁴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 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⁵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⁶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⁷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⁸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⁹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¹⁰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 대로 하시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¹¹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¹²그런 다음에, 모르드개는 대궐 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¹³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하만의 몰락

¹⁴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ESTHER 7**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²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³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뵈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거례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⁴나와 내 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 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⁵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⁶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⁷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다. ⁸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 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 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⁹그 때에 왕을 모시

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쓴 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 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10**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다

ESTHER 8 아하수어로 왕은 그 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2**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개가 맡아 보게 하였다. **3**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4**왕이 금 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5**"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6**나의 거래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7**아하수어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8**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9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이십삼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개가 불러 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a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스물일곱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a Est 8: 또는 '누비아'. 히, '구스' 곧 나일 강 상류지역) **10**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써,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11**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12**그러나 아하수어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13**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값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14**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뉘었다.

15모르드개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겹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 수산 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16**유다 사람

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데,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17**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유다 사람이 원수들을 죽이다

ESTHER 9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2**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3**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개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4** 당시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5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6**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오백 명이나 처형하였다. **7**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와 **10**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11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 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12**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오백 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13**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14**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15**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십사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삼백 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16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칠만 오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17**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십삼일이었다. 십사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18**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십오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19**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부림절

20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21**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22** 그 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

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개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²³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²⁴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²⁵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흥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²⁶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려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개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²⁷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²⁸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²⁹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³⁰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백스물일곱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³¹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 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³² 부림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왕과 모르드개가 칭송을 받다

ESTHER 10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²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개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³ 유다 사람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겨레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Footnotes

Footnote from Esther 1:6 ([Back](#))

[\[1\]](#) 1:6 Or *rings*

Footnote from Esther 1:11 ([Back](#))

[\[2\]](#) 1:11 Or *headdress*

[\[1\]](#) 2:17 Or *headdress*

Footnote from Esther 2:23 ([Back](#))

[\[2\]](#) **2:23** Or *suspended on a stake*

Footnote from Esther 3:9 ([Back](#))

[\[1\]](#) **3:9** A *talent* was about 75 pounds or 34 kilograms

Footnote from Esther 5:14 ([Back](#))

[\[1\]](#) **5:14** Or *stake*;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Esther 5:14 ([Back](#))

[\[2\]](#) **5:14**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sther 6:2 ([Back](#))

[\[1\]](#) **6:2** *Bigthana* is an alternate spelling of *Bigthan* (see 2:21)

Footnote from Esther 6:4 ([Back](#))

[\[2\]](#) 6:4 Or *suspended on a stake*

Footnote from Esther 6:8 ([Back](#))

[\[3\]](#) 6:8 Or *headdress*

Footnote from Esther 7:5 ([Back](#))

[\[1\]](#) 7:5 Hebrew *whose heart has filled him*

Footnote from Esther 7:9 ([Back](#))

[\[2\]](#) 7:9 Or *stake*; also verse 10

Footnote from Esther 7:9 ([Back](#))

[\[3\]](#) **7:9**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sther 8:7 ([Back](#))

[\[1\]](#) 8:7 Or *stake*

Footnote from Esther 8:15 ([Back](#))

[\[2\]](#) **8:15** Or *headdress*

[\[1\]](#) 9:13 Or *stake*

Footnote from Esther 9:25 ([Back](#))

[\[2\]](#) **9:25** Or *suspended on a stake*

옵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ob 1](#) • [Job 2](#) • [Job 3](#) • [Job 4](#) • [Job 5](#) • [Job 6](#) • [Job 7](#) • [Job 8](#) • [Job 9](#) • [Job 10](#) • [Job 11](#) • [Job 12](#)
• [Job 13](#) • [Job 14](#) • [Job 15](#) • [Job 16](#) • [Job 17](#) • [Job 18](#) • [Job 19](#) • [Job 20](#) • [Job 21](#) • [Job 22](#)
• [Job 23](#) • [Job 24](#) • [Job 25](#) • [Job 26](#) • [Job 27](#) • [Job 28](#) • [Job 29](#) • [Job 30](#) • [Job 31](#) • [Job 32](#)
• [Job 33](#) • [Job 34](#) • [Job 35](#) • [Job 36](#) • [Job 37](#) • [Job 38](#) • [Job 39](#) • [Job 40](#) • [Job 41](#) • [Job 42](#)

욥기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JOB 1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2**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3**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겨릿소가 오백 쌍, 암나귀가 오백 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4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세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5**잔치가 끝난 다음날이면, 욥은 으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a**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a** 히, '찬양하고(베르쿠)', 히브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는 '저주하다'는 말을 쓸 수 없어서 대신 완곡어법을 써서 '찬양하다'로 대치함. 일명 '서기관의 대치(티쿤 소프림)'라고 함)

6하루는 **b**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c**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b** 또는 '천사들' **c** '고발자'. 히, '하 사탄') **7**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야?"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 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9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1**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d**저주할 것입니다."(**d** 히, '찬양할 것입니다'. 1:5의 주를 볼 것)

12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 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13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14**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15**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 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6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 떼와 목동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 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7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e**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 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e 북쪽에서 떠돌며 약탈을 일삼던 종족)

¹⁸○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¹⁹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때에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 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²⁰○이 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²¹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f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f 또는 '떠날 것입니다')

²²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JOB 2 하루는 a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a 또는 '천사들') ²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나?"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⁴○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⁵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b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b 히, '찬양하고'. 1:5의 주를 볼 것)

⁶○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 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⁷○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⁸그래서 욥은 잣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⁹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c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c 히, '찬양하고서'. 1:5의 주를 볼 것)

¹⁰○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d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d 히브리어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뜻함)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다

11○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라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12**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 내어 울면서 겹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썼다. **13**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다

JOB 3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2**울부짖었다.

3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4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5어둠과 a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a 또는 '깊은 흑암')

6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 수와 달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7아,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8주문을 외워서
b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c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b 또는 '날을 저주하는 자가' c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9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0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11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12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13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14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15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16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 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17 그 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18 그 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19 그 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20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21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22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23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24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 소리 그칠 날이 없다.

25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26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JOB 4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2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3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4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곧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5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6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네 희망이 아니냐?

7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8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9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 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 갈 것들이다.

10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11사자도, 늑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12한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 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13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14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15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16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17"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18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19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놀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20사람은,
아침에는 살아 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21생명 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JOB 5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2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3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4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 주는 이가 없었고,

5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끓주린 사람이 먹어 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 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 버린다.

6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7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8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9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10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11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12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13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14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15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손아귀로부터
구출하신다.

16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17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a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a 히, '샤다이') **18**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낚게도 해주신다.

19그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20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21너는 허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2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23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24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25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6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 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27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욥의 대답

JOB 6 욥이 대답하였다.

2아,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 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3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4^a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과녁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뱉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a 히, '샤다이') **5**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꿀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6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7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8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9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10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11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 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 내겠는가?

12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놋쇠라도 되느냐?

13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14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15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답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16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흐르다가도,

17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18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19데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20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21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물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22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23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24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 보아라.
내가 귀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25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26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27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28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29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30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JOB 7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2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샅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3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 갔다.

4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5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 버리는구나.

6 내 날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7내 생명이

한날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8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9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a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0**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11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12내가 b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c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b 히, '암' c 히, '타닌')

13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14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15차라리 숨이라도

막혀 버리면 좋겠습니다.

빠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6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17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18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19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20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과녁으로 삼으십니까?

d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d** 마소라 사본 가운데 일부와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
과 칠십인역을 따름. 대다수의 마소라 사본에는 '내가 나에게 짐이 됩니다')

21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겨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빌닷의 첫 번째 발언

JOB 8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2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견잡을 수 없구나.

3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a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a** 히, '샤다이')

4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5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6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처음에는 보잘 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8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 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9우리는 다만
b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b 또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어서')

10조상들이 네게 가르쳐 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11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12물이 말라 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13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14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15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16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17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18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체할 것이다.

19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20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 잡아 주지 않으신다.

21 그분께서
네 입을 웃음으로 채워 주시면,
네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22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욥의 대답

JOB 9 욥이 대답하였다.

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3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 마디 말씀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4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5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엎기도 하신다.

6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7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8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a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a 또는 '바다의 파도를 짓밟으신다')

9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10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11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12그가 가져 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13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b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b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함)

14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 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15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16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기울여 들으실까?

17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18 숨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 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실까?

19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거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불인다고 한들
누가 c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c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나를')

20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21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22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23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24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나?

25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26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27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28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29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30 비록 내가 d비누로 몸을 씻고,
젓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d 또는 '눈으로')

31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처넣으시니,
내 웃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32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함께 법정에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려면,

33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34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35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계속되는 욕의 대답

JOB 10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2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3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4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5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덧없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6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7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8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9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10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11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12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13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14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 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15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16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17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8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19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20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1어둡고 a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a 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땅')

22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소발의 첫 번째 발언

JOB 11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2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3네가 혼자서 큰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4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5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네게 말씀하시고,
6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8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a스올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9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10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11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12**b**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낱기를 기다려라. (**b** 또는 '미련한 사람도 똑똑해질 때가 있고, 들나귀 새끼도 사람
처럼 길이 들 때가 있다')

13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14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15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16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17네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18이제 네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19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20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 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욥의 대답

JOB 12 욥이 대답하였다.

2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3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4한때는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 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5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6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7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8 땅에게 물어 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9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10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11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12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13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14 하나님이 헐어 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 줄 자가 없다.

15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16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17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18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19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러뜨리신다.

20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21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22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23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뺏어 나게도 하시고,
흫 버리기도 하신다.

24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25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계속되는 옴의 대답

JOB 13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2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3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4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5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6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 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7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8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9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느냐?

10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11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12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 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 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13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 지겠다.

14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15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16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17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18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19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욥의 기도

20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21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22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23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24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25 주님께서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26 주님께서서는 지금,
a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a 또는 '나를 고발하시는 글을 쓰시고 내가 어릴 때 지은 죄를 상속
받게 하십니다')

27 내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날날이 지켜 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28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JOB 14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2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3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4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인생이 살아갈 날 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 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6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 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7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썩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8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9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10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11물이 말라 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12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13차라리 나를 a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4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5그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16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 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주님께서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18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19물이 바위를 굴러 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 내듯이,

20주님께서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21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22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

JOB 15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2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3 쓸모 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4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5 네 죄가 네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6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네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7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8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9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10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11하나님이
네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네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네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네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12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13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 대느냐?

14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15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16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17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 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18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19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결길로 꺾어 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20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21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22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23날짐승이
그의 주검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24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25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26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27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28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29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30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31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32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33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34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35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욥의 대답

JOB 16 욥이 대답하였다.

2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3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4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없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5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6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7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8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양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9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 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10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11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 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12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과녁을 삼으시니,

13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 내신다.

14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15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 있다.

16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17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18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19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20 a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a 또는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21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뢴다.

22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JOB 17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2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3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5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6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8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9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10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11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12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13내 유일한 희망은,
a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a 히, '스올')

14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15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16 내가 a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a 히, '스올')

빌닷의 두 번째 발언

JOB 18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2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3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4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5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6 그의 집 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7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꼬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8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9 그의 발뒤꿈치는 밧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질 것이다.

10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밧이 그를 노린다.

11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 주지 않을 것이다.

12 악인이 것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13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14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15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 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16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17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18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19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21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욥의 대답

JOB 19 욥이 대답하였다.

2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3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4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5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6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7"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8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9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10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11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12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13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 버렸다.

14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15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16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17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18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19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20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21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22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23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24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25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26a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b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a 또는 '내가 깬 다음에, 비록 이 몸은 다 썩어도 그 때에 내가' b 또는 '육체 밖에서라도' 또는 '육체를 지닌 채')

27내가 그를 직접 뵈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뵈 때에,
하나님이 낮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28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29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c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c 또는 '전능하신 분을 알게 될 것이다')

2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3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4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a**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a** 또는 '아담') **5**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6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7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8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9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10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11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12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13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14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 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 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 버렸다.

15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 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16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17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18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19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20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21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한다.

22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23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 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24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25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26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삼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질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28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29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 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욥의 대답

JOB 21 욥이 대답하였다.

2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3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4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5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6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7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8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나?

9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10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뱉 때마다
잘도 낳는다.

11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 놓으면,

양 떼처럼 뛰논다.

12 소구와 거문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13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a스올로 내려간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4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15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16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17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18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19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20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21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22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23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24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25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 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26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27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28 너희의 말이
"세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29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 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30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 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31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32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33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져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 준다고 한다.

34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

JOB 22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2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3 네가 옳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4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5 오히려 네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6네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7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8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9너는 과부들을
빈 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10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 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11어둠이 덮쳐서
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12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13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14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15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16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17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18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19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20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21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22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23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네 집 안에서 내버려라.

24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25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네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26 그 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네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27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28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빛이 네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29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30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욥의 대답

JOB 23 욥이 대답하였다.

2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3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4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5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6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7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8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뵈 수가 없구나.

9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뵈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뵈 수가 없구나.

10하나님은
내가 밭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11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12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13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14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15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16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17 내가 무서워 떤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JOB 24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2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족을 빼앗아
제 우리에게 집어 넣는 사람도 있고,

3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4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흠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5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6 가을걷이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꺾어 모은다.

7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 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8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9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10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11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12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 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하신다.

13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 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 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14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15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16 도둑들은
대낮에 털 집을 보아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17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18^a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a 18-25절에 소발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소발의 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19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b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20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21 과부를 등쳐 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22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 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23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알이 살피신다.

24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25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빌닷의 세 번째 발언

JOB 25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2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3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달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4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5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6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욥의 대답

JOB 26 욥이 대답하였다.

2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3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4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거냐?

5^a죽은 자들이 떴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a 5-14절에 빌닷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빌닷의 말이
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6^b스올도 하나님께는 흰하게 보이고,
^c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흰하게 보인다.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c 히, '아바돈')

7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8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9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10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11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12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해로 d라합을 쳐부순다. (d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함)

13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 치는 바다 괴물을 찢러 죽인다.

14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
JOB 27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2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3 내게 호흡이 남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 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한,

4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5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6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7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8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려 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9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10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11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12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13^a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a 13-23절에 소발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소발의 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14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15 살아 남은 사람은
또 염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 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16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17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18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19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날에 눈을 떠 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20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 갈 것이다.

21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 갈 것이다.

22 도망 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 닥쳐서,
그들을 날려 버릴 것이다.

23 도망 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 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지혜를 찬양하다

JOB 28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제련소도 있다.

2 철은 흙에서 캐어 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3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 구석에서
광석을 캐어 낸다.

4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갯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5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6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7 술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8 겁 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 곳을 밟아 본 적이 없다.

9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10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11 강의 근원을 a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a 칠십인역과 아퀼라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독으로 막고')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13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14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15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16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17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18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19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20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21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22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b 히, '아바돈')

23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24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25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 보시던 그 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 보시던 그 때에,

26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 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 때에,

27바로 그 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28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욥의 마지막 발언

JOB 29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2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3 그 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4 내가 것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5 그 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6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밭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건만.

7 그 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8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 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9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10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11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12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13비참하게 죽어 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14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15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16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17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18그래서 나는 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19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20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21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22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23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24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25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 주곤 하였건만.

JOB 30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2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3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물골이 흥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a풀뿌리나 씹으며, (a 또는 '방랑하며')

4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물을 캐어 먹으며,
대싸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5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 버리곤 하였다.

6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7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8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9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 버렸다.

10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11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12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13그들은
내가 도망 가는 길마저 막아 버렸다.

b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b** 또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나를 파멸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4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15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엄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튼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16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17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18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c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감으신다. (c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나에게 옷과 같이 되시어서')

19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20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체도 않으십니다.

21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22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23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4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25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26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27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28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 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29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 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30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 버렸다.

31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JOB 31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2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a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a 히, '샤다이')

3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4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날날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5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6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 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7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리어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8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9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10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11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12그것은 사람을 b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b 히, '아바돈')

13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14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15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16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 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체 한 일도 없다.

17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18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19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20 내가 기른 양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21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22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깻죽지에서 빠져 나와도
할 말이 없다.

23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24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25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26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27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8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29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30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31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32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 주지 않은 적도 없다.

33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34c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c 히, '아담이 하였듯이')

35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a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a 히, '샤다이')

36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37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알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38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39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40내 밭에서
밀 대신 찰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엘리후의 발언(32:1-37:24)

JOB 32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²욕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므로, 옆에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³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a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a 고대 히브리 서기관의 전통에는 '그 세 친구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⁴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⁵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⁶○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엘리후의 말

나는 어리고,

^b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b 히, 2인칭 복수. 이하 엘리후의 말 속에서도)

⁷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⁸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c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c 히, '샤다이')

⁹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¹⁰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12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웁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13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웁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4 웁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웁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15 웁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16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17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19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20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21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22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JOB 33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 속에서 허가 말을 합니다.

3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5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6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7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기를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8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10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11하나님이 내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그러나 내가
옳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13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14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15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16바로 그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17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18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19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십니다.

20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21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22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3그 때에
하나님의 천사 천 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24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 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25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26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7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28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29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30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1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32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들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33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JOB 34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2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4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옴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6또 옴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7도대체 옴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9"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10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11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 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12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13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14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15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흠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16웁 어른,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웁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8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 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19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20사람은 삼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21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날날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22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23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24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일을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25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26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27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8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29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30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 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31웁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2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3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35 옳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 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6 옳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37 옳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JOB 35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2 옳 어른은
a'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a 또는 '내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하다')

3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b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b 또는 '나에게')

4이제 어른과 세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5옴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6비록 옴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7또 옴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8옴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옴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9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10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1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2그들이 거만하고 악하므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체도 않으십니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14 옴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 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15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16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JOB 36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2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4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옴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5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 하시므로,

6악한 사람을 살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7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같이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8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죄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9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10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11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12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13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14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15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16하나님은 옴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17그러나 이제 옴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18옴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19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20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21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줄 것입니다.

22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23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24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옳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25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26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행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27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28구름 속에 싸 두셨다가
뭇 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29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0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31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32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33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JOB 37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2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3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4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엄찬 천둥소리가 울립니다.

5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6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7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8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9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10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 버립니다.

11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12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둥게둥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의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13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14 옅어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5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16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17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18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낫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19 어디 한 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21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22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23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24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다

JOB 38 그 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2"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4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것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5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6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7그 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a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a** 히, '하나님의 아들들')

8바닷물이 땅 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9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10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11"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12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13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 내게 한 일이 있느냐?

14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15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흰히 밝힌다.

16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17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18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한 번 들어 보자.

19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20빛과 어둠이 있는 그 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 곳을 보여 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21 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느라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22 눈을 쌓아 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23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24 해가 뜨는 곳에 가 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 본 적이 있느냐?

25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26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27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날기라도 하였느냐?

29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31네가 북두칠성의 별 때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때를
풀 수 있느냐?

32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큰곰자리와 그 별 때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33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34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35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네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36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 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 주는 이가 누구냐?

37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38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39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 줄 수 있느냐?

40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41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JOB 39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 본 일이 있느냐?

2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3언제 구푸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 놓는지를
아느냐?

4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5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쌔게 나귀에게
매인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6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7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8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9 들소가 네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네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10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매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네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11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12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타작 마당에 쌓아 줄 것 같으냐?

13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14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16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17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타조가
한 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19 뚝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달아 준 것이

너냐?

20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21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 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22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23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24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25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 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26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네게서 배운 것이냐?

27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28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29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30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JOB 40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2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3○그 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4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5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6○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7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8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9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10어디 한 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11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12모든 교만한 자를 살피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13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누어 보아라.

14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15 ^a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a 하마나 코끼리와 같은 짐승)

16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17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18 뼈대는 놋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빛장과 같다.

19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20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21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22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넋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23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24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쫓 수 있느냐?

JOB 41 네가 낚시로

^a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a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2 그 코를 줄로 쫓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쫓을 수 있느냐?

3 그것이 네게

살려 달라고 애원할 것 같느냐?

그것이 네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4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5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매어서
여종들의 노리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6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 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7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8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9 a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a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10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11 그것에게 덤벼 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12 a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늑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a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13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돌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15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뻑뻑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16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17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꼭 달라붙어서,
그 얇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18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19 입에서는 헛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20 콧구멍에서 펄펄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21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22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23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24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 짝과 같다.

25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 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26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27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낮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28 그것을 쏘아서 도망 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릿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29 뭉둥이는 지푸라기썸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30뱃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할퀴 진흙 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31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32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33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굽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34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욥의 회개

JOB 42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2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3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4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6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결론

7○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9그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심

10○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11**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12**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만 사천 마리, 낙타를 육천 마리, 소를 천 겨리, 나귀를 천 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13**그리고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 **14**첫째 딸은 a여미마, 둘째 딸은 b긋시아, 셋째 딸은 c게렌합복이라고 불렸다.(a '비둘기' b '계피 향' c 화장도구, 특히 눈화장에 사용) **15**땅 위의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16○그 뒤에 욥은 d백사십 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다.(d 칠십인역에는 '이백사십 년') **17**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Footnotes

Footnote from Job 1:5 ([Back](#))

[\[1\]](#) **1:5** The Hebrew word *bless* is used euphemistically for *curse* in 1:5, 11; 2:5, 9

Footnote from Job 1:6 ([Back](#))

[\[2\]](#) **1:6** Hebrew *the Accuser* or *the Adversary*; so throughout chapters 1–2

Footnote from Job 1:15 ([Back](#))

[\[3\]](#) **1:15** Hebrew *the young men*; also verses 16, 17

Footnote from Job 2:10 ([Back](#))

[\[1\]](#) **2:10** Or *disaster*; also verse 11

Footnote from Job 3:24 ([Back](#))

[\[1\]](#) **3:24** Or *like*; Hebrew *before*

Footnote from Job 4:6 ([Back](#))

[\[1\]](#) 4:6 Hebrew lacks *of God*

Footnote from Job 4:17 ([Back](#))

[\[2\]](#) 4:17 Or *more tha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Job 5:5 ([Back](#))

[\[1\]](#) **5:5**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5:5 ([Back](#))

[\[2\]](#) **5:5** Aquila, Symmachus, Syriac, Vulgate; Hebrew could be read as *and the snare pants*

Footnote from Job 5:5 ([Back](#))

[\[3\]](#) 5:5 Hebrew *their*

Footnote from Job 5:19 ([Back](#))

[\[4\]](#) **5:19** Or *disaster*

Footnote from Job 5:27 ([Back](#))

[\[5\]](#) 5:27 Hebrew *for yourself*

Footnote from Job 6:6 ([Back](#))

[\[1\]](#) 6:6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6:7 ([Back](#))

[\[2\]](#) 6:7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6:10 ([Back](#))

[\[3\]](#) **6:10**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6:14 ([Back](#))

[\[4\]](#) **6:14** Syriac, Vulgate (compare Targum);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8:14 ([Back](#))

[\[1\]](#) **8:14** Hebrew *house*

Footnote from Job 9:15 ([Back](#))

[\[1\]](#) **9:15** Or *to my judge*

Footnote from Job 9:19 ([Back](#))

[\[2\]](#) **9:19** Compare Septuagint; Hebrew *me*

Footnote from Job 9:23 ([Back](#))

[\[3\]](#) **9:23**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9:33 ([Back](#))

[\[4\]](#) **9:33** Or *Would that there were an*

Footnote from Job 10:16 ([Back](#))

[\[1\]](#) **10:16** Hebrew lacks *my head*

Footnote from Job 11:4 ([Back](#))

[\[1\]](#) 11:4 Hebrew *your*

Footnote from Job 11:6 ([Back](#))

[\[2\]](#) **11:6**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11:8 ([Back](#))

[\[3\]](#) **11:8** Hebrew *The heights of heaven*

Footnote from Job 12:6 ([Back](#))

[\[1\]](#) **12:6**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12:8 ([Back](#))

[\[2\]](#) 12:8 Or *speak to the earth*

Footnote from Job 12:13 ([Back](#))

[\[3\]](#) 12:13 Hebrew *him*

Footnote from Job 13:15 ([Back](#))

[\[1\]](#) **13:15** Or *Behold, he will slay me; I have no hope*

Footnote from Job 13:27 ([Back](#))

[\[2\]](#) 13:27 Or *you marked*

Footnote from Job 13:28 ([Back](#))

[\[3\]](#) 13:28 Hebrew *He*

Footnote from Job 14:6 ([Back](#))

[\[1\]](#) **14:6** Probable reading; Hebrew *look away from him, that he may cease*

Footnote from Job 14:14 ([Back](#))

[\[2\]](#) 14:14 Or *relief*

Footnote from Job 15:4 ([Back](#))

[\[1\]](#) 15:4 Hebrew lacks *of God*

Footnote from Job 15:15 ([Back](#))

[\[2\]](#) **15:15** Hebrew *he*

Footnote from Job 15:29 ([Back](#))

[\[3\]](#) **15:29** Or *nor will his produce bend down to the earth*

Footnote from Job 16:7 ([Back](#))

[\[1\]](#) 16:7 Hebrew *you have*; also verse 8

Footnote from Job 16:21 ([Back](#))

[\[2\]](#) **16:21** Hebrew *and*

Footnote from Job 17:12 ([Back](#))

[\[1\]](#) **17:12**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19:12 ([Back](#))

[\[1\]](#) 19:12 Hebrew *their way*

Footnote from Job 19:25 ([Back](#))

[\[2\]](#) **19:25** Hebrew *dust*

Footnote from Job 19:26 ([Back](#))

[\[3\]](#) 19:26 Or *without*

Footnote from Job 20:23 ([Back](#))

[\[1\]](#) 20:23 Hebrew *he*

Footnote from Job 20:28 ([Back](#))

[\[2\]](#) 20:28 Hebrew *his*

Footnote from Job 21:17 ([Back](#))

[\[1\]](#) 21:17 Hebrew *he*

Footnote from Job 21:24 ([Back](#))

[\[2\]](#) **21:24**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22:17 ([Back](#))

[\[1\]](#) 22:17 Hebrew *them*

Footnote from Job 22:29 ([Back](#))

[\[2\]](#) **22:29** Or *you say*, “*It is exaltation*”

Footnote from Job 23:2 ([Back](#))

[\[1\]](#) 23:2 Or *defiant*

[\[2\]](#) 23:13 Or *one*

Footnote from Job 24:5 ([Back](#))

[\[1\]](#) 24:5 Hebrew *they*

Footnote from Job 24:6 ([Back](#))

[\[2\]](#) 24:6 Hebrew *his*

Footnote from Job 24:11 ([Back](#))

[\[3\]](#) **24:11** Hebrew *their olive rows*

Footnote from Job 24:22 ([Back](#))

[\[4\]](#) 24:22 Hebrew *he*

Footnote from Job 25:2 ([Back](#))

[\[1\]](#) 25:2 Hebrew *him*

Footnote from Job 26:6 ([Back](#))

[\[1\]](#) 26:6 Hebrew *him*

Footnote from Job 26:9 ([Back](#))

[\[2\]](#) 26:9 Or *his throne*

Footnote from Job 27:22 ([Back](#))

[\[1\]](#) **27:22** Or *He* (that is, God); also verse 23

Footnote from Job 27:22 ([Back](#))

[\[2\]](#) 27:22 Or *his*; also verse 23

Footnote from Job 28:6 ([Back](#))

[1] 28:6 Or *lapis lazuli*; also verse 16

Footnote from Job 29:4 ([Back](#))

[\[1\]](#) 29:4 Hebrew *my autumn days*

Footnote from Job 30:4 ([Back](#))

[\[1\]](#) 30:4 Or *warmth*

Footnote from Job 30:11 ([Back](#))

[\[2\]](#) **30:11** Hebrew *the bridle*

Footnote from Job 30:19 ([Back](#))

[\[3\]](#) 30:19 Hebrew *He*

Footnote from Job 30:24 ([Back](#))

[\[4\]](#) **30:24**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31:8 ([Back](#))

[\[1\]](#) **31:8** Or *let my descendants*

Footnote from Job 31:18 ([Back](#))

[\[2\]](#) **31:18** Hebrew *he*

Footnote from Job 31:18 ([Back](#))

[\[3\]](#) **31:18** Hebrew *her*

Footnote from Job 31:20 ([Back](#))

[\[4\]](#) **31:20** Hebrew *if his loins have not blessed me*

Footnote from Job 31:26 ([Back](#))

[\[5\]](#) **31:26** Hebrew *the light*

Footnote from Job 31:33 ([Back](#))

[\[6\]](#) **31:33** Or *as Adam did*

Footnote from Job 32:9 ([Back](#))

[\[1\]](#) 32:9 Hebrew *many* [in years]

Footnote from Job 33:13 ([Back](#))

[\[1\]](#) **33:13** Hebrew *his*

Footnote from Job 33:13 ([Back](#))

[\[2\]](#) **33:13** Or *He will not answer for any of his own words*

Footnote from Job 33:26 ([Back](#))

[\[3\]](#) 33:26 Hebrew *he*

Footnote from Job 34:13 ([Back](#))

[\[1\]](#) **34:13** Hebrew lacks *on him*

Footnote from Job 34:23 ([Back](#))

[\[2\]](#) **34:23** Hebrew *he*

Footnote from Job 34:33 ([Back](#))

[\[3\]](#) **34:33** The meaning of the Hebrew in verses 29–33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35:9 ([Back](#))

[\[1\]](#) 35:9 Or *the many*

Footnote from Job 35:15 ([Back](#))

[\[2\]](#) **35:15** Theodotion, Symmachus (compare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36:33 ([Back](#))

[\[1\]](#) **36:33** Hebrew *declares concerning him*

Footnote from Job 37:4 ([Back](#))

[\[1\]](#) 37:4 Hebrew *them*

Footnote from Job 37:16 ([Back](#))

[\[2\]](#) **37:16** Or *hoverings*

Footnote from Job 37:24 ([Back](#))

[\[3\]](#) 37:24 Hebrew *in heart*

Footnote from Job 38:3 ([Back](#))

[\[1\]](#) **38:3** Hebrew *Gird up your loins*

Footnote from Job 38:32 ([Back](#))

[\[2\]](#) **38:32** Probably the name of a constellation

Footnote from Job 38:36 ([Back](#))

[\[3\]](#) **38:36** Or *in the ibis*

Footnote from Job 38:36 ([Back](#))

[\[4\]](#) 38:36 Or *rooster*

Footnote from Job 39:13 ([Back](#))

[\[1\]](#) **39:13**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39:18 ([Back](#))

[\[2\]](#) **39:18**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b 39:21 ([Back](#))

[\[3\]](#) 39:21 Hebrew *They paw*

Footnote from Job 40:7 ([Back](#))

[\[1\]](#) 40:7 Hebrew *Gird up your loins*

Footnote from Job 40:13 ([Back](#))

[\[2\]](#) **40:13** Hebrew *in the hidden place*

Footnote from Job 40:15 ([Back](#))

[\[3\]](#) **40:15** A large animal, exact identity unknown

Footnote from Job 40:19 ([Back](#))

[\[4\]](#) 40:19 Hebrew *ways*

Footnote from Job 40:24 ([Back](#))

[\[5\]](#) 40:24 Or *in his sight*

Footnote from Job 41:1 ([Back](#))

[\[1\]](#) **41:1** Ch 40:25 in Hebrew

Footnote from Job 41:1 ([Back](#))

[\[2\]](#) **41:1** A large sea animal, exact identity unknown

Footnote from Job 41:9 ([Back](#))

[\[3\]](#) **41:9** Ch 41:1 in Hebrew

Footnote from Job 41:15 ([Back](#))

[\[4\]](#) **41:15** Or *His pride is in his*

Footnote from Job 41:25 ([Back](#))

[\[5\]](#) 41:25 Or *gods*

Footnote from Job 42:6 ([Back](#))

[\[1\]](#) 42:6 Or *and am comforted*

Footnote from Job 42:11 ([Back](#))

[\[2\]](#) **42:11** Or *disaster*

Footnote from Job 42:11 ([Back](#))

[\[3\]](#) **42:11** Hebrew *a qesitah*; a unit of money of unknown value

시편

[\(return to table of contents\)](#)

[Psalm 1](#) • [Psalm 2](#) • [Psalm 3](#) • [Psalm 4](#) • [Psalm 5](#) • [Psalm 6](#) • [Psalm 7](#) • [Psalm 8](#) • [Psalm 9](#)
• [Psalm 10](#) • [Psalm 11](#) • [Psalm 12](#) • [Psalm 13](#) • [Psalm 14](#) • [Psalm 15](#) • [Psalm 16](#) • [Psalm 17](#)
• [Psalm 18](#) • [Psalm 19](#) • [Psalm 20](#) • [Psalm 21](#) • [Psalm 22](#) • [Psalm 23](#) • [Psalm 24](#) • [Psalm 25](#)
• [Psalm 26](#) • [Psalm 27](#) • [Psalm 28](#) • [Psalm 29](#) • [Psalm 30](#) • [Psalm 31](#) • [Psalm 32](#) • [Psalm 33](#)
• [Psalm 34](#) • [Psalm 35](#) • [Psalm 36](#) • [Psalm 37](#) • [Psalm 38](#) • [Psalm 39](#) • [Psalm 40](#) • [Psalm 41](#)
• [Psalm 42](#) • [Psalm 43](#) • [Psalm 44](#) • [Psalm 45](#) • [Psalm 46](#) • [Psalm 47](#) • [Psalm 48](#) • [Psalm 49](#)
• [Psalm 50](#) • [Psalm 51](#) • [Psalm 52](#) • [Psalm 53](#) • [Psalm 54](#) • [Psalm 55](#) • [Psalm 56](#) • [Psalm 57](#)
• [Psalm 58](#) • [Psalm 59](#) • [Psalm 60](#) • [Psalm 61](#) • [Psalm 62](#) • [Psalm 63](#) • [Psalm 64](#) • [Psalm 65](#)
• [Psalm 66](#) • [Psalm 67](#) • [Psalm 68](#) • [Psalm 69](#) • [Psalm 70](#) • [Psalm 71](#) • [Psalm 72](#) • [Psalm 73](#)
• [Psalm 74](#) • [Psalm 75](#) • [Psalm 76](#) • [Psalm 77](#) • [Psalm 78](#) • [Psalm 79](#) • [Psalm 80](#) • [Psalm 81](#)
• [Psalm 82](#) • [Psalm 83](#) • [Psalm 84](#) • [Psalm 85](#) • [Psalm 86](#) • [Psalm 87](#) • [Psalm 88](#) • [Psalm 89](#)
• [Psalm 90](#) • [Psalm 91](#) • [Psalm 92](#) • [Psalm 93](#) • [Psalm 94](#) • [Psalm 95](#) • [Psalm 96](#) • [Psalm 97](#)
• [Psalm 98](#) • [Psalm 99](#) • [Psalm 100](#) • [Psalm 101](#) • [Psalm 102](#) • [Psalm 103](#) • [Psalm 104](#)
• [Psalm 105](#) • [Psalm 106](#) • [Psalm 107](#) • [Psalm 108](#) • [Psalm 109](#) • [Psalm 110](#) • [Psalm 111](#)
• [Psalm 112](#) • [Psalm 113](#) • [Psalm 114](#) • [Psalm 115](#) • [Psalm 116](#) • [Psalm 117](#) • [Psalm 118](#)
• [Psalm 119](#) • [Psalm 120](#) • [Psalm 121](#) • [Psalm 122](#) • [Psalm 123](#) • [Psalm 124](#) • [Psalm 125](#)
• [Psalm 126](#) • [Psalm 127](#) • [Psalm 128](#) • [Psalm 129](#) • [Psalm 130](#) • [Psalm 131](#) • [Psalm 132](#)
• [Psalm 133](#) • [Psalm 134](#) • [Psalm 135](#) • [Psalm 136](#) • [Psalm 137](#) • [Psalm 138](#) • [Psalm 139](#)
• [Psalm 140](#) • [Psalm 141](#) • [Psalm 142](#) • [Psalm 143](#) • [Psalm 144](#) • [Psalm 145](#) • [Psalm 146](#)
• [Psalm 147](#) • [Psalm 148](#) • [Psalm 149](#) • [Psalm 150](#)

참된 행복

PSALM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오로지 주님의 **a**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b묵상하는 사람이다. (**a** 히, '토라'. 교훈, 가르침의 뜻 **b** 또는 '율조리는')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4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쭈정子和 같다.

5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6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님이 선택한 왕

PSALM 2 어찌하여 뭇 나라가
a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a** 칠십인역에는 '격노하며')

2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3"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4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5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6"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b'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b 또는 '왕을')

7"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8내게 청하여라.
못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9네가 그들을 c철폐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10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11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12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른 아침 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PSALM 3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2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a(셀라) (a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뜻이 확실하지 않음. 음악 용어로 알려져 있음)

3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b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b 또는 '영광의 하나님')

4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5 내가 누워 곤하게 잠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6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7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8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저녁 기도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4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2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a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a 또는 '영광의 하나님을')

3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4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5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6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 주십시오.

7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 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큼니다.

8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5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나의 탄식 소리를
귀 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3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4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5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6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7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8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9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 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침만 일삼습니다.

10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11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12 주님,
주님께서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환난 때의 기도

[지휘자를 따라 **a**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6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a 히, '스미닛'. 음악 용어)
2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3 내 마음은 걸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4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5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b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6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7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쌀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8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9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10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주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신다

[다윗의 **a**식가욀,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PSALM 7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3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4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악탈했다면,

5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6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7못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8주님께서는
못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9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날날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0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11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12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13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14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15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렁이에 그가 빠진다.

16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17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

[지휘자를 따라 **a**깃딛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8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a 음악 용어)
2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3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4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5주님께서는 그를
b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b 또는 '천사보다'. 히, '엘로힘')
6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7크고 작은
온갖 짐짐승과 들짐승까지도,
8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9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님 찬양

[a지휘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9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쉬임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a 시 9-10편은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칠십인역에는 한 편의 시로 묶여 있음)

2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3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4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5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6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7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8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9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10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11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12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 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체하지 않으신다.

13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피 주십시오.

14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15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 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16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

b(헝가른, 셀라) (b '명상', 음악 용어)

17악인들이 갈 곳은 c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못 나라들이 갈 곳도
그 곳뿐이다. (c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8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19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20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도움을 구하는 기도

PSALM 10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2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 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해주십시오.
3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4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별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5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6그는 마음 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라.
나에게는 언제나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7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8그들은 으스스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9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갑니다.

10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11악인은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12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3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14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15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살살이 살피
벌하여 주십시오.

16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7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18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1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3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a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a 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4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5b 주님은 의인을 가려 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b 또는 '주님, 곧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가려내시고, 폭력배를.....')
6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몹으로 안겨 주신다.
7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a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2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a 히, '스미닛'. 음악 용어)

2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3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4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b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b 또는 '보습')

5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6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러 낸 순은이다.

7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8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3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2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 나를 굶어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4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5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6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4 a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a 시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가리킴)

2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굶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3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5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6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7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의 시]

PSALM 15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2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3허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4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5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

PSALM 16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까.

3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까.

4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5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6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7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8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b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b 히, '스울')

11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

[다윗의 기도]

PSALM 17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3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심문하시며
살살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4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5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6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7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8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시고,

9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0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12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13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14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 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15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뵈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뵈올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송(삼하 22:1-51)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PSALM 18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a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a '뿔'은 힘을 상징함)

3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4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5b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6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7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8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튀기면서 돌아올랐다.

9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질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10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11어둠을 장막삼아 두르시고
빛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질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12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질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13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c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c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일부와 칠십인역에는 이 행이 없음(삼하 22:14에서도))

14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흘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15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כותים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16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7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18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19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20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21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22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3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24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25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27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28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29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d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d 또는 '방어벽을 뚫을 수 있으며')

30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31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32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33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34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낫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35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 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피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36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37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8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39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40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41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2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43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44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45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 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46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47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48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49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50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할 율법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9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2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3^a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a 또는 '그들은 이야기가 없다. 말도 없다. 그들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4 그 **b**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b** 칠십인역과 제롬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줄')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7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8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10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12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날날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13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20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4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7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8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곳곳이 섭니다.

9^a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a 또는 '임금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21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시므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므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2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3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 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4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5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6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7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잇달아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8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9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10임금님께서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11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12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13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고난과 찬양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22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려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하십니다.

3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4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5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6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7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알밉게 빈정댑니다.

8"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9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10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1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12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13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14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 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쪼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15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 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16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17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양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18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19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20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21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2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23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24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25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26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27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8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29^a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a 마소라 사본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먹고 경배할 것이
다'로 읽고 있다)

30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31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선한 목자

[다윗의 노래]

PSALM 23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섶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3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내가 비록
^a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a 또는 '아주 캄캄한 골짜기로')

5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윗의 시]

PSALM 24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2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3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5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a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a 또는 '구원자 되시는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6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b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야곱아, 네 얼굴을')

7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8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9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10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

[a다윗의 시]

PSALM 25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a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2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3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4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5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6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 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7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8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게,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9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경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10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11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2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3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14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15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16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18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피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19내 원수들을 지켜 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20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22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의 기도

[다윗의 시]

PSALM 26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 주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3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4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5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6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7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8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9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0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찬양의 기도

[다윗의 시]

PSALM 27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2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3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4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6그 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7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8주님께서 나더러
"a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b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a 또는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b 또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
을 찾겠습니다')

9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11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2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13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14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의 시]

PSALM 28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2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3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4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십시오.

5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 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6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7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8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9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폭풍속 주님의 음성

[다윗의 시]

PSALM 29 하나님을 모시는

a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a** 히, '신의 아들들아')

2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3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4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5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찢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찢개신다.

6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b시론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b** 헤르몬 산)

7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8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9주님의 목소리가,
c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 하고 외치는구나. (**c** 또는 '단단한 상수리나무들을 뒤흔드리게 하시고')

10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11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감사의 기도

[성전 봉헌가, 다윗의 시]

PSALM 30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2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3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5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6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7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 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8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9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10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11주님께서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12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31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2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3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4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5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7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8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9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0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 버렸고,
뼈마저 녹아 버렸습니다.

11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12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13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5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6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17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18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19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20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21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22 내가 포위되었을 그 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23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 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24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용서받은 기쁨

[다윗의 **a**마스길]

PSALM 32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3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4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5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6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7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 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8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9"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10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11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PSALM 33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열 줄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3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4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5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6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7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a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 (a 또는 '무더기로 쌓아 놓으셨고')

8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9한 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10주님은, 못 나라의 도모를 흠으시고,
못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11주님의 모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12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13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알이 살펴보신다.

14계시는 그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 보신다.

15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16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17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8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19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20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1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22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공경하라

[a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PSALM 34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a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2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3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4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5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6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7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8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9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0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1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12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13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4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15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6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17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18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20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 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21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22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원수에게서 보호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다윗의 시]

PSALM 35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2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3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 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4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케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5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6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7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8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9그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10"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11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12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13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굶은 배 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14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15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새 없이 나를 찢었다.

16 a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a 칠십인역을 따름. 히, '경건하지 못한 조롱자들의 무리와 같
이')

17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18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19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0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21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22 주님,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24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5 그들이 마음 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26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27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28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PSALM 36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2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 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4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5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6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7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8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9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1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11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12 그 때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주님을 신뢰하라

[a다윗의 시]

PSALM 37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a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2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3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4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5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6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 하지 말아라.

8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9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10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1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12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13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14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15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16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17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18흙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19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20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21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22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23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24 어쩌다 비틀거리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25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6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27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28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29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30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31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33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 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34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35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36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37 흠 없는 사람을 지켜 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b미래가 있으나, (b 또는 '자손이 번성할 것이나')

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c미래가 없을 것이다. (c 또는 '자손이')

39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40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

PSALM 38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2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3 주님께서 노하시므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4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5내 몸의 상처가 끓아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6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7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8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9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10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11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12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13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병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4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15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16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7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18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19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20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21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22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용서를 비는 기도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39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2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 갔다.

3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4"주님 알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5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날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6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7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8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9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11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12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13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40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2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3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4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5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6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7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8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9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10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11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12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 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13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14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15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16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17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 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41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2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3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4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5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 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6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 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댁니다.

7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8"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댁니다.

9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10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11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12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13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모함

a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b**마스길, 고라 자손의 노래

PSALM 42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혈떡입니다. (a 시 42편과 43편은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서 한
편의 시로 묶여 있음 b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뵈올 수 있을까?
3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4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5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6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7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8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10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a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a** 시 42편과 43편은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서 한
편의 시로 묶여 있음)

PSALM 43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2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⁴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⁵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도움을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a**마스길]

PSALM 44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날날이 일러주었습니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²하나님께서 못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습니다.
못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³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b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하나님, 주
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의 구원을 명하십시오')

5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6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7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8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9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10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11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12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혈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14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15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16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17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18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19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20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21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22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23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24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25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쳐졌습니다.

26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왕실 혼인 잔치를 위하여

[지휘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a**마스길, 사랑의 노래]

PSALM 45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숨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3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4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5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6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7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8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푹겨 나고,
상아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9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10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거래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11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을 높이십시오.

12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13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14오색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15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16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7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지휘자를 따라 **a**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PSALM 46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a** 음악 용어)

2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4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5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6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7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8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9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b방패를 불사르신다. (b 또는 '병거를')

10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11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신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PSALM 47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2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3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뭇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4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5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6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7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8하나님은
뭇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9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a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a 또는 '방패들은')

하나님의 성, 시온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PSALM 48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2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 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 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3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4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 왔다가

5시온 산을 보자 마자 났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6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7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8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9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10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11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 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12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13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14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PSALM 49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2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4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5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7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8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9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a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집이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여 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겨 두었다')

12^b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12절과 20절이 같음)

13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14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15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16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17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18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19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20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삽의 노래]

PSALM 50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모으신다.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3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4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5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6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7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8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9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10숲 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11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12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13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15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16하나님께서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17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꺾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18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19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20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21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a'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 앞에 너희의 죄상을
날날이 밝혀 보이겠다. (a 히, '에히예(나는.....이다 / 있다)')

22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23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b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b 히, '준비하는' 또는 '뉘는')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밋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PSALM 51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2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3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4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5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6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8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9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10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12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13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4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15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16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7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8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19 그 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a**마스길,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PSALM 52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쉬임 없이 자랑하느냐?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3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4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5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6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7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8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9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지휘자를 따라 **a**마할랏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마스길]

PSALM 53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a 음악 용어)

2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3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4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5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흫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6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마스길, 십 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PSALM 54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2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4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5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6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7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함

PSALM 55 하나님,

내 기도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멧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3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멧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4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6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7 내가 멀리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8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9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 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10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11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12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13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14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15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 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 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16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17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18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19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20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21 그의 입은
영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 든 비수로구나.

22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23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a**요낏 엘렘 르호킴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b**막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PSALM 56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a** '먼 느티나무 위의 비둘기 한 마리' **b** 문학 또는 음
악 용어)

2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3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4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5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6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7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못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8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c주님의 가족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c 또는 '주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십시오')

9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11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12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3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

[지휘자를 따라 **a**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b**막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PSALM 57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a '파괴하지 말아라' b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3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4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5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6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 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7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8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9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10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11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어치십시오.

민사가 잘못될 때의 기도

[지휘자를 따라 **a**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b**막담]

PSALM 58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a '파괴하지 말아라' b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3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빛나갔구나.
4 그들은 독사처럼 독기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5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6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7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8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9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10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11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보호를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a**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b**막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PSALM 59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a '파괴하지 말아라' b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3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5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6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 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7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8그러나 주님,
주님께서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못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9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10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11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12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13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14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 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15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16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17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존하여라

[다윗이 교훈을 하려고 지은 **a**막담, 지휘자를 따라 **b**수산 에돏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
윗이 **c**'아람 나하라임'과 **d**'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
돏 군 만 이천 명을 죽였다. 그 때에 다윗이 지은 시]

PSALM 6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흘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b** '언약의 나리꽃' **c** 메소포타
미아 서북 지방의 아람 사람들 **d** 시리아 중부 지방의 아람 사람들)

2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3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4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5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6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7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낏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8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9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10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11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12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61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2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3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5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6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8 그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친절하시다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62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2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3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4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5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6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7a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a 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영예이시다')

8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9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10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빠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11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12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PSALM 63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2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뵙니다.

3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6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7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8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9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10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주검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11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64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2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 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3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설을 뱉아 냅니다.

4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5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a"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a 또는 '누가 그들을 볼 것이냐?')

6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7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8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9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10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찬송시]

PSALM 65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립니다.

2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3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a용서하여 주십니다. (a 또는 '속죄하여 주십니다')

4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5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므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6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7주님께서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8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떨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9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0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 돌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11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12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13목장마다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PSALM 66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2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3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4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5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6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7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못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8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9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 주신다.

10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11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12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3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14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뢴 것입니다.

15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16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17나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18내가 마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19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20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시]

PSALM 67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2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4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5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6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7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찬송시]

PSALM 68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2연기가 날려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3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4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a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a 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에게')

5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6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갈힌 사람들을 풀어 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7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 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8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 내렸습니다.

9하나님,
주님께서 흠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10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1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12"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 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13비록 그 여인들이 그 때에
양 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14^b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흠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b 히, '샤다이')

15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16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17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18주님께서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 왔습니다.

19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20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21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22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23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네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24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25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 치며 찬양하기를

26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27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28 c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c 많은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30 갈대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뭇 나라의 황소 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흘어 주십시오.

31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d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d 또는 '누비아'.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32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33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34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35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휘자를 따라 **a**소산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69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a '나리꽃')

2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 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갑니다.

3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4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흠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

5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6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7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8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낮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9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10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1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12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13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 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4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렁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6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17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8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9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21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22 그들 앞에 차려 놓은 잔칫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덧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24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25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6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27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 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8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29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30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31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32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33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갈려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체하지 않으신다.

34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36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념식에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PSALM 70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2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3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4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5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PSALM 71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2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3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4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5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6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7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8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9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10 내 원수들이 나를 혈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1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 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12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13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14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15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16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 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17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18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19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20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21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2내가 거문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23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24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PSALM 72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2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4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5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 하도록,
a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a** 칠십인역에는 '왕이 천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6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7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8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b**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b** 유프라테스)

9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10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11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12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13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14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15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16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17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18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삽의 노래]

PSALM 73 하나님은,

a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a 히, '이스라엘에게')

2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3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4b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b 같은 자음 본문을 달리 끊어 읽으면 '그들은 평생 갈
등도 없이 살며')

5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으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6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7c그들은 피동피동 살이 찢어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c 시리아어역(칠십인역도)에는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서
는 악이 나오고')

8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9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10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11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12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13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14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15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6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7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19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20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21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찢린 듯이 아파도,

22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23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5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26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27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환난 때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삽의 **a**마스길]

PSALM 74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 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 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3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놓아 주십시오.

4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5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 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6그들은 도끼와 쇠파리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7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8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 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뵈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9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0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11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12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3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b타닌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b 타닌은 바다 괴물의 이름임)

14 c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c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의 이름임)

15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16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17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18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19 주님께서
멧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1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22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23주님께 항거해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여라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a'**알다스헛'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75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a'**파괴하지 말아라')

2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3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4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5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6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7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8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까지도 활아야 한다.

9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10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이기신다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76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2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3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4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큼니다.

5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6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7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8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9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10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11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12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환난 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

[아삽의 시,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77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 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3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4주님께서 나를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5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6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7"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8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린 것일까?

9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10그 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 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11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12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13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14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15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16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뵈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뵈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17 구름이 물을 쏟아 내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18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19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

[아삽의 **a**마스길]

PSALM 78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2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 주겠다.

3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4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5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6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7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8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9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10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11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12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13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14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15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16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17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18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19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20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21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22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24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25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 주셨다.

26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27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 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 주셨다.

28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29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30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31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32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 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33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34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35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36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37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38그런데도 그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39하나님께서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40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41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42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43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44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45파리를 쏘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46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47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48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 떼를 번개로 치셨다.

49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

50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염병에 넘겨 주셨다.

51이집트의 맏아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52그는 백성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 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53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 버렸다.

54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55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56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57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빛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엮나갔다.

58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59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60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61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62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63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 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64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 하였다.

65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66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67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68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 산을 뽑으셨다.

69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70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71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72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삽의 시]

PSALM 79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2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3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5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6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7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8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9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10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11갈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

12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13그 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립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립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PSALM 80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롭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a '언약의 나리꽃')

2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3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4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5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6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7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8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뭇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9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10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11그 가지는 b지중해에까지 뻗고,
새 순은 c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b 히, '그 바다' c 히, '그 강')

12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13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14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15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d헛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d 또는 '아들')

16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17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 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18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19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a깃딛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81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a 음악 용어)

2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거문고를 타라.

3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4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5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6"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7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 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므리바 물 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셀라)

8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9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10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 주겠다' 하였으나,

11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12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13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14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15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16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 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십시오

[아삽의 시]

PSALM 82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2"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3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5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6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7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8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아삽의 찬송시]

PSALM 83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2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3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4"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5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6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7a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a 비블로스)

8앗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9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10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11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렘과 스엠펜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12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13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쪽정이와 같게 해주십시오.

14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15주님의 회오리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주십시오.

16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17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18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기쁨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a깃딛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84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a 음악 용어)

2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3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4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5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6그들이
b'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b '발삼 나무 골짜기', 또는 '바카 지역의 골짜기')

7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8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9c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c 또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돌보아 주십시오')

10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1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12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비는 기도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PSALM 85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3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4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5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6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7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8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9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10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11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12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13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도움을 비는 기도

[다윗의 기도]

PSALM 86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2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3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5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7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8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9주님께서 지으신 못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10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11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12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13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a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4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15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16 내게로 얼굴을 돌려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b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b 또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에게')

17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시온 산의 영광

[고라 자손의 찬송시]

PSALM 87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2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3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4"내가 a라함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b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a 이집트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 b 히, '구스'. 나일 강 상류 지역)

5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6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7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 사람 헤만의 a마스길, 지휘자를 따라 b마할랏르안눗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PSALM 88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a 문학 또는 음악 용어 b 곡 이름. '역경의 고통')

2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c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c 또는 '무덤' 또는 '죽음')

4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5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6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흫 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7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8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억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9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10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11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d 또는 '파멸'. 히, '아바돈')

12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3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4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15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16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17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18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PSALM 89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 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2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3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고 하였다." (셀라)

5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6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7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8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9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10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흘으셨습니다.

11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12자phon 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 산과 헤르몬 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13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14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15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16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17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a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a 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힘'을 상징함)

18주님, 참으로 b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b 또는 '우리의 방패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9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20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21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22원수들이 그를 이겨 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23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24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c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 (c 또는 '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함)

25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26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27 나도 그를 맡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28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29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 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 주겠다.

30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31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2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33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34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36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37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38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39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40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41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42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43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44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45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46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47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48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다스울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d 또는 '무덤' 또는 '죽음')

49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0 주님, 주님의 e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뭇 민족이 안겨 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e 또는 '종이')

51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52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PSALM 90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2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5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돌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6풀은 아침에는 돌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7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8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9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스러지고 맙니다.

10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1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12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13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헛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16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17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PSALM 91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a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a 히, '샤다이')

2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3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4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5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6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7네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8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9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b** 히, '주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므로,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10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11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12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13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14(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15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16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주님께 찬양하여라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PSALM 92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3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5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큼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6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8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9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흔어지고 말 것입니다.

10그러나 주님은
a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b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a 또는 '나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만드시고' b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브리어의 뜻이 불확실함)

11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12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13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14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PSALM 93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 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2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3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4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십니다.

5주님의 a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a 또는 '법령')

주님은 악한 자를 벌하신다

PSALM 94 주님,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2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3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4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5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6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7"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8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즐거워지겠느냐?

9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10 못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못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11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12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13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문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14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15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16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17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 버렸을 것이다.

18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19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 줍니다.

20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귄 수 있습니까?

울레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21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22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23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 예배하고 복종하여라

PSALM 95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2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3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4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6 오너라,
우리가 엮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8 ^a므리바에서처럼,
^b맛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a '다툼' ^b '시험함')

9 너희의 조상들은 그 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10 사십 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싫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빛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11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PSALM 96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2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3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4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5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6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7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8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9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10 모든 나라에 이르기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11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12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13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 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

PSALM 97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뭇 뜻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2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3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4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떠다.

5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 버린다.

6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7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8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a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a 또는 '성읍들')

9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10b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 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b 또는 '주님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11c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제롬역을 따름. 히, '빛이 흠
뿌려진다')

12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노래]

[PSALM](#) **98**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2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3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4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5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6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7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소리로 환호하여라.

8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9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왕이시다

PSALM 99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2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3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4a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a 히, '왕의 힘' 또는 '왕은 위대하다')

5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6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7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8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b**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b** 또는 '이스라엘에게')

9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PSALM 100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2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3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4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5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왕과 그의 약속

[다윗의 노래]

PSALM 101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리렵니다.
2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3 불의한 일은 눈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4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5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a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a 또는 '내가 멸하여 버리고' 또는 '내가 없애 버리고')
6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7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8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b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b 또는 '멸하여 버리고' 또는 '없애 버리고')

환난 때의 기도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

PSALM 102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2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3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4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 버렸습니다.

5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6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7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의
외로운 새 한 마리와의 같습니다.

8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9나는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10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11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 가는 풀과 같습니다.

12그러나 주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13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14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15뭇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6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혈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18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19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20갈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 주셨다.

21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22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23a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a 또는 '그의 능력으로 내 기력을 쇠하여지게 하시니')

24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햇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25그 옛날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26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27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28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다윗의 노래]

PSALM 103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3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4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5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6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7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 주셨다.
8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9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10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12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13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14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15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16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17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18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19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20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21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22주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피조물을 돌보신다

PSALM 10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2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3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4바람을 a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a 또는 '천사들')

5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6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7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 치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8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9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10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11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품니다.

12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룹니다.

13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14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갈이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15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16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17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18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 of 피난처입니다.

19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 주셨습니다.

20주님께서 어둠을 드리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 속의 모든 짐승은
이 때부터 움직입니다.

21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22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23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24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25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26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b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노니다. (b 큰 바다 괴물)

27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28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29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30주님께서
c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c 또는 '주님의 숨')

31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32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33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34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기만 할 것이다.

35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d할렐루야. (d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칠십인역은 여기에서부터 105편이 시작 됨)

주님을 신뢰하여라(대상 16:8-22)

PSALM 105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2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3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4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5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6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7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8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9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10야곱에게 세워 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 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11"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2그 때에 a너희의 수효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13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14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a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a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a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대다수와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을 따
름.(대상 16:19를 볼 것) 히, '그들')

15"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16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 버리셨다.

17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18사람들은 그 밭에 차꼬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19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20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21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22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23그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24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26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27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28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깜깜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29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30땅에는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 안방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31그가 말씀하시니,
파리 떼와 b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b 또는 '모기')

32비를 기다릴 때에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33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의 나무를
꺾으셨다.

34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35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 치웠다.

36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37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38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39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 주셨다.

40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41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42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43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44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45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c할렐루야. (c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민족이 용서를 빚

PSALM 106 a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3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4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5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6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7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8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9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0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11물이 대적을 덮으므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습니다.

12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13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5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16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17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 버렸습니다.

18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19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20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21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22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b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b** 히, '얌 쉰프')

23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들이시게
하였습니다.

24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25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6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27 그 자손을
못 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28 그들은 또 바알브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음식을 먹었습니다.

29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30 그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31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32 그들이 또 므리바 물 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33 그들이 c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c 또는 '주님의 영을' 또는 '하나님의 영을')

34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35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37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38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39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40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41 그들을 못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42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3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44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45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46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47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48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대하신다

PSALM 107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3a동서 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a 히, '동서북 바다')

4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5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6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바른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8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9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10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11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12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리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13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14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얹어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15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16 주님께서 낚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17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18 밥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19 그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20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21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22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23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24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25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26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단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27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 없이 된다.

28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29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30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31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32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33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35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36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37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39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40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41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 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42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43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시 **57:7-11**; **60:5-12**)

[다윗의 찬송시]

PSALM 108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a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b 내 영혼아, 깨어나라. (**a**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
에는 이 구절이 없음 **b** 시 57:8 비교. 히, '내 영혼도 노래를 부르렵니다')

2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3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4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5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6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7하나님께서 c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c 또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8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낏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9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10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11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12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13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주님의 도움을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09 a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a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일부와 칠십인역과 타르굼을 따름. 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2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3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4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5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6"그러므로 b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b 또는 '악마')

7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8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9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c폐허가 된 집에서마져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c 칠십인역을 따름. 히, '폐허를 찾고')

11빛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 가고,
낮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12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13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14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d 히, '아버지들' 또는 '조상')

15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16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18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19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20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21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22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3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 갑니다.

24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25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26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27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 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28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29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30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31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심

[다윗의 노래]

[PSALM 110](#) a주님께서

b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a '여호와'를 가리킴 b 히, '아도니(내 주님)')

2a주님께서
c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c임금님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a '여호와'를 가리킴 c 글자대로는 1절의 '내 주님(아도니)'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 '당신')

3c임금님께서 d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c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e아침 동이 틀 때에
f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c 글자대로는 1절의 '내 주님(아도니)'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 '당신' d 또는 '거룩한 광채로' Psa 110:e 히, '아침 해' f 히,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께로.....')

4a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a '여호와'를 가리킴)

5g주님께서
c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흠으실 것입니다. (g 히,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신 부르는 칭호 c 글자대로는 1절의 '내 주님(아도니)'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 '당신')

6그분께서 못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7h임금님께서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h 히, '그는')

a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여라

PSALM 111 b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a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b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3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4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금홍이 많으시다.

5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6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못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7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8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9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10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a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베푸신다

PSALM 112 b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a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b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3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4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5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6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7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으므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8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9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10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c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c 또는 '증오의 눈으로 나를 노려 보다가')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도우신다

PSALM 113 a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3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4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5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6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7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8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9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PSALM 114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2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3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 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4산들은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5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 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6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7온 땅아, 네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8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PSALM 115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2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3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4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5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6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7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8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9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10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11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12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13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14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15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6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17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18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a 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실 때

PSALM 116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3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얹어 매고,
스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 올 때에,

4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5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금홍이 많으신 분이시다.

6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 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7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8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9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립니다.

10"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나는 한 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12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13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4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5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16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17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8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9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와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PSALM 117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2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늘 자비하시다

PSALM 118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3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4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5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6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7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8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9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10못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1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2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a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a 칠십인역을 따름. 히,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타서 사라졌다')

13네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14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15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16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17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18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19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20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21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23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24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b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b 또는 '주님과 함께')

25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26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27 주님은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c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c 또는 '끈으로 축제의 제물을 단단히 매어라. 제단의 뿔도 매어라')

28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2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a 주님의 법을 찬양함

PSALM 119 b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a 각 연의 첫 글자가 같은 히브리어 자음 문자로 되어 있고, 각 연이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b 1-8절은 매 절마다 알렘으로 시작 됨)

2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3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4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6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날날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7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8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9^c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c 9-16절은 매 절마다 베트로 시작 됨)

10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1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12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3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14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큼니다.

15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16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7^d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d 17-24절은 매 절마다 기멜로 시작 됨)

18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19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20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21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 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22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23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밍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24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25 e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e 25-32절은 매 절마다 달렛으로 시작 됨)

26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27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28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29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0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31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32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33 f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f 33-40절은 매 절마다 헤로 시작 됨)

34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35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36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g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게 해주십시오. (g 두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38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39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40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41 h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h 41-48절은 매 절마다 와우(또는 바브)로 시작 됨)

42 그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43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44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45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46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47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48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49 i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i 49-56절은 매 절마다 자인으로 시작 됨)

50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1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흑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2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53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54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55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56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57j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j 57-64절은 매 절마다 헤트로 시작 됨)

58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59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 갑니다.

60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61악인들이 나를 줄로 얹어 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62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3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64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65k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k 65-72절은 매 절마다 테트로 시작 됨)

66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67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69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70 그들의 마음은 무더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72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73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173-80절은 매 절마다 요드로 시작 됨)

74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75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76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m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m 또는 '한결같은 사랑')

77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78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79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80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81 n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n 81-88절은 매 절마다 캡으로 시작 됨)

82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83 내가 비록 o연기에 그을린
가족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o 히,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가족부대처럼')

84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85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시다.

86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87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88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89 p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p 89-96절은 매 절마다 라멧으로 시작 됨)

90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91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92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93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94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95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깊이 명심하겠습니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97 q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q 97-104절은 매 절마다 엠으로 시작 됨)

98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99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100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101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2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03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104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105 r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r 105-112절은 매 절마다 눈으로 시작 됨)

106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107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108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09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110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11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쁨입니다.

112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 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13s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s 113-120절은 매 절마다 싸먹으로 시작 됨)

114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115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116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 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117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118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119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120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떨니다.

121t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t 121-128절은 매 절마다 아인으로 시작 됨)

122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23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124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25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126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28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합니다.

129_u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_u 129-136절은 매 절마다 페로 시작 됨)

130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131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3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135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36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137_v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_v 137-144절은 매 절마다 차데로 시작 됨)

138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139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140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142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143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144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145 w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w 145-152절은 매 절마다 코프로 시작 됨)

146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147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148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149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150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151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152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3 x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x 153-160절은 매 절마다 레쉬로 시작 됨)

154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155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156 주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58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159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160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161 y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뿐입니다. (y 161-168절은 매 절마다 신(쑤)으로 시작 됨)

162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3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164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166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167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168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169 z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z 169-176절은 매 절마다 타우(또는 타브)로 시작 됨)

170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71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172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173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174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175 나를 살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176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0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2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3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4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싸리나무 솥불로 벌하실 것이다!
5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섹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6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7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1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6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8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찬양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다윗의 시]

PSALM 122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뻐다.

2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3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4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5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6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7네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8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9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자비를 비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3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2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3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4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4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2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3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4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5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6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7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 났다.

8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5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2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3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5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수확을 기뻐함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6 a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a 또는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에')

2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3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

4주님,
b네겍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b 네겍 시내는 늘 말라 있다)

5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PSALM 127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a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a 또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3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⁴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⁵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신실한 백성에게 상을 주신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8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²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³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⁴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⁵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⁶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보호를 구하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29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²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 내지를 못했다.

3발을 가는 사람이 발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4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

5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6그들은 지붕 위의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고 만다.

7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8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환난 때에 주님을 신뢰함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30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2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 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4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5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6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7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8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을 신뢰하여라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31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은 아이와 같습니다.

3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늘 백성과 함께 계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32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3"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4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5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6a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a 또는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7"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8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 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것들인 법궤와 함께
그 곳으로 드십시오.

9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10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11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네 뒤를 이을 것이다.

12만일 네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네 뒤를 이어서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13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이 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 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15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 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16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b 또는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웃입히고')

17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c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d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c 히, '한 별이 자라게 하고' d 히,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한다')

18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함께 평화를 누림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33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2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3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밤에 주님을 찬양함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PSALM 134 밤에 주님의 집에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2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3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

PSALM 135 a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3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4주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5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6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7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8이집트에서 태어난 말이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9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10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11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12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13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14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15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16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17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18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19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20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21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PSALM 136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5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6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8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9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0 이집트의 말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2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3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4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5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 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6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7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8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9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0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1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2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3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4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5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복수를 구하는 기도

PSALM 137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2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3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4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5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비틀어져 버려라.

6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7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 버려라, 헐어 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 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8멸망할 바빌론 a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a 히, '딸아')

9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어라

[다윗의 노래]

PSALM 138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2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a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a** 히,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
이셨습니다')

3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b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b** 시리아어역을 따름(칠십인역과 타르굼 참조). 히, '내 영혼에 힘
을 주시어 나를 거만하게 하셨습니다')

4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시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6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7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8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심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39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2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3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4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5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6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7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8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9내가 a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a 히, '새벽 날개를 가지고')

10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11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12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13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4내가 이렇게 빛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15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6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17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b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b 또는 '보배로운지요?')

18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19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20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c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c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합니다' 또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21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22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23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피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24 내가 d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피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d 또는 '해 받을 길')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PSALM 140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2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3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셀라)

4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5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셀라)

6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7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8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셀라)

9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a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a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10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1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12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13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다윗의 노래]

PSALM 141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3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4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5a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b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 또는 '의로우신 분(하나님을 뜻함)께서' b 또는 '의인
의 꾸짖음이 내 머리에 기름입니다.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Psa 141:것입니
다'라고 읽을 수도 있음.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칠십인역에는 '악인들이 내 머
리에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6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7c맷돌이 땅에 부딪쳐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c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8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9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 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0 악인들은, 자기가 친 뗏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

PSALM 142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2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뢴다.

3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뗏을 놓았습니다.

4a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a 히, '오른쪽을 보아도')

5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6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7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노래]

PSALM 143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2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3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4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5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깊이 생각합니다.

6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7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8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9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10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11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12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다윗의 시]

PSALM 144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2주님은 나의 a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b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a 18:2와 삼하 22:2를 따름. 히, '변함없는 사랑' b 히브리어 사본들과 시리아어역과 아퀼라역과 제롬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내 백성을')

3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4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5주님, 하늘을 낮게 드리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 내게 하십시오.

6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흠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7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8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9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 드리며,
열 줄 거문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왕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 주신 주님,

11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12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13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14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c살이 찌고,
d낙태하는 일도 없고,
e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c 칠십인역과 아퀼라역과 심마쿠스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고', 곧 새끼를 배서 몸이 무거운 것을 말하거나, 살이 찌

서 몸이 무거운 것을 말함 d 또는 '뚫리는 일도 없고' e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고')

15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은 자비하시다

[a다윗의 찬양시]

PSALM 145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a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

2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3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4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5b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b 사해 사본과 시리아어역과 칠십인역에는 '사람들은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말하고, 나는 주님의 놀라운 업적을 말하렵니다')

6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7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8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9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금후를 베푸신다.

10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11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12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13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 합니다.

c(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c 한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괄호안의 본문이 있음)

14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15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16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 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17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18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9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20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 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21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PSALM 146 a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3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4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6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7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8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9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10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a 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라

PSALM 147 a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3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4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5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6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7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8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9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10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11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12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3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14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15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16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17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18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19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신다.

20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a 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PSALM 148 a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3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4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5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6너희가 앓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7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8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9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10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11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12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13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14주님이 b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러야 할 일이다.

a할렐루야. (b 또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셨으니'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PSALM 149 a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소리로 즐거워하여라.

3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 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4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 주신다.

5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6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7뭇 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8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9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PSALM 150 a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2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3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4소구 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5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6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a할렐루야. (a 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Footnotes

Footnote from Psalm 1:1 ([Back](#))

[\[1\]](#) **1:1** The singular Hebrew word for *man* (*ish*) is used here to portra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godly person; see [Preface](#)

Footnote from Psalm 1:2 ([Back](#))

[\[2\]](#) **1:2** Or *instruction*

Footnote from Psalm 2:1 ([Back](#))

[\[1\]](#) **2:1** Or *nations noisily assemble*

Footnote from Psalm 2:9 ([Back](#))

[\[2\]](#) **2:9** Revocalization yields (compare Septuagint) *You shall rule*

Footnote from Psalm 3:2 ([Back](#))

[\[1\]](#) **3:2**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Selah*, used frequently in the Psalms, is uncertain. It may be a musical or liturgical direction

Footnote from Psalm 4:2 ([Back](#))

[\[1\]](#) 4:2 Or *O men of rank*

Footnote from Psalm 4:4 ([Back](#))

[\[2\]](#) 4:4 Or *Be agitated*

Footnote from Psalm 5:3 ([Back](#))

[\[1\]](#) **5:3** Or *I direct my prayer to you*

Footnote from Psalm 6:1 ([Back](#))

[\[1\]](#) **6: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7:1 ([Back](#))

[\[1\]](#) **7: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7:4 ([Back](#))

[\[2\]](#) **7:4** Hebrew *the one at peace with me*

Footnote from Psalm 7:9 ([Back](#))

[\[3\]](#) **7:9** Hebrew *the hearts and kidneys*

Footnote from Psalm 7:12 ([Back](#))

[\[4\]](#) 7:12 Hebrew *he*

Footnote from Psalm 7:12 ([Back](#))

[\[5\]](#) 7:12 Hebrew *he*

Footnote from Psalm 8:1 ([Back](#))

[\[1\]](#) **8: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8:5 ([Back](#))

[\[2\]](#) **8:5** Or *than God*; Septuagint *than the angels*

Footnote from Psalm 9:1 ([Back](#))

[1] 9:1 Psalms 9 and 10 together follow an acrostic pattern, each stanza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In the Septuagint they form one psalm

Footnote from Psalm 9:1 ([Back](#))

[\[2\]](#) **9: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9:3 ([Back](#))

[\[3\]](#) 9:3 Or *because of*

Footnote from Psalm 9:16 ([Back](#))

[\[4\]](#) **9:16**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10:3 ([Back](#))

[\[1\]](#) **10:3** Or *and he blesses the one greedy for gain*

Footnote from Psalm 10:4 ([Back](#))

[\[2\]](#) **10:4** Or *of his anger*

Footnote from Psalm 10:4 ([Back](#))

[\[3\]](#) **10:4** Or *the wicked says, “He will not call to account”*

Footnote from Psalm 11:3 ([Back](#))

[\[1\]](#) **11:3** Or *for the foundations will be destroyed; what has the righteous done?*

Footnote from Psalm 12:1 ([Back](#))

[\[1\]](#) **12: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12:7 ([Back](#))

[\[2\]](#) 12:7 Or *guard him*

Footnote from Psalm 14:2 ([Back](#))

[\[1\]](#) **14:2** Or *that act wisely*

Footnote from Psalm 14:6 ([Back](#))

[\[2\]](#) 14:6 Or *for*

Footnote from Psalm 16:1 ([Back](#))

[\[1\]](#) **16: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16:3 ([Back](#))

[\[2\]](#) **16:3** Or *To the saints in the land, the excellent in whom is all my delight, I say:*

Footnote from Psalm 16:4 ([Back](#))

[\[3\]](#) **16:4** Or *who acquire*

Footnote from Psalm 16:7 ([Back](#))

[\[4\]](#) **16:7** Hebrew *my kidneys instruct me*

Footnote from Psalm 16:9 ([Back](#))

[\[5\]](#) 16:9 Hebrew *my glory*

Footnote from Psalm 16:10 ([Back](#))

[\[6\]](#) **16:10** Or *see the pit*

Footnote from Psalm 17:7 ([Back](#))

[\[1\]](#) 17:7 Or *Distinguish me by*

Footnote from Psalm 17:14 ([Back](#))

[\[2\]](#) **17:14** Or *from men whose portion in life is of the world*

Footnote from Psalm 17:14 ([Back](#))

[\[3\]](#) **17:14** Or *As for your treasured ones, you fill their womb*

Footnote from Psalm 18:4 ([Back](#))

[\[1\]](#) 18:4 Or *terrified me*

Footnote from Psalm 18:8 ([Back](#))

[\[2\]](#) 18:8 Or *in his wrath*

Footnote from Psalm 18:22 ([Back](#))

[\[3\]](#) 18:22 Or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18:30 ([Back](#))

[\[4\]](#) **18:30** Or *blameless*

Footnote from Psalm 18:40 ([Back](#))

[\[5\]](#) **18:40** Or *You gave me my enemies' necks*

Footnote from Psalm 19:1 ([Back](#))

[\[1\]](#) **19:1** Hebrew *the expanse*; compare Genesis 1:6–8

Footnote from Psalm 19:4 ([Back](#))

[\[2\]](#) **19:4** Or *Their measuring line*

Footnote from Psalm 19:7 ([Back](#))

[\[3\]](#) 19:7 Or *blameless*

Footnote from Psalm 19:9 ([Back](#))

[\[4\]](#) **19:9** Or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21:6 ([Back](#))

[\[1\]](#) **21:6** Or *make him a source of blessing forever*

Footnote from Psalm 22:3 ([Back](#))

[\[1\]](#) **22:3** Or *dwelling in the praises*

Footnote from Psalm 22:16 ([Back](#))

[\[2\]](#) **22:16**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Vulgate,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like a lion* [they are at] *my hands and feet*

Footnote from Psalm 22:21 ([Back](#))

[\[3\]](#) **22:21** Hebrew *answered*

Footnote from Psalm 22:26 ([Back](#))

[\[4\]](#) 22:26 Or *The meek*

Footnote from Psalm 23:2 ([Back](#))

[\[1\]](#) 23:2 Hebrew *beside waters of rest*

Footnote from Psalm 23:3 ([Back](#))

[\[2\]](#) **23:3** Or *in right paths*

Footnote from Psalm 23:4 ([Back](#))

[\[3\]](#) **23:4** Or *the valley of deep darkness*

Footnote from Psalm 23:6 ([Back](#))

[\[4\]](#) 23:6 Or *Only*

Footnote from Psalm 23:6 ([Back](#))

[\[5\]](#) 23:6 Or *steadfast love*

Footnote from Psalm 23:6 ([Back](#))

[6] 23:6 Or *shall return to dwell*

Footnote from Psalm 23:6 ([Back](#))

[\[7\]](#) **23:6** Hebrew *for length of days*

Footnote from Psalm 24:1 ([Back](#))

[\[1\]](#) **24:1** Or *and all that fills it*

Footnote from Psalm 24:6 ([Back](#))

[\[2\]](#) **24:6** Septuagint, Syriac, and two Hebrew manuscripts; Masoretic Text *Jacob, who seek your face*

Footnote from Psalm 25:1 ([Back](#))

[\[1\]](#) **25: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vers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25:14 ([Back](#))

[\[2\]](#) **25:14** Or *The secret counsel*

Footnote from Psalm 26:2 ([Back](#))

[\[1\]](#) 26:2 Hebrew *test my kidneys and my heart*

Footnote from Psalm 27:1 ([Back](#))

[\[1\]](#) 27:1 Or *refuge*

Footnote from Psalm 27:3 ([Back](#))

[\[2\]](#) 27:3 Or *in this*

Footnote from Psalm 27:4 ([Back](#))

[\[3\]](#) 27:4 Or *meditate*

Footnote from Psalm 27:8 ([Back](#))

[\[4\]](#) **27:8** The command (*seek*) is addressed to more than one person

Footnote from Psalm 27:8 ([Back](#))

[\[5\]](#) **27:8**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27:13 ([Back](#))

[\[6\]](#) **27:13** Other Hebrew manuscripts *Oh! Had I not believed*

Footnote from Psalm 28:2 ([Back](#))

[\[1\]](#) **28:2** Hebrew *your innermost sanctuary*

Footnote from Psalm 28:8 ([Back](#))

[\[2\]](#) **28:8**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is their strength*

Footnote from Psalm 29:1 ([Back](#))

[\[1\]](#) **29:1** Hebrew *sons of God*, or *sons of might*

Footnote from Psalm 29:2 ([Back](#))

[\[2\]](#) 29:2 Or *in holy attire*

Footnote from Psalm 29:9 ([Back](#))

[\[3\]](#) **29:9** Revocalization yields *makes the oaks to shake*

Footnote from Psalm 29:11 ([Back](#))

[\[4\]](#) **29:11** Or *The LORD will give . . . ; The LORD will bless*

Footnote from Psalm 30:3 ([Back](#))

[\[1\]](#) **30:3** Or *to life, that I should not go down to the pit*

Footnote from Psalm 30:4 ([Back](#))

[\[2\]](#) **30:4** Hebrew *to the memorial of his holiness* (see Exodus 3:15)

Footnote from Psalm 30:5 ([Back](#))

[3] 30:5 Or *and in his favor is life*

Footnote from Psalm 30:9 ([Back](#))

[\[4\]](#) **30:9** Hebrew *in my blood*

Footnote from Psalm 30:9 ([Back](#))

[\[5\]](#) **30:9** Or *to corruption*

Footnote from Psalm 31:6 ([Back](#))

[\[1\]](#) **31:6** Masoretic Text;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Syriac, Jerome *You hate*

Footnote from Psalm 31:22 ([Back](#))

[\[2\]](#) **31:22** Or *in my haste*

Footnote from Psalm 32:1 ([Back](#))

[\[1\]](#) **32: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32:4 ([Back](#))

[2] 32:4 Hebrew *my vitality was changed*

Footnote from Psalm 34:1 ([Back](#))

[\[1\]](#) **34: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vers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35:3 ([Back](#))

[\[1\]](#) 35:3 Or *and close the way*

Footnote from Psalm 35:7 ([Back](#))

[\[2\]](#) **35:7** The word *pit* is transposed from the preceding line; Hebrew *For without cause they hid the pit of their net for me; without cause they dug for my life*

Footnote from Psalm 35:11 ([Back](#))

[\[3\]](#) **35:11** Or *Violent*

Footnote from Psalm 35:12 ([Back](#))

[\[4\]](#) **35:12** Hebrew *it is bereavement to my soul*

Footnote from Psalm 35:13 ([Back](#))

[\[5\]](#) **35:13** Or *my prayer shall turn back*

Footnote from Psalm 35:16 ([Back](#))

[\[6\]](#) **35:16**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36:1 ([Back](#))

[\[1\]](#) **36:1** Some Hebrew manuscripts, Syriac, Jerome (compare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in my heart

Footnote from Psalm 37:1 ([Back](#))

[\[1\]](#) **37: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stanza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37:3 ([Back](#))

[\[2\]](#) **37:3** Or *and feed on faithfulness*, or *and find safe pasture*

Footnote from Psalm 37:22 ([Back](#))

[\[3\]](#) 37:22 Hebrew *by him*

Footnote from Psalm 37:35 ([Back](#))

[4] 37:35 The identity of this tre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37:36 ([Back](#))

[\[5\]](#) **37:36** Or *But one passed by*

Footnote from Psalm 39:6 ([Back](#))

[\[1\]](#) **39:6** Hebrew *Surely as a breath*

Footnote from Psalm 40:6 ([Back](#))

[\[1\]](#) **40:6** Hebrew *ears you have dug for me*

Footnote from Psalm 40:9 ([Back](#))

[\[2\]](#) **40:9** Hebrew *righteousness*; also verse 10

Footnote from Psalm 41:1 ([Back](#))

[\[1\]](#) 41:1 Or *weak*

Footnote from Psalm 41:3 ([Back](#))

[\[2\]](#) **41:3** Hebrew *you turn all his bed*

Footnote from Psalm 41:4 ([Back](#))

[\[3\]](#) **41:4** Hebrew *my soul*

Footnote from Psalm 41:7 ([Back](#))

[\[4\]](#) **41:7** Or *they devise evil against me*

Footnote from Psalm 41:8 ([Back](#))

[\[5\]](#) **41:8** Or *has fastened*

Footnote from Psalm 42:1 ([Back](#))

[\[1\]](#) **42: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42:2 ([Back](#))

[\[2\]](#) **42:2** Revocalization yields *and see the face of God*

Footnote from Psalm 42:5 ([Back](#))

[\[3\]](#) **42:5** Hebrew *the salvation of my face*; also verse 11 and 43:5

Footnote from Psalm 44:1 ([Back](#))

[\[1\]](#) **44: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44:14 ([Back](#))

[\[2\]](#) **44:14** Hebrew *a shaking of the head*

Footnote from Psalm 45:1 ([Back](#))

[\[1\]](#) **45: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45:12 ([Back](#))

[\[2\]](#) **45:12** Hebrew *daughter*

Footnote from Psalm 45:12 ([Back](#))

[\[3\]](#) **45:12** Or *The daughter of Tyre is here with gifts, the richest of people seek your favor*

Footnote from Psalm 46:1 ([Back](#))

[\[1\]](#) **46: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46:1 ([Back](#))

[\[2\]](#) **46:1** Or *well proved*

Footnote from Psalm 47:7 ([Back](#))

[\[1\]](#) 47:7 Hebrew *maskil*

Footnote from Psalm 48:14 ([Back](#))

[\[1\]](#) **48:14** Septuagint; another reading is (compare Jerome, Syriac) *He will guide us beyond death*

Footnote from Psalm 49:11 ([Back](#))

[1] **49:11** Septuagint, Syriac, Targum; Hebrew *Their inward thought was that their homes were forever*

Footnote from Psalm 49:13 ([Back](#))

[\[2\]](#) **49:13** Or *and of those after them who approve of their boasts*

Footnote from Psalm 50:3 ([Back](#))

[\[1\]](#) **50:3** Or *May our God come, and not keep silence*

Footnote from Psalm 50:14 ([Back](#))

[\[2\]](#) 50:14 Or *Make thanksgiving your sacrifice to God*

Footnote from Psalm 50:21 ([Back](#))

[\[3\]](#) **50:21** Or *that the I AM*

Footnote from Psalm 51:1 ([Back](#))

[1] 51:1 Or *Be gracious to me*

Footnote from Psalm 51:10 ([Back](#))

[\[2\]](#) **51:10** Or *steadfast*

Footnote from Psalm 52:1 ([Back](#))

[\[1\]](#) **52: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2:7 ([Back](#))

[\[2\]](#) 52:7 Or *in his work of destruction*

Footnote from Psalm 53:1 ([Back](#))

[\[1\]](#) **53:1** Probably musical or liturgical terms

Footnote from Psalm 53:2 ([Back](#))

[\[2\]](#) **53:2** Or *who act wisely*

Footnote from Psalm 54:1 ([Back](#))

[\[1\]](#) **54: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4:3 ([Back](#))

[\[2\]](#) **54:3** Some Hebrew manuscripts and Targum *insolent men* (compare Psalm 86:14)

Footnote from Psalm 55:1 ([Back](#))

[\[1\]](#) **55: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5:20 ([Back](#))

[\[2\]](#) **55:20** Hebrew *He*

Footnote from Psalm 56:1 ([Back](#))

[\[1\]](#) **56: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6:5 ([Back](#))

[\[2\]](#) **56:5** Or *they twist my words*

Footnote from Psalm 56:8 ([Back](#))

[\[3\]](#) **56:8** Or *wanderings*

Footnote from Psalm 56:9 ([Back](#))

[\[4\]](#) 56:9 Or *because*

Footnote from Psalm 57:1 ([Back](#))

[\[1\]](#) **57: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7:8 ([Back](#))

[\[2\]](#) **57:8** Or *my whole being*

Footnote from Psalm 58:1 ([Back](#))

[\[1\]](#) **58: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8:1 ([Back](#))

[\[2\]](#) 58:1 Or *you mighty lords* (by revocalization; Hebrew *in silence*)

Footnote from Psalm 58:9 ([Back](#))

[\[3\]](#) **58:9**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59:1 ([Back](#))

[\[1\]](#) **59: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59:7 ([Back](#))

[\[2\]](#) 59:7 Hebrew lacks *they think*

Footnote from Psalm 59:10 ([Back](#))

[\[3\]](#) **59:10** Or *The God who shows me steadfast love*

Footnote from Psalm 59:11 ([Back](#))

[\[4\]](#) **59:11** Or *wander*

Footnote from Psalm 60:1 ([Back](#))

[\[1\]](#) **60:1** Probably musical or liturgical terms

Footnote from Psalm 60:4 ([Back](#))

[\[2\]](#) **60:4** Or *that it may be displayed because of truth*

Footnote from Psalm 60:6 ([Back](#))

[\[3\]](#) 60:6 Or *sanctuary*

Footnote from Psalm 60:8 ([Back](#))

[\[4\]](#) **60:8** Revocalization (compare Psalm 108:10); Masoretic Text *over me, O Philistia, shout in triumph*

Footnote from Psalm 65:1 ([Back](#))

[\[1\]](#) **65:1** Or *Praise waits for you in silence*

Footnote from Psalm 65:9 ([Back](#))

[\[2\]](#) **65:9** Or *and make it overflow*

Footnote from Psalm 66:17 ([Back](#))

[\[1\]](#) **66:17** Hebrew *under*

Footnote from Psalm 66:17 ([Back](#))

[\[2\]](#) **66:17** Or *and he was exalted with my tongue*

Footnote from Psalm 68:10 ([Back](#))

[\[1\]](#) 68:10 Or *your congregation*

Footnote from Psalm 68:15 ([Back](#))

[\[2\]](#) **68:15** Or *hunch-backed*; also verse 16

Footnote from Psalm 68:24 ([Back](#))

[\[3\]](#) 68:24 Or *has been*

Footnote from Psalm 68:26 ([Back](#))

[4] 68:26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Psalm 68:28 ([Back](#))

[\[5\]](#) **68:28** By revocalization (compare Septuagint); Hebrew *Your God has summoned your power*

Footnote from Psalm 68:30 ([Back](#))

[\[6\]](#) **68:30**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68:35 ([Back](#))

[\[7\]](#) **68:35** Septuagint; Hebrew *your*

Footnote from Psalm 69:1 ([Back](#))

[\[1\]](#) **69:1** Or *waters threaten my life*

Footnote from Psalm 69:10 ([Back](#))

[\[2\]](#) **69:10** Hebrew lacks *and humbled*

Footnote from Psalm 69:22 ([Back](#))

[\[3\]](#) **69:22** Hebrew; a slight revocalization yields (compare Septuagint, Syriac, Jerome) *a snare, and retribution and a trap*

Footnote from Psalm 69:27 ([Back](#))

[\[4\]](#) **69:27** Hebrew *may they not come into your righteousness*

Footnote from Psalm 72:5 ([Back](#))

[\[1\]](#) **72:5** Septuagint *He shall endure*

Footnote from Psalm 72:8 ([Back](#))

[\[2\]](#) **72:8** That is, the Euphrates

Footnote from Psalm 73:10 ([Back](#))

[\[1\]](#) **73:10** Probable reading; Hebrew *the waters of a full cup are drained by them*

Footnote from Psalm 73:26 ([Back](#))

[\[2\]](#) **73:26** Hebrew *rock*

Footnote from Psalm 74:1 ([Back](#))

[\[1\]](#) **74: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74:5 ([Back](#))

[\[2\]](#) **74:5**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74:11 ([Back](#))

[\[3\]](#) **74:11** Hebrew *from your bosom*

Footnote from Psalm 74:13 ([Back](#))

[4] **74:13** Or *the great sea creatures*

Footnote from Psalm 75:1 ([Back](#))

[\[1\]](#) 75:1 Hebrew *They*

Footnote from Psalm 76:10 ([Back](#))

[\[1\]](#) **76:10** Or *extremity*

Footnote from Psalm 77:6 ([Back](#))

[\[1\]](#) 77:6 Hebrew lacks *I said*

Footnote from Psalm 77:10 ([Back](#))

[\[2\]](#) **77:10** Or *This is my grief: that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has changed*

Footnote from Psalm 77:19 ([Back](#))

[\[3\]](#) **77:19** Hebrew *unknown*

Footnote from Psalm 78:1 ([Back](#))

[\[1\]](#) **78: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78:9 ([Back](#))

[\[2\]](#) **78:9** Hebrew *armed and shooting*

Footnote from Psalm 78:33 ([Back](#))

[\[3\]](#) **78:33** Hebrew *in*

Footnote from Psalm 78:33 ([Back](#))

[\[4\]](#) 78:33 Or *vapor*

Footnote from Psalm 78:42 ([Back](#))

[\[5\]](#) 78:42 Hebrew *hand*

Footnote from Psalm 79:8 ([Back](#))

[\[1\]](#) **79:8** Or *the iniquities of former generations*

Footnote from Psalm 80:3 ([Back](#))

[1] 80:3 Or *Turn us again*; also verses 7, 19

Footnote from Psalm 80:11 ([Back](#))

[\[2\]](#) **80:11** That is, the Euphrates

Footnote from Psalm 81:1 ([Back](#))

[\[1\]](#) **81: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81:4 ([Back](#))

[\[2\]](#) **81:4** Or *just decree*

Footnote from Psalm 81:5 ([Back](#))

[\[3\]](#) 81:5 Or *against*

Footnote from Psalm 81:6 ([Back](#))
[\[4\]](#) **81:6** Hebrew *his*; also next line

Footnote from Psalm 81:16 ([Back](#))

[\[5\]](#) **81:16** That is, Israel; Hebrew *him*

Footnote from Psalm 82:7 ([Back](#))

[\[1\]](#) **82:7** Or *fall as one man, O princes*

Footnote from Psalm 83:13 ([Back](#))

[1] 83:13 Or *like a tumbleweed*

Footnote from Psalm 84:1 ([Back](#))

[\[1\]](#) **84: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84:5 ([Back](#))

[\[2\]](#) **84:5** Hebrew lacks *to Zion*

Footnote from Psalm 87:4 ([Back](#))

[\[1\]](#) **87:4** Probably *Nubia*

Footnote from Psalm 88:1 ([Back](#))

[\[1\]](#) **88:1** Probably musical or liturgical terms

Footnote from Psalm 88:8 ([Back](#))

[\[2\]](#) **88:8** Or *an abomination*

Footnote from Psalm 88:15 ([Back](#))

[3] 88:15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88:18 ([Back](#))

[\[4\]](#) **88:18** Or *darkness has become my only companion*

Footnote from Psalm 89:1 ([Back](#))

[\[1\]](#) **89: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89:6 ([Back](#))

[\[2\]](#) **89:6** Hebrew *the sons of God*, or *the sons of might*

Footnote from Psalm 89:19 ([Back](#))

[\[3\]](#) **89:19** Some Hebrew manuscripts *godly ones*

Footnote from Psalm 89:28 ([Back](#))

[\[4\]](#) 89:28 Or *will remain faithful*

Footnote from Psalm 89:30 ([Back](#))

[\[5\]](#) **89:30** Or *my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89:50 ([Back](#))

[\[6\]](#) 89:50 Hebrew lacks *the insults*

Footnote from Psalm 90:1 ([Back](#))

[\[1\]](#) **90:1** Some Hebrew manuscripts (compare Septuagint) *our refuge*

Footnote from Psalm 90:3 ([Back](#))

[\[2\]](#) **90:3** Or *of Adam*

Footnote from Psalm 90:10 ([Back](#))

[\[3\]](#) **90:10** Or *pride*

Footnote from Psalm 90:17 ([Back](#))

[\[4\]](#) **90:17** Or *beauty*

Footnote from Psalm 91:2 ([Back](#))

[\[1\]](#) **91:2** Septuagint *He will say*

Footnote from Psalm 91:9 ([Back](#))

[2] 91:9 Or *For you, O LORD, are my refuge! You have made the Most High your dwelling place*

Footnote from Psalm 92:10 ([Back](#))

[\[1\]](#) **92:10** Compare Syriac;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94:11 ([Back](#))

[\[1\]](#) **94:11** Septuagint *they are futile*

Footnote from Psalm 94:21 ([Back](#))

[\[2\]](#) **94:21** Hebrew *condemn innocent blood*

Footnote from Psalm 96:9 ([Back](#))

[\[1\]](#) **96:9** Or *in holy attire*

Footnote from Psalm 97:11 ([Back](#))

[\[1\]](#) **97:11** Most Hebrew manuscripts;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Syriac, Jerome *Light dawns*

Footnote from Psalm 99:4 ([Back](#))

[1] 99:4 Or *The might of the King loves justice*

Footnote from Psalm 100:3 ([Back](#))

[\[1\]](#) **100:3** Or *and not we ourselves*

Footnote from Psalm 102:6 ([Back](#))

[\[1\]](#) **102:6** The precise identity of these birds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103:14 ([Back](#))

[\[1\]](#) **103:14** Or *knows how we are formed*

Footnote from Psalm 104:19 ([Back](#))

[\[1\]](#) **104:19** Or *the appointed times* (compare Genesis 1:14)

Footnote from Psalm 104:26 ([Back](#))

[\[2\]](#) 104:26 Or *you formed to play with*

Footnote from Psalm 104:30 ([Back](#))

[\[3\]](#) **104:30** Or *breath*

Footnote from Psalm 105:16 ([Back](#))

[\[1\]](#) **105:16** Hebrew *staff*

Footnote from Psalm 105:22 ([Back](#))

[\[2\]](#) **105:22** Septuagint, Syriac, Jerome *instruct*

Footnote from Psalm 105:28 ([Back](#))

[\[3\]](#) **105:28** Septuagint, Syriac omit *not*

Footnote from Psalm 106:4 ([Back](#))

[\[1\]](#) **106:4** Or *Remember me, O LORD, with the favor you show to your people; help me with your salvation*

Footnote from Psalm 106:20 ([Back](#))

[\[2\]](#) **106:20** Hebrew *exchanged their glory*

Footnote from Psalm 106:33 ([Back](#))

[3] **106:33** Or *they rebelled against God's Spirit*

Footnote from Psalm 107:2 ([Back](#))

[\[1\]](#) **107:2** Or *from the hand of the foe*

Footnote from Psalm 107:27 ([Back](#))

[\[2\]](#) **107:27** Hebrew *and all their wisdom was swallowed up*

Footnote from Psalm 107:30 ([Back](#))

[\[3\]](#) **107:30** Hebrew *they*

Footnote from Psalm 108:1 ([Back](#))

[\[1\]](#) **108:1** Hebrew *with my glory*

Footnote from Psalm 108:7 ([Back](#))

[\[2\]](#) **108:7** Or *sanctuary*

Footnote from Psalm 109:4 ([Back](#))

[\[1\]](#) **109:4** Hebrew *but I am prayer*

Footnote from Psalm 109:17 ([Back](#))

[\[2\]](#) **109:17** Revocalization; Masoretic Text *curses have come*

Footnote from Psalm 109:17 ([Back](#))

[\[3\]](#) **109:17** Revocalization; Masoretic Text *it is far*

Footnote from Psalm 109:18 ([Back](#))

[\[4\]](#) **109:18** Revocalization; Masoretic Text *it has soaked*

Footnote from Psalm 110:3 ([Back](#))

[\[1\]](#) **110:3** Or *on the day you lead your forces*

Footnote from Psalm 110:3 ([Back](#))

[\[2\]](#) **110:3** Masoretic Text; some Hebrew manuscripts and Jerome *on the holy mountains*

Footnote from Psalm 110:3 ([Back](#))

[\[3\]](#) **110:3**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110:6 ([Back](#))

[\[4\]](#) **110:6** Or *the head*

Footnote from Psalm 111:1 ([Back](#))

[\[1\]](#) **111: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lin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112:1 ([Back](#))

[\[1\]](#) **112: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lin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115:9 ([Back](#))

[\[1\]](#) **115:9** Masoretic Text; many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Syriac *O house of Israel*

Footnote from Psalm 116:10 ([Back](#))

[\[1\]](#) **116:10** Or *believed, indeed*; Septuagint *believed, therefore*

Footnote from Psalm 118:13 ([Back](#))

[\[1\]](#) **118:13** Hebrew *You* (that is, the enemy) *pushed me hard*

Footnote from Psalm 118:22 ([Back](#))

[\[2\]](#) **118:22** Hebrew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Psalm 119:1 ([Back](#))

[\[1\]](#) **119: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of twenty-two stanzas, following th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within a stanza, each verse begins with the same Hebrew letter

Footnote from Psalm 119:7 ([Back](#))

[\[2\]](#) **119:7** Or *your just and righteous decrees*; also verses 62, 106, 160, 164

Footnote from Psalm 119:13 ([Back](#))

[\[3\]](#) **119:13** Or *all the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119:20 ([Back](#))

[\[4\]](#) 119:20 Or *your just decrees*; also verses 30, 39, 43, 52, 75, 102, 108, 137, 156, 175

Footnote from Psalm 119:32 ([Back](#))

[\[5\]](#) **119:32** Or *for you set my heart free*

Footnote from Psalm 119:33 ([Back](#))

[\[6\]](#) **119:33** Or *keep it as my reward*

Footnote from Psalm 119:84 ([Back](#))

[\[7\]](#) **119:84** Hebrew *How many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Footnote from Psalm 119:100 ([Back](#))

[\[8\]](#) **119:100** Or *the elders*

Footnote from Psalm 119:112 ([Back](#))

[\[9\]](#) **119:112** Or *statutes; the reward is eternal*

Footnote from Psalm 122:4 ([Back](#))

[\[1\]](#) **122:4** Or *as a testimony for*

Footnote from Psalm 127:4 ([Back](#))

[\[1\]](#) 127:4 Or *sons*

Footnote from Psalm 127:5 ([Back](#))

[\[2\]](#) **127:5** Or *They shall not be put to shame when they speak with their enemies in the gate*

Footnote from Psalm 129:1 ([Back](#))

[\[1\]](#) **129:1** Or *Often*; also verse 2

Footnote from Psalm 132:11 ([Back](#))

[\[1\]](#) **132:11** Hebrew *of your fruit of the womb*

Footnote from Psalm 133:1 ([Back](#))

[\[1\]](#) **133:1** Or *dwell together*

Footnote from Psalm 135:3 ([Back](#))

[\[1\]](#) **135:3** Or *for he is beautiful*

Footnote from Psalm 135:13 ([Back](#))

[\[2\]](#) **135:13** Or *remembrance*

Footnote from Psalm 136:15 ([Back](#))

[\[1\]](#) **136:15** Hebrew *shook off*

Footnote from Psalm 137:2 ([Back](#))

[\[1\]](#) 137:2 Or *poplars*

Footnote from Psalm 138:2 ([Back](#))

[\[1\]](#) **138:2** Or *you have exalted your word above all your name*

Footnote from Psalm 138:3 ([Back](#))

[\[2\]](#) **138:3** Hebrew *you made me bold in my soul with strength*

Footnote from Psalm 139:14 ([Back](#))

[\[1\]](#) **139:14** Or *for I am fearfully set apart*

Footnote from Psalm 139:20 ([Back](#))

[\[2\]](#) **139:20** Hebrew lacks *your name*

Footnote from Psalm 139:23 ([Back](#))

[\[3\]](#) **139:23** Or *cares*

Footnote from Psalm 139:24 ([Back](#))

[\[4\]](#) **139:24** Or *in the ancient way* (compare Jeremiah 6:16)

Footnote from Psalm 140:5 ([Back](#))

[\[1\]](#) **140:5** Or *they have spread cords as a net*

Footnote from Psalm 140:8 ([Back](#))

[\[2\]](#) **140:8** Hebrew *his*

Footnote from Psalm 141:6 ([Back](#))

[\[1\]](#) **141:6** Or *When their judges fall into the hands of the Rock*

Footnote from Psalm 141:7 ([Back](#))

[\[2\]](#) **141:7** The meaning of the Hebrew in verses 6, 7 is uncertain

Footnote from Psalm 141:8 ([Back](#))

[\[3\]](#) **141:8** Hebrew *refuge; do not pour out my life!*

Footnote from Psalm 142:1 ([Back](#))

[\[1\]](#) **142:1** Probably a musical or liturgical term

Footnote from Psalm 143:9 ([Back](#))

[\[1\]](#) **143:9**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To you I have covered*

Footnote from Psalm 144:2 ([Back](#))

[\[1\]](#) **144:2** Many Hebrew manuscripts, Dead Sea Scroll, Jerome, Syriac, Aquila; most Hebrew manuscripts *subdues my people*

Footnote from Psalm 144:14 ([Back](#))

[\[2\]](#) **144:14** Hebrew *with no breaking in or going out*

Footnote from Psalm 145:1 ([Back](#))

[\[1\]](#) **145:1** This psalm is an acrostic poem, each vers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salm 145:12 ([Back](#))
[\[2\]](#) **145:12** Hebrew *his*; also next line

Footnote from Psalm 145:13 ([Back](#))

[\[3\]](#) **145:13** These two lines are supplied by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Syriac (compare Dead Sea Scroll)

Footnote from Psalm 147:1 ([Back](#))

[\[1\]](#) 147:1 Or *for he is beautiful*

Footnote from Psalm 147:6 ([Back](#))

[\[2\]](#) 147:6 Or *afflicted*

Footnote from Psalm 147:19 ([Back](#))

[\[3\]](#) **147:19** Or *and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147:20 ([Back](#))

[\[4\]](#) **147:20** Or *his just decrees*

Footnote from Psalm 148:6 ([Back](#))

[\[1\]](#) **148:6** Or *it shall not be transgressed*

Footnote from Psalm 150:1 ([Back](#))

[\[1\]](#) **150:1** Hebrew *expanse* (compare Genesis 1:6–8)

잠언

[\(return to table of contents\)](#)

[Proverbs 1](#) • [Proverbs 2](#) • [Proverbs 3](#) • [Proverbs 4](#) • [Proverbs 5](#) • [Proverbs 6](#) • [Proverbs 7](#)
• [Proverbs 8](#) • [Proverbs 9](#) • [Proverbs 10](#) • [Proverbs 11](#) • [Proverbs 12](#) • [Proverbs 13](#)
• [Proverbs 14](#) • [Proverbs 15](#) • [Proverbs 16](#) • [Proverbs 17](#) • [Proverbs 18](#) • [Proverbs 19](#)
• [Proverbs 20](#) • [Proverbs 21](#) • [Proverbs 22](#) • [Proverbs 23](#) • [Proverbs 24](#) • [Proverbs 25](#)
• [Proverbs 26](#) • [Proverbs 27](#) • [Proverbs 28](#) • [Proverbs 29](#) • [Proverbs 30](#) • [Proverbs 31](#)

잠언

잠언의 목적과 주제

[PROVERBS 1](#)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²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³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4a}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⁵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⁶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⁷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b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b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
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됨)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8c}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c 히, '내 아들이'.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⁹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10c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꺾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c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11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12d스올처럼 그들을 산 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d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3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14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15c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c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16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17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18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19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가 부른다

20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21시끄러운 e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e 칠십인역에는 '성벽 위에서')

22"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23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24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25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26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27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28그 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29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30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31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32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f'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f'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
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33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지혜가 주는 유익

PROVERBS 2 a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네 마음을 두어라.

3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4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5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6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7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8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9 그 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10 지혜가 네마음 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11분별력이 너를 지켜 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12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13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14그들은 나쁜 일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15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와 순결

16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 주고,
너를 꺾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17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b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b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18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19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20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21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 없는 사람이
살아 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22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PROVERBS 3 a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3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라.

4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5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b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b 또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7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8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9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10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11a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12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의 가치

13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14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15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16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17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18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19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20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21 a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2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23 그 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24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25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26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덧에 걸리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다.

27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28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29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30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31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32참으로 주님은
억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귀을 가지신다.

33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 주신다.

34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35지혜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꺾어진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꺾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쉴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PROVERBS 4 a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a 히, '아들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3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4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5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여기지 말아라.

6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7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8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9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 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 줄 것이다."

바른 길, 그른 길

10b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b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11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12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3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14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15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16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17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18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19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20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21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22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23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4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 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25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굳게 두어라.

26발로 디딜 곳을 c잘 살피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c 또는 '평탄하게 하여라')

27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 버려라.

아내에게 성실히 하여라

PROVERBS 5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2분별력을 간직하고,
네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3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4그것이 나중에는 쏙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5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a스올로 치달는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6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7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8네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9그렇지 않으면,
네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아까운 세월을
포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10다른 사람이
네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11마침내 네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네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12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13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4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15너는 네 우물의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16어찌하여
네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 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 보내려느냐?

17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18네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19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20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21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 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22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 들어서,

23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PROVERBS 6 a아이들이아,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a 히, '내 아들이'.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 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3a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 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a 히, '내 아들이'.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4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5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6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7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8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 둔다.

9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10"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하면,

11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b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b 또는 '거지처럼')

12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13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14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15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16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17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달는 발과,

19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부도덕에 대한 경고]

20 a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간직하며,
네 목에 걸고 다녀라.

22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네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 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 줄 것이다.

23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24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 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네가 빠지지 않게 지켜 준다.

25 네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26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27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28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29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30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31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32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33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34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35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실한 자의 어리석음

PROVERBS 7 a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라. (a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3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고,

네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라.

4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5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 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부도덕한 여인

6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7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b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8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9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10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11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12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13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뻘뻘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14"오늘 나는 c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c 또는 '친교제')

15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16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17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18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기시다.

19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20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21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꾀니,

22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d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d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사슴')

23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24e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e 히, '아들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5네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 들지 않게 하여라.

26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7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지혜 찬양

PROVERBS 8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2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3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4"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5a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6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7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8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9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10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11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하는 말

12"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13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14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15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16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17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18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19내가 맺어 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 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20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21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22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b나를 데리고 계셨다. (b 히, '카나니'. 아퀼라역과 심마쿠스역에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는 '나를 낳으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23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c세움을 받았다. (c 또는 '형성되다' 또는 '만들어지다')

24아직 깊은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25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26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27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28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29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30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32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33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34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 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35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36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혜와 어리석음

PROVERBS 9 지혜가 일곱 기둥을

꺾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2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칫상을 차린 다음에,

3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4 "a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5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6 a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참 지혜

7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8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9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래 살 것이요,
네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12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

13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14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15제 갈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16"a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17"흠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하고
말한다.

18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 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솔로몬의 잠언

PROVERBS 10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2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3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4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5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6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7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9 흠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10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13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14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15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16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17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18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19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20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21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a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a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
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됨)

22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23b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b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24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25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26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27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28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29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30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31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32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언행을 조심하라

PROVERBS 11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2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3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4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5흠 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6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7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8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9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10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11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12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13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14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15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16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17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18악인에게 돌아오는 값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19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20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21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22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에 금고리 격이다.

23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24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25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 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26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27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28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29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30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31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악의 그늘에 못 숨는다

PROVERBS 12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2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3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4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뺨속을 썩게 한다.

5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6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7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9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10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11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12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13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뺨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14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15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16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17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18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19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20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 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21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22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23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a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쉴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24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25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 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26의인은
b이웃에게 바른길을 보여 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 들게 한다. (b 또는 '친구를 신중하게 사귈다')

27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28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지혜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PROVERBS 13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2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3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4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5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6 흠 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 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7 부자인 체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체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8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9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11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12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13 말썽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14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a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a 또는 '험하다')

16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17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18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19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b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b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20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b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b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21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22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23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24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25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주린다.

지혜가 주는 유익

PROVERBS 14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2바른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3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 준다.

4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5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6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7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8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a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9b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b**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됨)

10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11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12 사람의 눈에는 바른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13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14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15 c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c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
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16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 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17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18 c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c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19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20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21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22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23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24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b 어리석음은

a 미련한 사람의 e 화환이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썸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b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됨 d 히, '부요함' e 히, '어리석음')

25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26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2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29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30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31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32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33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a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f알려지지 않는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f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알려진다')

34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35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PROVERBS 15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2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3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 보신다.

4 따듯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5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 온다.

7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a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
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8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9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10 옳은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11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b 히, '스올과 아바돈')

12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13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14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15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16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17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18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19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길과 같다.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21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22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23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24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 길을 벗어난다.

25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 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 주신다.

26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제물처럼 받으신다.

27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29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30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낮게 한다.

31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32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33 c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c 또는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또는 '주님을 경
외하면 지혜를 배운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PROVERBS 16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2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3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4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5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억저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6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7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8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0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11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12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억저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13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14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15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16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17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18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9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20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1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a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a 또는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설득시킨다')

22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b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b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
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됨)

23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c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c 또는 '그의 입술이 지식을 증진시킨다' 또는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24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썩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25사람의 눈에는 바른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26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27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28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29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억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30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31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32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33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

PROVERBS 17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a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a** 또는 '제사음식을')

2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3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4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5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6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7b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b** 또는 '유창한 말이')

8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9허물을 덮어 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10미련한 사람을

백 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11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12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13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14다툼의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15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16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으면,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17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18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19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20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21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22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23악인은

가슴에 안겨 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24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25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26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일이 아니다.

27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28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죄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이다

PROVERBS 18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2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3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4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5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6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7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옹아맨다.

8혈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9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10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 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11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12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13다 들어 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14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15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16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 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 준다.

17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18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 난다.

19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20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 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21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22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23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24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참는 것이 지혜

PROVERBS 19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2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3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 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4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5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6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7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8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9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10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라?

11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12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13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14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15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16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17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18네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19성격이 불 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 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20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21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22^a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a 또는 '사람의 탐욕은 그의 부끄러움이다')

23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24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를 귀찮아한다.

25오만한 사람을 치면,

^b어수룩한 사람도 깨달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b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감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26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27^c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c 히, '내 아들아'.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28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29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d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d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
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금보다 귀한 지혜

PROVERBS 20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2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3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툼다.

4 게으른 사람은
제 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5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낸다.

6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7 의인은 흠 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8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9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10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11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12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13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14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 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15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16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17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훔칠 때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18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 놓고 하여라.

19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20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21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22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23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24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25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27 ^a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a 또는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살펴 보신다' 또는 '사람
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이다')

28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 주고,
정의를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29 젊은이의 자량은 힘ियो,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30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주님께서 이끄신다

PROVERBS 21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2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3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4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5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6a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a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몇몇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재산을 속여서 모으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고 그 재산은 안개와 같다')

7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8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9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10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11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b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b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12c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c 또는 '의로운 사람')

13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14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속에 넣어 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15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16슬기로운 길에서 빛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17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18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19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0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21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d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d 또는 '의')

22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23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24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25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26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27 악인의 제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럴지 않겠는가?

28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29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30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31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훈계의 가치...서른 가지 교훈

PROVERBS 22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2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얹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3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a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
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4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5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6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7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빛지면 빛쟁이의 종이 된다.

8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9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10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11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12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 보시지만,
신의를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13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14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15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얹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16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17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18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19이는 네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 주는 것이다.
20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서른 가지 교훈을 써 주지 않았느냐?
21이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1—

22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23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 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2—

24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25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울무에 걸려 들까 염려된다.

—3—

26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27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4—

28너의 선조들이 세워 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5—

29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PROVERBS 23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피라.
 2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3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꺾려는 음식이다.

4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 버릴
 슬기를 가져라.
 5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6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7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8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침도
 헛된 데로 돌아갈 것이다.

9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10 옛날에 세워 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11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11—

12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12—

13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14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13—

15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16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14—

17 죄인들을 보고
마음 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18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15—

19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20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21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22너를 낳아 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23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24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25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26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27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28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술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29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30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31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붓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32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쏘 것이며,

33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34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35"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19—

PROVERBS 24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2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20—

3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4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21—

5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6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22—

7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23—

8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9 어리석은 사람은
죄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24—

10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25—

11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 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12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26—

13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14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27—

15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16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28—

17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18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29—

19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20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30—

21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22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추가 교훈

23○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못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25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26바른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27네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네 밭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네 가정을 세워라.

28너는 이유도 없이
네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29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 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30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31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32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33"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34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a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a 또는 '거지처럼')

솔로몬의 잠언 추가

PROVERBS 25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2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3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4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5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6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여들지 말아라.

7너의 눈 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8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9이웃과 다툼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10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11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12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13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14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15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16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17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18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19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20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21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22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낮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23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24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5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26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27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28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PROVERBS 26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2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3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a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a**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크썰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함. 1:7의 주를 볼 것)

4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5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할까 두렵다.

6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7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8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릿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9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10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11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12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13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14문짝이
돌쩌귀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15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조차 귀찮아한다.

16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17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여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18햇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19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20떨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21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 데 부채질을 한다.

22혈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23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b**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c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b** 칠십인역을 따름. 히, '열변을 토하는' **c** 마소라 본문에는 '질
그릇 위의 은찌꺼기와 같다'. 붙어 있는 히브리 자음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예)

24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25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 속에는 억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 있다.

26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7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28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 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PROVERBS 27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2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4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5드러내 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6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7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8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9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10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 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11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12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a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a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22, 32절 참조))

13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14이른 아침에
큰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15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16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17쇠불이는 쇠불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18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19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20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21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 볼 수 있다.

22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23너의 양 떼의 형편을 잘 알아 두며,
너의 가축 떼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24재물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25그러나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26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숫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27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주는 유익

PROVERBS 28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2나라에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3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 버리는
폭우와 같다.

4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5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6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7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8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쏟아 두는 것이다.

9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10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 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11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12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13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4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15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16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17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18흠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넘어지고야 만다.

19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20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21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22 죄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23 아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24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25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26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27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체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 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상식

PROVERBS 29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2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3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4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5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6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7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체한다.

8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9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10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11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12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13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14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15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16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17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 줄 것이다.

18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19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20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21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 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22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23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24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2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27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아굴의 잠언

PROVERBS 30 a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b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a 또는 '이것은 마싸 사람 야게의 아들 아론이 한 말이다'. 마싸를 '잠언', '경고'로 이해하지 않고 지명으로 이해한 것임 b 또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 히브리 어 자음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

2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3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6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헌신의 잠언

7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8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9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0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11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12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하는 무리가 있다.

13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14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15거머리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넋이 있으니,

16 곧 스올과

아기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17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18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넋이 있으니,

19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20 간음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21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넋이 있으니,

22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23 깨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24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넋이 있으니,

25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26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 27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28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 29능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30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31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솟염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 32네가 어리석어서 우쭐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 33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왕에게 주는 충고

PROVERBS 31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 2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 3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 4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 5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6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7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8 너는
병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9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유능한 아내

10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11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12 그의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13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14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15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16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17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18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20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21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22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23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24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25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a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a 또는 '다가올 날을')

26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27 집안 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28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b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c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b 히, '그 여자의' c 히, '그 여자를')

29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오" 한다.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31d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e아내에게 돌려라.

d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d 히, '그 여자가' e 히, '그 여자에게')

Footnotes

[\[1\]](#) 1:23 Or *Will you turn away at my reproof?*

Footnote from Proverbs 2:16 ([Back](#))

[\[1\]](#) 2:16 Hebrew *strange*

Footnote from Proverbs 2:16 ([Back](#))

[\[2\]](#) **2:16** Hebrew *foreign woman*

Footnote from Proverbs 2:18 ([Back](#))

[\[3\]](#) **2:18** Hebrew *to the Rephaim*

Footnote from Proverbs 3:4 ([Back](#))

[\[1\]](#) 3:4 Or *repute*

Footnote from Proverbs 3:8 ([Back](#))

[\[2\]](#) 3:8 Hebrew *navel*

Footnote from Proverbs 3:8 ([Back](#))

[\[3\]](#) 3:8 Or *medicine*

Footnote from Proverbs 3:25 ([Back](#))

[\[4\]](#) **3:25** Hebrew *storm*

Footnote from Proverbs 3:27 ([Back](#))

[\[5\]](#) **3:27** Hebrew *Do not withhold good from its owners*

[\[6\]](#) 3:34 Or *grace*

Footnote from Proverbs 3:35 ([Back](#))

[\[7\]](#) **3:35**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Proverbs 4:1 ([Back](#))

[\[1\]](#) 4:1 Hebrew *know*

Footnote from Proverbs 4:22 ([Back](#))

[\[2\]](#) 4:22 Hebrew *his*

[\[3\]](#) 4:26 Or *Make level*

Footnote from Proverbs 5:3 ([Back](#))

[\[1\]](#) **5:3** Hebrew *strange*; also verse 20

Footnote from Proverbs 5:3 ([Back](#))

[\[2\]](#) **5:3** Hebrew *palate*

Footnote from Proverbs 5:5 ([Back](#))

[\[3\]](#) **5:5** Hebrew *lay hold of*

Footnote from Proverbs 5:19 ([Back](#))

[\[4\]](#) **5:19** Hebrew *be led astray*; also verse 20

Footnote from Proverbs 5:20 ([Back](#))

[\[5\]](#) **5:20** Hebrew *a foreign woman*

[\[6\]](#) 5:21 Or *makes level*

[1] 6:3 Or *humble yourself*

Footnote from Proverbs 6:5 ([Back](#))

[\[2\]](#) **6:5** Hebrew lacks *of the hunter*

Footnote from Proverbs 6:13 ([Back](#))

[\[3\]](#) **6:13** Hebrew *scrapes*

Footnote from Proverbs 6:22 ([Back](#))

[\[4\]](#) **6:22** Hebrew *it*; three times in this verse

Footnote from Proverbs 6:24 ([Back](#))

[\[5\]](#) **6:24** Revocalization (compare Septuagint) yields *from the wife of a neighbor*

Footnote from Proverbs 6:24 ([Back](#))

[\[6\]](#) **6:24** Hebrew *the foreign woman*

Footnote from Proverbs 6:26 ([Back](#))

[\[7\]](#) **6:26** Or (compare Septuagint, Syriac, Vulgate) *for a prostitute leaves a man with nothing but a loaf of bread*

Footnote from Proverbs 6:26 ([Back](#))

[\[8\]](#) **6:26** Hebrew *a man's wife*

[\[1\]](#) 7:5 Hebrew *strange*

Footnote from Proverbs 7:5 ([Back](#))

[\[2\]](#) 7:5 Hebrew *the foreign woman*

Footnote from Proverbs 7:10 ([Back](#))

[\[3\]](#) 7:10 Hebrew *guarded in heart*

Footnote from Proverbs 7:14 ([Back](#))

[\[4\]](#) 7:14 Hebrew *peace offerings*

Footnote from Proverbs 7:22 ([Back](#))

[\[5\]](#) **7:22** Probable reading (compare Septuagint, Vulgate, Syriac); Hebrew *as an anklet for the discipline of a fool*

Footnote from Proverbs 8:16 ([Back](#))

[\[1\]](#) **8:16** Most Hebrew manuscripts; many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govern the earth*

Footnote from Proverbs 8:22 ([Back](#))

[\[2\]](#) **8:22** Or *fathered*; Septuagint *created*

Footnote from Proverbs 8:22 ([Back](#))

[\[3\]](#) 8:22 Hebrew *way*

Footnote from Proverbs 8:28 ([Back](#))

[\[4\]](#) **8:28**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Proverbs 8:30 ([Back](#))

[\[5\]](#) **8:30** Or *daily filled with*

Footnote from Proverbs 9:6 ([Back](#))

[\[1\]](#) **9:6** Or *Leave the company of the simple*

Footnote from Proverbs 9:9 ([Back](#))

[\[2\]](#) **9:9** Hebrew lacks *instruction*

Footnote from Proverbs 9:13 ([Back](#))

[\[3\]](#) **9:13** Or *full of simpleness*

Footnote from Proverbs 9:18 ([Back](#))

[\[4\]](#) **9:18** Hebrew *Rephaim*

Footnote from Proverbs 10:22 ([Back](#))

[\[1\]](#) **10:22** Or *and toil adds nothing to it*

[\[1\]](#) **11:7** Or *of his strength*, or *of iniquity*

Footnote from Proverbs 11:27 ([Back](#))

[\[2\]](#) **11:27** Or *acceptance*

Footnote from Proverbs 12:17 ([Back](#))

[\[1\]](#) **12:17** Hebrew *breathes out*

Footnote from Proverbs 12:26 ([Back](#))

[\[2\]](#) **12:26** Or *The righteous chooses his friends carefully*

Footnote from Proverbs 12:27 ([Back](#))

[\[3\]](#) **12:27** Or *but diligence is precious wealth*

[\[1\]](#) 13:5 Or *stench*

Footnote from Proverbs 13:11 ([Back](#))

[\[2\]](#) 13:11 Or *by fraud*

Footnote from Proverbs 13:15 ([Back](#))

[\[3\]](#) **13:15** Probable reading (compare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is rugged*, or *is an enduring rut*

Footnote from Proverbs 13:21 ([Back](#))

[\[4\]](#) **13:21** Or *Evil*

Footnote from Proverbs 13:24 ([Back](#))

[\[5\]](#) **13:24** Or *who loves him disciplines him early*

Footnote from Proverbs 14:3 ([Back](#))

[\[1\]](#) **14:3** Or *In the mouth of a fool is a rod of pride*

Footnote from Proverbs 14:9 ([Back](#))

[\[2\]](#) **14:9** Hebrew *but among the upright is acceptance*

Footnote from Proverbs 14:12 ([Back](#))

[\[3\]](#) **14:12** Hebrew *ways of death*

Footnote from Proverbs 14:16 ([Back](#))

[\[4\]](#) **14:16** Or *fears* [the LORD]

Footnote from Proverbs 14:22 ([Back](#))

[\[5\]](#) 14:22 Or *show*

Footnote from Proverbs 14:30 ([Back](#))

[\[6\]](#) 14:30 Or *healing*

Footnote from Proverbs 14:30 ([Back](#))

[\[7\]](#) 14:30 Or *jealousy*

Footnote from Proverbs 14:33 ([Back](#))

[8] **14:33** Or *Wisdom rests quietly in the heart of a man of understanding, but makes itself known in the midst of fools*

Footnote from Proverbs 15:4 ([Back](#))

[\[1\]](#) 15:4 Or *healing*

Footnote from Proverbs 15:7 ([Back](#))

[\[2\]](#) **15:7** Or *the hearts of fools are not steadfast*

Footnote from Proverbs 15:30 ([Back](#))

[\[3\]](#) **15:30** Hebrew *makes fat*

Footnote from Proverbs 16:20 ([Back](#))

[\[1\]](#) **16:20** Or *to a matter*

Footnote from Proverbs 16:25 ([Back](#))

[\[2\]](#) **16:25** Hebrew *ways of death*

Footnote from Proverbs 16:27 ([Back](#))

[\[3\]](#) **16:27** Hebrew *what is on his lips*

Footnote from Proverbs 16:30 ([Back](#))

[\[4\]](#) **16:30** Hebrew *to plan*

Footnote from Proverbs 17:1 ([Back](#))

[\[1\]](#) 17:1 Hebrew *sacrifices*

Footnote from Proverbs 17:23 ([Back](#))

[\[2\]](#) **17:23** Hebrew *a bribe from the bosom*

[\[1\]](#) **18:5** Hebrew *to lift the face of*

Footnote from Proverbs 19:2 ([Back](#))

[\[1\]](#) 19:2 Or *A soul*

Footnote from Proverbs 19:6 ([Back](#))

[\[2\]](#) 19:6 Or *of a noble*

Footnote from Proverbs 19:7 ([Back](#))

[\[3\]](#) **19:7** The meaning of the Hebrew sentenc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roverbs 20:1 ([Back](#))

[\[1\]](#) **20:1** Or *will not become wise*

Footnote from Proverbs 20:10 ([Back](#))

[\[2\]](#) **20:10** Or *Two kinds of*; also verse 23

Footnote from Proverbs 20:11 ([Back](#))

[3] **20:11** Or *Even a child can dissemble in his actions, though his conduct seems pure and upright*

Footnote from Proverbs 20:16 ([Back](#))

[4] 20:16 Or *for an adulteress* (compare 27:13)

Footnote from Proverbs 20:19 ([Back](#))

[\[5\]](#) **20:19** Hebrew *with one who is simple in his lips*

Footnote from Proverbs 20:27 ([Back](#))

[\[6\]](#) 20:27 Hebrew *breath*

Footnote from Proverbs 21:4 ([Back](#))

[\[1\]](#) **21:4** Or *the plowing*

Footnote from Proverbs 21:6 ([Back](#))

[\[2\]](#) **21:6**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Latin; most Hebrew manuscripts *vapor for those who seek death*

Footnote from Proverbs 21:14 ([Back](#))

[\[3\]](#) **21:14** Hebrew *a bribe in the bosom*

Footnote from Proverbs 21:29 ([Back](#))

[\[4\]](#) **21:29** Or *establishes*

Footnote from Proverbs 22:4 ([Back](#))

[\[1\]](#) **22:4** Or *The reward for humility is the fear of the LORD, riches and honor and life*

Footnote from Proverbs 22:9 ([Back](#))

[\[2\]](#) 22:9 Hebrew *good*

Footnote from Proverbs 22:14 ([Back](#))

[\[3\]](#) **22:14** Hebrew *strange*

[1] 23:1 Or *who*

Footnote from Proverbs 23:6 ([Back](#))

[\[2\]](#) 23:6 Hebrew *whose eye is evil*

Footnote from Proverbs 23:7 ([Back](#))

[\[3\]](#) **23:7** Or *for as he calculates in his soul, so is he*

Footnote from Proverbs 23:16 ([Back](#))

[\[4\]](#) **23:16** Hebrew *My kidneys*

Footnote from Proverbs 23:20 ([Back](#))

[\[5\]](#) **23:20** Hebrew *those who drink too much wine*

Footnote from Proverbs 23:26 ([Back](#))

[\[6\]](#) 23:26 Or *delight in*

Footnote from Proverbs 23:27 ([Back](#))

[\[7\]](#) **23:27** Hebrew *a foreign woman*

Footnote from Proverbs 23:34 ([Back](#))

[\[8\]](#) 23:34 Or *of the rigging*

Footnote from Proverbs 23:35 ([Back](#))

[\[9\]](#) **23:35** Hebrew lacks *you will say*

Footnote from Proverbs 24:9 ([Back](#))

[\[1\]](#) 24:9 Or *scheming*

Footnote from Proverbs 25:8 ([Back](#))

[\[1\]](#) 25:8 Hebrew *or else*

Footnote from Proverbs 25:27 ([Back](#))

[\[2\]](#) **25:27** The meaning of the Hebrew line is uncertain

Footnote from Proverbs 26:10 ([Back](#))

[\[1\]](#) **26:10** Or *hires a fool or passersby*

Footnote from Proverbs 26:23 ([Back](#))

[\[2\]](#) **26:23** By revocalization; Hebrew *silver of dross*

Footnote from Proverbs 27:9 ([Back](#))

[\[1\]](#) **27:9** Or *and so does the sweetness of a friend that comes from his earnest counsel*

Footnote from Proverbs 27:13 ([Back](#))

[\[2\]](#) **27:13** Hebrew *a foreign woman*; a slight emendation yields (compare Vulgate; see also 20:16)
foreigners

Footnote from Proverbs 27:16 ([Back](#))

[3] 27:16 Hebrew *to meet with*

Footnote from Proverbs 27:17 ([Back](#))

[\[4\]](#) **27:17** Hebrew *sharpens the face of another*

Footnote from Proverbs 28:8 ([Back](#))

[\[1\]](#) **28:8** That is, profit that comes from charging interest to the poor

Footnote from Proverbs 28:17 ([Back](#))

[\[2\]](#) 28:17 Hebrew *until the pit*

Footnote from Proverbs 28:22 ([Back](#))

[3] 28:22 Hebrew *A man whose eye is evil*

Footnote from Proverbs 29:4 ([Back](#))

[\[1\]](#) **29:4** Or *who taxes heavily*

Footnote from Proverbs 29:10 ([Back](#))

[\[2\]](#) **29:10** Or *but the upright seek his soul*

Footnote from Proverbs 29:18 ([Back](#))

[3] 29:18 Or *the people are discouraged*

[\[4\]](#) **29:21**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rendered *his heir* is uncertain

Footnote from Proverbs 30:1 ([Back](#))

[1] 30:1 Or *Jakeh, the man of Massa*

Footnote from Proverbs 30:1 ([Back](#))

[\[2\]](#) **30:1** Revocalization; Hebrew *The man declares to Ithiel, to Ithiel and Ucal*

Footnote from Proverbs 30:11 ([Back](#))

[\[3\]](#) **30:11** Hebrew *There is a generation*; also verses 12, 13, 14

Footnote from Proverbs 30:15 ([Back](#))

[\[4\]](#) **30:15** Or “*Give, give,*” *they cry*

Footnote from Proverbs 30:31 ([Back](#))

[\[5\]](#) **30:31** Or *the magpie*, or *the greyhound*; Hebrew *girt-of-loins*

Footnote from Proverbs 30:31 ([Back](#))

[\[6\]](#) **30:31** Or *against whom there is no rising up*

Footnote from Proverbs 31:2 ([Back](#))

[\[1\]](#) **31:2** Hebrew *What, my son?*

Footnote from Proverbs 31:6 ([Back](#))

[\[2\]](#) **31:6** Hebrew *those bitter in soul*

Footnote from Proverbs 31:8 ([Back](#))

[\[3\]](#) **31:8** Hebrew *are sons of passing away*

Footnote from Proverbs 31:10 ([Back](#))

[\[4\]](#) **31:10** Verses 10–31 are an acrostic poem, each verse beginning with the successiv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Footnote from Proverbs 31:17 ([Back](#))

[\[5\]](#) **31:17** Hebrew *She girds her loins*

Footnote from Proverbs 31:21 ([Back](#))

[\[6\]](#) **31:21** Or *in double thickness*

전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cclesiastes 1](#) • [Ecclesiastes 2](#) • [Ecclesiastes 3](#) • [Ecclesiastes 4](#) • [Ecclesiastes 5](#) • [Ecclesiastes 6](#)
• [Ecclesiastes 7](#) • [Ecclesiastes 8](#) • [Ecclesiastes 9](#) • [Ecclesiastes 10](#) • [Ecclesiastes 11](#)
• [Ecclesiastes 12](#)

전도서

세상만사 헛되다

ECCLESIASTES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a전도자의 말이다.(a 히,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

2a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a 히,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

3사람이 b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b 히, '해 아래')

4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5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저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6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7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8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9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b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b 히, '해 아래')

10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11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혜도 헛되다

12 ○나 a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a 히,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 **13**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 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얹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14** b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c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b 히, '해 아래' c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15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16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17**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것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즐거움도 헛되다

ECCLESIASTES 2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2**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3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 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 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5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6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7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를 가져 보았다.

8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9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10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11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a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b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a 히, '해 아래'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12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슬기도 어리석음도 다 헛되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였다.

13"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우미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14"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15○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16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17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a인생살이에 얹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b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a 히, '해 아래'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수고도 헛되다

18○a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a 히, '해 아래') 19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a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a 히, '해 아래')

20○a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a 히, '해 아래') 21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22사람이 a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삭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a 히, '해 아래') 23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24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25 ^c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나를 떠나서는' 또는 '내가 없이는')

26 ^o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
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b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매사에 때가 있다

ECCLESIASTES 3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2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뱉을 때가 있다.

3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5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6 찾아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9 ^o사람이 애쓰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탬 수 있겠는가? **10** 이제 보니, 이 모든 것
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11**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
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
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12**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13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14**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탬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15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a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a 또는 '과거를 다시 불러 오신다' 또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16 나는 b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b 히, '해 아래')

17 나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18 나는 또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19**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20**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21**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22**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 주겠는가?

억압, 수고, 우정

ECCLESIASTES 4 나는 또 a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a 히, '해 아래')

²○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³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a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a 히, '해 아래')

⁴○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b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⁵"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⁶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b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⁷나는 a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a 히, '해 아래')

⁸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⁹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¹⁰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¹¹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¹²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승진도 헛되다

13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14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15 내가 보니,
a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a 히, '해 아래')

16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b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라

ECCLESIASTES 5 하나님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2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금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4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5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6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7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8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9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놓고 농사를 짓는다.

10[부자가 된들 무엇하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12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잔다.

13 나는 a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a 히, '해 아래')

14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 줄 것이 없다.

15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한다.

16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17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18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a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a 히, '해 아래') **1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20**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ECCLESIASTES 6 나는 a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a 히, '해 아래') **2**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3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4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5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6 비록 사람이
천 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7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8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9 이것 또한 헛되고,
b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b 또는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호 12:1을 볼 것))

10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룰 수 없다.

11말이 많으면 빈 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12**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a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겠는가?(a 히, '해 아래')

지혜

ECCLESIASTES 7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2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4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다.

5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6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7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8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9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10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11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a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a 히, '해 아래')

12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기 때문이다.

13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14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15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16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17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18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19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열 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20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21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22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23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24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25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달는 데에
정신을 쏟아 보았다.

26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덧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27 보아라, **b**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b** 히,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

28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 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 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29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ECCLESIASTES 8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왕에게 복종하라

2 ^a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a 히, '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5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6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7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8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 주지 않는다. (**b** 또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악한 사람과 올바른 사람

9나는 **c**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c** 히, '해 아래') **10**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
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
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11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
이다. **12**악한 사람이 백 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13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14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
는가?

15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c**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c**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
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c** 히, '해 아래')

16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
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17**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c**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c 히, '해 아래')

모두 다 겪은 일

ECCLESIASTES 9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2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a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a 칠십인역(아퀼라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3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b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b 히, '해 아래')

4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5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6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b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여들 자리가 없다. (**b** 히, '해 아래')

7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8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9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b**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b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b** 히, '해 아래')

10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c**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c** 히, '스올')

11나는 **b**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b** 히, '해 아래')

12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어리석음보다 슬기가 낫다

13 ○나는 b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b 히, '해 아래') **14**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15** 그 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16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 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7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18 지혜가 전쟁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ECCLESIASTES 10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2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3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4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⁵내가 a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a 히, '해 아래') ⁶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⁷내가 보니, 좋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⁸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⁹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¹⁰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¹¹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 데가 없다.

¹²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¹³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¹⁴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¹⁵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¹⁶왕은 b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b 또는 '종이고')

17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18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19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20마음 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네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네 소리를 전할 것이다.

슬기로운 삶

[ECCLESIASTES](#) **11**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2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3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 곳에 그대로 있는 법.

4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5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6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8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9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10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ECCLESIASTES 12 젊은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2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3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어지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4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5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걸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6은사슬이 a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숴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a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풀리고')

7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8b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b 히,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

결론

9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10**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11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12한 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13 ◦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14 ◦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Footnote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 ([Back](#))

[\[1\]](#) **1:1** Or *Convener*, or *Collector*; Hebrew *Qoheleth* (so throughout Ecclesiaste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2 ([Back](#))

[2] 1:2 The Hebrew term *hebel*, translated *vanity* or *vain*, refers concretely to a “mist,” “vapor,” or “mere breath,” and metaphorically to something that is fleeting or elusive (with different nuances depending on the context). It appears five times in this verse and in 29 other verses in Ecclesiaste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5 ([Back](#))

[\[3\]](#) **1:5** Or *and returns panting*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1 ([Back](#))

[\[4\]](#) 1:11 Or *former people*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1 ([Back](#))

[\[5\]](#) 1:11 Or *later people*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3 ([Back](#))

[\[6\]](#) **1:13** The Hebrew term denotes the center of one's inner life, including mind, will, and emotion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4 ([Back](#))

[\[7\]](#) **1:14**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4 ([Back](#))

[\[8\]](#) **1:14** Or *a feeding on wind*; compare Hosea 12:1 (also in Ecclesiastes 1:17; 2:11, 17, 26; 4:4, 6, 16; 6:9)

Footnote from Ecclesiastes 2:1 ([Back](#))

[\[1\]](#) **2:1**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verses 11, 15, 17, 19, 21, 23, 26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2:8 ([Back](#))

[\[2\]](#) **2:8**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Ecclesiastes 2:24 ([Back](#))

[\[3\]](#) **2:24** Or *and make his soul see good*

Footnote from Ecclesiastes 2:25 ([Back](#))

[\[4\]](#) **2:25**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apart from me*

Footnote from Ecclesiastes 3:15 ([Back](#))

[\[1\]](#) **3:15** Hebrew *what has been pursued*

Footnote from Ecclesiastes 3:19 ([Back](#))

[\[2\]](#) **3:19**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4:4 ([Back](#))

[\[1\]](#) **4:4**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verses 7, 8, 16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4:15 ([Back](#))

[\[2\]](#) **4:15** Hebrew *the second*

Footnote from Ecclesiastes 4:15 ([Back](#))

[\[3\]](#) 4:15 Hebrew *his*

Footnote from Ecclesiastes 5:1 ([Back](#))

[\[1\]](#) **5:1** Ch 4:17 in Hebrew

Footnote from Ecclesiastes 5:2 ([Back](#))

[\[2\]](#) **5:2** Ch 5:1 in Hebrew

Footnote from Ecclesiastes 5:6 ([Back](#))

[\[3\]](#) **5:6** Hebrew *your flesh*

Footnote from Ecclesiastes 5:6 ([Back](#))

[\[4\]](#) 5:6 Or *angel*

Footnote from Ecclesiastes 5:7 ([Back](#))

[\[5\]](#) **5:7**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verse 10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5:7 ([Back](#))

[\[6\]](#) **5:7** Or *For when dreams and vanities increase, words also grow many; but*

Footnote from Ecclesiastes 5:9 ([Back](#))

[\[7\]](#) **5:9**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cclesiastes 5:18 ([Back](#))

[\[8\]](#) **5:18** Or *and see good*

Footnote from Ecclesiastes 6:2 ([Back](#))

[\[1\]](#) **6:2**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verses 4, 9, 11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6:6 ([Back](#))

[\[2\]](#) 6:6 Or *see*

Footnote from Ecclesiastes 6:7 ([Back](#))

[\[3\]](#) **6:7** Hebrew *filled*

Footnote from Ecclesiastes 6:12 ([Back](#))

[\[4\]](#) **6:12**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7:6 ([Back](#))

[\[1\]](#) 7:6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7:9 ([Back](#))

[\[2\]](#) 7:9 Hebrew *in the bosom*

Footnote from Ecclesiastes 7:15 ([Back](#))

[\[3\]](#) **7:15**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8:2 ([Back](#))

[\[1\]](#) **8:2** Hebrew lacks *say*

Footnote from Ecclesiastes 8:2 ([Back](#))

[2] 8:2 Or *because of your oath to God*

Footnote from Ecclesiastes 8:6 ([Back](#))

[\[3\]](#) 8:6 Or *evil*

Footnote from Ecclesiastes 8:10 ([Back](#))

[\[4\]](#) **8:10**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Vulgate; most Hebrew manuscripts *forgotten*

Footnote from Ecclesiastes 8:10 ([Back](#))

[\[5\]](#) **8:10**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twice in verse 14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9:2 ([Back](#))

[\[1\]](#) **9:2**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lacks *and the evil*

Footnote from Ecclesiastes 9:9 ([Back](#))

[\[2\]](#) **9:9**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9:10 ([Back](#))

[3] **9:10** Or *finds to do with your might, do it*

Footnote from Ecclesiastes 10:4 ([Back](#))

[\[1\]](#) 10:4 Hebrew *healing*

Footnote from Ecclesiastes 10:10 ([Back](#))

[\[2\]](#) **10:10** Or *wisdom is an advantage for succes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0:12 ([Back](#))

[\[3\]](#) **10:12** Or *are gracious*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5 ([Back](#))

[\[1\]](#) **11:5** Some Hebrew manuscripts, Targum; most Hebrew manuscripts *As you do not know the way of the wind, or how the bones grow in the womb*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8 ([Back](#))

[\[2\]](#) **11:8**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also verse 10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11:10 ([Back](#))

[\[3\]](#) 11:10 Or *evil*

Footnote from Ecclesiastes 12:5 ([Back](#))

[\[1\]](#) **12:5** Or *is a burden*

Footnote from Ecclesiastes 12:8 ([Back](#))

[\[2\]](#) **12:8** The Hebrew term *hebel* can refer to a “vapor” or “mere breath” (three times in this verse); see note on 1:2

Footnote from Ecclesiastes 12:13 ([Back](#))

[\[3\]](#) **12:13** Or *the duty of all mankind*

Footnote from Ecclesiastes 12:14 ([Back](#))

[\[4\]](#) **12:14** Or *into the judgment on*

아가

[\(return to table of contents\)](#)

[Song of Solomon 1](#) • [Song of Solomon 2](#) • [Song of Solomon 3](#) • [Song of Solomon 4](#)
• [Song of Solomon 5](#) • [Song of Solomon 6](#) • [Song of Solomon 7](#) • [Song of Solomon 8](#)

아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SONG OF SOLOMON](#) 1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a(여자)(a 히브리어 본문의 대명사를 보고 남녀를 구별하였음. 사랑하는 두 남녀 외에 '친구들'이 등장함.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구분을 달리하는 곳도 있음)

2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3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입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4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b임의 침실로.

(친구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b 히브리어 남성 단수)

(여자)
5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c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c 또는 '살마의')

6내가 검다고,
내가 햇별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 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7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 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 떼를 쉬게 합니까?

양 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해매란 말입니까?

(친구들)

8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 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남자)

9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10딸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친구들)

11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여자)

12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13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14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남자)

15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여자)

16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남자)

17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서까래는 전나무라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SONG OF SOLOMON 2](#) (여자)

나는 샤론의 a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a 또는 '장미')

(남자)

2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릴소.

(여자)

3숲 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임이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4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5"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6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 주시네.

7"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 다오."

겨울은 지나고

8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9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11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걷혔소.

12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13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임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14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런 모습을 보여 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 주오.

15"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

(여자)

16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17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b베데르 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b '바위 언덕의')

아름다운 꿈

SONG OF SOLOMON 3 (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2¹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3¹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4¹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5¹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 다오.

신랑이 오네

6¹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7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빠어난 용사 예수 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8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9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10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달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11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씩워 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름다운 신부

SONG OF SOLOMON **4** (남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2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3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4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천 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 놓은 망대와 같구나.

5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6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 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7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8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9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10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11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 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 버린 샘.

13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 꽃과 나도 풀,

14 나도 풀과 번홍꽃,
창포와 계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15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여자)

16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SONG OF SOLOMON 5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친구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꿈

(여자)

2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3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흠을 묻혀야 하나?

4사랑하는 이가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5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6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 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7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겹옷을 벗기네.

8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친구들)

9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여자)

10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11머리는 정금이고,
곰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12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13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14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15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능름하고,
백향목처럼 흰칠하다.

16그의 입 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SONG OF SOLOMON 6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여자)

2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 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3나는 임의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남자)

4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5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 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6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7너울 속 그대의 불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8왕비가 예순 명이요,
후궁이 여든 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9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흰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11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12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a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a 또는 '아미나답의 병거에' 또는 '백성의 병거에')

(친구들)

13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남자)

14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결혼식 춤

SONG OF SOLOMON 7 (친구들)

귀한 집 딸아,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숙련공이 공들여 만든 패물 같구나.

2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 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3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4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랍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5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 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 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남자)

6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따고 고운가?

7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8"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 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 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9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여자)

a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a 칠십인역과 아퀼라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잠자는
사람들의 입술')

10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11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12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13자귀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햇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 둔 것들이라오.

그대와 나

[SONG OF SOLOMON](#) 8 (여자)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려만,

2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들이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려만.

3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 주시네.

4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 다오.

(친구들)

5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별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여자)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 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6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a거센 불길입니다. (a 또는 '주님의 불길 같습니다')

7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친구들)

8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여자)

9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 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 주마.

10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11솔로몬은 바알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천 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12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천 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이백 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남자)

13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 주오.

(여자)

14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Footnote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1:2 ([Back](#))

[\[1\]](#) **1:2** The translators have added speaker identifications based on the gender and number of the Hebrew word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1:11 ([Back](#))

[\[2\]](#) **1:11** The Hebrew for *you* is feminine singular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1 ([Back](#))

[\[1\]](#) **2:1** Probably a bulb, such as a crocus, asphodel, or narcissu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4 ([Back](#))

[\[2\]](#) **2:4** Hebrew *the house of wine*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7 ([Back](#))

[\[3\]](#) **2:7** That is, I put you on oath; so throughout the Song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12 ([Back](#))

[\[4\]](#) 2:12 Or *pruning*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15 ([Back](#))

[\[5\]](#) **2:15** Or *jackal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16 ([Back](#))

[\[6\]](#) **2:16** Or *he pastures his flock*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2:17 ([Back](#))

[\[7\]](#) **2:17** Or *mountains of Bether*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3:7 ([Back](#))

[\[1\]](#) **3:7** That is, the couch on which servants carry a king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3:9 ([Back](#))

[2] 3:9 Or *sedan chair*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4:4 ([Back](#))

[\[1\]](#) 4:4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4:8 ([Back](#))

[\[2\]](#) 4:8 Or *Look*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5:12 ([Back](#))

[\[1\]](#) **5:12**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5:14 ([Back](#))

[\[2\]](#) **5:14**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5:14 ([Back](#))

[\[3\]](#) **5:14** Hebrew *lapis lazuli*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5:16 ([Back](#))

[\[4\]](#) **5:16** Hebrew *palate*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6:2 ([Back](#))

[\[1\]](#) **6:2** Or *to pasture his flock*; also verse 3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6:12 ([Back](#))

[\[2\]](#) **6:12** Or *chariots of Ammi-Nadib*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6:13 ([Back](#))

[\[3\]](#) **6:13** Ch 7:1 in Hebrew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6:13 ([Back](#))

[\[4\]](#) **6:13** Or *dance of Mahanaim*

[1] 7:6 Or *among delight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7:9 ([Back](#))

[\[2\]](#) 7:9 Hebrew *palate*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7:9 ([Back](#))

[\[3\]](#) **7:9**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causing the lips of sleepers to speak*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7:11 ([Back](#))

[\[4\]](#) 7:11 Or *among the henna plants*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8:6 ([Back](#))

[\[1\]](#) 8:6 Or *ardor*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8:6 ([Back](#))

[\[2\]](#) 8:6 Hebrew *as Sheol*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8:7 ([Back](#))

[\[3\]](#) **8:7** Or *it*

Footnote from Song of Solomon 8:10 ([Back](#))

[\[4\]](#) 8:10 Or *brings out*

이사야

[\(return to table of contents\)](#)

[Isaiah 1](#) • [Isaiah 2](#) • [Isaiah 3](#) • [Isaiah 4](#) • [Isaiah 5](#) • [Isaiah 6](#) • [Isaiah 7](#) • [Isaiah 8](#) • [Isaiah 9](#)
• [Isaiah 10](#) • [Isaiah 11](#) • [Isaiah 12](#) • [Isaiah 13](#) • [Isaiah 14](#) • [Isaiah 15](#) • [Isaiah 16](#) • [Isaiah 17](#)
• [Isaiah 18](#) • [Isaiah 19](#) • [Isaiah 20](#) • [Isaiah 21](#) • [Isaiah 22](#) • [Isaiah 23](#) • [Isaiah 24](#) • [Isaiah 25](#)
• [Isaiah 26](#) • [Isaiah 27](#) • [Isaiah 28](#) • [Isaiah 29](#) • [Isaiah 30](#) • [Isaiah 31](#) • [Isaiah 32](#) • [Isaiah 33](#)
• [Isaiah 34](#) • [Isaiah 35](#) • [Isaiah 36](#) • [Isaiah 37](#) • [Isaiah 38](#) • [Isaiah 39](#) • [Isaiah 40](#) • [Isaiah 41](#)
• [Isaiah 42](#) • [Isaiah 43](#) • [Isaiah 44](#) • [Isaiah 45](#) • [Isaiah 46](#) • [Isaiah 47](#) • [Isaiah 48](#) • [Isaiah 49](#)
• [Isaiah 50](#) • [Isaiah 51](#) • [Isaiah 52](#) • [Isaiah 53](#) • [Isaiah 54](#) • [Isaiah 55](#) • [Isaiah 56](#) • [Isaiah 57](#)
• [Isaiah 58](#) • [Isaiah 59](#) • [Isaiah 60](#) • [Isaiah 61](#) • [Isaiah 62](#) • [Isaiah 63](#) • [Isaiah 64](#) • [Isaiah 65](#)
• [Isaiah 66](#)

이사야서

ISAIAH 1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꾸짖으시다

2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4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5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6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7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8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워된 성읍과 같구나.

9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 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10너희 소돔의 **a**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b**법에 귀를 기울여라. (**a** 또는 '사사들아' **b** 또는 '가르침' 또는 '교훈')

11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12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16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17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c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c 또는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어라')

18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19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20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21 [죄로 가득 찬 성읍]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총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22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23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24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25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젖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26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28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29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30기어이 너희는
앞이 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31강한 자가 삼오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 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영원한 평화

ISAIAH 2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2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a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a** 또는 '가르침' 또는 '교훈')

4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5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날

6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7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8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9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b**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b** 또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마십시오')

10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11그 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2그 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13또 그 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15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16c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c 또는 '모든 무역선과')

17그 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18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19그 때에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20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릴 것이다.

21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22"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써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의 혼돈

ISAIAH 3 주 만군의 주님께서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2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3오십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4"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5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없이 대할 것이다."

6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7바로 그 날에,
그가 큰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8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9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 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10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11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12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a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네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a 칠십인역에는 '채권자들이')

주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다

13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14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15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갠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경고하시다

1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18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19** 귀고리, 팔찌, 머리 쓰개, **20**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21** 가락지, 코걸이, **22** 고운 옷, 겹옷, 외투, 손지갑, **23** 손거울, 모시 옷, 머릿수건, 너울 등을 다 벗기실 것이다.

24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b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b 사해 사본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수치'가 없음)

25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26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ISAIAH 4 그 날이 오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2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돈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3또한 그 때에는,
시온에 남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 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4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 주시고,
심판의 영광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5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닫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6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ISAIAH 5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2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 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 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3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 번 판단하여 보아라.

4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나?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5"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6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찢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7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8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9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10또한 열흘 같이 포도원이
포도주 a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b한 호멜의 씨가
겨우 c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a 약 6갈론(약 22리터) b 약 12말 c 약 1말 2되)

11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열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12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거문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13"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14그러므로
d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 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d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5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 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16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17그 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e낮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e 칠십인역에는 '어린 양 떼가')

18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19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20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1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2포도주즙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고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3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24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 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25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26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27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28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29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 치며
전리품을 움켜 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30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다

ISAIAH 6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3** 그리고 그들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4^o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5^o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
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다
니!"

6^o그 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
에게 날아와서, 7^o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8^o그 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
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9^o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a'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a 칠십인역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 10^ob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b 칠십인역에는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 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11^o그 때에 내가 여쭙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12^o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13주민의 심분의 일이

아직 그 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내린 경고

ISAIAH 7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2○시리아 군대가 **a**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 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a** 또는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3○그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b**스알야숨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뿔뿔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b**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4**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5**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야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약을 꾸미면서 **6**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흠어지게 하며, 그 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놓자'고 한다.

7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약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8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육십오 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9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임마누엘의 징조

10○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11**"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 달라고 하여라."

12○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13○그 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14**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c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d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c 칠십인역을 따름. 히, '젊은 여인이' 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5**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e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e 또는 '때까지') **16**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17**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앗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18○그 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 강 끝에 있는 파리 떼를 부르시며, 앗시리아 땅에 있는 벌 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19**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20○그 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 온 면도칼 곧 앗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 버리실 것입니다.

21○그 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22**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그 날에는, 은 천 냥 값이 되는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24**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25**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놓아 기르며, 양이나 밍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징조가 된 이사야의 아들

ISAIAH 8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a'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써라.(노락이 속히 올 것이다) **2**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3○그런 다음에 나는 b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

바스'라고 하여라.(b 또는 '여자 예언자' 또는 '예언자의 아내') ⁴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앓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 갈 것이다."

앗시리아 왕의 침략

⁵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⁶"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좋아하니,

⁷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앓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 때에 그 물이 온 샅강을 뒤덮고
독마다 넘쳐서,

⁸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⁹너희 민족들아!
어디, c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c 또는 '너희 마음대로 행하여 보아라')

¹⁰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d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d 히, '임마누엘')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경고하시다

11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12 "너희는
이 백성이 e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e 또는 '맺는 맹약에') **13**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14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15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덧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16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17**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18**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 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시는, 살아 있는 징조와 예표다. **19-20**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 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 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21**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22**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ISAIAH 9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걷힐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 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그치고

²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a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a 또는 '어둠의 땅에')

³"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⁴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⁵침략자의 군화와 피물은 군복이
모두 땀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⁶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b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c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b 또는 '놀라운 자, 조연자' ^c 또는 '권좌에 앉으신 이')

⁷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8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룰 것이다.

9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10"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11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12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3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14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15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16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17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d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d 사해 사본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기뻐하지')

18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짚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 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19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땀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e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e 또는 '자식의')

21므낏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낏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ISAIAH 10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2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3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4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도구인 앓시리아 왕

5앓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6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7앗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8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9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밋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10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11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12○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앗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13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a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a 또는 '용맹스러운 자들을 진압하였다')

14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15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뿔내며,
톱이 어찌
커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16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환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7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18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b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이 하실 것이다. (b 히,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19**숲 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 남은 소수가 돌아올 것이다

20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겨레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21c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22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c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c 히, '스알야숨')

23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앗시리아를 벌하신다

24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앗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5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26만군의 주님께서
오렘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앗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27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앗시리아가 지워 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앗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찌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d 칠십인역에는 '네 어깨에서')

침략자들의 공격

28앗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29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30딸 갈림아, 큰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돗아, 대답하여라.

31맛메나 사람이 도망 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32바로 그 날,
벌써 적들이 놉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33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34 백백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평화의 나라

ISAIAH 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2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3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4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5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6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7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8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포로된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앗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a**상 이집트와 **b**에티오피아와 엘람과 **c**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a** 히, '바드로스' **b**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c** 히, '시날')

12 주님께서, 뭇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13 그 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d**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d** 또는 '원수들') **14**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15주님께서
e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f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일곱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e 또는 '수에즈 만의' f히, '그 강') **16**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앗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감사 찬송

같이 하실 것이다.

ISAIAH 12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a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a 히, '야') **3**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올 것이다.

4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5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6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벌하실 것이다

ISAIAH 13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2"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3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성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4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우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나라들이 소리 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5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6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a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a 히, '샤다이') 7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8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 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9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10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11"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 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12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13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4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 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 칠 것이다.

15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17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18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19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b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b** 또는 '갈대아')

20 그 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 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21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뿔뿔하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 놀 것이다.

22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능대가 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ISAIAH 14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겨레와 함께 살 것이다.

2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하로 내려간 바빌론 왕

3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 주시고,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
실 때에, **4**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a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a**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하여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
어역을 따름)

5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6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7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부른다.

8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옳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9땅 밑의 **b**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0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 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과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11너의 영화가
너의 거문고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12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짝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13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잡고 앉겠다.

14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15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렁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16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17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18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19 너는 무덤도 없이 c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c 칠십인역 참조. 마소라 본문에는 '보기 싫은 나뭇가지처럼')

20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21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하실 것이다

22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 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3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 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24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25 내가 나의 땅에서

앗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 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26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27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다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29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30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d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d 사해 사본과 불가타에는 '내가', 마소라 본문에는 '그가')

31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녹아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32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실 것이다

ISAIAH 15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2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3 그들이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4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5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슬리시야까지
도망 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히트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6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7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 놓은 것과
쌓아 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8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브엘엘림에까지 이른다.

9a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a 마소라 본문을 따름. 사해 사본과 몇몇 칠십인역 사본과 불가타
에는 '디본')

모압의 절망 상태

ISAIAH 16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2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동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a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a 여러 성읍의 주민을 뜻함)

3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4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5다윗의 b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b 히, '장막')

6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7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8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 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 가더니!

9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십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본아,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10"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11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 줄이 튼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12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13○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14**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삼 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헛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삼 년을 센다. 삼 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시리라

[ISAIAH 17](#)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²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 떼의 차지가 되며,
양 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³"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⁴"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⁵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⁶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7"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8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9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 친
히위 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11나무를 심는 그 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적국이 멸망하다

12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13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 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14 그들이 저녁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략한 자가 받을 몹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벌하실 것이다

ISAIAH 18 a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2**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3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4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b"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되약별이 고요히 내리쬘듯이, (b 또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봄이 쬘이는
되약별 같고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

5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싹 포도가 영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낮으로 자르시고,
뺏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6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 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7그 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실 것이다

[ISAIAH](#) **19**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2"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3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기를 죽여 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4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서
하신 말씀이다.

5 나일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6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7 나일 강 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8 나일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 할 것이다.

9 가는 베를 짜는 사람이
베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10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11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12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13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a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a** 히, '놉')

14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15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16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17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18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b'열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b 사해 사본과 불가타와 몇몇 마소라 본문에는 '태양
의 성읍', 곧 '헬리오폴리스')

19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20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21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 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22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낮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23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통하는
큰길이 생겨,
앗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앗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4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벌거벗은 예언자의 징조

ISAIAH 20 앗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2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3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4** 앗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5**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 그 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앗시리아 왕에게서 구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나?"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ISAIAH 21 이것은 a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a 바빌로니아)

2나는 꿈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아,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3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 몸이 건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4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어졌다.
내가 것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5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칫상을 차려 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6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7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8b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b 사해 사본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사자가')

9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 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10아, 짓밟히던 나의 겨레여,
타작 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경고

11○이것은 c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c '침묵'. 두마는 에돔에 대한 어희, 두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에돔')

12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 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 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13○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덩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14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데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15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16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 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 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일 년을 센다.
일 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17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ISAIAH 22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2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3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 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 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4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5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 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6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7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8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 때에, 너희는
'수풀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9'다윗 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뭇'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10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 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11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12 그 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13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14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15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16 네가 이 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쏘아 내는 자야!

17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18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 버리신다.
네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19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20○그 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21**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2**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23**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a**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a 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24**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25○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 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베니게에 대한 경고

ISAIAH 23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돛을 내릴 항구도 없다.
a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a 히, '깃땀')

2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 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3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었으니,
두로는 곧 못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4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5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6베니게의 주민아,
b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b 히, '다시스') **7**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8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9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 것 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10b스페인의 c딸아,
d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b 히, '다시스' c 또는 '주민아' d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 사본
들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다시스의 딸아, 나일 강처럼 땅 위에 넘쳐 흘러라. 너를 속
박하던 것은 이미 없어졌다')

11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서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e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e 히, '가나안')

12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돈아,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짚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a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a 히, '깃딤')

13f(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앗시리아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f 또는 '갈대아')

14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15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칠십 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칠십 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16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네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17칠십 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18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여 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주님께서 땅을 벌하실 것이다

ISAIAH 24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흘으실 것이니,

2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3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4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5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6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7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8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9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10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11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 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12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 난다.

13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떼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걷은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14살아 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15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16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17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18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19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20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21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22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23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낮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찬양

ISAIAH 25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2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4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되악별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5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되악별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다

6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7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8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벌하실 것이다

10주님께서
시온 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11헤엄 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 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12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 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ISAIAH 26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2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3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a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a 히, '야')

5주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6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7주님, 주님께서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8주님,
우리는 주님의 b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b 또는 '판결')

9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11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 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12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13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14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5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6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7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 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18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19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 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

20"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21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 때에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ISAIAH 27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a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a 전설적인 바다 괴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상징함)

2그 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3"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4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5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6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7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8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9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10건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11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땀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12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b**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들이실 것이다. (**b** 히, '그 강') **13**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앗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북왕국을 두고서 한 경고

ISAIAH 28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 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2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3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4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 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 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5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6 주님께서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한 예언자들

7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

8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9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 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 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 떤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10저 자는 우리에게,
a한 자 한 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11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12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 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 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13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a"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에르 삼, 제에르 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뺨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a**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하다. 히,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제에르 삼 제에르 삼'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 번역판에 따라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는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시온의 모퉁잇돌

14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15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b스울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1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17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18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b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꿈쩍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b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9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c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c 또는 '소문만 들어도')

20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21 주님께서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22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지혜

23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24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씨레질만 하겠느냐?

25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26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27소회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어뜨린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어뜨리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쪼갬다.

28 사람이 곡식을 떨어지만,
날알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29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예루살렘의 운명

ISAIAH 29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a아리엘아, 아리엘아,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2 내가 너 a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b'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a '하나님의 암사자', 예루살렘을 가리킴 b 히, '아리엘(번제단)'. '하나님의 암사자'와 '번제단'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같음)

3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뺨 돌려서 탐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4 그 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5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6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태워 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7a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a '하나님의 암사자', 예루살렘을 가리킴)

8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 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무시된 경고

9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10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11이 모든 목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 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12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 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3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14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 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장래에 대한 희망

15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16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빛어진 것이
자기를 빛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17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18그 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싸인 눈 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19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20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 날 것이다.

21그들은 말 한 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22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23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 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24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충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와 맺은 쓸모 없는 조약

ISAIAH 30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2너희가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와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3바로와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4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5쓸모 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6 이것은 네겍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7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쓰는 라합'일 뿐이다."

복종하지 않는 백성

8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9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10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11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13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14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15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16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 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17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천 명씩이나 도망 가니,
적군 다섯 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 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 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18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19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0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볼 것이다.

21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22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 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 칠 것이다.

23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 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24 발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25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26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 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벌하실 것이다

27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 버리는 불과 같다.

28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29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30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 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31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앗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32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앗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33 이미 오래 전에
a'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b앗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향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a 또는 '도벳' b 또는 '몰렉'을)

ISAIAH 31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2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3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4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 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향 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5 새가 날개를 펴고

동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 주고 건져 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6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7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 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8"앗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9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의로 다스릴 왕

ISAIAH 32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2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3"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4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5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6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7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 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8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심판과 회복

9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10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일 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11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 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 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로 허리를 둘러라.

12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13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14 요새는 파괴되고,
bum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 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15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16 그 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17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18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19(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20씨를 뿌리는 곳마다
덜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ISAIAH 33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2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3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 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흠어들어옵니다.

4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5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6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7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8큰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a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a** 사해 사본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그 성읍들이')

9땅이 **b**통곡하고 고달파 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b** 또는 '마르고')

주님께서 적들에게 경고하시다

10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11너희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12뭇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13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 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14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15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16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찬란한 미래

17네가 다시 한 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18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럴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19악한 백성,
곧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20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1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 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낼 것이다.

22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23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24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다

ISAIAH 34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2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a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

3죽은 자들이 내동댕이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4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5"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a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a '진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나 짐
승이나 사람을 일컬음. 사람이 가질 수 없음)

6제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숫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7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8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9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10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1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12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13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 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14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떼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15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16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17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거룩한 길

ISAIAH 35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2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 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3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4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5그 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그 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7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8거기에는 큰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9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10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앗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헐박하다(왕하 **18:13-27**; 대하 **32:1-19**)

ISAIAH 36 히스기야 왕 제 십사년에,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2**그래서 앗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3**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4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 하나? **5**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6**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찢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7**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 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8**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이천 필을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9**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10**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 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11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12**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13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4**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15**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16**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7**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18**히스기야가 너희를 꺾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모든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19**하맛과 아르밋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20**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21백성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22**힐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썸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왕하 19:1-7)

ISAIAH 37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그는 궁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썸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3**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4**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앗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5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6**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앗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7**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뜯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앗시리아가 또 다른 협박을 하여 오다(왕하 19:8-19)

8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립나를 치고 있는 앗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9**그 때에 앗시리아 왕은, a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10**"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넘여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11**너는, 앗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12**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13**하맛의 왕, 아르밋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14○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15**주님께 기도하였다.

16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17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18주님, 참으로 앗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19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앗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20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b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b** 사해 사본에는 '하나님이심을', 마소라 본문에는 '주님이심을')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왕하 **19:20-37**)

21○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앗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 산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23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네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24네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 속 깊숙히 들어가서,
그 끝간 데까지 들어갔고,

25그리고는 땅을 파서
c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c 사해 사본을 따름(왕하 19:24에서도))

26산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 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27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28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29네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 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30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31**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2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앓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34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35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36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앓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37** 앓시리아 왕 산헤립은 그 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38**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왕하 20:1-11; 대하 32:24-26)

ISAIAH 38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²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³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⁴그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⁵"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⁶너와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⁷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⁸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십 도 올라갈 것이다.'"

⁹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¹⁰나는 한창 나이에

a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¹¹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¹²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베 짜는 사람이 베를 다 짜면

베틀에서 베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베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¹³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14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15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싸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16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낮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17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18a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9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20주님,
주님께서 저를 낮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²¹○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²²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나요?" 하고 물었다.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왕하 20:12-19)

ISAIAH 39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 왔다. ²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다.

³○그 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오." ⁴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⁵○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⁶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 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⁷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⁸○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희망의 말씀

ISAIAH 40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²"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³_a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a 또는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⁴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⁵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⁶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⁷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⁸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⁹**b**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c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b** 또는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c** 또는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¹⁰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11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12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 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13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연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14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15 그에게는 뭇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16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17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8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20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21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22땅 위의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얇은 휘장처럼 펴서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23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24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 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25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26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27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29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0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도,

31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증하시다

ISAIAH 41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 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2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a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흠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a 또는 '의로 불러서 그를 섬기게 하였느냐?')

3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4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 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5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6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7대장장은 도금장을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땀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8"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9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10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1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12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13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14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15"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거로 만들 것이다.

16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흠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17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18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19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20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시다

21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22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23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4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25"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26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27"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28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29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주님의 종]

[ISAIAH](#) 42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불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2그는 소리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3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4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5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6"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7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8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9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찬양의 노래

10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11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12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13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구원의 약속

14"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혈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15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16눈 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17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다

18"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19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20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21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22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락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락을 당하였으나,
노락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 주는 자가 없다.

23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24 야곱이 노락을 당하게
버려 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 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25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구원의 약속] 그

ISAIAH 43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2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쓰바를 내주겠다.

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5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6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7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증인

8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9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10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11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12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3"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 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바빌론으로부터 빠져 나오다

14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a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a 또는 '갈대아')

15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16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17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 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 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18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9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20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21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

22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싫증을 느낀다.

23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 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24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25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26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27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28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b진멸을 받게 버려 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 두었다." (b '진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일컬음. 사람이 가질 수 없음)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ISAIAH 44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2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a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a 이스라엘의 애칭) **3**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4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5그 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6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b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b 또는 '시작하는 것도 나요, 마감하는 것도 나다') **7**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8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우상 숭배 조롱

9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10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11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12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버리고,
숯불에 달구어 메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13목공은 줄을 늘어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14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15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떨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16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17 불을 때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18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때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20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져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주님

21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22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 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23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24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 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펴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25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 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26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27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28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주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ISAIAH 45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2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a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놋쇠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그 뜻이 불확
실함)

3안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 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5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6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7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8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

9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느냐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10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11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12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펴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13바로 내가 **b**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 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b** 고레스를)

14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네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 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Isa 45: 것이다."

15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17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8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19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세상의 주님과 바빌론의 우상

20이방 나라에서 살아 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21너희는 앞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 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22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24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ISAIAH 46 벨 신이 고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메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2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 간다.

3"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4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5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7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 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8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9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10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11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12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 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13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 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바빌론 심판

ISAIAH 47 "처녀 딸 바빌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a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a 또는 '갈대아')
2맷돌을 잡고 가루를 뿜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알몸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4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5"딸 a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a 또는 '갈대아')

6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7b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b 또는 '너는 네가 권좌의 여왕으로')

8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 보아라.
네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9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 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10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 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 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11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12자, 네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13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 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14보아라,
그들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15 바로 네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 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ISAIAH 48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2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3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홀연히 이루었다.

4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네 목 힘줄은 쇠붙이요,
네 이마는 놋쇠나 다름없다.

5 옛적부터 내가 네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네게 들려준 까닭은, 네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6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네게 알려 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네게 알려 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7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네가
들어 본 일이 없는 일이다.
네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아,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8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네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네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9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10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a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a 또는 '고난의 화덕에 넣어서')

11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12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b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b** 또는 '시작하는 것도 나요, 마감하는 것도 나다')

13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주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시다

14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 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 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능력을
c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15"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16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계획

17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다.
네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18"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네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19네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c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c 또는 '갈대아')

21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22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만방에 비치는 빛 이스라엘

ISAIAH 49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2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3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4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 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5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흠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6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7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갓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8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못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마는,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9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10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11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길을 닦겠다.

12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a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a 사해 사본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시님')

13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금훔히 여기셨다.

14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15"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금훔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 보고 있다.

17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18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패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19내가 네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네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20한때 네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속삭이기를
'이 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21그 때에 너는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22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뭇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 아들을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

23왕들이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네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발의 먼지를 닦아 줄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4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b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 올 수 있느냐?

25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 오겠으며,
b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네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b 사해 사본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의로운 자에게서')

26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ISAIAH 5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 준
이혼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 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2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님의 종의 순종

4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5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6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7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8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9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10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11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햇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햇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위로의 말씀

ISAIAH 51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2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 준 사 را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이 하였다."

3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4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5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6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7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 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8 줌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9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 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a라합을 토막 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a 전설적인 바다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함. 때로는 이집트의 상징)

10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11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12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13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14 갇혀 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 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15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16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 준다.
나는 하늘을 찢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고통이 끝나고

17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19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b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b**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마
소라 본문에는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겠느냐?')

20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 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21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22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23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줘어 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다

ISAIAH 52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2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 내어라.

3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 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4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앗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5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a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a 사해 사본과 불가타를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그들을 보고 울부짖는다')

6"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8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10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11너희는 떠나거라,
그 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12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 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 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고난받는 종

13"나의 종이 매사에 b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b 또는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다')

14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c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c 히, '너를')

15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d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d 히, '뿌릴 것이며')

ISAIAH 53 a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a 또는 '우리가 전한 것을')

2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3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7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 그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9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b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b 사해 사본에는 '부자와 함께 들어 갈 묘실을 마련하였
다')

10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11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c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c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ISAIAH 54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3네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4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6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7"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8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9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10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미래의 예루살렘

11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12홍보석으로 홍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13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14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15a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b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a 또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겠지만' 또는 '그들이 모이겠
지만' b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16"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쏫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17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 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비

ISAIAH 55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2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4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a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a 또는 '왕과')

5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6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7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금홍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8"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10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1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2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13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жат나무가 자랄 것이며,
찢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ISAIAH 5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2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3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4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5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6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7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8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 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 들이겠다."

지도자들을 규탄하시다

9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 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10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병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짚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11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12 그 도적들이 입을 살아서
"오너라,
a우리가 술을 가져 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a 사해 사본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와 타르굼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내가')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다

ISAIAH 57 의인이 a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b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a 또는 '죽어도' b 또는 '자비한 사람이')

2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3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4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5너희는 c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c 또는 '우상으로 더불어')

6너는 골짜기의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7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8"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9너는 또 d물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e사신들을 보내고,
f스올에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d 또는 '왕에게' e 또는 '우상들을' f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0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11네가 이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12너는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13너의 우상들에게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 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도우시고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

14"내가 말한다.
땅을 돌우고 돌우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15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g 또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16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17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18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 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19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 주마."

20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 올릴 뿐이다.

21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참 금식

ISAIAH 58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2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즐거워한다고 한다."

3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4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5"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굶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6"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혈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9그 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 버린다면,

10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11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12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 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
이라고 부를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보상

13"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14그 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언자가 백성의 죄를 규탄하다

ISAIAH 59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3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4공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5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6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7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8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다

9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10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11 우리 모두가 꿈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12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13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4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15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악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16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다.
주님께서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17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겹옷으로 입으셨다.

18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19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20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

ISAIAH 60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2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3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4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5 그 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6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7 게달의 모든 양 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윳의 숫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8 저기, 구름 떼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9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10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11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12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13"레바논의 자람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 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14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
이라고 부를 것이다.

15"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16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17내가 낫쇠 대신 금을 가져 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 오며,
나무 대신 낫쇠를 가져 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 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18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 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19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a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a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고대 라틴어역과 타르굼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밤을'이 없음)

20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21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22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없이 이루겠다."

구원의 기쁜 소식

ISAIAH 6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a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b갈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a 또는 '겸손한 사람' b 칠십인역에는 '눈먼 사람')

2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3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4 그들은

오래 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5 낮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6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7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감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감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8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9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10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겹옷으로 둘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11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 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ISAIAH 62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2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3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4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a'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b'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c'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d'결혼한 여인'
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a 히, '아주바' b 히, '세마마' c 히, '헴시바' d 히, '뿔
라')

5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e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e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발음을 달리하여 '너를 지
으신 분께서'로 번역하는 역본들이 있음)

6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7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8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9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10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못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11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12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
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
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의 승리

ISAIAH 63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2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3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4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5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6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

7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8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9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10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11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 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12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13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14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떼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

15하늘로부터 굽어 살피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16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17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18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19우리는 오래 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ISAIAH 64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2마치 불이 쉼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3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4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5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6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7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8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9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10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11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12 주님, 형편이 이러함에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벌하시다

ISAIAH 65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3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4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 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삿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5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달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6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7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8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 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9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10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 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11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잊고,
a갓에게 상을 차려 놓으며,
b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a 행운의 신 b 운명의 신)

12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살육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13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15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16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c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c 히, '아멘')

새 창조

17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18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19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21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22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23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ISAIAH 6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2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3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4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5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6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 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

7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8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9"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0"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11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12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뭇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 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13"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14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15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싸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16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은 것이다.

17"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취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18"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19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 남은 자들을
a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롯,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a.히, '다시스')

20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 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2"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23"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2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Isaiah 1:2 ([Back](#))

[\[1\]](#) **1:2** Or *Sons*; also verse 4

Footnote from Isaiah 1:10 ([Back](#))

[\[2\]](#) 1:10 Or *law*

Footnote from Isaiah 1:18 ([Back](#))

[\[3\]](#) 1:18 Or *dispute*

Footnote from Isaiah 1:21 ([Back](#))

[\[4\]](#) **1:21** Or *become unchaste*

Footnote from Isaiah 1:29 ([Back](#))

[\[5\]](#) **1:29** Some Hebrew manuscripts *you*

Footnote from Isaiah 2:3 ([Back](#))

[\[1\]](#) 2:3 Or *teaching*

Footnote from Isaiah 2:19 ([Back](#))

[\[2\]](#) 2:19 Hebrew *dust*

Footnote from Isaiah 3:1 ([Back](#))

[\[1\]](#) **3:1** Hebrew *staff*

Footnote from Isaiah 3:4 ([Back](#))

[\[2\]](#) 3:4 Or *caprice*

Footnote from Isaiah 3:7 ([Back](#))

[\[3\]](#) **3:7** Hebrew *binder of wounds*

Footnote from Isaiah 3:8 ([Back](#))

[\[4\]](#) **3:8** Hebrew *the eyes of his glory*

Footnote from Isaiah 3:12 ([Back](#))

[\[5\]](#) 3:12 Or *they have confused*

Footnote from Isaiah 3:14 ([Back](#))

[\[6\]](#) **3:14** Or *grazed over*; compare Exodus 22:5

Footnote from Isaiah 4:4 ([Back](#))

[1] 4:4 Or *purging*

Footnote from Isaiah 5:5 ([Back](#))

[\[1\]](#) **5:5** Or *grazed over*; compare Exodus 22:5

Footnote from Isaiah 5:7 ([Back](#))

[\[2\]](#) **5:7** The Hebrew words for *justice* and *bloodshed*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5:7 ([Back](#))

[\[3\]](#) **5:7** The Hebrew words for *righteous* and *outcry*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5:10 ([Back](#))

[\[4\]](#) **5:10** Hebrew *ten yoke*, the area ten yoke of oxen can plow in a day

Footnote from Isaiah 5:10 ([Back](#))

[\[5\]](#) **5:10**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a *home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Isaiah 5:13 ([Back](#))

[\[6\]](#) **5:13** Or *without their knowledge*

Footnote from Isaiah 5:13 ([Back](#))

[\[7\]](#) **5:13** Or *die of hunger*

Footnote from Isaiah 5:14 ([Back](#))

[\[8\]](#) **5:14** Hebrew *her nobility*

Footnote from Isaiah 5:15 ([Back](#))

[\[9\]](#) 5:15 Hebrew *high*

Footnote from Isaiah 5:16 ([Back](#))

[\[10\]](#) **5:16** Hebrew *high*

Footnote from Isaiah 6:1 ([Back](#))

[1] 6:1 Or *hem*

Footnote from Isaiah 6:3 ([Back](#))

[\[2\]](#) **6:3** Or *may his glory fill the whole earth*

Footnote from Isaiah 6:9 ([Back](#))

[\[3\]](#) 6:9 Or *Hear indeed*

Footnote from Isaiah 6:9 ([Back](#))

[\[4\]](#) **6:9** Or *see indeed*

Footnote from Isaiah 6:10 ([Back](#))

[\[5\]](#) 6:10 Hebrew *fat*

Footnote from Isaiah 6:13 ([Back](#))

[\[6\]](#) 6:13 Or *purged*

Footnote from Isaiah 6:13 ([Back](#))

[\[7\]](#) **6:13** Or *offspring*

Footnote from Isaiah 7:2 ([Back](#))

[\[1\]](#) **7:2** Hebrew *Syria has rested upon*

Footnote from Isaiah 7:2 ([Back](#))

[\[2\]](#) 7:2 Hebrew *his heart*

Footnote from Isaiah 7:3 ([Back](#))

[\[3\]](#) **7:3** *Shear-jashub* means *A remnant shall return*

Footnote from Isaiah 7:6 ([Back](#))
[4] 7:6 Hebrew *let us split it open*

Footnote from Isaiah 7:9 ([Back](#))

[\[5\]](#) **7:9**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in verses 9, 13, 14

Footnote from Isaiah 7:11 ([Back](#))

[\[6\]](#) **7:11** The Hebrew for *you* and *your* is singular in verses 11, 16, 17

Footnote from Isaiah 7:13 ([Back](#))

[\[7\]](#) **7:13** That is, Isaiah

Footnote from Isaiah 7:14 ([Back](#))

[\[8\]](#) **7:14** *Immanuel* means *God is with us*

Footnote from Isaiah 7:19 ([Back](#))

[\[9\]](#) **7:19** Or *watering holes*, or *brambles*

Footnote from Isaiah 7:23 ([Back](#))

[\[10\]](#) **7:23**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Isaiah 8:1 ([Back](#))

[\[1\]](#) **8:1** Hebrew *with a man's stylus*

Footnote from Isaiah 8:1 ([Back](#))

[\[2\]](#) **8:1** *Ma-her-shal-lah-hash-baz* means *The spoil speeds, the prey hastens*

Footnote from Isaiah 8:9 ([Back](#))

[\[3\]](#) **8:9** Or *Be evil*

Footnote from Isaiah 8:9 ([Back](#))

[\[4\]](#) 8:9 Or *dismayed*

Footnote from Isaiah 8:10 ([Back](#))

[\[5\]](#) **8:10** The Hebrew for *God is with us* is *Immanuel*

Footnote from Isaiah 8:16 ([Back](#))

[\[6\]](#) **8:16** Or *law*; also verse 20

Footnote from Isaiah 8:21 ([Back](#))

[\[7\]](#) **8:21** Hebrew *it*

Footnote from Isaiah 8:21 ([Back](#))

[\[8\]](#) **8:21** Or *speak contemptuously by*

Footnote from Isaiah 9:1 ([Back](#))

[\[1\]](#) **9:1** Ch 8:23 in Hebrew

Footnote from Isaiah 9:1 ([Back](#))

[\[2\]](#) **9:1** Or *of the Gentiles*

Footnote from Isaiah 9:2 ([Back](#))

[\[3\]](#) **9:2** Ch 9:1 in Hebrew

Footnote from Isaiah 9:6 ([Back](#))

[\[4\]](#) **9:6** Or *is upon*

Footnote from Isaiah 9:6 ([Back](#))

[\[5\]](#) **9:6** Or *is called*

Footnote from Isaiah 9:17 ([Back](#))

[\[6\]](#) **9:17** Or *speaks disgraceful things*

Footnote from Isaiah 10:12 ([Back](#))

[\[1\]](#) 10:12 Hebrew *I*

Footnote from Isaiah 10:27 ([Back](#))

[\[2\]](#) **10:27**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11:11 ([Back](#))

[\[1\]](#) **11:11** Probably *Nubia*

Footnote from Isaiah 11:15 ([Back](#))

[\[2\]](#) **11:15** Hebrew *devote to destruction*

Footnote from Isaiah 11:15 ([Back](#))

[\[3\]](#) 11:15 Or *wind*

Footnote from Isaiah 12:1 ([Back](#))

[\[1\]](#) **12:1** The Hebrew for *you* is singular in verse 1

Footnote from Isaiah 12:2 ([Back](#))
[2] 12:2 Hebrew *for Yah, the LORD*

Footnote from Isaiah 12:3 ([Back](#))

[\[3\]](#) **12:3**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in verses 3, 4

Footnote from Isaiah 12:5 ([Back](#))

[\[4\]](#) **12:5** Or *this is made known*

Footnote from Isaiah 12:6 ([Back](#))

[\[5\]](#) **12:6** The Hebrew for *your* in verse 6 is singular, referring to the *inhabitant of Zion*

Footnote from Isaiah 13:3 ([Back](#))

[\[1\]](#) **13:3** Or *those who exult in my majesty*

Footnote from Isaiah 13:5 ([Back](#))

[\[2\]](#) **13:5** Or *earth*; also verse 9

Footnote from Isaiah 13:6 ([Back](#))

[\[3\]](#) **13:6** The Hebrew words for *destruction* and *almighty*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13:18 ([Back](#))

[\[4\]](#) **13:18** Hebrew *dash in pieces*

Footnote from Isaiah 13:21 ([Back](#))

[\[5\]](#) **13:21** Or *owls*

Footnote from Isaiah 13:22 ([Back](#))

[\[6\]](#) 13:22 Or *foxes*

Footnote from Isaiah 14:2 ([Back](#))

[\[1\]](#) 14:2 Or *servants*

Footnote from Isaiah 14:4 ([Back](#))

[\[2\]](#) **14:4** Dead Sea Scroll (compare Septuagint, Syriac, Vulgate); the meaning of the word in the Masoretic Text is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14:13 ([Back](#))

[\[3\]](#) **14:13** Or *in the remote parts of Zaphon*

Footnote from Isaiah 14:18 ([Back](#))

[4] 14:18 Hebrew *house*

Footnote from Isaiah 14:23 ([Back](#))

[\[5\]](#) **14:23** Possibly *porcupine*, or *owl*

Footnote from Isaiah 15:2 ([Back](#))

[\[1\]](#) 15:2 Hebrew *the house*

Footnote from Isaiah 15:2 ([Back](#))

[\[2\]](#) **15:2** Or *temple, even Dibon to the high places*

Footnote from Isaiah 15:9 ([Back](#))

[\[3\]](#) **15:9** Dead Sea Scroll, Vulgate (compare Syriac); Masoretic Text *Dimo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Isaiah 16:4 ([Back](#))

[\[1\]](#) **16:4**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Syriac; Masoretic Text *let my outcasts sojourn among you; as for Moab, be a shelter to them*

Footnote from Isaiah 17:11 ([Back](#))

[\[1\]](#) 17:11 Or *though you carefully fence them*

Footnote from Isaiah 17:11 ([Back](#))

[\[2\]](#) 17:11 Or *will be a heap*

Footnote from Isaiah 18:1 ([Back](#))

[\[1\]](#) **18:1** Probably *Nubia*

Footnote from Isaiah 19:3 ([Back](#))

[\[1\]](#) **19:3** Or *I will swallow up*

Footnote from Isaiah 19:18 ([Back](#))

[\[2\]](#) **19:18** Dead Sea Scroll and some other manuscripts *City of the Sun*

Footnote from Isaiah 20:3 ([Back](#))

[\[1\]](#) **20:3** Probably *Nubia*

Footnote from Isaiah 21:5 ([Back](#))

[\[1\]](#) **21:5** Or *they set the watchman*

Footnote from Isaiah 21:8 ([Back](#))

[\[2\]](#) **21:8** Dead Sea Scroll, Syriac; Masoretic Text *Then a lion cried out*, or *Then he cried out like a lion*

Footnote from Isaiah 23:1 ([Back](#))

[\[1\]](#) **23:1** Hebrew *Kittim*; also verse 12

Footnote from Isaiah 23:5 ([Back](#))

[\[2\]](#) **23:5** Hebrew *they will have labor pains*

Footnote from Isaiah 23:9 ([Back](#))

[\[3\]](#) **23:9** The Hebrew words for *glory* and *hosts*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23:13 ([Back](#))

[4] **23:13** Or *that has become nothing*

Footnote from Isaiah 23:15 ([Back](#))

[\[5\]](#) 23:15 Or *lifetime*

Footnote from Isaiah 24:1 ([Back](#))

[\[1\]](#) **24:1** Or *land*; also throughout this chapter

Footnote from Isaiah 24:14 ([Back](#))

[\[2\]](#) **24:14** Hebrew *from the sea*

Footnote from Isaiah 24:15 ([Back](#))

[3] **24:15** Hebrew *in the realm of light*

Footnote from Isaiah 24:17 ([Back](#))

[\[4\]](#) **24:17** The Hebrew words for *terror*, *pit*, and *snare*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25:10 ([Back](#))

[\[1\]](#) **25:10** The Hebrew words for *dunghill* and for the Moabite town *Madmen* (Jeremiah 48:2)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25:11 ([Back](#))

[\[2\]](#) **25:11** Or *in spite of the skill*

Footnote from Isaiah 27:2 ([Back](#))

[\[1\]](#) **27:2** Many Hebrew manuscripts *A vineyard of wine*

Footnote from Isaiah 27:6 ([Back](#))

[\[2\]](#) 27:6 Hebrew *In those to come*

Footnote from Isaiah 27:8 ([Back](#))

[\[3\]](#) **27:8** Or *By driving her away*;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27:8 ([Back](#))

[\[4\]](#) 27:8 Or *wind*

Footnote from Isaiah 27:9 ([Back](#))

[\[5\]](#) 27:9 Septuagint *and this is the blessing when I take away his sin*

Footnote from Isaiah 27:12 ([Back](#))

[\[6\]](#) **27:12** Hebrew *from the River*

Footnote from Isaiah 28:5 ([Back](#))

[\[1\]](#) **28:5** The Hebrew words for *glory* and *hosts*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28:7 ([Back](#))

[\[2\]](#) 28:7 Or *confused by*

Footnote from Isaiah 28:16 ([Back](#))

[3] **28:16** Dead Sea Scroll *I am laying*

Footnote from Isaiah 28:25 ([Back](#))

[\[4\]](#) **28:25** A type of wheat

Footnote from Isaiah 28:28 ([Back](#))

[\[5\]](#) **28:28** Or *Grain is crushed for bread; he will surely thresh it, but not forever*

Footnote from Isaiah 29:2 ([Back](#))

[\[1\]](#) **29:2** *Ariel* could mean *lion of God*, or *hero* (2 Samuel 23:20), or *altar hearth* (Ezekiel 43:15–16)

Footnote from Isaiah 29:9 ([Back](#))

[\[2\]](#) **29:9** Or *Linger awhile*

Footnote from Isaiah 30:1 ([Back](#))

[\[1\]](#) **30:1** Hebrew *who weave a web*

Footnote from Isaiah 30:8 ([Back](#))

[\[2\]](#) **30:8** Some Hebrew manuscripts, Syriac, Targum, Vulgate, and Greek versions; Masoretic Text
forever and ever

Footnote from Isaiah 30:15 ([Back](#))

[3] 30:15 Or *repentance*

Footnote from Isaiah 30:27 ([Back](#))

[\[4\]](#) **30:27** Hebrew *in weight of uplifted clouds*

Footnote from Isaiah 30:33 ([Back](#))

[\[5\]](#) **30:33** Or *For Topheth*

Footnote from Isaiah 31:4 ([Back](#))

[\[1\]](#) **31:4** The Hebrew words for *hosts* and *to fight* sound alike

Footnote from Isaiah 31:6 ([Back](#))

[\[2\]](#) 31:6 Hebrew *they*

Footnote from Isaiah 32:17 ([Back](#))

[\[1\]](#) **32:17** Or *security*

Footnote from Isaiah 33:6 ([Back](#))

[\[1\]](#) 33:6 Hebrew *his*

Footnote from Isaiah 33:8 ([Back](#))

[\[2\]](#) **33:8**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witnesses*

Footnote from Isaiah 34:2 ([Back](#))

[\[1\]](#) **34:2** That is, set apart (devoted)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also verse 5

Footnote from Isaiah 34:9 ([Back](#))

[2] 34:9 Hebrew *her streams*

Footnote from Isaiah 34:11 ([Back](#))

[\[3\]](#) **34:11** The identity of the animals rendered *hawk* and *porcupine* is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34:11 ([Back](#))

[\[4\]](#) **34:11** Hebrew *formlessness*

Footnote from Isaiah 34:13 ([Back](#))

[\[5\]](#) **34:13** Or *owls*

Footnote from Isaiah 34:14 ([Back](#))

[6] 34:14 Identity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35:8 ([Back](#))

[\[1\]](#) **35:8** Or *if they are fools, they shall not wander in it*

Footnote from Isaiah 36:2 ([Back](#))

[\[1\]](#) **36:2** *Rabshakeh* is the title of a high-ranking Assyrian military officer

Footnote from Isaiah 36:16 ([Back](#))

[\[2\]](#) **36:16** Hebrew *Make a blessing with me*

Footnote from Isaiah 37:9 ([Back](#))

[\[1\]](#) 37:9 Probably *Nubia*

Footnote from Isaiah 37:27 ([Back](#))

[\[2\]](#) **37:27** Some Hebrew manuscripts and 2 Kings 19:26; most Hebrew manuscripts *like a field*

Footnote from Isaiah 38:1 ([Back](#))

[\[1\]](#) **38:1** Or *live*; also verses 9, 21

Footnote from Isaiah 38:5 ([Back](#))

[\[2\]](#) **38:5** Hebrew *to your days*

Footnote from Isaiah 38:8 ([Back](#))

[\[3\]](#) **38:8**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Isaiah 38:10 ([Back](#))

[\[4\]](#) **38:10** Or *In the quiet*

Footnote from Isaiah 38:13 ([Back](#))

[\[5\]](#) **38:13** Or (with Targum) *I cried for help*

Footnote from Isaiah 40:2 ([Back](#))

[1] 40:2 Or *hardship*

Footnote from Isaiah 40:3 ([Back](#))

[\[2\]](#) **40:3** Or *A voice of one crying*

Footnote from Isaiah 40:6 ([Back](#))

[\[3\]](#) **40:6** Revocalization based on Dead Sea Scroll, Septuagint, Vulgate; Masoretic Text *And someone says*

Footnote from Isaiah 40:6 ([Back](#))

[\[4\]](#) **40:6** Or *all its constancy*

Footnote from Isaiah 40:9 ([Back](#))

[\[5\]](#) **40:9** Or *O herald of good news to Zion*

Footnote from Isaiah 40:9 ([Back](#))

[\[6\]](#) **40:9** Or *O herald of good news to Jerusalem*

Footnote from Isaiah 40:13 ([Back](#))

[\[7\]](#) **40:13** Or *has directed*

Footnote from Isaiah 40:20 ([Back](#))

[\[8\]](#) 40:20 Or *He chooses valuable wood*

Footnote from Isaiah 41:2 ([Back](#))

[\[1\]](#) **41:2** Or *whom righteousness calls to follow?*

Footnote from Isaiah 41:23 ([Back](#))

[\[2\]](#) **41:23** Or *that we may both be dismayed and see*

Footnote from Isaiah 41:27 ([Back](#))

[\[3\]](#) **41:27** Or *Formerly I said*

Footnote from Isaiah 42:4 ([Back](#))

[1] 42:4 Or *bruised*

Footnote from Isaiah 42:6 ([Back](#))

[\[2\]](#) **42:6** The Hebrew for *you* is singular; four times in this verse

Footnote from Isaiah 42:15 ([Back](#))

[\[3\]](#) 42:15 Or *into coastlands*

Footnote from Isaiah 42:19 ([Back](#))

[4] 42:19 Or *as the one at peace with me*

Footnote from Isaiah 44:7 ([Back](#))

[\[1\]](#) **44:7** Or *Who like me can proclaim it?*

Footnote from Isaiah 44:23 ([Back](#))

[\[2\]](#) **44:23** Or *will display his beauty*

Footnote from Isaiah 45:2 ([Back](#))

[\[1\]](#) **45:2**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Septuagint *level the mountains*

Footnote from Isaiah 45:11 ([Back](#))

[\[2\]](#) **45:11** A slight emendation yields *will you question me about my children, or command me concerning the work of my hands?*

Footnote from Isaiah 45:19 ([Back](#))

[\[3\]](#) **45:19** Hebrew *in emptiness*

Footnote from Isaiah 45:23 ([Back](#))

[\[4\]](#) **45:23** Septuagint *every tongue shall confess to God*

Footnote from Isaiah 48:10 ([Back](#))

[\[1\]](#) **48:10** Or *I have chosen*

Footnote from Isaiah 48:11 ([Back](#))

[\[2\]](#) **48:11** Hebrew lacks *my name*

Footnote from Isaiah 49:3 ([Back](#))

[\[1\]](#) **49:3** Or *I will display my beauty*

Footnote from Isaiah 49:12 ([Back](#))

[\[2\]](#) **49:12** Hebrew *from the sea*

Footnote from Isaiah 49:12 ([Back](#))

[\[3\]](#) **49:12** Dead Sea Scroll; Masoretic Text *Sinim*

Footnote from Isaiah 49:17 ([Back](#))

[\[4\]](#) **49:17** Dead Sea Scroll; Masoretic Text *Your children make haste*

Footnote from Isaiah 49:22 ([Back](#))

[\[5\]](#) 49:22 Hebrew *in their bosom*

Footnote from Isaiah 49:24 ([Back](#))

[\[6\]](#) **49:24** Dead Sea Scroll, Syriac, Vulgate (see also verse 25); Masoretic Text *of a righteous man*

Footnote from Isaiah 51:4 ([Back](#))

[1] 51:4 Or *for teaching*; also verse 7

Footnote from Isaiah 51:6 ([Back](#))

[\[2\]](#) **51:6** Or *will die like gnats*

Footnote from Isaiah 51:16 ([Back](#))

[\[3\]](#) **51:16** Or *planting*

Footnote from Isaiah 51:19 ([Back](#))

[\[4\]](#) **51:19** Dead Sea Scroll, Septuagint, Syriac, Vulgate; Masoretic Text *how shall I comfort you*

Footnote from Isaiah 52:4 ([Back](#))

[1] 52:4 Or *the Assyrian has oppressed them of late*

Footnote from Isaiah 52:13 ([Back](#))

[\[2\]](#) **52:13** Or *shall prosper*

Footnote from Isaiah 52:15 ([Back](#))

[\[3\]](#) 52:15 Or *startle*

Footnote from Isaiah 53:1 ([Back](#))

[1] 53:1 Or *Who has believed what we have heard?*

Footnote from Isaiah 53:3 ([Back](#))

[\[2\]](#) **53:3** Or *forsaken*

Footnote from Isaiah 53:3 ([Back](#))

[\[3\]](#) **53:3** Or *pains*; also verse 4

Footnote from Isaiah 53:3 ([Back](#))

[\[4\]](#) **53:3** Or *and knowing*

Footnote from Isaiah 53:3 ([Back](#))

[\[5\]](#) 53:3 Or *sickness*; also verse 4

Footnote from Isaiah 53:3 ([Back](#))

[6] **53:3** Or *as one who hides his face from us*

Footnote from Isaiah 53:10 ([Back](#))

[7] 53:10 Or *he has made him sick*

Footnote from Isaiah 53:10 ([Back](#))

[8] **53:10** Or *when you make his soul*

Footnote from Isaiah 53:11 ([Back](#))

[\[9\]](#) **53:11**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he shall see light*

Footnote from Isaiah 53:12 ([Back](#))

[\[10\]](#) **53:12** Or *with the great*

Footnote from Isaiah 53:12 ([Back](#))

[\[11\]](#) 53:12 Or *with the numerous*

Footnote from Isaiah 54:9 ([Back](#))

[\[1\]](#) **54:9** Some manuscripts *For this is as the waters of Noah*

Footnote from Isaiah 54:11 ([Back](#))

[\[2\]](#) **54:11** Or *lapis lazuli*

Footnote from Isaiah 54:12 ([Back](#))

[\[3\]](#) **54:12** Or *jasper*, or *ruby*

Footnote from Isaiah 54:12 ([Back](#))

[\[4\]](#) **54:12** Or *crystal*

Footnote from Isaiah 54:17 ([Back](#))

[\[5\]](#) 54:17 Or *righteousness*

Footnote from Isaiah 57:5 ([Back](#))

[\[1\]](#) **57:5** Or *among the terebinths*

Footnote from Isaiah 57:8 ([Back](#))

[\[2\]](#) **57:8** Or *on a monument* (see 56:5); Hebrew *on a hand*

Footnote from Isaiah 57:10 ([Back](#))

[\[3\]](#) **57:10** Hebrew *and so you were not sick*

Footnote from Isaiah 58:3 ([Back](#))

[\[1\]](#) **58:3** Or *pursue your own business*

Footnote from Isaiah 58:6 ([Back](#))

[2] 58:6 Or *bruised*

Footnote from Isaiah 58:13 ([Back](#))

[\[3\]](#) **58:13** Or *business*

Footnote from Isaiah 58:13 ([Back](#))

[\[4\]](#) 58:13 Or *pursuing your own business*

Footnote from Isaiah 58:13 ([Back](#))

[\[5\]](#) **58:13** Hebrew *or speaking a word*

Footnote from Isaiah 58:14 ([Back](#))

[\[6\]](#) 58:14 Or *of the land*

Footnote from Isaiah 59:15 ([Back](#))

[\[1\]](#) **59:15** Hebrew *and it was evil in his eyes*

Footnote from Isaiah 59:19 ([Back](#))

[\[2\]](#) **59:19** Hebrew *a narrow river*

Footnote from Isaiah 60:5 ([Back](#))

[\[1\]](#) **60:5** Hebrew *your heart shall tremble and grow wide*

Footnote from Isaiah 60:19 ([Back](#))

[\[2\]](#) **60:19**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Septuagint, Targum add *by night*

Footnote from Isaiah 60:19 ([Back](#))

[\[3\]](#) **60:19** Or *your beauty*

Footnote from Isaiah 60:21 ([Back](#))

[\[4\]](#) **60:21** Or *that I might display my beauty*

Footnote from Isaiah 61:1 ([Back](#))

[\[1\]](#) **61:1** Or *afflicted*

Footnote from Isaiah 61:1 ([Back](#))

[\[2\]](#) **61:1** Or *the opening* [of the eyes] *to those who are blind*; Septuagint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Footnote from Isaiah 61:3 ([Back](#))

[3] 61:3 Or *that he may display his beauty*

Footnote from Isaiah 61:8 ([Back](#))

[\[4\]](#) **61:8** Or *robbery with a burnt offering*

Footnote from Isaiah 62:4 ([Back](#))

[\[1\]](#) **62:4** Hebrew *Azubah*

Footnote from Isaiah 62:4 ([Back](#))

[\[2\]](#) 62:4 Hebrew *Shemamah*

Footnote from Isaiah 62:4 ([Back](#))

[\[3\]](#) **62:4** Hebrew *Hephzibah*

Footnote from Isaiah 62:4 ([Back](#))

[\[4\]](#) **62:4** Hebrew *Beulah*

Footnote from Isaiah 62:9 ([Back](#))

[\[5\]](#) **62:9** Or *in my holy courts*

Footnote from Isaiah 63:3 ([Back](#))

[1] 63:3 Or *their juice*; also verse 6

Footnote from Isaiah 63:4 ([Back](#))

[\[2\]](#) **63:4** Or *the year of my redeemed*

Footnote from Isaiah 63:9 ([Back](#))

[\[3\]](#) **63:9** Or *he did not afflict*

Footnote from Isaiah 63:11 ([Back](#))

[\[4\]](#) **63:11** Or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Footnote from Isaiah 63:15 ([Back](#))

[\[5\]](#) **63:15** Or *holy and glorious*

Footnote from Isaiah 63:18 ([Back](#))

[\[6\]](#) **63:18** Or *They have dispossessed your holy people for a little while*

Footnote from Isaiah 64:2 ([Back](#))

[\[1\]](#) **64:2** Ch 64:1 in Hebrew

Footnote from Isaiah 64:5 ([Back](#))

[\[2\]](#) **64:5** Or *in your ways is continuance, that we might be saved*

Footnote from Isaiah 64:7 ([Back](#))

[\[3\]](#) **64:7** Masoretic Text; Septuagint, Syriac, Targum *have delivered us into*

Footnote from Isaiah 64:11 ([Back](#))

[\[4\]](#) **64:11** Or *holy and glorious*

Footnote from Isaiah 65:1 ([Back](#))

[\[1\]](#) **65:1** Or *that did not call upon*

Footnote from Isaiah 65:7 ([Back](#))

[\[2\]](#) **65:7** Or *I will first measure their payment into their lap*

Footnote from Isaiah 65:22 ([Back](#))

[\[3\]](#) **65:22** Hebrew *shall wear out*

Footnote from Isaiah 65:23 ([Back](#))

[\[4\]](#) **65:23** Or *for sudden terror*

Footnote from Isaiah 66:11 ([Back](#))

[\[1\]](#) 66:11 Or *breast*

Footnote from Isaiah 66:18 ([Back](#))

[\[2\]](#) **66:18** Septuagint, Syriac; Hebrew lacks *know*

Footnote from Isaiah 66:18 ([Back](#))

[\[3\]](#) **66:18** Hebrew *and it is coming*

예 레 미 아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eremiah 1](#) • [Jeremiah 2](#) • [Jeremiah 3](#) • [Jeremiah 4](#) • [Jeremiah 5](#) • [Jeremiah 6](#) • [Jeremiah 7](#)
• [Jeremiah 8](#) • [Jeremiah 9](#) • [Jeremiah 10](#) • [Jeremiah 11](#) • [Jeremiah 12](#) • [Jeremiah 13](#) • [Jeremiah 14](#)
• [Jeremiah 15](#) • [Jeremiah 16](#) • [Jeremiah 17](#) • [Jeremiah 18](#) • [Jeremiah 19](#) • [Jeremiah 20](#)
• [Jeremiah 21](#) • [Jeremiah 22](#) • [Jeremiah 23](#) • [Jeremiah 24](#) • [Jeremiah 25](#) • [Jeremiah 26](#)
• [Jeremiah 27](#) • [Jeremiah 28](#) • [Jeremiah 29](#) • [Jeremiah 30](#) • [Jeremiah 31](#) • [Jeremiah 32](#)
• [Jeremiah 33](#) • [Jeremiah 34](#) • [Jeremiah 35](#) • [Jeremiah 36](#) • [Jeremiah 37](#) • [Jeremiah 38](#)
• [Jeremiah 39](#) • [Jeremiah 40](#) • [Jeremiah 41](#) • [Jeremiah 42](#) • [Jeremiah 43](#) • [Jeremiah 44](#)
• [Jeremiah 45](#) • [Jeremiah 46](#) • [Jeremiah 47](#) • [Jeremiah 48](#) • [Jeremiah 49](#) • [Jeremiah 50](#)
• [Jeremiah 51](#) • [Jeremiah 52](#)

예레미야서

JEREMIAH 1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2**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십삼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3**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십일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십일년, 그 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 갔다.

예레미야의 소명

4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5"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못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6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7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8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9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10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못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살구나무 가지와 꿀는 가마솥 환상

11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a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a 히, '샤케드')

12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b지켜 보고 있다." (b 히, '쇼케드'. '살구나무(샤케드)'와 '지켜보다'라는 두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함)

13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꿀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14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15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6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18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19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JEREMIAH 2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3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조상의 죄

4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5"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6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a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a** 또는 '깊은 흑암의 땅에서')

7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8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b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b** 히, '목자')

주님께서 백성을 규탄하시다

9"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10너희는 한 번 c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d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 보아라. (c 히, '깃딤' d 시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베두인 족의 고향)

11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e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 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e 고대 히브리 서기관 전통에서는 '나의 영광을')

12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13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결과

14"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 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15원수들이 그를 잡아 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16f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f 히, '놈')

17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18그런데도 이제 네가
g시홀 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앗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g 나일 강의 지류)

19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주님 섬기기를 거절하다

20"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 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 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21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22네가 잣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3네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24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혈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 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25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유다

26"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27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28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네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29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30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31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32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33"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34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35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외세가 유다를 구하여 낼 수 없다

36"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앗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37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유다

JEREMIAH 3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2"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a**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a** 히, '아랍 사람') **3**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뻘뻘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4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5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

6○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
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7**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8****b**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
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
을 보았다. (**b**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나는')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
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9**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
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10**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
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11○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
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12**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

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13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 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14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15 그 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16 그 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 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17 그 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18그 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배신

19"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못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0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다

21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울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22"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 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3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4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 떼와 소 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 버렸습니다.

25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다

JEREMIAH 4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2 네가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3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⁴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침략 위협

⁵"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⁶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⁷사자가 일어나서
숲 속에서 뛰쳐 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뒀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⁸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굶은 배 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⁹"그 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0 "그 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11 "그 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12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유다의 포위

13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14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15 "이미 단이 소리 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16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17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18"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예언자의 탄식

19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 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온다.

20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홀연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21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22"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혼돈의 환상

23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4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25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26 둘러보니,
a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a 히, '갈멜')

27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28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29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 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30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질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31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 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예루살렘의 죄

JEREMIAH 5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살살이 뒤져 보아라.
너희가 그 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2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3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4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5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 버린 자들이다.

6그러므로
사자가 숲 속에서 뛰쳐 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7"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8그들은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숫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9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10"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 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11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12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3"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14"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15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네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16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17 네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 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 떼와 소 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다

18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19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21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22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리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23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아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24 너희는 마음 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25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26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27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28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잇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29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30"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31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루살렘이 포위되다

JEREMIAH 6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2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3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4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5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 버리자!" 한다."

6"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7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 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8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반역하는 백성

9"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살살이 뒤져서 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예레미야의 분노

10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a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a 히, '귀에 활례를 받지 못하여')

11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분노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 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 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 갈 것이다.

12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13"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14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15그들이 그렇게
억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다

16"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17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 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18"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 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19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20"스바에서 들여 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 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21"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

22"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23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24"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25"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26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굶은 베 옷을 허리에 두르고,
젓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 올 것이다.

27"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

28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놋쇠나 무쇠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29 풀무질을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30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JEREMIAH 7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습니다.

3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 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4**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6**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7**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 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8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9**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a**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a** 또는 '거짓 신들로') **10**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11**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 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¹³○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¹⁴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¹⁵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백성의 불순종

¹⁶○"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¹⁷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¹⁸자식들은 땀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¹⁹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낮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²⁰○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소용 없는 제사

²¹○"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는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²²○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²³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²⁴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²⁵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²⁶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살육 골짜기에서 저지른 죄

²⁷○"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네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²⁸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²⁹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30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31**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32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33** 그 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34** 그 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JEREMIAH 8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2**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 다니고, 뜻을 물어 보면서 찾아 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3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 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죄와 벌

4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5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6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7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8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9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10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 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11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12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3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앞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a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a 또는 '그들을 진멸할 자를 내가 이미 정하였다')

백성이 받을 형벌

14"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15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16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 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17"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언자의 탄식

18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멎들었다.

19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 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20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21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 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JEREMIAH 9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 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 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2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주님의 대답

3"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4"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5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6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7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8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9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백성 때문에 울다

10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 떼의 울음 소리도
들려 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11"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땅이 황폐한 까닭

12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13○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14**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 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15○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쏙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16**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흠어 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곡하는 여인들

17"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18"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 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다오!"

19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온다.
'어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20"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21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 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 간다."

22"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 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23"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24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25○"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a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
겠다.(a 또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26**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
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

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와 참 예배

JEREMIAH 10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 속에서 베어 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4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5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주님을 찬양함

6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7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8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9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a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숨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a 히, '다시스')

10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주님만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지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1o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b 11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음)

하나님 찬양

12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13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14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15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16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백성의 탄식

17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18 ◦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19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20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21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22"들려 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 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예레미야의 기도

23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24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25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쳐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언약

JEREMIAH 11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3**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4**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5**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7**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8**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9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10**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11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12** 그 때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13**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14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15 "a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a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칠십인역을 따름)

16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17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 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암살 계획

18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셔서,
제가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19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 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20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21○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22**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23**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 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질문

JEREMIAH 12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2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3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4이 땅이 언제까지 a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 또는 '마르며')

주님의 대답

5"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b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 강의 창일한 물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b 또는 '네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6그렇다. 바로 네 친척,

네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네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주님의 슬픔

7"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 주었다.

8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 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9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10"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11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12강도 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였다.

13사람들이 밭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이웃 백성에게 하신 약속

14○"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15**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16**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17**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리띠

JEREMIAH 13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베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3○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네가 사서 허리에 띠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 가로 가서, 그 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5**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6○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 곳에 숨겨 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 곳에서 가져 오너라." **7**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 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8○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9"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10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므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11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포도주 향아리

12○"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향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향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13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14그들이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교만에 대한 최후의 경고

15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16너희는
주님께서
날을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17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 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18"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19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 가고 말았다."

20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 떼,
네가 것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21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22 그 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23 "a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a 히, '구스 사람'. 나일 강 상류지역 사람)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 놓겠다.

25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26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27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극심한 가뭄

JEREMIAH 14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3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4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5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6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혈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백성의 기도

7"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a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a 히,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8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려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⁹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 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답

¹⁰○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거짓 예언자

¹¹○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¹²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¹³○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b주님께서 이 곳에서 너 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b 히, '내가') ¹⁴○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c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c 또는 '우상 숭배와')

¹⁵○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¹⁶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¹⁷"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¹⁸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19"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낯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20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21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22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 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

JEREMIAH 15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2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
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3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4 내가 이렇게 하여
a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a** 또는 '그들을 세상 만국에 흠을 것이니')

5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 보겠느냐?

6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7"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 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8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이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9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 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주님의 응답

10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11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네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네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노예가 될 백성

12"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낫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13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 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14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사를 것이다." (b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17:4 참
조)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내가 너희 원수들을 시켜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탄식

15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16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17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18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

19"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내가 너를
튼튼한 놋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21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뜻

JEREMIAH 16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이 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3**나 주가, 이 곳에서 태어날 아들딸과, 이 땅에서 아들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4**사람들이 흑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 줄 사람도 없고,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5"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6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7그 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8"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칫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9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 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10 그러나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11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12**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포로의 귀환

14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15**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임박한 심판

16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 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살살이 뒤편에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17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 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18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예레미야의 확신의 기도

19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20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21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유다의 죄와 벌

JEREMIAH 17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 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축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2-3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 주겠다. (a 아세라 여신의 상징 3절이 포함되었음)

⁴그리고 너는,
네 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라

⁵"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⁶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⁷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⁸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앞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⁹"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11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12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13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14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15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16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17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18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9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20**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21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22**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23**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24**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 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25**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26**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b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

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b 히, '스펠라')

27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토기장이의 비유

JEREMIAH 18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3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4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5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7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8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9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10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11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12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역하다

13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 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14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15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16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17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흠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흠어 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암살 음모

18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19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20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1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22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줄지에 보내 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23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깨진 항아리

JEREMIAH 19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2a**'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b**'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a** 또는 '질그릇 조각의 문' **b** 또는 '벤힌놈 골짜기')

3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4**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 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 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7 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c**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c** '좌절시키다(히, 바카)'라는 말과 '항아리(히, 바크부크)'의 발음이 비슷함(1,10절을 볼 것)) **8**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

며, 비웃을 것이다. ⁹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¹⁰○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향아리를 깨뜨리고, ¹¹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¹²내가 이 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벳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¹³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¹⁴○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¹⁵"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예레미야와 바스훌의 충돌

JEREMIAH 20 임멜의 아들로써,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²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차꼬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³다음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차꼬를 풀어 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시지 않고, **a**마골밋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오.(**a** '사방으로 두려움' 또는 '사면초가') ⁴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네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⁵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 가게 하겠다. ⁶그리고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 곳에 묻힐 것이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하다

⁷주님, 주님께서 나를 **b**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c**속았습시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b** 또는 '설득하셨으므로' 또는 '유혹하셨으므로' **c** 또는 '설득당했습니다' 또는 '유혹당했습니다')
⁸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9"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뺨속에까지 타들어 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10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11그러나 주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2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14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15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16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17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18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

JEREMIAH 21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2그 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3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4**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a**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 놓겠다.(**a** 또는 '갈대아') **5**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6**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염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7**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염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 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 주겠다. 느부

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죽일 것이다."

⁸"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⁹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열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a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a 또는 '갈대아') ¹⁰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유다 왕실에 내린 심판

¹¹"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¹²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¹³"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 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¹⁴"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유다 왕실에

JEREMIAH 22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2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네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3**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4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5**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6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7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 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8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9**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살룸 왕에 대한 예언

10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 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11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 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 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a**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 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a 일명 '여호아하스'(왕하 23:30; 대상 3:15에서도)) **12**그는 잡혀 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

13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삿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14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 색을 칠한다.

15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16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17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몰려 있다."

18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픔니다, 임금님!
슬픔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물어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20"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21네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22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 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네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23네가 지금은
b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의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 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b 레바논에서 가져 온 나무로 예루살렘에다 지은 궁
전을 말함(왕상 7:2))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심판하시다

24o"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c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c 일명 '여호야
긴'(왕하 24:6,8에서도) 또는 '여고냐'(대상 3:16; 렘 24:1에서도)) **25**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
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 주겠다. **26**나는 너와 네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
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27**마침내 그들은 것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28이 사람 c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c 일명 '여호야긴'(왕하 24:6,8에서도) 또는 '여고냐'(대상 3:16;
렘 24:1에서도))

29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0"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왕 메시아

JEREMIAH 23 "내 목장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 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2**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 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3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 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4**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5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즐거움에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6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처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7[○]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8[○]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예언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

9[○]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끓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10[○]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a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b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a 또는 '저주 때문에' 또는 '이런 일들 때문에' b 또는 '슬퍼한다')

11[○]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12[○]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 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13[○]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14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15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썩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쫓아 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16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17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18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19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20 나 주는 나의 마음 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를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21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 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22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3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24 사람이
제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25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게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6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
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27 그들
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 버리도록 계락을 꾸미고 있다. ²⁸꿈을 꾸는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²⁹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³⁰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³¹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³²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³³"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c 히브리어 '맛사'는 '말씀'이라는 뜻과 '부담'이란 뜻을 둘 다 지니고 있음)

³⁴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³⁵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³⁶'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³⁷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³⁸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³⁹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⁴⁰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무화과 두 광주리

JEREMIAH 24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 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קים의 아들 유다 왕 a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a 일명 '여호야긴') ²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말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³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⁴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⁵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곳에서 b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b 또는 '갈대아') ⁶ 내가 그들을 지켜 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⁷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⁸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⁹ 내가 c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 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 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c 또는 '그들로 세계 만국에 두려움이 되게 하여') ¹⁰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염병을 보내겠다."

북쪽의 적

JEREMIAH 25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קים 제 사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²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³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십삼 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십삼 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⁵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⁶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⁷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격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8○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9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a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a '진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렘은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가리킴. 진멸하여 바칠 물건은 사람이 가질 수 없음) 10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11이 땅은 광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12○이렇게 칠십 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 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13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뭇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14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15○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16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17○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18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19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 있는 주민과, 21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22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지방의 왕들과, 23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24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25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b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b 바빌론을 가리키는 암호. 칠십인역은 '바빌론'으로 번역함)

27○"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터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28○그러나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29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

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30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 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벽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 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소리를 내신다.

31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재앙이 닥쳐온다

32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 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33 "그 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34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 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재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35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 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36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 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 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37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38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c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렘 46:16; 50:16에서도)을 따
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분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JEREMIAH 26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
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3**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4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
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5**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춧거리가 되게 하겠다.'"

7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
었다. **8**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
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9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
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
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10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
문' 어귀에 앉았다. **11**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
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12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
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13** 그러

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15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17○이 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8"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a'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a 미 3:12) 19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20○(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랴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21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22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23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 묘지에 던졌다.)

24○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가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JEREMIAH 27 요시야의 아들 a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a 소수의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을 따름.(렘 27:3; 28:1에서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음. 대다수의 칠십인역 사본에는 1절이 없음)

2^o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네 목으로 메어다가, 3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4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5^o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6^o내가 큰 권능과 편 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7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8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9^o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열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0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11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12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3^o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 남도록 하십시오. 14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열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15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16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17^o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18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 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19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과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 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20^o(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돛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 있는 기구, 21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b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 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b 일명 '여호야긴')

22^o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23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 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 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 곳으로 다시 옮겨 올 것이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JEREMIAH 28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 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앓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2**"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3**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 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이 년 안에 이 곳으로 다시 가져 오겠다. **4**또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a**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 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a** 일명 '여호야킨')

5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6**그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 곳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7**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8**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염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9**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10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렸다. **11**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12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3**"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14**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 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 주었다."

15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16**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 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17**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JEREMIAH 29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 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 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2**이 때는 **a**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

다.(a 일명 '여호야긴')³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⁴○"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⁵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⁶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⁷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⁸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이듣지 말아라. ⁹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¹⁰○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¹¹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¹²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 주겠다. ¹³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¹⁴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 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b 또는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¹⁵○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 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¹⁶○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 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¹⁷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¹⁸내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게 하겠다. ¹⁹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²⁰○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 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²¹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²²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²³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

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스마야의 편지

24-25○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5절이 포함되었음)

26"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차꼬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7**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28**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 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 왔습니다."

29○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주었다. **30-32**그 때에 주님께서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JEREMIAH 30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2**"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3**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a포로로 잡혀 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a 또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4○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5"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6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 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 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7 슬프다, 그 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8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9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10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11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12 나 주가 말한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13네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14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15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16"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 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17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 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18"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19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0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21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겨레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22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3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24주님께서는
마음 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북왕국 포로민의 귀환

JEREMIAH 31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3나 주가 a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다. (a 또는 '과거에')

4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5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6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7"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8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9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10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 주신다.'

11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12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 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 댄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13 그 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14 그 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15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16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17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18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19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20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촉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21"너는 길에 꺾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22너 방종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b안는 것이다." (b 또는 '보호하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23○"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c내가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c 또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줄 때에')

24○그 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 떼를 몰고 다닐 것이다. **25**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26**그 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 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27○"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28**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29**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

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³⁰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새 언약

³¹○"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³²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d 히브리어 바알은 '주' 또는 '남편') ³³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³⁴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³⁵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 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³⁶"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³⁷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채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³⁸○그 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³⁹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

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⁴⁰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땀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회복의 상징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JEREMIAH 32 유다 왕 시드기야 제 십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 십팔년이였다. ²그 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³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 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⁴유다 왕 시드기야도 a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 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a 또는 '갈대아') ⁵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a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a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a 또는 '갈대아')

⁶○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⁷○"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⁸○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 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⁹○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열일곱 세겔을 달아 주었다. ¹⁰그 때에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¹¹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¹²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 주고, ¹³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¹⁴"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¹⁵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예레미야의 질문

¹⁶○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넘겨 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¹⁷"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¹⁸주님께서,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19주님께서
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20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
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
게 하셨습니다. 21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
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2주님께서
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
게 주셨습니다.

23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
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24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염병을 보았습니다. a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어닥쳤으며,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a 또는 '갈대
아')

25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도성이 이미 a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
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받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a 또는 '갈대아')

주님의 대답

26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27"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28나 주
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a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준다. a바빌로니
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a 또는 '갈대아') 29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a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a 또는 '갈대아')

30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31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
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치워 버리겠다. 32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
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
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33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
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34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35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b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
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b 또는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려고')

희망의 약속

36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疫病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37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 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38**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40** 그 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41**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42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43**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a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a 또는 '갈대아') **44**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c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d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c 히, '스펠라'. 산과 해변 사이의 경사진 평지 d 또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JEREMIAH 33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2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3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4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5** 유다가 뭉쳐서 a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a 또는 '갈대아')

6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 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7** b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

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b 또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놓겠다')⁸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⁹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¹⁰○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 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¹¹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¹²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 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 떼를 쉬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¹³산간지역의 성읍들과 c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c 히, '스펠라'. 산과 해변 사이의 경사진 평지)

주님의 약속

¹⁴○"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 날이 오고 있다.

¹⁵그 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돌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¹⁶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¹⁷○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¹⁸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9○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0"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21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23○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4"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25○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6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d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d 또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

JEREMIAH 34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3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 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4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5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네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픔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6○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7그 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뿐이었다.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8○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9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10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

11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 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12 그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3**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14**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 온 지 칠 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 주어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네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a 신 15:2를 볼 것) **15**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16**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17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18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19**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20**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21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 주겠다. **22**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JEREMIAH 35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3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4**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5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6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7**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8○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9**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10**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1**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a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a 또는 '갈대아')

12○그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3○"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이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14**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5**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16**○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17**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19**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읽다

JEREMIAH 36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사 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2○"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3**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4○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5○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6**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 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7**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8○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9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오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려졌다. 10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위 뜰에 있었다.

바룩이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다

11○그 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12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13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14○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15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16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17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18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 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19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20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21○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 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22그 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23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24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25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26○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므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다시 쓰다

27○예레미야가 불러 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8**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젓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29**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30**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둥굴 것이다. **31**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32○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왕이다

JEREMIAH 37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a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a 일명 '여호야긴') **2**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3○그 때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먀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달라고 청하였다. **4**그 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5**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b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b 또는 '갈대아')

6○그 때에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7**"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 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8**그러나 b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b 또는 '갈대아') **9**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b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b 또는 '갈대아') **10**너희를 공격하는 b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b 또는 '갈대아')

예레미야의 투옥

11○b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b 또는 '갈대아') **12**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13**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이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b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b 또는 '갈대아')

14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b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b 또는 '갈대아') **15**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 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6** 그 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17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 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18**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19**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 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21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다

JEREMIAH 38 맛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홀의 아들 그달리야와 셀레마의 아들 a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a 또는 '예후갈')

2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b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 남게 될 것이다.(b 또는 '갈대아') **3**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4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 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5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6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 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7 왕궁에 c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에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c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⁸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⁹"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 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 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¹⁰그 때에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d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d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는 '세 명') ¹¹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었다. ¹²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¹³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충고를 구하다

¹⁴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¹⁵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¹⁶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지도 않겠소."

¹⁷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 남게 될 것이다. ¹⁸그러나 네가 b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b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b 또는 '갈대아')

¹⁹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b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b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b 또는 '갈대아')

²⁰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²¹그러나 임금님께서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²²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 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멧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23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b**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b**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b** 또는 '갈대아')

24○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25**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26**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십시오."

27○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 보았다. 그 때에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8**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함락(왕하 **25:1-12**; 렘 **52:4-16**)

JEREMIAH 39 유다 왕 시드기야 제 구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2**시드기야 제 십일년 넷째 달 구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3○(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사레셀 곧 랍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4○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 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 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6**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7**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8○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9**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10**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예레미야의 석방

11○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12**"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13○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 곧 랍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14**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주님께서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15○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6**"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 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17**바로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8**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JEREMIAH 40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2○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4**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곳으로 가시오."

5○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 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6**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 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달리야(왕하 **25:22-24**)

7○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8**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야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9○그 때에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이오. **10**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11○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 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12**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총독의 암살(왕하 25:25-26)

13○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와서, **14**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5**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 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6○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JEREMIAH 41 그 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야의 아들로써,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²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열 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칼로 쳐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³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야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 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⁴그달리야가 살해된 다음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⁵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여든 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⁶그런데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로 갑시다." ⁷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⁸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 두었으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다. ⁹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 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¹⁰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맡겨 놓은, 미스바에 남아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¹¹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은,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¹²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¹³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¹⁴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¹⁵그러나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여덟 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¹⁶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¹⁷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a게롯김함에서 쉬었다.(a'김함의 여관) ¹⁸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JEREMIAH 42 모든 군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a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a 43:2에는 '아사랴') ²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³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⁴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⁵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⁶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

⁷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⁸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⁹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¹⁰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¹¹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¹²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¹³○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¹⁴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¹⁵○유다의 살아 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¹⁶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¹⁷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 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열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다.

¹⁸○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 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경고

¹⁹○유다에 살아 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²⁰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²¹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²²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열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다

JEREMIAH 43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알려주었을 때에, ²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³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 것이오."

⁴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⁵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 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⁶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 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⁷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⁸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⁹"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¹⁰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 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 놓고, 그 위에 차일을 칠 것이다.

¹¹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열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열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¹²○그리고 a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 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 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나는') ¹³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b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b 또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돌기둥들을')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말씀

JEREMIAH 44 이 말씀은 주님께서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므돌과 다바네스와 a멤피스와 b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a 히, '놉' b 히, '바드로스에')

2○"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3**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5**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6**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 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7○"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8**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9**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10**그들은 이 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11○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12**유다에서 살아 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내가 전쟁과 기근과 열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14**유다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 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15○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 곳에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c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c 히, '이집트와 바드로스에')

16○"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17**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d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d 또는 '황후') **18**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19**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d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e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d 또는 '황후' e 또는 '그 여신을 예배하는 빵을')

20○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21"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 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22**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3**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 온 것입니다."

24○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5**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26○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 는,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27**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 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 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28**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의 살아 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29○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30**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

주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JEREMIAH 45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사 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 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2○"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3**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꿈쩍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4**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⁵네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 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집트 심판의 예언

JEREMIAH 46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²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사 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 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³(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⁴말에 안장을 엮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⁵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검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⁶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 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⁷나일 강 물처럼 불어 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 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⁸이집트가 나일 강 물처럼
불어 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 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 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9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a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10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 가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11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 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 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12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쳐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원정을 예언하다

13○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14"너희는 므돌에서 외치고,

b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b 히, '놈') ¹⁵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꺼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¹⁶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¹⁷"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¹⁸"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불 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 산과 같다.

¹⁹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 갈 준비를 하여라.
b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b 히, '놈')

²⁰예브디예뿐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²¹사서 들어온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²²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 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23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뻥뻥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24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25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한다. 보아라, 내가 c테에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c 히, '노의') **26**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27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28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블레셋 심판의 예언

JEREMIAH 47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 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3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4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울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 날이 왔다.

a크레타 섬에서 살아 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a 히, '갑돌')

5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아낙의 살아 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6너희가 '아!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네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면,

⁷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모압의 멸망

JEREMIAH 48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a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a 또는 '에스갑') ²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b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 버리자' 한다.
맛멘아, 너도 c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b 히브리어에서 '작전을 세웠다(하슈부)'의 발음과 '헤스
본'의 발음이 비슷함 c 히브리어에서 '적막하게 되다(티도미)'의 발음과 '맛멘'의 발음이
비슷함)

³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⁴'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⁵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히트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⁶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d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d 또는 '아로엘')

7"모압아,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8"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e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e 또는 '모압에 소금을 뿌려 황폐하게 하여라')

10o(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
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의 성읍들이 멸망되다

11"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꺼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 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12"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 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13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15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16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17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18 "딸 디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19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 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보아라.

20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 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21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22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다임과

23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므온과

24 그리윳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25 이렇게 모압의 f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f'뿔'은 힘의 상징임)

모압이 비천해질 것이다

26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27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28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동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29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빼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떠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30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31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32십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에까지 뻗어 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33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34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랏셀리시야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므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35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36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 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7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굶은 베를 걸치고 있다.

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39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압

40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41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 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g 또는 '그리웁이')

42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43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44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45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 버릴 것이다.

46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네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47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 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암몬 심판의 예언

JEREMIAH 49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a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잡고 사느냐? (a 또는 '그들의 왕이'. 히, '말감')

2보아라, 그 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랍바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랍바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 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아이 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본아, 통곡하여라.
랍바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굶은 배 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 쳐라.
너희의 신 a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a 또는 '그들의 왕이'. 히, '말감')

4"너 방종한 딸 암몬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5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6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 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 심판의 예언

7○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데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8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9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더러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 간다.

10그러나, 나는 에서를 살살이 뒤흔치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11네 고아들은 내게 남겨 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네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12○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꿈쩍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13**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14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15"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16네가 바위 틈 속에 자리잡고 살며,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17"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 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18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19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 가의
깊은 숲 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 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20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데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 보아라."

"양 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21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b 홍해에까지 들릴 것이다. (**b** 히, '암 쉰프') **22**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 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마스쿠스 심판의 예언

23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밋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24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25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26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27 그 때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게달과 하솔 심판의 예언

28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29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30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31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32 "그들의 낙타 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 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c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c 또는 '먼 곳에서 사는')

33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 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 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엘람 심판의 예언

34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35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 버리겠다.

36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37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38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39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 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심판의 예언

JEREMIAH 50 이것은 a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a 또는 '갈대아 사람')

2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b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떠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떠다.' (b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

3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4"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5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 보며, 이 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6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 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 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7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 먹었다. 양 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8"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a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 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a 또는 '갈대아 사람')

9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10 **c**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흠족하게 털어 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c** 또는 '갈대아')

바빌론의 멸망

11"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12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13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 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14"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15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받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갇아 주어라.

16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17"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앗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 치웠다.

18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앗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19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20"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 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다

21"너는 d'므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e'브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죽이고,
뒤쫓아가서 f'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d'갑절의 패역' e'벌 받음' f'진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렘은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가리킴. 진멸하여 바칠 물건은 사람이 가질 수 없음)

22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 온다.

23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24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네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25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a'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a 또는 '갈대아 사람') **26**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짓혀라.

전리품을 날가리처럼 쌓아 놓고,
f'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 놓지 말아라. (f'진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렘은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가리킴. 진멸하여 바칠 물건은 사람이 가질 수 없음)

27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28(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 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에 소식을 전하고 있다.)

29"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30그러므로 그 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1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네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32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33"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 주기를 거절하였다.

34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35 "나 주의 말이다.
칼이 a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a 또는 '갈대아 사람')

36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떠난다.

37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38 g가뭄이 땅의 물을 치니,
물이 말라 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 버릴 것이다. (g 또는 '칼이'. 같은 자음 본문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가뭄'도
되고 '칼'도 됨)

39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 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 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40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
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

다."

41"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42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43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44○"사자가 요단 강 가의 숲 속에서 뛰쳐 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 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 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룰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45**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a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 보아라."

"양 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a 또는 '갈대아 사람')

46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심판자이신 주님

JEREMIAH 51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a레브 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a 레브 카마이는 갈대아 곧 바빌로니아를 가리키는 암호문자임. 칠십인역에는 '갈대아'라고 번역하였음. 역본에 따라 '마음으로 내게 대적하는'이라고 번역하기도 함)

2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질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3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b**진멸시켜라. (**b** '진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렘은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가리킴. 진멸하여 바칠
물건은 사람이 가질 수 없음)

4**c**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c** 또는 '갈대아')

5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d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d** 또는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에')

6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7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버렸다.

8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 보아라.

9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낮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달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10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 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11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12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 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13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14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하나님 찬양(렘 10:12-16)

15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16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17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18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19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철퇴

20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뭇 나라를 멸망시켰다.

21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22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 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23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 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바빌로니아가 받는 형벌

24 "그러나 이제는 내가
c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c 또는 '갈대아')

25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 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26 "네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잇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27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에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28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29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30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 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31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32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33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 마당이다.
농부가 타작 마당의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34"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35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c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c 또는 '갈대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36"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 버리겠다.

37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 떼의 굴혈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38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39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40"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숫양이나 숫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바빌론의 멸망을 풍자한 조가

41"어찌다가 e세삭이 함락되었는가!
어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e 바빌론을 가리키는 암호. 칠십인역은 '바빌론'으로
번역함)

42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43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44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뭇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45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46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4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48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49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에 복수하시다

50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 속에 두어라."

51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52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53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의 멸망

54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c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 온다. (c 또는 '갈대아')

55 참으로 주님께서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56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57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58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못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못 나라의 노고가 잣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두루마리를 주다

⁵⁹○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 사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⁶⁰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⁶¹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⁶²'주님, 주님께서 친히 이 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⁶³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⁶⁴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 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함락(왕하 24:18-25:7)

JEREMIAH 52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²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³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⁴시드기야 왕 제 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⁵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 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⁶그 해 넷째 달 구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⁷○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a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 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a 또는 '갈대아') ⁸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⁹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¹⁰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¹¹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성전 붕괴(왕하 25:8-17)

12○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 십구년 다섯째 달 십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13**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14**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 버렸다. **15**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16**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17○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 갔다. **18**또 솔과 부삽과 부집게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 갔다. **19**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솔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 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 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 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 갔다. **20**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쇠로 만든 소 모형 열둘을 모두 가져 갔다. 그가 가져 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21**기둥 한 개의 높이는 열여덟 자이고, 둘레가 열두 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쇠 두께는 손가락 네 개의 너비이다. **22**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다섯 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23**그물에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백 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아흔여섯 개이다.

유다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다(왕하 25:18-21, 27-30)

24○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25**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일곱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예순 명이다. **26**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27**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28**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 칠년에는 삼천이십삼 명이었다. **29**느부갓네살의 통치 제 십팔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팔백삼십이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30**느부갓네살의 통치 제 이십삼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칠백사십오 명을 포로로 잡아 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사천육백 명이다.

31○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 간 지 서른일곱 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열두째 달 이십오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킨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32**그는 여호야킨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33**그래서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34**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Footnotes

Footnote from Jeremiah 1:11 ([Back](#))

[\[1\]](#) **1:11** *Almond* sounds like the Hebrew for *watching* (compare verse 12)

Footnote from Jeremiah 1:14 ([Back](#))

[\[2\]](#) **1:14** The Hebrew word can mean *evil*, *harm*, or *disaster*, depending on the context; so throughout Jeremiah

Footnote from Jeremiah 1:17 ([Back](#))

[\[3\]](#) **1:17** Hebrew *gird up your loins*

Footnote from Jeremiah 2:8 ([Back](#))

[\[1\]](#) 2:8 Or *rulers*

Footnote from Jeremiah 2:16 ([Back](#))

[\[2\]](#) 2:16 Hebrew *grazed*

Footnote from Jeremiah 2:18 ([Back](#))

[\[3\]](#) 2:18 Hebrew *the River*

Footnote from Jeremiah 3:1 ([Back](#))

[\[1\]](#) **3:1** Septuagint, Syriac; Hebrew *Saying*, “If

Footnote from Jeremiah 3:23 ([Back](#))

[\[2\]](#) **3:23** Hebrew *commotion*

[\[1\]](#) **5:26**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6:2 ([Back](#))

[\[1\]](#) **6:2** Or *I have likened the daughter of Zion to the loveliest pasture*

Footnote from Jeremiah 8:7 ([Back](#))

[\[1\]](#) **8:7**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8:7 ([Back](#))

[\[2\]](#) **8:7** Or *just decrees*

Footnote from Jeremiah 8:13 ([Back](#))

[3] 8:13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8:18 ([Back](#))

[\[4\]](#) **8:18** Compare Septuagint;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9:1 ([Back](#))

[\[1\]](#) **9:1** Ch 8:23 in Hebrew

Footnote from Jeremiah 9:2 ([Back](#))

[\[2\]](#) **9:2** Ch 9:1 in Hebrew

Footnote from Jeremiah 9:3 ([Back](#))

[\[3\]](#) **9:3** Septuagint; Hebrew *and not for truth they have grown strong*

Footnote from Jeremiah 10:3 ([Back](#))

[\[1\]](#) **10:3** Or *vapor*, or *mist*

Footnote from Jeremiah 10:5 ([Back](#))

[\[2\]](#) **10:5** Hebrew *They*

Footnote from Jeremiah 10:11 ([Back](#))

[\[3\]](#) **10:11** This verse is in Aramaic

Footnote from Jeremiah 12:13 ([Back](#))

[\[1\]](#) **12:13** Hebrew *your*

Footnote from Jeremiah 13:24 ([Back](#))

[\[1\]](#) 13:24 Hebrew *them*

Footnote from Jeremiah 15:11 ([Back](#))

[\[1\]](#) **15:11**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17:5 ([Back](#))

[\[1\]](#) 17:5 Hebrew *arm*

Footnote from Jeremiah 17:10 ([Back](#))

[\[2\]](#) **17:10** Hebrew *kidneys*

Footnote from Jeremiah 17:13 ([Back](#))

[\[3\]](#) 17:13 Hebrew *me*

Footnote from Jeremiah 18:14 ([Back](#))

[\[1\]](#) **18:14** Hebrew *of the field*

Footnote from Jeremiah 18:14 ([Back](#))

[\[2\]](#) **18:14** Hebrew *Are foreign waters plucked up*

Footnote from Jeremiah 20:12 ([Back](#))

[\[1\]](#) 20:12 Hebrew *kidneys*

Footnote from Jeremiah 21:2 ([Back](#))

[\[1\]](#) **21:2** Hebrew *Nebuchadrezzar*, an alternate spelling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occurring frequently from Jeremiah 21–52; this latter spelling is used throughout Jeremiah for consistency

Footnote from Jeremiah 22:6 ([Back](#))

[\[1\]](#) 22:6 Hebrew *cities*

Footnote from Jeremiah 23:8 ([Back](#))

[\[1\]](#) 23:8 Septuagint; Hebrew *I*

Footnote from Jeremiah 23:33 ([Back](#))

[\[2\]](#) **23:33** Septuagint, Vulgate; Hebrew *What burden?*

Footnote from Jeremiah 24:9 ([Back](#))

[\[1\]](#) **24:9** Compare Septuagint; Hebrew *horror for evil*

Footnote from Jeremiah 25:26 ([Back](#))

[\[1\]](#) **25:26** Hebrew *Sheshach*, a code name for Babylon

Footnote from Jeremiah 27:1 ([Back](#))

[\[1\]](#) 27:1 Or *Jehoiakim*

Footnote from Jeremiah 27:3 ([Back](#))

[\[2\]](#) 27:3 Hebrew *Send them*

Footnote from Jeremiah 29:8 ([Back](#))

[\[1\]](#) 29:8 Hebrew *your dreams, which you cause to dream*

Footnote from Jeremiah 29:11 ([Back](#))

[\[2\]](#) 29:11 Or *peace*

Footnote from Jeremiah 30:8 ([Back](#))

[\[1\]](#) 30:8 Or *serve him*

Footnote from Jeremiah 31:3 ([Back](#))

[\[1\]](#) **31:3** Septuagint; Hebrew *me*

Footnote from Jeremiah 31:20 ([Back](#))

[\[2\]](#) **31:20** Hebrew *bowels*

Footnote from Jeremiah 33:2 ([Back](#))

[\[1\]](#) 33:2 Septuagint; Hebrew *it*

Footnote from Jeremiah 33:5 ([Back](#))

[\[2\]](#) **33:5** That is, the torn-down houses

Footnote from Jeremiah 33:9 ([Back](#))

[\[3\]](#) 33:9 Hebrew *And it*

Footnote from Jeremiah 34:18 ([Back](#))

[\[1\]](#) **34:18** Hebrew lacks *them like*

Footnote from Jeremiah 40:5 ([Back](#))

[\[1\]](#) **40:5** Syriac;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Jeremiah 41:9 ([Back](#))

[\[1\]](#) **41:9** Hebrew *by the hand of*

[\[1\]](#) 44:9 Hebrew *his*

Footnote from Jeremiah 44:19 ([Back](#))

[\[2\]](#) **44:19** Compare Syriac; Hebrew lacks *And the women said*

Footnote from Jeremiah 46:15 ([Back](#))

[\[1\]](#) **46:15** Hebrew *He does not stand*

Footnote from Jeremiah 47:7 ([Back](#))

[\[1\]](#) 47:7 Septuagint, Vulgate; Hebrew *you*

Footnote from Jeremiah 48:5 ([Back](#))

[\[1\]](#) **48:5** Hebrew *weeping goes up with weeping*

Footnote from Jeremiah 48:5 ([Back](#))

[\[2\]](#) **48:5** Septuagint (compare Isaiah 15:5) *heard the cry*

Footnote from Jeremiah 48:12 ([Back](#))

[\[3\]](#) **48:12** Septuagint, Aquila; Hebrew *their*

Footnote from Jeremiah 49:4 ([Back](#))

[\[1\]](#) **49:4** Hebrew *boast of your valleys, your valley flows*

Footnote from Jeremiah 49:16 ([Back](#))

[\[2\]](#) **49:16** Or *of Sela*

Footnote from Jeremiah 49:19 ([Back](#))

[\[3\]](#) 49:19 Septuagint, Syriac *them*

Footnote from Jeremiah 50:21 ([Back](#))

[\[1\]](#) 50:21 *Merathaim* means *double rebellion*

Footnote from Jeremiah 50:21 ([Back](#))

[\[2\]](#) **50:21** *Pekod* means *punishment*

Footnote from Jeremiah 50:21 ([Back](#))

[\[3\]](#) **50:21**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Jeremiah 51:1 ([Back](#))

[\[1\]](#) **51:1** A code name for Chaldea

Footnote from Jeremiah 51:3 ([Back](#))

[2] 51:3 That is, set apart (devote) as an offering to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Jeremiah 51:5 ([Back](#))

[\[3\]](#) **51:5** Hebrew *their land*

Footnote from Jeremiah 51:34 ([Back](#))

[\[4\]](#) **51:34** Or *he has expelled me*

Footnote from Jeremiah 51:41 ([Back](#))

[\[5\]](#) **51:41** Hebrew *Sheshach*, a code name for Babylon

Footnote from Jeremiah 52:20 ([Back](#))

[\[1\]](#) **52:20** Hebrew lacks *the sea*

Footnote from Jeremiah 52:21 ([Back](#))

[\[2\]](#) **52:2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Jeremiah 52:31 ([Back](#))

[\[3\]](#) **52:31** Hebrew *king, lifted up the head of*

예 레 미 아 애 가

[\(return to table of contents\)](#)

[Lamentations 1](#) • [Lamentations 2](#) • [Lamentations 3](#) • [Lamentations 4](#) • [Lamentations 5](#)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S 1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뭇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2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3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뭇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4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5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6a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뜻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쓰는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a 히, '딸')

7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8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9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합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피 주십시오.

10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11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피 주십시오."

12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13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뼈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닳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14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묶고 얹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15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16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17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18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19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20 주님, 나의 절망을 살피 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21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22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LAMENTATIONS 2 a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b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a 각 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 b 또는 '진노의 구름으로 도성 시온을 덮으셨는가?')

2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채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3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c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c 또는 '뿔을' 또는 '왕을')

4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냐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5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채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6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7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8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혈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9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못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10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허리에 굶은 베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11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12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 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13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14예언자들은
네게 보여 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네 죄를 분명히 밝혀 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네게 하였다.

15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16네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17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 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네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d네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d 또는 '네 대적의 뽐을 높이셨다')

18도성 시온의 성벽아,

e큰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e 히,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19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끓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20"주님, 살피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21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22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LAMENTATIONS **3** a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a 각 연의 첫 글자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 119편과
같은 종류의 알파벳 시) **2**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3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4주님께서 내 살갓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5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에우시며,

6죽은 지 오래 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7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8살려 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9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10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11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12주님께서 나를 과녁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13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14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15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16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17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18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19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20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21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2b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b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을 따름. 히,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23"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니다."

24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25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26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27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28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29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c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c 히, '먼지에 입을 대는 것이')

30 때리려는 사람에게 빵을 대주고,
d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d 히, '굴욕으로 배를 채워라')

31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32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33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34 세상에서 욕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35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36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37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38 궂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39 어찌하여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40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41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42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43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44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5주님께서 우리를 못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 더미로
만드셨으므로,

46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47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48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49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50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51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52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53그들이 나를
산 채로 구덩이에 처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54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55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살려 주십시오.

못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57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58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59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60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61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62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63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64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65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66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LAMENTATIONS 4 a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a 각 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

2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인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3들개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4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 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5지난 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 날 색동 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 더미에 뒹구는구나.

6예전에는 저 소돔 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b지은 죄가
소돔이 b지은 죄보다 크구나. (b 또는 '받은 심판' 또는 '받은 벌')

7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8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9끓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10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11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12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13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14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15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 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16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흠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17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18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19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 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20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21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 할테면 하려무나.
이제 네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22도성 시온아,
이제 네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네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죄를 밝혀 내실 것이다.

LAMENTATIONS 5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 주십시오.

2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3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4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 옵니다.

5우리의 목에 a멍에가 메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a 심마쿠스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에는 '멍에'가 없음)

6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앗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7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8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 줄 이가 없습니다.

9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 겁니다.

10끓기를 밥먹듯 하다가,
살갓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11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12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13젊은이들은 멧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뭇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14노인들은 b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b 히, '성문')

15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16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7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18 시온 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19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20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21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22 c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c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Footnotes

Footnote from Lamentations 1:3 ([Back](#))

[\[1\]](#) **1:3** Or *in the narrow passes*

Footnote from Lamentations 1:4 ([Back](#))

[\[2\]](#) **1:4** Septuagint, Old Latin *dragged away*

Footnote from Lamentations 1:9 ([Back](#))

[\[3\]](#) 1:9 Or *end*

Footnote from Lamentations 1:13 ([Back](#))

[\[4\]](#) **1:13** Septuagint; Hebrew *bones and*

Footnote from Lamentations 1:14 ([Back](#))

[\[5\]](#) **1:14**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Lamentations 1:21 ([Back](#))

[\[6\]](#) **1:21** Septuagint, Syriac *Hear*

Footnote from Lamentations 1:21 ([Back](#))

[\[7\]](#) **1:21** Syriac *Bring*

Footnote from Lamentations 3:17 ([Back](#))

[\[1\]](#) 3:17 Hebrew *good*

Footnote from Lamentations 3:22 ([Back](#))

[\[2\]](#) **3:22** Syriac, Targum; Hebrew *Because of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we are not cut off*

Footnote from Lamentations 3:64 ([Back](#))

[\[3\]](#) **3:64** Or *Repay them*

Footnote from Lamentations 3:65 ([Back](#))

[\[4\]](#) **3:65** Or *Give them*

Footnote from Lamentations 3:65 ([Back](#))

[\[5\]](#) **3:65** Or *place your curse*

Footnote from Lamentations 3:66 ([Back](#))

[\[6\]](#) 3:66 Or *Pursue them*

Footnote from Lamentations 3:66 ([Back](#))

[\[7\]](#) **3:66** Syriac (compare Septuagint, Vulgate); Hebrew *the heavens of the LORD*

[\[1\]](#) 4:6 Or *iniquity*

Footnote from Lamentations 4:6 ([Back](#))

[\[2\]](#) 4:6 Or *sin*

Footnote from Lamentations 4:6 ([Back](#))

[\[3\]](#) 4:6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Lamentations 4:7 ([Back](#))

[\[4\]](#) 4:7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Lamentations 4:7 ([Back](#))

[\[5\]](#) 4:7 Hebrew *lapis lazuli*

Footnote from Lamentations 4:16 ([Back](#))

[\[6\]](#) **4:16** Hebrew *The face of the LORD*

Footnote from Lamentations 4:22 ([Back](#))

[\[7\]](#) **4:22** Or *he will not exile you again*

Footnote from Lamentations 5:5 ([Back](#))

[\[1\]](#) **5:5** Symmachus *With a yoke on our necks*

에스겔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zekiel 1](#) • [Ezekiel 2](#) • [Ezekiel 3](#) • [Ezekiel 4](#) • [Ezekiel 5](#) • [Ezekiel 6](#) • [Ezekiel 7](#) • [Ezekiel 8](#)
• [Ezekiel 9](#) • [Ezekiel 10](#) • [Ezekiel 11](#) • [Ezekiel 12](#) • [Ezekiel 13](#) • [Ezekiel 14](#) • [Ezekiel 15](#)
• [Ezekiel 16](#) • [Ezekiel 17](#) • [Ezekiel 18](#) • [Ezekiel 19](#) • [Ezekiel 20](#) • [Ezekiel 21](#) • [Ezekiel 22](#)
• [Ezekiel 23](#) • [Ezekiel 24](#) • [Ezekiel 25](#) • [Ezekiel 26](#) • [Ezekiel 27](#) • [Ezekiel 28](#) • [Ezekiel 29](#)
• [Ezekiel 30](#) • [Ezekiel 31](#) • [Ezekiel 32](#) • [Ezekiel 33](#) • [Ezekiel 34](#) • [Ezekiel 35](#) • [Ezekiel 36](#)
• [Ezekiel 37](#) • [Ezekiel 38](#) • [Ezekiel 39](#) • [Ezekiel 40](#) • [Ezekiel 41](#) • [Ezekiel 42](#) • [Ezekiel 43](#)
• [Ezekiel 44](#) • [Ezekiel 45](#) • [Ezekiel 46](#) • [Ezekiel 47](#) • [Ezekiel 48](#)

에스겔

하나님의 보좌

EZEKIEL 1 때는 제 삼십년 넷째 달 오일이었다. 그 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 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 주신 환상을 보았다. **2**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 온 지 오 년째가 되는 그 달 오일에, **3**주님께서 a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 가에서 b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a 또는 '갈대아' b 또는 '부시 제사장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4그 때에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불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5**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6**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7**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넉과 같이 반짝거렸다. **8**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9**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10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1**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12**그들은 c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c 히, '하루아흐')

13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14**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15그 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16**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17**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리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18**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다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19**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0**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21**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22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24**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d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d 히, '샤다이') 25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26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27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불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28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때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다

EZEKIEL 2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o"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a 또는 '사람의 아들아'. 히, '벤 아담'. 에스겔서 전체에서 '벤 아담'은 '사람'으로 번역됨) 2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3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o"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 온 한 반역 b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b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민족들') 4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5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6 너 사람아,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 떼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7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8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9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10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 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EZEKIEL 3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o"사람아,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 주어라."

2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 주시며, 3 나에게 말씀하셨다.

o"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4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o"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5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

는 것이 아니다. ⁶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⁷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⁸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네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⁹내가 네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¹⁰○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¹¹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¹²○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¹³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¹⁴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¹⁵나는 델아빡으로 갔다. 그 곳 그발 강 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a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a 또는 '그가 본 것과 들은 것 때문에')

파수꾼 에스겔(겔 33:1-9)

¹⁶○이레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¹⁷○"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¹⁸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¹⁹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²⁰○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울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²¹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이 방어리가 되다

²²○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²³○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²⁴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25**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26**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27**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네 입을 열어 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고하시다

EZEKIEL 4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2**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3**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펠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주는 징조다.

4○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a네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a 또는 '네 옆에') **5**나는 그들이 범죄한 햇수대로 네 날 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네가 삼백구십 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6**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사십 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일 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7○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8**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 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9○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삼백구십 일 동안 내내 먹어라. **10**너는 음식을 하루에 이십 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 놓고 먹어라. **11**물도 되어서 하루에 육분의 일 힌씩, 시간을 정해 놓고 따라 마셔라. **12**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13○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14○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15○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16○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싸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17**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위

EZEKIEL 5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 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²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삼분의 일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삼분의 일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³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 두었다가 네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⁴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 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⁵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⁶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⁷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a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a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에는 '규례를 따라 살았다')

⁸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못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⁹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¹⁰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 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겠다.

¹¹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b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b 또는 '내가 물려서겠고') ¹²너희 가운데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삼분의 일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 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¹³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¹⁴또 내가, 둘러 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폐허 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¹⁵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에게 c네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네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와 타르굼을 따름. 히, '그것이')

¹⁶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¹⁷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행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다

EZEKIEL 6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3**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 버리겠다. **4**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 버리겠다. **5**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6**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7**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9**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 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10**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언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11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12**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 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 놓겠다. **13**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a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a 몇몇 히브리어 사본에는 '리블라')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오다

EZEKIEL 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3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4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5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a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a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에는 '재앙에 재앙이 겹쳐 온다!')

6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7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8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9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0 그 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터 나왔다.

11 **b**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띠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b** 또는 '광포한 자가')

12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13 **o** 판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 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14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추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받는 형벌

15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16 더러는 살아 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17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18굶은 배 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 몸을 떨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19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 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20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21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 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 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22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c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c 또는 '보물을 쌓아 둔 곳을')

23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살육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4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25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26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가르쳐 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27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EZEKIEL 8 제 육년 여섯째 달 오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2** 내가 바라보니, a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불 같은 형상') **3** 그 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 놓으셨다. 그 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5 그 때에 b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b 히, '그가')

6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7 그는 나를 이끌고, 들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8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9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10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11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일흔 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12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13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4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 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15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16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17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 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18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EZEKIEL 9 또 그가 큰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2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늦으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3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5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6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서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7◦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돌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8◦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9◦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짙어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 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10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갇아 줄 뿐이다."

11◦그런데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다

EZEKIEL 10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2그 때에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곳으로 들어갔다. 3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4그 때에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5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a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a 히, '엘 샤다이')

6◦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7그 때에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 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8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9◦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10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11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 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12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13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14◦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5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발강 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16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17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18○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19**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20**그들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21○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22**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다

EZEKIEL 11 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스물다섯 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2○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 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3**그들은 모두 'a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솔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a 또는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4**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5○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6**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7○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솔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8**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9**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10**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솔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12**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13○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14○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5○"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네 모든 친척, b네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포로가 된 네 동포')

16○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 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17○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 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18**그들이 그 곳으로 가서, 그 땅의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 버릴 것이다. **19**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c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c 또는 '새 마음') **20**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1**그러나 마음 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갇아 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다

22○그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23**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24**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d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올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d 또는 '갈대아') **25**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망국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EZEKIEL 12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3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4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5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네 짐을 그 곳으로 내다 놓아라. 6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7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때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8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9"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10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11너는 또 그들에게, 네가 그들의 징조라고, 네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12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a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a 칠십인역에는 '그가') 13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움아 그를 바빌로니아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 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14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 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 들고 쫓아가겠다.

15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 버릴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16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떨면서 먹고 마시는 상징 행위

17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8"사람아,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싸여 물을 마셔라. 19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싸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싸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사람

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속담과 예언

21○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2○"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나? **23**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왔다. **24**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25**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6○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7○"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네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28**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

EZEKIEL 1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3○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 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a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a 또는 '악한') **4**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5**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6**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7**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8○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9**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11**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12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13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14**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15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16**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들(여자)

17 "너 사람아, 네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18**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 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 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 남기를 바라느냐? **19**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20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 띠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 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 놓겠다. **21**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 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22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23**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다

EZEKIEL 14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3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4**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5**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7○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 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8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9○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 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10물어 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11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12○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3○"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으므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14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a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a 히, '다넬'. 히브리어의 자음 표기가 예언자 다니엘과는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음)

15○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 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16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 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7○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칼아,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18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9○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 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20비록 노아와 a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a 히, '다넬'. 히브리어의 자음 표기가 예언자 다니엘과는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음)

21○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22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 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은 타 버린 포도나무

EZEKIEL 1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3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 둘 수 있느냐?

4그것은 땀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 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6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땀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7**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

EZEKIEL 16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 주어라. **3**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4**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 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 주지도 않았다. **5**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6○그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a(핏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a 일부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묶음표 안의 본문이 없다) 7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b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b 또는 '성숙하였고')

8○그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겉옷 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9○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네 몸에 묻은 피를 씻어 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10 수 놓은 옷을 네게 입혀 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네게 신겨 주고, 모시로 네 몸을 감싸 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11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고, 12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 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 옷과 비단 옷과 수 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14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 나갔다. 내가 네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c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c 한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16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7 너는, 내가 네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18 너는, 수 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 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19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0○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네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21 네가 내 아들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네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22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창녀 예루살렘

23○"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네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24 너는, 길거리마다 네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네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25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네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26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 나라 남자와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27○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네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네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 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8○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앗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네 음욕이 차지 않아서, 29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d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d 또는 '갈대아')

30○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31네가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 놓고, 몸을 팔면서도, 네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32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33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 가며 사방에서 불려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34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몸값을 주어 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다

35○"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36○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네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e재산을 쏟아 붓고, 네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네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e 또는 '음욕을') 37그러므로 네가 함께 즐기던 네 정부들과 네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네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네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38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네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39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면, 그들이 네 누각을 헐고, 네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옷을 벗겨 버리고, 네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 둘 것이다.

40○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41그들은 네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네 음행을 끝장 내서, 네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42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43○네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네 행실대로 네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네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어머니에 그 딸

44○"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45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네 어머니의 딸이며, 네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하던 네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헛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46○그리고 네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네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47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 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

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네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48○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49**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50**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 버렸다.

51○사마리아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 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네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네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52**네가 네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으므로, 네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네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이다

53○"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54**그제야 너는 네 치욕을 감당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언니와 아우는 네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55**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네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56**네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네가 네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57**그러나 그것은 네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네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f많은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에는 '아람') **58**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것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영원한 언약

59○"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깬으니, 나도 네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60**그러나 나는 네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1**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네 언니와 너보다 작은 네 아우를 모두 네 딸로 삼아 주면, 너는 네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2**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63**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EZEKIEL 1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²○"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³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따다.

⁴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 두었다.

⁵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⁶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⁷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⁸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9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 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0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 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 버리지 않겠느냐?"

비유의 해석

1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2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 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 갔고, **13**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14**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15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16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17**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18**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20**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움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21**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a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 때에 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a 또는 '정예병들')

희망의 약속

22"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23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24그 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개인의 책임

EZEKIEL 18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3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4**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5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6**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7**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 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며, **8**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a**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a** 칠십인역을 따름. 히, '가난한 사람에게

서')⁹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 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¹⁰○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¹¹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¹²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 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¹³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¹⁴○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 하지 않고, ¹⁵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¹⁶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 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며, ¹⁷a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가난한 사람에게서') ¹⁸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¹⁹○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²⁰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²¹○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²²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²³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²⁴○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²⁵○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²⁶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²⁷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²⁸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²⁹○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

지 않은 것이 아니냐?

30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31**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32**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애가

EZEKIEL 19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 줄 애가를 지어라. **2**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3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 먹으니,

4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 갔다.

5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 먹으며

7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a 타르굼과 칠십인역을 따름. 히, '그가 알았다')

8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9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창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10네 어머니는 **b**네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b**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을 따름. 히, '네 핏줄 안에 있는')

11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12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뻗어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 버렸다.

13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14그 가운데 **c**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 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 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c** 또는 '그 큰 가지 밑에서')

하나님의 뜻, 사람의 반역

EZEKIEL 20 제 칠년 다섯째 달 십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3**"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4○너 사람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5**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6**그 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7○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8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9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었다.

10○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11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 주었다. 12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13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14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15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16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17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18○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19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20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21○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22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23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흠여 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헤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24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25○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26나는 그들이 모두 말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27○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28**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 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29**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 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a바마라고 부른다.) (a '높은 곳')

30○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 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31**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다

32○"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33**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34**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고, **35**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36**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7○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38**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9○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40**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b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b 또는 '너희의 첫 열매의 예물을') **41**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42**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43**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44**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불타는 숲의 비유

45○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46**○"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겔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47**너는 네겔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숲 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치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48**그 때에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칼

49○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EZEKIEL 2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 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3**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죽이겠다. **4**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5**그 때에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6○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7**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 오고 있다. 반드시 이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8○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9○"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10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11그 사람의 손에 쥐어 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살육자의 손에 넘겨 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광을 냈다.

12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13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4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15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a살육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a 칠십인역을 따름.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16칼아, 날을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17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

18○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20**칼이 암몬 자손의 랍바
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21**바빌로니
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

이다. **22**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23**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 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24**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 주겠다.

25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 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26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27내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 주겠다."

암몬을 치는 칼

28○"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 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29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 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요,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악하니,
그 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네 목위에 떨어질 것이다.

30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네가 지음을 받은 곳,
네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31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 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죽이는 데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 주겠다.

32 너는 불의 땀감이 될 것이며,
너는 네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피의 도성 예루살렘

EZEKIEL 22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a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a 예루살렘을 일컬음) **3**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a네가 심판 받을 때가 다가온다.(a 예루살렘을 일컬음) **4**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네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6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7** 성읍아,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네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네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8**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9 네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혈똥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네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네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10** 네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네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11**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머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네 안에 있다. **12**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3 네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버르고 있다. **14**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 나겠느냐? 네 두 손

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15**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흠으며, 여러 나라로 흠뿌려서, 네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16**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간 이스라엘

17○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8○"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 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19**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찌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20**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 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 넣고 녹여 버리겠다. **21**내가 너희를 모아 놓고, 내 격노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 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22**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층의 죄

23○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4○"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25**그 가운데 있는 b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b 칠십인역에는 '제사장들') **26**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27**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28**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 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 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29**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30**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 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31**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격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갇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EZEKIEL 2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3**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

렸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⁴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 사이에서 아들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⁵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앗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⁶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⁷그들은 모두가 앗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⁸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⁹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앗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¹⁰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¹¹○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¹²그는 앗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¹³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¹⁴○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 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 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a 또는 '갈대아') ¹⁵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¹⁶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¹⁷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¹⁸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 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¹⁹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²⁰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

²¹○"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b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b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네 가슴이 젊다고 하여 네 유방을 만지던 것을') ²²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정을 댄 네 정부들을 총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²³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앗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²⁴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 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²⁵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트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 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

이다. ²⁶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²⁷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²⁸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네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 주겠다. ²⁹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네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 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 두어, 음행하던 네 알몸, 곧 네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³⁰네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네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³¹네가 네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네 손에 넘겨 주겠다.

³²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³³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싸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네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³⁴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네 유방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³⁵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

³⁶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³⁷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 준 제 아들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³⁸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³⁹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⁴⁰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패물로 장식을 하고, ⁴¹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

에 상을 차려 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⁴²그 사내들과 지껄이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 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 주었다. ⁴³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⁴⁴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⁴⁵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⁴⁶○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⁴⁷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⁴⁸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 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⁴⁹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 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씻어도 소용없는 술 예루살렘

EZEKIEL 24 제 구년 열째 달 십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3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4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 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5양 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의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6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뺨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7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8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바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9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10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삭 졸이고,
뼈는 태워 버려라.

11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 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의 낫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의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12^a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a 12절의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13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14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1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6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17**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

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18○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19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20○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21'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 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22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23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 보며 탄식할 것이다. 24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5○"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딸들을 데려가는 날, 26그 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네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27그 날에 네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

EZEKIEL 2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3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4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 주겠다. 그들이 네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네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네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5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 때에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6○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7내가 내 손을 뻗어서 너를 치고, 네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 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 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 두겠다. 그 때에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8"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a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a 칠십인역과 고대 라틴어역을 따름. 히, '모압과 세일') 9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벳어시뫣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10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 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11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에돔에 대한 심판

12"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13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어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 버리며, 그 땅을 데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14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 때에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

15"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 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 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16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 버리며, 바닷가에 살아 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17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EZEKIEL 26 제 십일년 어느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3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4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곳의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 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 내고
맨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5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6 해변에 있는 두로의 a성읍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그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a 히, '딸들도')

7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 바빌로니아 왕 느부갈네살을 북
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그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올 것
이다.

8 네 땅에 자리잡고 있는
네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추다.

9 쇠망치로 네 성벽을 허물고,
갓가지 허무는 연장으로
네 망대들을 부술 것이다.

10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네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네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11 그가 말발굽으로
네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튼튼한 돌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12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다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13 내가,

네 모든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14내가 너를 맨바위로 만들겠고,
너는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새로 짓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나 주 하나님이 두로를 두고 말한다.

○네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한가운데서 부상 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놀라운 살육이
저질러질 때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6**그 때에는 해변 주민의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왕복을 벗고, 수 놓은 옷들도 벗어 버릴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앉아서, 때도 없이 떨어져, 너 때문에 놀랄 것이다. **17**그들은 너를 두고 애가
를 지어 부를 것이다.

너 항해자들이 머물던 성읍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느냐,
그렇게도 이름을 날리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 성읍,
그 주민과 그 성읍이,
온 육지를 떨게 하지 않았던가!

18오늘 네가 쓰러지니,
섬들이 떨고 있다.
바다에 있는 섬들이,
네 종말을 지켜 보며 놀라고 있다.

19○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
고, 깊은 물결을 네 위로 끌어올려서 많은 물이 너를 덮어 버리게 하고, **20**너를, 구덩이로 내려
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덩
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저 아래 깊은 땅 속, 태고적부터 황폐하여진 곳으로 들어가서 살
게 하여, 네가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거나 b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한 모퉁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b 칠십인역을 따름. 히, '내가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영광을 주었다') **21**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 버리겠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
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에 대한 애가

EZEKIEL 2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3저 바다 어귀에 자리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4네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5^a스닐 산의 잣나무로
네 옆구리의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네 돛대를 만들었다. (^a 헤르몬을 가리킴) **6**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고,
^b키프로스 섬에서 가져 온 ^c회양목에
상아로 장식하여,
네 갑판을 만들었다. (^b 히, '깃땀' ^c 타르굼을 따름. 마소라 본문은 자음 본문을 다르게 구
분함. 히, '앗시리아의 딸아')

7이집트에서 가져 온 수 놓은 모시로
네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네 기를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 온
푸른 색과 자주색 베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8시돈과 아르왓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두로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네 선장이 되었다.

9^d그발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의 틈을 막아 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네 안에서
너의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d 비블로스를 가리킴)

10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네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 놓아,
그들마저도 네 영화를 빛냈다.

11아르왓 사람들과 네 군대가
네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네 망대들 속에 있어서,
네 사면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 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12○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e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e 히, '다시스') **13**야완과 두발과 메섹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예와 놋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네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14**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15**f드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 값으로 네게 지불하였다.(f 칠십인역에는 '로단') **16**네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g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베와 수 놓은 천과 가는 베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g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에는 '에돔') **17**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18**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 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19**워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쇠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20**드단은 말을 탈 때에, 안장에 깔아 놓는 천을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21**아라비아 사람들과 게달의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 양과 숫양과 숫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22**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23**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앗시리아와 길맛 상인들이 너와 거래를 하였다. **24**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겹옷과, 수 놓은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25**다시스의 배들도 네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26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선시켰다.

27네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네 선원과, 네 선장과,
배의 틸을 막아 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28네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29노 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물로 올라와서,

30 파선된 너를 애석해 하면서,
큰소리로 목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었으며,
재 속에서 뒹군다.

31 네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뺨뺨 밀고
굵은 베 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32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네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33 네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네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34 그러나 이제 네가 파선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네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 버렸다.

35 섬에 사는 사람들이
네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36 뭇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

EZEKIEL 28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 속으로
신이라도 된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3너는, a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네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a 히, '다넬'. 히브리어의 자음 표기가 예언자 다니엘과는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음)

4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네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5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네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네 재산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6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마음 속으로
신이라도 된듯이 우쭐대니,

7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네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네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8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9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신이라고
네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람들의 손에
찢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10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 왕에 대한 애가

11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2 ◯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13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14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15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16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17 너는 네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네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18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네가 땅바닥의 재가 되도록 하였다.

19뭇 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

20○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1○"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22**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네 가운데서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23내가 네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네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24○"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25**○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6**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 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

EZEKIEL 29 제 십년 열째 달 십이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3**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 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네가 나일 강을 네 것이라고 하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4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물고기들이
네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네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5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 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벌판에
나동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 오거나
거두어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6그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7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a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a 시리아어역과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그들이 허리를 세우게 하였다')

8○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를 치겠다. 사람과 짐승을 너에게서 멸절시키겠다. 9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한 땅 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일 강은 네 것이고, 네가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10내가 너와 네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므독에서부터 수에네까지와, b에티오피아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 곧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b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11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십 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사십 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 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 놓겠다.

13○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십 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14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c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c 히, '바드로스') 15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16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느부갈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

17○제 이십칠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8"사람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갈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19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갈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20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1○그 날이 오면, d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네게 주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d 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한 뿔이 자라게 하고')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다

EZEKIEL 30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3그 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 때가 왔다.

4이집트에 전쟁이 휘몰아치고,
a에티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5**a에티오피아와 b리비아와
c리디아와, 아라비아와 굽과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b 히, '붓' c 히, '룻') **6**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의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8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9그 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a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 날에, a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a 히, '구스'. 나일 강 상류지역)

10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갈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 버리겠다.

11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12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13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d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 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d 히, '놈')

14내가 e상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소안에 불을 지르고,
f테베를 심판하겠다. (e 히, '바드로스' f 히, '노')

15또 내가
이집트의 요새인 g펠루시움에
내 분노를 쏟아 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g 히, '신')

16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면
g펠루시움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에는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g 히, '신') **17**h헬리오폴리스와 i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h 히, '아웬' i 히, '비베셋')

18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 버릴 때에,
드합느헤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에,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9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의 부러진 팔

20○제 십일년 첫째 달 칠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1**"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쥌 수 없다. **22**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 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23**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 놓겠다. **24**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주겠지만, 바로의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25**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 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26**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놓고, 그들을 못 나라로 헤쳐 놓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한 때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EZEKIEL 31 제 십일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엄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3앗시리아는 한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4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네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5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갔다.

6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잡고 살았다.

7네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네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8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네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네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9내가 네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10○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11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 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12그래서 뭇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 버렸다.

13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14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렁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15○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a스올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6**내가 그 나무를 a스올로 내려 보낼 때에는, 깊은 구렁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a스올로 떨어지는 큰소리를 듣고서, 못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a스올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a스올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7**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a스올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a스올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18○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a스올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a 또는 '무덤' 또는 '죽음')

악어와 같았던 이집트

EZEKIEL 32 제 십이년 열두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 주어라.

'너는 스스로 네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 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뽀족한 코로 강물을 흠뻑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3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에인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4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치겠다.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네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들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5너의 살점을
이산 저산에 흩어 놓으면
골짜기마다 a네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a 심마쿠스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네 높은 키')

6내가 네 피로 땅을 적시고,
산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네 피가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7내가 네 빛을 꺼지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8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네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9**b**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뭇 민족에게 알리면,
뭇 민족이
네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 것이다. (b 칠십인역에는 '내가 너를 뭇 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

10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소스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네가 받은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네가 쓰러지는 그 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봐
떨 것이다.

11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네게 미칠 것이다.

12내가 용사들의 칼로
너의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13내가 그 큰 물 가에서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14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여,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16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애가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조가로 부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은 자들의 세계

17 ○제 십이년 c첫째 달 십오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c 칠십인역을 따름. 히브리
어 본문에는 '첫째 달'이 없음)

18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렁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19 도대체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20○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21**그러면 스올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 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22○그 곳에는 앗시리아가 묻혀 있고, 그의 군대가 함께 묻혀 있다. 사방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23**앗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앗시리아의 군대가 묻혀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로서,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다.

24○그 곳에는 엘람이 묻혀 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엘람의 온 군대가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지하에 내려갔다. 그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쓰고 있다. **25**엘람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엘람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26○그 곳에는 메섹과 두발이 묻혀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그들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27**그러나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칼을 베개로 삼아 베고 d방패를 이불로 삼아 덮고 자는 고대의 전몰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d히, '죄를')

28○이제 너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29○그 곳에는 에돔 곧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가 묻혀 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으나, 지금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30**그 곳에는 북쪽의 모든 우두머리와 모든 시돈 사람이 묻혀 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졌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떨치고 힘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쓰고 있다.

31○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군대를 모두 보고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2○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겔 3:16-21)

EZEKIEL 3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²○"사람아, 너는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³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⁴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⁵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⁶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⁷○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⁸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⁹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개인의 책임

¹⁰○"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¹¹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¹²○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¹³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¹⁴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¹⁵전당물을 돌려 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¹⁶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¹⁷○그런데도 네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¹⁸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¹⁹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²⁰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21○우리가 포로로 잡혀 온 지 십이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오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22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 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의 죄

23○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4○"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25○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26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27○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28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29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말

30○"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네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나 보자' 하면서, 31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32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a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a 히, '사랑의 노래쯤으로') 33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EZEKIEL 34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하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 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³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 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⁴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 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 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⁵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 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⁶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 떼를 찾으려고 물어 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⁷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⁸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 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 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 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 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 떼는 굶졌다. ⁹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¹⁰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 떼를 되찾아 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 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 떼를 구출해 내면, 내 양 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¹¹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 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¹² 양 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 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하여 내겠다. ¹³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 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¹⁴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¹⁵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¹⁶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¹⁷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 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 하겠다. ¹⁸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 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¹⁹ 내 양 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²⁰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²¹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²²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²³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²⁴그 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²⁵○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²⁶○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²⁷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 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멘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²⁸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²⁹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³⁰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³¹○너희는 내 양 떼요, 내 목장의 양 떼다. a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a 칠십인역과 고대 라틴어역에는 '너희는 사람이요'가 없음)

에돔에 대한 심판

EZEKIEL 3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²○"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 산 쪽으로 돌리고, 그 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³너는 그 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⁴내가 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⁵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⁶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네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⁷내가 세일 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⁸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 놓겠다. 네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⁹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네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¹⁰○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네 것이 되고 네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¹¹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

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네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¹²그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¹³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¹⁴○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¹⁵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 산과 에돔 온 땅아,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

EZEKIEL 36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2**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3**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4**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 있는 성읍들,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5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6**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못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7**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8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뺀고, 열매를 맺어라. **9**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10**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11**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12**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 다시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13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14**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네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내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못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네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다

16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7"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18**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19**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 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20**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

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21**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23**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 내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4**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25**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 **26**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28** 그 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9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30**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3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33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34**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 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35**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6**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를 것이다!

37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 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38**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 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EZEKIEL 37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 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2**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

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³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⁴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⁵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a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a 또는 '바람' 또는 '영') ⁶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a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a 또는 '바람' 또는 '영') ⁷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⁸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갓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a생기가 없었다.(a 또는 '바람' 또는 '영')

⁹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a생기에게 대언하여라. a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a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a 또는 '바람' 또는 '영') ¹⁰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a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a 또는 '바람' 또는 '영')

¹¹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¹²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¹³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¹⁴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남북 왕국의 통일

¹⁵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¹⁶"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¹⁷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¹⁸네 민족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¹⁹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²⁰또 너는, 글 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에 들고, ²¹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²²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

죽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23**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b**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내어 깨끗이 씻어 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b**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그들이 범한 온갖 범죄에서')

24 ○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25** 그 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 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26**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27**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 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 곡

EZEKIEL 38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 ○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3**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4**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와 네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 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5**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6**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7** 너는 네게로 집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8** 네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 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9** 그 때에 네가 쳐올라갈 것이며,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10 ○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네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네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11**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12** 물건을 약탈하며 노략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 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13** 스바와 드단과 **a**스페인의 상인들과 **b**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네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네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a** 히, '다시스 **b** 히, '젊은 사자들이')

14 ○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 날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15** 그 때가 되면, 너는 네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16**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같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곡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이어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17○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곡아,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의 심판

18○"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 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19**그 때에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20**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어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21**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22**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 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23**내가 이렇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침략자 곡의 멸망

EZEKIEL 39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2**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 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 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3**그렇게 해 놓고서, 나는 네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네 오른손에서는 네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4**너는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 주어서, 뜯어 먹게 하겠다. **5**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6**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7**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 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8○그대로 되어 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9**그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뿔감으로 쓰면, 일곱 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10**그 무기들을 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곡의 무덤

11○"그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a**사해의 동쪽, **b**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 곳 이름은 '**c**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a** 히, '바다의' **b** '나그네' **c** '곡의 무리, 군대') **12**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일곱 달이 걸릴 것이다. **13**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4**일곱 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들을 살살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15**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 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16**그 부근에는 '**c**하몬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d**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c** '곡의 무리, 군대' **d** '무리')

17○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18**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지게 기른 가축들, 곧 숫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19**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20**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칫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 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21○"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22**그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 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23**그 때에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4**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25○"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e**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e** 또는 '야곱의 운명을 회복시키고') **26**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27**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28**그 때에야 비로소 모든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 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29**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EZEKIEL 40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이십오 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십사 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십일 바로 그 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²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³그가 나를 그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낚시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삼으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서 있었다. ⁴그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네게 보여 주려고, 너를 이 곳으로 데려 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 주어라."

동쪽으로 난 문

⁵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여섯 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⁶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a(a 칠십인역을 따름. 히, '첫째 문간의 길이도 한 장대였다'가 더 있음) ⁷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다섯 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 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⁸b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b 8, 9절은 많은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8. 또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9. 그가 또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여덟 자요.....') ⁹길이가 여덟 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두 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¹⁰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셋씩 있었다. 그 세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¹¹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열 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열석 자였다. ¹²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한 자, 두께도 한 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여섯 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¹³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스물다섯 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¹⁴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스무 자이고, 바깥 뜰의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 ¹⁵바깥 문의 통로에서부터 안 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쉼 자였다. ¹⁶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뜰

¹⁷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 뜰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서른 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¹⁸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¹⁹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백 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북쪽으로 난 문

²⁰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 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²¹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쉰 자요, 너비가 스물다섯 자였다. ²²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일곱 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²³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백 자였다.

남쪽으로 난 문

²⁴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두 문과 같았다. ²⁵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두 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간은,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²⁶일곱 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c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c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벽기둥들') ²⁷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백 자였다.

안뜰의 남쪽 문

²⁸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²⁹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간도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³⁰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스물다섯 자요, 너비는 다섯 자였다. ³¹그 대문의 c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c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벽기둥들')

안뜰의 동쪽 문

³²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³³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간은 길이가 쉰 자요, 너비가 스물다섯 자였다. ³⁴그 중문의 c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c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벽기둥들')

안뜰 북쪽 중문

³⁵○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³⁶문지기 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이 문간의 길이는 쉰 자요, 너비도 스물다섯 자였다. ³⁷그 중문의 c현관도 바깥 뜰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c 칠십인역과 불가타를 따름. 히, '벽기둥들')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³⁸○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³⁹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두 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⁴⁰이 북쪽 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 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두 개씩 있었다. ⁴¹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네 개, 바깥 쪽에 네 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여덟 개였다. ⁴²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에 쓰는 상이 넷이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한 자 반이요, 너비도 한 자 반이며, 높이는 한 자였다. 그 위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⁴³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⁴⁴○d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e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d 칠십인역을 따름. 히, '안문 통로의 바깥쪽으로 안뜰 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두 방이 있는데, 북쪽 중문의 한쪽.....' e 칠십인역을 따름. 히, '동쪽') ⁴⁵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⁴⁶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안뜰과 성전 건물

⁴⁷○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백 자요 너비도 백 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⁴⁸○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다섯 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열넉 자이고 f문의 양 옆 벽의 두께는 석 자였다.(f 칠십인역을 따름. 히, '문 어귀는 석 자였다') ⁴⁹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자였고, 길이는 열한 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EZEKIEL 41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여섯 자였다.a(a 히브리어 본문에는 절 끝에 '장막의 두께가 이러하였다'라는 말이 더 있음) ²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열 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다섯 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사십 자요, 너비가 스무 자였다.

³○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두 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여섯 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일곱 자였다. ⁴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도 스무 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 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5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여섯 자였다. 성전에는 삼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넷 자였다. **6** 그 결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삼 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서른 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결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7** 그 둘러 있는 결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결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8**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결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여섯 자였다. **9** 결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다섯 자였다. 또 성전의 결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10** 그 너비는 스무 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11** 그 결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 있는 이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자였다.

성전의 서쪽 건물

12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일흔 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다섯 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아흔 자였다.

성전의 총면적과 내부시설

13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백 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백 자였다. **14**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백 자였다. **15** 그가 이어서 성전 뒤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백 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16**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 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17**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 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 놓았다. **18**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19**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20**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두었다. **21**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22**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 자요, 그 길이는 두 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 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 놓는 상이다."

성전의 문들

23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겹문이 있었다. **24**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둘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두 개의 돌쩌귀가 붙어 있었다. **25** 네 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26**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결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제사장 방

EZEKIEL 42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 뜰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2**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백 자이고, 너비가 쉰 자였다. **3**스무 자 되는 안뜰의 맞은쪽과 돌을 깔아 놓은 바깥 뜰의 맞은쪽에는, 삼 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4**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열 자요, 그 길이가 a백 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a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한 자였다') **5**삼 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일 층과 이 층에 비하여, 삼 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6**이 방들은 삼 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삼 층은 일 층과 이 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7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 담, 곧 바깥 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쉰 자가 되는 바깥 담이 있었다. **8**바깥 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쉰 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백 자였다. **9**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 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10**뜰을 둘러 싼 벽이 바깥 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 터 b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b 칠십인역을 따름. 히, '동쪽으로도') **11**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12**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 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13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o"빈 터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14**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 뜰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 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 있는 바깥 뜰로 나가야 한다."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하다

15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16**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오백 c자였다.(c 칠십인역을 따름. 히, '장대') **17**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18**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19**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오백 자였다. **20**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오백 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 놓았다.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EZEKIEL 43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2**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3**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에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싸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

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5**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6○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 오는 소리를 들었다. **7**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 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밟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8**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 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9**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10○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11**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12**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13○자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14**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15**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네 개 솟아 있다. **16**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자요, 너비도 열두 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17**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열넉 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 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번제단의 봉헌

18○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19**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제물로 삼게 하여라. **20**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21**또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의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22○이튿날에는 네가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23**네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

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라. ²⁴네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²⁵너는 이레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²⁶이레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²⁷○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a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a 또는 '친교제')

성전 동쪽 문의 용도

EZEKIEL 44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²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³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다

⁴○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⁵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⁶○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⁷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⁸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⁹○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 박탈

¹⁰○"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¹¹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¹²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¹³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¹⁴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 보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

¹⁵○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¹⁶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¹⁷○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¹⁸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¹⁹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닿아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²⁰○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²¹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²²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²³○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²⁴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²⁵○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 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²⁶그 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레를 지내야 한다. ²⁷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뚝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²⁸○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²⁹그들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a 히, '헤렘'. 주님께 바친 사람이나 물건으로서 취소할 수 없는 제물) ³⁰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

리게 하여라. ³¹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거룩한 땅

EZEKIEL 45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자요, 너비는 a이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a 칠십인역을 따름. 히, '만 자') ²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오백 자요 너비도 오백 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 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쉰 자인 빈 터를 두어야 한다. ³재어 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b이만 오천 자요 너비가 c만 자 되는 땅을 재어 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b 약 12킬로미터 c 약 5킬로미터) ⁴이 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곳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앉힐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⁵길이가 이만 오천 자에 너비가 만 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d성읍을 세우게 하여라.(d 칠십인역을 따름. 히, '스무 개의 방울')

⁶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오천 자요 길이가 이만 오천 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왕의 차지

⁷"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⁸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⁹"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 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¹⁰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e에바와 정확한 fبات을 써라.(e 건량 단위 f액량 단위)

¹¹에바와 بات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bat은 e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bat을 사용해야 한다.(e 건량 단위)

¹²너희는 한 g세겔이 이십 게라가 되게 하고, 이십 세겔 짜리와 이십오 세겔 짜리와 십오 세겔 짜리를 합하여 한 h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g 약 11.5그램 h 약 60세겔, 일반 마네는 50세겔)

¹³"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육분의 일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육분의 일 에바를 바쳐야 한다. ¹⁴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르 수확에 십분의 일 밧을 바쳐야 한다. 한 고르가 한 호멜 또는 열 밧과 같은 것은, 열 밧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¹⁵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 떼의 수가 이백 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i화목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i 또는 '친교제물')

¹⁶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¹⁷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i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i 또는 '친교제물')

유월절(출 12:1-20; 레 23:33-4c

¹⁸○"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c 약 5킬로미터) ¹⁹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²⁰너는 그 달 초이렛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²¹○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²²그 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²³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레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레 동안 날마다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숫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²⁴곡식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j한씩을 바쳐야 한다."(j 약 4리터)

초막절

²⁵○"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레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안식일과 월삭

EZEKIEL 46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²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a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a 또는 '친교제물') ³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⁴○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이다. ⁵곡식제물은, 숫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b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숫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c힌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b 약 22리터 c 약 4리터) ⁶매달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⁷또 곡식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

가루 한 에바를,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8○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9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10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11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숫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12○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a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a 또는 '친교제물')

매일 바치는 제사

13○"또 너는 매일 주에게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14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삼분의 일 힌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15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왕과 그의 토지

16○"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17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 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18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전 부속

19○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 터가 하나 있었다. 20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으며,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 뜰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21또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22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마흔 자요 너비는 서른 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23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²⁴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 곳은 성전에서 시종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 물을 삶는 부엌이다."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

EZEKIEL 47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²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³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a천 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a 약 450미터) ⁴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⁵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⁶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⁷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⁸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나가서, ^b아라바로 내려갔다가, ^c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b 또는 '요단 계곡' ^c 사해를 일컬음) ⁹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¹⁰그 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d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d 히, '큰 바다') ¹¹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젖어 있을 것이다. ¹²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앞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앞은 약재로 쓸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¹³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¹⁴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¹⁵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d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d 히, '큰 바다') ¹⁶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곤에까지 이른다. ¹⁷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d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에논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d 히, '큰 바다')

18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 강을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말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19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므리봇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d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d 히, '큰 바다')

20 서쪽 경계선은 d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하맛으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d 히, '큰 바다')

21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별로 나누어 가져라. 22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23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파의 토지 분배

EZEKIEL 48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하살에논에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2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지파의 몫이다.

3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4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몫이다.

5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6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7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8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a이만 오천 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몫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a 약 12킬로미터)

9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이만 오천 자요, 너비가 b만 자이다.(b 약 5킬로미터) 10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자, 서쪽으로 너비가 만 자, 동쪽으로 너비가 만 자,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11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 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12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 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13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이만 오천 자요, 너비가 만 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이만 오천 자요, 너비는 이만 자이다. 14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15○너비가 오천 자요 길이가 이만 오천 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땅이다. 그 한 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 터로 사용하야라. **16**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사천오백 자, 남쪽의 길이도 사천오백 자, 동쪽의 길이도 사천오백 자, 서쪽의 길이도 사천오백 자이다. **17**이 성읍 빈 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이백오십 자, 남쪽의 너비가 이백오십 자, 동쪽의 너비가 이백오십 자, 서쪽의 너비가 이백오십 자이다. **18**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자이고, 서쪽으로도 만 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19**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 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20○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이만 오천 자요, 너비도 이만 오천 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21**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 옆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의 양 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곧 이만 오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이만 오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몫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22**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의 토지 분배

23○"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24**○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25**○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 지파의 몫이다. **26**○잇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27**○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28**○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므리바가데스 샘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c지중해에 이른다.(c 히, '큰 바다') **29**○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성문들

30○"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사천오백 자이다. **31**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32**동쪽 성벽도 너비가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33**남쪽 성벽도 너비가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잇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34**서쪽 성벽도 너비가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35○이렇게 그 둘레가 만 팔천 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d'여호와샤마'라고 불릴 것이다."(d 히, '아도나이 샤마(주님께서 거기에 계심)')

Footnotes

Footnote from Ezekiel 1:1 ([Back](#))

[\[1\]](#) 1:1 Or *from God*

Footnote from Ezekiel 1:4 ([Back](#))

[\[2\]](#) 1:4 Or *amber*; also verse 27

Footnote from Ezekiel 1:12 ([Back](#))

[\[3\]](#) 1:12 Or *Spirit*; also twice in verse 20 and once in verse 21

Footnote from Ezekiel 1:15 ([Back](#))

[\[4\]](#) **1:15** Hebrew *of their faces*

Footnote from Ezekiel 1:17 ([Back](#))

[\[5\]](#) **1:17** Hebrew *on their four sides*

Footnote from Ezekiel 1:20 ([Back](#))

[\[6\]](#) **1:20** Or *the spirit of life*; also verse 21

Footnote from Ezekiel 1:26 ([Back](#))

[\[7\]](#) **1:26** Or *lapis lazuli*

Footnote from Ezekiel 1:27 ([Back](#))

[\[8\]](#) 1:27 Or *it*

Footnote from Ezekiel 2:1 ([Back](#))

[\[1\]](#) **2:1** Or *Son of Adam*; so throughout Ezekiel

Footnote from Ezekiel 2:6 ([Back](#))

[\[2\]](#) 2:6 Or *on scorpion plants*

Footnote from Ezekiel 3:12 ([Back](#))

[\[1\]](#) **3:12** Or *the wind*; also verse 14

Footnote from Ezekiel 3:12 ([Back](#))

[\[2\]](#) 3:12 Or *sound*

Footnote from Ezekiel 3:15 ([Back](#))

[\[3\]](#) **3:15** Or *Chebar, and to where they dwelt*

Footnote from Ezekiel 3:18 ([Back](#))

[\[4\]](#) **3:18** Or *in*; also verses 19, 20

Footnote from Ezekiel 3:22 ([Back](#))

[\[5\]](#) 3:22 Or *plain*; also verse 23

Footnote from Ezekiel 4:4 ([Back](#))

[\[1\]](#) 4:4 Or *iniquity*; also verses 5, 6, 17

Footnote from Ezekiel 4:9 ([Back](#))

[\[2\]](#) 4:9 A type of wheat

Footnote from Ezekiel 4:10 ([Back](#))

[\[3\]](#) **4:10**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Ezekiel 4:10 ([Back](#))

[\[4\]](#) **4:10** Or *at a set time daily*; also verse 11

Footnote from Ezekiel 4:11 ([Back](#))

[\[5\]](#) **4:11**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14 ([Back](#))

[\[6\]](#) **4:14** Hebrew *my soul* (or *throat*) *has never been made unclean*

Footnote from Ezekiel 4:16 ([Back](#))

[\[7\]](#) 4:16 Hebrew *staff*

Footnote from Ezekiel 5:7 ([Back](#))

[\[1\]](#) **5:7** Some Hebrew manuscripts and Syriac lack *not*

Footnote from Ezekiel 5:8 ([Back](#))

[2] 5:8 The same Hebrew expression can mean *obey rules*, or *execute judgments*,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Ezekiel 5:11 ([Back](#))

[\[3\]](#) **5:11** Some Hebrew manuscripts *I will cut you down*

Footnote from Ezekiel 5:15 ([Back](#))

[\[4\]](#) **5:15** Dead Sea Scroll, Septuagint, Syriac, Vulgate, Targum; Masoretic Text *And it shall be*

Footnote from Ezekiel 5:16 ([Back](#))

[\[5\]](#) **5:16** Hebrew *them*

Footnote from Ezekiel 5:16 ([Back](#))

[\[6\]](#) **5:16** Hebrew *staff*

Footnote from Ezekiel 6:6 ([Back](#))

[\[1\]](#) 6:6 Or *and punished*

Footnote from Ezekiel 6:14 ([Back](#))

[\[2\]](#) **6:14** Some Hebrew manuscripts; most Hebrew manuscripts *Diblah*

Footnote from Ezekiel 7:2 ([Back](#))

[\[1\]](#) 7:2 Or *earth*

Footnote from Ezekiel 7:5 ([Back](#))

[\[2\]](#) **7:5** Some Hebrew manuscripts (compare Syriac, Targum); most Hebrew manuscripts *Disaster! A unique disaster!*

Footnote from Ezekiel 7:7 ([Back](#))

[\[3\]](#) 7:7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also verse 10

Footnote from Ezekiel 7:11 ([Back](#))

[\[4\]](#) **7:11** The meaning of this last Hebrew sentenc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7:12 ([Back](#))

[\[5\]](#) **7:12** Or *abundance*; also verses 13, 14

Footnote from Ezekiel 7:13 ([Back](#))

[\[6\]](#) **7:13** The meaning of this last Hebrew sentenc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7:22 ([Back](#))

[\[7\]](#) 7:22 Or *secret*

Footnote from Ezekiel 7:23 ([Back](#))

[\[8\]](#) **7:23** Probably refers to an instrument of captivity

Footnote from Ezekiel 7:24 ([Back](#))

[\[9\]](#) **7:24** By revocalization (compare Septuagint); Hebrew *and those who sanctify them*

Footnote from Ezekiel 7:26 ([Back](#))

[\[10\]](#) 7:26 Or *instruction*

Footnote from Ezekiel 8:2 ([Back](#))

[\[1\]](#) **8:2** By revocalization (compare Septuagint); Hebrew *of fire*

Footnote from Ezekiel 8:2 ([Back](#))

[\[2\]](#) 8:2 Or *amber*

Footnote from Ezekiel 8:17 ([Back](#))

[\[3\]](#) 8:17 Or *my*

Footnote from Ezekiel 10:1 ([Back](#))

[\[1\]](#) **10:1** Or *lapis lazuli*

Footnote from Ezekiel 10:11 ([Back](#))

[\[2\]](#) **10:11** Hebrew *to their four sides*

Footnote from Ezekiel 10:11 ([Back](#))

[\[3\]](#) **10:11** Hebrew *the head*

Footnote from Ezekiel 10:12 ([Back](#))

[\[4\]](#) 10:12 Or *their whole body, their backs, their hands, and their wings*

Footnote from Ezekiel 10:17 ([Back](#))

[\[5\]](#) 10:17 Or *spirit of life*

Footnote from Ezekiel 11:3 ([Back](#))

[\[1\]](#) **11:3** Or *Is not the time near . . . ; ?*

Footnote from Ezekiel 11:15 ([Back](#))

[\[2\]](#) **11:15** Hebrew *the men of your redemption*

Footnote from Ezekiel 11:16 ([Back](#))

[\[3\]](#) 11:16 Or *in small measure*

Footnote from Ezekiel 11:21 ([Back](#))

[\[4\]](#) **11:21** Hebrew *To the heart of their detestable things and their abominations their heart goes; I will*

Footnote from Ezekiel 12:3 ([Back](#))

[\[1\]](#) 12:3 Or *will see that*

Footnote from Ezekiel 12:10 ([Back](#))

[\[2\]](#) **12:10** Or *This burden is*

Footnote from Ezekiel 12:10 ([Back](#))

[\[3\]](#) 12:10 Hebrew *in the midst of them*

Footnote from Ezekiel 12:22 ([Back](#))

[\[4\]](#) **12:22**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Footnote from Ezekiel 12:23 ([Back](#))

[\[5\]](#) **12:23** Hebrew *word*

Footnote from Ezekiel 13:10 ([Back](#))

[\[1\]](#) **13:10** Or *plaster*; also verses 11, 14, 15

Footnote from Ezekiel 14:10 ([Back](#))

[\[1\]](#) **14:10** Or *iniquity*; three times in this verse

Footnote from Ezekiel 14:13 ([Back](#))

[\[2\]](#) **14:13** Hebrew *staff*

Footnote from Ezekiel 16:10 ([Back](#))

[\[1\]](#) **16:10** Or *with rich fabric*

Footnote from Ezekiel 16:15 ([Back](#))

[\[2\]](#) **16:15** Or *were unfaithful*; also verses 16, 17, 26, 28

Footnote from Ezekiel 16:15 ([Back](#))

[\[3\]](#) **16:15** Or *unfaithfulness*; also verses 20, 22, 25, 26, 29, 33, 34, 36

Footnote from Ezekiel 16:15 ([Back](#))

[\[4\]](#) **16:15** Hebrew *it*

Footnote from Ezekiel 16:16 ([Back](#))

[\[5\]](#) **16:16** The meaning of this Hebrew sentenc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16:25 ([Back](#))

[\[6\]](#) **16:25** Hebrew *spreading your legs*

Footnote from Ezekiel 16:30 ([Back](#))

[\[7\]](#) **16:30** Revocalization yields *How I am filled with anger against you*

Footnote from Ezekiel 16:57 ([Back](#))

[\[8\]](#) **16:57** Some manuscripts (compare Syriac) *of Edom*

Footnote from Ezekiel 16:61 ([Back](#))

[\[9\]](#) **16:61** Or *not apart from*

Footnote from Ezekiel 17:5 ([Back](#))

[\[1\]](#) **17:5** Hebrew *in a field of seed*

Footnote from Ezekiel 17:13 ([Back](#))

[\[2\]](#) **17:13** Hebrew *seed*

Footnote from Ezekiel 17:21 ([Back](#))

[\[3\]](#) **17:21** Some Hebrew manuscripts, Syriac, Targum; most Hebrew manuscripts *all the fugitives*

Footnote from Ezekiel 18:2 ([Back](#))

[\[1\]](#) **18:2** The Hebrew for *you* is plural

Footnote from Ezekiel 18:8 ([Back](#))

[\[2\]](#) **18:8** That is, profit that comes from charging interest to the poor; also verses 13, 17 (compare Leviticus 25:36)

Footnote from Ezekiel 18:17 ([Back](#))

[\[3\]](#) **18:17** Septuagint; Hebrew *from the poor*

Footnote from Ezekiel 18:30 ([Back](#))

[4] 18:30 Or *lest iniquity be your stumbling block*

Footnote from Ezekiel 19:7 ([Back](#))

[\[1\]](#) 19:7 Hebrew *knew*

Footnote from Ezekiel 19:9 ([Back](#))

[\[2\]](#) **19:9** Or *in a wooden collar*

Footnote from Ezekiel 19:10 ([Back](#))

[\[3\]](#) **19:10** Some Hebrew manuscripts; most Hebrew manuscripts *in your blood*

Footnote from Ezekiel 19:11 ([Back](#))

[\[4\]](#) **19:11** Or *the clouds*

Footnote from Ezekiel 20:5 ([Back](#))

[\[1\]](#) **20:5** Hebrew *I lifted my hand*; twice in this verse; also verses 6, 15, 23, 28, 42

Footnote from Ezekiel 20:29 ([Back](#))

[\[2\]](#) 20:29 *Bamah* means *high place*

Footnote from Ezekiel 20:31 ([Back](#))

[\[3\]](#) **20:31** Hebrew *and make your children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Ezekiel 20:45 ([Back](#))

[\[4\]](#) **20:45** Ch 21:1 in Hebrew

Footnote from Ezekiel 20:46 ([Back](#))

[\[5\]](#) **20:46** Or *toward Teman*

Footnote from Ezekiel 21:1 ([Back](#))

[\[1\]](#) **21:1** Ch 21:6 in Hebrew

Footnote from Ezekiel 21:2 ([Back](#))

[\[2\]](#) **21:2** Some Hebrew manuscripts, compare Septuagint, Syriac *against their sanctuary*

Footnote from Ezekiel 21:10 ([Back](#))

[\[3\]](#) **21:10** Probable reading; Hebrew *The rod of my son despises everything of wood*

Footnote from Ezekiel 21:13 ([Back](#))

[\[4\]](#) **21:13** Or *For it is a testing; and what if even the rod despises? It shall not be!*

Footnote from Ezekiel 21:14 ([Back](#))

[\[5\]](#) **21:14** Hebrew *its third*

Footnote from Ezekiel 21:15 ([Back](#))

[\[6\]](#) **21:15** Hebrew *many stumbling blocks*

Footnote from Ezekiel 21:15 ([Back](#))

[\[7\]](#) **21:15**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rendered *taken up*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1:21 ([Back](#))

[\[8\]](#) **21:21** Or *household idols*

Footnote from Ezekiel 21:25 ([Back](#))

[\[9\]](#) **21:25** Or *slain*; also verse 29

Footnote from Ezekiel 22:4 ([Back](#))

[1] 22:4 Some Hebrew manuscripts, Septuagint, Syriac, Vulgate, Targum; most Hebrew manuscripts *until*

Footnote from Ezekiel 22:12 ([Back](#))

[2] 22:12 That is, profit that comes from charging interest to the poor (compare Leviticus 25:36)

Footnote from Ezekiel 23:3 ([Back](#))

[\[1\]](#) **23:3** Hebrew *nipples*; also verses 8, 21

Footnote from Ezekiel 23:11 ([Back](#))

[\[2\]](#) **23:11** Hebrew *than she*

Footnote from Ezekiel 23:21 ([Back](#))

[\[3\]](#) **23:21** Vulgate, Syriac; Hebrew *bosom for the sake of*

Footnote from Ezekiel 23:24 ([Back](#))

[4] 23:24 Septuagint;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known

Footnote from Ezekiel 23:37 ([Back](#))

[\[5\]](#) **23:37** Or *have even made pass through the fire*

Footnote from Ezekiel 23:42 ([Back](#))

[\[6\]](#) 23:42 Or *Sabeans*

Footnote from Ezekiel 23:43 ([Back](#))

[\[7\]](#) **23:43**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4:5 ([Back](#))

[\[1\]](#) **24:5** Compare verse 10; Hebrew *the bones*

Footnote from Ezekiel 24:6 ([Back](#))

[\[2\]](#) **24:6** Hebrew *no lot has fallen upon it*

Footnote from Ezekiel 24:10 ([Back](#))

[\[3\]](#) **24:10** Or *empty out the broth*

Footnote from Ezekiel 24:12 ([Back](#))

[\[4\]](#) **24:12**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5:5 ([Back](#))

[1] 25:5 Hebrew *and the Ammonites*

Footnote from Ezekiel 25:8 ([Back](#))

[\[2\]](#) **25:8** Septuagint lacks *and Seir*

Footnote from Ezekiel 26:7 ([Back](#))

[\[1\]](#) **26:7** Hebrew *Nebuchadrezzar*; so throughout Ezekiel

Footnote from Ezekiel 27:15 ([Back](#))

[\[1\]](#) **27:15** Hebrew; Septuagint *Rhodes*

Footnote from Ezekiel 27:17 ([Back](#))

[\[2\]](#) **27:17**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known

Footnote from Ezekiel 27:19 ([Back](#))

[\[3\]](#) **27:19** Probable reading; Hebrew *wool of Sahar, Vedan, and Javan*

Footnote from Ezekiel 28:12 ([Back](#))

[\[1\]](#) **28:12**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8:13 ([Back](#))

[\[2\]](#) **28:13** Or *lapis lazuli*

Footnote from Ezekiel 28:13 ([Back](#))

[\[3\]](#) 28:13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8:14 ([Back](#))

[\[4\]](#) 28:14 The meaning of the Hebrew phra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28:16 ([Back](#))

[\[5\]](#) **28:16** Or *banished you*

Footnote from Ezekiel 29:6 ([Back](#))

[\[1\]](#) 29:6 Hebrew *they*

Footnote from Ezekiel 29:7 ([Back](#))

[\[2\]](#) **29:7** Syriac (compare Psalm 69:23); Hebrew *to stand*

Footnote from Ezekiel 29:9 ([Back](#))

[\[3\]](#) 29:9 Hebrew *he*

Footnote from Ezekiel 29:19 ([Back](#))

[\[4\]](#) 29:19 Or *multitude*

Footnote from Ezekiel 30:3 ([Back](#))

[\[1\]](#) **30:3** Hebrew lacks *doom for*

Footnote from Ezekiel 30:4 ([Back](#))

[\[2\]](#) 30:4 Or *multitude*; also verse 10

Footnote from Ezekiel 30:5 ([Back](#))
[\[3\]](#) **30:5** With Septuagint; Hebrew *Cub*

Footnote from Ezekiel 30:5 ([Back](#))

[\[4\]](#) **30:5** Hebrew *and the sons of the land of the covenant*

Footnote from Ezekiel 30:9 ([Back](#))

[\[5\]](#) **30:9** Hebrew *the day of Egypt*

[\[6\]](#) 30:15 Or *wealth*

Footnote from Ezekiel 30:16 ([Back](#))

[\[7\]](#) 30:16 Or *distress*

Footnote from Ezekiel 30:17 ([Back](#))

[\[8\]](#) 30:17 Or *the cities*; Hebrew *they*

Footnote from Ezekiel 31:3 ([Back](#))

[1] 31:3 Or *its top went through the thick boughs*; also verses 10, 14

Footnote from Ezekiel 31:10 ([Back](#))

[\[2\]](#) **31:10** Syriac, Vulgate; Hebrew *you*

Footnote from Ezekiel 31:14 ([Back](#))

[\[3\]](#) 31:14 Or *of Adam*

Footnote from Ezekiel 31:15 ([Back](#))

[\[4\]](#) 31:15 Hebrew *it*

Footnote from Ezekiel 32:5 ([Back](#))

[\[1\]](#) **32:5** Hebrew *your height*

Footnote from Ezekiel 32:12 ([Back](#))

[\[2\]](#) **32:12** Or *wealth*

Footnote from Ezekiel 32:17 ([Back](#))

[3] **32:17** Hebrew lacks *in the twelfth month*

Footnote from Ezekiel 32:20 ([Back](#))

[\[4\]](#) 32:20 Hebrew *She*

Footnote from Ezekiel 33:12 ([Back](#))

[\[1\]](#) 33:12 Hebrew *by it*

Footnote from Ezekiel 33:32 ([Back](#))

[\[2\]](#) **33:32** Hebrew *like the singing of lustful songs with a beautiful voice and one who plays*

Footnote from Ezekiel 34:16 ([Back](#))

[\[1\]](#) **34:16** Septuagint, Syriac, Vulgate *I will watch over*

Footnote from Ezekiel 34:22 ([Back](#))

[\[2\]](#) 34:22 Or *save*

Footnote from Ezekiel 36:27 ([Back](#))

[\[1\]](#) 36:27 Or *my just decrees*

Footnote from Ezekiel 36:38 ([Back](#))

[2] 36:38 Hebrew *flock of holy things*

Footnote from Ezekiel 37:1 ([Back](#))

[\[1\]](#) **37:1** Or *plain*; also verse 2

Footnote from Ezekiel 37:5 ([Back](#))

[2] 37:5 Or *spirit*; also verses 6, 9, 10

Footnote from Ezekiel 37:7 ([Back](#))

[\[3\]](#) **37:7** Or *an earthquake* (compare 3:12, 13)

Footnote from Ezekiel 37:16 ([Back](#))

[\[4\]](#) **37:16** Or *one piece of wood*; also verses 17, 19, 20

Footnote from Ezekiel 37:19 ([Back](#))

[\[5\]](#) **37:19** Hebrew *And I will place them on it, the stick of Judah*

Footnote from Ezekiel 37:23 ([Back](#))

[\[6\]](#) **37:23** Many Hebrew manuscripts; other Hebrew manuscripts *dwellings*

Footnote from Ezekiel 37:26 ([Back](#))

[\[7\]](#) **37:26** Hebrew lacks *in their land*

Footnote from Ezekiel 38:2 ([Back](#))

[\[1\]](#) 38:2 Or *Magog, the prince of Rosh, Meshech*

Footnote from Ezekiel 38:3 ([Back](#))

[2] **38:3** Or *Gog, prince of Rosh, Meshech*

Footnote from Ezekiel 38:13 ([Back](#))

[\[3\]](#) **38:13** Hebrew *young lions*

Footnote from Ezekiel 38:21 ([Back](#))

[\[4\]](#) 38:21 Hebrew *against him*

Footnote from Ezekiel 39:1 ([Back](#))

[1] 39:1 Or *Gog, prince of Rosh, Meshech*

Footnote from Ezekiel 39:9 ([Back](#))

[\[2\]](#) **39:9** Or *javelins*

Footnote from Ezekiel 39:11 ([Back](#))

[\[3\]](#) 39:11 *Hamon-gog* means *the multitude of Gog*

Footnote from Ezekiel 39:14 ([Back](#))

[\[4\]](#) **39:14** Or *Until*

Footnote from Ezekiel 39:16 ([Back](#))

[\[5\]](#) 39:16 *Hamonah* means *multitude*

Footnote from Ezekiel 40:1 ([Back](#))

[\[1\]](#) 40:1 Hebrew *brought me there*

Footnote from Ezekiel 40:5 ([Back](#))

[\[2\]](#) **40:5**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0:6 ([Back](#))

[\[3\]](#) **40:6** Hebrew *deep, and one threshold, one reed deep*

Footnote from Ezekiel 40:14 ([Back](#))

[\[4\]](#) **40:14** Text uncertain; Hebrew *And he made the jambs sixty cubits, and to the jamb of the court was the gateway all around*

Footnote from Ezekiel 40:19 ([Back](#))

[\[5\]](#) **40:19** Hebrew *distance from before the low gate before the inner court to the outside*

Footnote from Ezekiel 40:19 ([Back](#))

[\[6\]](#) **40:19** Or *cubits*. *So far the eastern gate; now to the northern gate.*

Footnote from Ezekiel 40:36 ([Back](#))

[\[7\]](#) **40:36** One manuscript (compare verses 29 and 33); most manuscripts lack *were of the same size as the others*

Footnote from Ezekiel 40:37 ([Back](#))

[\[8\]](#) **40:37** Septuagint, Vulgate (compare verses 26, 31, 34); Hebrew *jamb*s

Footnote from Ezekiel 40:38 ([Back](#))

[\[9\]](#) **40:38** Hebrew *at the jambs, the gates*

Footnote from Ezekiel 40:43 ([Back](#))

[\[10\]](#) 40:43 Or *shelves*

Footnote from Ezekiel 40:44 ([Back](#))

[\[11\]](#) **40:44** Septuagint; Hebrew *were chambers for singers*

Footnote from Ezekiel 40:44 ([Back](#))

[\[12\]](#) **40:44** Hebrew lacks *one*

Footnote from Ezekiel 40:44 ([Back](#))

[\[13\]](#) 40:44 Septuagint; Hebrew *east*

Footnote from Ezekiel 40:46 ([Back](#))

[\[14\]](#) **40:46** Hebrew lacks *alone*

Footnote from Ezekiel 40:48 ([Back](#))

[\[15\]](#) **40:48** Septuagint; Hebrew lacks *was fourteen cubits, and the sidewalls of the gate*

Footnote from Ezekiel 40:49 ([Back](#))
[\[16\]](#) **40:49** Septuagint; Hebrew *eleven*

Footnote from Ezekiel 40:49 ([Back](#))

[\[17\]](#) **40:49** Septuagint; Hebrew *and by steps that would go up to it*

Footnote from Ezekiel 41:1 ([Back](#))

[\[1\]](#) **41: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1:1 ([Back](#))

[\[2\]](#) **41:1** Compare Septuagint; Hebrew *tent*

Footnote from Ezekiel 41:2 ([Back](#))

[\[3\]](#) 41:2 Hebrew *its length*

Footnote from Ezekiel 41:3 ([Back](#))

[\[4\]](#) **41:3** Septuagint; Hebrew *and the breadth*

Footnote from Ezekiel 41:6 ([Back](#))

[\[5\]](#) **41:6** Septuagint, compare 1 Kings 6:6;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41:15 ([Back](#))

[\[6\]](#) **41:15** The meaning of the Hebrew term is unknown; also verse 16

Footnote from Ezekiel 41:17 ([Back](#))

[\[7\]](#) **41:17** Hebrew *were measurements*

Footnote from Ezekiel 41:22 ([Back](#))

[\[8\]](#) **41:22** Septuagint; Hebrew lacks *two cubits broad*

Footnote from Ezekiel 41:22 ([Back](#))

[\[9\]](#) **41:22** Septuagint; Hebrew *length*

Footnote from Ezekiel 41:25 ([Back](#))

[\[10\]](#) **41:25**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known; also verse 26

Footnote from Ezekiel 42:2 ([Back](#))

[\[1\]](#) **42: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2:3 ([Back](#))

[\[2\]](#) **42:3**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known; also verse 5

Footnote from Ezekiel 42:4 ([Back](#))

[\[3\]](#) **42:4** Septuagint, Syriac; Hebrew *and a way of one cubit*

Footnote from Ezekiel 42:8 ([Back](#))

[\[4\]](#) 42:8 Or *temple*

Footnote from Ezekiel 42:10 ([Back](#))

[\[5\]](#) **42:10** Septuagint; Hebrew *east*

Footnote from Ezekiel 42:11 ([Back](#))

[\[6\]](#) **42:11** Hebrew *and all their exits*

Footnote from Ezekiel 42:12 ([Back](#))

[7] 42:12 The meaning of the Hebrew verse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43:3 ([Back](#))

[\[1\]](#) **43:3** Some Hebrew manuscripts and Vulgate; most Hebrew manuscripts *when I*

Footnote from Ezekiel 43:7 ([Back](#))

[\[2\]](#) **43:7** Or *the monuments*; also verse 9

Footnote from Ezekiel 43:7 ([Back](#))

[\[3\]](#) 43:7 Or *at their deaths*

Footnote from Ezekiel 43:13 ([Back](#))

[\[4\]](#) **43:1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a *handbreadth* was about 3 inches or 7.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3:13 ([Back](#))

[\[5\]](#) **43:13** Or *its gutter shall be one cubit deep*

Footnote from Ezekiel 43:13 ([Back](#))

[6] 43:13 A *span* was about 9 inches or 22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3:26 ([Back](#))

[\[7\]](#) **43:26** Hebrew *fill its hand*

Footnote from Ezekiel 44:6 ([Back](#))

[\[1\]](#) **44:6** Septuagint; Hebrew lacks *house*

Footnote from Ezekiel 44:7 ([Back](#))

[\[2\]](#) **44:7** Septuagint, Syriac, Vulgate; Hebrew *They*

Footnote from Ezekiel 44:10 ([Back](#))

[\[3\]](#) 44:10 Or *iniquity*; also verse 12

Footnote from Ezekiel 44:26 ([Back](#))

[\[4\]](#) **44:26** That is, a priest

Footnote from Ezekiel 45:1 ([Back](#))

[\[1\]](#) **45: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5:1 ([Back](#))

[\[2\]](#) **45:1** Septuagint; Hebrew *ten*

Footnote from Ezekiel 45:5 ([Back](#))

[\[3\]](#) **45:5** Septuagint; Hebrew *as their possession, twenty chambers*

Footnote from Ezekiel 45:10 ([Back](#))

[\[4\]](#) **45:10** An *ephah* was about 3/5 of a bushel or 22 liters; a *bath* was about 6 gallons or 22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5:11 ([Back](#))

[\[5\]](#) **45:11** A *home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5:12 ([Back](#))

[\[6\]](#) **45:1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a *gerah* was about 1/50 ounce or 0.6 gram

Footnote from Ezekiel 45:12 ([Back](#))

[\[7\]](#) **45:12** A *mina* was about 1 1/4 pounds or 0.6 kilogram

Footnote from Ezekiel 45:14 ([Back](#))

[8] 45:14 A *co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5:14 ([Back](#))

[\[9\]](#) **45:14** See Vulgate; Hebrew *(ten baths are a homer, for ten baths are a homer)*

Footnote from Ezekiel 45:24 ([Back](#))

[\[10\]](#) 45:24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6:5 ([Back](#))

[\[1\]](#) **46:5**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6:5 ([Back](#))

[\[2\]](#) **46:5** A *hin* was about 4 quarts or 3.5 liters

Footnote from Ezekiel 46:22 ([Back](#))

[\[3\]](#) **46:22** Septuagint, Syriac, Vulgate;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46:22 ([Back](#))

[\[4\]](#) 46:2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7:3 ([Back](#))

[\[1\]](#) **47:3**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7:8 ([Back](#))

[\[2\]](#) **47:8** That is, the Dead Sea

Footnote from Ezekiel 47:8 ([Back](#))

[\[3\]](#) **47:8** Hebrew *will be healed*; also verses 9, 11

Footnote from Ezekiel 47:9 ([Back](#))

[\[4\]](#) **47:9** Septuagint, Syriac, Vulgate, Targum; Hebrew *the two rivers go*

Footnote from Ezekiel 47:9 ([Back](#))

[\[5\]](#) 47:9 Hebrew lacks *the waters of the sea*

Footnote from Ezekiel 47:10 ([Back](#))

[\[6\]](#) **47:10** That is, the Mediterranean Sea; also verses 15, 19, 20

Footnote from Ezekiel 47:13 ([Back](#))

[\[7\]](#) **47:13** Probable reading; Hebrew *The valley of the boundary*

Footnote from Ezekiel 47:15 ([Back](#))

[\[8\]](#) **47:15** Septuagint; Hebrew *the entrance of Zedad, Hamath*

[\[9\]](#) **47:17**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Ezekiel 47:17 ([Back](#))

[\[10\]](#) **47:17** Probable reading; Hebrew *and as for the north side*

Footnote from Ezekiel 47:18 ([Back](#))

[\[11\]](#) **47:18** Compare Syriac; Hebrew *to the eastern sea you shall measure*

Footnote from Ezekiel 47:19 ([Back](#))

[\[12\]](#) **47:19** Hebrew lacks *of Egypt*

Footnote from Ezekiel 48:1 ([Back](#))

[\[1\]](#) **48:1** Probable reading; Hebrew *and they shall be his*

Footnote from Ezekiel 48:1 ([Back](#))

[\[2\]](#) **48:1** Septuagint (compare verses 2–8); Hebrew *the east side the west*

Footnote from Ezekiel 48:8 ([Back](#))

[\[3\]](#) **48:8**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Ezekiel 48:9 ([Back](#))

[\[4\]](#) **48:9** Compare 45:1; Hebrew *ten*

Footnote from Ezekiel 48:13 ([Back](#))

[\[5\]](#) **48:13** Septuagint; Hebrew *10,000*

Footnote from Ezekiel 48:28 ([Back](#))

[\[6\]](#) **48:28** Hebrew lacks *of Egypt*

Footnote from Ezekiel 48:28 ([Back](#))

[7] 48:28 That is, the Mediterranean Sea

Footnote from Ezekiel 48:34 ([Back](#))

[\[8\]](#) **48:34** One Hebrew manuscript, Syriac (compare Septuagint); most Hebrew manuscripts *their gates three*

다니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Daniel 1](#) • [Daniel 2](#) • [Daniel 3](#) • [Daniel 4](#) • [Daniel 5](#) • [Daniel 6](#) • [Daniel 7](#) • [Daniel 8](#) • [Daniel 9](#)
• [Daniel 10](#) • [Daniel 11](#) • [Daniel 12](#)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궁의 젊은이들

DANIEL 1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2**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a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a 히, '시날')

3그 때에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4**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b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b 또는 '갈대아') **5**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삼 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6**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7**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8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9**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10**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11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12**"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3**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15**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16**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17**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18왕이 정하여 놓은 삼 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19**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20**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 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열 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21**다니엘은 고레스 왕 일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느부갓네살의 꿈

DANIEL 2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²그래서 왕은 곧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a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a 또는 '갈대아 사람들') ³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⁴o a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b"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a 또는 '갈대아 사람들' 여기에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음(2:4하반-7:28))

⁵o 그러자 왕이 a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c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 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a 또는 '갈대아 사람들' c 또는 '내가 명령한다') ⁶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 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⁷o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⁸o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d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d 또는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을') ⁹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¹⁰o a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a 또는 '갈대아 사람들') ¹¹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¹²o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¹³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일러 주시다

¹⁴o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¹⁵물어 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¹⁶o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e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e 또는 '기한을 늦추어 주십시오') ¹⁷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¹⁸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공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¹⁹바로 그 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²⁰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21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22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23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다

24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26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곧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28** 비밀을 알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리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29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1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32**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33**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34**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

람에 날려 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36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7**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38**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 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가십니다. **39**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낫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40**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 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못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41**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42**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43** 임금님께서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45**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낫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이다

46 느부갓네살 왕이 옆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47**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48**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49**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금 신상 숭배

DANIEL 3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예순 자, 너비가 여섯 자였다. **2**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4** 그 때에 전령이 큰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5**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옆드려서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옆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⁷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다니엘의 세 친구

⁸ 그 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애굽인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a 또는 '갈대아 사람들') ⁹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¹⁰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였고, ¹¹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¹² 임금님께서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¹³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¹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¹⁵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¹⁶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¹⁷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¹⁸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세 친구가 사형선고를 받다

¹⁹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²⁰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²¹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²²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²³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²⁴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²⁵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세 친구가 풀려나다

26○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27**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갈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28○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29○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30○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DANIEL 4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2**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3크도다, 그 이적이어!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4○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5**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리 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6**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 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7**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a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a 또는 '갈대아 사람들') **8**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b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꾸은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b 또는 '하나님')

9○"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네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꾸은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10○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리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11**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12**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

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13○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리 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14**큰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앞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 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15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 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16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c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c 또는 '일곱 해')

17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18○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거룩한 b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b 또는 '하나님')

다니엘의 꿈 해몽

19○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한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 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²¹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²²○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²³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줄과 낫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 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c일곱 때를 지내도록 하여라.!(c 또는 '일곱 해')

²⁴○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²⁵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c일곱 때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c 또는 '일곱 해') ²⁶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d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d 아람어 본문, '하늘이') ²⁷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²⁸○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²⁹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³⁰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³¹○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³²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c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c 또는 '일곱 해')

³³○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³⁴○"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³⁵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36○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
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
다. **37**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DANIEL 5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천 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과 더불어 술을 마
셨다. **2**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a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 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 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
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a 또는 '조상' 또는 '선왕') **3**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 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
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4**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들을 찬양하였다.

5○그런데 바로 그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
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6**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치며 떨
었다. **7**왕은 큰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b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
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
을 나에게 알려 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
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b 또는 '갈대아 사람들') **8**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 주는 사람도 없었다. **9**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10○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향 소리를 듣고서, c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c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c 또는 '왕비') **11**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d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
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b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b
또는 '갈대아 사람들' d 또는 '하나님') **12**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

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해독하다

13○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오? **14**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15**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16**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17○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8○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20**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21**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22○느부갓네살의 e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e 또는 '후계자' 또는 '자손') **23**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 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24○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25**기록된 글자는 바로 'f메네 메네 g데겔'과 h'바르신'입니다.(f'계산이 되다' 또는 '(화폐 단위인)미나' g'저울에 달림' 또는 '(화폐 단위인)세겔' h 페레스의 복수. '페르시아' 또는 '반 미나' 또는 '반 세겔') **26**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27**'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28**'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돌로 i나뉘어서 메대와 k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i 아람어, '페레스' i 아람어, '페리샷' k 아람어, '파라스'. '나뉘다'라는 말과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아람어에서는 발음이 비슷함)

29○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³⁰○바로 그 날 밤에 1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1 또는 '갈대아') ³¹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예순두 살이었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

DANIEL 6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백스무 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²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³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⁴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⁵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⁶○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⁷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삼십 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집어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⁸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⁹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¹⁰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¹¹○그 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¹²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¹³○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 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¹⁴○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¹⁵그 때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¹⁶○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¹⁷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러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¹⁸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9○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 굴로 갔다. **20**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21○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22**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3○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24**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혈통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져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25○그 때에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26**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27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28○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네 마리 짐승 환상

DANIEL 7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리 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2**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다. **3**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4**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5**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6○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7○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 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8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영원하신 분

9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웃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 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10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 나왔다.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펼쳐 있었다.

11○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12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13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14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 해석

15○"나 다니엘은 마음 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16**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 주었다. **17**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18**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19○그 때에 나는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놋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20**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세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21○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22**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 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23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24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25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a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a 또는 '일 년과 이 년과 반 년')

26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28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DANIEL 8 a 뿔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
째로 환상을 보았다.(a 여기에서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됨) **2**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 성 을래 강 가에 서 있었다. **3**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
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4**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돌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5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
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6**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7**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
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
해 낼 사람이 없었다.

8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b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돌아났다.(b 또는 '하늘의 네 바람') **9** 그 가운데의 하
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
게 뻗어 나갔다.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
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11**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
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 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12**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
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13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
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
힐까?" **14** 다른 천사가 c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이천삼백 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
이다." (c 칠십인역과 테오도션역과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에는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풀이하다

15○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16**그 때에 내가 올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 주어라." **17**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18**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19**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 주겠다. 이 환상은 끝 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20○네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21**그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22**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23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뻘뻘스런 임금,
흥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24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25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26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27○그 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의 기도

DANIEL 9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a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a 또는 '갈대아') 2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b말씀, 곧 예루살렘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b 렘 25:11-12; 29:10 참조) 3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4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o"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5o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6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7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낮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8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낮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9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10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2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13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14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15o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6주님,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17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18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19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을 설명하다

20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21**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는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22** 그가 나에게 c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23** 네가 간구하자 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 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24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일흔 d이레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e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d 또는 '주간' e 또는 '가장 거룩한 것' 또는 '가장 거룩한 분') **25**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f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g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d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두 d이레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d 또는 '주간' f 또는 '명령' g 또는 '메시아') **26** 예수두 d이레가 지난 다음에, g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d 또는 '주간' g 또는 '메시아') **27**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못 백성과 더불어, 한 d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d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d 또는 '주간')

티그리스 강변에서의 환상

DANIEL 10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 삼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2 그 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이레 동안 고행하였다. **3** 세 이레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4 a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독에 와 있었다.(a 양력 삼월 중순 이후) **5** 그 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6** 그의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 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쇠처럼 뻥뻥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 와도 같았다.

7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8**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 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9**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10○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11**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네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12○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3**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14**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는 것이다."

15○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병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16**그런데 갑자기 b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 버렸습니다.(b 대다수의 마소라 본문을 따름. 하나의 마소라 본문과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17**이제 힘이 다 빠져 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18○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19**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21**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 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DANIEL 11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일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집트와 시리아

2○"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3○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4**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뿔어져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5○남쪽 a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a 이집트의 왕) **6**몇 년 뒤에 b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c남쪽 왕은 자기 딸을 d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e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f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b 이집트 왕과 시리아 왕 c 이집트 d 시리아 e 또는 '그와 그의 권세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f 또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불가타와 시리아어역)) **7**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⁸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 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 간 다음에, ⁹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¹⁰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¹¹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 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¹²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¹³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¹⁴그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¹⁵그 때에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 낼 힘이 없을 것이다. ¹⁶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런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¹⁷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¹⁸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 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¹⁹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²⁰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시리아의 악한 왕

²¹"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²²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²³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²⁴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²⁵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²⁶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²⁷그 때에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하므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

나눔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28**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29○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 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30**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31**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 곳에 세울 것이다. **32**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33**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34**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35**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36○북쪽 왕은 자기 좋을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37**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38**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39**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40○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41**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42**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43**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44**그러나 그 때에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45**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 끝 날

DANIEL 12 "그 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 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2**그리고 땅 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³지혜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⁴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갔다 할 것이다."

⁵그 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⁶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⁷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⁸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⁹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¹⁰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¹¹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지나갈 것이다. ¹²천삼백삼십오 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¹³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 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Daniel 1:3 ([Back](#))

[\[1\]](#) **1:3** Hebrew *of the seed of the kingdom*

Footnote from Daniel 2:4 ([Back](#))

[\[1\]](#) **2:4** The text from this point to the end of chapter 7 is in Aramaic

Footnote from Daniel 2:15 ([Back](#))

[\[2\]](#) **2:15** Aramaic *answered and said*; also verse 26

Footnote from Daniel 2:43 ([Back](#))

[\[3\]](#) **2:43** Aramaic *by the seed of men*

Footnote from Daniel 3:1 ([Back](#))

[\[1\]](#) **3:1**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Daniel 3:9 ([Back](#))

[\[2\]](#) **3:9** Aramaic *answered and said*; also verses 24, 26

Footnote from Daniel 3:15 ([Back](#))

[\[3\]](#) **3:15** Aramaic lacks *well and good*

Footnote from Daniel 3:17 ([Back](#))

[\[4\]](#) **3:17** Or *If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he will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out of your hand, O king.*

Footnote from Daniel 3:21 ([Back](#))

[\[5\]](#) **3:21** The meaning of the Aramaic words rendered *cloaks* and *tunics* is uncertain; also verse 27

Footnote from Daniel 3:28 ([Back](#))

[\[6\]](#) 3:28 Aramaic *and changed*

Footnote from Daniel 4:1 ([Back](#))

[\[1\]](#) **4:1** Ch 3:31 in Aramaic

Footnote from Daniel 4:4 ([Back](#))

[\[2\]](#) 4:4 Ch 4:1 in Aramaic

Footnote from Daniel 4:8 ([Back](#))

[\[3\]](#) **4:8** Or *Spirit of the holy God*; also verses 9, 18

Footnote from Daniel 5:2 ([Back](#))

[\[1\]](#) **5:2** Or *predecessor*; also verses 11, 13, 18

Footnote from Daniel 5:7 ([Back](#))

[\[2\]](#) **5:7** Aramaic *answered and said*; also verse 10

Footnote from Daniel 5:10 ([Back](#))

[\[3\]](#) **5:10** Or *queen mother*;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Daniel 5:11 ([Back](#))

[\[4\]](#) 5:11 Or *Spirit of the holy God*

Footnote from Daniel 5:14 ([Back](#))

[\[5\]](#) **5:14** Or *Spirit of God*

Footnote from Daniel 5:22 ([Back](#))

[\[6\]](#) 5:22 Or *successor*

Footnote from Daniel 5:26 ([Back](#))

[\[7\]](#) **5:26** *MENE* sounds like the Aramaic for *numbered*

Footnote from Daniel 5:27 ([Back](#))

[\[8\]](#) **5:27** *TEKEL* sounds like the Aramaic for *weighed*

Footnote from Daniel 5:28 ([Back](#))

[\[9\]](#) **5:28** *PERES* (the singular of *Parsin*) sounds like the Aramaic for *divided* and for *Persia*

Footnote from Daniel 5:31 ([Back](#))

[\[10\]](#) **5:31** Ch 6:1 in Aramaic

Footnote from Daniel 6:6 ([Back](#))

[\[1\]](#) **6:6** Or *came thronging*; also verses 11, 15

Footnote from Daniel 6:16 ([Back](#))

[\[2\]](#) **6:16** Aramaic *answered and said*; also verse 20

Footnote from Daniel 7:2 ([Back](#))

[\[1\]](#) 7:2 Aramaic *answered and said*

Footnote from Daniel 7:15 ([Back](#))

[\[2\]](#) 7:15 Aramaic *within its sheath*

Footnote from Daniel 7:27 ([Back](#))

[3] **7:27** Or *their kingdom shall be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them*

Footnote from Daniel 8:10 ([Back](#))

[\[1\]](#) **8:10** Or *host, that is, some*

Footnote from Daniel 8:12 ([Back](#))

[\[2\]](#) 8:12 Or *in an act of rebellion*

Footnote from Daniel 8:14 ([Back](#))

[\[3\]](#) **8:14** Hebrew; Septuagint, Theodotion, Vulgate *to him*

Footnote from Daniel 8:21 ([Back](#))

[\[4\]](#) **8:21** Or *the shaggy goat*

Footnote from Daniel 8:22 ([Back](#))

[\[5\]](#) **8:22** Theodotion, Septuagint, Vulgate; Hebrew *the*

Footnote from Daniel 9:12 ([Back](#))

[\[1\]](#) 9:12 Or *our judges who judged us*

Footnote from Daniel 9:17 ([Back](#))

[\[2\]](#) **9:17** Hebrew *for the Lord's sake*

Footnote from Daniel 9:24 ([Back](#))

[\[3\]](#) **9:24** Or *sevens*; also twice in verse 25 and once in verse 26

Footnote from Daniel 9:24 ([Back](#))

[\[4\]](#) 9:24 Or *thing*, or *one*

Footnote from Daniel 9:25 ([Back](#))

[\[5\]](#) **9:25** Or *there shall be seven weeks and sixty-two weeks. It shall be built again*

Footnote from Daniel 9:26 ([Back](#))

[\[6\]](#) **9:26** Or *His*

Footnote from Daniel 9:27 ([Back](#))

[\[7\]](#) **9:27** Or *seve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Daniel 10:1 ([Back](#))

[\[1\]](#) **10:1** Or *and it was about a great conflict*

Footnote from Daniel 10:8 ([Back](#))

[\[2\]](#) **10:8** Hebrew *My splendor was changed to ruin*

Footnote from Daniel 11:6 ([Back](#))

[\[1\]](#) 11:6 Or *obtained*

Footnote from Daniel 11:13 ([Back](#))

[\[2\]](#) **11:13** Hebrew *at the end of the times*

Footnote from Daniel 11:17 ([Back](#))

[\[3\]](#) 11:17 Hebrew *her*, or *it*

Footnote from Daniel 11:18 ([Back](#))

[\[4\]](#) **11:18**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Daniel 11:24 ([Back](#))

[\[5\]](#) **11:24** Or *among the richest men*

Footnote from Daniel 11:39 ([Back](#))

[\[6\]](#) **11:39** Or *land as payment*

Footnote from Daniel 11:40 ([Back](#))

[\[7\]](#) **11:40** Hebrew *thrust at*

Footnote from Daniel 12:3 ([Back](#))

[\[1\]](#) **12:3** Hebrew *the expanse*; compare Genesis 1:6–8

Footnote from Daniel 12:6 ([Back](#))

[\[2\]](#) 12:6 Or *who was upstream*; also verse 7

호 세 아

[\(return to table of contents\)](#)

[Hosea 1](#) • [Hosea 2](#) • [Hosea 3](#) • [Hosea 4](#) • [Hosea 5](#) • [Hosea 6](#) • [Hosea 7](#) • [Hosea 8](#) • [Hosea 9](#)
• [Hosea 10](#) • [Hosea 11](#) • [Hosea 12](#) • [Hosea 13](#) • [Hosea 14](#)

호세아서

HOSEA 1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호세아의 아내와 아이들

2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3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4**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a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a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5 또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6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 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b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b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7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8 로루하마가 젖을 땔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9**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c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c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10"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11그 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HOSEA 2 이제 너희는 형제를 a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b루하마라고 하여라." (a '내 백성이다' b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

성실하지 않은 고멜,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2"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3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4"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5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낸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었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6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 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8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9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10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1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 내겠다.

12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13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

14"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꺾어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 주겠다.

15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 주고,
c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c '고통')

16그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d'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d 히, '나의 바알')

17그 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18 그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19 그 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금휼을 보여 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20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21 그 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23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e 히, '암미')

호세아와 성실하지 않은 여인

HOSEA 3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²그래서 나는 열다섯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³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 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⁴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⁵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규탄하시다

HOSEA 4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²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³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⁴"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a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a 또는 '제사장아, 나는 네게 불만이 있다' 또는 '제사장아,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⁵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6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7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8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9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10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11"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12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13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14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15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b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b '악한 자의 집'.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비꼬아 하는 말)

16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17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 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 두어라.

18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19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HOSEA 5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 산 위에 펼쳐 놓은 그물이다.

2a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a 또는 '너희는 싯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

3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호세아가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4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5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b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b 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 심지어
에브라임도')

6 양 떼와 소 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7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c 새달 절기가

발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c 또는 '초하루 축제')

8[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벳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네 뒤를 쫓는다.

9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10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11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12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줌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13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앗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d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d 히, '아렙 왕' 또는 '싸우는 왕')

14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 주지 못할 것이다.

15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HOSEA 6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2이들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할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3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4"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5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6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7 그런데 이 백성은 **a**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a** 또는 '아담에서' 또는 '사람처럼')

8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9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11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HOSEA 7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2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 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3 [왕궁 안의 반란]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4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 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5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꿀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6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 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7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 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열강들

8"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9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10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11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쫓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 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앓시리아에게 달려간다.

12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13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 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14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a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a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a 이방인의 풍속)

15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렸다.

16b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 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b 또는 '가장 높으신 분께 돌아오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다

HOSEA 8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 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2¹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3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4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5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닫게 되겠느냐?

6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7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8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 없이 되었다.

9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앗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 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10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윌 것이다.

11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12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13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14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형벌을 선언하다

HOSEA 9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2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3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앗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4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5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6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메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7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는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8a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b**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덧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져,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a** 또는 '그 예언자는 내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또는 '그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b 또는 '예언자는 가는 길목마다 덧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져, 예언자는 원한
을 품었다')

9c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 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c** 샏 19-21장; 삼상 10:26-11:4를 볼 것)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

10"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 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11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12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13"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14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15[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심판]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16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짝혀서
뿌리가 말라 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의 경고

17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HOSEA 10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2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3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는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4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 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발이랑에 돌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5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a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a 히, '크마림'. 주님의 제사장은 '코헨, 코하님')

6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앗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b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 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b 히, '야렙 왕')

7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8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때에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 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 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

9"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10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11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씨레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12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13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14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 날에
자식들이 박살 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 나지 않았느냐?

15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다

HOSEA 11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2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3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4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5 **a**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a** 또는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이 이집
트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앗시리아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겠느냐?')

6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b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b** 또는 '그들의 제사장들이 죽어 없어지고')

7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c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c** 또는 '가장 높은 자')

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10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 치실 때에,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11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앗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규탄을 받다

12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HOSEA 12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앗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2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3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a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a 히,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4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5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6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의 사회 경제적인 범죄

7"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8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밀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9그러나 나는,
b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b** 또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로부터')

10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11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12우리 조상 야곱은
c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c 히, '아람')

13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

14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

HOSEA 13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어졌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2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재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이нде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3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쪽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4그러나 나는,
a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a** 또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로부터')

5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6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7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8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9b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b** 또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는데, 이제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10왕과 대신들을
세워 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살살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 달라고 하여라.

11내가 화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 버렸다.

12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13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14^c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c 또는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 주고 그들을 스올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냐?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15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 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16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 나고,
아이 밴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HOSEA 14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2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다시는 앓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삶을 약속하시다

4"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5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6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⁷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⁸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⁹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Hosea 1:6 ([Back](#))

[\[1\]](#) **1:6** Hebrew *Lo-ruhama*, which means *she has not received mercy*

Footnote from Hosea 1:9 ([Back](#))

[\[2\]](#) **1:9** Hebrew *Lo-ammi*, which means *not my people*

Footnote from Hosea 1:9 ([Back](#))

[\[3\]](#) **1:9** Hebrew *I am not yours*

Footnote from Hosea 1:10 ([Back](#))

[\[4\]](#) **1:10** Ch 2:1 in Hebrew

Footnote from Hosea 1:10 ([Back](#))

[\[5\]](#) **1:10** Or *Sons*

Footnote from Hosea 2:1 ([Back](#))

[\[1\]](#) **2:1** Ch 2:3 in Hebrew

Footnote from Hosea 2:1 ([Back](#))

[\[2\]](#) **2:1** Hebrew *ammi*, which means *my people*

Footnote from Hosea 2:1 ([Back](#))

[\[3\]](#) **2:1** Hebrew *ruhama*, which means *she has received mercy*

Footnote from Hosea 2:6 ([Back](#))

[\[4\]](#) 2:6 Hebrew *your*

Footnote from Hosea 2:15 ([Back](#))

[\[5\]](#) **2:15** *Achor* means *trouble*; compare Joshua 7:26

Footnote from Hosea 2:18 ([Back](#))

[\[6\]](#) 2:18 Hebrew *break*

Footnote from Hosea 2:22 ([Back](#))

[\[7\]](#) **2:22** *Jezreel* means *God will sow*

Footnote from Hosea 2:23 ([Back](#))

[\[8\]](#) **2:23** Hebrew *Lo-ruhama*

Footnote from Hosea 2:23 ([Back](#))

[\[9\]](#) 2:23 Hebrew *Lo-ammi*

Footnote from Hosea 3:2 ([Back](#))

[\[1\]](#) **3:2**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a *homer* was about 6 bushels or 220 liters; a *lethech* was about 3 bushels or 110 liters

Footnote from Hosea 4:4 ([Back](#))

[\[1\]](#) 4:4 Or *for your people are like those who contend with the priest*

Footnote from Hosea 4:8 ([Back](#))

[\[2\]](#) 4:8 Or *sin offering*

Footnote from Hosea 4:18 ([Back](#))

[\[3\]](#) 4:18 Hebrew *shields*

Footnote from Hosea 4:19 ([Back](#))

[\[4\]](#) 4:19 Hebrew *her*

Footnote from Hosea 5:5 ([Back](#))

[\[1\]](#) 5:5 Or *in his presence*

Footnote from Hosea 5:8 ([Back](#))

[\[2\]](#) **5:8** Or *after you*

Footnote from Hosea 5:11 ([Back](#))

[\[3\]](#) **5:11** Or *to follow human precepts*

Footnote from Hosea 5:13 ([Back](#))

[\[4\]](#) **5:13** Or *to King Jareb*

Footnote from Hosea 6:6 ([Back](#))

[\[1\]](#) 6:6 Septuagint *mercy*

Footnote from Hosea 7:10 ([Back](#))

[\[1\]](#) 7:10 Or *in his presence*

Footnote from Hosea 7:16 ([Back](#))

[\[2\]](#) 7:16 Or *to the Most High*

Footnote from Hosea 8:5 ([Back](#))

[\[1\]](#) **8:5** Hebrew *He has*

Footnote from Hosea 8:6 ([Back](#))

[\[2\]](#) **8:6** Or *shall go up in flames*

Footnote from Hosea 9:13 ([Back](#))

[\[1\]](#) **9:13** Or *like Tyre*

Footnote from Hosea 9:13 ([Back](#))

[\[2\]](#) **9:13** Hebrew *to him who slaughters*

Footnote from Hosea 10:2 ([Back](#))

[\[1\]](#) 10:2 Hebrew *He*

Footnote from Hosea 10:5 ([Back](#))

[\[2\]](#) **10:5** Or *calves*

Footnote from Hosea 10:5 ([Back](#))

[\[3\]](#) **10:5** Or *has gone into exile*

Footnote from Hosea 10:6 ([Back](#))

[\[4\]](#) **10:6** Or *to King Jareb*

Footnote from Hosea 10:6 ([Back](#))

[\[5\]](#) 10:6 Or *counsel*

Footnote from Hosea 10:9 ([Back](#))

[\[6\]](#) **10:9** Hebrew *the children of injustice*

Footnote from Hosea 11:4 ([Back](#))

[\[1\]](#) **11:4** Or *humaneness*; Hebrew *man*

Footnote from Hosea 11:5 ([Back](#))

[\[2\]](#) 11:5 Or *surely*

Footnote from Hosea 11:9 ([Back](#))

[\[3\]](#) 11:9 Or *into the city*

Footnote from Hosea 11:12 ([Back](#))

[\[4\]](#) **11:12** Ch 12:1 in Hebrew

Footnote from Hosea 12:4 ([Back](#))

[\[1\]](#) 12:4 Hebrew *him*

Footnote from Hosea 13:6 ([Back](#))

[\[1\]](#) **13:6** Hebrew *according to their pasture*

Footnote from Hosea 13:9 ([Back](#))

[\[2\]](#) **13:9** Or *I will destroy*

Footnote from Hosea 13:16 ([Back](#))

[\[3\]](#) **13:16** Ch 14:1 in Hebrew

Footnote from Hosea 14:2 ([Back](#))

[\[1\]](#) **14:2** Septuagint, Syriac *pay the fruit*

Footnote from Hosea 14:7 ([Back](#))

[\[2\]](#) 14:7 Hebrew *his*

Footnote from Hosea 14:8 ([Back](#))

[\[3\]](#) 14:8 Hebrew *him*

요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oel 1](#) • [Joel 2](#) • [Joel 3](#)

요엘서

JOEL 1 이것은 주님께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농사를 망친 백성의 통곡

2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3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4a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 버렸다. (a 여기에서 진술된 것이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메뚜기의 성장 과정 네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음)

5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6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7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8백성아, 울어라!

b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c처녀처럼,
굶은 베 옷을 걸치고 울어라. (b 또는 '남편' c 또는 '젊은 여인')

9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제물도 동나고
부어 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10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d땅이 통곡하는구나. (d 또는 '땅이 말라 버렸다')

11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12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13제사장들아,
굶은 베 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굶은 베 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 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14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15 슬프다, 그 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e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e 히, '샤다이')

16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17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18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 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 떼도 괴로워한다.

19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별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 버렸습니다.

20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

JOEL 2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2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3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4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5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태우는 소리와의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6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7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8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9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10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11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 낼까?

회개를 촉구하다

12"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웃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14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16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17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하시다

18 그 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19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0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 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부대는 a사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b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a 히, '동쪽 바다' b 히, '서쪽 바다')

21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22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23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c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흠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 주셨다. (c 또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셨다')

24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5"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 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26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7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28"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9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30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31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붉어질 것이다.
꿈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32○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 남
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JOEL 3 "때가 되어 그 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2그 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모아,
그들을 a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 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a '주님께서 심판하시다')

3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4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

5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b신전으로 가져 갔으며, (b 또는 '궁전')

6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 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7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 주겠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낮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11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12"민족들아, 출발하여라.

a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a '주님께서 심판하시다')

13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낮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14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15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다

16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17"이스라엘아, 그 때에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나와,
c싯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c 또는 '아카시아 골짜기')

19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20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21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 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 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Footnotes

Footnote from Joel 1:8 ([Back](#))

[\[1\]](#) **1:8** Or *young woman*

Footnote from Joel 1:11 ([Back](#))

[\[2\]](#) **1:11** The Hebrew words for *dry up* and *be ashamed* in verses 10–12, 17 sound alike

Footnote from Joel 1:15 ([Back](#))

[\[3\]](#) **1:15** *Destruction* sounds like the Hebrew for *Almighty*

Footnote from Joel 1:17 ([Back](#))

[\[4\]](#) **1:17** The meaning of the Hebrew line is uncertain

Footnote from Joel 1:18 ([Back](#))

[\[5\]](#) **1:18** Or *are made desolate*

Footnote from Joel 2:17 ([Back](#))

[\[1\]](#) **2:17** Or *reproach, that the nations should rule over them*

Footnote from Joel 2:20 ([Back](#))

[\[2\]](#) 2:20 Hebrew *face*

Footnote from Joel 2:20 ([Back](#))

[\[3\]](#) 2:20 Hebrew *his end*

Footnote from Joel 2:25 ([Back](#))

[\[4\]](#) **2:25** Or *pay back*

Footnote from Joel 2:28 ([Back](#))

[\[5\]](#) **2:28** Ch 3:1 in Hebrew

Footnote from Joel 3:1 ([Back](#))

[\[1\]](#) **3:1** Ch 4:1 in Hebrew

Footnote from Joel 3:5 ([Back](#))

[\[2\]](#) 3:5 Or *palaces*

Footnote from Joel 3:9 ([Back](#))

[\[3\]](#) **3:9** Or *Consecrate a war*

Footnote from Joel 3:21 ([Back](#))

[\[4\]](#) **3:21** Or *I will acquit their bloodguilt that I have not acquitted*

아모스

[\(return to table of contents\)](#)

[Amos 1](#) • [Amos 2](#) • [Amos 3](#) • [Amos 4](#) • [Amos 5](#) • [Amos 6](#) • [Amos 7](#) • [Amos 8](#) • [Amos 9](#)

아모스서

AMOS 1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웃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이 년 전이다. **2**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내리신 심판

3"**a**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a** 예언 서두에 나오는 이 말은 예언을 전달하는 전령의 말이기도 하고, 예언을 전하라고 시키는 '주' 자신의 말이기도 함. 전령이 말할 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였음)

4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벤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5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b아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c벧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b** '악' **c** '에덴의 집')

6"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7그러므로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8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9"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10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11"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d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d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는 한 형제)

12그러므로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13"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 뱅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4그러므로 내가
랍바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 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의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의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15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AMOS 2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웁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3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4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흘러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6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켄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7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처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8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퍼 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9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 버렸다.

10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11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a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a 주님께 몸바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민 6:1-8))

12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13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14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15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16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선택과 처벌

AMOS 3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2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예언자의 소명

3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4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 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5 덧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덧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덧이 튀어오르겠느냐?

6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7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8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마리아에 내리신 심판

9"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10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11"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12"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a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a 양이 잡아먹혔다는 증거물을 주인에게 보이려고)

13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14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 때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15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아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AMOS 4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 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2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낙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3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

4"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쳐 보아라.

5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6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빋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7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
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
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8 두 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 "내가
앞마름병과 꺾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 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0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1"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 때에 너희는
불 속에서 꼬집어낸
나뭇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2○"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13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애가

AMOS 5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2"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3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천 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백 명만이 살아 남고,
백 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열 명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회개를 재촉하다

4"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5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6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 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7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8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9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10사람들은 a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a 히, '성문'. 문루에 간이법정과 같은 마을 회관이 있음)

11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12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13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4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15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16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17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8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19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20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21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22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23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25 이스라엘 가문아,
사십 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26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구의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27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AMOS 6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2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 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3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4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5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 내는 자들,

6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7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8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밍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 주겠다.

9그 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10**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 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11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 날 것이다.

12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a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a 또는 '사람이 소를 부려 바위를 갈 수 있느냐?')

13너희가 b로드발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c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b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지닌 지명 c 힘을 상징하는 '두 뿔'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

14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첫째 환상, 메뚜기 재앙

AMOS 7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갈이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

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²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 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렵니다" 하고 간청하니, ³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둘째 환상, 가뭄

⁴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려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 버린다. ⁵이 때에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렵니다" 하고 간청하니, ⁶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셋째 환상, 다림줄

⁷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다림줄을 드리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⁸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⁹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¹⁰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¹¹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¹²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¹³다시는 a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 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a '하나님의 집')
¹⁴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b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b 히, '아들') ¹⁵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¹⁶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

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¹⁷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넷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AMOS 8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보니, ^a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a 히, '카이츠(과일)') ²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b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b 히, '케츠(끝)'. '과일'과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함)
³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⁴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⁵기껏 한다는 말이,
"^c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d되는 줄이고, ^e추는 늘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c 또는 '새 달' 축제 ^d 히, '에바' ^e 히, '세겔')
⁶혈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밑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7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걷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8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9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10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굶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11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12그 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13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14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단아, 너의 신이 살아 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 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환상, 성전의 붕괴와 민족 전멸

AMOS 9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2비록 그들이
a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a 히, '스올')

3비록 그들이
갈멜 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b 또는 '바다 뱀')

4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 보겠다."

5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 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6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7"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

8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 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9"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맹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 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10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11"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12그래서
예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13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 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14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15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Footnotes

Footnote from Amos 1:1 ([Back](#))

[\[1\]](#) **1:1** Or *sheep breeders*

Footnote from Amos 1:1 ([Back](#))

[\[2\]](#) **1:1** Or *during two years*

Footnote from Amos 1:3 ([Back](#))

[\[3\]](#) **1:3** Hebrew *I will not turn it back*; also verses 6, 9, 11, 13

Footnote from Amos 1:5 ([Back](#))

[\[4\]](#) 1:5 Or *On*

Footnote from Amos 1:15 ([Back](#))

[\[5\]](#) **1:15** Or *officials*

Footnote from Amos 2:1 ([Back](#))

[\[1\]](#) **2:1** Hebrew *I will not turn it back*; also verses 4, 6

Footnote from Amos 2:3 ([Back](#))

[\[2\]](#) **2:3** Or *officials*

Footnote from Amos 3:11 ([Back](#))

[\[1\]](#) **3:11** Hebrew *An adversary, one who surrounds the land—he shall bring down*

Footnote from Amos 3:12 ([Back](#))

[\[2\]](#) **3:12**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is uncertain

Footnote from Amos 3:15 ([Back](#))

[\[3\]](#) **3:15** Or *and many houses*

Footnote from Amos 4:10 ([Back](#))

[\[1\]](#) **4:10** Hebrew *along with the captivity of your horses*

Footnote from Amos 4:11 ([Back](#))

[\[2\]](#) **4:11** That is, a burning stick

Footnote from Amos 5:7 ([Back](#))

[\[1\]](#) **5:7** Or *to bitter fruit*

Footnote from Amos 5:11 ([Back](#))

[\[2\]](#) **5:11** Or *you tax*

Footnote from Amos 6:12 ([Back](#))

[\[1\]](#) **6:12** Or *the sea*

Footnote from Amos 6:12 ([Back](#))

[\[2\]](#) **6:12** Or *into bitter fruit*

Footnote from Amos 6:13 ([Back](#))

[\[3\]](#) **6:13** *Lo-debar* means *nothing*

Footnote from Amos 6:13 ([Back](#))

[\[4\]](#) **6:13** *Karnaim* means *horns* (a symbol of strength)

Footnote from Amos 7:14 ([Back](#))

[\[1\]](#) **7:14** Or *am*;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Amos 8:2 ([Back](#))

[\[1\]](#) **8:2** The Hebrew words for *end* and *summer fruit* sound alike

Footnote from Amos 8:3 ([Back](#))

[\[2\]](#) **8:3** Or *palace*

Footnote from Amos 8:3 ([Back](#))

[\[3\]](#) **8:3** Or *The singing women of the palace shall wail*

Footnote from Amos 8:5 ([Back](#))

[\[4\]](#) **8:5**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a *shekel* was about 2/5 ounce or 11 grams

Footnote from Amos 9:1 ([Back](#))

[\[1\]](#) **9:1** Or *on*

Footnote from Amos 9:1 ([Back](#))

[\[2\]](#) **9:1** Hebrew *all of them*

Footnote from Amos 9:12 ([Back](#))

[\[3\]](#) **9:12** Hebrew; Septuagint (compare Acts 15:17) *that the remnant of mankind and all the nations who are called by my name may seek the Lord*

오바다

[\(return to table of contents\)](#)

[Obadiah](#)

오바다서

OBADIAH 1 이것은 오바다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2^a"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b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a 주님의 말씀 b 에돔을 두고 말함)

3네가 바위 틈에 동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 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4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동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의 멸망

5"너에게 도둑 떼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 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 놓는다.

6그런데 c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살살이 털렸느냐?
네가 깊이 숨겨 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c 에돔의 조상, 여기에서는 에돔)

7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라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8나 주가 말한다.
그 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있는 사람을 남겨 두지 않겠다.

9데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에돔의 죄

10"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11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 패였다.

12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 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3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14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살아 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지 않았어야 했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날

15"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b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b** 에돔을 두고 말함)

16**d**너희가 **e**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d** 이스라엘을 두고 말함 **e** 시온 산을 가리킴)

이스라엘의 승리

17"그러나 더러는 시온 산으로 피하고
시온 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18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새 이스라엘

19"네겅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20잡혀 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 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21f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f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Footnotes

[\[1\]](#) **2** Or *Behold, I have mad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are utterly despised*

Footnote from Obadiah 7 ([Back](#))

[\[3\]](#) 7 Hebrew lacks *those who eat*

[\[4\]](#) 7 Hebrew *he has*

Footnote from Obadiah 12 ([Back](#))

[\[5\]](#) 12 Hebrew *do not enlarge your mouth*

요나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onah 1](#) • [Jonah 2](#) • [Jonah 3](#) • [Jonah 4](#)

요나서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JONAH 1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3**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a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옹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a 히, '다시스')

4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5**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6**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7b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b 히, '그들이') **8**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यो?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오?" **9**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यो.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c섬기는 사람ियो."(c 히, '경외하는') **10**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11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12**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13**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14**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15**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16**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요나의 기도

17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JONAH 2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2**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3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4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a'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a 또는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으니, 주님 계신 성
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겠습니까?')

5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나는 땅 속 멧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7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8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b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b 또는 '주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저버립니다')

9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10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 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JONAH 3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²"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³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⁴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사십 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⁵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굶은 베 옷을 입었다. ⁶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잣더미에 앉았다. ⁷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⁸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굶은 베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⁹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¹⁰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JONAH 4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²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a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a 히, '다시스') ³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⁴주님께서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⁵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 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⁶주 하나님이 b박 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 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b 히, '키카온'. 덩굴 종류의 식물. '아주까리'로 알려지기도 함) ⁷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 넝쿨을 쏴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⁸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쬘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⁹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 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¹⁰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 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것처럼 아까워하는데, ¹¹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Footnotes

Footnote from Jonah 1:2 ([Back](#))

[\[1\]](#) **1:2** The same Hebrew word can mean *evil* or *disaster*, depending on the context; so throughout Jonah

Footnote from Jonah 1:13 ([Back](#))

[\[2\]](#) **1:13** Hebrew *the men dug in* [their oars]

Footnote from Jonah 1:17 ([Back](#))

[\[3\]](#) 1:17 Ch 2:1 in Hebrew

Footnote from Jonah 1:17 ([Back](#))

[\[4\]](#) 1:17 Or *had appointed*

Footnote from Jonah 3:3 ([Back](#))

[\[1\]](#) **3:3** Hebrew *a great city to God*

Footnote from Jonah 3:3 ([Back](#))

[2] **3:3** Or *a visit was a three days' journey*

Footnote from Jonah 3:6 ([Back](#))

[\[3\]](#) 3:6 Or *had reached*

Footnote from Jonah 4:1 ([Back](#))

[\[1\]](#) **4:1** Hebrew *it was exceedingly evil to Jonah*

Footnote from Jonah 4:6 ([Back](#))

[\[2\]](#) 4:6 Hebrew *qiqayon*, probably the castor oil plant; also verses 7, 9, 10

Footnote from Jonah 4:6 ([Back](#))

[\[3\]](#) 4:6 Or *his evil*

미가

[\(return to table of contents\)](#)

[Micah 1](#) • [Micah 2](#) • [Micah 3](#) • [Micah 4](#) • [Micah 5](#) • [Micah 6](#) • [Micah 7](#)

미가서

MICAH 1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 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2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3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4뭇 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의 밀초처럼 녹아 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금류 같구나.

5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6a"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 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a 주님의 말)

7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굶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8b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놓아 울 것이니, (b 미가의 말)

9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10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11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아난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12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13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매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c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c 유다 백성을 두고 말함)

15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d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d 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숨을 것이다')

16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가난한 이를 억누르는 사람이 받을 형벌

MICAH 2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2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팔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3"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a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a 히, '너희 목이')

4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웃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5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6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7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8 요즈음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 갔다.

9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10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 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11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b우리로 돌아오는 양 떼처럼
모으겠다.
양 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b 히, '보스라')

13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 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하다
[MICAH](#) 3 그 때에 a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a 미가)

2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족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3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 먹는다.
가족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4살려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체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럴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5b"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 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b 주님의 말)

6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7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8c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능력을 채워 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 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c 미가의 말)

9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10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11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삿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12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통치로 이룰 우주적 평화

MICAH 4 그 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 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2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3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4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얹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서
약속하신 것이다.

5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6 "나 주가 선언한다.
그 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모으겠다.

7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 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 산에서 다스리겠다.

8 너 양 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9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10 도성 시온아,

이제 네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 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11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12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 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13 도성 시온아,
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 같게 하고,
네 굽을 낫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 올 것이다.

MICAH 5 a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a 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아, 네 성벽을 튼튼하게 하여라')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2"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b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 히, '천 천' 또는 '통치자들')

3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4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원과 심판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6그들은
칼로 앗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뺨 칼로 c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앗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앗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c 또는 '니므롯을 그 성문 어귀에서')

7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 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8 살아 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 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 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 낼 수 없을 것이다.

9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10 "나 주가 선언한다.
그 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 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11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12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13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14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 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15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MICAH 6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a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살살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네 말을 듣게 하여라. (a 예언자를 가리킴)

2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 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3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나?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5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브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삿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6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8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들여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10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b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b** 히, '축소시킨 에바'. 에바는 곡물과 같은 마른 물건
의 양을 되는 단위)

11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12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13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14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15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16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패

MICAH 7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 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2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3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4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 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5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6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7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심

8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9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 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10 그 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 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1^a 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네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a 예루살렘 도성에게 하는 말)

12 그 때에 네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네게로 되돌아온다.
앗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네 백성이 네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13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도와 찬양

14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b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b** 또는 '갈멜')

15c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c** 주님의 말)

16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18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 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19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20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Footnotes

Footnote from Micah 1:2 ([Back](#))

[\[1\]](#) **1:2** Hebrew *all of them*

Footnote from Micah 1:14 ([Back](#))

[\[2\]](#) 1:14 Or *give dowry*

Footnote from Micah 2:3 ([Back](#))

[\[1\]](#) **2:3** The same Hebrew word can mean *evil* or *disaster*,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Micah 2:7 ([Back](#))

[\[2\]](#) **2:7** Hebrew *Has the spirit of the LORD grown short?*

Footnote from Micah 2:8 ([Back](#))

[\[3\]](#) 2:8 Or *returning from war*

Footnote from Micah 3:2 ([Back](#))

[\[1\]](#) 3:2 Hebrew *from off them*

Footnote from Micah 4:2 ([Back](#))

[\[1\]](#) 4:2 Or *teaching*

Footnote from Micah 4:10 ([Back](#))

[\[2\]](#) **4:10** Or *push*

Footnote from Micah 4:13 ([Back](#))

[\[3\]](#) 4:13 Hebrew *devote to destruction*

Footnote from Micah 5:1 ([Back](#))

[\[1\]](#) **5:1** Ch 4:14 in Hebrew

Footnote from Micah 5:1 ([Back](#))

[\[2\]](#) **5:1** That is, city

Footnote from Micah 5:2 ([Back](#))

[\[3\]](#) **5:2** Ch 5:1 in Hebrew

Footnote from Micah 6:7 ([Back](#))

[\[1\]](#) **6:7** Or *Will the LORD accept*

Footnote from Micah 6:8 ([Back](#))

[\[2\]](#) **6:8** Or *steadfast love*

Footnote from Micah 6:9 ([Back](#))

[\[3\]](#) **6:9**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Micah 6:10 ([Back](#))

[\[4\]](#) 6:10 Or *Are there still treasures*

Footnote from Micah 6:12 ([Back](#))

[\[5\]](#) 6:12 Hebrew *whose*

Footnote from Micah 6:16 ([Back](#))

[\[6\]](#) **6:16** Hebrew *For the statutes of Omri are kept*

Footnote from Micah 6:16 ([Back](#))

[\[7\]](#) **6:16** Hebrew *its*

Footnote from Micah 7:5 ([Back](#))

[\[1\]](#) 7:5 Hebrew *bosom*

Footnote from Micah 7:12 ([Back](#))

[\[2\]](#) 7:12 Hebrew *he*

Footnote from Micah 7:14 ([Back](#))

[\[3\]](#) 7:14 Hebrew *of Carmel*

Footnote from Micah 7:15 ([Back](#))

[\[4\]](#) 7:15 Hebrew *him*

Footnote from Micah 7:19 ([Back](#))

[\[5\]](#) 7:19 Hebrew *their*

나훔

[\(return to table of contents\)](#)

[Nahum 1](#) • [Nahum 2](#) • [Nahum 3](#)

나훔서

[NAHUM](#) **1**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분노

2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3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4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5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 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6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7 주님은 선하시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8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9^a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 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a 또는 '너희가 주님께 대항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10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굽아떨어져서,
마른 검불처럼 다 타 버릴 것이다.

11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12"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b**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b 유다를 두고 말함)

13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 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14주님께서
c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네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네가 쓸모 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 무덤을 파 놓겠다." (c 니느웨를 두고 말함)

15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니느웨의 멸망

NAHUM 2 침략군이 a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길을 지켜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무나. (a 니느웨를 두고 말함)

2(악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악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 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3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b노송나무 창이 물결 친다. (b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는 '기마병이 질주해 온다')

4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5정예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6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7c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c 또는 '도성(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 가고')

8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9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10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11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 곳이 어디에 있느냐?

12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술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13"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네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네 먹이를 남겨 놓지 않겠다.
네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NAHUM 3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락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2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3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4 이것은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못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못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5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걸어 올려서
네 벌거벗은 것을
못 나라가 보게 하고,
네 부끄러운 곳을
못 왕국이 보게 하겠다.

6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7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지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8 네가 a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 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 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a 히, '노아몬')

9 b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 주고
봇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b 또는 '누비아', 히, '구스')

10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 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11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할 것이다.

12네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13^c네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네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 버렸다. (c 또는 '네 군인들은 모두 힘없는 여자와 같다')

14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터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 내려무나.

15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16네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17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18앗시리아의 왕아,
네 d목자들이 다 죽고
네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네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d 또는 '지도자들')

19네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네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Footnotes

Footnote from Nahum 1:8 ([Back](#))

[\[1\]](#) **1:8** Hebrew *of her place*

Footnote from Nahum 1:15 ([Back](#))

[\[2\]](#) **1:15** Ch 2:1 in Hebrew

Footnote from Nahum 2:1 ([Back](#))

[\[1\]](#) **2:1** Hebrew *gird your loins*

Footnote from Nahum 2:5 ([Back](#))

[\[2\]](#) 2:5 Or *the mantelet*

Footnote from Nahum 2:7 ([Back](#))

[\[3\]](#) 2:7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rendered *its mistress* is uncertain

Footnote from Nahum 2:7 ([Back](#))

[\[4\]](#) 2:7 Or *exiled*

Footnote from Nahum 2:8 ([Back](#))

[\[5\]](#) **2:8** Compare Septuagint;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Nahum 2:13 ([Back](#))

[\[6\]](#) 2:13 Hebrew *her*

Footnote from Nahum 3:8 ([Back](#))

[\[1\]](#) 3:8 Hebrew *No-amon*

Footnote from Nahum 3:9 ([Back](#))

[\[2\]](#) 3:9 Hebrew *your*

Footnote from Nahum 3:17 ([Back](#))

[\[3\]](#) 3:17 Or *marshals*

하박국

[\(return to table of contents\)](#)

[Habakkuk 1](#) • [Habakkuk 2](#) • [Habakkuk 3](#)

하박국서

[HABAKKUK](#) 1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박국의 호소

2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대답

5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6 이제 내가
a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a 또는 '갈대아')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8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9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10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11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12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b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c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b**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c** 바빌로니아)

13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므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14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15d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뛸니다. (d 바빌로니아 사람)

16그러므로 d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d 바빌로니아 사람)

17그가 그물을 떼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응답

HABAKKUK 2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a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a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내가')

2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b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b 또는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라')

3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4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5c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d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c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 일부는 '포도주' d 히, '스올')

6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굶어 모아
네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7빛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8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 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9그들이 너를 보고
'네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등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10네가 못 민족을 꺾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11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12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13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14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15그들이 너를 보고
'황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 먹이고
술에 취하여 굴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 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16영광은 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네가 마시고 굴아떨어져
네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네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

17네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네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네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18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19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20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박국의 기도

HABAKKUK 3 이것은 시기오돗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2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3하나님이 데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4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뿜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5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6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떠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7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8주님,
강을 보고 분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발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9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10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11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12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13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14그들이 우리를 흘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15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16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17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9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달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Footnotes

Footnote from Habakkuk 1:15 ([Back](#))

[\[1\]](#) **1:15** That is, the wicked foe

Footnote from Habakkuk 1:16 ([Back](#))

[\[2\]](#) **1:16** Hebrew *his portion is fat*

Footnote from Habakkuk 2:4 ([Back](#))

[\[1\]](#) 2:4 Or *faithfulness*

Footnote from Habakkuk 2:5 ([Back](#))

[\[2\]](#) **2:5**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wealth*

Footnote from Habakkuk 2:5 ([Back](#))

[\[3\]](#) **2:5** The meaning of the Hebrew of these two lines is uncertain

Footnote from Habakkuk 3:5 ([Back](#))

[\[1\]](#) **3:5** Hebrew *feet*

Footnote from Habakkuk 3:9 ([Back](#))

[\[2\]](#) **3:9** The meaning of the Hebrew line is uncertain

Footnote from Habakkuk 3:13 ([Back](#))

[\[3\]](#) **3:13** The meaning of the Hebrew line is uncertain

Footnote from Habakkuk 3:19 ([Back](#))

[\[4\]](#) **3:19** Hebrew *my stringed*

스바냐

[\(return to table of contents\)](#)

[Zephaniah 1](#) • [Zephaniah 2](#) • [Zephaniah 3](#)

스바냐서

ZEPHANIAH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야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심판의 날

2"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3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4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 곳에 남아 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a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a** 이교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

5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b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b** 히, 말감)

6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7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
제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제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8"나 주가 제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c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c 이방 종교의 제사에서 입는 옷)

9그 날이 오면,
d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e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d 이방 종교의 풍속(삼상 5:5) e 또는 '그 신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10그 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1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12그 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 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13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4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15그 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16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17"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18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 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회개의 탄원

ZEPHANIAH 2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2a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거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a 히, '명령이 내리기 전에')

3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받는 벌

4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5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 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 버려서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하게 하겠다."

6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7바닷가 일대는,
살아 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b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b** 또는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8"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9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 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 남은 나의 겨레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10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떼는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11**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12 "c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c 나일 강 상류지역 백성)

13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앗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14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 턱에 앉아서 지저귌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삭아 버릴 것이다.

15 본래는 한껏 으스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죄와 구원

ZEPHANIAH 3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2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3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이리 떼다.

4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5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6 "내가 뭇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7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가면서 하였다.

8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a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a. 70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

9 그 때에는 내가

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10 에티오피아 강 저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흠어 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11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 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12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13 이스라엘에 살아 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기뻐서 부르는 노래

14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15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6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17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b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b. 70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그는 잠잠할 것이다)

18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19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20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 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Footnotes

Footnote from Zephaniah 1:3 ([Back](#))

[\[1\]](#) **1:3** Or *stumbling blocks* (that is, idols)

Footnote from Zephaniah 1:9 ([Back](#))

[\[2\]](#) **1:9** Or *their Lord's*

Footnote from Zephaniah 1:11 ([Back](#))

[\[3\]](#) **1:11** Or *all the people of Canaan*

Footnote from Zephaniah 1:12 ([Back](#))

[\[4\]](#) **1:12** Hebrew *are thickening on the dregs* [of their wine]

Footnote from Zephaniah 2:2 ([Back](#))

[\[1\]](#) **2:2** Hebrew *gives birth*

Footnote from Zephaniah 2:3 ([Back](#))

[\[2\]](#) **2:3** Or *who carry out his judgment*

Footnote from Zephaniah 2:6 ([Back](#))

[\[3\]](#) 2:6 Or *caves*

Footnote from Zephaniah 2:14 ([Back](#))

[4] 2:14 Hebrew *beasts of every nation*

Footnote from Zephaniah 2:14 ([Back](#))

[\[5\]](#) **2:14** The identity of the animals rendered *owl* and *hedgehog* is uncertain

Footnote from Zephaniah 3:7 ([Back](#))

[\[1\]](#) 3:7 Hebrew *her*

Footnote from Zephaniah 3:7 ([Back](#))

[\[2\]](#) 3:7 Hebrew *her*

Footnote from Zephaniah 3:18 ([Back](#))

[\[3\]](#) **3:18**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학 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Haggai 1](#) • [Haggai 2](#)

학개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

HAGGAI 1 다리우스 왕 이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2**만군의 주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3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4"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만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나?

5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6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7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 보아라.

8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9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흠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나?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인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13**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14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15 때는 다리우스 왕 이년 여섯째 달, 그 달 이십사일이다.

HAGGAI 2 그 해 일곱째 달, 그 달 이십일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 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3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4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5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6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7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 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9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10○다리우스 왕 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11**"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 보아라. **12**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썼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 보아라."

○학개가 물어 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13**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지를 물어 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14**○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15 ◦ 그러므로 이제, **a**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a** 또는 '너희는 오늘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생각해 보아라')
16 **b**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 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열 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 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스무 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b** 히, '그 때 이후로') **17** 내가 너희를 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18**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이십사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 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19**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20 ◦ 그 달 이십사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21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22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23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Footnotes

Footnote from Haggai 2:15 ([Back](#))

[\[1\]](#) **2:15** Or *backward*; also verse 18

Footnote from Haggai 2:16 ([Back](#))

[\[2\]](#) **2:16** Probable reading (compare Septuagint); Hebrew *LORD, since they were. When*

Footnote from Haggai 2:23 ([Back](#))

[\[3\]](#) 2:23 Hebrew *the*

스가랴

[\(return to table of contents\)](#)

[Zechariah 1](#) • [Zechariah 2](#) • [Zechariah 3](#) • [Zechariah 4](#) • [Zechariah 5](#) • [Zechariah 6](#) • [Zechariah 7](#)
• [Zechariah 8](#) • [Zechariah 9](#) • [Zechariah 10](#) • [Zechariah 11](#) • [Zechariah 12](#) • [Zechariah 13](#)
• [Zechariah 14](#)

스가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시다

ZECHARIAH 1 다리우스 왕 이년 여덟째 달에, 주님께서,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2**"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3**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4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5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때의 예언자들,
a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a 히,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6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

7다리우스 왕 이년 열한째 달에, 곧 스باط월 스무나흘날에, 주님께서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8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9**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10**그 때에,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11**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12**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칠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13**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14○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15**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16**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17○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 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8○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19**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 버린 뿔이다." **20**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 주셨다. **21**내가 여쭙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흠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흠어 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ZECHARIAH 2 내가 고개를 들어 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2**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간다." **3**그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아와서, **4**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5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 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6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7^a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 나오너라!" (a 히, '바빌론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8"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9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락질을 당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11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할 것이다.
그 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2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13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ZECHARIAH 3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a사탄이 서 있었다.(a '고발자') **2b**주님께서 사
탄에게 말씀하셨다.

o"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b 고대역에는 '주님의 천사가')

3o그 때에 여호수아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4**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 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
는 옷을 입힌다."

5o그 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
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 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
다. **6**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7o"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8o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
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9**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
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
긴다. **10**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ZECHARIAH 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
았다. **2**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
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
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3**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⁴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⁵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⁶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⁷큰 산아, 네가 a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a 또는 '누구냐?')

⁸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⁹"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¹⁰"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¹¹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¹²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¹³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¹⁴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ZECHARIAH 5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²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스무 자이고, 너비는 열 자입니다." ³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 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다."

⁴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뒤주 속의 여인

⁵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⁶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a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a 히, '에바') ⁷그 뒤주에는 낱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⁸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 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 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낱뚜껑을 눌러서 덮어 버렸다. ⁹내게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¹⁰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¹¹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병거 네 대

ZECHARIAH 6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네 대가 나왔다. 두 산은 뿔쇠로 된 산이다. ²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³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⁴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⁵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네 a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뵈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a 또는 '바람') ⁶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b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b 히, '그 뒤를 따르고') ⁷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⁸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명령

9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0** "너는 사로잡혀 간 사람들, 곧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11**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12**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13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14 "그 c왕관은, d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c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왕관들' d 시리아어역을 따름. 히, '헬렘')

15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 때에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ZECHARIAH 7 다리우스 왕 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나흘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2**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에게 하인들을 팔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3**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 왔다. "a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 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a 히, '내가')

4 "이 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7○그 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겟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사로잡혀 가게 된 까닭

8○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9"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10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11○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12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13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4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흘렸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ZECHARIAH 8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3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4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5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6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살아 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7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8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9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 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10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삷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11그러나 이제
살아 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 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13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14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5**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6**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17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금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다

18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9**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20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21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22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23○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ZECHARIAH 9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2**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3**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굶어 모으고, 길거리의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4**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어뜨린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5**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6**아스돗은 낮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7**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 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 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8**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 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올 왕

9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0"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11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네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낼 것이다.

12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네게 두 배로 갚아 주겠다.

13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14주님께서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15만군의 주님께서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릿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a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a 칠십인역을 따름. 히, '백성은 마실 것이며 포도주에 취한 것
처럼 소리를 지를 것이다')

16그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 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17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ZECHARIAH 10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2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 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3"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 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4유다에서
모퉁잇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5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6"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7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8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9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 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딸과 함께 살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10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앗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11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 강이
그 바닥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앗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12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능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폭군의 멸망

ZECHARIAH 11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2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3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 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두 목자

4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여라. **5**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6**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 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7 나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 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 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8** 나에게서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9** 그런 다음에 나는 양 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10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11** 그 언약은 바로 그 날로 취소되었다. 양 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12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삼십 개를 주었다.

13○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 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삯이라고 생각해서 쳐 준 것이다. 나는 은 삼십 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14**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15○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 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16**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 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 먹고, 발굽까지 값아 먹을 것이다.

17양 떼를 버리는 쓸모 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

ZECHARIAH 12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퍼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2○"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3**그 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4**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5**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6**그 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뭇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햇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7○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8**그 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 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9○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10**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찢어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11**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므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12**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¹³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¹⁴그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ZECHARIAH 13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²그 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³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⁴그 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⁵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 왔다' 할 것이다. ⁶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자를 죽이라는 명령

⁷"칼아,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⁸내가 온 땅을 치면,
삼분의 이가 멸망하여 죽고,
삼분의 일만이 살아 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⁹그 삼분의 일은
내가 불 속에 집어 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ZECHARIAH 14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2"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 남을 것이다."

3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4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뺏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5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6그 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7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 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8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a동쪽 바다로,
절반은 b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a 또는 '사해' b 또는 '지중해')

9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10○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11**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12○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13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14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15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16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7○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18**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19**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20○그 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솔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21**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솔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솔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c상인들이 없을 것이다.(c 히, '가나안 사람들이')

Footnotes

Footnote from Zechariah 1:18 ([Back](#))

[\[1\]](#) **1:18** Ch 2:1 in Hebrew

Footnote from Zechariah 2:1 ([Back](#))

[\[1\]](#) **2:1** Ch 2:5 in Hebrew

Footnote from Zechariah 2:8 ([Back](#))

[\[2\]](#) 2:8 Or *he sent me after glory*

Footnote from Zechariah 3:1 ([Back](#))

[\[1\]](#) **3:1** Hebrew *the Accuser* or *the Adversary*

Footnote from Zechariah 3:2 ([Back](#))

[\[2\]](#) **3:2** That is, a burning stick

Footnote from Zechariah 3:9 ([Back](#))

[3] 3:9 Or *facets*

Footnote from Zechariah 4:12 ([Back](#))

[\[1\]](#) 4:12 Hebrew lacks *oil*

Footnote from Zechariah 4:14 ([Back](#))

[\[2\]](#) **4:14** Hebrew *two sons of new oil*

Footnote from Zechariah 5:2 ([Back](#))

[\[1\]](#) **5:2**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Zechariah 5:3 ([Back](#))

[\[2\]](#) **5:3** Hebrew lacks *falsely* (supplied from verse 4)

Footnote from Zechariah 5:6 ([Back](#))

[\[3\]](#) **5:6** Hebrew *ephah*; also verses 7–11. An *ephah* was about 3/5 bushel or 22 liters

Footnote from Zechariah 5:6 ([Back](#))

[\[4\]](#) **5:6** One Hebrew manuscript, Septuagint, Syriac; most Hebrew manuscripts *eye*

Footnote from Zechariah 6:3 ([Back](#))

[1] 6:3 Or *and the fourth chariot strong dappled horses*

Footnote from Zechariah 6:14 ([Back](#))

[\[2\]](#) **6:14** An alternate spelling of *Heldai* (verse 10)

Footnote from Zechariah 7:11 ([Back](#))

[\[1\]](#) **7:11** Hebrew *and made their ears too heavy to hear*

Footnote from Zechariah 7:13 ([Back](#))

[\[2\]](#) 7:13 Hebrew *he*

Footnote from Zechariah 9:1 ([Back](#))

[\[1\]](#) **9:1** Or *For the eye of mankind, especially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s toward the LORD*

Footnote from Zechariah 9:6 ([Back](#))

[2] 9:6 Or *a foreign people*; Hebrew *a bastard*

Footnote from Zechariah 10:3 ([Back](#))

[\[1\]](#) **10:3** Hebrew *the male goats*

Footnote from Zechariah 12:12 ([Back](#))

[\[1\]](#) **12:12** Or *clan*; also verses 13, 14

Footnote from Zechariah 13:5 ([Back](#))

[\[1\]](#) **13:5** Or *for the land has been my possession since my youth*

Footnote from Zechariah 13:6 ([Back](#))

[\[2\]](#) **13:6** Or *on your chest*; Hebrew *wounds between your hands*

Footnote from Zechariah 14:6 ([Back](#))

[\[1\]](#) **14:6** Compare Septuagint, Syriac, Vulgate, Targum; the meaning of the Hebrew is uncertain

Footnote from Zechariah 14:7 ([Back](#))

[\[2\]](#) 14:7 Hebrew *one*

Footnote from Zechariah 14:8 ([Back](#))

[\[3\]](#) **14:8** That is, the Dead Sea

Footnote from Zechariah 14:8 ([Back](#))
[4] 14:8 That is, the Mediterranean Sea

Footnote from Zechariah 14:11 ([Back](#))

[\[5\]](#) **14:11** The Hebrew term rendered *decree of utter destruction* refers to things devoted (or set apart) to the Lord (or by the Lord) for destruction

Footnote from Zechariah 14:18 ([Back](#))

[\[6\]](#) **14:18** Hebrew lacks *rain*

Footnote from Zechariah 14:21 ([Back](#))

[\[7\]](#) 14:21 Or *Canaanite*

말라기

[\(return to table of contents\)](#)

[Malachi 1](#) • [Malachi 2](#) • [Malachi 3](#) • [Malachi 4](#)

말라기서

MALACHI 1 다음은 주님께서 a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a '나의 특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2"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 주었다.

4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 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

이라고 불릴 것이다.

5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죄

6"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7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11○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흠뻑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14○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제사장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

MALACHI 2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2○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4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 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5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6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7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8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결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성실하지 못한 유다

10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11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a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a 또는 '성결')

12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13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14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5 **b**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b** 또는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
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의 것이다. 왜 하나냐? 주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찾고 계셨기 때문
이다.')

16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17"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MALACHI 3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뒹굴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2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 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3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5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 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

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십일조

6"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7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8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9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0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11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을 귀하게 만들고 아끼시다]

13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14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15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16 ○그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17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18 그 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주의 날이 온다

MALACHI 4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2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a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 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a 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3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4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 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5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아 예언자를 보내겠다.

6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Footnotes

Footnote from Malachi 1:1 ([Back](#))

[\[1\]](#) **1:1** *Malachi* means *my messenger*

Footnote from Malachi 1:11 ([Back](#))

[\[2\]](#) **1:11** Or *is* (three times in verse 11; also verse 14)

[\[1\]](#) 2:3 Hebrew *seed*

Footnote from Malachi 2:3 ([Back](#))

[\[2\]](#) 2:3 Or *to it*

Footnote from Malachi 2:6 ([Back](#))

[\[3\]](#) 2:6 Or *law*; also verses 7, 8, 9

Footnote from Malachi 2:7 ([Back](#))

[\[4\]](#) 2:7 Hebrew *they*

Footnote from Malachi 2:12 ([Back](#))

[\[5\]](#) **2:12** Hebrew *any who wakes and answers*

Footnote from Malachi 2:15 ([Back](#))

[\[6\]](#) 2:15 Hebrew *in it*

Footnote from Malachi 2:15 ([Back](#))

[\[7\]](#) **2:15** Hebrew *the one*

Footnote from Malachi 2:15 ([Back](#))

[\[8\]](#) **2:15** Or *And not one has done this who has a portion of the Spirit. And what was that one seeking?*

Footnote from Malachi 2:15 ([Back](#))

[\[9\]](#) **2:15** Or *So take care*; also verse 16

Footnote from Malachi 2:16 ([Back](#))

[\[10\]](#) **2:16** Hebrew *who hates and divorces*

Footnote from Malachi 2:16 ([Back](#))

[\[11\]](#) **2:16** Probable meaning (compare Septuagint and Deuteronomy 24:1–4); 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hat he hates divorce, and him who covers*

Footnote from Malachi 3:3 ([Back](#))

[\[1\]](#) **3:3** Or *and they will belong to the LORD, bringers of an offering in righteousness*

Footnote from Malachi 3:11 ([Back](#))

[\[2\]](#) **3:11** Probably a name for some crop-destroying pest or pests

Footnote from Malachi 4:1 ([Back](#))

[\[1\]](#) **4:1** Ch 4:1–6 is ch 3:19–24 in Hebrew

Footnote from Malachi 4:4 ([Back](#))

[\[2\]](#) 4:4 Or *and just decrees*

Footnote from Malachi 4:6 ([Back](#))

[\[3\]](#) **4:6** The Hebrew term rendered *decree of utter destruction* refers to things devoted (or set apart) to the Lord (or by the Lord) for destruction

마태복음

[\(return to table of contents\)](#)

[Matthew 1](#) • [Matthew 2](#) • [Matthew 3](#) • [Matthew 4](#) • [Matthew 5](#) • [Matthew 6](#) • [Matthew 7](#)
• [Matthew 8](#) • [Matthew 9](#) • [Matthew 10](#) • [Matthew 11](#) • [Matthew 12](#) • [Matthew 13](#) • [Matthew 14](#)
• [Matthew 15](#) • [Matthew 16](#) • [Matthew 17](#) • [Matthew 18](#) • [Matthew 19](#) • [Matthew 20](#)
• [Matthew 21](#) • [Matthew 22](#) • [Matthew 23](#) • [Matthew 24](#) • [Matthew 25](#) • [Matthew 26](#)
• [Matthew 27](#) • [Matthew 28](#)

마태복음

예수의 계보(눅 3:23-38)

MATTHEW 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a그리스도의 b계보는 이러하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b 또는 '나심은')

2o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6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o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c아삽을 낳고, 8c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사') 9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d아모스를 낳고, d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몬') 11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2o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a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17o그러므로 그 모든 대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a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예수의 탄생(눅 2:1-7)

18o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20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e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e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 22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23f"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f 사 7:14(칠십인역)) ²⁴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²⁵그러나 g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첫 아들을')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다

MATTHEW 2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a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a 또는 '점성가들'. 그, '마고스') ²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³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⁴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b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b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⁵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⁶c'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d다스릴 것이다."
(c 미 5:2 d 또는 '먹일')

⁷그 때에 헤롯은 그 a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⁸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살살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⁹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¹⁰그들은 e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e 또는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¹¹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¹²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다

¹³o a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a 또는 '점성가들'. 그, '마고스') ¹⁴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¹⁵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f'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f호 11:1)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¹⁶○헤롯은 a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a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a 또는 '점성가들'. 그, '마고스') ¹⁷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¹⁸g"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g 렘 31:15)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¹⁹○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²⁰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²¹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²²그러나 요셉은, 아겔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²³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례자 요한의 전도(막 1:1-8; 눅 3:1-9, 15-17; 요 1:19-28)

MATTHEW 3 그 무렵에 a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a 또는 '침례자') ²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³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b"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b 사 40:3(칠십인역))

⁴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⁵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⁶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c세례를 받았다.(c 또는 '침례')

⁷○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c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c 또는 '침례') ⁸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⁹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¹¹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c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

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c세례를 주실 것이다.(c 또는 '침례') ¹²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막 1:9-11; 눅 3:21-22)

¹³○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c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c 또는 '침례') ¹⁴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c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¹⁵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¹⁶예수께서 c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c 또는 '침례') ¹⁷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d"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d 또는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막 1:12-13; 눅 4:1-13)

MATTHEW 4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²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³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⁴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a'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a 신 8:3) ⁵그 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⁶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b'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b 시 91:11,12) ⁷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c'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c 신 6:16(칠십인역)) ⁸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⁹"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¹⁰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d'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¹¹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d 신 6:13(칠십인 역))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다(막 1:14-15; 눅 4:14-15)
¹²○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¹³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¹⁴이것은 예
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¹⁵e"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e 사 9:1,2) ¹⁶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¹⁷○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
다.

어부들을 부르시다(막 1:16-20; 눅 5:1-11)
¹⁸○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²⁰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²¹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
고보와 그의 f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f 그, '형제') ²²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
를 따라갔다.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눅 6:17-19)
²³○g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h복
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²⁴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
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
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
다.(g 그, '그가' h 또는 '기쁜 소식') ²⁵그리하여 갈릴리와 i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i '열 도시')

산상 설교(마 5-7)

MATTHEW 5 a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a 그, '그가') 2a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a 그, '그가')

복이 있는 사람(눅 6:20-23)

3"b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b 그, '심령이')

4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5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8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c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c 그, '아들들이라고')

10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o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d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터무니없는 말'이 없음) 12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소금과 빛(막 9:50; 눅 14:34-35)

13o"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율법에 대한 교훈

17○"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e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e 그, '한 이오타')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f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f 또는 '폐하고') **20**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분노에 대한 교훈

21○"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g'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g 출 20:13) **22**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h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i형제나 자매에게 j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k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h 그, '형제에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까닭없이'가 첨가되어 있음 i 그, '형제에게' j 그,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람어 라가는 Mat 5:욕하는 말 k 그, '게헨나') **23**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l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l 그, '네 형제') **24**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l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 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l 그, '네 형제') **25**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26**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m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m 그, '코드란테스')

음욕과 간음

27○"n'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n 출 20:14) **28**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29**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k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k 그, '게헨나') **30**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k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k 그, '게헨나')

이혼과 간음(마 19:9; 막 10:11-12; 눅 16:18)

31○"o'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2**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o 신 24:1)

맹세에 대한 교훈

³³○"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p'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p 레 19:12; 민 30:2; 신 23:21(칠십인역))
³⁴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³⁵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³⁶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³⁷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q악에서 나오는 것이다."(q 또는 '악한 자')

보복하지 말아라(눅 6:29-30)

³⁸○"r'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r 출 21:24; 레 24:20; 신 19:21) ³⁹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⁴⁰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겹옷까지도 내주어라. ⁴¹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 주어라. ⁴²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여라(눅 6:27-28, 32-36)

⁴³○"s'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s 레 19:18) ⁴⁴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⁴⁵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t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t 그, '아들들이') ⁴⁶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⁴⁷또 너희가 너희 u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u 그, '형제들') ⁴⁸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올바른 자선 행위

MATTHEW 6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²○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³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⁴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눅 11:2-4)

⁵○"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7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9**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오늘 우리에게 **a**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a** 또는 '일용할 양식')

12우리가 우리에게 **b**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c**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b** 또는 '빛진 사람의 빛을 없애 준 것 같이' **c** 또는 '빛을 없애 주시고')

13우리를 **d**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e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d** 또는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또는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e** 또는 '악한 자에게서')

14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올바른 금식

16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17**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씻어라. **18**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늘에 쌓은 보물(눅 12:33-34)

19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썯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0**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썯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몸의 등불(눅 11:34-36)

²²○"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²³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나님과 재물(눅 16:13)

²⁴○"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f 그, '맘몬(돈이나 부를 뜻하는 셈어)')

근심과 걱정(눅 12:22-34)

²⁵○"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g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엇을 마실까'가 없음) ²⁶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²⁷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h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h 또는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²⁸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²⁹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³⁰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³¹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³²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³³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³⁴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i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i 또는 '오늘의')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눅 6:37-38, 41-42)

MATTHEW 7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²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³어찌하여 너는 a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a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⁵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a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a 그, '네 형제') ⁶○"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눅 11:9-13)

⁷○"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⁸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⁹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¹⁰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¹¹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¹²○"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눅 13:24)

¹³○"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¹⁴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눅 6:43-44)

¹⁵○"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¹⁶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¹⁷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¹⁸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¹⁹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²⁰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눅 13:25-27)

²¹○"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²²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²³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눅 6:47-49)

²⁴○"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²⁵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²⁶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²⁷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²⁸○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²⁹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5; 눅 5:12-16)

MATTHEW 8 a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a 그, '그가') 2b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3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b나병이 나았다.(b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 4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눅 7:1-10; 요 4:43-54)

5o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6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9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10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c앉을 것이다.(c 그, '비스듬히 눕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가지는 자세) 12그러나 이 나라의 d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d 또는 '상속자들은', 그, '아들들') 13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막 1:29-34; 눅 4:38-41)

14o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15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16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17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e"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e 사 53:4)

예수를 따르려면(눅 9:57-62)

18o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20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f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f 그, '사람의 아들') 21또 제자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

시오." ²²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막 4:35-41; 눅 8:22-25)

²³○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²⁴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²⁵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께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²⁶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²⁷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막 5:1-20; 눅 8:26-39)

²⁸○예수께서 건너편 g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라사' 또는 '겔게사' 또는 '가자라') ²⁹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³⁰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³¹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³²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³³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 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³⁴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막 2:1-12; 눅 5:17-26)

MATTHEW 9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²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³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⁴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⁵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⁶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⁷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⁸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⁹[마태를 부르시다(막 2:13-17; 눅 5:27-32)]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¹⁰○예수께서 집에서 a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a자리를 같이 하였다.(a 그, '비스듬히 눕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가지는 자세) ¹¹바리새파 사람

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¹²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¹³너희는 가서 b'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b 호 6:6)

금식 논쟁(막 2:18-22; 눅 5:33-39)

¹⁴○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c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주'가 없음) ¹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¹⁶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¹⁷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어느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자(막 5:21-43; 눅 8:40-56)

¹⁸○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¹⁹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²⁰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²¹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²²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가 나왔다.

²³○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²⁴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²⁵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²⁶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눈 먼 두 사람이 고침을 받다

²⁷○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d예수를 뒤따라 왔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를'이 없음) ²⁸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²⁹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³⁰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³¹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³²○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³³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³⁴e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34절이 없음)

목자 없는 양

³⁵○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³⁶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³⁷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³⁸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의 열두 제자(막 3:13-19; 눅 6:12-16)

MATTHEW 10 a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b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b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a 그, '그가' b 또는 '악한 귀신') ²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c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c동생 요한과(c 그, '형제') ³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d다대오와(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레배오' 또는 '다대오라고 부르는 레배오') ⁴e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e 또는 '가나안 사람', 그, 카나나이오스')

열두 제자의 전도(막 6:7-13; 눅 9:1-6)

⁵○예수께서 이들 열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⁶오히려 f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f 그,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 떼에게로') ⁷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⁸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g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g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 ⁹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¹⁰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¹¹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¹²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¹³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¹⁴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¹⁵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막 13:9-13; 눅 21:12-17)

¹⁶○"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¹⁷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

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¹⁸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¹⁹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²⁰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²¹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²²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²³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²⁴○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²⁵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분을 두려워하여라(눅 12:2-7)

²⁶○"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 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²⁷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²⁸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h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h 그, '게헨나') ²⁹참새 두 마리가 한 i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i 그, '앗시리온') ³⁰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³¹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눅 12:8-9)

³²○"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³³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칼을 주려고 왔다(눅 12:51-53; 14:26-27)

³⁴○"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³⁵나는, j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j 미 7:6) ³⁶j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j 미 7:6) ³⁷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³⁸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³⁹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보상에 대한 말씀(막 9:41)

⁴⁰○"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⁴¹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⁴²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MATTHEW 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a**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a** 그, '그들의')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눅 7:18-35)

²○그런데 요한은, **b**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c**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b**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 제자를') ³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⁵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d**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d**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 ⁶나에게 **e**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e** 또는 '의심을 품지 않는')

⁷○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⁸**f**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는 왜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⁹**g**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는 왜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¹⁰**h**'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h** 말 3:1) ¹¹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i**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¹²**i**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j**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k**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i** 또는 '침례자' **j** 또는 '폭행을 당한다' **k**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¹³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¹⁴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¹⁵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¹⁶○"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¹⁷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19**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1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녀들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가 있다(눅 10:13-15)

20 "그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굶은 배 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m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m 그, '하데스') **2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눅 10:21-22)

25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n감사합니다.(n 또는 '찬양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다(막 2:23-28; 눅 6:1-5)

MATTHEW 12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2**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a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a 삼상 21:6)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5** b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b 민 28:9)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7** c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c 호 6:6)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막 3:1-6; 눅 6:6-11)

⁹○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¹⁰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¹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¹²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¹³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¹⁴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내가 뽑은 나의 종

¹⁵○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d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리'가 없음) ¹⁶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¹⁷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¹⁸e"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e 사 42:1-3)

¹⁹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²⁰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²¹f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f 사 42:4(칠십인역))

예수와 바알세불(막 3:20-30; 눅 11:14-23; 12:10)

²²○그 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²³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²⁴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²⁵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²⁶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²⁷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g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g 귀신 축출자들을 말함) ²⁸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²⁹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다. ³⁰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³¹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³²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눅 6:43-45)

³³○"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³⁴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³⁵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³⁶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³⁷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을 예언하시다(막 8:11-12; 눅 11:29-32)

³⁸○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h 12:38, 39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³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⁴⁰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⁴¹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⁴²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돌아온다(눅 11:24-26)

⁴³○"i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i 또는 '더러운 귀신') ⁴⁴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⁴⁵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짠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막 3:31-35; 눅 8:19-21)

⁴⁶○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⁴⁷[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⁴⁸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⁴⁹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⁵⁰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막 4:1-9; 눅 8:4-8)

MATTHEW 13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²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³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⁴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⁵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⁶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⁷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⁸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 ⁹a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들을 귀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막 4:10-12; 눅 8:9-10)

¹⁰○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¹¹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¹²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¹³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¹⁴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b'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¹⁵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¹⁶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¹⁷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비유를 해설하시다(막 4:13-20; 눅 8:11-15)

¹⁸○"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¹⁹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²⁰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²¹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²²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²³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²⁴○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c사람과 같다.(c 또는 '사람의 사정과') ²⁵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d가라지를 뿌리고 갔다.(d 그, '독보리를') ²⁶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²⁷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²⁸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²⁹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³⁰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막 4:30-32; 눅 13:18-21)

³¹○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e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e 또는 '겨자씨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과') ³²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³³○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f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g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f 또는 '누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과' g 그, '감추었더니')

비유로 말씀하시다(막 4:33-34)

³⁴○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³⁵이것은 h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i"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 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언자 이사야' i 시 78:2)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36○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37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39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42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a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들을 귀가')

세 가지 비유

44○"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j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j 또는 '보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과') 45○"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k상인과 같다. (k 또는 '상인의 사정과') 46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47○"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48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49세상 끝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50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새 것과 낡은 것

51○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공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 곳을 떠나셨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막 6:1-6; 눅 4:16-30)

54○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1회당에서 m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1 그, '그들의 회당에서' m 그, '그들을') 55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56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57그래서 그들

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⁵⁸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다(막 16:14-29; 눅 9:7-9)

MATTHEW 14 그 무렵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2**"이 사람은 a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3**헤롯은 일찍이, b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 동생의 아내') **4**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5**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6**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7**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써 약속하였다. **8**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a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a 또는 '침례자') **9**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10**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11**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막 6:20-44; 눅 9:10-17; 요 6:1-14)

13○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14**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5**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18**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 오너라." **19**그리고 예수께서는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20**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물 위로 걸으시다(막 6:45-52; 요 6:15-21)

22○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23**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24**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c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25**이

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²⁶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²⁷[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²⁸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²⁹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³⁰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³¹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³²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³³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막 6:53-56)

³⁴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³⁵그 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³⁶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장로들의 전통(막 7:1-23)

MATTHEW 15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²"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³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⁴하나님께서 a말씀하시기를 b'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c'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b 출 20:12; 신 5:16 c 출 21:17; 레 20:9) ⁵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⁶그 사람은 제 d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e말씀을 폐한다.(d 그, '아버지를'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법을') ⁷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⁸f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f 사 29:13(칠십인역))

⁹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¹⁰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¹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¹²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¹³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¹⁴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¹⁵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

니, ¹⁶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¹⁷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¹⁸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¹⁹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²⁰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막 7:24-30)

²¹○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²²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²³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²⁴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²⁵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²⁶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²⁷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²⁸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

²⁹○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³⁰많은 무리가, 걸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³¹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걸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천 명을 먹이시다(막 8:1-10)

³²○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³³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³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³⁵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³⁶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³⁷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³⁸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³⁹예수께서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가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g 다른 고대 사본에는 '막달라' 또는 '막달란')

표징 문제(막 8:11-13; 눅 12:54-56)

MATTHEW 16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a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a 12:38, 39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³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b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b 또는 '표징'. 그, '세메이온') ⁴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막 8:14-21)

⁵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 오는 것을 잊었다.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⁷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⁸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⁹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그 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¹⁰또한 사천 명이 먹은 그 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¹¹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¹²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의 고백(막 8:27-30; 눅 9:18-21)

¹³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¹⁴제자들이 대답하였다. "c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 또는 '침례자') ¹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¹⁶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d그리스도입니다." (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¹⁷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¹⁸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e베드로다. 나는 이 f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g죽음의 h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e 그, '페트로스' f 그, '페트라' g 그, '하데스의', 곧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세계의' h 또는 '세력이') ¹⁹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²⁰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d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막 8:31-9:1; 눅 9:22-27)

21○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25**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26**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27**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28**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예수의 변모(막 9:2-13; 눅 9:28-36)

MATTHEW 17 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2**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3**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4**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a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가') **5**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b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b 또는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6**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7**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8**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9○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11**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12**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3**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c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c 또는 '침례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막 9:14-29; 눅 9:37-43상반)

14○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15**"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16**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¹⁷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¹⁸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왔다. ¹⁹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²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²¹d(21절 없음)(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가 첨가되어 있음)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다(막 9:30-32; 눅 9:43하반-45)

²²○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e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 때에') ²³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성전세를 내시다

²⁴○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f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f 그, '디드라크마(두 드라크마)') ²⁵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²⁶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²⁷그러나 우리가 g그들을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h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뚝으로 그들에게 내어라."(g 또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h 그, '스타테르'. 두 디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함)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막 9:33-37; 눅 9:46-48)

MATTHEW 18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²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³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⁴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⁵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죄의 유혹(막 9:42-48; 눅 17:1-2)

⁶○"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a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a 또는 '죄 짓게') ⁷사람을 a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a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a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a 또는 '죄 짓게')

⁸○"네 손이나 발이 너를 a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a 또는 '죄 짓게') ⁹또 네 눈이 너를 a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b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a 또는 '죄 짓게' b 그, '게헨나')

잃은 양의 비유(눅 15:3-7)

¹⁰○"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¹¹c(11절 없음)(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1.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가 첨가되어 있음) ¹²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 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¹³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¹⁴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d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

용서하라(눅 17:3)

¹⁵○"네 e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e형제를 얻은 것이다.(e 또는 '신도') ¹⁶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f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f 신 19:15) ¹⁷그러나 그 e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e 또는 '신도')

¹⁸○"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¹⁹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²⁰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²¹○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e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e 또는 '신도') ²²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g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g 또는 '일흔일곱 번까지')

²³○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섬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h왕과 같다.(h 또는 '왕의 사정과') ²⁴왕이 섬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i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i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 ²⁵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²⁶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²⁷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²⁸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j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먹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j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²⁹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³⁰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³¹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³²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³³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³⁴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³⁵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k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k 그, '형제')

이혼 문제(막 10:1-12)

MATTHEW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²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³○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⁴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a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a 창 1:27) ⁵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b'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b 창 2:24(칠십인역)) ⁶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⁷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⁸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⁹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¹⁰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¹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¹²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를 축복하시다(막 10:13-16; 눅 18:15-17)

¹³○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¹⁴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¹⁵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부자 젊은이(막 10:17-31; 눅 18:18-30)

¹⁶○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¹⁷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

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¹⁸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c"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c 출 20:12-16; 신 5:16-20) ¹⁹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d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d 레 19:18) ²⁰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e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젊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²¹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²²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²³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²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²⁵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²⁶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²⁷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²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²⁹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f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g백 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와 '자식이나' 사이에 '아내나'가 있음 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 배') ³⁰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포도원의 품꾼들

MATTHEW 20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a주인과 같다.(a 또는 '주인의 사정과') ²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b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b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³ 그리고서 아홉 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⁴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⁵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⁶ 오후 다섯 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⁷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⁸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⁹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¹⁰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¹¹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¹²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¹³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¹⁴당신의 품삯이 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¹⁵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¹⁶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가 첨가되어 있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막 10:32-34; 눅 18:31-34)

¹⁷○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제자'가 없음) ¹⁸"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¹⁹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막 10:35-45)

²⁰○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²¹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²²○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e"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첨가되어 있음) ²³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²⁴○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²⁵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²⁶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²⁷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²⁸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눈 먼 사람 둘을 고치시다(막 10:46-52; 눅 18:35-43)

²⁹○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³⁰그런데 눈 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³¹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³²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³³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³⁴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MATTHEW 21 a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a 그, '그들이') **2**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b'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b 또는 "'주님께서 쓰시고 곧 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4**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c"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 (c 속 9:9)

6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7**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겹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8**큰 무리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d"e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d 시 118:26 e '구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였으나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됨)

10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12o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f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g'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f 사 56:7 g 렘 7:11)

14o성전 뜰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e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e '구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였으나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됨) **16**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어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h'주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h 시 8:2(칠십인역)) **17**예수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막 11:12-14, 20-24)

18○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19마침 길 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20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21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의 권위를 논란하다(막 11:27-33; 눅 20:1-8)

23○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24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25요한의 i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i 또는 '침례') 26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시오." 27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28○"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29j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9.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0.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말하기를 '싫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30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1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k"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k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32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막 12:1-12; 눅 20:9-19)

33○"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34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³⁶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³⁷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³⁸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³⁹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⁴⁰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⁴¹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 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⁴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1'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1 시 118:22,23)

⁴³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⁴⁴[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⁴⁵○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⁴⁶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 잔치의 비유(눅 14:15-24)

MATTHEW 22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³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⁴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⁵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⁶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⁷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⁸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⁹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¹⁰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¹¹○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¹²'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¹³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¹⁴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막 12:13-17; 눅 20:20-26)

¹⁵○그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옳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¹⁶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¹⁷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¹⁸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¹⁹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²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²¹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²²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 두고 떠나갔다.

부활을 두고 묻다(막 12:18-27; 눅 20:27-40)

²³○같은 날 a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²⁴"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²⁵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므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²⁶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²⁷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²⁸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²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³⁰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³¹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³²하나님께서서는 b'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b 출 3:6) ³³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가장 큰 계명(막 12:28-34; 눅 10:25-28)

³⁴○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³⁵그리고 그들 가운데 c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법 교사'가 없음) ³⁶"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³⁷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d'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d 신 6:5) ³⁸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³⁹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e'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e 레 19:18) ⁴⁰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다윗의 자손(막 12:35-37; 눅 20:41-44)

⁴¹○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⁴²"너희는 f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f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⁴³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g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g 그, '영')

⁴⁴h'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h 시 110:1) ⁴⁵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⁴⁶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 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을 꾸짖으시다(막 12:38-40; 눅 11:37-52; 20:45-47)
MATTHEW 23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³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⁴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⁵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a경문 곱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a 성경구절이 들어 있는 곱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님) ⁶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⁷장터에서 인사 받기와, 사람들에게 b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⁸그러나 너희는 b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c형제자매들이다.(b 스승을 일컫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 음역 c 그, '형제들') ⁹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¹⁰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d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¹¹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¹²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¹³○"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¹⁴e(14절 없음)(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4.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첨가되어 있음) ¹⁵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한 f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f 그, '게헨나')

¹⁶○"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¹⁷어리석고 눈 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¹⁸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¹⁹눈 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나?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²⁰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²¹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²²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²³○"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²⁴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²⁵○"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²⁶눈 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²⁷○"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²⁸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²⁹○"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³⁰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³¹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³²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³³맹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³⁴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운 죽이고, 더러운 십자가에 못박고, 더러운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흔으며 박해할 것이다. ³⁵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³⁶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다(눅 13:34-35)

³⁷○"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³⁸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³⁹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g'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g 시 118:26)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다(막 13:1-2; 눅 21:5-6)

MATTHEW 24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재난의 시작(막 13:3-13; 눅 21:7-19)

3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5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6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9"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또 많은 사람이 b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b 또는 '믿음을 잃을 것이요')) 11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흘릴 것이다. 12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이 하늘 나라의 c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c 또는 '기쁜 소식')

가장 큰 재난(막 13:14-23; 눅 21:20-24)

15"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d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d 단 9:27; 11:31; 12:11) 16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7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18밭에 있는 사람은 제 걸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19그 날에는 아이를 뱀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20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그 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23"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24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e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e 12:38, 39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25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26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27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28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인자의 오심(막 13:24-27; 눅 21:25-28)

²⁹ f"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f 사 13:10; 34:4)

³⁰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³¹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막 13:28-31; 눅 21:29-33)

³²o"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³³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g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g 그, '그가') ³⁴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³⁵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막 13:32-37; 눅 17:26-30, 34-36)

³⁶o"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h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음) ³⁷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³⁸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³⁹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⁴⁰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⁴¹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⁴²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i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각에') ⁴³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⁴⁴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눅 12:41-48)

⁴⁵o"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⁴⁶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⁴⁷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⁴⁸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⁴⁹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⁵⁰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⁵¹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

MATTHEW 25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²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³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⁴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⁵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⁶그런데 한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⁷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⁸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⁹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¹⁰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¹¹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¹²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¹³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a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인자가 언제 올지 그 날과.....')

달란트 비유(눅 19:11-27)

¹⁴o"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¹⁵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b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b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 ¹⁶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¹⁷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¹⁸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¹⁹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²⁰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²¹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²²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³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²⁴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²⁵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²⁶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²⁷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²⁸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여라. ²⁹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³⁰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

31"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37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c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c 그, '형제들') 41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43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다.' 44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45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그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를 죽일 음모(막 14:1-2; 눅 22:1-2; 요 11:45-53)

MATTHEW 26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a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3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4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막 14:3-9; 요 12:1-8)

6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b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b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 7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9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10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11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2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13내가 진

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하다(막 14:10-11; 눅 22:3-6)

14○그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닢을 셈하여 주었다. 16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다(막 14:12-21; 눅 22:7-14, 21-23; 요 13:21-30)

17○c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a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c 출 12:15-20을 볼 것 a 출 12:13, 21-28을 볼 것) 18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a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19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a유월절을 준비하였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20○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d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d 그, '열둘과 함께'.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열두 제자') 21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2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23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4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25예수를 넘겨 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지막 만찬(막 14:22-26; 눅 22:15-20; 고전 11:23-25)

26○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28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e언약의 피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새 언약의') 29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다(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38)

31○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f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g'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f 그, '나에게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g 속 13:7) ³²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³³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h주님을 버릴 지라도, 나는 절대로 i버리지 않겠습니다."(h 그, '주님께 걸려 넘어질지라도'i 그, '걸려 넘어 지지') ³⁴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³⁵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막 14:32-42; 눅 22:39-46)

³⁶○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³⁷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³⁸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³⁹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⁴⁰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⁴¹j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j 또는 '유혹') ⁴²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⁴³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⁴⁴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⁴⁵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⁴⁶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잡히시다(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2)

⁴⁷○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⁴⁸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⁴⁹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⁵⁰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⁵¹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⁵²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⁵³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⁵⁴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⁵⁵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⁵⁶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

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의회 앞에 서시다(막 14:53-65; 눅 22:54-55, 63-71; 요 18:12-14, 19-24)

⁵⁷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⁵⁸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 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여 앉았다. ⁵⁹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⁶⁰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 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⁶¹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⁶²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⁶³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k그리스도요?"(k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⁶⁴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⁶⁵그 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⁶⁶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⁶⁷그 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⁶⁸말하였다. "k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k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 25-27)

⁶⁹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⁷⁰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⁷¹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I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I 그, '나사렛 사람') ⁷²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⁷³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⁷⁴그 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⁷⁵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막 15:1; 눅 23:1-2; 요 18:28-32)

MATTHEW 27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²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유다가 자살하다(행 1:18-19)

³○그 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⁴말하였다. "내가 a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의로운 피') ⁵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⁶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⁷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⁸그 발은 오늘날까지 피발이라고 한다. ⁹그래서 예언자 b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c"그들이 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b 사본에 따라 '스가랴' 또는 '이사야' c 속 11:12,13; 렘 19:1-13; 32:6-9) ¹⁰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발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막 15:2-5; 눅 23:3-5; 요 18:33-38)

¹¹○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¹²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³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¹⁴예수께서 한 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막 15:6-15; 눅 23:13-25; 요 18:39-19:16)

¹⁵○명절 때마다 총독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¹⁶그런데 그 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¹⁷우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d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¹⁸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¹⁹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e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e 그, '오늘 꿈에') ²⁰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²¹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²²그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²³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²⁴○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f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의로운 피' 또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 ²⁵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²⁶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막 15:16-20; 요 19:2-3)

27○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28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29가시로 면류관을 얹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30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31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막 15:21-32; 눅 23:26-43; 요 19:17-27)

32○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34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g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g 그, '그에게') 35그들은 h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i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h 그, '그를' i 시 22:18) 36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j(j 다른 고대 사본에는 절 끝에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들끼리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가 첨가되어 있음) 37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38○그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39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40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42"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43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44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45○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k"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k 시 22:1) 47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48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49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l(l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요 19:34)가 첨가되어 있음) 50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53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⁵⁴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⁵⁵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⁵⁶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무덤에 묻히시다(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⁵⁷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⁵⁸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⁵⁹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⁶⁰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러 놓고 갔다. ⁶¹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⁶²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⁶³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⁶⁴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⁶⁵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몰려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⁶⁶그들은 몰려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막 16:1-8; 눅 24:1-12; 요 20:1-10)

MATTHEW 28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³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⁴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⁵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⁶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a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께서') ⁷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b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뵈게 될 것이라고 ⁸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⁹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¹⁰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경비병의 보고

11○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 주고 **13**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4**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15**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제자들의 사명(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16○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17**그들은 예수를 뵈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c세례를 주고,(c 또는 '침례') **20**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d(d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Matthew 1:3 ([Back](#))

[\[1\]](#) **1:3** Greek *Aram*; also verse 4

Footnote from Matthew 1:7 ([Back](#))

[\[2\]](#) **1:7** *Asaph* is probably an alternate spelling of *Asa*; some manuscripts *Asa*; also verse 8

Footnote from Matthew 1:10 ([Back](#))

[\[3\]](#) **1:10** *Amos* is probably an alternate spelling of *Amon*; some manuscripts *Amon*;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Matthew 1:12 ([Back](#))

[\[4\]](#) **1:12** Greek *Salathiel*;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Matthew 1:18 ([Back](#))

[\[5\]](#) **1:18** Some manuscripts *of the Christ*

Footnote from Matthew 1:18 ([Back](#))

[\[6\]](#) **1:18** That is, legally pledged to be married

Footnote from Matthew 2:1 ([Back](#))

[\[1\]](#) **2:1** Greek *magi*; also verses 7, 16

Footnote from Matthew 2:2 ([Back](#))

[\[2\]](#) **2:2** Or *in the east*; also verse 9

Footnote from Matthew 3:3 ([Back](#))

[\[1\]](#) **3:3** Or *crying: Prepare in the wilderness*

Footnote from Matthew 3:16 ([Back](#))

[\[2\]](#) **3:16** Some manuscripts omit *to him*

Footnote from Matthew 3:17 ([Back](#))

[\[3\]](#) **3:17**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Matthew 4:19 ([Back](#))

[\[1\]](#) **4:19** The Greek word *anthropoi* refers here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Matthew 5:9 ([Back](#))

[\[1\]](#) **5:9** Greek *huioi*; see [Preface](#)

Footnote from Matthew 5:16 ([Back](#))

[\[2\]](#) **5:16** Or *house*. ¹⁶*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others that*

Footnote from Matthew 5:22 ([Back](#))

[\[3\]](#) **5:22** Some manuscripts insert *without cause*

Footnote from Matthew 5:22 ([Back](#))

[\[4\]](#) **5:22** Greek *says Raca to* (a term of abuse)

Footnote from Matthew 5:22 ([Back](#))

[\[5\]](#) **5:22** Greek *Gehenna*; also verses 29, 30

Footnote from Matthew 5:26 ([Back](#))

[\[6\]](#) **5:26** Greek *kodrantes*, Roman copper coin (Latin *quadrans*) worth about 1/64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5:37 ([Back](#))

[\[7\]](#) **5:37** Or *the evil one*

Footnote from Matthew 5:40 ([Back](#))

[\[8\]](#) **5:40**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Matthew 5:47 ([Back](#))

[\[9\]](#) **5:47**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brothers* or to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Matthew 6:9 ([Back](#))

[\[1\]](#) **6:9** Or *Let your name be kept holy*, or *Let your name be treated with reverence*

Footnote from Matthew 6:10 ([Back](#))

[\[2\]](#) **6:10** Or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Footnote from Matthew 6:11 ([Back](#))

[\[3\]](#) **6:11** Or *our bread for tomorrow*

Footnote from Matthew 6:13 ([Back](#))

[\[4\]](#) **6:13** Or *the evil one*; some manuscripts add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Footnote from Matthew 6:19 ([Back](#))

[\[5\]](#) **6:19** Or *worm*; also verse 20

Footnote from Matthew 6:24 ([Back](#))

[\[6\]](#) **6:24** Greek *mammon*, a Semitic word for money or possessions

Footnote from Matthew 6:27 ([Back](#))

[\[7\]](#) **6:27** Or *a single cubit to his stature*;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Matthew 7:13 ([Back](#))

[\[1\]](#) **7:13** Some manuscripts *For the way is wide and easy*

Footnote from Matthew 8:2 ([Back](#))

[\[1\]](#) **8: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tthew 8:3 ([Back](#))

[\[2\]](#) **8:3** Greek *he*

Footnote from Matthew 8:9 ([Back](#))

[\[3\]](#) **8:9**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Matthew 8:10 ([Back](#))

[4] 8:10 Some manuscripts *not even in Israel*

Footnote from Matthew 8:28 ([Back](#))

[\[5\]](#) **8:28** Some manuscripts *Gergesenes*; some *Gerasenes*

Footnote from Matthew 8:28 ([Back](#))

[\[6\]](#) **8:28** Greek *daimonizomai*; also verse 33; elsewhere rendered *oppressed by demons*

Footnote from Matthew 9:4 ([Back](#))

[\[1\]](#) **9:4** Some manuscripts *perceiving*

Footnote from Matthew 9:10 ([Back](#))

[\[2\]](#) **9:10** Greek *he*

Footnote from Matthew 9:14 ([Back](#))

[\[3\]](#) **9:14** Some manuscripts add *much*, or *often*

Footnote from Matthew 9:22 ([Back](#))

[\[4\]](#) **9:22** Greek *from that hour*

Footnote from Matthew 10:3 ([Back](#))

[\[1\]](#) **10:3** Some manuscripts *Lebbaeus*, or *Lebbaeus called Thaddaeus*

Footnote from Matthew 10:4 ([Back](#))

[2] 10:4 Greek *kananaios*, meaning *zealot*

Footnote from Matthew 10:8 ([Back](#))

[\[3\]](#) **10:8**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tthew 10:10 ([Back](#))

[\[4\]](#) **10:10**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Matthew 10:24 ([Back](#))

[\[5\]](#) **10:24**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25

Footnote from Matthew 10:25 ([Back](#))
[6] 10:25 Greek lacks *will they malign*

Footnote from Matthew 10:28 ([Back](#))

[\[7\]](#) **10:28** Greek *Gehenna*

Footnote from Matthew 10:29 ([Back](#))

[8] **10:29** Greek *assarion*, Roman copper coin (Latin *quadrans*) worth about 1/16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11:5 ([Back](#))

[\[1\]](#) **11:5**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tthew 11:8 ([Back](#))

[\[2\]](#) **11:8** Or *Why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man . . . ;*

Footnote from Matthew 11:9 ([Back](#))

[\[3\]](#) **11:9** Some manuscripts *Why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Footnote from Matthew 11:12 ([Back](#))

[\[4\]](#) **11:12** Or *has been coming violently*

Footnote from Matthew 11:15 ([Back](#))

[\[5\]](#) **11:15** Some manuscripts omit *to hear*

Footnote from Matthew 11:19 ([Back](#))

[\[6\]](#) **11:19** Some manuscripts *children* (compare Luke 7:35)

Footnote from Matthew 11:26 ([Back](#))

[\[7\]](#) **11:26** Or *for so it pleased you well*

Footnote from Matthew 12:46 ([Back](#))

[1] **12:46** Some manuscripts insert verse 47: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asking to speak to you”*

Footnote from Matthew 13:9 ([Back](#))

[\[1\]](#) **13:9** Some manuscripts add here and in verse 43 *to hear*

Footnote from Matthew 13:21 ([Back](#))

[\[2\]](#) 13:21 Or *stumbles*

Footnote from Matthew 13:25 ([Back](#))

[\[3\]](#) **13:25** Probably *darnel*, a wheat-like weed

Footnote from Matthew 13:27 ([Back](#))

[4] 13:27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28

Footnote from Matthew 13:35 ([Back](#))

[\[5\]](#) **13:35** Some manuscripts *Isaiah the prophet*

Footnote from Matthew 14:3 ([Back](#))

[\[1\]](#) **14:3** Some manuscripts *his brother's wife*

Footnote from Matthew 14:24 ([Back](#))

[\[2\]](#) **14:24** Greek *many stadia*,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Matthew 14:24 ([Back](#))

[\[3\]](#) **14:24** Some manuscripts *was out on the sea*

Footnote from Matthew 14:30 ([Back](#))

[\[4\]](#) **14:30** Some manuscripts *strong wind*

Footnote from Matthew 15:5 ([Back](#))

[\[1\]](#) 15:5 Or *is an offering*

Footnote from Matthew 15:6 ([Back](#))

[\[2\]](#) 15:6 Some manuscripts *law*

Footnote from Matthew 15:14 ([Back](#))

[\[3\]](#) **15:14** Some manuscripts add *of the blind*

Footnote from Matthew 15:17 ([Back](#))

[\[4\]](#) **15:17** Greek *is expelled into the latrine*

Footnote from Matthew 15:28 ([Back](#))

[\[5\]](#) **15:28** Greek *from that hour*

Footnote from Matthew 16:2 ([Back](#))

[\[1\]](#) **16:2** Some manuscripts omit the following words to the end of verse 3

Footnote from Matthew 16:18 ([Back](#))

[\[2\]](#) **16:18** The Greek words for *Peter* and *rock* sound similar

Footnote from Matthew 16:18 ([Back](#))

[\[3\]](#) **16:18** Greek *the gates of Hades*

Footnote from Matthew 16:19 ([Back](#))

[4] 16:19 Or *shall have been bound . . . ; shall have been loosed*

Footnote from Matthew 16:22 ([Back](#))

[\[5\]](#) **16:22** Or “[May God be] *merciful to you, Lord!*”

Footnote from Matthew 16:23 ([Back](#))

[\[6\]](#) **16:23** Greek *stumbling block*

Footnote from Matthew 16:25 ([Back](#))

[\[7\]](#) **16:25** The same Greek word can mean either *soul* or *life*, depending on the context; twice in this verse and twice in verse 26

Footnote from Matthew 17:5 ([Back](#))

[\[1\]](#) **17:5**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Matthew 17:18 ([Back](#))

[\[2\]](#) 17:18 Greek *it*

Footnote from Matthew 17:18 ([Back](#))

[\[3\]](#) **17:18** Greek *the demon*

Footnote from Matthew 17:18 ([Back](#))

[\[4\]](#) **17:18** Greek *from that hour*

Footnote from Matthew 17:20 ([Back](#))

[\[5\]](#) **17:20** Some manuscripts insert verse 21: *But this kind never comes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Footnote from Matthew 17:22 ([Back](#))

[\[6\]](#) **17:22** Some manuscripts *remained*

Footnote from Matthew 17:27 ([Back](#))

[\[7\]](#) **17:27** Greek *stater*, a silver coin worth four drachmas or approximately one shekel

Footnote from Matthew 18:6 ([Back](#))

[\[1\]](#) **18:6** Greek *causes . . . ; to stumble*; also verses 8, 9

Footnote from Matthew 18:7 ([Back](#))

[\[2\]](#) 18:7 Greek *stumbling blocks*

Footnote from Matthew 18:9 ([Back](#))

[\[3\]](#) 18:9 Greek *Gehenna*

Footnote from Matthew 18:10 ([Back](#))

[\[4\]](#) **18:10** Some manuscripts add verse 11: *For the Son of Man came to save the lost*

Footnote from Matthew 18:14 ([Back](#))

[\[5\]](#) **18:14** Some manuscripts *your*

Footnote from Matthew 18:18 ([Back](#))

[\[6\]](#) **18:18** Or *shall have been bound . . . ; shall have been loosed*

Footnote from Matthew 18:23 ([Back](#))

[\[7\]](#) **18:23**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s 28, 31

Footnote from Matthew 18:24 ([Back](#))

[8] 18:24 A *talent* was a monetary unit worth about twenty years' wages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18:26 ([Back](#))

[\[9\]](#) **18:26**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27, 28, 29, 32, 33

Footnote from Matthew 18:28 ([Back](#))

[\[10\]](#) 18:28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18:34 ([Back](#))

[\[11\]](#) **18:34** Greek *torturers*

Footnote from Matthew 19:9 ([Back](#))

[\[1\]](#) **19:9** Some manuscripts add *and whoever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other manuscripts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commit adultery, and whoever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Footnote from Matthew 19:28 ([Back](#))

[\[2\]](#) **19:28** Greek *in the regeneration*

Footnote from Matthew 19:29 ([Back](#))

[\[3\]](#) **19:29** Some manuscripts *manifold*

Footnote from Matthew 20:2 ([Back](#))

[\[1\]](#) **20:2**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20:15 ([Back](#))

[\[2\]](#) **20:15** Or *is your eye bad because I am good?*

Footnote from Matthew 20:26 ([Back](#))

[\[3\]](#) 20:26 Greek *diakonos*

Footnote from Matthew 20:27 ([Back](#))

[\[4\]](#) 20:27 Greek *bondservant* (*doulos*)

Footnote from Matthew 20:30 ([Back](#))

[\[5\]](#) **20:30** Some manuscripts omit *Lord*

Footnote from Matthew 21:5 ([Back](#))

[\[1\]](#) **21:5** Or *donkey, and on a colt,*

Footnote from Matthew 21:12 ([Back](#))

[\[2\]](#) **21:12** Some manuscripts add *of God*

Footnote from Matthew 21:34 ([Back](#))

[\[3\]](#) **21:34**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s 35, 36

Footnote from Matthew 21:42 ([Back](#))

[4] 21:42 Greek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Matthew 21:44 ([Back](#))

[\[5\]](#) **21:44** Some manuscripts omit verse 44

Footnote from Matthew 22:3 ([Back](#))

[\[1\]](#) **22:3**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s 4, 6, 8, 10

Footnote from Matthew 22:16 ([Back](#))

[\[2\]](#) **22:16** Greek *for you do not look at people's faces*

Footnote from Matthew 22:19 ([Back](#))

[\[3\]](#) **22:19**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23:4 ([Back](#))

[\[1\]](#) **23:4** Some manuscripts omit *hard to bear*

Footnote from Matthew 23:7 ([Back](#))

[\[2\]](#) **23:7** *Rabbi* means *my teacher*, or *my master*; also verse 8

Footnote from Matthew 23:8 ([Back](#))

[\[3\]](#) **23:8**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Matthew 23:13 ([Back](#))

[4] 23:13 Some manuscripts add here (or after verse 12) verse 14: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se you make long prayers; therefore you wi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Footnote from Matthew 23:15 ([Back](#))

[\[5\]](#) **23:15** Greek *Gehenna*; also verse 33

Footnote from Matthew 23:35 ([Back](#))

[\[6\]](#) **23:35** Some manuscripts omit *the son of Barachiah*

Footnote from Matthew 24:10 ([Back](#))

[\[1\]](#) **24:10** Or *stumble*

Footnote from Matthew 24:36 ([Back](#))

[\[2\]](#) **24:36** Some manuscripts omit *nor the Son*

Footnote from Matthew 24:45 ([Back](#))

[\[3\]](#) **24:45**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46, 48, 50

Footnote from Matthew 24:49 ([Back](#))

[\[4\]](#) **24:49**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Matthew 25:1 ([Back](#))

[\[1\]](#) **25:1** Or *torches*

Footnote from Matthew 25:1 ([Back](#))

[\[2\]](#) **25:1** Some manuscripts add *and the bride*

Footnote from Matthew 25:14 ([Back](#))

[\[3\]](#) **25:14**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19

Footnote from Matthew 25:15 ([Back](#))

[\[4\]](#) **25:15** A *talent* was a monetary unit worth about twenty years' wages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tthew 25:21 ([Back](#))

[\[5\]](#) **25:21**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23, 26, 30

Footnote from Matthew 25:40 ([Back](#))

[\[6\]](#) **25:40**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Matthew 26:6 ([Back](#))

[\[1\]](#) **26:6**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tthew 26:20 ([Back](#))

[\[2\]](#) **26:20** Some manuscripts add *disciples*

Footnote from Matthew 26:28 ([Back](#))
[3] **26:28** Some manuscripts insert *new*

Footnote from Matthew 26:38 ([Back](#))

[4] 26:38 Or *keep awake*; also verses 40, 41

Footnote from Matthew 26:45 ([Back](#))

[\[5\]](#) **26:45** Or *Are you still sleeping and taking your rest?*

Footnote from Matthew 26:50 ([Back](#))

[\[6\]](#) 26:50 Or *Friend, why are you here?*

Footnote from Matthew 26:51 ([Back](#))

[\[7\]](#) **26:51**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Matthew 26:59 ([Back](#))

[\[8\]](#) **26:59** Greek *Sanhedrin*

Footnote from Matthew 26:62 ([Back](#))

[\[9\]](#) **26:62** Or *Have you no answer to w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Footnote from Matthew 27:3 ([Back](#))

[\[1\]](#) 27:3 Greek *he*

Footnote from Matthew 27:24 ([Back](#))

[\[2\]](#) **27:24** Some manuscripts *this righteous blood*, or *this righteous man's blood*

Footnote from Matthew 27:26 ([Back](#))

[3] 27:26 A Roman judicial penalty, consisting of a severe beating with a multi-lashed whip containing imbedded pieces of bone and metal

Footnote from Matthew 27:27 ([Back](#))

[\[4\]](#) 27:27 Greek *the praetorium*

Footnote from Matthew 27:27 ([Back](#))

[\[5\]](#) **27:27** Greek *cohort*; a tenth of a Roman legion, usually about 600 men

Footnote from Matthew 27:45 ([Back](#))

[\[6\]](#) **27:45** That is, noon

Footnote from Matthew 27:45 ([Back](#))

[\[7\]](#) 27:45 Or *earth*

Footnote from Matthew 27:45 ([Back](#))

[8] 27:45 That is, 3 P.M.

Footnote from Matthew 27:54 ([Back](#))

[\[9\]](#) 27:54 Or *a son*

Footnote from Matthew 27:65 ([Back](#))

[\[10\]](#) **27:65** Or *Take a guard*

Footnote from Matthew 28:6 ([Back](#))

[\[1\]](#) **28:6** Some manuscripts *the Lord*

Footnote from Matthew 28:19 ([Back](#))

[\[2\]](#) **28:19** Or *into*

마가복음

[\(return to table of contents\)](#)

[Mark 1](#) • [Mark 2](#) • [Mark 3](#) • [Mark 4](#) • [Mark 5](#) • [Mark 6](#) • [Mark 7](#) • [Mark 8](#) • [Mark 9](#) • [Mark 10](#)
• [Mark 11](#) • [Mark 12](#) • [Mark 13](#) • [Mark 14](#) • [Mark 15](#) • [Mark 16](#)

마가복음

세례자 요한의 선포(마 3:1-12; 눅 3:1-9, 15-17; 요 1:19-28)

MARK 1 a하나님의 아들 예수 b그리스도의 c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b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c 또는 '기쁜 소식')

2o d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e"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f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언서들에' e 말 3:1 f 그, '네 얼굴 앞에')
3g"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g 사 40:3(칠십인역)) 4h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i세례를 선포하였다.(h 또는 '침례자' i 또는 '침례') 5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i세례를 받았다. 6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8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i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i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i 또는 '침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마 3:13-17; 눅 3:21-22)

9o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i세례를 받으셨다.(i 또는 '침례') 10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j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j 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시험을 받으시다(마 4:1-11; 눅 4:1-13)

12o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마 4:12-17; 눅 4:14-15)

14o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k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k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15"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제자 넷을 부르시다(마 4:18-22; 눅 5:1-11)

¹⁶○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⁷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 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¹⁸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¹⁹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낚고 있는 것을 보시고, ²⁰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눅 4:31-37)

²¹○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²²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²³그 때에 회당에 1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I 그, '더러운') ²⁴"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²⁵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²⁶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²⁷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²⁸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마 8:14-17; 눅 4:38-41)

²⁹○m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m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는') ³⁰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³¹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³²○해가 저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³³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³⁴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눅 4:42-44)

³⁵○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³⁶그 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³⁷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³⁹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마 8:1-4; 눅 5:12-16)

⁴⁰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⁴¹예수께서 그를 붙잡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⁴²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n 나병을 포함한 각종 악성 피부병) ⁴³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⁴⁴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⁴⁵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마 9:1-8; 눅 5:17-26)

MARK 2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²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³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⁴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⁵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⁶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⁷'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⁸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⁹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¹⁰그러나 a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a 그, '사람의 아들') ¹¹"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¹²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레위를 부르시다(마 9:9-13; 눅 5:27-32)

¹³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c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b 그, '그가' c 그, '그에게로') ¹⁴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b 그, '그가')

¹⁵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d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e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b 그, '그가' d 그, '비스듬히 누웠는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가지는 자세 e 그,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¹⁶f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g음식을 먹습니까?"(f 다른 고대사본들에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먹고 마실

니까?) ¹⁷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금식 논쟁(마 9:14-17; 눅 5:33-39)

¹⁸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¹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²⁰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²¹"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대고 밟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낚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²²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마 12:1-8; 눅 6:1-5)

²³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i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i 또는 '길을 가면서') ²⁴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²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²⁶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²⁷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²⁸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마 12:9-14; 눅 6:6-11)

MARK 3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²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³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⁴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⁵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⁶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⁷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⁸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

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⁹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¹⁰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¹¹또 a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a 그, '더러운') ¹²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열두 제자를 뽑으시다(마 10:1-4; 눅 6:12-16)

¹³○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¹⁴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¹⁵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¹⁶[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¹⁷'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¹⁸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b열혈당원 시몬과, (b 또는 '가나안 사람') ¹⁹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예수와 바알세불(마 12:22-32; 눅 11:14-23; 12:10)

²⁰○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²¹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²²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²³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²⁴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²⁵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²⁶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²⁷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²⁸○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²⁹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³⁰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a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a 그, '더러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마 12:46-50; 눅 8:19-21)

³¹○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³²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c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누이들'이 없음) ³³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³⁴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d형제자매들

이다.(d 그, '형제들') ³⁵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마 13:1-9; 눅 8:4-8)

MARK 4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물에 있었다. ²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³"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⁴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⁵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⁶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⁷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⁸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되었다." ⁹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마 13:10-17; 눅 8:9-10)

¹⁰○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¹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a수수께끼로 들린다.(a 그, '비유로') ¹²그것은
b'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b 사 6:9, 10(칠십인역))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설명(마 13:18-23; 눅 8:11-15)

¹³○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¹⁴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¹⁵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¹⁶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¹⁷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¹⁸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¹⁹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²⁰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어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등불은 등경 위에(눅 8:16-18)

21○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22**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23**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25**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26○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7**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낱알을 낸다. **29**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든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겨자씨 비유(마 13:31-32; 눅 13:18-19)

30○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c 또는 '겨자씨와 관련된 사정과 같으니') **32**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로 가르치시다(마 13:34-35)

33○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34**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마 8:23-27; 눅 8:22-25)

35○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36**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7**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38**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마 8:28-34; 눅 8:26-39)

MARK 5 그들은 바다 건너편 a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겔게사' 또는 '가다라' 또는 '가자라') ²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b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³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⁴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⁵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⁶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⁷큰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⁸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b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⁹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¹⁰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¹¹○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¹²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¹³예수께서 허락하시니, b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b 그, '더러운') ¹⁴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¹⁵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c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c '레기온'. 로마 군대의 한 사단, 약 6,000명) ¹⁶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¹⁷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¹⁸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¹⁹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²⁰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d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d '열 도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마 9:18-26; 눅 8:40-56)

²¹○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²²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²³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²⁴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²⁵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었다. ²⁶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²⁷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²⁸(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e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e 그, '말하고') ²⁹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³⁰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³¹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³²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³³그 여자는 자

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³⁴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³⁵○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³⁶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³⁷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³⁸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³⁹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⁴⁰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⁴¹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⁴²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⁴³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마 13:53-58; 눅 4:16-30)

MARK 6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²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³이 사람은 a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b달감지 않게 여겼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b '꺼려 하였다' 또는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⁴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⁵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⁶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열두 제자를 선교에 파송하시다(마 10:1, 5-15; 눅 9:1-6)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⁷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c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c 그, '더러운') ⁸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⁹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¹⁰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¹¹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¹²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¹³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마 14:1-12; 눅 9:7-9)

14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d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15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16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17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18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19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21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22e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딸 헤로디아가') 23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4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d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25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d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d 또는 '침례자') 26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27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28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30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31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32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33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이르렀다. 34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37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f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f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38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39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

셨다. ⁴⁰그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⁴¹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⁴²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⁴³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⁴⁴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마 14:22-33; 요 6:15-21)

⁴⁵○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⁴⁶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⁴⁷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⁴⁸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⁴⁹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⁵⁰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⁵¹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⁵²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마 14:34-36)

⁵³○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⁵⁴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⁵⁵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⁵⁶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 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장로들의 전통(마 15:1-20)

MARK 7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²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³-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4a}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b침대를 씻는 일이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정결하지 않게 하고서는 먹지 않았다'가 없음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침대'가 없음) ⁵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c'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c 사 29:13(칠십인역)) ⁷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⁸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⁹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¹⁰모세가 말하기를 d'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e'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d 출 20:12; 신 5:16 e 출 21:17; 레 20:9) ¹¹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까'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¹²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¹³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¹⁴○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⁵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¹⁶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f'(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가 첨가되어 있음) ¹⁷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¹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¹⁹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²⁰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²¹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²²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²³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마 15:21-28)

²⁴○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g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²⁵h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h 그, '더러운') ²⁶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²⁷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²⁸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²⁹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³⁰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³¹○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i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i '열 도시') ³²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³³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³⁴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³⁵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³⁶j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j 그, '그가') ³⁷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사천 명을 먹이시다(마 15:32-39)

MARK 8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²"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있다. ³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⁴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⁶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⁷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⁸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⁹사람은 사천 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해쳐 보내셨다. ¹⁰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a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마게다' 또는 '막달라')

표징을 거절하시다(마 16:1-4)

¹¹o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¹²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¹³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마 16:5-12)

¹⁴ob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b 그, '그들이') ¹⁵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¹⁶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¹⁷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¹⁸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¹⁹내가 빵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20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새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22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23**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c 그, '그가') **25** 그 때에 d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d 그, '그는') **26**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마을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가 첨가되어 있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마 16:13-20; 눅 9:18-21)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f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f 또는 '침례자')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g 그리스도이십니다." (g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쁨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30**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마 16:21-28; 눅 9:22-27)

31 그리고 예수께서는, h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h 그, '사람의 아들이') **32**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4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38**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MARK 9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마 17:1-13; 눅 9:28-36)

2 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3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5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a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a '스승') 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7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b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b 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8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11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마 17:14-20; 눅 9:37-43상반)

14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17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18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20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4 그 아이 아버지는 c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울면서 큰소리로') 25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d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d

그, '더러운') ²⁶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²⁷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²⁸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 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²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e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마 17:22-23; 눅 9:43하반-45)

³⁰○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³¹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³²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누가 크냐(마 18:1-5; 눅 9:46-48)

³³○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³⁴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³⁵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³⁶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⁷"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눅 9:49-50)

³⁸○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f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³⁹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⁴⁰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⁴¹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죄의 유혹(마 18:6-9; 눅 17:1-2)

⁴²○"또 g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h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이 없음 h 그, '넘어지게') ⁴³네 손이 너를 h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h 그, '넘어지게') ⁴⁴i(44절 없음)i 권위있는 고대의 사본들에는 44절과 46절이 없음. 후대 사

본에는 44절과 46절에 48절과 같은 본문이 첨가되어 있음) ⁴⁵네 발이 너를 h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j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h 그, '넘어지게' j 그, '게헨나') ⁴⁶i(46절 없음)(i 권위있는 고대의 사본들에는 44절과 46절이 없음. 후대 사본에는 44절과 46절에 48절과 같은 본문이 첨가되어 있음) ⁴⁷또 네 눈이 너를 h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j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h 그, '넘어지게' j 그, '게헨나') ⁴⁸j지옥에서는 k'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j 그, '게헨나' k 사 66:24 l 그, '그들의 벌레들') ⁴⁹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⁵⁰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혼을 비판하시다(마 19:1-12)

MARK 10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²○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³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⁴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⁵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⁶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a'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a 창 1:27) ⁷b'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b 창 2:24) ⁸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⁹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¹⁰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¹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¹²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마 19:13-15; 눅 18:15-17)

¹³○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그들을 꾸짖었다. ¹⁴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¹⁵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¹⁶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부자 젊은이(마 19:16-30; 눅 18:18-30)

¹⁷○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¹⁸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¹⁹너는 계명을 알고있을 것이다. c'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c 출 20:12-16; 신 5:16-20) ²⁰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²¹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²²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²³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다." ²⁴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²⁵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²⁶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d서로 말하였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에게') ²⁷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²⁸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²⁹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e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e 또는 '기쁜 소식') ³⁰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³¹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마 20:17-19; 눅 18:31-34)

³²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³³"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³⁴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마 20:20-28)

³⁵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³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³⁷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³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f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f 또는 '침례') ³⁹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f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f 또는 '침례') ⁴⁰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⁴¹○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⁴²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⁴³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⁴⁴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⁴⁵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눈먼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마 20:29-34; 눅 18:35-43)

⁴⁶○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⁴⁷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⁴⁸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⁴⁹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⁵⁰그는 자기의 겂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⁵¹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g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g 아람어, '라부니') ⁵²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마 21:1-11; 눅 19:28-40; 요 12:12-19)

MARK 11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²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³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⁴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⁵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⁶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⁷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⁸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겂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⁹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a"b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a 시 118:25, 26 b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여기에는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됨)
¹⁰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마 21:18-19)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마 21:12-17; 눅 19:45-48; 요 2:13-22)

15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c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c 그, '성전에서' 곧 '성전 바깥 뜰에서') **16** d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d 그, '성전 바깥 뜰을') **17**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e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f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e 사 56:7 f 렘 7:11)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저녁때가 되면, g 예수와 제자들은 으레 성 밖으로 나갔다. (g 그, '그들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는')

무화과나무가 마르다(마 21:20-22)

20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21**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h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h '스승') **2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 i (26절 없음) (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6.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의 권한을 두고 논란하다(마 21:23-27; 눅 20:1-8)

27○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c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c 그, '성전에서' 곧 '성전 바깥 뜰에서') 28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29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30요한의 j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j 또는 '침례') 31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32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3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마 21:33-46; 눅 20:9-19)

MARK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2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 손으로 돌려보냈다. 4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5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6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7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8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9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10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a'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b머릿돌이 되었다. (a 시 118:22, 23 b 또는 '모퉁이 돌')

11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12○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마 22:15-22; 눅 20:20-26)

¹³○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¹⁴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c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¹⁵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¹⁶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c황제의 것입니다." ¹⁷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c황제의 것은 c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c 그, '가이사')

부활 논쟁(마 22:23-33; 눅 20:27-40)

¹⁸○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¹⁹"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²⁰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²¹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²²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²³[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²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²⁵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²⁶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d'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느냐?(d 출 3:6) ²⁷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있다."

가장 큰 계명(마 22:34-40; 눅 10:25-28)

²⁸○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²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e'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e 신 6:4, 5) ³⁰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³¹둘째는 이것이다. f'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f 레 19:18) ³²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³³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³⁴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마 22:41-46; 눅 20:41-44)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g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36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h'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h 시 110:1)

37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o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다(마 23:1-36; 눅 20:45-47)

38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헌금(눅 21:1-4)

41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렵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4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마 24:1-2; 눅 21:5-6)

MARK 13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재난의 징조(마 24:3-14; 눅 21:7-19)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4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7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⁸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⁹○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¹⁰먼저 a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a 또는 '기쁜 소식') ¹¹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¹²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¹³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마 24:15-28; 눅 21:20-24)

¹⁴○"b'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 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b 단 9:27; 11:31; 12:11) ¹⁵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¹⁶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¹⁷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¹⁸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¹⁹그 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²⁰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 ²¹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c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c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²²거짓 d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 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d 또는 '메시아들') ²³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인자가 오심(마 24:29-31; 눅 21:25-28)

²⁴"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e'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e 사 13:10; 34:4)

²⁵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²⁶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²⁷그 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마 24:32-35; 눅 21:29-33)

²⁸○"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²⁹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

까이 온 줄을 알아라. ³⁰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³¹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 때(마 24:36-44)

³²○"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³³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³⁴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³⁵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 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³⁶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³⁷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를 죽일 음모(마 26:1-5; 눅 22:1-2; 요 11:45-53)

MARK 14 a유월절과 b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b 출 12:15-20을 볼 것) ²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마 26:6-13; 요 12:1-8)

³○예수께서 베다니에서 c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c 나병을 포함한 각종 악성 피부병) ⁴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⁵이 향유는 삼백 d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d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⁶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⁷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⁸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⁹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e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e 또는 '기쁜 소식')

유다가 배반하다(마 26:14-16; 눅 22:3-6)

¹⁰○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¹¹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다(마 26:17-25; 눅 22:7-14, 21-23; 요 13:21-30)

¹²○b무교절 첫째 날에, 곧 a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a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b 출 12:15-20을 볼 것 a 출 12:13, 21-28을 볼 것) ¹³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¹⁴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a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a 출 12:13, 21-28을 볼 것) ¹⁵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¹⁶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a유월절을 준비하였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¹⁷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¹⁸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¹⁹그들은 근심에 싸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²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f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빵'이 없음) ²¹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겐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 만찬(마 26:26-30; 눅 22:15-20; 고전 11:23-25)

²²○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²³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²⁴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g언약의 피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새 언약') ²⁵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²⁶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다(마 26:31-35; 눅 22:31-34; 요 13:36-38)

²⁷○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h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i'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h 그, '나를 버릴 것이다' i 속 13:7) ²⁸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²⁹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j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j 그, '버릴지라도') ³⁰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³¹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마 26:36-46; 눅 22:39-46)

³²○그들은 겿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³³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³⁴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³⁵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³⁶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k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k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³⁷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³⁸너희는 1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1 또는 '시험에') ³⁹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⁴⁰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⁴¹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m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m 또는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느냐?') ⁴²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잡히시다(마 26:47-56; 눅 22:47-53; 요 18:2-12)

⁴³○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⁴⁴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⁴⁵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n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n '스승') ⁴⁶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⁴⁷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⁴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⁴⁹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⁵⁰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맨몸으로 달아나다

⁵¹○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흙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⁵²그는 흙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의회 앞에 서시다(마 26:57-68;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⁵³○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⁵⁴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⁵⁵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⁵⁶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⁵⁷더러는 일어

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58**"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59**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o그리스도요?"(o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62**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63**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64**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65**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 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마 **26:69-75**; 눅 **22:56-62**; 요 **18:15-18, 25-27**)
66o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67**베드로가 불을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뵈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68**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p바깥 돌로 나갔다.(p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 때에 닭이 울었다') **69**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70**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71**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2**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옆드려서 울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마 **27:1-2, 11-14**; 눅 **23:1-5**; 요 **18:28-38**)

MARK 15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2**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3**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4**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5**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 받으시다(마 **27:15-26**; 눅 **23:13-25**; 요 **18:39-19:16**)

6o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곤 하였다. **7**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8**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⁹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¹⁰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¹¹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¹²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a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오?') ¹³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¹⁴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¹⁵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다(마 27:27-31; 요 19:2-3)

¹⁶○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 곳은 총독 공관이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¹⁷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¹⁸"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¹⁹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²⁰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마 27:32-44; 눅 23:26-43; 요 19:17-27)

²¹○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²²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²³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²⁴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²⁵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b아침 아홉 시였다.(b 그, '제 삼시') ²⁶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²⁷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²⁸c(28절 없음)(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8.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²⁹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³⁰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³¹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³²이스라엘의 왕 d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마 27:45-56; 눅 23:44-49; 요 19:28-30)

³³○낮 열두 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³⁴세 시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으셨다. e"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f어찌하여 g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e 시 22:1 f 또는 '무엇

하시려고' 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를 꾸짖으십니까?') ³⁵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³⁶어떤 사람이 달려가
서, 해면을 싼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
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두고 봅시다." ³⁷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³⁸(그 때
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³⁹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h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셨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큰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⁴⁰여자들
도 멀찍이서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⁴¹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마 27:57-61; 눅 23:50-56; 요 19:38-42)

⁴²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⁴³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
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⁴⁴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
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⁴⁵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⁴⁶요셉은 삼베를 사 가
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베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⁴⁷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
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마 28:1-8; 눅 24:1-12; 요 20:1-10)

MARK 16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²그래서 a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a 또는 '안식일 첫날') ³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
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⁴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⁵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⁶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
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
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यो. ⁷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⁸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
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b(b 권위를 인
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
절 끝에 '짧은 끝맺음'(9절의 주를 볼 것)을 가지고 있음.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20절의 '긴 끝맺음'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들 대다수는 8절 뒤에 곧
바로 9-20절의 '긴 끝맺음'을 기록하였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마 28:9-10; 요 20:11-18)

⁹οc[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c '마가복음서의 긴 끝맺음'(16:9-20). 이 긴 끝맺음 대신에 '마가복음서의 짧은 끝맺음'만을 가진 사본들도 있다. '그 여자들은 명령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¹⁰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¹¹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눅 24:13-35)

¹²ο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¹³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다(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¹⁴ο그 뒤에 d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d 그, '열한 명이') ¹⁵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e복음을 전파하여라.(e 또는 '기쁜 소식') ¹⁶믿고 f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f 또는 '침례') ¹⁷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¹⁸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의 승천(눅 24:50-53; 행 1:9-11)

¹⁹ο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²⁰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g(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첨가되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Mark 1:1 ([Back](#))

[\[1\]](#) **1:1** Some manuscripts omit *the Son of God*

Footnote from Mark 1:2 ([Back](#))

[\[2\]](#) **1:2** Some manuscripts *in the prophets*

Footnote from Mark 1:3 ([Back](#))

[\[3\]](#) **1:3** Or *crying: Prepare in the wilderness*

Footnote from Mark 1:11 ([Back](#))

[\[4\]](#) **1:11**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Mark 1:17 ([Back](#))

[\[5\]](#) **1:17** The Greek word *anthropoi* refers here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Mark 1:29 ([Back](#))

[\[6\]](#) **1:29** Some manuscripts *they*

Footnote from Mark 1:40 ([Back](#))

[\[7\]](#) **1:40**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rk 1:43 ([Back](#))

[\[8\]](#) **1:43** Greek *he*; also verse 45

Footnote from Mark 2:16 ([Back](#))

[\[1\]](#) **2:16** Some manuscripts *and*

Footnote from Mark 2:16 ([Back](#))

[\[2\]](#) **2:16** Some manuscripts add *and drink*

Footnote from Mark 2:22 ([Back](#))

[\[3\]](#) **2:22** Some manuscripts omit *But new wine is for fresh wineskins*

Footnote from Mark 2:26 ([Back](#))

[\[4\]](#) **2:26** Or *in the passage about*

Footnote from Mark 3:2 ([Back](#))

[\[1\]](#) 3:2 Greek *him*

Footnote from Mark 3:18 ([Back](#))

[\[2\]](#) **3:18** Greek *kananaios*, meaning *zealot*

Footnote from Mark 3:32 ([Back](#))

[\[3\]](#) **3:32** Other early manuscripts add *and your sisters*

Footnote from Mark 4:17 ([Back](#))

[\[1\]](#) 4:17 Or *stumble*

Footnote from Mark 5:1 ([Back](#))

[\[1\]](#) **5:1** Some manuscripts *Gergesenes*; some *Gadarenes*

Footnote from Mark 5:2 ([Back](#))

[\[2\]](#) **5:2** Greek *he*; also verse 9

Footnote from Mark 5:15 ([Back](#))

[\[3\]](#) **5:15** Greek *daimonizomai*; also verses 16, 18; elsewhere rendered *oppressed by demons*

Footnote from Mark 5:17 ([Back](#))

[\[4\]](#) 5:17 Greek *him*

Footnote from Mark 5:36 ([Back](#))

[\[5\]](#) **5:36** Or *ignoring*; some manuscripts *hearing*

Footnote from Mark 5:38 ([Back](#))

[\[6\]](#) **5:38** Greek *he*

Footnote from Mark 6:9 ([Back](#))

[\[1\]](#) **6:9**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Mark 6:14 ([Back](#))

[\[2\]](#) 6:14 Greek *his*

Footnote from Mark 6:14 ([Back](#))

[\[3\]](#) **6:14** Some manuscripts *He*

Footnote from Mark 6:14 ([Back](#))

[\[4\]](#) **6:14** Greek *baptizer*; also verse 24

Footnote from Mark 6:27 ([Back](#))

[\[5\]](#) 6:27 Greek *his*

Footnote from Mark 6:37 ([Back](#))

[\[6\]](#) **6:37**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rk 6:48 ([Back](#))

[\[7\]](#) **6:48** That is, between 3 A.M. and 6 A.M.

Footnote from Mark 7:3 ([Back](#))

[\[1\]](#) **7:3** Greek *unless they wash the hands with a fist*, probably indicating a kind of ceremonial washing

Footnote from Mark 7:4 ([Back](#))

[\[2\]](#) 7:4 Greek *unless they baptize*; some manuscripts *unless they purify themselves*

Footnote from Mark 7:4 ([Back](#))

[\[3\]](#) 7:4 Some manuscripts omit *and dining couches*

Footnote from Mark 7:11 ([Back](#))

[\[4\]](#) 7:11 Or *an offering*

Footnote from Mark 7:15 ([Back](#))

[\[5\]](#) **7:15** Some manuscripts add verse 16: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Footnote from Mark 7:19 ([Back](#))

[\[6\]](#) 7:19 Greek *goes out into the latrine*

Footnote from Mark 7:24 ([Back](#))

[\[7\]](#) **7:24** Some manuscripts omit *and Sidon*

Footnote from Mark 7:36 ([Back](#))

[\[8\]](#) 7:36 Greek *he*

Footnote from Mark 8:10 ([Back](#))

[\[1\]](#) **8:10** Some manuscripts *Magadan*, or *Magdala*

Footnote from Mark 8:15 ([Back](#))

[\[2\]](#) **8:15** Some manuscripts *the Herodians*

Footnote from Mark 8:25 ([Back](#))

[\[3\]](#) **8:25** Greek *he*

Footnote from Mark 8:35 ([Back](#))

[\[4\]](#) **8:35** The same Greek word can mean either *soul* or *life*, depending on the context; twice in this verse and once in verse 36 and once in verse 37

Footnote from Mark 9:3 ([Back](#))

[\[1\]](#) **9:3** Greek *launderer* (*gnapheus*)

Footnote from Mark 9:5 ([Back](#))

[2] **9:5** *Rabbi* means *my teacher*, or *my master*

Footnote from Mark 9:7 ([Back](#))

[\[3\]](#) **9:7**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Mark 9:24 ([Back](#))

[\[4\]](#) **9:24** Some manuscripts add *with tears*

Footnote from Mark 9:29 ([Back](#))

[\[5\]](#) **9:29** Some manuscripts add *and fasting*

Footnote from Mark 9:38 ([Back](#))

[\[6\]](#) **9:38** Some manuscripts add *who does not follow us*

Footnote from Mark 9:42 ([Back](#))

[\[7\]](#) **9:42** Greek *to stumble*; also verses 43, 45, 47

Footnote from Mark 9:43 ([Back](#))

[\[8\]](#) 9:43 Greek *Gehenna*; also verse 47

Footnote from Mark 9:43 ([Back](#))

[\[9\]](#) **9:43** Some manuscripts add verses 44 and 46 (which are identical with verse 48)

Footnote from Mark 9:49 ([Back](#))

[\[10\]](#) **9:49** Some manuscripts add *and every sacrifice will be salted with salt*

Footnote from Mark 10:7 ([Back](#))

[\[1\]](#) **10:7** Some manuscripts omit *and hold fast to his wife*

Footnote from Mark 10:24 ([Back](#))

[\[2\]](#) **10:24** Some manuscripts add *for those who trust in riches*

Footnote from Mark 10:26 ([Back](#))

[\[3\]](#) **10:26** Some manuscripts *to one another*

Footnote from Mark 10:43 ([Back](#))

[\[4\]](#) **10:43** Greek *diakonos*

Footnote from Mark 10:44 ([Back](#))

[\[5\]](#) **10:44** Greek *bondservant* (*doulos*)

Footnote from Mark 11:1 ([Back](#))

[\[1\]](#) 11:1 Greek *he*

Footnote from Mark 11:19 ([Back](#))

[\[2\]](#) **11:19** Some manuscripts *he*

Footnote from Mark 11:24 ([Back](#))

[\[3\]](#) **11:24** Some manuscripts *are receiving*

Footnote from Mark 11:25 ([Back](#))

[4] **11:25** Some manuscripts add verse 26: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es*

Footnote from Mark 12:2 ([Back](#))

[\[1\]](#) **12:2**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4

Footnote from Mark 12:10 ([Back](#))

[\[2\]](#) **12:10** Greek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Mark 12:14 ([Back](#))

[\[3\]](#) **12:14** Greek *you do not look at people's faces*

Footnote from Mark 12:15 ([Back](#))

[\[4\]](#) **12:15**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rk 12:19 ([Back](#))

[\[5\]](#) 12:19 Greek *his brother*

Footnote from Mark 12:42 ([Back](#))

[\[6\]](#) **12:42** Greek *two lepta*, which make a *kodrantes*; a *kodrantes* (Latin *quadrans*) was a Roman copper coin worth about 1/64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rk 13:33 ([Back](#))

[\[1\]](#) **13:33** Some manuscripts add *and pray*

Footnote from Mark 13:34 ([Back](#))

[\[2\]](#) **13:34**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Mark 13:35 ([Back](#))

[\[3\]](#) **13:35** That is, the third watch of the night, between midnight and 3 A.M.

Footnote from Mark 14:3 ([Back](#))

[\[1\]](#) **14:3**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Mark 14:5 ([Back](#))

[\[2\]](#) **14:5**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Mark 14:24 ([Back](#))

[\[3\]](#) **14:24** Some manuscripts insert *new*

Footnote from Mark 14:34 ([Back](#))

[\[4\]](#) **14:34** Or *keep awake*; also verses 37, 38

Footnote from Mark 14:47 ([Back](#))

[\[5\]](#) 14:47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Mark 14:55 ([Back](#))

[\[6\]](#) 14:55 Greek *Sanhedrin*

Footnote from Mark 14:60 ([Back](#))

[\[7\]](#) **14:60** Or *Have you no answer to w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Footnote from Mark 14:68 ([Back](#))

[\[8\]](#) **14:68** Or *forecourt*

Footnote from Mark 14:68 ([Back](#))

[\[9\]](#) **14:68** Some manuscripts omit *and the rooster crowed*

Footnote from Mark 14:72 ([Back](#))

[\[10\]](#) **14:72** Or *And when he had thought about it, he wept*

Footnote from Mark 15:15 ([Back](#))

[\[1\]](#) **15:15** A Roman judicial penalty, consisting of a severe beating with a multi-lashed whip containing imbedded pieces of bone and metal

Footnote from Mark 15:16 ([Back](#))

[\[2\]](#) **15:16** Greek *the praetorium*

Footnote from Mark 15:16 ([Back](#))

[\[3\]](#) **15:16** Greek *cohort*; a tenth of a Roman legion, usually about 600 men

Footnote from Mark 15:25 ([Back](#))

[\[4\]](#) **15:25** That is, 9 A.M.

Footnote from Mark 15:27 ([Back](#))

[\[5\]](#) **15:27** Some manuscripts insert verse 28: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otnote from Mark 15:33 ([Back](#))

[\[6\]](#) **15:33** That is, noon

Footnote from Mark 15:33 ([Back](#))

[\[7\]](#) **15:33** That is, 3 P.M.

Footnote from Mark 15:39 ([Back](#))

[\[8\]](#) **15:39** Some manuscripts insert *cried out and*

Footnote from Mark 15:39 ([Back](#))

[\[9\]](#) 15:39 Or *a son*

Footnote from Mark 15:44 ([Back](#))

[\[10\]](#) **15:44** Or *Pilate wondered whether he had already died*

Footnote from Mark 15:46 ([Back](#))

[\[11\]](#) 15:46 Greek *he*

[\[1\]](#) **16:9** Some manuscripts end the book with 16:8; others include verses 9–20 immediately after verse 8. At least one manuscript inserts additional material after verse 14; some manuscripts include after verse 8 the following: *But they reported briefly to Peter and those with him all that they had been told. And after this, Jesus himself sent out by means of them, from east to west, the sacred and imperishable proclamation of eternal salvation.* These manuscripts then continue with verses 9–20

누가복음

[\(return to table of contents\)](#)

[Luke 1](#) • [Luke 2](#) • [Luke 3](#) • [Luke 4](#) • [Luke 5](#) • [Luke 6](#) • [Luke 7](#) • [Luke 8](#) • [Luke 9](#) • [Luke 10](#)
• [Luke 11](#) • [Luke 12](#) • [Luke 13](#) • [Luke 14](#) • [Luke 15](#) • [Luke 16](#) • [Luke 17](#) • [Luke 18](#) • [Luke 19](#)
• [Luke 20](#) • [Luke 21](#) • [Luke 22](#) • [Luke 23](#) • [Luke 24](#)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헌사

LUKE 1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3**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a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a 또는 '오랫동안') **4**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5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6**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7**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8**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9**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0**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11**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12**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5**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6**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18**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9**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20**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23**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24**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25**"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다

²⁶○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²⁷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b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인들 가운데서 너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²⁹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³⁰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³¹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³²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³³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c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c 처녀라는 뜻) 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d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에게 태어날') ³⁶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³⁹○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⁴⁰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⁴²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⁴³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⁴⁴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⁴⁵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⁴⁶○그리하여 e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e 다른 고대 역본들에는 '엘리사벳이')

⁴⁷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⁴⁸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⁴⁹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1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흠으셨으니,

52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53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54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57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61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62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 보았다.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64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65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가랴의 예언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69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f 그, '구원의 뿔') **70**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72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74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75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76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77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78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80○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예수의 탄생(마 1:18-25)

LUKE 2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2**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3**모든 사람이 호
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4**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
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⁶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⁷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⁸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⁹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¹⁰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¹¹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a그리스도 주님이시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¹²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¹³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¹⁴"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¹⁵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¹⁶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¹⁷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¹⁸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¹⁹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²⁰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²¹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기 예수의 정결예식

²²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²³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b"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b 출 13:2, 12) ²⁴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c"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c 레 12:8)

²⁵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²⁶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a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²⁷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²⁸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²⁹"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³⁰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³¹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³²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³³○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³⁴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³⁵—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³⁶○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d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d 그, '한나') ³⁷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³⁸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사렛으로 돌아오다

³⁹○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⁴⁰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소년 시절의 예수

⁴¹○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e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e 출 12:13, 21-28을 볼 것) ⁴²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e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e 출 12:13, 21-28을 볼 것) ⁴³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⁴⁴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⁴⁵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⁴⁶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⁴⁷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⁴⁸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⁴⁹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

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까?" ⁵⁰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⁵¹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⁵²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세례자 요한의 전도(마 3:1-12; 막 1:1-8; 요 1:19-28)

LUKE 3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a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a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a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a 그, '테트라아르케스'. 지위와 권위가 왕보다 밑에 있었음) ²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³요한은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b세례를 선포하였다.(b 또는 '침례') ⁴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c"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c 사 40:3-5(칠십인역)) ⁵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⁶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⁷요한은 자기에게 b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b 또는 '침례') ⁸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⁹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¹⁰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¹¹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¹²세리들도 b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¹³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¹⁴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¹⁵백성이 d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¹⁶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b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b세례를 주실 것이요.(b 또는 '침례')

17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18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9** 그러나 a분 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a 그, '테트라아르케스'. 지위와 권위가 왕보다 밑에 있었음) **20** 거기 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마 3:13-17; 막 1:9-11)

21 백성이 모두 b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b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b 또는 '침례')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e"f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f 또는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의 계보(마 1:1-17)

23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24**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25** 맛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낙개, **26** 마앗, 맛다디아, 세메인, 요섹, 요다, **27** 요아난, 레사, 스룹바벨, g스알디엘, 네리,(g 그, '살라디엘') **28**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29**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맛닷, 레위, **30**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31** 멜레아, 멘나, 맛다다, 나단, 다윗, **32** 이새, 오벧, 보아스, h살라, 나손,(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몬') **33** 아미나답, 아드민, i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미나답') **34**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훔, **35**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36**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37** 므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38**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험을 받으시다(마 4:1-11; 막 1:12-13)

LUKE 4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서,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3**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a'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a 신 8:3) **5**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6**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7**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8**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b'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b 신 6:13) **9**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10** 성경에 기록하기를 c'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c 시 91:11, 12) ¹¹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¹²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d'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d 신 6:16) ¹³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나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마 4:12-17; 막 1:14-15)

¹⁴○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¹⁵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마 3:53-58; 막 6:1-6)

¹⁶○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¹⁷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¹⁸e"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e 사 61:1, 2(칠십인역))

¹⁹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⁰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²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²²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²³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²⁴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²⁵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²⁶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²⁷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f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g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

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g고침을 받았다."(f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 g 그, '깨끗하여지다')²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³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막 1:21-28)

³¹○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³²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³³ 그 때에 그 회당에 h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h 그, '더러운')³⁴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³⁵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닫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³⁶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나?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h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h 그, '더러운')³⁷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마 8:14-17; 막 1:29-34)

³⁸○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³⁹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종을 들었다.⁴⁰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⁴¹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i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i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막 1:35-39)

⁴²○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⁴³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⁴ 그리고 예수께서는 j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마 4:18-22; 막 1:16-20)

LUKE 5 예수께서 a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 때에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a 갈릴리 바닷가)²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³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⁴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b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b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라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 첫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이고 둘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복수이다) ⁵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⁶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⁷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⁸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⁹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¹⁰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¹¹그들은 배를 물에 던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마 8:1-4; 막 1:40-45)

¹²○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c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c 온갖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말) ¹³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¹⁴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¹⁵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¹⁶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마 9:1-8; 막 2:1-12)

¹⁷○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¹⁸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어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¹⁹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²⁰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²¹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²²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²³'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²⁴그러나 너희는 d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d 그, '사람의 아들') ²⁵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

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²⁶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레위를 부르시다(마 9:9-13; 막 2:13-17)

²⁷○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²⁸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²⁹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e앉아서 먹고 있었다.(e 그, '기대어 누워서') ³⁰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³¹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³²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금식 문제(마 9:14-17; 막 2:18-22)

³³○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³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³⁵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³⁶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꺾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³⁷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³⁸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³⁹f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f다른 고대 사본에는 39절이 없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마 12:1-8; 막 2:23-28)

LUKE 6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²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a안 되는 일을 합니까?"(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법에 어긋난 일을') ³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⁴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⁵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마 12:9-14; 막 3:1-6)

⁶○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⁷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⁸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

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 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¹⁰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¹¹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제자를 택하시다(마 10:1-4; 막 3:13-19)

¹²○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¹³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¹⁴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¹⁵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b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b 또는 '혁명당원'. 그, '셀롯') ¹⁶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마 4:23-25)

¹⁷○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¹⁸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c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c 그, '더러운') ¹⁹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마 5:1-12)

²⁰○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²¹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²²○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²³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²⁴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²⁵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
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원수를 사랑하여라(마 5:38-48; 7:12상반)

27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
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
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겹옷을 빼앗
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30**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31**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하여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
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
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34**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
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
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
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
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
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마 7:1-5)

37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38**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
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41** 어찌하여 너는 d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
면 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d남에게 'd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 때에 네가 똑똑히 보
게 되어서, d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d 그, '형제')

열매로 나무를 안다(마 7:17-20; 12:34하반-35)

⁴³○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⁴⁴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⁴⁵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마 7:24-27)

⁴⁶○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⁴⁷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⁴⁸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e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⁴⁹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백부장의 종을 낮게 하시다(마 8:5-13; 요 4:43-54)

LUKE 7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²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였다. ³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낮게 해달라고 하였다. ⁴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⁵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⁶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⁷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낮게 해주십시오. ⁸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⁹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¹⁰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¹¹○a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음 날') ¹²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¹³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¹⁴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¹⁵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

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¹⁶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¹⁷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다(마 11:2-19)

¹⁸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¹⁹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²⁰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b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b 또는 '침례자') ²¹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²²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c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c 온갖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말) ²³d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d 그, '의심을 품지 않는') ²⁴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²⁵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²⁶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²⁷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e'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e 말 3:1) ²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b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b 또는 '침례자') ²⁹(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f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냈다.(f 또는 '침례') ³⁰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f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f 또는 '침례')

³¹"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³²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³³b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b 또는 '침례자') ³⁴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³⁵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g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g 또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다

³⁶○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³⁷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³⁹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⁴⁰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⁴¹"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h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⁴²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⁴⁴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⁴⁵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⁴⁶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⁴⁷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⁴⁸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⁴⁹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⁵⁰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인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LUKE 8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²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³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 13:1-9; 막 4:1-9)

⁴○우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⁵"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⁶또 더러는 돌짜발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⁷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

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⁸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마 13:10-17; 막 4:10-12)

⁹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¹⁰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a'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 사 6:9(칠십인역))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해설(마 13:18-23; 막 4:13-20)

¹¹"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¹²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¹³돌짜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¹⁴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¹⁵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비밀은 드러난다(막 4:21-25)

¹⁶"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¹⁷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¹⁸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마 12:46-50; 막 3:31-35)

¹⁹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²⁰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²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마 8:23-27; 막 4:35-41)

²²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²³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²⁴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²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마 8:28-34; 막 5:1-20)

26 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b거라사 지방에 달았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가다라' 또는 '겔게스') 27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c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으며') 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29 예수께서 이미 d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d 그, '더러운')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31 귀신들은 자기들을 e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e 그, '아비소스',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32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35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37 그러자 b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 데,(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가다라' 또는 '겔게스') 38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알이 온 읍내에 알렸다.

하혈하는 여자를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마 9:18-26; 막 5:21-43)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41 그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42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43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44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45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f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⁴⁶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⁴⁷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낮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⁴⁸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⁴⁹○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⁵⁰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⁵¹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⁵²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⁵³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⁵⁴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⁵⁵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⁵⁶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교에 파송하다(마 10:5-15; 막 6:7-13)

LUKE 9 예수께서 그 열둘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²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³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⁴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⁵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⁶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헤롯이 불안에 사로잡히다(마 14:1-12; 막 6:14-29)

⁷○a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a 그, '테트라아르케스'. 지위와 권위가 왕보다 밑에 있었음) ⁸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⁹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 14:13-21; 막 6:30-44; 요 6:1-14)

¹⁰○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¹¹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¹²○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우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¹³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¹⁴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¹⁵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¹⁶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¹⁷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마 16:13-19; 막 8:27-29)

¹⁸○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¹⁹그들이 대답하였다. "b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 또는 '침례자') ²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c하나님의 d그리스도입니다." (c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주신 분' d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다(마 16:20-28; 막 8:30-9:1)

²¹○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²²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²³○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²⁴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²⁶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²⁷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마 17:1-8; 막 9:2-8)

²⁸○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²⁹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³⁰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e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e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³²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³³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³⁴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f 그, '그들을') ³⁵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g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³⁶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시다(마 17:14-18; 막 9:14-27)

³⁷○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³⁸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³⁹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⁴⁰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⁴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⁴²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h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h 그, '더러운') ⁴³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i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다(마 17:22-23; 막 9:30-32)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i 그, '위대하심') ⁴⁴"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⁴⁵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누가 크냐?(마 18:1-5; 막 9:33-37)

⁴⁶○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⁴⁷예수께서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⁴⁸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의 편이다(막 9:38-40)

⁴⁹○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

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동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다

51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52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j우리가 명령하면 어떨겠습니까?"(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엘리아가 한 것 같이 우리가') 55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k꾸짖으셨다.(k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56. 그리고.....")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마 8:19-22)

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9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6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62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일흔두 사람을 파송하시다

LUKE 10 이 일이 있는 뒤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4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0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

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12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가 있으리라(마 11:20-24)

13○"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14**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5**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a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a 그, '하데스')

16○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일흔두 사람이 돌아오다

17○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18**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의 감사 기도(마 11:25-27; 13:16-17)

21○그 때에 예수께서 b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c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 c 또는 '찬양합니다') **22**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3○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25○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 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그가 대답하였다. "d'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e'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까."(d 신 6:5 e 레 19:18) **28**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 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29○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31**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³²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³³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³⁴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³⁵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f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³⁶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³⁷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

³⁸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³⁹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⁴⁰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⁴¹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⁴²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마 6:9-15; 7:7-11)

LUKE 1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a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b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c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b 다른 고대 사본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며'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가 첨가되어 있음)

³날마다 우리에게
d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d 또는 '내일 양식')

⁴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e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f" (e 또는 '빠뜨리지' f 다른 고대 사본들은 끝에 '우리를 악에서(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가 첨가되어 있음)

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⁶내 친구가 여

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⁷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⁹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¹⁰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¹¹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¹²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¹³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g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g 다른 고대 사본은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바알세불과 한 편으로 모함하다(마 12:22-30; 막 3:20-27)

¹⁴o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병어리 [귀신이였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¹⁵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¹⁶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¹⁷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¹⁸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¹⁹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h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h 그, '아들들'. 귀신축출자들을 가리킴) ²⁰그러나 내가 i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i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²¹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²²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을 나누어 준다. ²³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 돌아온다(마 12:43-45)

²⁴o "j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j 그, '더러운') ²⁵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²⁶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짠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²⁷○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²⁸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세대가 헛되이 표징을 구하다(마 12:38-42; 막 8:12)

²⁹○우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³⁰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³¹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³²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몸의 등불(마 5:15; 6:22-23)

³³○"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³⁴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³⁵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³⁶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다(마 23:1-36; 막 12:38-40; 눅 20:45-47)

³⁷○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³⁸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³⁹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⁴⁰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⁴¹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⁴²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⁴³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 ⁴⁴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⁴⁵○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⁴⁶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⁴⁷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⁴⁸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

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⁴⁹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⁵⁰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⁵¹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⁵²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⁵³○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⁵⁴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바리새파의 위선을 경계하다

LUKE 12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²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³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라(마 10:28-31)

⁴○"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⁵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a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a 그, '게헨나') ⁶참새 다섯 마리가 두 b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b 그, '앗사리온') ⁷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라(마 10:32-33; 12:32; 10:19-20)

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⁹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¹⁰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¹¹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c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무엇을 대답할까'가 없음) ¹²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¹³○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¹⁴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¹⁵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¹⁶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¹⁷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¹⁸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공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¹⁹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²⁰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²¹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염려하지 말아라(마 6:25-34, 19-21)

22 ○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23**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24**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25**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d제 수명을 한 e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d 또는 '제 키를 한 자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e 그, '페퀴스(규빗)') **26**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27** f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백합꽃을 생각하여 보아라')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29**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30**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g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32 ○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낚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쯤의 피해가 없다. **34**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깨어 기다려야 한다(마 24:45-51)

35 ○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36**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37**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h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는 집을 지키고 있다가, 도둑이.....')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46**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

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불을 지르러,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마 10:34-36)

⁴⁹○"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⁵⁰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i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i 또는 '침례') ⁵¹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⁵²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⁵³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때를 분간하여라(마 16:2-3)

⁵⁴○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⁵⁵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⁵⁶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여라(마 5:25-26)

⁵⁷○"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⁵⁸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처넣을 것이다. ⁵⁹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j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j 그, '렙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LUKE 13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²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³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⁴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⁵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⁶○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⁷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⁸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⁹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

¹⁰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¹¹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¹²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¹³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¹⁴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옛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¹⁵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¹⁶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¹⁷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마 13:31-33; 막 4:30-32)

¹⁸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¹⁹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²⁰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²¹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a말 속에 b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a 그, '사타스'. 세 사타스는 약 22리터 b 그, '감추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마 7:13-14, 21-23)

²²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²³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²⁴"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고려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²⁵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²⁶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²⁷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²⁸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²⁹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³⁰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다(마 23:37-39)

31○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2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33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35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c'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c 시 118:26)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다

LUKE 14 어느 안식일에 a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a 그, '그가') 2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3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4그들은 잠잠하였다. a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a 그, '그가') 5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b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귀나') 6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7○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8"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9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10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2○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13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큰 잔치의 비유(마 22:1-10)

¹⁵○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6a}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a 그, '그가') ¹⁷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¹⁸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¹⁹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यो.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²⁰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²¹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 하였다. ²²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시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²³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²⁴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길(마 10:37-38)

²⁵○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⁶"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⁷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⁸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²⁹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³⁰'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³¹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³²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³³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맛 잃은 소금은 쓸 데 없다(마 5:13; 막 9:50)

³⁴○"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c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c 또는 '무엇으로 그 짠 맛을 회복하겠느냐?' 또는 '무엇으로 짠 맛을 나게 하겠느냐?') ³⁵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잃은 양의 비유(마 18:12-14)

LUKE 15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²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³○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⁴"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⁵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⁶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⁷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⁸ο"어떤 여자에게 a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a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함) ⁹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¹⁰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¹¹οb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b 그, '그가') ¹²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¹³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¹⁴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¹⁵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¹⁷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¹⁹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²⁰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를 첨가하였음) ²²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²⁴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²⁵ο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²⁶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²⁷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²⁹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³⁰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³¹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³²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LUKE 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²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³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낮이 부끄럽구나. ⁴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어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⁵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⁶그 사람이 '기름 백 a말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쓴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a 그, '바투스'. 백 바투스는 약 3킬로리터) ⁷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백 b섬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여든 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b 그, '코루스'. 백 코루스는 약 35킬로리터) ⁸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⁹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c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d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c 그, '맘몬' d 그, '장막') ¹⁰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¹¹너희가 불의한 c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c 그, '맘몬') ¹²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¹³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c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c 그, '맘몬')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¹⁴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¹⁵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¹⁶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e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e 또는 '그리로 침입한다') ¹⁷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¹⁸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부자와 거지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f 그, '하데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0**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 짓게 함, 용서, 믿음, 종의 도리(마 **18:6-7; 21:22; 막 9:42**)

LUKE 17 a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b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a 그, '그가' b 그, '죄 짓게 하는')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b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b 그, '죄 짓게 하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c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c 그, '네 형제가')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5 o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7 o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열 사람의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되다

11 o a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a 그, '그가')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 d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

찍이 멈추어 서서,(d 온갖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말) ¹³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¹⁴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¹⁵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¹⁶e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e 그, '그의') ¹⁷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¹⁸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¹⁹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마 24:23-28, 37-41)

²⁰○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²¹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f가운데에 있다."(f 또는 '안에')

²²○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²³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²⁴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g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기의 날에'가 없음) ²⁵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²⁶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²⁷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²⁸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²⁹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³⁰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³¹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³²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³³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³⁴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³⁵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³⁶h(36절 없음)(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36절이 첨가되어 있음. '36.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³⁷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LUKE 1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²"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³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

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⁴그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⁵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⁶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⁷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

⁹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⁰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¹¹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¹²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¹³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¹⁴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린이들을 칭찬하시다(마 19:13-15; 막 10:13-16)

¹⁵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¹⁶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¹⁷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돈 많은 관리(마 19:16-30; 막 10:17-31)

¹⁸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¹⁹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²⁰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a'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a 출 20:12-16; 신 5:16-20) ²¹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²²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²³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²⁴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²⁵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²⁶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

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²⁷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²⁸○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²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³⁰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마 20:17-19; 막 10:32-34)

³¹○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³²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뱀음을 당할 것이다. ³³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³⁴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눈먼 거지를 고치시다(마 20:29-34; 막 10:46-52)

³⁵○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³⁶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³⁷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³⁸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³⁹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⁴⁰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⁴¹"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⁴²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⁴³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와 삭개오

LUKE 19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²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³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⁴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⁵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⁶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⁷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⁸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⁹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¹⁰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열 므나의 비유(마 25:14-30)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a**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a 한 므나는 노동자의 석달 품삷에 해당되는 금액임)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탈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아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아무진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5**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마 21:1-11; 막 11:1-11; 요 12:12-19)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35**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38b"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b 시 118:26)

39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줄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마 21:12-17; 막 11:15-19; 요 2:13-22)

4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c'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d'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c 사 56:7 d 렘 7:11)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권세에 대한 질문(마 21:23-27; 막 11:27-33)

LUKE 20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a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a 또는 '침례')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a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a 또는 '침례')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마 21:33-46; 막 12:1-12)

⁹○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¹⁰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¹¹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¹²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¹³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¹⁴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이 되게 하자.' ¹⁵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¹⁶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¹⁷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b'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c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b 시 118:22 c 또는 '모퉁이 돌') ¹⁸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¹⁹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세금에 대한 질문(마 22:15-22; 막 12:13-17)

²⁰○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²¹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²²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²³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⁴"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²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²⁶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 논쟁(마 22:23-33; 막 12:18-27)

²⁷○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²⁸"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 다. ²⁹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³⁰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³¹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³²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³³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³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³⁵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³⁶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³⁷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d'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d 출 3:6) ³⁸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³⁹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⁴⁰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마 22:41-46; 막 12:35-37)

⁴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e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e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⁴²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f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f 시 110:1)
⁴³「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⁴⁴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다(마 23:1-36; 막 12:38-40; 눅 11:37-54)

⁴⁵○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⁶"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⁴⁷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헌금(막 12:41-44)

LUKE 2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a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a 그, '예물') ²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b렙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b 동전의 이름) ³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⁴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a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a 그, '예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마 24:1-2; 막 13:1-2)

⁵○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⁶"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재난의 징조(마 24:3-14; 막 13:3-13)

7○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8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10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11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2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13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15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16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17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c얻어라."(c 다른 고대 사본에는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다(마 24:15-21; 막 13:14-19)

20○"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1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23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24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못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의 현상(마 24:29-31; 막 13:24-27)

25○"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26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마 24:32-35; 막 13:28-31)

29○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1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32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3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³⁴○"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³⁵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³⁶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한 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³⁷○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³⁸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예수를 죽일 음모(마 26:1-5, 14-16; 막 14:1-2, 10-11; 요 11:45-53)

LUKE 22 a유월절이라고 하는 b무교절이 다가왔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b 출 12:15-20을 볼 것) ²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³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⁴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⁵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⁶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준비(마 26:17-25; 막 14:12-21; 요 13:21-30)

⁷○a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⁸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a유월절을 준비하여라."(a 출 12:13, 21-28을 볼 것) ⁹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¹⁰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¹¹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a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까' 하여라.(a 출 12:13, 21-28을 볼 것) ¹²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¹³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a유월절을 준비하였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마지막 만찬(마 26:26-30; 막 14:22-26; 고전 11:23-25)

¹⁴○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¹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a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¹⁶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a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a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¹⁷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¹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¹⁹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c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d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이 없음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기에서부터 20절까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없음) ²⁰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다. ²¹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²²인자는 하나님께
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²³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참으로 높은 사람

²⁴○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
툼이 벌어졌다. ²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
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²⁶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
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²⁷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종드는 사람이
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²⁸○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²⁹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
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³⁰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
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다(마 26:31-35; 막 14:27-31; 요 13:36-38)

³¹○"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e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e 또는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³²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
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³³베드로
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
니다." ³⁴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
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돈주머니와 검

³⁵○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
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³⁶예수께서 그
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
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³⁷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f그는 무법자
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
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f 사 53:12) ³⁸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
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마 26:36-46; 막 14:32-42)

³⁹○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⁴⁰
그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⁴¹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달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
하셨다. ⁴²"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⁴³[[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
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⁴⁴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

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⁴⁵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⁴⁶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잡히시다(마 26:47-56; 막 14:43-50; 요 18:3-11)

⁴⁷○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⁴⁸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⁴⁹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⁵⁰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⁵¹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⁵²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⁵³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마 26:57-58, 69-75; 막 14:53-54, 66-72; 요 18:12-18, 25-27)

⁵⁴○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⁵⁵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여 앉아 있었다. ⁵⁶그 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뵈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⁵⁷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g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g 그, '여자여') ⁵⁸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⁵⁹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⁶⁰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h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h 그, '사람아' 또는 '남자야') ⁶¹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⁶²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모욕하고 때리다(마 26:67-68; 막 14:65)

⁶³○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⁶⁴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⁶⁵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공회 앞에 서시다(마 26:59-66; 막 14:55-64; 요 18:19-24)

⁶⁶○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⁶⁷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⁶⁸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⁶⁹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⁷⁰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⁷¹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으시다(마 27:1-2, 11-14; 막 15:1-5; 요 18:28-38)

LUKE 23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²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a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³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⁴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⁵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헤롯 앞에 서시다

⁶○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⁷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⁸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⁹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⁰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¹¹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¹²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마 27:15-26; 막 15:6-15; 요 18:39-19:16)

¹³○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¹⁴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¹⁵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¹⁶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¹⁷b(17절 없음)(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17절이 첨가되어 있음. '17. 명절이 되어 빌라도는 죄수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했다')

18○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 **19**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 **20**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2**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시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23**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마 27:32-44; 막 15:21-32; 요 19:17-27)

26○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8**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9**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c'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c 호 10:8)

31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32○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 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d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d '하나님이 기름부어 주신 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36**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e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쓴')

39○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a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a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40**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꼭 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41**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리

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⁴²"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⁴³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마 27:45-56; 막 15:33-41; 요 19:28-30)

⁴⁴○어느덧 f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g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f 그, '제 육시' g 그, '제 구시') ⁴⁵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⁴⁶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⁴⁷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h의로운 사람이었다."(h 또는 '죄 없는') ⁴⁸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⁴⁹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무덤에 묻히시다(마 27:57-61; 막 15:42-47; 요 19:38-42)

⁵⁰○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⁵¹?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⁵²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⁵³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⁵⁴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⁵⁵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⁵⁶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예수의 부활(마 28:1-10; 막 16:1-8; 요 20:1-10)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LUKE 24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²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³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a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예수의'가 없음) ⁴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다. ⁵b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b 그, '그들이') ⁶c그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아라.(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6절 상반절이 없음) ⁷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⁸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⁹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¹⁰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¹¹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¹²d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

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d 다른 고대 사본에는 12절이 없음)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막 16:12-13)

13○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e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e 그, '육십 스타디아(약 11킬로미터)') **14**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f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f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다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함) **27**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8○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29**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마 28:16-20; 막 16:14-18; 요 20:19-23; 행 1:6-8)

³⁶○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³⁷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³⁸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³⁹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드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⁴⁰g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40절이 없음) ⁴¹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⁴²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⁴³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⁴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⁴⁵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⁴⁶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⁴⁷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h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h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⁴⁸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⁴⁹[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늘로 올라가시다(막 16:19-20; 행 1:9-11)

⁵⁰○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⁵¹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i하늘로 올라가셨다.(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없음) ⁵²그들은 j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 경배하고'가 없음) ⁵³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k(k 다른 고대 사본들은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Luke 1:5 ([Back](#))

[\[1\]](#) 1:5 Greek *Zacharias*

Footnote from Luke 1:27 ([Back](#))

[\[2\]](#) **1:27** That is, legally pledged to be married

Footnote from Luke 1:28 ([Back](#))

[\[3\]](#) **1:28** Some manuscripts ad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Footnote from Luke 1:34 ([Back](#))

[\[4\]](#) **1:34** Greek *since I do not know a man*

Footnote from Luke 1:35 ([Back](#))

[\[5\]](#) **1:35** Some manuscripts add *of you*

Footnote from Luke 1:38 ([Back](#))

[\[6\]](#) **1:38**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48

Footnote from Luke 1:45 ([Back](#))

[\[7\]](#) **1:45** Or *believed, for there will be*

Footnote from Luke 1:78 ([Back](#))

[\[8\]](#) **1:78** Or *when the sunrise shall dawn upon us*; some manuscripts *since the sunrise has visited us*

Footnote from Luke 2:2 ([Back](#))

[\[1\]](#) **2:2** Or *This was the registration before*

Footnote from Luke 2:5 ([Back](#))

[\[2\]](#) **2:5** That is, one legally pledged to be married

Footnote from Luke 2:14 ([Back](#))

[\[3\]](#) **2:14** Some manuscripts *peace, good will among men*

Footnote from Luke 2:29 ([Back](#))

[\[4\]](#) **2:29**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Luke 2:37 ([Back](#))

[\[5\]](#) **2:37** Or *as a widow for eighty-four years*

Footnote from Luke 2:48 ([Back](#))

[\[6\]](#) 2:48 Greek *they*

Footnote from Luke 2:49 ([Back](#))

[\[7\]](#) **2:49** Or *about my Father's business*

Footnote from Luke 2:52 ([Back](#))

[\[8\]](#) **2:52** Or *years*

Footnote from Luke 3:4 ([Back](#))

[\[1\]](#) **3:4** Or *crying, Prepare in the wilderness the way of the Lord*

Footnote from Luke 3:11 ([Back](#))

[\[2\]](#) **3:11**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Luke 3:22 ([Back](#))

[\[3\]](#) **3:22**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Luke 3:22 ([Back](#))

[\[4\]](#) **3:22** Some manuscripts *beloved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Footnote from Luke 3:27 ([Back](#))

[\[5\]](#) 3:27 Greek *Salathiel*

Footnote from Luke 4:27 ([Back](#))

[\[1\]](#) **4:27**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Luke 4:34 ([Back](#))

[\[2\]](#) 4:34 Or *Leave us alone*

Footnote from Luke 4:44 ([Back](#))
[3] 4:44 Some manuscripts *Galilee*

Footnote from Luke 5:10 ([Back](#))

[\[1\]](#) **5:10** The Greek word *anthropoi* refers here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Luke 5:12 ([Back](#))

[\[2\]](#) **5:1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Luke 5:13 ([Back](#))

[\[3\]](#) 5:13 Greek *he*

Footnote from Luke 5:17 ([Back](#))

[\[4\]](#) **5:17** Some manuscripts *was present to heal them*

Footnote from Luke 5:39 ([Back](#))

[\[5\]](#) **5:39** Some manuscripts *better*

Footnote from Luke 6:1 ([Back](#))

[\[1\]](#) **6:1** Some manuscripts *On the second first Sabbath* (that is, on the second Sabbath after the first)

Footnote from Luke 6:29 ([Back](#))

[\[2\]](#) **6:29**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Luke 6:48 ([Back](#))

[\[3\]](#) **6:48** Some manuscripts *founded upon the rock*

Footnote from Luke 7:2 ([Back](#))

[\[1\]](#) **7:2**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3, 8, 10

Footnote from Luke 7:3 ([Back](#))

[\[2\]](#) 7:3 Greek *he*

Footnote from Luke 7:11 ([Back](#))

[\[3\]](#) **7:11** Some manuscripts *The next day*

Footnote from Luke 7:15 ([Back](#))

[\[4\]](#) 7:15 Greek *he*

Footnote from Luke 7:22 ([Back](#))

[\[5\]](#) **7:2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Luke 7:24 ([Back](#))

[\[6\]](#) 7:24 Greek *he*

Footnote from Luke 7:29 ([Back](#))

[\[7\]](#) **7:29** Greek *they justified God*

Footnote from Luke 7:49 ([Back](#))

[\[8\]](#) 7:49 Or *to*

Footnote from Luke 8:3 ([Back](#))

[\[1\]](#) **8:3** Some manuscripts *him*

Footnote from Luke 8:26 ([Back](#))

[\[2\]](#) **8:26** Some manuscripts *Gadarenes*; others *Gergesenes*; also verse 37

Footnote from Luke 8:27 ([Back](#))

[\[3\]](#) **8:27** Greek *he*; also verses 38, 42

Footnote from Luke 8:36 ([Back](#))

[4] 8:36 Greek *daimonizomai*; elsewhere rendered *oppressed by demons*

Footnote from Luke 8:43 ([Back](#))

[\[5\]](#) **8:43** Some manuscripts omit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s,*

Footnote from Luke 8:45 ([Back](#))

[\[6\]](#) **8:45** Some manuscripts add *and those who were with him*

Footnote from Luke 9:3 ([Back](#))

[\[1\]](#) **9:3**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Luke 9:31 ([Back](#))

[\[2\]](#) 9:31 Greek *exodus*

Footnote from Luke 9:35 ([Back](#))

[\[3\]](#) **9:35** Some manuscripts *my Beloved*

Footnote from Luke 9:43 ([Back](#))

[\[4\]](#) 9:43 Greek *he*

Footnote from Luke 9:54 ([Back](#))

[\[5\]](#) **9:54** Some manuscripts add *as Elijah did*

Footnote from Luke 9:55 ([Back](#))

[\[6\]](#) **9:55** Some manuscripts add *and he said, “You do not know what manner of spirit you are of; for the Son of Man came not to destroy people's lives but to save them”*

Footnote from Luke 9:60 ([Back](#))

[\[7\]](#) **9:60** Greek *he*

Footnote from Luke 10:1 ([Back](#))

[\[1\]](#) **10:1** Some manuscripts *seventy*; also verse 17

Footnote from Luke 10:21 ([Back](#))

[\[2\]](#) **10:21** Or *for so it pleased you well*

Footnote from Luke 10:35 ([Back](#))

[\[3\]](#) **10:35**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10:38 ([Back](#))

[\[4\]](#) 10:38 Greek *he*

Footnote from Luke 10:42 ([Back](#))

[\[5\]](#) **10:42** Some manuscripts *few things are necessary, or only one*

Footnote from Luke 11:1 ([Back](#))

[\[1\]](#) 11:1 Greek *he*

Footnote from Luke 11:3 ([Back](#))

[\[2\]](#) **11:3** Or *our bread for tomorrow*

Footnote from Luke 11:8 ([Back](#))

[\[3\]](#) 11:8 Or *persistence*

Footnote from Luke 11:11 ([Back](#))

[\[4\]](#) **11:11** Some manuscripts insert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Footnote from Luke 11:37 ([Back](#))

[\[5\]](#) 11:37 Greek *he*

Footnote from Luke 12:5 ([Back](#))

[\[1\]](#) 12:5 Greek *Gehenna*

Footnote from Luke 12:6 ([Back](#))

[\[2\]](#) **12:6** Greek *two assaria*; an *assarion* was a Roman copper coin worth about 1/16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12:25 ([Back](#))

[\[3\]](#) **12:25** Or *a single cubit to his stature*;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Luke 12:27 ([Back](#))

[\[4\]](#) **12:27** Some manuscripts *Consider the lilies; they neither spin nor weave*

Footnote from Luke 12:31 ([Back](#))

[\[5\]](#) **12:31** Some manuscripts *God's*

Footnote from Luke 12:35 ([Back](#))

[\[6\]](#) **12:35** Greek *Let your loins stay girded*; compare Exodus 12:11

Footnote from Luke 12:37 ([Back](#))

[\[7\]](#) **12:37**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Luke 12:39 ([Back](#))

[\[8\]](#) **12:39** Some manuscripts add *would have stayed awake and*

Footnote from Luke 12:43 ([Back](#))

[9] 12:43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45, 46, 47

Footnote from Luke 12:59 ([Back](#))

[\[10\]](#) **12:59** Greek *lepton*, a Jewish bronze or copper coin worth about 1/128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14:5 ([Back](#))

[\[1\]](#) **14:5** Some manuscripts *a donkey*

Footnote from Luke 14:12 ([Back](#))

[\[2\]](#) **14:12** Or *you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brothers* or to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Luke 14:17 ([Back](#))

[\[3\]](#) **14:17** Greek *bondservant*; also verses 21, 22, 23

Footnote from Luke 14:24 ([Back](#))

[\[4\]](#) **14:24** The Greek word for *you* here is plural

Footnote from Luke 15:8 ([Back](#))

[\[1\]](#) **15:8** Greek *ten drachmas*; a *drachma* was a Greek coin approximately equal in value to a Roman *denarius*, worth about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15:15 ([Back](#))

[\[2\]](#) **15:15** Greek *joined himself to*

Footnote from Luke 15:21 ([Back](#))

[\[3\]](#) **15:21** Some manuscripts add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Footnote from Luke 15:22 ([Back](#))

[\[4\]](#) **15:22**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Luke 16:6 ([Back](#))

[\[1\]](#) **16:6** About 875 gallons or 3,200 liters

Footnote from Luke 16:7 ([Back](#))

[\[2\]](#) **16:7** Between 1,000 and 1,200 bushels or 37,000 to 45,000 liters

Footnote from Luke 16:8 ([Back](#))

[\[3\]](#) 16:8 Greek *age*

Footnote from Luke 16:9 ([Back](#))

[\[4\]](#) **16:9** Greek *mammon*, a Semitic word for money or possessions; also verse 11; rendered *money* in verse 13

Footnote from Luke 16:16 ([Back](#))

[\[5\]](#) **16:16** Or *everyone is forcefully urged into it*

Footnote from Luke 16:22 ([Back](#))

[\[6\]](#) **16:22** Greek *bosom*; also verse 23

Footnote from Luke 16:28 ([Back](#))

[\[7\]](#) **16:28**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Luke 17:1 ([Back](#))

[\[1\]](#) 17:1 Greek *Stumbling blocks*

Footnote from Luke 17:2 ([Back](#))

[\[2\]](#) 17:2 Greek *stumble*

Footnote from Luke 17:7 ([Back](#))

[\[3\]](#) 17:7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9

Footnote from Luke 17:8 ([Back](#))

[\[4\]](#) 17:8 Greek *gird yourself*

Footnote from Luke 17:10 ([Back](#))

[\[5\]](#) **17:10**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Luke 17:12 ([Back](#))

[\[6\]](#) **17:12** *Leprosy* was a term for several skin diseases; see Leviticus 13

Footnote from Luke 17:19 ([Back](#))

[\[7\]](#) 17:19 Or *has saved you*

Footnote from Luke 17:21 ([Back](#))

[\[8\]](#) **17:21** Or *within you*, or *within your grasp*

Footnote from Luke 17:24 ([Back](#))

[\[9\]](#) **17:24** Some manuscripts omit *in his day*

Footnote from Luke 17:35 ([Back](#))

[\[10\]](#) **17:35** Some manuscripts add verse 36: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Footnote from Luke 17:37 ([Back](#))

[\[11\]](#) 17:37 Greek *body*

Footnote from Luke 17:37 ([Back](#))

[\[12\]](#) 17:37 Or *eagles*

Footnote from Luke 18:11 ([Back](#))

[\[1\]](#) **18:11** Or *standing, prayed to himself*

Footnote from Luke 18:29 ([Back](#))

[\[2\]](#) 18:29 Or *wife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Luke 19:13 ([Back](#))

[\[1\]](#) **19:13**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15

Footnote from Luke 19:13 ([Back](#))

[\[2\]](#) **19:13** A *mina* was about three months' wages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19:17 ([Back](#))

[\[3\]](#) **19:17**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22

Footnote from Luke 20:1 ([Back](#))

[\[1\]](#) 20:1 Greek *he*

Footnote from Luke 20:10 ([Back](#))

[\[2\]](#) **20:10**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11

Footnote from Luke 20:17 ([Back](#))

[3] 20:17 Greek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Luke 20:21 ([Back](#))

[4] 20:21 Greek *and do not receive a face*

Footnote from Luke 20:24 ([Back](#))

[\[5\]](#) **20:24**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20:28 ([Back](#))

[\[6\]](#) 20:28 Greek *his brother*

Footnote from Luke 20:36 ([Back](#))

[\[7\]](#) **20:36** Greek *huiou*; see [Preface](#)

Footnote from Luke 21:1 ([Back](#))

[\[1\]](#) 21:1 Greek *He*

Footnote from Luke 21:2 ([Back](#))

[\[2\]](#) **21:2** Greek *two lepta*; a *lepton* was a Jewish bronze or copper coin worth about 1/128 of a *denarius* (which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Luke 21:16 ([Back](#))

[\[3\]](#) **21:16** Or *parents and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Luke 22:8 ([Back](#))

[\[1\]](#) 22:8 Greek *he*

Footnote from Luke 22:16 ([Back](#))

[\[2\]](#) **22:16** Some manuscripts *never eat it again*

Footnote from Luke 22:20 ([Back](#))

[\[3\]](#) **22:20** Some manuscripts omit, in whole or in part, verses 19b-20 (*which is given . . . ; in my blood*)

Footnote from Luke 22:31 ([Back](#))

[\[4\]](#) **22:31** The Greek word for *you* (twice in this verse) is plural; in verse 32, all four instances are singular

Footnote from Luke 22:33 ([Back](#))

[\[5\]](#) 22:33 Greek *He*

Footnote from Luke 22:34 ([Back](#))

[\[6\]](#) 22:34 Greek *He*

Footnote from Luke 22:44 ([Back](#))

[\[7\]](#) **22:44** Some manuscripts omit verses 43 and 44

Footnote from Luke 22:50 ([Back](#))

[\[8\]](#) 22:50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Luke 23:16 ([Back](#))

[\[1\]](#) **23:16** Here, or after verse 19, some manuscripts add verse 17: *Now he was obliged to release one man to them at the festival*

Footnote from Luke 23:34 ([Back](#))

[\[2\]](#) **23:34** Some manuscripts omit the sentence *And Jesus . . . ; what they do*

Footnote from Luke 23:38 ([Back](#))

[\[3\]](#) **23:38** Some manuscripts add *in letters of Greek and Latin and Hebrew*

Footnote from Luke 23:39 ([Back](#))

[\[4\]](#) **23:39** Or *blasphemed him*

Footnote from Luke 23:44 ([Back](#))

[\[5\]](#) **23:44** That is, noon

Footnote from Luke 23:44 ([Back](#))

[\[6\]](#) **23:44** That is, 3 P.M.

Footnote from Luke 23:54 ([Back](#))

[\[7\]](#) **23:54** Greek *was dawning*

Footnote from Luke 24:13 ([Back](#))

[\[1\]](#) **24:13** Greek *sixty stadia*;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Luke 24:42 ([Back](#))

[2] 24:42 Some manuscripts add *and some honeycomb*

Footnote from Luke 24:47 ([Back](#))

[\[3\]](#) **24:47** Some manuscripts *for*

요한복음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ohn 1](#) • [John 2](#) • [John 3](#) • [John 4](#) • [John 5](#) • [John 6](#) • [John 7](#) • [John 8](#) • [John 9](#) • [John 10](#) • [John 11](#)
• [John 12](#) • [John 13](#) • [John 14](#) • [John 15](#) • [John 16](#) • [John 17](#) • [John 18](#) • [John 19](#) • [John 20](#)
• [John 21](#)

요한복음

육신이 되신 말씀

JOHN 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a**창조된 것은(**a** 또는 '그의 안에서 창조된 것은 생명이었으니') **4b**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c**이기지 못하였다. (**c**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도 있음)

6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7**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c**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d** '그 말씀은 참 빛이었으니') **10**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e**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e** 그, '남자의')

14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였다. **15**(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우리는 모두 그의 총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17**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18**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f**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마 3:1-12; 막 1:2-8; 눅 3:15-17)

19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그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20**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g**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g**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21**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22**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요?" **23**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h**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시오."(h 사 40:3(칠십인역))

24.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g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i 세례를 주시오?"(g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i 또는 '침례') 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i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i 또는 '침례') 27.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 발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28. 이것은 요한이 i 세례를 주던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i 또는 '침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j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j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음)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 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31.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i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i 또는 '침례')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k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k 그, '영') 33.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i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i 또는 '침례') 34.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1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

첫 번 제자들

35.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36.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38.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m 오후 네 시 쯤이었다.(m 그, '제 십 시')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41.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42.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n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n '바위' 또는 '반석'을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라(베드로)'라고 함)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

43.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 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44. 빌립은 벳새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45. 빌립이 나

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⁴⁶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⁴⁷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⁴⁸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⁴⁹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⁵⁰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⁵¹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o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o 그, '사람의 아들')

가나의 혼인 잔치

JOHN 2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²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³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⁴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a여자여, 그것이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a "어머니,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로 번역할 수도 있음) ⁵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⁶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⁷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⁹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¹⁰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¹¹예수께서 이 첫 번 b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¹²o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마 21:12-13; 막 11:15-17; 눅 19:45-46)

¹³o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¹⁴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¹⁵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었으셨다. ¹⁶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¹⁷제자들은 c'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c 시 69:9) ¹⁸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b표징을 우리에게 보

여 주겠소?"(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¹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²⁰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마흔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²¹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²²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시다

²³○예수께서 d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d 출 12:13, 21-28을 볼 것) ²⁴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²⁵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와 니고데모

JOHN 3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²이 사람이 밤에 a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b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a 그, '그에게' 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³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c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c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⁴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⁵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d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d 그, '영') ⁶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⁷너희가 c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c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⁸e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d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e '프뉴마'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6절), '바람'을 뜻하기도 함(8절) d 그, '영') ⁹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¹⁰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¹¹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¹²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¹³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¹⁴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f인자도 들려야 한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도') ¹⁵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g(g 해석자에 따라 15절에서 인용을 끝내기도 함)

¹⁶○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¹⁷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¹⁸아들을 믿는 사람은 8)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h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

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h 또는 '정죄') ¹⁹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²⁰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²¹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²²○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9)세례를 주셨다. ²³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i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i세례를 받았다.(i 또는 '침례') ²⁴그 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²⁵요한의 제자들과 j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유대 사람들') ²⁶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i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i 또는 '침례') ²⁷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²⁸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k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k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²⁹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³⁰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l(l 해석자에 따라 36절에서 인용을 끝내기도 함)

하늘로부터 오신 이

³¹○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³²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³³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³⁴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d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d 그, '영') ³⁵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³⁶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JOHN 4 요한보다 a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b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이' b 또는 '침례') ²—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b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b 또는 '침례') ³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⁴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⁵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⁶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c오정쯤이었다.(c 그, '제 육 시쯤')

7○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8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9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d(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괄호 안의 구절이 없음) 10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12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13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16○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너라." 17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18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19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e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e 그, '당신들은') 21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2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26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27○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28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31○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33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3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35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36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³⁷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³⁸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³⁹○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⁴⁰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⁴¹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⁴²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다(마 8:5-13; 눅 7:1-10)

⁴³○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⁴⁴(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⁴⁵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⁴⁶○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 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⁴⁷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⁴⁸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f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f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⁴⁹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⁵⁰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 갔다. ⁵¹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⁵²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 보니 "어제 오후 한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⁵³아이 아버지는 그 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⁵⁴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f표징이다.(f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JOHN 5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²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a히브리 말로 b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a 아람어를 뜻함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데스다') ³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⁴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⁵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⁶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⁷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12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13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14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16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8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려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권위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c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c 또는 '정죄') 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28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옳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증언

³¹○"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³²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³³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³⁴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³⁵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³⁶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³⁷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³⁸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³⁹○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⁴⁰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⁴¹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⁴²d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d 또는 '너희 안에' 또는 '너희 가운데') ⁴³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⁴⁴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⁴⁵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⁴⁶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⁴⁷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JOHN 6 그 뒤에 예수께서 a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a 그, '티베리우스의 갈릴리 바다') ²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b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³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⁴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c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c 출 12:13, 21-28을 볼 것) ⁵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⁶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⁷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이백 d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d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⁸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⁹"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⁰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¹¹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¹²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¹³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

다. ¹⁴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b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¹⁵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다(마 14:22-27; 막 6:45-52)

¹⁶○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¹⁷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¹⁸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¹⁹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e십여 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e 그, '이십오에서 삼십 스타디아쯤'. 약 5-6킬로미터) ²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²¹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는 생명의 빵이시다

²²○그 다음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²³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f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달았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가 없음) ²⁴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²⁵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²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b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²⁷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²⁸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²⁹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³⁰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b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b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³¹g'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g 출 16:4, 5; 시 78:24) ³²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³³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³⁴○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³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³⁶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³⁷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³⁸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³⁹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⁴⁰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⁴¹○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⁴²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⁴³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⁴⁴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⁴⁵예언서에 기록하기를 'h'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h 사 54:13) ⁴⁶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⁴⁷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⁴⁸나는 생명의 빵이다. ⁴⁹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⁵⁰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⁵¹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⁵²○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⁵³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⁵⁴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⁵⁵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⁵⁷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⁵⁸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⁵⁹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⁶⁰○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⁶¹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⁶²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⁶³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⁶⁴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⁶⁵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⁶⁶○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i '이 때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 ⁶⁷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⁶⁸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⁶⁹우리는, 선생님이 j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⁷⁰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⁷¹이것은 k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k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또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예수의 형제들의 불신앙

JOHN 7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a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 ²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b초막절이 가까워지니,(b 또는 '장막절') ³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⁴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⁵(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⁷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⁸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⁹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¹⁰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¹¹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¹²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¹³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¹⁴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¹⁵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¹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¹⁷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¹⁸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¹⁹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²⁰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²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²²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²³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 하느냐? 24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25○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26보십시오. 그가 드러내 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c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c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27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c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28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29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1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c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d하신 것보다 더 많은 e표징을 행하시겠는가?"(c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시는' e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

32○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33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34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35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36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37○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f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f 또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마셔라. 성경에.....') 38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g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g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g 그, '영')

무리 가운데서 일어난 분쟁

⁴⁰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⁴¹"이 사람은 c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c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c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⁴²h성경은 c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h 삼하 7:12; 미 5:2 c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⁴³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⁴⁴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의회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신앙

⁴⁵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⁴⁶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⁴⁷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⁴⁸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⁴⁹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⁵⁰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i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i 그, '그를') ⁵¹"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⁵²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은행하다 잡혀 온 여인

⁵³oj[[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j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7:53-8:11이 없음. 사본에 따라 7:36 다음에 이어지기도 하고, 21:25 다음에 이어지기도 함)

JOHN 8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²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³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⁴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⁵a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a 레 20:10; 신 22:22-24) ⁶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b무엇인가를 쓰셨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⁷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⁸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⁹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¹⁰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¹¹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는 세상의 빛

12○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3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14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15너희는 c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c 그, '육체를 따라') 16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7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d'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d 신 17:6; 19:15) 18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19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21○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2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23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24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e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e 또는 '도대체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하느냐?') 26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27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28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0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31○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32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34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35

좋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³⁶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³⁷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³⁸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의 아비는 악마이다

³⁹○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f하였을 것이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여라') ⁴⁰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⁴¹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⁴²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⁴³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⁴⁴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⁴⁵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⁴⁶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⁴⁷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⁴⁸○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⁴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⁵⁰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⁵¹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⁵²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⁵³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오?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⁵⁴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⁵⁵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⁵⁶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⁵⁷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되었는데, g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단 말이오?') ⁵⁸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

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⁵⁹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고치시다

JOHN 9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²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³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⁴**a**우리는 **b**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는'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⁵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⁶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⁷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⁸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⁹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यो" 하고 말하였다. ¹⁰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¹¹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¹²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비뚤어진 바리새파 사람들

¹³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¹⁴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¹⁵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⁶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c**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c**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¹⁷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¹⁸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¹⁹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²⁰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²¹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²²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d**예수를 **e**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d** 그, '그를' **e**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²³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²⁴○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²⁵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²⁶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²⁷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²⁸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²⁹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³⁰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³¹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³²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³³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³⁴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참으로 눈 먼 사람

³⁵○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f인자를 믿느냐?"(f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³⁶그가 대답하였다. "g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g'선생님(36절)'과 '주님(38절)'은 같은 그리스어 퀴리오스의 번역임) ³⁷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³⁸그는 "g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g'선생님(36절)'과 '주님(38절)'은 같은 그리스어 퀴리오스의 번역임) ³⁹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⁴⁰○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⁴¹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양의 우리의 비유

JOHN 1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²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³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⁴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⁵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시다

⁷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⁸[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⁹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¹⁰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¹¹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¹²삷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 ¹³그는 삷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¹⁴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¹⁵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¹⁶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¹⁷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¹⁸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a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못하였다') ¹⁹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²⁰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²¹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다

²²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²³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²⁴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b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b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²⁵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²⁶그런데 너

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²⁷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²⁸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²⁹c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d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d 또는 '모든 존재') ³⁰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³¹o이 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³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³³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³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e 너희의 율법에, f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의'가 없음 f 시 82:6) ³⁵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³⁶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³⁷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³⁸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³⁹[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⁴⁰o예수께서 다시 요단 강 건너 쪽, 요한이 처음에 g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g 또는 '침례') ⁴¹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h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h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⁴²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JOHN 11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²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³그 누이들이 사람을 a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a 그, '그에게로') ⁴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⁵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⁶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⁷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⁸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터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¹⁰그러나 밤에 걸터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¹¹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¹²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

들었으면, 낮게 될 것입니다." ¹³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¹⁴이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¹⁵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 된 일 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¹⁶그러자 b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b 또는 '쌍둥이')

예수는 부활과 생명이시다

¹⁷○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¹⁸베다니 는 예루살렘에서 c오 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c 그, '십오 스타디아'. 약 3킬로미터) ¹⁹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²⁰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²¹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²²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²³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²⁴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²⁵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²⁶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²⁷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d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d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²⁸○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²⁹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³⁰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³¹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³²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³³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³⁴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³⁵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³⁶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³⁷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말ियो?"

나사로가 살아나다

³⁸○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³⁹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⁴⁰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⁴¹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⁴²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⁴³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⁴⁴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마 26:1-5; 막 14:1-2; 눅 22:1-2)

⁴⁵○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⁴⁶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⁴⁷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e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e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⁴⁸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f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f 또는 '성전') ⁴⁹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⁵⁰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⁵¹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⁵²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⁵³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⁵⁴○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⁵⁵○유대 사람들의 g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g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g 출 12:13, 21-28을 볼 것) ⁵⁶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⁵⁷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 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마 26:6-13; 막 14:3-9)

JOHN 12 a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a 출 12:13, 21-28을 볼 것) ²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 ³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⁴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⁵"이 향유를 b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b 삼백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년 품삷) ⁶(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⁷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⁸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를 해하려고 모의하다

⁹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¹⁰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¹¹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입성(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¹²다음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¹³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c"호산나!
d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c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찬양에서 쓰임 d 시 118:25, 26) ¹⁴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¹⁵e"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e 속 9:9)

¹⁶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¹⁷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¹⁸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f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f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¹⁹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예수를 보러 온 그리스 사람들

²⁰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²¹그들은 갈릴리 벳새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뵈고 싶습니다." ²²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²³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²⁴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²⁵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²⁶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

27o"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28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29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30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31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32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3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34그 때에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g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35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유대 사람들의 불신앙

o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37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f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38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h"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h 사 53:1(칠십인역))
39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i"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j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i 사 6:10(칠십인역)) j '나'는 '주'를 가리킴)

⁴¹이사가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⁴²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⁴³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마지막 날과 심판

⁴⁴○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⁴⁵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⁴⁶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⁴⁷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⁴⁸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⁴⁹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⁵⁰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JOHN 13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²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³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⁴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⁵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⁶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⁷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⁸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⁹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¹⁰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a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발 밖에는'이 없음) ¹¹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¹²○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¹³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¹⁴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¹⁵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¹⁶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¹⁷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¹⁸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

들을 안다. 그러나 'b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나와 함께 빵을 먹은 자가'. 시 35:19; 69:4) ¹⁹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²⁰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배신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다(마 26:20-25; 막 14:17-21; 눅 22:21-23)

²¹○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²²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보았다. ²³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²⁴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²⁵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²⁶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조각을 적셔서 c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또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²⁷d그가 빵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d 그, '빵조각 뒤에' 또는 '한 입 먹은 뒤에') ²⁸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²⁹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³⁰유다는 그 빵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새 계명

³¹○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³²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³³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³⁴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³⁵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다(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³⁶○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³⁷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³⁸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JOHN 1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²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³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⁴a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⁵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⁶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⁷b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가 나를 알면 나의 아버지를 역시 알 것이다') ⁸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¹⁰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¹¹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¹³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¹⁴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성령의 약속

¹⁵o"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c지킬 것이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켜라') ¹⁶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d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d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¹⁷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e안에 계시기 때문이다.(e 또는 '가운데') ¹⁸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¹⁹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²⁰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²¹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²²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²³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26** 그러나 d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d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31**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JOHN 15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a손질하십니다.(a '손질하다'와 '깨끗하게 하다'의 그리스어 어원이 같음(카타이로))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a깨끗하게 되었다.(a '손질하다'와 '깨끗하게 하다'의 그리스어 어원이 같음(카타이로)) **4**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

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¹⁷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¹⁸○"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¹⁹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²⁰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²¹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²²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²³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²⁴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b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b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서도 미워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 ²⁵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²⁶○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c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c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²⁷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JOHN 16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a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a 또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²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³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⁴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일

○또 내가 이 말을 b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b 그, '처음부터') ⁵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⁶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다. ⁷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c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c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⁸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⁹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¹⁰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¹¹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¹²○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¹³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

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¹⁴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¹⁵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¹⁶○"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¹⁷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¹⁸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¹⁹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²⁰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²¹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²²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²³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d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e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d 또는 '요구하지'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²⁴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²⁵○"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²⁶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²⁷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f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버지께서로부터') ²⁸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²⁹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³⁰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³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³²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³³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JOHN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²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a 그, '육체에게') ³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⁴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⁵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⁶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⁷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⁸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⁹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¹⁰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¹¹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¹²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니다. ¹³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b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b 또는 '가운데') ¹⁴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¹⁵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c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c 또는 '악에서') ¹⁶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¹⁷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¹⁸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¹⁹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⁰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²¹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²²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³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⁴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²⁵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

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⁶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배반당하고 잡히시다(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JOHN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²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 곳을 알고 있었다. ³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⁴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⁵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⁷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⁸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⁹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¹⁰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¹¹그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대제사장 앞에 서시다(마 26:57-68; 막 14:53-64; 눅 22:54)

¹²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a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a 그, '천부장') ¹³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¹⁴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마 26:69-70; 막 14:66-68; 눅 22:55-57)

¹⁵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¹⁶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¹⁷그 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¹⁸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쬔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쬔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다(마 26:59-66; 막 14:55-64; 눅 22:66-71)

¹⁹○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²⁰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²¹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²²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²³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²⁴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마 26:71-75; 막 14:69-72; 눅 22:58-62)

²⁵○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²⁶베드로에게 귀를 찢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²⁷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마 27:1-2,11-14; 막 15:1-5; 눅 23:1-5)

²⁸○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b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b 그, '프라이토리온') ²⁹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³⁰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³¹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²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³³빌라도가 다시 b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b 그, '프라이토리온') ³⁴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³⁵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³⁶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여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³⁷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³⁸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마 27:15-31; 막 15:6-20; 눅 23:13-25)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³⁹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

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떨겠소?" ⁴⁰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JOHN 19 그 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²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³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⁴그 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 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⁵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⁶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⁷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⁸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⁹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⁰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서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¹¹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¹²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¹³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a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b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a 돌을 박아 포장한 광장이나 길 ^b 아람어를 뜻함) ¹⁴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c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c 그, '제 육 시') ¹⁵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¹⁶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마 27:32-44; 막 15:21-32; 눅 23:26-43)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¹⁷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 곳은 ^b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b 아람어를 뜻함) ¹⁸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¹⁹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라고 썼다. ²⁰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b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b 아람어를 뜻함) ²¹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²²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²³○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뿔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찢는 것이므로 ²⁴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d'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d 시 22:18) ²⁵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²⁶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²⁷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마 27:45-56; 막 15:33-41; 눅 23:44-49)

²⁸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e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e 시 69:21) ²⁹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³⁰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³¹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³²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³³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³⁴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³⁵(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³⁶일이 이렇게 된 것은, f'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f 출 12:46(칠십인역); 민 9:12; 시 34:20) ³⁷또 성경에 g'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g 속 12:10)

무덤에 묻다(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³⁸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³⁹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h백 근쯤 가지고 왔다.(h 그, '백 리트라이'. 약 34킬로그램) ⁴⁰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았다. ⁴¹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

다. ⁴²그 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부활하시다(마 28:1-10; 막 16:1-8; 눅 24:1-2)

JOHN 20 주간의 첫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²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³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⁴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⁵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⁶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⁷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⁸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⁹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¹⁰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막 16:9-11)

¹¹○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¹²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¹³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¹⁴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¹⁵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⁶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아람어**를 뜻함) ¹⁷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끄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¹⁸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마 28:16-20; 막 16:14-18; 눅 24:36-49)

¹⁹○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²¹[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도마의 불신앙

²⁴○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b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b 그, '디두모') ²⁵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²⁶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²⁷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²⁸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²⁹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을 쓴 목적

³⁰○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c표징도 많이 행하셨다.(c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그리스어 세메이온)) ³¹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 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d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d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JOHN 2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²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³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⁴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⁵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⁶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 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⁷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겹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⁸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a백 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a 그, '이백 규빗'. 약 90미터) ⁹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¹⁰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¹¹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천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¹²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¹³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¹⁴예

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내 양 떼를 먹이라

15○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16**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17**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18**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20○베드로가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21**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3**이 말씀이 b받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b 그, '형제들')

24○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Footnotes

Footnote from John 1:4 ([Back](#))

[\[1\]](#) **1:4** Or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hich has been made was life in him*

Footnote from John 1:11 ([Back](#))

[\[2\]](#) **1:11** Greek *to his own things*; that is, to his own domain, or to his own people

Footnote from John 1:11 ([Back](#))

[\[3\]](#) **1:11** *People* is implied in Greek

Footnote from John 1:16 ([Back](#))

[\[4\]](#) 1:16 Or *grace in place of grace*

Footnote from John 1:18 ([Back](#))

[\[5\]](#) **1:18** Or *the only One, who is God*; some manuscripts *the only Son*

Footnote from John 1:18 ([Back](#))

[\[6\]](#) **1:18** Greek *in the bosom of the Father*

Footnote from John 1:23 ([Back](#))

[\[7\]](#) **1:23** Or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Footnote from John 1:39 ([Back](#))

[\[8\]](#) **1:39** That is, about 4 P.M.

Footnote from John 1:40 ([Back](#))

[\[9\]](#) 1:40 Greek *him*

Footnote from John 1:42 ([Back](#))

[\[10\]](#) **1:42** *Cephas* and *Peter* are from the word for *rock* in Aramaic and Greek, respectively

Footnote from John 1:51 ([Back](#))

[\[11\]](#) **1:51** The Greek for *you* is plural;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John 2:6 ([Back](#))

[\[1\]](#) **2:6** Greek *two or three measures* (*metrē;tas*); a *metrē;tē;s* was about 10 gallons or 35 liters

Footnote from John 2:12 ([Back](#))

[\[2\]](#) **2:12**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brothers* or to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John 2:20 ([Back](#))

[\[3\]](#) **2:20** Or *This temple was built forty-six years ago*

Footnote from John 3:2 ([Back](#))

[\[1\]](#) 3:2 Greek *him*

Footnote from John 3:3 ([Back](#))

[2] 3:3 Or *from above*; the Greek is purposely ambiguous and can mean both *again* and *from above*; also verse 7

Footnote from John 3:6 ([Back](#))

[\[3\]](#) **3:6** The same Greek word means both *wind* and *spirit*

Footnote from John 3:7 ([Back](#))

[\[4\]](#) **3:7** The Greek for *you*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John 3:8 ([Back](#))

[\[5\]](#) **3:8** The same Greek word means both *wind* and *spirit*

Footnote from John 3:11 ([Back](#))

[\[6\]](#) **3:11** The Greek for *you* is plural here; also four times in verse 12

Footnote from John 3:13 ([Back](#))

[\[7\]](#) **3:13** Some manuscripts add *who is in heaven*

Footnote from John 3:15 ([Back](#))

[\[8\]](#) **3:15** Some interpreters hold that the quotation ends at verse 15

Footnote from John 3:16 ([Back](#))

[\[9\]](#) **3:16** Or *For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Footnote from John 3:30 ([Back](#))

[\[10\]](#) **3:30** Some interpreters hold that the quotation continues through verse 36

Footnote from John 4:6 ([Back](#))

[\[1\]](#) 4:6 That is, about noon

Footnote from John 4:14 ([Back](#))

[\[2\]](#) 4:14 Greek *forever*

Footnote from John 4:48 ([Back](#))

[\[3\]](#) **4:48** The Greek for *you* is plural;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John 4:51 ([Back](#))

[\[4\]](#) **4:51**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John 4:52 ([Back](#))

[\[5\]](#) **4:52** That is, at 1 P.M.

Footnote from John 5:2 ([Back](#))

[\[1\]](#) **5:2** Or *Hebrew*

Footnote from John 5:2 ([Back](#))

[\[2\]](#) **5:2** Some manuscripts *Bethsaida*

Footnote from John 5:3 ([Back](#))

[\[3\]](#) **5:3** Some manuscripts insert, wholly or in part,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⁴*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stirred the water: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healed of whatever disease he had*

Footnote from John 5:10 ([Back](#))

[\[4\]](#) **5:10** The Greek word *Ioudaioi* refers specifically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who opposed Jesus in that time; also verses 15, 16, 18

Footnote from John 5:19 ([Back](#))

[\[5\]](#) 5:19 Greek *he*

Footnote from John 6:7 ([Back](#))

[\[1\]](#) **6:7**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John 6:19 ([Back](#))

[\[2\]](#) **6:19** Greek *twenty-five or thirty stadia*;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John 6:58 ([Back](#))

[\[3\]](#) **6:58** Greek lacks *the bread*

Footnote from John 6:59 ([Back](#))

[\[4\]](#) 6:59 Greek *He*

Footnote from John 7:1 ([Back](#))

[\[1\]](#) **7:1** Or *Judeans*;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Footnote from John 7:3 ([Back](#))

[\[2\]](#) **7:3**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5, 10

Footnote from John 7:8 ([Back](#))

[\[3\]](#) 7:8 Some manuscripts add *yet*

Footnote from John 7:15 ([Back](#))

[\[4\]](#) **7:15** Or *this man knows his letters*

Footnote from John 7:17 ([Back](#))

[\[5\]](#) 7:17 Greek *his*

Footnote from John 7:38 ([Back](#))

[\[6\]](#) **7:38** Or *let him come to me, and let him who believes in me drink. As*

Footnote from John 7:53 ([Back](#))

[\[7\]](#) **7:53** Some manuscripts do not include 7:53–8:11; others add the passage here or after 7:36 or after 21:25 or after Luke 21:38, with variations in the text

Footnote from John 8:16 ([Back](#))

[\[1\]](#) **8:16** Some manuscripts *he*

Footnote from John 8:34 ([Back](#))

[\[2\]](#) **8:34**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35

Footnote from John 8:54 ([Back](#))

[\[3\]](#) **8:54** Some manuscripts *your God*

Footnote from John 8:57 ([Back](#))

[\[4\]](#) **8:57** Some manuscripts *has Abraham seen you?*

Footnote from John 9:18 ([Back](#))

[\[1\]](#) **9:18**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 22

Footnote from John 9:22 ([Back](#))

[\[2\]](#) **9:22** Greek *him*

Footnote from John 9:35 ([Back](#))

[\[3\]](#) **9:35** Some manuscripts *the Son of God*

Footnote from John 9:41 ([Back](#))

[\[4\]](#) **9:41** Greek *you would not have sin*

Footnote from John 10:29 ([Back](#))

[\[1\]](#) **10:29** Some manuscripts *What my Father has given to me*

Footnote from John 11:6 ([Back](#))

[\[1\]](#) 11:6 Greek *he*; also verse 17

Footnote from John 11:16 ([Back](#))

[\[2\]](#) 11:16 Greek *Didymus*

Footnote from John 11:18 ([Back](#))

[\[3\]](#) **11:18** Greek *fifteen stadia*;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John 11:25 ([Back](#))

[\[4\]](#) **11:25** Some manuscripts omit *and the life*

Footnote from John 11:33 ([Back](#))

[\[5\]](#) **11:33** Or *was indignant*; also verse 38

Footnote from John 11:56 ([Back](#))

[\[6\]](#) **11:56** Greek *were seeking for*

Footnote from John 12:3 ([Back](#))

[\[1\]](#) **12:3** Greek *litra*; a *litra* (or Roman pound) was equal to about 11 1/2 ounces or 327 grams

Footnote from John 12:5 ([Back](#))

[\[2\]](#) **12:5**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John 12:7 ([Back](#))

[\[3\]](#) **12:7** Or *Leave her alone; she intended to keep it*

Footnote from John 12:9 ([Back](#))

[\[4\]](#) 12:9 Greek *he*

Footnote from John 13:10 ([Back](#))

[\[1\]](#) **13:10** Some manuscripts omit *except for his feet*

Footnote from John 13:10 ([Back](#))

[\[2\]](#) **13:10** The Greek words for *you* in this verse are plural

Footnote from John 13:16 ([Back](#))

[\[3\]](#) **13:16**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John 13:18 ([Back](#))

[\[4\]](#) **13:18** Greek *But in order that the Scripture may be fulfilled*

Footnote from John 13:23 ([Back](#))

[\[5\]](#) **13:23** Greek *in the bosom of Jesus*

Footnote from John 13:24 ([Back](#))

[\[6\]](#) 13:24 Greek lacks *Jesus*

Footnote from John 14:1 ([Back](#))

[\[1\]](#) **14:1** Or *You believe in God*

Footnote from John 14:2 ([Back](#))

[\[2\]](#) **14:2** Or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Footnote from John 14:4 ([Back](#))

[\[3\]](#) **14:4** Some manuscripts *Where I am going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Footnote from John 14:7 ([Back](#))

[\[4\]](#) **14:7** Or *If you know me, you will know my Father also*, or *If you have known me, you will know my Father also*

Footnote from John 14:14 ([Back](#))

[\[5\]](#) **14:14** Some manuscripts omit *me*

Footnote from John 14:16 ([Back](#))

[\[6\]](#) **14:16** Or *Advocate*, or *Counselor*; also 14:26; 15:26; 16:7

Footnote from John 14:17 ([Back](#))

[\[7\]](#) **14:17** Some manuscripts *and is*

Footnote from John 15:15 ([Back](#))

[\[1\]](#) 15:15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John 15:15 ([Back](#))

[\[2\]](#) **15:15**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20

Footnote from John 15:22 ([Back](#))

[\[3\]](#) **15:22** Greek *they would not have sin*; also verse 24

Footnote from John 16:27 ([Back](#))

[\[1\]](#) **16:27** Some manuscripts *from the Father*

Footnote from John 17:15 ([Back](#))

[\[1\]](#) 17:15 Or *from evil*

Footnote from John 17:17 ([Back](#))

[\[2\]](#) **17:17** Greek *Set them apart* (for holy service to God)

Footnote from John 17:19 ([Back](#))

[\[3\]](#) **17:19** Or *I sanctify myself*; or *I set myself apart* (for holy service to God)

Footnote from John 17:19 ([Back](#))

[\[4\]](#) **17:19** Greek *may be set apart* (for holy service to God)

Footnote from John 18:5 ([Back](#))

[\[1\]](#) **18:5** Greek *I am*; also verses 6, 8

Footnote from John 18:6 ([Back](#))

[\[2\]](#) 18:6 Greek *he*

Footnote from John 18:10 ([Back](#))

[\[3\]](#) **18:10** Greek *bondservant*;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John 18:12 ([Back](#))

[\[4\]](#) **18:12**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s 14, 31, 36, 38

Footnote from John 18:18 ([Back](#))

[\[5\]](#) **18:18**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26

Footnote from John 18:28 ([Back](#))

[\[6\]](#) **18:28** Greek *the praetorium*

Footnote from John 18:40 ([Back](#))

[\[7\]](#) 18:40 Or *an insurrectionist*

Footnote from John 19:7 ([Back](#))

[\[1\]](#) **19:7**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s 12, 14, 31, 38

Footnote from John 19:13 ([Back](#))

[\[2\]](#) **19:13** Or *Hebrew*; also verses 17, 20

Footnote from John 19:14 ([Back](#))

[\[3\]](#) **19:14** That is, about noon

Footnote from John 19:23 ([Back](#))

[\[4\]](#) **19:23**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John 19:39 ([Back](#))

[\[5\]](#) 19:39 Greek *him*

Footnote from John 19:39 ([Back](#))

[\[6\]](#) **19:39** Greek *one hundred litras*; a *litra* (or Roman pound) was equal to about 11 1/2 ounces or 327 grams

Footnote from John 20:7 ([Back](#))

[\[1\]](#) 20:7 Greek *his*

Footnote from John 20:16 ([Back](#))

[\[2\]](#) 20:16 Or *Hebrew*

Footnote from John 20:19 ([Back](#))

[\[3\]](#) **20:19**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Footnote from John 20:24 ([Back](#))

[\[4\]](#) 20:24 Greek *Didymus*

Footnote from John 21:8 ([Back](#))

[\[1\]](#) **21:8** Greek *two hundred cubits*;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Footnote from John 21:23 ([Back](#))

[\[2\]](#) **21:23** Or *brothers and sisters*

사도행전

[\(return to table of contents\)](#)

[Acts 1](#) • [Acts 2](#) • [Acts 3](#) • [Acts 4](#) • [Acts 5](#) • [Acts 6](#) • [Acts 7](#) • [Acts 8](#) • [Acts 9](#) • [Acts 10](#) • [Acts 11](#) • [Acts 12](#) • [Acts 13](#) • [Acts 14](#) • [Acts 15](#) • [Acts 16](#) • [Acts 17](#) • [Acts 18](#) • [Acts 19](#) • [Acts 20](#) • [Acts 21](#) • [Acts 22](#) • [Acts 23](#) • [Acts 24](#) • [Acts 25](#) • [Acts 26](#) • [Acts 27](#) • [Acts 28](#)

사도행전

성령을 약속하심

ACTS 1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2**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3**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a**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a** 또는 '모였을' 또는 '계실') **5**요한은 물로 **b**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b**세례를 받을 것이다."(**b** 또는 '침례')

예수의 승천]

6○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9**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뽑다

12○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13**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5○그 무렵에 **c**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백이십 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c** 그, '형제들') **16**"**c**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c** 그, '형제들') **17**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18**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삯으로 받을 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19**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20**시편에 기록하기를

d'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e'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d 시 69:25 e 시 109:8) ²¹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²²곧 요한이 b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b 또는 '침례') ²³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²⁴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²⁵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갑니다." ²⁶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맛디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성령의 강림

ACTS 2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²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³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a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a 또는 '다른 언어로') ⁵○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⁶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⁷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⁸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⁹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리아와 ¹⁰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¹¹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b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b 또는 '우리 각자의 말로') ¹²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¹³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¹⁴○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¹⁵지금은 c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c 그, '제 삼 시') ¹⁶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¹⁷d'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d 욥 2:28-32(칠십인역)) ¹⁸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¹⁹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²⁰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²¹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²²o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f나사렛 예수
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e 그, '이스라엘 남자들' f 그,
'나사렛 사람') ²³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
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²⁴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
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²⁵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g'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g 시 16:8-11(칠십인역))

²⁶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²⁷주님께서 내 영혼을
h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h 그, '하데스')

²⁸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²⁹○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i 그, '형제') ³⁰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³¹그래서 그는 j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h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h 그, '하데스' j 또는 '메시아') ³²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³³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³⁴⁻³⁵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k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k 시 110:1(칠십인역))

³⁶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j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j 또는 '메시아') ³⁷○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³⁸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l 또는 '침례') ³⁹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⁴⁰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⁴¹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1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l 또는 '침례') ⁴²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m빵을 떼는 일과 기도 에 힘썼다.(m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를 가리킴)

신도의 공동 생활

⁴³○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⁴⁴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⁴⁵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⁴⁶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⁴⁷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고치다

ACTS 3 a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a 그, '제 구 시')²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³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⁴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⁵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뵈히 쳐다보았다.⁶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b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b 그, '나사렛 사람')⁷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⁸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⁹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¹⁰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¹¹o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¹²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c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니까?(c 그, '이스라엘 남자들')¹³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d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d 또는 '아이')¹⁴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¹⁵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¹⁶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¹⁷그런데 e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e 그, '형제')¹⁸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f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f 또는 '메시아')¹⁹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²⁰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f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f 또는 '메시아')²¹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²²모세는 말하기를 g'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g 신 18:15, 19(칠십인역))²³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²⁴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²⁵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h'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

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h 창 22:18; 26:4) ²⁶하나님께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오다

ACTS 4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²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³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⁴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⁵○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⁶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a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요나단') ⁷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⁸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⁹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¹⁰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b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b 그, '나사렛 사람') ¹¹이 예수는

c'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c 시 118:22)

¹²○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¹³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¹⁴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¹⁵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¹⁶"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¹⁷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¹⁸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¹⁹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²⁰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²¹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²²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마흔 살이 넘는 사람이다.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다

2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날 낚이 일렸다. **24**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25**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d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못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d 또는 '아이' e 시 2:1, 2(칠십인역))

26 세상 임금들이 들고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f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f'그의 그리스도' 즉 '그가 기름부어 주신 분')

27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d종 예수를 대적하여, (d 또는 '아이') **28**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31**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공동 소유 생활

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36**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37**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ACTS 5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2**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 그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러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4**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5**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7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8**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⁹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¹⁰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¹¹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¹²○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¹³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¹⁴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¹⁵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¹⁶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a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a 그, '더러운')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¹⁷○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일어나, ¹⁸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¹⁹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²⁰"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²¹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 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²²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²³"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²⁴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²⁵그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²⁶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도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²⁷○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²⁸"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하고 있소." ²⁹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³⁰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³¹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³²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³³○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³⁴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

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³⁵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b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b 그, '이스라엘 남자들') ³⁶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³⁷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꺾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³⁸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³⁹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 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⁴⁰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⁴¹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⁴²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저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c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c 또는 '메시아')

일곱 일꾼을 뽑다

ACTS 6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a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a '그리스 말을 일상어로 사용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²그래서 b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c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b 그, '열둘' 이' c 또는 '재정을 출납하는') ³그러니 d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d 그, '형제들') ⁴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⁵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콜라를 뽑아서, ⁶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⁷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이 체포되다

⁸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⁹그 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e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e 라틴어 이름.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 그들의 회당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음) ¹⁰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f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f 그, '영') ¹¹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¹²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¹³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¹⁴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¹⁵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테반의 설교

ACTS 7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오?" ²스테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³a'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a 창 12:1) ⁴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⁵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⁶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b 창 15:13, 14) ⁷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⁸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⁹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¹⁰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¹¹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¹²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¹³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¹⁴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모셔 오게 하였습니다. ¹⁵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¹⁶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¹⁷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¹⁸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¹⁹이 임금이 우리 겨레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²⁰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²¹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²²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²³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c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c 그,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 ²⁴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

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²⁵그는 [자기] d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d 그, '형제들') ²⁶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²⁷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e'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e 출 2:14) ²⁸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²⁹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³⁰○사십 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³¹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³²f'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f 출 3:6) ³³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g 출 3:5, 7, 8, 10) ³⁴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³⁵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³⁶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³⁷h'하나님께서서는 i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d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h 신 18:15 i '나와 같은'으로 번역해서 '한 예언자'에 연결할 수도 있음 d 그, '형제들') ³⁸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j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j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에게') ³⁹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⁴⁰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k'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k 출 32:1) ⁴¹그 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⁴²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I'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I 암 5:25-27(칠십인역)) ⁴³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44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45**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46**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m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m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거처를') **47**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48**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49 n'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n 사 66:1, 2)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52**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5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55**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56**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o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o '사람의 아들') **57**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59**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p잠들었다.(p 또는 '죽었다')

ACTS 8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

곡하였다. ³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⁴○그런데 흠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⁵빌립은 a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b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성읍' b 또는 '메시아') ⁶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⁷그것은, 귀신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c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c 그, '더러운') ⁸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⁹○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¹⁰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¹¹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¹²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d세례를 받았다.(d 또는 '침례') ¹³시몬도 믿게 되었고, d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d 또는 '침례')

¹⁴○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¹⁵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¹⁶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d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d 또는 '침례') ¹⁷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¹⁸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¹⁹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하니, ²⁰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²¹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²²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²³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e얽매어 있소."(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얽매는 자가 되었소') ²⁴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²⁵○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

²⁶○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²⁷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²⁸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

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²⁹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거라." ³⁰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³¹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³²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f'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f 사 53:7, 8(칠십인역))

³³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³⁴○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³⁵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³⁶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d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d 또는 '침례') ³⁷g(37절 없음)(g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37.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³⁸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d세례를 주었다. (d 또는 '침례') ³⁹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⁴⁰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울의 회개(행 22:6-16; 26:12-18)

ACTS 9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²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³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⁴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⁵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⁶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⁷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⁸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⁹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¹⁰○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¹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

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12**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17**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18**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a세례를 받고(a 또는 '침례') **19**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전도하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20**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21**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b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b 또는 '메시아')

사울이 피신하다

23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24**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25**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 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27**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28**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29**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30** c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c 그, '형제들')

31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가 중풍병 환자를 고치다

³²○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³³거기서 그는 팔 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³⁴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 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³⁵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³⁶○그런데 옴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d 아람어 이름. 그리스어로는 도르가. 둘 다 '사슴'이라는 뜻) ³⁷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³⁸룻다는 옴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³⁹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 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⁴⁰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⁴¹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⁴²그 일이 온 옴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⁴³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옴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다

ACTS 10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²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³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⁴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a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a 그, '주님') ⁵이제,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⁶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⁷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⁸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옴바로 보냈다.

⁹○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옴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¹⁰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¹¹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¹²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¹³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¹⁴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

다." 15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이런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7○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18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19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b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b 한 고대 사본에는 '둘'. 어떤 사본에는 수가 밝혀져 있지 않음) 20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21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यो. 무슨 일로 오셨소?" 22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23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옴바에 있는 c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c 그, '형제들') 24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25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26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27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28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9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30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를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d 오후 세 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d 그, '제 구 시') 31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32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33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34○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6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37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e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e 또는 '침례') 38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었지만, ⁴⁰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⁴¹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⁴²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⁴³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⁴⁴○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⁴⁵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⁴⁶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f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f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⁴⁷"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e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e 또는 '침례') ⁴⁸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e 또는 '침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ACTS 11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a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a 그, '형제들') ²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³"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오" 하고 그를 나무랐다. ⁴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⁵"내가 옴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통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⁶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⁷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⁸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⁹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¹⁰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¹¹바로 그 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¹²성령이 내게, b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b 또는 '주저하지 말고' 또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하지 말고') ¹³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¹⁴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¹⁵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¹⁶그 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c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

으로 c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c 또는 '침례') 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1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안디옥에서 신도들이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다

19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d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7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ACTS 12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2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3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a무교절 기간이었다.(a 출 12:15-20을 볼 것) 4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b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b 출 12:13, 21-28을 볼 것) 5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다

6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9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¹⁰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 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¹¹그 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¹²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¹³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¹⁴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¹⁵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¹⁶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¹⁷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c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c 그, '형제들')

¹⁸○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¹⁹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d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d 그, '그는'. '그'의 실명사를 '베드로'로 보는 견해도 있음)

헤롯의 죽음

²⁰○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²¹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²²그 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²³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²⁴○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²⁵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e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다

ACTS 13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a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a 그, '테트라아르케스(영토의 1/4 통치자)') ²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³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사도들의 키프로스 전도 활동

⁴○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⁵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⁶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⁷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⁸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⁹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¹⁰"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¹¹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¹²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¹³○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¹⁴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¹⁵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¹⁶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b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b 그, '이스라엘 남자들') ¹⁷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¹⁸광야에서는 사십 년 동안 c그들에 대하여 참아 주시고,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¹⁹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²⁰약 사백오십 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²¹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사십 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²²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d'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d 삼상 13:14; 시 89:20) ²³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²⁴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e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 하였습니다.(e 또는 '침례') ²⁵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²⁶○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f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에게') ²⁷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²⁸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²⁹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³⁰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³¹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³²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³³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g'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g 시 2:7) ³⁴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h'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h 사 55:3(칠십인역))

³⁵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i 시 16:10)

³⁶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j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j 또는 '죽어서') ³⁷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³⁸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³⁹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⁴⁰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⁴¹k'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k 합 1:5(칠십인역))

⁴²l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l 바울과 바나바) ⁴³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⁴⁴m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m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m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⁴⁵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⁴⁶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⁴⁷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n'내가 너를

못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n 사 49:6) ⁴⁸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⁴⁹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⁵⁰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⁵¹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⁵²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ACTS 14 a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a 그, '그들은') 2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3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4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5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죽이려고 했다. 6a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a 그, '그들은') 7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8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9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10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11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12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13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14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15이렇게 말하였다. "b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b 그, '사람들') 16하나님께서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17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18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19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20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21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22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

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²³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²⁴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²⁵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²⁶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²⁷ 그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²⁸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예루살렘 회의

ACTS 15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a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a 그, '형제들') ²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 보게 하였다. ³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의 모든 a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a 그, '형제들') 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⁵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⁶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⁷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a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a 그, '형제들') ⁸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¹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¹¹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¹²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¹³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a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a 그, '형제들') ¹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b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b 시몬 곧 베드로) ¹⁵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¹⁶ c'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c 암 9:11, 12(칠십인역)) ¹⁷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¹⁸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¹⁹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²⁰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d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목매어 죽인 것과'가 없음) ²¹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방계 신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의 편지

²²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a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a 그, '형제들') ²³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a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a 그, '형제들') ²⁴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e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라는 말이 더 있음) ²⁵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²⁶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²⁷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²⁸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²⁹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f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목매어 죽인 것'이 없음)

³⁰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³¹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³²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a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a 그, '형제들') ³³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a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a 그, '형제들') ³⁴g(34절 없음)(g 어떤 사본에는 34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34. 그러나 실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 ³⁵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³⁶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a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 봅시다."(a 그, '형제들') ³⁷그런

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³⁸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³⁹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⁴⁰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a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a 그, '형제들') ⁴¹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ACTS 16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²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a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a 그, '형제들') ³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⁴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⁵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이 환상을 보다

⁶o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므로, 그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⁷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⁸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⁹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¹⁰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루디아가 밀다

¹¹o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갔고, ¹²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b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b 또는 '첫째 도시') ¹³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¹⁴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¹⁵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c세례를 받고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c 또는 '침례')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16○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17**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d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에게') **18**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19**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20**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 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23**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다. **25**○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27**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28**그 때에 바울이 큰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29**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그리고 e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의') **33**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c세례를 받았다.(c 또는 '침례') **34**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35○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36**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37**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38**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39**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청하였다. **40**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a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a 그, '형제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ACTS 17 a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a 그, '그들은') **2**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

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³그는, b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b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b 또는 '메시아') ⁴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⁵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⁶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c신도 몇 사람을 d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c 그, '형제들' d 그, '폴리트아르케스') ⁷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e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e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⁸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⁹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바울이 베뢰아에서 전도하다

¹⁰oc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c 그, '형제들') ¹¹베뢰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¹²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와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¹³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¹⁴그 때에 c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c 그, '형제들') ¹⁵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뢰아로 떠나갔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

¹⁶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¹⁷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f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f 그, '아고라(시의 중심지)') ¹⁸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¹⁹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²⁰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²¹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²²o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²³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

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²⁴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²⁵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²⁶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²⁷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을')

²⁸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²⁹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³⁰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³¹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³²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³³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³⁴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ACTS 18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²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³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⁴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⁵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a 또는 '메시아') ⁶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b곳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b 항의하는 표시로) ⁷바울은 c거기를 떠나서, d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c 회당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디도') ⁸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e세례를 받았다.(e 또는 '침례') ⁹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

하여라. ¹⁰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¹¹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 년 육 개월 동안 머물렀다.

¹²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¹³"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⁴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¹⁵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¹⁶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¹⁷f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가다 재 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가다

¹⁸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g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g 그, '형제들') ¹⁹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²⁰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²¹"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²²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h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h 그, '올라가') ²³바울은 얼마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 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볼로의 전도활동

²⁴그러나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²⁵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e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e 또는 '침례') ²⁶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²⁷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g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 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g 그, '형제들') ²⁸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a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a 또는 '메시아')

바울의 에베소 전도활동

ACTS 19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a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a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가리킴) ²"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b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b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b 또는 '침례') ⁴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b세례를 주었습니다."(b 또는 '침례') ⁵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b세례를 받았다.(b 또는 '침례') ⁶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c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c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⁷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⁸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⁹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d강론하였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오전 열한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강론하였다') ¹⁰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스게와의 아들들

¹¹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¹²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¹³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¹⁴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¹⁵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¹⁶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¹⁷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¹⁸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¹⁹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오만 닢에 맞먹었다. ²⁰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²¹이런 일이 있는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²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e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e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 아시아 주를 가리킴)

²³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²⁴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자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²⁵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²⁶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e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

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e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 아시아 주를 가리킴) ²⁷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e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e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 아시아 주를 가리킴)

²⁸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²⁹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³⁰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³¹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f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f 아시아의 제의 동맹의 대제관들인 듯함) ³²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³³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 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³⁴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³⁵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³⁶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³⁷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g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희의') ³⁸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³⁹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⁴⁰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⁴¹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h(h 원문에는 41절이 없다)

바울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여행

ACTS 20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²바울은 그 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a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a 그, '그들을') ³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⁴그 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써, 베뢰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⁵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⁶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유두고를 살리다

⁷○b주간의 첫 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b 또는 '안식일 밤에' 또는 '토요일에' 또는 '주일에')

⁸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⁹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삼 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¹⁰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¹¹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¹²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항해

¹³○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앓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앓소까지 걸어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¹⁴우리는 앓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¹⁵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c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드로킬리움에 머무른 뒤에 그 다음날 밀레도에')

¹⁶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다

¹⁷○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¹⁸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¹⁹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²⁰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²¹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²²보십시오. 이제 나는 d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d 그, '영')

²³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²⁴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²⁵○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⁶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²⁷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²⁸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e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께서')

²⁹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³⁰바로 여러분 가

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³¹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³²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³³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³⁴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³⁵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³⁶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³⁷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³⁸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ACTS 21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a**바다라로 갔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바다라와 미라') ²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³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⁴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⁵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 곳을 떠나 여행 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⁷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b**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c**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b** 또는 '계속하여')(**c** 그, '형제들') ⁸이튿날 우리는 그 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⁹이 사람에게에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¹⁰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¹¹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¹²이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¹³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¹⁴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¹⁵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¹⁶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 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18**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19**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20**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21**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2**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24**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d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목매어 죽인 것'이 없음) **26**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바울이 체포되다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e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총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e 당시의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으로 오늘날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소재했음) **28** 소리 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29**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0**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31**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32**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33**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34**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35** 바울이 총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메고 가야 하였다. **36**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다

37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요? **38**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

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³⁹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⁴⁰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총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며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f 아람어를 가리킴)

ACTS 22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² 군중들은 바울이 a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a 아람어를 가리킴) ³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⁴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는 여자로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⁵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행 9:1-19; 26:12-18)

⁶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⁷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⁸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b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b 그, '나사렛 사람') ⁹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¹⁰ 그 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¹¹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¹²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¹³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¹⁴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¹⁵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¹⁶ 그러니 이제 망설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c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c 또는 '침례')

바울이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된 경위

¹⁷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¹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¹⁹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²⁰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²¹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임을 알리다

²²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²³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²⁴ 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²⁵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²⁶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²⁷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²⁸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⁹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바울이 의회 앞에서 해명하다

³⁰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ACTS 23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a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a 그, '형제들') ²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³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⁵ 바울이 말하였다. "a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b'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a 그, '형제들' b 출 22:28)

⁶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a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a 그, '형제들') ⁷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⁸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⁹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¹⁰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11○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12○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13**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14**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15**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 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16**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17**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18**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19**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 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20**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1**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 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다

23○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아홉 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24**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25**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26**"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27**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 냈습니다. **28**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29**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끝에 '안녕히 계십시오'가 더 있음)

31○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32**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33**기병들이 가이사랴

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³⁴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 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³⁵"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d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d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으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던 건물을 가리킴)

바울을 고소하다

ACTS 24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²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a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a 그리스어 본문에는 '벨릭스 총독님'이 없음) ³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⁴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⁵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⁶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⁷b(6절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없음)(b 어떤 사본에는 6절 하반절과 7절과 8절 상반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7.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8.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⁸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⁹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울이 변명하다

¹⁰그 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¹¹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¹²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¹³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¹⁴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¹⁵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¹⁶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¹⁷나는, 내 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¹⁸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¹⁹그 자리에는 c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c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 아시아 주

를 가리킴) ²⁰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²¹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 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²²○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²³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²⁴○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²⁵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²⁶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²⁷○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다

ACTS 25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²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³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⁴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⁵"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⁶○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⁷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⁸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a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a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⁹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¹⁰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a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a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¹¹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a황제에게 상소합니다."(a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12 그 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a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a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a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 서다

13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판결을 청하였습니다. **16**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 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7**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18**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a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a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24** 그 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6**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27**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해명

ACTS 26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2** "아그립바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5** 그들은 오래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⁶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⁷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⁸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⁹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¹⁰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¹¹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행 9:1-19; 22:6-16)

¹²○"한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¹³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¹⁴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때에 a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돈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a 아람어를 가리킴) ¹⁵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¹⁶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¹⁷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¹⁸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신문자들에게 전도하다

¹⁹○"그러므로 아그립바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²⁰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²¹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²²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²³그것은 곧, b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b 또는 '메시아')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전도하다

²⁴○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²⁵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임금님께서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7**아그립바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29**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30**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31**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32**그 때에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ACTS 27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2**우리는 아드라뭇데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a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a 오늘날의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 아시아 주를 가리킴) **3**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4**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5**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6**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7**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8**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새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9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10**"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11**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뵈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뵈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바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13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14**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15**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시작하였다. **16**그런데 우리가 b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 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클라우다') ¹⁷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¹⁸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¹⁹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²⁰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 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²¹○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²³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²⁴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²⁵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²⁶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달게 될 것입니다."

²⁷○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²⁸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 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²⁹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³⁰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³¹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³²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³³○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³⁴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³⁵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³⁶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³⁷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c이백일흔 여섯 명이였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일흔여섯' 또는 '대략 일흔여섯') ³⁸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³⁹○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⁴⁰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⁴¹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여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⁴²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 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⁴³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물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⁴⁴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물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물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몰타 섬에 오르다

ACTS 28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 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²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³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⁴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 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⁵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⁶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⁷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⁸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⁹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¹⁰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다

¹¹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¹²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¹³그 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¹⁴우리는 거기서 a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a 그, '형제들') ¹⁵거기 a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a 그, '형제들') ¹⁶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¹⁷○사흘 뒤에 바울은 그 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a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겨레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a 그, '형제들') ¹⁸b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b 그, '그들은') ¹⁹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c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c 그, '가이사', 라틴어의 그리스어 음역. 로마 황제의 칭호) ²⁰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뵈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사

술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²¹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a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a 그, '형제들') ²²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²³○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²⁴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²⁵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흠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²⁶곧 이런 말씀입니다.

d'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d 사 6:9, 10(칠십인역))

²⁷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²⁸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²⁹e(29절 없음)(e 어떤 사본에는 29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29.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³⁰○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³¹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Footnotes

Footnote from Acts 1:4 ([Back](#))

[\[1\]](#) 1:4 Or *eating*

Footnote from Acts 1:5 ([Back](#))

[\[2\]](#) 1:5 Or *in*

Footnote from Acts 1:14 ([Back](#))

[\[3\]](#) **1:14**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 15

Footnote from Acts 1:18 ([Back](#))

[\[4\]](#) 1:18 Or *swelling up*

Footnote from Acts 2:3 ([Back](#))

[\[1\]](#) **2:3** Or *And tongues as of fire appeared to them, distributed among them, and rested*

Footnote from Acts 2:15 ([Back](#))

[\[2\]](#) **2:15** That is, 9 A.M.

Footnote from Acts 2:18 ([Back](#))

[\[3\]](#) **2:18** Greek *bondservants*;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Acts 2:23 ([Back](#))

[\[4\]](#) 2:23 Greek *this one*

Footnote from Acts 2:43 ([Back](#))

[\[5\]](#) 2:43 Or *fear*

Footnote from Acts 3:1 ([Back](#))

[\[1\]](#) **3:1** That is, 3 P.M.

Footnote from Acts 3:13 ([Back](#))

[\[2\]](#) **3:13** Or *child*; also verse 26

Footnote from Acts 3:16 ([Back](#))

[\[3\]](#) 3:16 Greek *him*

Footnote from Acts 4:11 ([Back](#))

[\[1\]](#) 4:11 Greek *This one*

Footnote from Acts 4:11 ([Back](#))

[\[2\]](#) **4:11** Greek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Acts 4:12 ([Back](#))

[\[3\]](#) **4:12** The Greek word *anthropoi* refers here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Acts 4:25 ([Back](#))

[\[4\]](#) **4:25** Or *child*; also verses 27, 30

Footnote from Acts 4:26 ([Back](#))

[\[5\]](#) 4:26 Or *Christ*

Footnote from Acts 4:29 ([Back](#))

[\[6\]](#) **4:29**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Acts 5:8 ([Back](#))

[\[1\]](#) **5:8** The Greek for *you* is plural here

Footnote from Acts 6:1 ([Back](#))

[\[1\]](#) **6:1** That is, Greek-speaking Jews

Footnote from Acts 6:3 ([Back](#))

[\[2\]](#) **6:3**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Acts 7:46 ([Back](#))

[\[1\]](#) 7:46 Some manuscripts *for the house of Jacob*

Footnote from Acts 7:57 ([Back](#))

[\[2\]](#) 7:57 Or *rushed with one mind*

Footnote from Acts 8:5 ([Back](#))

[\[1\]](#) **8:5** Some manuscripts *a city*

Footnote from Acts 8:13 ([Back](#))

[\[2\]](#) **8:13** Greek *works of power*

Footnote from Acts 8:23 ([Back](#))

[\[3\]](#) **8:23** That is, a bitter fluid secreted by the liver; bile

Footnote from Acts 8:26 ([Back](#))

[\[4\]](#) **8:26** Or *go at about noon*

Footnote from Acts 8:36 ([Back](#))

[\[5\]](#) **8:36** Some manuscripts add all or most of verse 37: *And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And he replie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Footnote from Acts 9:23 ([Back](#))

[\[1\]](#) **9:23** The Greek word *Ioudaioi* refers specifically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who opposed the Christian faith in that time

Footnote from Acts 9:25 ([Back](#))

[\[2\]](#) **9:25** Greek *through the wall*

Footnote from Acts 9:29 ([Back](#))

[\[3\]](#) **9:29** That is, Greek-speaking Jews

Footnote from Acts 9:36 ([Back](#))

[\[4\]](#) **9:36** The Aramaic name *Tabitha* and the Greek name *Dorcas* both mean *gazelle*

Footnote from Acts 9:39 ([Back](#))

[\[5\]](#) **9:39**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Footnote from Acts 10:3 ([Back](#))

[\[1\]](#) **10:3** That is, 3 P.M.

Footnote from Acts 10:9 ([Back](#))

[\[2\]](#) **10:9** That is, noon

Footnote from Acts 10:20 ([Back](#))

[\[3\]](#) **10:20** Or *accompany them, making no distinction*

Footnote from Acts 10:30 ([Back](#))

[\[4\]](#) **10:30** That is, 3 P.M.

Footnote from Acts 11:1 ([Back](#))

[\[1\]](#) 11: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Acts 11:2 ([Back](#))

[\[2\]](#) **11:2** Or *Jerusalem, those of the circumcision*

Footnote from Acts 11:20 ([Back](#))

[\[3\]](#) **11:20** Or *Greeks* (that is, Greek-speaking non-Jews)

Footnote from Acts 11:29 ([Back](#))

[\[4\]](#) **11:29**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Acts 12:17 ([Back](#))

[\[1\]](#) **12:17**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Acts 12:20 ([Back](#))

[\[2\]](#) **12:20** That is, trusted personal attendant

Footnote from Acts 12:25 ([Back](#))

[\[3\]](#) **12:25** Some manuscripts *to*

Footnote from Acts 13:1 ([Back](#))

[\[1\]](#) **13:1** *Niger* is a Latin word meaning *black*, or *dark*

Footnote from Acts 13:18 ([Back](#))

[\[2\]](#) **13:18** Some manuscripts *he carried* (compare Deuteronomy 1:31)

Footnote from Acts 13:39 ([Back](#))

[\[3\]](#) **13:39** Greek *justified*;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Acts 13:50 ([Back](#))

[\[4\]](#) **13:50**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Footnote from Acts 14:2 ([Back](#))

[\[1\]](#) **14:2**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Acts 14:9 ([Back](#))

[\[2\]](#) 14:9 Or *be saved*

Footnote from Acts 15:3 ([Back](#))

[\[1\]](#) **15:3**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22

Footnote from Acts 15:17 ([Back](#))

[\[2\]](#) 15:17 Or *rest*

Footnote from Acts 15:23 ([Back](#))

[3] 15:23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32, 33, 36

Footnote from Acts 15:24 ([Back](#))

[\[4\]](#) **15:24** Some manuscripts *some persons from us have troubled you*

Footnote from Acts 15:33 ([Back](#))

[\[5\]](#) **15:33** Some manuscripts insert verse 34: *But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Footnote from Acts 16:1 ([Back](#))

[\[1\]](#) 16:1 Greek *He*

Footnote from Acts 16:2 ([Back](#))

[\[2\]](#) **16:2**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40

Footnote from Acts 16:10 ([Back](#))

[\[3\]](#) **16:10** Greek *he*

Footnote from Acts 16:12 ([Back](#))

[\[4\]](#) 16:12 Or *that*

Footnote from Acts 16:17 ([Back](#))

[\[5\]](#) 16:17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Acts 16:29 ([Back](#))

[\[6\]](#) 16:29 Greek *he*

Footnote from Acts 17:5 ([Back](#))

[\[1\]](#) **17:5**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 13

Footnote from Acts 17:10 ([Back](#))

[\[2\]](#) **17:10**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4

Footnote from Acts 17:24 ([Back](#))

[\[3\]](#) 17:24 Greek *made by hands*

Footnote from Acts 17:28 ([Back](#))

[\[4\]](#) **17:28** Probably from Epimenides of Crete

Footnote from Acts 17:28 ([Back](#))

[\[5\]](#) **17:28** From Aratus's poem “Phainomena”

Footnote from Acts 18:1 ([Back](#))

[\[1\]](#) 18:1 Greek *he*

Footnote from Acts 18:12 ([Back](#))

[\[2\]](#) **18:12**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s 14 (twice), 28

Footnote from Acts 18:18 ([Back](#))

[\[3\]](#) **18:18**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27

Footnote from Acts 18:25 ([Back](#))

[\[4\]](#) **18:25** Or *in the Spirit*

Footnote from Acts 19:1 ([Back](#))

[\[1\]](#) **19:1** Greek *upper* (that is, highland)

Footnote from Acts 19:5 ([Back](#))

[\[2\]](#) 19:5 Or *into*

Footnote from Acts 19:9 ([Back](#))

[\[3\]](#) **19:9** Some manuscripts add *from the fifth hour to the tenth* (that is, from 11 A.M. to 4 P.M.)

Footnote from Acts 19:16 ([Back](#))

[\[4\]](#) 19:16 Or *both*

Footnote from Acts 19:31 ([Back](#))

[\[5\]](#) **19:31** That is, high-ranking officers of the province of Asia

Footnote from Acts 19:35 ([Back](#))

[\[6\]](#) **19:35** The meaning of the Greek is uncertain

Footnote from Acts 19:39 ([Back](#))

[\[7\]](#) **19:39** Some manuscripts *seek about other matters*

Footnote from Acts 20:3 ([Back](#))

[\[1\]](#) **20:3**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also verse 19

Footnote from Acts 20:15 ([Back](#))

[\[2\]](#) **20:15** Some manuscripts add *after remaining at Trogyllium*

Footnote from Acts 20:22 ([Back](#))

[\[3\]](#) 20:22 Or *bound in*

Footnote from Acts 20:28 ([Back](#))

[\[4\]](#) **20:28** Some manuscripts *of the Lord*

Footnote from Acts 20:28 ([Back](#))

[\[5\]](#) **20:28** Or *with the blood of his Own*

Footnote from Acts 21:1 ([Back](#))

[\[1\]](#) **21:1** Some manuscripts add *and Myra*

Footnote from Acts 21:7 ([Back](#))

[\[2\]](#) **21:7**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7

Footnote from Acts 21:11 ([Back](#))

[\[3\]](#) **21:11** Greek *Ioudaioi* probably refers here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in that time

Footnote from Acts 21:25 ([Back](#))

[\[4\]](#) **21:25** Some manuscripts omit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Footnote from Acts 21:40 ([Back](#))

[\[5\]](#) **21:40** Or *the Hebrew dialect* (probably Aramaic)

Footnote from Acts 22:2 ([Back](#))

[\[1\]](#) **22:2** Or *the Hebrew dialect* (probably Aramaic)

Footnote from Acts 22:3 ([Back](#))

[\[2\]](#) **22:3** Or *city at the feet of Gamaliel, educated*

Footnote from Acts 22:9 ([Back](#))

[3] 22:9 Or *hear with understanding*

Footnote from Acts 22:25 ([Back](#))

[\[4\]](#) **22:25** Or *when they had tied him up with leather strips*

Footnote from Acts 23:23 ([Back](#))

[\[1\]](#) **23:23** That is, 9 P.M.

Footnote from Acts 24:4 ([Back](#))

[\[1\]](#) 24:4 Or *weary*

Footnote from Acts 24:6 ([Back](#))

[\[2\]](#) **24:6** Some manuscripts add *and we would have judged him according to our law.* ⁷*But the chief captain Lysias came and with great violence took him out of our hands,* ⁸*commanding his accusers to come before you.*

Footnote from Acts 25:3 ([Back](#))

[\[1\]](#) 25:3 Greek *him*

Footnote from Acts 26:14 ([Back](#))

[\[1\]](#) **26:14** Or *the Hebrew dialect* (probably Aramaic)

Footnote from Acts 26:28 ([Back](#))

[\[2\]](#) **26:28** Or *In a short time you would persuade me to act like a Christian!*

Footnote from Acts 27:9 ([Back](#))

[\[1\]](#) **27:9** That is, the Day of Atonement

Footnote from Acts 27:16 ([Back](#))

[\[2\]](#) **27:16** Some manuscripts *Clauda*

Footnote from Acts 27:17 ([Back](#))

[\[3\]](#) **27:17** That is, the sea-anchor (or possibly the mainsail)

Footnote from Acts 27:28 ([Back](#))

[\[4\]](#) **27:28** About 120 feet; a fathom (Greek *orguia*) was about 6 feet or 2 meters

Footnote from Acts 27:28 ([Back](#))

[\[5\]](#) **27:28** About 90 feet (see previous note)

Footnote from Acts 27:34 ([Back](#))

[\[6\]](#) **27:34** Or *For it is for your deliverance*

Footnote from Acts 27:37 ([Back](#))

[\[7\]](#) **27:37** Some manuscripts *seventy-six*, or *about seventy-six*

Footnote from Acts 27:41 ([Back](#))

[\[8\]](#) **27:41** Or *sandbank*, or *crosscurrent*; Greek *place between two seas*

Footnote from Acts 28:2 ([Back](#))

[\[1\]](#) **28:2** Greek *barbaroi* (that is, non-Greek speakers); also verse 4

Footnote from Acts 28:4 ([Back](#))

[\[2\]](#) 28:4 Or *justice*

Footnote from Acts 28:10 ([Back](#))

[\[3\]](#) **28:10** Greek *honored us with many honors*

Footnote from Acts 28:11 ([Back](#))

[\[4\]](#) **28:11** That is, the Greek gods Castor and Pollux

Footnote from Acts 28:14 ([Back](#))

[\[5\]](#) **28:14**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15, 21

Footnote from Acts 28:28 ([Back](#))

[\[6\]](#) **28:28** Some manuscripts add verse 29: *And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the Jews departed, having much dispute among themselves*

Footnote from Acts 28:30 ([Back](#))

[\[7\]](#) **28:30** Or *in his own hired dwelling*

로마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Romans 1](#) • [Romans 2](#) • [Romans 3](#) • [Romans 4](#) • [Romans 5](#) • [Romans 6](#) • [Romans 7](#) • [Romans 8](#) •
[Romans 9](#) • [Romans 10](#) • [Romans 11](#) • [Romans 12](#) • [Romans 13](#) • [Romans 14](#) • [Romans 15](#) • [Romans 16](#)

로마서

인사

ROMANS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2**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4a**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 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b**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 니다.(a 그, '거룩함의 영' b 또는 '확인되신, 지정되신, 지명되신') **5**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 게 하려는 것입니다. **6**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 람이 되었습니다.

7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 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8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c**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c 그, '영') **10**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 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 는 것입니다. **12**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3d**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d 그, '형제들') **14**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15**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

16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e**그리스 사람에 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e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로 지칭하는 명칭임) **17**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f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g**"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f 또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g 함 2:4)

사람이 짓는 갖가지 죄

18○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9**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21**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3**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4○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5**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29**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과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30**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h 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31**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32**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ROMANS 2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a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a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a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2**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a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4**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a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5**a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6**하나님께서서는 b"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b 시 62:12; 잠 24:12) **7**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8**이기심에 사

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⁹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¹⁰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¹¹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¹²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¹³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⁴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¹⁵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¹⁶이런 일은, c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c 그, '나의 복음')

유대 사람과 율법

¹⁷○그런데, a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a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¹⁸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¹⁹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²⁰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²¹그렇다면 a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²²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²³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²⁴성경에 기록한 바 d"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d 사 52:5(칠십인역); 겔 36:22) ²⁵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a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²⁶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²⁷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a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a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²⁸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²⁹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ROMANS 3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²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³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⁴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a"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a 시 51:4(칠십인역)) ⁵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⁶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⁷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으십니까?" ⁸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⁹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¹⁰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b 시 14:1-3(칠십인역); 53:1-3(칠십인역); 전 7:20)

¹¹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¹²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¹³c"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d"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c 시 5:9(칠십인역) d 시 140:3(칠십인역))

¹⁴e"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e 시 10:7(칠십인역))

¹⁵f"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f 사 59:7, 8)

¹⁶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¹⁷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¹⁸g"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g 시 36:1)

¹⁹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²⁰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h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h 그, '속량') **25**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6**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27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28**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9**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31**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ROMANS 4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a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b"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c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b 창 15:6c 원어로는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4**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6**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7 d"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d 시 32:1, 2) **8**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9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10**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¹¹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¹²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다

¹³○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¹⁴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¹⁵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¹⁶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¹⁷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e"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e 창 17:5) ¹⁸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f"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f 창 15:5) ¹⁹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²⁰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²¹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²²그래서 하나님께서는 g이것을 보시고 b"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b 창 15:6 g 또는 '그의 믿음을') ²³"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²⁴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²⁵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사람의 삶

ROMANS 5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a누리고 있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누립시다') ²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b자랑을 합니다.(b 또는 '자랑합니다') ³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c환난을 b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b 또는 '자랑합니다' c 또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⁴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⁵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⁶우리

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⁷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⁸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⁹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d 그, '하나님의'가 없음) ¹⁰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¹¹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¹²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¹³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¹⁴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¹⁵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¹⁶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¹⁷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¹⁸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¹⁹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²⁰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²¹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ROMANS 6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²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³a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a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a 또는 '침례') ⁴그러므로 우리는 a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

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a 또는 '침례') ⁵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⁶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⁷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⁸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⁹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¹⁰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¹¹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¹²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¹³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b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b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b 또는 '무기') ¹⁴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다

¹⁵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¹⁶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¹⁷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¹⁸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¹⁹여러분의 c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c 그, '육신') ²⁰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²¹여러분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마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²²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²³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

ROMANS 7 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a 그, '형제들') ²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³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⁴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

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a 그, '형제들')⁵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⁶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묶아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

⁷○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b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c"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b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b 여기서부터 7장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일반을 대표해서 지칭하는 수사학적 대명사로 사용된 것임 c 출 20:7; 신 5:21)⁸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⁹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¹⁰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¹¹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¹²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¹³○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⁴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¹⁵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¹⁶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¹⁷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¹⁸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¹⁹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²⁰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²¹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²²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²³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²⁴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²⁵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다

ROMANS 8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²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a성령의 법이 b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a 그, '영' b 다른 고대 사본에는 '나' 또는 '우리') ³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⁴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a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a 그, '영') ⁵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a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a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a 그, '영') ⁶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a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a 그, '영') ⁷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⁸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⁹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a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a 그, '영') ¹⁰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¹¹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c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d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d 그, '영을 통하여') ¹²그러므로 e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e 그, '형제들') ¹³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a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a 그, '영') ¹⁴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f자녀입니다.(f 그, '아들들') ¹⁵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g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h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g '그, '아들의 신분으로' 또는 '아들 됨' h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의 그리스어 음역) ¹⁶바로 그 때에 그 a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a 그, '영') ¹⁷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다

¹⁸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¹⁹피조물은 하나님의 f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f 그, '아들들') ²⁰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²¹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²²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²³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g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g '그, '아들의 신분으로' 또는 '아들 됨') ²⁴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²⁵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6○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i 그, '분께서는')

28○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

31○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5**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6**성경에 기록한 바

j"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j 시 44:22) **37**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ROMANS 9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2**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3**나는, 육신으로 a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a 그, '내 형제들') **4**a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b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a 그, '내 형제들' b 그, '아들의 신분' 또는 '아들 됨') **5**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c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c 또는 '메시아')

⁶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⁷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d"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d 창 21:12) ⁸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⁹그 약속의 말씀은 e"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e 창 18:10, 14) ¹⁰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¹¹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있게 하시려고, ¹²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f"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f 창 25:23) ¹³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g"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g 말 1:2, 3)

¹⁴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¹⁵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h"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h 출 33:19) ¹⁶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¹⁷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i"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i 출 9:16(칠십인역)) ¹⁸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¹⁹그러면 j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j 실제의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임) ²⁰오, 사람아, j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k"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j 실제의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임 k 사 29:16; 45:9) ²¹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²²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²³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쩔다는 말입니까? ²⁴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²⁵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l"나는, 내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1 호 2:23)

²⁶m"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n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m 호 1:10 n 그, '아들들')

²⁷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o"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²⁸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o 사 10:22, 23(칠십인역)) ²⁹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p"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p 사 1:9(칠십인역))

이스라엘과 복음

³⁰o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³¹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³²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³³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q"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r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q 사 8:14; 28:16(칠십인역) r 또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ROMANS 10 a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a 그, '형제들') ²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³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⁴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민이 구원에 이른다

⁵o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b"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b 레 18:5) ⁶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c"너는 마음 속

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c 신 30:12) ⁷또 d'누가 e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d 신 30:13 e 또는 '깊은 곳') ⁸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f"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f 신 30:14) ⁹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¹⁰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¹¹성경은 g"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g 사 28:16(칠십인역)) ¹²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¹³h"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h 욥 2:32)

¹⁴o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¹⁵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i"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i 사 52:7) ¹⁶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j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k"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j 또는 '기쁜 소식' k 사 53:1(칠십인역)) ¹⁷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l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l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말씀') ¹⁸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m"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m 시 19:4(칠십인역)) ¹⁹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n 신 32:21)

²⁰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o"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o 사 65:1(칠십인역))

²¹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p"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p 사 65:2(칠십인역))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ROMANS 1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²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³a"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a 왕상 19:10, 14) ⁴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b"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내 앞에 남겨 두었다" 하셨습니다.(b 왕상 19:18) ⁵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⁶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음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음.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이미 행위가 아닙니다') ⁷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⁸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d"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흥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d 신 29:4; 사 29:10)

⁹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e"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가 되고
 밋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e 시 69:22, 23(칠십인역)) ¹⁰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 사람의 구원

¹¹○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²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¹³○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¹⁴나는 아무쪼록, f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f 그, '내 혈육') ¹⁵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¹⁶말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¹⁷○그런데 참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g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g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¹⁸g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g그대가 우쭐덜지라도, g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g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¹⁹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g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²⁰웁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g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²¹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²²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g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g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g그대도 잘릴 것입니다.(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²³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²⁴g그대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g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의 회복

²⁵○h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h 그, '형제들') ²⁶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i"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i 사 59:20, 21; 27:9(칠십인역)) ²⁷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²⁸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j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j 그, '원수가 되었지만') ²⁹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³⁰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³¹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³²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³³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³⁴k"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k 사 40:13(칠십인역))

³⁵l"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l 욥 41:11)

³⁶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ROMANS 12 a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a 그, '형제들') ²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³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⁴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⁵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⁶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⁷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⁸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⁹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¹⁰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¹¹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¹²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¹³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¹⁴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¹⁵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¹⁶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¹⁷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¹⁸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¹⁹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b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c'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b 그, '진노하심에' c 신 32:35) ²⁰d"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d 잠 25:21, 22(칠십인역)) ²¹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ROMANS 13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²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³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⁴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룰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⁵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⁶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⁷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⁸○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⁹a"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b"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a 출 20:13-15, 17; 신 5:17-19, 21 b 레 19:18) ¹⁰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¹¹○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¹²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¹³낮에 행동하듯

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¹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

ROMANS 14 여러분은 ^a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a 또는 '확신') ²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³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⁴^b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c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b 그, '당신이'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께서') ⁵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⁶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⁷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⁸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⁹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⁰그런데 어찌하여 ^d그대는 ^e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d 다른 고대 사본에는 '우리는' ^e 그, '형제') ¹¹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f 사 49:18; 45:23(칠십인역))

¹²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

¹³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e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e 그, '형제') ¹⁴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는 부정한 것입니다. ¹⁵그대가 음식 문제로 ^g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g 그, '형제들') ¹⁶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¹⁷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¹⁸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¹⁹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²⁰^h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h 그, '하나님의 작품'.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킴) ²¹고기를 먹는다는가, 술을 마신다는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e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e 그, '형제') ²²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²³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a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i(a 또는 '확신' i 어떤 사본들은 여기에 16:25-27이 이어짐)

덕을 세워라

ROMANS 15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겐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²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³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겐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a"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a 시 69:9) ⁴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⁵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⁶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⁷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⁸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b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b 유대 사람을 가리킴) ⁹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c"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c 삼하 22:50; 시 18:49) ¹⁰또

d"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d 신 32:43) ¹¹또

e"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e 시 117:1) ¹²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f"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f 사 11:10(칠십인역)) ¹³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
랍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

¹⁴○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¹⁵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
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¹⁶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
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¹⁷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¹⁸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¹⁹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g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
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²⁰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h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h 또는 '기쁜 소식') ²¹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i"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i 사 52:15(칠십인역))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²²○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²³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²⁴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보고, 잠시 동안만이
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 곳으로 가
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⁵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²⁶마케도니
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
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²⁷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
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
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²⁸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 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
인으로 가겠습니다. ²⁹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³⁰o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j 그, '형제들') ³¹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³²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³³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k아멘.(k 고대의 한 사본에는 여기에서 16:25-27이 이어짐)

인사말

ROMANS 16 겐그레아 교회의 a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a 또는 '집사' 또는 '봉사자') ²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³o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b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b '브리스길라'의 변형) ⁴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⁵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c열매입니다.(c '개종자'를 가리킴) ⁶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⁷나의 d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e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d 또는 '동포'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리아') ⁸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⁹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⁰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¹나의 d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깃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d 또는 '동포') ¹²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³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¹⁴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f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f 그, '형제들') ¹⁵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⁶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¹⁷of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f 그, '형제들') ¹⁸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 듯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¹⁹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즐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²⁰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g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음)

²¹○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²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³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⁴h(24절 없음)(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24절이 첨가되어 있음.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양

²⁵○i[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i 사본에 따라 16:25-27이 없기도 하고, 14:23 뒤에나 15:33 뒤에 붙어 있기도 함) ²⁶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²⁷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Footnotes

Footnote from Romans 1:1 ([Back](#))

[\[1\]](#) **1:1**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Romans 1:3 ([Back](#))

[\[2\]](#) **1:3** Or *who came from the offspring of David*

Footnote from Romans 1:13 ([Back](#))

[3] 1:13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Romans 1:14 ([Back](#))

[\[4\]](#) **1:14** That is, non-Greeks

Footnote from Romans 1:17 ([Back](#))

[\[5\]](#) **1:17** Or *beginning and ending in faith*

Footnote from Romans 1:17 ([Back](#))

[\[6\]](#) **1:17** Or *The one who by faith is righteous shall live*

Footnote from Romans 1:20 ([Back](#))

[\[7\]](#) **1:20** Or *clearly perceive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Footnote from Romans 2:8 ([Back](#))

[\[1\]](#) 2:8 Or *contentious*

Footnote from Romans 2:26 ([Back](#))

[\[2\]](#) 2:26 Or *counted*

Footnote from Romans 2:27 ([Back](#))

[\[3\]](#) **2:27** Or *is by nature*

Footnote from Romans 2:27 ([Back](#))

[\[4\]](#) 2:27 Or *the letter*

Footnote from Romans 3:9 ([Back](#))

[\[1\]](#) 3:9 Greek *Are we*

Footnote from Romans 3:9 ([Back](#))

[\[2\]](#) **3:9** Or *at any disadvantage?*

Footnote from Romans 3:20 ([Back](#))

[\[3\]](#) **3:20** Greek *flesh*

Footnote from Romans 4:1 ([Back](#))

[\[1\]](#) **4:1** Some manuscripts *say about*

Footnote from Romans 4:5 ([Back](#))

[\[2\]](#) **4:5** Or *but trusts*; compare verse 24

Footnote from Romans 4:19 ([Back](#))

[\[3\]](#) 4:19 Greek *deadness*

Footnote from Romans 5:1 ([Back](#))

[\[1\]](#) **5:1** Some manuscripts *let us*

Footnote from Romans 5:2 ([Back](#))

[\[2\]](#) **5:2** Some manuscripts omit *by faith*

Footnote from Romans 5:2 ([Back](#))

[\[3\]](#) **5:2** Or *let us*; also verse 3

Footnote from Romans 5:2 ([Back](#))

[\[4\]](#) **5:2** Or *boast*; also verses 3, 11

Footnote from Romans 5:12 ([Back](#))

[\[5\]](#) **5:12** The Greek word *anthropoi* refers here to both men and women; also twice in verse 18

Footnote from Romans 5:18 ([Back](#))

[\[6\]](#) **5:18** Or *the trespass of one*

Footnote from Romans 5:18 ([Back](#))

[\[7\]](#) **5:18** Or *the act of righteousness of one*

[1] 6:6 Greek *man*

Footnote from Romans 6:7 ([Back](#))

[\[2\]](#) 6:7 Greek *has been justified*

Footnote from Romans 6:16 ([Back](#))

[\[3\]](#) **6:16**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twice in this verse and verse 19; also once in verses 17, 20)

Footnote from Romans 7:1 ([Back](#))

[\[1\]](#) **7: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4

Footnote from Romans 7:2 ([Back](#))

[\[2\]](#) **7:2** Greek *law concerning the husband*

Footnote from Romans 7:6 ([Back](#))

[\[3\]](#) 7:6 Greek *of the letter*

Footnote from Romans 8:1 ([Back](#))

[\[1\]](#) **8:1** Some manuscripts add *who walk not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Footnote from Romans 8:2 ([Back](#))

[\[2\]](#) **8:2** Some manuscripts *me*

Footnote from Romans 8:3 ([Back](#))

[3] 8:3 Or *and as a sin offering*

Footnote from Romans 8:11 ([Back](#))

[\[4\]](#) **8:11** Some manuscripts lack *Jesus*

Footnote from Romans 8:12 ([Back](#))

[5] 8:12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29

Footnote from Romans 8:14 ([Back](#))

[\[6\]](#) **8:14** See discussion on “sons” in the [Preface](#)

Footnote from Romans 8:27 ([Back](#))

[\[7\]](#) **8:27** Or *that*

Footnote from Romans 8:28 ([Back](#))

[\[8\]](#) **8:28** Some manuscripts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or *God works in all things for the good*

Footnote from Romans 8:31 ([Back](#))

[\[9\]](#) **8:31** Or *who is*

Footnote from Romans 8:34 ([Back](#))

[\[10\]](#) **8:34** Or *Is it Christ Jesus who died . . . ; for us?*

Footnote from Romans 9:3 ([Back](#))

[\[1\]](#) **9:3**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Romans 9:16 ([Back](#))

[\[2\]](#) **9:16** Greek *not of him who wills or runs*

Footnote from Romans 9:27 ([Back](#))

[\[3\]](#) **9:27** Or *children of Israel*

Footnote from Romans 9:31 ([Back](#))

[4] 9:31 Greek *a law of righteousness*

Footnote from Romans 10:1 ([Back](#))

[\[1\]](#) **10: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Romans 10:4 ([Back](#))

[\[2\]](#) **10:4** Or *end of the law,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be justified*

Footnote from Romans 10:14 ([Back](#))

[\[3\]](#) **10:14** Or *him whom they have never heard*

Footnote from Romans 11:1 ([Back](#))

[\[1\]](#) **11:1** Or *one of the offspring of Abraham*

Footnote from Romans 11:12 ([Back](#))

[\[2\]](#) **11:12** Greek *their fullness*

Footnote from Romans 11:17 ([Back](#))

[\[3\]](#) **11:17** Greek *root of richness*; some manuscripts *richness*

Footnote from Romans 11:25 ([Back](#))

[\[4\]](#) **11:25**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Romans 11:31 ([Back](#))

[\[5\]](#) **11:31** Some manuscripts omit *now*

Footnote from Romans 12:1 ([Back](#))

[\[1\]](#) **12: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Romans 12:1 ([Back](#))

[\[2\]](#) **12:1** Or *your rational service*

Footnote from Romans 12:2 ([Back](#))

[\[3\]](#) 12:2 Greek *age*

Footnote from Romans 12:2 ([Back](#))

[\[4\]](#) **12:2** Or *what is the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Footnote from Romans 12:4 ([Back](#))

[\[5\]](#) **12:4** Greek *parts*; also verse 5

Footnote from Romans 12:8 ([Back](#))

[\[6\]](#) 12:8 Or *gives aid*

Footnote from Romans 12:11 ([Back](#))

[\[7\]](#) **12:11** Or *fervent in the Spirit*

Footnote from Romans 12:16 ([Back](#))

[8] 12:16 Or *give yourselves to humble tasks*

Footnote from Romans 12:19 ([Back](#))

[\[9\]](#) **12:19** Greek *give place*

Footnote from Romans 14:4 ([Back](#))

[\[1\]](#) 14:4 Or *lord*

Footnote from Romans 14:11 ([Back](#))

[\[2\]](#) 14:11 Or *shall give praise*

Footnote from Romans 14:21 ([Back](#))

[\[3\]](#) **14:21** Some manuscripts add *or be hindered or be weakened*

Footnote from Romans 14:23 ([Back](#))

[\[4\]](#) **14:23** Some manuscripts insert here 16:25–27

Footnote from Romans 15:14 ([Back](#))

[\[1\]](#) **15:14**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30

Footnote from Romans 15:28 ([Back](#))

[\[2\]](#) **15:28** Greek *sealed to them this fruit*

Footnote from Romans 15:29 ([Back](#))

[\[3\]](#) **15:29** Some manuscripts insert *of the gospel*

Footnote from Romans 16:1 ([Back](#))

[\[1\]](#) 16:1 Or *deaconess*

Footnote from Romans 16:5 ([Back](#))

[\[2\]](#) **16:5** Greek *firstfruit*

Footnote from Romans 16:7 ([Back](#))

[\[3\]](#) 16:7 Or *Junias*

Footnote from Romans 16:7 ([Back](#))

[\[4\]](#) 16:7 Or *messengers*

Footnote from Romans 16:14 ([Back](#))

[\[5\]](#) **16:14**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7

Footnote from Romans 16:18 ([Back](#))

[\[6\]](#) **16:18** Greek *their own belly*

Footnote from Romans 16:23 ([Back](#))

[\[7\]](#) **16:23** Some manuscripts insert verse 24: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고린도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Corinthians 1](#) • [1 Corinthians 2](#) • [1 Corinthians 3](#) • [1 Corinthians 4](#) • [1 Corinthians 5](#) • [1 Corinthians 6](#) • [1 Corinthians 7](#) • [1 Corinthians 8](#) • [1 Corinthians 9](#) • [1 Corinthians 10](#) • [1 Corinthians 11](#) • [1 Corinthians 12](#) • [1 Corinthians 13](#) • [1 Corinthians 14](#) • [1 Corinthians 15](#) • [1 Corinthians 16](#)

고린도전서

인사와 감사

1 CORINTHIANS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2**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4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6**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잡았습니다. **7**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9**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

10그런데, 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a 그, '형제들') **11**b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b 그, '나의 형제들') **12**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c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c 베드로) **13**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d세례를 받았습니까?(d 또는 '침례') **14**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d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d 또는 '침례') **15**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d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d 또는 '침례') **16**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d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d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d 또는 '침례') **17**그리스도께서는 d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d 또는 '침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8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성경에 기록하기를
e"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e 사 29:14(칠십인역)) ²⁰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²¹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f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f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²²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²³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²⁴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²⁵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²⁶o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a 그, '형제들') ²⁷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²⁸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²⁹이리하여 g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g 그, '육신도') ³⁰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h구원이 되셨습니다.(h 또는 '대속하여 구원함') ³¹그것은, i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i 렘 9:23, 24)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전하다

1 CORINTHIANS 2 a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b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a 그, '형제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증언' 또는 '증거') ²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³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어졌습니다. ⁴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c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d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지혜의 설득력으로' d 그, '영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⁵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계시하시다

⁶o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⁷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⁸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⁹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e"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e 사 64:4) ¹⁰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¹¹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¹²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f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f 또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¹⁴그러나 g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g 또는 '신령하지 아니한') ¹⁵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¹⁶h"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h 사 40:13(칠십인역))

하나님의 동역자

1 CORINTHIANS 3 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였습니다.(a 그, '형제들') ²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³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⁴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⁵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b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b 또는 '집사들') ⁶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⁷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⁸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입니다. ⁹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¹⁰○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¹¹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¹²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¹³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 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¹⁴어떤 사람이 c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c 또는 '세워 놓은 일') ¹⁵어떤 사람의 d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d 또는 '일')

¹⁶○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¹⁷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¹⁸○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¹⁹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e"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e 욥 5:13) ²⁰또 기록하기를

f"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f 시 94:11(칠십인역)) ²¹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²바울이나, 아볼로나, g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g 베드로) ²³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

1 CORINTHIANS 4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²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³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⁴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⁵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 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⁶○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알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a 그, '형제들') ⁷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

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⁸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⁹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¹⁰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¹¹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¹²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¹³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¹⁴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¹⁵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일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¹⁶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¹⁷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b 또는 '보냅니다') ¹⁸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¹⁹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²⁰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²¹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음행을 심판하다

1 CORINTHIANS 5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²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³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a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a 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벌써 심판하였습니다. 4.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⁴[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⁵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⁶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⁷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b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b 출 12:13, 21-28을 볼 것) ⁸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빛은 빵으로 지킵시다.

⁹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¹⁰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악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¹¹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c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악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c 그, '형제') ¹²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¹³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d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d 신 17:7(칠십인역); 19:19; 21:21; 22:21, 24; 24:7)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1 CORINTHIANS 6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²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³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⁴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멀리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⁵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a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a 그, '형제') ⁶그래서 a신도가 a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a 그, '형제') ⁷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⁸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b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b 그, '형제들') ⁹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¹⁰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악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¹¹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¹²"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¹³c"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c 인용은 다음 문장까지 연장될 수도 있음) ¹⁴하나님께서 주님을 d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e살리실 것입니다.(d 그, '일으키셨으니' e 그, '일으키실') ¹⁵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6**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f"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f 창 2:24(칠십인역)) **17**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18**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 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혼인에 관련된 문제들

1 CORINTHIANS 7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3**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4**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5**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6**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8○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9**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10**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1**?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a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a 그, '형제') **13**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4**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15**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16**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아가라

17○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18**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

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¹⁹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²⁰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²¹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²²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²³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²⁴a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a 그, '형제')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²⁵o주님께서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²⁶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²⁷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²⁸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²⁹b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b 그, '형제들') ³⁰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³¹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³²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³³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³⁴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³⁵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라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³⁶oc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c 또는 '36.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혼기가 지날 때까지 붙들어 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1Co 7:생각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37.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자기 딸을 그대로 두기로 작정하여도 그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38. 이와 같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일도 잘 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 하는 일입니다') ³⁷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³⁸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 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 하는 것입니다.

³⁹○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d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d 그, '잠들면') ⁴⁰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1 CORINTHIANS 8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²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³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⁴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⁵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⁶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⁷○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⁸그러나 a"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a 8절 전체가 다 인용일 수도 있음) ⁹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¹⁰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¹¹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¹²이렇게 여러분이 b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b 그, '형제들') ¹³그러므로 음식이 내 b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c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b 그, '형제들' c 그, '나의 형제')

사도의 권리

1 CORINTHIANS 9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뵈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²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³○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⁴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⁵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a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a 베드로) ⁶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⁷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 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⁸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⁹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b"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b 신 25:4) ¹⁰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뭉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¹¹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¹²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¹³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¹⁴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¹⁵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¹⁶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¹⁷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삯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¹⁸그리하면 내가 받을 삯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¹⁹○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²⁰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²¹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²²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²³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²⁴○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²⁵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²⁶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²⁷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함

1 CORINTHIANS 10 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a 그, '형제들') ²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b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b 또는 '침례') ³그들

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⁴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⁵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⁶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⁷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c"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c 출 32:6(칠십인역)) ⁸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⁹d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을') ¹⁰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¹¹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²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¹³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¹⁴o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¹⁵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¹⁶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¹⁷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¹⁸e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e 그,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¹⁹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²⁰아무것도 아닙니다. f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f 신 32:17(칠십인역)) ²¹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²²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²³o'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²⁴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²⁵시장에서 파는 것은, g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g 그, '양심을 위하여'. 2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양심을 위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²⁶h'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h 시 24:1) ²⁷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g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g 그, '양심을 위하여'. 2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양심을 위하여, 그 출처를

물지 말고 먹으십시오.") ²⁸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 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²⁹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³⁰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³¹○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³²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³³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 CORINTHIANS 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

²○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³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a여자의 머리는 b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a 그, '아내'로 번역할 수 있음 b 그,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음) ⁴c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d자기 머리를 e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c 또는 "4.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5.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머리털을 잘라 버린 여자'와 같습니다. 6.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자로서는 머리털을 잘라 버리거나 밀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수치이므로, 머리를 다시 길러야 합니다.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길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d 곧 '그리스도를' e 또는 '욕되게') ⁵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f자기 머리를 e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 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f 곧 '남편을' e 또는 '욕되게') ⁶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⁷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g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g영광입니다.(g 또는 '반영') ⁸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⁹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¹⁰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h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h 그, '권위를') ¹¹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¹²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i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i 그, '여자를 통하여') ¹³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¹⁴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¹⁵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 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¹⁶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성만찬의 오용을 책망하다

¹⁷○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¹⁸첫째로, 여러분이 j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j '예배 회중에' 또는 '예배 모임에'라는 뜻) ¹⁹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²⁰k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k 그, '그러므로') ²¹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²²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의 제정(마 26:26-29; 막 14:22-25; 눅 22:14-20)

²³○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²⁴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1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1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위하여 깨어진') ²⁵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²⁶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²⁷○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²⁸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²⁹m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m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주님의 몸') ³⁰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n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n 그, '잠자는') ³¹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³²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³³그러므로 나의 o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o 그, '형제들') ³⁴배가 고프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1 CORINTHIANS 12 a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a 그, '형제들')²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 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³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⁴○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⁵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⁶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⁷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⁸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⁹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¹⁰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b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b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b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¹¹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

¹²○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¹³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c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c 또는 '침례')¹⁴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¹⁵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¹⁶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¹⁷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¹⁸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¹⁹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²⁰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²¹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²²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²³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불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²⁴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²⁵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²⁶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²⁷○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는 지체들입니다.²⁸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 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b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b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²⁹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³⁰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
두가 b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b 입신 상태에
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³¹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CORINTHIANS **13**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²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³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a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
하여')

⁴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⁶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⁷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⁸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b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b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⁹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¹⁰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¹¹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¹²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¹³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방언과 예언

1 CORINTHIANS 14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²^a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³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⁴^a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⁵여러분이 모두 ^a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a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a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⁶^b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a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b 그, '형제들') ⁷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⁸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⁹이와 같이 여러분도 a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¹⁰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¹¹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만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¹²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¹³○그러므로 a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¹⁴내가 a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¹⁵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¹⁶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¹⁷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¹⁸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a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¹⁹그러나 나는, a방언으로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하기를 원합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²⁰○b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b 그, '형제들') ²¹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c"내가 d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또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c 사 28:11, 12 d 또는 '다른 말을') ²²그러므로 a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²³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a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²⁴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²⁵그 마음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앞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라

²⁶○그러면 b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a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b 그, '형제들') ²⁷누가 a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

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²⁸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²⁹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³⁰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³¹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³²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³³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o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³⁴e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f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은 34-35절을 40절 뒤에 놓았음 f 창 3:16) ³⁵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³⁶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³⁷o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³⁸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³⁹그러므로 g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a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a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g 그, '나의 형제들') ⁴⁰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1 CORINTHIANS](#) **15** a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b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a 그, '형제들' b 또는 '기쁜 소식') ²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³o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⁴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c살아나셨다는 것과,(c 그, '일으켜지셨다') ⁵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⁶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a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d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a 그, '형제들' d 그, '잠들었지만') ⁷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⁸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⁹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¹⁰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¹¹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12○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6**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7**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e**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e** 또는 '죽은 사람들의') **21**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그 때가 **f**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f** 또는 '안식') **25**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27**성경에 이르기를 **g**"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g** 시 8:6) **28**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 당할 그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29○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h**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h**세례를 받습니까?(**h** 또는 '침례') **30**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31****a**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i**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a** 그, '형제들' **i** 또는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또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32**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j**"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j** 사 22:13) **33**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34**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몸의 부활

³⁵○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³⁶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³⁷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³⁸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 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³⁹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⁴⁰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⁴¹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⁴²○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⁴³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⁴⁴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⁴⁵성경에 k"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k 창 2:7(칠십인역)) ⁴⁶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⁴⁷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l하늘에서 났습니다.(l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서 나신 주님입니다') ⁴⁸흙으로 빛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⁴⁹흙으로 빛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m입을 것입니다.(m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입읍시다')

⁵⁰○a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a 그, '형제들') ⁵¹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n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n 또는 '죽을') ⁵²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⁵³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⁵⁴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o"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o 사 25:8)

⁵⁵p"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p 호 13:14(칠십인역))

⁵⁶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⁵⁷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⁵⁸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a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a 그, '형제들')

성도들을 돕는 헌금

1 CORINTHIANS 16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²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³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 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⁴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행 계획

⁵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⁶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⁷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⁸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⁹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¹⁰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¹¹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¹²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a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a 또는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탁과 인사

¹³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¹⁴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¹⁵^b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b 그, '형제들') ¹⁶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¹⁷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¹⁸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¹⁹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c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c 또는 '브리스길라') ²⁰모든 ^b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b 그, '형제들')

²¹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²²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d마라나 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d 이 아람어를 달리 마란 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됨) ²³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²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e아멘.(^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없음)

Footnote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0 ([Back](#))

[\[1\]](#) **1:10**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s 11, 26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1 ([Back](#))

[\[2\]](#) **1:21** Or *the folly of preaching*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6 ([Back](#))

[\[3\]](#) 1:26 Greek *according to the flesh*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9 ([Back](#))

[\[4\]](#) **1:29** Greek *no flesh*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30 ([Back](#))

[\[5\]](#) **1:30** Greek *And from him*

Footnote from 1 Corinthians 2:1 ([Back](#))

[\[1\]](#) **2: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2:1 ([Back](#))

[\[2\]](#) **2:1** Some manuscripts *mystery* (or *secret*)

Footnote from 1 Corinthians 2:5 ([Back](#))

[\[3\]](#) **2:5** The Greek word *anthropoi* can refer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1 Corinthians 2:13 ([Back](#))

[4] 2:13 Or *interpret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language*, or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

Footnote from 1 Corinthians 3:1 ([Back](#))

[\[1\]](#) **3: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3:16 ([Back](#))

[\[2\]](#) **3:16** The Greek for *you* is plural in verses 16 and 17

Footnote from 1 Corinthians 4:6 ([Back](#))

[\[1\]](#) 4:6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4:15 ([Back](#))

[\[2\]](#) **4:15** Greek *you have ten thousand*

Footnote from 1 Corinthians 4:17 ([Back](#))

[\[3\]](#) 4:17 Or *am sending*

Footnote from 1 Corinthians 4:17 ([Back](#))

[\[4\]](#) **4:17** Some manuscripts add *Jesu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5:5 ([Back](#))

[\[1\]](#) **5:5** Some manuscripts add *Jesu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5:12 ([Back](#))

[\[2\]](#) **5:12** Greek *those insid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5:13 ([Back](#))

[\[3\]](#) **5:13** Or *will judg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6:8 ([Back](#))

[\[1\]](#) **6:8**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6:9 ([Back](#))

[\[2\]](#) **6:9** Or *wrongdo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6:9 ([Back](#))

[\[3\]](#) **6:9** The two Greek terms translated by this phrase refer to the passive and active partners in consensual homosexual act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6:16 ([Back](#))

[\[4\]](#) **6:16** Or *who holds fast* (compare Genesis 2:24 and Deuteronomy 10:20); also verse 17

Footnote from 1 Corinthians 6:18 ([Back](#))

[\[5\]](#) 6:18 Or *Every sin*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6 ([Back](#))

[\[1\]](#) 7:6 Or *I say thi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15 ([Back](#))

[\[2\]](#) 7:15 Some manuscripts *u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17 ([Back](#))

[3] 7:17 Or *each person walk in the way*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1 ([Back](#))

[\[4\]](#) **7:21** Or *slave*; also twice in verse 22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3 ([Back](#))

[\[5\]](#) **7:23** Or *slaves*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4 ([Back](#))

[6] 7:24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29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5 ([Back](#))

[\[7\]](#) **7:25** The expression *Now concerning* introduces a reply to a question in the Corinthians' letter; see 7:1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5 ([Back](#))

[\[8\]](#) 7:25 Greek *virgin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6 ([Back](#))

[\[9\]](#) 7:26 Or *impending*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28 ([Back](#))

[\[10\]](#) 7:28 Greek *virgin*; also verse 34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36 ([Back](#))

[\[11\]](#) **7:36** Greek *virgin*; also verses 37, 38

Footnote from 1 Corinthians 7:36 ([Back](#))

[12] 7:36 Or *her*

Footnote from 1 Corinthians 8:1 ([Back](#))

[\[1\]](#) **8:1** The expression *Now concerning* introduces a reply to a question in the Corinthians' letter; see 7:1

Footnote from 1 Corinthians 8:3 ([Back](#))

[\[2\]](#) 8:3 Greek *him*

Footnote from 1 Corinthians 8:10 ([Back](#))

[\[3\]](#) **8:10** Greek *reclining at tabl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8:10 ([Back](#))

[\[4\]](#) **8:10** Or *fortified*; Greek *built up*

Footnote from 1 Corinthians 8:12 ([Back](#))

[\[5\]](#) **8:12**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9:5 ([Back](#))

[\[1\]](#) **9:5** Greek *a sister as wif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9:27 ([Back](#))

[\[2\]](#) **9:27** Greek *I pummel my body and make it a slav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0:1 ([Back](#))

[\[1\]](#) **10: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0:5 ([Back](#))

[\[2\]](#) **10:5** Or *were laid low*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0:9 ([Back](#))

[\[3\]](#) **10:9** Some manuscripts *the Lord*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0:18 ([Back](#))

[4] 10:18 Greek *Consider Israel according to the flesh*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 ([Back](#))

[\[1\]](#) **11:3** Greek *gunē*; . This term may refer to a *woman* or a *wife*,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5 ([Back](#))

[\[2\]](#) **11:5** In verses 5–13, the Greek word *gunē*; is translated *wife* in verses that deal with wearing a veil, a sign of being married in first-century cultur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10 ([Back](#))

[\[3\]](#) **11:10** Or *messengers*, that is, people sent to observe and report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18 ([Back](#))

[\[4\]](#) **11:18** Or *I believe a certain report*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24 ([Back](#))

[\[5\]](#) **11:24** Some manuscripts *broken for*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24 ([Back](#))

[\[6\]](#) 11:24 Or *as my memorial*; also verse 25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0 ([Back](#))

[\[7\]](#) **11:30** Greek *have fallen asleep* (as in 15:6, 20)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1 ([Back](#))

[\[8\]](#) 11:31 Or *discerned*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2 ([Back](#))

[9] 11:32 Or *when we are judged we are being disciplined by the Lord*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3 ([Back](#))

[\[10\]](#) 11:33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1:33 ([Back](#))

[\[11\]](#) 11:33 Or *share with*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1 ([Back](#))

[\[1\]](#) **12:1** The expression *Now concerning* introduces a reply to a question in the Corinthians' letter; see 7:1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1 ([Back](#))

[\[2\]](#) 12:1 Or *spiritual person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1 ([Back](#))

[\[3\]](#) **12: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13 ([Back](#))

[\[4\]](#) 12:13 Or *servants*;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2:20 ([Back](#))

[\[5\]](#) **12:20** Or *members*; also verse 22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3:3 ([Back](#))

[\[1\]](#) **13:3** Some manuscripts *deliver up my body* [to death] *that I may boast*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3:5 ([Back](#))

[2] 13:5 Greek *irritable and does not count up wrongdoing*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4:6 ([Back](#))

[1] 14:6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20, 26, 39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4:16 ([Back](#))

[\[2\]](#) 14:16 Or *of him that is without gift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4:22 ([Back](#))

[3] 14:22 Greek lacks *a sign*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1 ([Back](#))

[1] 15: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6, 31, 50, 58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19 ([Back](#))

[\[2\]](#) **15:19** Or *we have hoped*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27 ([Back](#))

[\[3\]](#) 15:27 Greek *h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33 ([Back](#))

[\[4\]](#) **15:33** Probably from Menander's comedy *Thai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45 ([Back](#))

[\[5\]](#) **15:45** Greek *a living soul*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5:49 ([Back](#))

[\[6\]](#) **15:49** Some manuscripts *let us*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6:1 ([Back](#))

[\[1\]](#) **16:1** The expression *Now concerning* introduces a reply to a question in the Corinthians' letter; see 7:1; also verse 12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6:12 ([Back](#))

[\[2\]](#) **16:12** Or *God's will for him*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6:15 ([Back](#))

[\[3\]](#) **16:15**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20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6:15 ([Back](#))

[\[4\]](#) **16:15** Greek *house*

Footnote from 1 Corinthians 16:22 ([Back](#))

[\[5\]](#) **16:22** Greek *Maranatha* (a transliteration of Aramaic)

고린도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Corinthians 1](#) • [2 Corinthians 2](#) • [2 Corinthians 3](#) • [2 Corinthians 4](#) • [2 Corinthians 5](#) • [2 Corinthians 6](#) • [2 Corinthians 7](#) • [2 Corinthians 8](#) • [2 Corinthians 9](#) • [2 Corinthians 10](#) • [2 Corinthians 11](#) • [2 Corinthians 12](#) • [2 Corinthians 13](#)

고린도후서

인사

2 CORINTHIANS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6**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7**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a** 그, '형제들') **9**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1**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b**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다

12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c**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룩함과') **13**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4**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5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d**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쁨') **16**나는 여러분에게 들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17**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

덥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오, 아니오'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¹⁸하나님께서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¹⁹나와 e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e 또는 '실라') ²⁰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²¹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²²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²³○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²⁴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2 CORINTHIANS 2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²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³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⁴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⁵○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⁶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⁷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⁸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⁹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⁰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¹¹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¹²○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¹³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¹⁵우리는, 구원

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¹⁶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¹⁷우리는, 저 a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른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

2 CORINTHIANS 3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²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a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들의') ³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 판에 쓴 것입니다.

⁴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⁵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⁶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⁷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⁸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⁹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¹⁰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¹¹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¹²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¹³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¹⁴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¹⁵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¹⁶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¹⁷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¹⁸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2 CORINTHIANS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2**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3**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4**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5**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6a**"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a 창 1:3)

7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8**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9**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13**성경에 기록하기를, b"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b 시 116:10(칠십인역)) **14**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생활

16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 CORINTHIANS 5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2**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3a**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는 이 장막 집을 입어서 벗겨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4**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5**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7**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⁸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⁹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¹⁰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

¹¹○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¹²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³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¹⁴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¹⁵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¹⁶○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¹⁷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¹⁸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¹⁹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²⁰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²¹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 CORINTHIANS 6 a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a 그, '우리가 함께 일하므로') ²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b"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b 사 49:8(칠십인역)) ³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⁴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⁵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⁶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⁷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⁸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⁹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¹⁰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¹¹○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¹²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¹³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¹⁴○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귄 수 있겠습니까? ¹⁵그리스도와 c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c 악마의 이름) ¹⁶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d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e"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f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은' e 레 26:12; 렘 32:38; 겔 37:27 f 렘 31:1)

¹⁷g"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g 사 52:11; 겔 20:34, 41)

¹⁸h"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h 삼하 7:14(칠십인역); 렘 31:9; 사 43:6; 삼하 7:8)

2 CORINTHIANS 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²○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³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⁴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

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7**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8**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9**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10**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11**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2**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에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14**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5**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16**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낌없는 구제

2 CORINTHIANS 8 a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a 그, '형제들') **2**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3**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4**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b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b 그, '은혜') **5**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6**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c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8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1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12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14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d"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d 출 16:18)

디도와 그의 동역자

16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17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18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e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e 또는 '기쁜 소식을') 19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20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21 f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f 잠 3:4(칠십인역)) 22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23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g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g 그, '사도들') 2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

2 CORINTHIANS 9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3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

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⁴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⁵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⁶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⁷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⁸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⁹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a"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a 시 112:9(칠십인역)) ¹⁰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¹¹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므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¹²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¹³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¹⁴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¹⁵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2 CORINTHIANS 10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²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³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⁴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⁵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⁶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⁷여러분은 겉모양만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⁸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⁹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¹⁰"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¹¹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¹²○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¹³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¹⁴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¹⁵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¹⁶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a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a 또는 '기쁜 소식')

¹⁷b"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b 렘 9:24) ¹⁸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

2 CORINTHIANS 11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²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³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⁴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⁵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⁶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⁷○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⁸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샅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⁹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a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a 그, '형제들') ¹⁰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¹¹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12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13**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4**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5**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

16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 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 두십시오. **17**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18**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19**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즐거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 줍니다. **20**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21**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때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25**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고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26**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27**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28**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29**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30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31**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32**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33**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의 신비한 체험

2 CORINTHIANS 12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3**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아닙니다. ⁴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⁵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⁶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⁷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a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음) ⁸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⁹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¹⁰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다

¹¹○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¹²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¹³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¹⁴○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¹⁵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¹⁶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¹⁷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¹⁸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¹⁹○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⁰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²¹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경고와 인사

2 CORINTHIANS 13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a"모든 소송 사건은 두 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a 신 19:15) **2**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돕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3**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4**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b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와 함께 약하지만')

5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6**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7**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9**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11끝으로 말합니다. c형제자매 여러분, d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e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c 그, '형제들' d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 e 또는 '내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2**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3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귄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14**(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 구분이 다름)

Footnote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5 ([Back](#))

[\[1\]](#) **1:5** Or *For as the sufferings of Christ abound for us, so also our comfort abounds through Chris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8 ([Back](#))

[\[2\]](#) **1:8**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12 ([Back](#))

[\[3\]](#) **1:12** Some manuscripts *holines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22 ([Back](#))

[\[4\]](#) **1:22** Or *down paymen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3:2 ([Back](#))

[\[1\]](#) 3:2 Some manuscripts *your*

Footnote from 2 Corinthians 3:3 ([Back](#))

[\[2\]](#) 3:3 Greek *fleshly heart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3:16 ([Back](#))

[\[3\]](#) 3:16 Greek *he*

Footnote from 2 Corinthians 3:17 ([Back](#))

[\[4\]](#) 3:17 Or *this Lord*

Footnote from 2 Corinthians 3:18 ([Back](#))

[\[5\]](#) **3:18** Or *reflecting the glory of the Lord*

Footnote from 2 Corinthians 4:1 ([Back](#))

[\[1\]](#) **4:1** Greek *as we have received mercy*

Footnote from 2 Corinthians 4:2 ([Back](#))

[\[2\]](#) 4:2 Greek *to walk in*

Footnote from 2 Corinthians 4:5 ([Back](#))

[\[3\]](#) 4:5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4:16 ([Back](#))

[\[4\]](#) 4:16 Greek *man*

Footnote from 2 Corinthians 5:3 ([Back](#))

[\[1\]](#) **5:3** Some manuscripts *putting it off*

Footnote from 2 Corinthians 5:17 ([Back](#))

[\[2\]](#) 5:17 Or *creature*

Footnote from 2 Corinthians 5:19 ([Back](#))

[\[3\]](#) **5:19** Or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Footnote from 2 Corinthians 6:11 ([Back](#))

[\[1\]](#) **6:11** Greek *Our mouth is open to you*

Footnote from 2 Corinthians 6:15 ([Back](#))

[\[2\]](#) **6:15** Greek *Beliar*

Footnote from 2 Corinthians 7:1 ([Back](#))

[\[1\]](#) 7:1 Greek *flesh*

Footnote from 2 Corinthians 7:2 ([Back](#))

[\[2\]](#) 7:2 Greek lacks *in your heart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1 ([Back](#))

[\[1\]](#) **8: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4 ([Back](#))

[\[2\]](#) **8:4** The Greek word *charis* can mean *favor* or *grace* or *thanks*,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7 ([Back](#))

[3] 8:7 Some manuscripts *in your love for u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17 ([Back](#))

[\[4\]](#) 8:17 Or *he wen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18 ([Back](#))

[\[5\]](#) **8:18** Or *we sent*; also verse 22

Footnote from 2 Corinthians 8:23 ([Back](#))

[\[6\]](#) **8:23** Greek *apostle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3 ([Back](#))

[\[1\]](#) **9:3** Or *I have sen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5 ([Back](#))

[\[2\]](#) 9:5 Greek *blessing*;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5 ([Back](#))

[\[3\]](#) **9:5** Or *a gift expecting something in return*; Greek *greed*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6 ([Back](#))

[4] 9:6 Greek *with blessings*;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8 ([Back](#))

[\[5\]](#) **9:8** Or *all contentment*

Footnote from 2 Corinthians 9:13 ([Back](#))

[\[6\]](#) 9:13 Or *you*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1:17 ([Back](#))

[\[1\]](#) 11:17 Greek *not according to the Lord*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1:27 ([Back](#))

[\[2\]](#) **11:27** Or *often in fasting*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2:7 ([Back](#))

[1] **12:7** Or *hears from me, even because of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revelations. So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3:11 ([Back](#))

[\[1\]](#) 13:1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2 Corinthians 13:11 ([Back](#))

[\[2\]](#) 13:11 Or *listen to my appeal*

갈라디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Galatians 1](#) • [Galatians 2](#) • [Galatians 3](#) • [Galatians 4](#) • [Galatians 5](#) • [Galatians 6](#)

갈라디아서

인사

GALATIANS 1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²나와 함께 있는 a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a 그, '모든 형제들') ³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⁴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⁵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⁶여러분을 [그리스도의]b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b 또는 '은혜로') ⁷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⁸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⁹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¹⁰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¹¹c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c 그, '형제들') ¹²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¹³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¹⁴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¹⁵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고 은혜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¹⁶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d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d 그, '내 안에') ¹⁷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e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e 다마스쿠스 동남쪽에 있는 나바태아 왕국을 가리킴) ¹⁸삼 년 뒤에 나는 f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f 베드로) ¹⁹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²⁰(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²¹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²²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²³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²⁴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GALATIANS 2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²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³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⁴몰래 들어온 a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여든 자들입니다.(a 그, '거짓 형제들') ⁵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⁶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⁷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b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c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b 유대 사람을 가리킴 c 이방 사람을 가리킴) ⁸그들은, 베드로에게는 b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c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b 유대 사람을 가리킴 c 이방 사람을 가리킴) ⁹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d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b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b 유대 사람을 가리킴 d 베드로) ¹⁰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게바를 나무라다

¹¹○그런데 d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d 베드로) ¹²그것은 d게바가, e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f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d 베드로 e 또는 '야고보가 보낸' f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킴) ¹³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¹⁴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d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g(d 베드로 g 해석자들에 따라, 인용을 21절까지 확대하기도 함)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다

15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 또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다른 곳에서도))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8** 내가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9**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다

GALATIANS 3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2**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a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a '믿음의 소식에서, 믿음의 선포에서'; 또 '믿음'이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을 뜻하고 '소식/선포'는 들음을 뜻한다고 보면 '복음을 들음으로')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4**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5**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a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a '믿음의 소식에서, 믿음의 선포에서'; 또 '믿음'이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을 뜻하고 '소식/선포'는 들음을 뜻한다고 보면 '복음을 들음으로') **6** 그것은, b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b 창 15:6)

7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8**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c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c 창 12:3; 18:18; 22:18) **9**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0**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d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d 신 27:26(칠십인역)) **11**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e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e 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합 2:4)) **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f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f 레 18:5) **13** 그리스

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g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h"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g 그, '저주가 되심으로써' h 신 21:23) ¹⁴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

¹⁵o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i 그, '형제들') ¹⁶그런데 하나님께서 j아브라함과 그 k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l'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k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j 창 12:7; 13:15; 24:7 k 그, '씨' l 그, '씨'의 복수형) ¹⁷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¹⁸그 유언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거저 주셨습니다.

¹⁹o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k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k 그, '씨') ²⁰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종과 아들

²¹o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²²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²³o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²⁴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²⁵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²⁶o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m자녀들입니다.(m 그, '아들들') ²⁷여러분은 모두 n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n 또는 '침례') ²⁸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²⁹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k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k 그, '씨')

GALATIANS 4 내가 또 말합니다. 유언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²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³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a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a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 원리들, 자연숭배, 원

시종교 등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 ⁴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⁵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⁶그런데 여러분은 b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c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d"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b 그, '아들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의' d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⁷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e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e 그, '아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⁸○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⁹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a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a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 원리들, 자연숭배, 원시종교 등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 ¹⁰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¹¹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¹²○f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f 그, '형제들') ¹³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¹⁴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¹⁵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¹⁶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¹⁷g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g 그, '(그들이)') ¹⁸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¹⁹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²⁰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²¹○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²²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²³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²⁴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h하갈입니다.(h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하가르') ²⁵i'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i 다른 고대 사본들, '시내는 아라비아에 있는 한 산인데') ²⁶그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²⁷성경에 기록하기를, i"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j 사 54:1) ²⁸f형제자매 여러분, k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f 그, '형제들' k 다른 고대 사본들, '우리는') ²⁹그러나 그 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³⁰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l"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l 창 21:10) ³¹그러므로 f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f 그, '형제들')

GALATIANS 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

²o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³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⁴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⁵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⁶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a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⁷o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⁸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⁹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¹⁰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¹¹b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럴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b 그, '형제들') ¹²c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c 그,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¹³ob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b 그, '형제들') ¹⁴모든 율법은 d"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d 레 19:18) ¹⁵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16○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8**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e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질투와'와 '술취함' 사이에 '살인'이 첨가되어 있음)

22○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24**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25**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시다. **26**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서로 짐을 져 줍시다

GALATIANS 6 a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b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a 그, '형제들' b 또는 '신령한 사람인 여러분은') **2**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c성취하실 것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에는 '성취하십시오') **3**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6**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7**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8**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와 축복

11○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12**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14**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15**d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머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이 첨가되어 있음) ¹⁶이 표준
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¹⁷○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e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
다.(e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함) ¹⁸○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a 그, '형제들')

Footnotes

Footnote from Galatians 1:2 ([Back](#))

[\[1\]](#) **1:2**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 11

Footnote from Galatians 1:10 ([Back](#))

[\[2\]](#) **1:10** Or *slave*;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Galatians 1:11 ([Back](#))

[\[3\]](#) 1:11 Greek *not according to man*

Footnote from Galatians 1:15 ([Back](#))

[\[4\]](#) **1:15** Greek *set me apart from my mother's womb*

Footnote from Galatians 1:16 ([Back](#))

[\[5\]](#) 1:16 Greek *in*

Footnote from Galatians 1:16 ([Back](#))

[\[6\]](#) **1:16** Greek *with flesh and blood*

Footnote from Galatians 2:12 ([Back](#))

[\[1\]](#) **2:12** Or *fearing those of the circumcision*

Footnote from Galatians 2:16 ([Back](#))

[\[2\]](#) **2:16** Or *counted righteous* (three times in verse 16); also verse 17

Footnote from Galatians 2:21 ([Back](#))

[\[3\]](#) **2:21** Or *justification*

Footnote from Galatians 3:3 ([Back](#))

[\[1\]](#) 3:3 Or *now ending with*

Footnote from Galatians 3:4 ([Back](#))

[\[2\]](#) 3:4 Or *experience*

Footnote from Galatians 3:8 ([Back](#))

[\[3\]](#) **3:8** Or *count righteous*; also verses 11, 24

Footnote from Galatians 3:11 ([Back](#))

[\[4\]](#) **3:11** Or *The one who by faith is righteous will live*

Footnote from Galatians 3:14 ([Back](#))

[\[5\]](#) **3:14** Greek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Footnote from Galatians 3:15 ([Back](#))

[\[6\]](#) **3:15**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Galatians 3:28 ([Back](#))

[\[7\]](#) **3:28**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Galatians 4:1 ([Back](#))

[\[1\]](#) **4:1** Greek *bondservant*; also verse 7

Footnote from Galatians 4:3 ([Back](#))

[\[2\]](#) **4:3** Or *elemental spirits*; also verse 9

Footnote from Galatians 4:12 ([Back](#))

[\[3\]](#) **4:12**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28, 31

Footnote from Galatians 4:16 ([Back](#))

[\[4\]](#) **4:16** Or *by dealing truthfully with you*

Footnote from Galatians 4:25 ([Back](#))

[\[5\]](#) **4:25** Some manuscripts *For Sinai is a mountain in Arabia*

[\[6\]](#) **4:28** Some manuscripts *we*

Footnote from Galatians 5:4 ([Back](#))

[\[1\]](#) 5:4 Or *counted righteous*

Footnote from Galatians 5:11 ([Back](#))

[\[2\]](#) **5:1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3

Footnote from Galatians 5:11 ([Back](#))

[\[3\]](#) **5:11** Greek *proclaim*

Footnote from Galatians 5:21 ([Back](#))

[\[4\]](#) **5:21** Some manuscripts add *murder*

Footnote from Galatians 6:1 ([Back](#))

[\[1\]](#) **6: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8

Footnote from Galatians 6:14 ([Back](#))

[\[2\]](#) **6:14** Or *through whom*

에베소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Ephesians 1](#) • [Ephesians 2](#) • [Ephesians 3](#) • [Ephesians 4](#) • [Ephesians 5](#) • [Ephesians 6](#)

Footnotes

Footnote from Ephesians 1:1 ([Back](#))

[\[1\]](#) **1:1** Some manuscripts *saints who are also faithful* (omitting *in Ephesus*)

Footnote from Ephesians 1:5 ([Back](#))

[\[2\]](#) **1:5** Or *before him in love, having predestined us*

Footnote from Ephesians 1:9 ([Back](#))

[\[3\]](#) **1:9** Or *he lavished up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making known . . .* ;

Footnote from Ephesians 1:14 ([Back](#))

[\[4\]](#) **1:14** Or *down payment*

Footnote from Ephesians 1:14 ([Back](#))

[\[5\]](#) **1:14** Or *until God redeems his possession*

Footnote from Ephesians 1:15 ([Back](#))

[\[6\]](#) **1:15** Some manuscripts omit *your love*

Footnote from Ephesians 2:3 ([Back](#))

[\[1\]](#) 2:3 Greek *flesh*

Footnote from Ephesians 2:3 ([Back](#))

[\[2\]](#) **2:3** Greek *like the rest*

Footnote from Ephesians 2:4 ([Back](#))

[\[3\]](#) 2:4 Or *And*

Footnote from Ephesians 2:19 ([Back](#))

[\[4\]](#) 2:19 Or *sojourners*

Footnote from Ephesians 2:22 ([Back](#))

[\[5\]](#) 2:22 Or *in*

Footnote from Ephesians 3:6 ([Back](#))

[\[1\]](#) **3:6** The words *This mystery is* are inferred from verse 4

Footnote from Ephesians 3:9 ([Back](#))

[\[2\]](#) 3:9 Or *by*

Footnote from Ephesians 3:15 ([Back](#))

[\[3\]](#) **3:15** Or *fatherhood*; the Greek word *patria* is closely related to the word for *Father* in verse 14

Footnote from Ephesians 4:8 ([Back](#))

[\[1\]](#) **4:8** The Greek word *anthropoi* can refer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Ephesians 4:9 ([Back](#))

[\[2\]](#) **4:9** Or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Footnote from Ephesians 4:11 ([Back](#))

[\[3\]](#) 4:11 Or *pastors*

Footnote from Ephesians 4:11 ([Back](#))

[\[4\]](#) **4:11** Or *the shepherd-teachers*

Footnote from Ephesians 4:13 ([Back](#))

[\[5\]](#) **4:13** Greek *to a full-grown man*

Footnote from Ephesians 4:22 ([Back](#))

[\[6\]](#) **4:22** Greek *man*; also verse 24

Footnote from Ephesians 5:27 ([Back](#))

[\[1\]](#) **5:27** Or *holy and blameless*

Footnote from Ephesians 6:5 ([Back](#))

[\[1\]](#) **6:5** Or *slaves*; also verse 6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Ephesians 6:5 ([Back](#))

[\[2\]](#) **6:5** Or *your masters according to the flesh*

Footnote from Ephesians 6:8 ([Back](#))

[\[3\]](#) **6:8**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Ephesians 6:9 ([Back](#))

[\[4\]](#) 6:9 Greek *Lord*

Footnote from Ephesians 6:23 ([Back](#))

[\[5\]](#) **6:23** Or *brothers and sisters*

에베소서

인사

EPHESIANS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a**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a** 그, '그분 안에서') **5**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b**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b** 그, '양자') **6**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8**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0**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c**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c** 또는 '우리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12**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4****d**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인치심이)')

바울의 기도

15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e**사랑을 듣고서,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사랑을'이 없음) **16**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f**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f** 그, '그는') **21**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²²g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g 시 8:6)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분의 총만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EPHESIANS 2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²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³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⁴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⁵범죄로 죽은 우리를 a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⁶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⁷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⁸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⁹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¹⁰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¹¹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¹²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¹³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¹⁴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¹⁵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¹⁶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b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b 또는 '우리 둘을') ¹⁷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c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c 사 57:19; 스 9:10) ¹⁸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¹⁹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²⁰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²¹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²²그리스도 안에서 d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d 또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EPHESIANS 3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 **2**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a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a 그, '그것을') **6**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갓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14○그러므로 나는 b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15**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16**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7**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18**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20○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 되는 진리

EPHESIANS 4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3**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4**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a**세례도 하나요,(**a** 또는 '침례') **6**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b**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b** 또는 '천지 만물')

7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8**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c"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c** 시 68:18) **9**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d**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이') **10**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1**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총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e**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e** 또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각 마디를')

옛 사람과 새 사람

17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20**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로운 생활의 규범

²⁵○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f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f 속 8:16) ²⁶g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g 시 4:4(칠십인역)) ²⁷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²⁸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²⁹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h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믿음을 세우는 데') ³⁰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³¹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³²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EPHESIANS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²그리스도께서 a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³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⁴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⁵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의 생활

⁶○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⁷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⁸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⁹-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¹⁰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¹¹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¹²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¹³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¹⁴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¹⁵○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¹⁶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¹⁷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¹⁸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¹⁹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²⁰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남편과 아내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1b**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b 창 2:24) **32** 이 비밀은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와 부모

EPHESIANS 6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2a**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a 출 20:12; 신 15:16) **3**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4**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과 주인

5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값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악마와 싸우는 싸움

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b**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의')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c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c 사

11:5; 59:17) ¹⁵d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d 사 52:7; 나 1:15) ¹⁶e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e 또는 '어떤 경우에도든지') ¹⁷그리고 f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f 사 59:17) ¹⁸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¹⁹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g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복음의'가 없음) ²⁰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작별 인사

²¹○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²²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²³○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h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h 그, '형제들에게') ²⁴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i(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빌립보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Philippians 1](#) • [Philippians 2](#) • [Philippians 3](#) • [Philippians 4](#)

빌립보서

인사

PHILIPPIANS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표하다

3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여러분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7**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a**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a** 또는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8**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9**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10**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11**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

12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3**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b**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말씀')

15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6**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17**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그렇지만 어떨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19**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 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20**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

겠습니다. ²³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²⁴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²⁵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²⁶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²⁷○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²⁸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²⁹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³⁰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PHILIPPIANS 2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²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³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⁴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⁵^a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a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⁶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⁸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¹⁰^b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b 사 45:23(칠십인역))

11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12○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3**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4**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15**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6**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달음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8**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19○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앎으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0**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그러나 c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c 그, '그의') **23**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5○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d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d 그, '사도') **26**그는 여러분 모두를 e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보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27**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28**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29**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30**그는 f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하나님의 의

PHILIPPIANS 3 끝으로, a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b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a 그, '나의 형제들' b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

2o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3**c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4**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나는 난 지 여드레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6**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내가 바라는 것은, d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d 그, '그를') **11**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목표를 향한 달음질

12o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e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e 또는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13**f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f 그, '형제들이여') **14**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5**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16**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17of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f 그, '형제들이여') **18**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9**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20**그러나 우리의 g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g 또는 '나라') **21**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PHILIPPIANS 4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a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a 그, '나의 형제들이여')

권면

²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³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⁴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b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 ⁵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⁶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⁷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⁸마지막으로, c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c 그, '형제들이여') ⁹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¹⁰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e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d 또는 '기뻐합니다' e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¹¹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¹²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¹⁴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¹⁵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¹⁶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¹⁷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¹⁸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¹⁹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²⁰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작별 인사

²¹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²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³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1\]](#) **1:1** Or *slaves*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Philippians 1:1 ([Back](#))

[\[2\]](#) **1:1** Or *bishops*; Greek *episkopoi*

[3] 1:1 Or *servants*, or *ministers*; Greek *diakonoi*

Footnote from Philippians 1:7 ([Back](#))

[\[4\]](#) **1:7** Or *you all have fellowship with me in grace*

Footnote from Philippians 1:12 ([Back](#))

[5] 1:12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 14

Footnote from Philippians 1:13 ([Back](#))

[\[6\]](#) **1:13** Greek *in the whole praetorium*

Footnote from Philippians 1:14 ([Back](#))

[\[7\]](#) **1:14** Some manuscripts add *of God*

[\[8\]](#) **1:27** Greek *Only behave as citizens worthy*

Footnote from Philippians 2:5 ([Back](#))

[\[1\]](#) **2:5** Or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Footnote from Philippians 2:7 ([Back](#))

[\[2\]](#) 2:7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Philippians 2:22 ([Back](#))

[\[3\]](#) 2:22 Greek *his*

[\[4\]](#) 2:22 Greek *child*

Footnote from Philippians 3:1 ([Back](#))

[\[1\]](#) **3: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13, 17

Footnote from Philippians 3:3 ([Back](#))

[\[2\]](#) **3:3** Some manuscripts *God in spirit*

Footnote from Philippians 3:6 ([Back](#))

[\[3\]](#) 3:6 Greek *in the law*

Footnote from Philippians 4:1 ([Back](#))

[\[1\]](#) **4: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8, 21

Footnote from Philippians 4:3 ([Back](#))

[\[2\]](#) **4:3** Or *loyal Syzygus*; Greek *true yokefellow*

Footnote from Philippians 4:14 ([Back](#))

[\[3\]](#) **4:14** Or *have fellowship in*

Footnote from Philippians 4:17 ([Back](#))

[\[4\]](#) **4:17** Or *I seek the profit that accrues to your account*

골로새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Colossians 1](#) • [Colossians 2](#) • [Colossians 3](#) • [Colossians 4](#)

골로새서

인사

COLOSSIANS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2**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a**신실한 **b**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c**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a** 또는 '믿는' **b** 그, '형제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3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4**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5**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d**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d** 또는 '희망') **6**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7**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e**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위하여') **8**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일

9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f**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f** 그, '그의 뜻') **10**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12**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g**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에게') **13**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h**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피로'가 더 있음)

15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만물이 그분 **i**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i 또는 '말미암아') **17**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9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21○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2**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
에 내세우셨습니다. **23**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
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일

24○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25**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6**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27**하나님께서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
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
칩니다. **29**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COLOSSIANS 2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총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a**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비밀 곧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3**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4**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6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b**살아가십시오.(**b** 또는 '행하십시오') **7**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8**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그리스도 안에 온갖 총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10**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총만함을 받았습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1**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시다. **12**여러분은 **c**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시다.(**c** 또는 '침례') **13**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d**하나님께서 **e**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시다.(**d** 그, '그는'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14**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시다. **15**그리고 모든 **f**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시다.(**f** 또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서 지위를 빼앗으시고')

16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8**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19**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생활

20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어 있습니까? **21**"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22**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

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²³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COLOSSIANS 3**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²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³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a}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⁵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⁶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⁷여러분도 전에 b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b 또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⁸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훼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⁹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¹⁰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¹¹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¹²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¹³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c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께서') ¹⁴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¹⁵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d}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e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또는 '주님의'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께') ¹⁷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가정 생활 지침

¹⁸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¹⁹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²⁰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²¹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²²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f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f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f 그리스어 '퀴리오스'는 '주인'에게도 쓰이고 '주님'에게도 쓰임) ²³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²⁴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²⁵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COLOSSIANS 4**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권면

²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³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⁴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⁵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a기회를 선용하십시오.(^a 또는 '때를') ⁶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작별 인사

⁷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⁸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b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b 다른 사본들에는 '내가 여러분의') ⁹그리고 사랑 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 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¹⁰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¹¹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¹²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¹³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¹⁴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¹⁵라오디게아에 있는 ^c형제자매들과 늬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c 그, '형제들') ¹⁶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¹⁷그리고 아킵보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¹⁸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d(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Colossians 1:2 ([Back](#))

[1] 1:2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Colossians 1:7 ([Back](#))

[\[2\]](#) **1:7** Greek *fellow bondservant*

Footnote from Colossians 1:7 ([Back](#))

[\[3\]](#) 1:7 Some manuscripts *our*

Footnote from Colossians 1:12 ([Back](#))

[\[4\]](#) **1:12** Or *patience, with joy giving thanks*

Footnote from Colossians 1:12 ([Back](#))

[\[5\]](#) **1:12** Some manuscripts *us*

Footnote from Colossians 1:16 ([Back](#))

[\[6\]](#) **1:16** That is, by means of; or *in*

Footnote from Colossians 1:23 ([Back](#))

[\[7\]](#) **1:23** Or *to every creature*

Footnote from Colossians 2:8 ([Back](#))

[\[1\]](#) **2:8** Or *elementary principles*; also verse 20

Footnote from Colossians 2:15 ([Back](#))

[\[2\]](#) **2:15** Probably demonic rulers and authorities

Footnote from Colossians 2:15 ([Back](#))

[\[3\]](#) **2:15** Or *in it* (that is, the cross)

Footnote from Colossians 2:18 ([Back](#))

[\[4\]](#) **2:18** Or *about the things he has seen*

Footnote from Colossians 3:4 ([Back](#))

[\[1\]](#) 3:4 Some manuscripts *our*

Footnote from Colossians 3:5 ([Back](#))

[\[2\]](#) **3:5** Greek *therefore your members that are on the earth*

Footnote from Colossians 3:6 ([Back](#))

[\[3\]](#) **3:6** Some manuscripts add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Footnote from Colossians 3:9 ([Back](#))

[\[4\]](#) **3:9** Greek *man*; also as supplied in verse 10

Footnote from Colossians 3:11 ([Back](#))

[\[5\]](#) **3:11**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Colossians 3:22 ([Back](#))

[\[6\]](#) **3:22** Or *Slaves*; also 4:1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Colossians 3:22 ([Back](#))

[\[7\]](#) **3:22** Or *your masters according to the flesh*

Footnote from Colossians 4:7 ([Back](#))

[\[1\]](#) 4:7 Greek *fellow bondservant*; also verse 12

Footnote from Colossians 4:15 ([Back](#))

[\[2\]](#) **4:15** Or *brothers and sisters*

데살로니가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Thessalonians 1](#) • [1 Thessalonians 2](#) • [1 Thessalonians 3](#) • [1 Thessalonians 4](#) • [1 Thessalonians 5](#)

데살로니가전서

인사

1 THESSALONIANS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모범

2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a 그, '형제들이여') **5**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6**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b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b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1 THESSALONIANS 2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a 그, '형제들') **2**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6**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7**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b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⁹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a 그, '형제들') ¹⁰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¹¹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¹²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³○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¹⁴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a 그, '형제들') ¹⁵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¹⁶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다

¹⁷○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a 그, '형제들') ¹⁸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¹⁹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²⁰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1 THESSALONIANS 3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²우리의 형제요, a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a 그,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³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⁴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⁵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 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⁶○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⁷그러므로 b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b 그, '형제들') ⁸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⁹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10**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11○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3**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

1 THESSALONIANS 4 그러므로 **a**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a** 그, '형제들') **2**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4**각 사람은 **b**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b** 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5**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6**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c**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c** 그, '형제들') **7**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9****a**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a** 그, '형제들') **10**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a**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a** 그, '형제들') **11**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12**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13○**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d**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a** 그, '형제들' **d** 또는 '죽은 사람들') **14**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d**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d** 또는 '죽은 사람들')

15○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¹⁷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¹⁸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서 위로하십시오.

1 THESSALONIANS 5 a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a 그, '형제들') ²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³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⁴그러나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a 그, '형제들') ⁵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⁶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⁷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⁸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씌시다. ⁹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¹⁰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¹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권고와 인사

¹²o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a 그, '형제들') ¹³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¹⁴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a 그, '형제들') ¹⁵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¹⁶o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¹⁹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²⁰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²¹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²²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²³o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b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b 또는 '건전하게')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²⁵o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a 그, '형제들')

²⁶o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a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a 그, '형제들') ²⁷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a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a 그, '형제들')

²⁸o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1:2 ([Back](#))

[\[1\]](#) **1:2** Or *without ceasing*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1:4 ([Back](#))

[\[2\]](#) **1:4**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1 ([Back](#))

[\[1\]](#) **2: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9, 14, 17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5 ([Back](#))

[\[2\]](#) **2:5** Or *with a flattering speech*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7 ([Back](#))

[\[3\]](#) 2:7 Some manuscripts *infants*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13 ([Back](#))

[4] 2:13 Or *without ceasing*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13 ([Back](#))

[\[5\]](#) **2:13** The Greek word *anthropoi* can refer to both men and women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14 ([Back](#))

[\[6\]](#) **2:14** The Greek word *Ioudaioi* can refer to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others under their influence, who opposed the Christian faith in that time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2:16 ([Back](#))

[\[7\]](#) **2:16** Or *completely*, or *forever*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3:2 ([Back](#))

[\[1\]](#) **3:2** Some manuscripts *servant*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3:7 ([Back](#))

[\[2\]](#) **3:7**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4:1 ([Back](#))

[\[1\]](#) **4: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10, 13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4:3 ([Back](#))

[\[2\]](#) **4:3** Or *your holiness*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4:4 ([Back](#))

[\[3\]](#) 4:4 Or *how to take a wife for himself*; Greek *how to possess his own vessel*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4:15 ([Back](#))

[\[4\]](#) **4:15** Or *by the word of the Lord*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5:1 ([Back](#))

[\[1\]](#) **5: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4, 12, 14, 25, 26, 27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5:5 ([Back](#))

[\[2\]](#) **5:5** Or *sons*;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1 Thessalonians 5:14 ([Back](#))

[3] 5:14 Or *disorderly*, or *undisciplined*

데살로니가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Thessalonians 1](#) • [2 Thessalonians 2](#) • [2 Thessalonians 3](#)

데살로니가후서

인사

2 THESSALONIANS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²하나님 a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

³b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b 그, '형제들') ⁴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⁵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⁶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⁷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⁸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⁹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¹⁰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¹¹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¹²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자

2 THESSALONIANS 2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a 그, '형제들') ²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³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b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죄인') ⁴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⁵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⁶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

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⁷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⁸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꺾어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불사를') ⁹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¹⁰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¹¹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¹²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훈시

¹³o주님의 사랑을 받는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a 그, '형제들')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d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첫 열매로') ¹⁴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¹⁵그러므로 a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a 그, '형제들') ¹⁶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¹⁷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2 THESSALONIANS 3 마지막으로 a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a 그, '형제들') ²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³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b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십니다.(b 또는 '악으로부터') ⁴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⁵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경고하다

⁶o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c신도를 멀리하십시오.(a 그, '형제들' c 그, '형제') ⁷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⁸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⁹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⁰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¹¹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¹²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¹³ a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a 그, '형제들') ¹⁴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¹⁵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c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 이르십시오.(c 그, '형제')

축복

¹⁶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¹⁷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¹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d(d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1:3 ([Back](#))

[\[1\]](#) **1:3**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1:9 ([Back](#))

[\[2\]](#) **1:9** Or *destruction that comes from*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2:1 ([Back](#))

[\[1\]](#) **2: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13, 15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2:3 ([Back](#))

[\[2\]](#) **2:3** Some manuscripts *sin*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2:3 ([Back](#))

[\[3\]](#) **2:3** Greek *the son of perdition* (a Hebrew idiom)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2:13 ([Back](#))

[\[4\]](#) **2:13** Some manuscripts *chose you from the beginning*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3:1 ([Back](#))

[\[1\]](#) **3: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6, 13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3:1 ([Back](#))

[2] 3:1 Or *glorified*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3:3 ([Back](#))

[3] 3:3 Or *evil*

Footnote from 2 Thessalonians 3:12 ([Back](#))

[4] 3:12 Greek *to eat their own bread*

디모데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Timothy 1](#) • [1 Timothy 2](#) • [1 Timothy 3](#) • [1 Timothy 4](#) • [1 Timothy 5](#) • [1 Timothy 6](#)

디모데전서

인사

1TIMOTHY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믿음 안에서 a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a 원문에는 '나의'가 없음)

거짓 교훈을 경고하다

3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4**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b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b 또는 '거룩한 훈련') **5**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6**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7**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8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9**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10**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11**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라

12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3**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6**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7**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20**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나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1 TIMOTHY 2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2**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3**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4**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6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7**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a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8○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10**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11b**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b 또는 '아내') **12b**여자가 가르치거나 c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b 또는 '아내' c 또는 '자기 남편을') **13**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14**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15**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 TIMOTHY 3 a이 말은 옳습니다.

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까.(a 주석자들에 따라 '이 말은 옳습니다'를 3:1 하반절과 연결시키기도 함.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말입니다') **2**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5**(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6**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7**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8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9**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10**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11**이와 같이 **b**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b** 또는 '그들의 아내들' 또는 '여자 집사들') **12**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13**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종교의 비밀

14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15**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6**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c**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싸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은')

거짓 교사

1TIMOTHY 4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2**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4**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6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a**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b**일꾼이 될 것입니다.(**a** 그, '형제

들' b 또는 '집사') ⁷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⁸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⁹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¹⁰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¹¹○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¹²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¹³내가 갈 때까지, c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c 그, '읽는 일과') ¹⁴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¹⁵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¹⁶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신도를 대하는 태도

1 TIMOTHY 5 a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a 또는 '장로를') ²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³○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⁴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⁵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⁶향락에 빠져서 사는 b과부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b 그, '여자는') ⁷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⁸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⁹○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예순 살이 될 되어서는 안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¹⁰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c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c 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¹¹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¹²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¹³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¹⁴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¹⁵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¹⁶어떤 d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남신도나 여신도' 또는 '남신도')

¹⁷○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e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e 또는 '보상' 또는 '보수') ¹⁸성경에 이

르기를, f"타작 마당에서 낱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g"일꾼이 자기 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f 신 25:4 g 민 18:31; 대하 15:7) ¹⁹장로에 대한 고발은 h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h 신 19:15) ²⁰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²¹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²²i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여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i 또는 '아무나 성직에 임명하지 마십시오') ²³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²⁴o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해야 드러납니다. ²⁵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젠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1 TIMOTHY 6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²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a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b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훈과 참 부요

o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a 또는 '교회 신도'. 그, '형제' b 또는 '그들은 신도들이요 사랑받는 이들로서, 선한 1Ti 6:일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³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⁴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⁵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c(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가 더 있음) ⁶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⁷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d없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⁸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⁹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¹⁰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¹¹o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¹²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¹³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¹⁴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¹⁵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
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16**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17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
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18**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
시오. **19**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
십시오.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
론을 물리치십시오. **21**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e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f(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대와' f 다른 고대 사
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1 Timothy 1:4 ([Back](#))

[\[1\]](#) 1:4 Or *good order*

Footnote from 1 Timothy 1:10 ([Back](#))

[\[2\]](#) **1:10** That is, those who take someone captive in order to sell him into slavery

Footnote from 1 Timothy 1:10 ([Back](#))

[\[3\]](#) 1:10 Or *healthy*

Footnote from 1 Timothy 1:17 ([Back](#))

[\[4\]](#) 1:17 Greek *to the ages of ages*

Footnote from 1 Timothy 2:5 ([Back](#))

[\[1\]](#) **2:5** *men* and *man* render the same Greek word that is translated *people* in verses 1 and 4

Footnote from 1 Timothy 3:2 ([Back](#))

[\[1\]](#) **3:2** Or *bishop*; Greek *episkopos*; a similar term occurs in verse 1

Footnote from 1 Timothy 3:2 ([Back](#))

[\[2\]](#) 3:2 Or *a man of one woman*; also verse 12

Footnote from 1 Timothy 3:8 ([Back](#))

[\[3\]](#) **3:8** Or *devious in speech*

Footnote from 1 Timothy 3:11 ([Back](#))

[\[4\]](#) **3:11** Or *Wives, likewise, must*, or *Women, likewise, must*

Footnote from 1 Timothy 3:16 ([Back](#))

[\[5\]](#) **3:16** Greek *Who*; some manuscripts *God*; others *Which*

Footnote from 1 Timothy 3:16 ([Back](#))

[\[6\]](#) 3:16 Or *justified*

Footnote from 1 Timothy 3:16 ([Back](#))

[\[7\]](#) **3:16** Or *vindicated in spirit*

Footnote from 1 Timothy 4:6 ([Back](#))

[\[1\]](#) **4:6**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1 Timothy 4:10 ([Back](#))

[\[2\]](#) **4:10** Some manuscripts *and suffer reproach*

Footnote from 1 Timothy 4:15 ([Back](#))

[\[3\]](#) 4:15 Greek *be in them*

Footnote from 1 Timothy 5:9 ([Back](#))

[\[1\]](#) **5:9** Or *a woman of one man*

Footnote from 1 Timothy 6:1 ([Back](#))

[\[1\]](#) **6:1** Or *slaves*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1 Timothy 6:3 ([Back](#))

[\[2\]](#) **6:3** Or *healthy*

Footnote from 1 Timothy 6:7 ([Back](#))

[\[3\]](#) **6:7** Greek *for*; some manuscripts insert [it is] *certain* [that]

Footnote from 1 Timothy 6:13 ([Back](#))

[\[4\]](#) 6:13 Or *in the time of*

Footnote from 1 Timothy 6:21 ([Back](#))

[\[5\]](#) **6:21** The Greek for *you* is plural

디모데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Timothy 1](#) • [2 Timothy 2](#) • [2 Timothy 3](#) • [2 Timothy 4](#)

디모데후서

인사

2 TIMOTHY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3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4**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5**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6**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7**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검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8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9**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11**나는 a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방인을 위한'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음) **12**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b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 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b 또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13**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14**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15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16**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7**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18**그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2 TIMOTHY 2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2**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³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⁴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⁵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⁶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⁷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⁸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⁹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¹⁰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¹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¹²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¹³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정 받는 일꾼

¹⁴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a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님') ¹⁵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¹⁶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¹⁷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¹⁸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¹⁹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b"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c"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b 민 16:5 c 민 16:26)

²⁰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²¹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²²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²³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²⁴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

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²⁵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²⁶d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d 또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타락상

2 TIMOTHY 3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²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³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⁴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⁵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⁶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⁷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⁸또 이 사람들은 얄네와 얄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⁹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a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a 그리스어 본문에는 '두 사람'이 없음)

마지막 부탁

¹⁰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¹¹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¹²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¹³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¹⁴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¹⁵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¹⁶b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b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¹⁷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TIMOTHY 4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²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³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⁴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⁵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⁶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⁷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⁸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사로운 부탁

⁹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¹⁰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a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가울') ¹¹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¹²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¹³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¹⁴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b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b 시 62:12; 잠 24:12) ¹⁵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¹⁶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¹⁷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¹⁸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인사

¹⁹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²⁰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 ²¹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c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c 그, '모든 형제들')

²²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d(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2 Timothy 1:9 ([Back](#))

[\[1\]](#) 1:9 Or *with*

Footnote from 2 Timothy 1:9 ([Back](#))

[\[2\]](#) **1:9** Greek *before times eternal*

Footnote from 2 Timothy 1:12 ([Back](#))

[\[3\]](#) 1:12 Or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Greek *my deposit*

Footnote from 2 Timothy 1:13 ([Back](#))

[\[4\]](#) 1:13 Or *healthy*

Footnote from 2 Timothy 2:2 ([Back](#))

[\[1\]](#) **2:2** The Greek word *anthropoi* can refer to both men and women, depending on the context

Footnote from 2 Timothy 2:14 ([Back](#))

[\[2\]](#) **2:14** Some manuscripts *the Lord*

Footnote from 2 Timothy 2:15 ([Back](#))

[\[3\]](#) **2:15** That is, one approved after being tested

Footnote from 2 Timothy 2:21 ([Back](#))

[\[4\]](#) **2:21** Greek *from these things*

Footnote from 2 Timothy 2:24 ([Back](#))

[\[5\]](#) 2:24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2 Timothy 3:14 ([Back](#))

[\[1\]](#) **3:14** The Greek for *whom* is plural

Footnote from 2 Timothy 3:17 ([Back](#))

[\[2\]](#) **3:17** That is, a messenger of God (the phrase echoes a common Old Testament expression)

Footnote from 2 Timothy 4:3 ([Back](#))

[\[1\]](#) 4:3 Or *healthy*

Footnote from 2 Timothy 4:10 ([Back](#))

[\[2\]](#) **4:10** Some manuscripts *Gaul*

Footnote from 2 Timothy 4:21 ([Back](#))

[\[3\]](#) **4:21**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2 Timothy 4:22 ([Back](#))

[\[4\]](#) **4:22** The Greek for *you* is plural

디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Titus 1](#) • [Titus 2](#) • [Titus 3](#)

디도서

인사

TITUS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a**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a** 또는 '종교의 진리') **2**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3**하나님께서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b**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b** 또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4**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크레타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5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7**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8**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9**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1**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12**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13**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14**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5**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16**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리에 맞는 말

TITUS 2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²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³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험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⁴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⁵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⁶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⁷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⁸책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⁹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¹⁰흠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¹¹○a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a 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¹²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¹³그래서 우리는 복된 b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b 또는 '희망') ¹⁴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¹⁵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행에 관한 교훈

TITUS 3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²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³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⁴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⁵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⁶하나님께서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⁷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⁸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⁹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¹⁰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¹¹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과 인사

12○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걱정하였습니다. **13**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 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14**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5○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a(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Titus 1:1 ([Back](#))

[\[1\]](#) **1:1**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Titus 1:2 ([Back](#))

[\[2\]](#) **1:2** Greek *before times eternal*

Footnote from Titus 1:6 ([Back](#))

[\[3\]](#) **1:6** Or *a man of one woman*

Footnote from Titus 1:6 ([Back](#))

[\[4\]](#) 1:6 Or *are faithful*

Footnote from Titus 1:7 ([Back](#))

[\[5\]](#) **1:7** Or *bishop*; Greek *episkopos*

Footnote from Titus 1:9 ([Back](#))

[\[6\]](#) **1:9** Or *healthy*; also verse 13

Footnote from Titus 1:10 ([Back](#))

[\[7\]](#) **1:10** Or *especially those of the circumcision*

Footnote from Titus 1:12 ([Back](#))

[\[8\]](#) **1:12** Greek *One of them*

Footnote from Titus 1:12 ([Back](#))

[\[9\]](#) **1:12** Probably from Epimenides of Crete

Footnote from Titus 2:1 ([Back](#))

[\[1\]](#) **2:1** Or *healthy*; also verses 2, 8

Footnote from Titus 2:9 ([Back](#))

[\[2\]](#) **2:9** Or *Slaves*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빌레몬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Philemon](#)

빌레몬서

인사

PHILEMON 1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a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a 그, '그 형제') 2b자매 압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킴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b 그, '그 자매') 3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4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6그대의 믿음의 사قم이 더욱 깊어져서, c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d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d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받게') 7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두고 선처를 부탁하다

8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e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e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요, 이제는 갇힌 몸입니다') 10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f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f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또는 20절에 나오는 '호의') 11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f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f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또는 20절에 나오는 '호의') 12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13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종들게 하고 싶었으나, 14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5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6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17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18그가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19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20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²¹○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²²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별 인사

²³○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²⁴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²⁵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g(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Philemon 6 ([Back](#))

[\[1\]](#) **6** Or *for Christ's service*

[\[2\]](#) 10 *Onesimus* means *useful* (see verse 11) or *beneficial* (see verse 20)

Footnote from Philemon 16 ([Back](#))

[\[3\]](#) **16** Or *slave*; twice in this vers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히브리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Hebrews 1](#) • [Hebrews 2](#) • [Hebrews 3](#) • [Hebrews 4](#) • [Hebrews 5](#) • [Hebrews 6](#) • [Hebrews 7](#) • [Hebrews 8](#) • [Hebrews 9](#) • [Hebrews 10](#) • [Hebrews 11](#) • [Hebrews 12](#) • [Hebrews 13](#)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HEBREWS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²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³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⁴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⁵○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a"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b"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a 시 2:7(칠십인역) b 삼하 7:14) ⁶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c"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c 신 32:43(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을 볼 것)) ⁷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d"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d 시 104:4(칠십인역)) ⁸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e"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e 시 45:6, 7(칠십인역). 또는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주님의 보좌입니다')

⁹주님께서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¹⁰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f"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f 시 102:25-27(칠십인역))

¹¹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g웃처럼 낡을 것이요, (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웃처럼'이 없음)

¹²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웃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¹³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h"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h 시 110:1(칠십인역)) ¹⁴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
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귀중한 구원

HEBREWS 2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²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³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⁴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⁵○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⁶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a"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a 시 8:4-6(칠십인역),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인류를 일컫는 것임)

⁷주님께서는 그를

b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c (**b** 또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또한 그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세우시며'가 더 첨가되어 있음)

⁸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⁹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¹⁰○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d**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d** 그, '아들들') ¹¹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e**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e** 그, '형제들') ¹²그리하여 그분은

f"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e**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e** 그, '형제들' **f** 시 22:22(칠십인역)) ¹³또

g"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h"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g** 사 8:17(칠십인역) **h** 사 8:18(칠십인역)) ¹⁴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¹⁵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¹⁶사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i**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i** 그, '씨') ¹⁷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e**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e** 그, '형제들') ¹⁸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HEBREWS 3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a**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a** 그, '형제들') ²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³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 ⁴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⁵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⁶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⁷○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b"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b 시 95:7-11(칠십인역)) ⁸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⁹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¹⁰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¹¹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¹²○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a 그, '형제들') ¹³'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¹⁴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¹⁵c"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c 시 95:7, 8(칠십인역)) ¹⁶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
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¹⁷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
니까? ¹⁸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
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¹⁹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
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HEBREWS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

십시오. ²그들이나 우리나라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³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a"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a 시 95:11) ⁴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b"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b 창 2:2(칠십인역)) ⁵또 이 곳에서는 다시 a"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a 시 95:11) ⁶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⁷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c"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c 시 95:7, 8(칠십인역)) ⁸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⁹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¹⁰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¹¹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¹²○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훈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¹³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¹⁴○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¹⁵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¹⁶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HEBREWS 5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²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³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⁴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⁵○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a"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a 시 2:7(칠십인역)) ⁶또 다른 곳에서

b"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b 시 110:4) ⁷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⁸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¹⁰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변절을 경고하시다

¹¹οc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c 또는 '이것에' 또는 '그에') ¹²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¹³젓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¹⁴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HEBREWS 6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a교리를 제쳐놓고서, b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a 또는 '말씀을' b 또는 '완전한') ²c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c 또는 '침례') ³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d할 수 있을 것입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합시다') ⁴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⁵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⁶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⁷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 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⁸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⁹ο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¹⁰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¹¹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¹²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13○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말씀하시기를 e"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e 창 22:17) **15**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16**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이를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17**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써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18**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9**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

HEBREWS 7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2**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4○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a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브라함은') **5**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b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c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십분의 일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b 그, '형제들' c 그, '허리에서 나왔지만') **6**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7**두 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8**한 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분의 일을 받고, 다른 한 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9**말하자면,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분의 일을 바친 셈이 됩니다. **10**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d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d 또는 '몸')

11○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3**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14**우리 주님께서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16**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¹⁷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e"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e 시 110:4) ¹⁸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¹⁹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²⁰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²¹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e"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e 시 110:4) ²²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²³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²⁴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²⁵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f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f 또는 '언제나')

²⁶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²⁷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²⁸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HEBREWS 8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²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³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⁴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⁵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a"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a 출 25:40) ⁶그러나 이제 b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b 또는 '예수'. 그, '그')

⁷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⁸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c 렘 31:31-34(칠십인역)) ⁹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¹⁰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¹¹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d 그, '형제') ¹²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금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¹³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HEBREWS 9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²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 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³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⁴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⁵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a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a 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시온좌)')

⁶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⁷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⁸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⁹ 이 장막은 현 시대를 b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행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b 그, '비유') ¹⁰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¹¹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c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장차 올 좋은 일을') ¹²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¹³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¹⁴ 하물며 영원한 d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e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d 그, '영' e 그, '여러분들의')

¹⁵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f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f 15절의 '언약'과 16-17절의 '유언'은 같은 그리스어 디아테케의 번역임) ¹⁶ f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f 15절의 '언약'과 16-17절의 '유언'은 같은 그리스어 디아테케의 번역임) ¹⁷ f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f 15절의 '언약'과 16-17절의 '유언'은 같은 그리스어 디아테케의 번역임) ¹⁸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¹⁹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g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g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염소'가 없음)

²⁰ h"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h 출 24:8) ²¹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²²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²³○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²⁴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²⁵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²⁶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²⁷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²⁸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HEBREWS 10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써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²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³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⁴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 줄 수는 없습니다. ⁵그러므로 a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a 그, '그가' b 시 40:6-8(칠십인역)) ⁶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⁷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⁸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⁹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¹⁰이 c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c 하나님의 뜻)

¹¹○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¹²그러나 d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e단 한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f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d 그, '이분께서는' e 또는 '오직 한 번 제사를 드리신 뒤에 영원히' f 시 110:1) ¹³그리고서 그는 f그의 원수들이 그

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f 시 110:1) ¹⁴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¹⁵○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¹⁶g"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 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g 렘 31:33, 34) ¹⁷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¹⁸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굳게 섭시다

¹⁹○그러므로 h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h 그, '형제들') ²⁰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
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²¹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
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²²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²³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²⁴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
려합시다. ²⁵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
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읍시다.

²⁶○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²⁷i남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
렬한 불뿐입니다.(i 사 26:11(칠십인역)) ²⁸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
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²⁹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
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
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³⁰j"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k"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j 신 32:35 k 신 32:36; 시 135:14) ³¹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
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³²○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³³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³⁴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³⁵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³⁶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³⁷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1 함 2:3, 4(칠십인역))
³⁸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³⁹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음

HEBREWS 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a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a'실상, 실체, 보증'으로 번역할 수도 있음) ²^b선조들은 ^c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d증언되었습니다.(^b 또는 '우리 조상은' ^c 그, '이것으로' ^d 또는 '인정')
³^o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⁴^o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e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d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f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d 또는 '인정' ^e 그, '큰' ^f 그, '이것을 통하여') ⁵^g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d증언을 받은 것입니다.(^d 또는 '인정' ^g 창 5:24(칠십인역))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⁷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⁸^o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⁹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¹⁰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¹¹믿음으로 ^h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아브라함)가,.....') ¹²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3○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4**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17○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8**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i 창 21:12(칠십인역)) **19**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20**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21**j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j 창 47:31(칠십인역)) **22**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k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k 또는 '매장을')

23○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l(1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다음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그, '형제들')의 굴욕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4**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26**모세는 m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m 또는 '메시아') **27**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28**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n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n 이스라엘의 맏아들들) **29**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30**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31**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o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o 또는 '믿지 않은')

32○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33**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34**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35**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36**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37**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p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

고 떠돌았습니다.(p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험을 당하고'가 첨가되어 있음) ³⁸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³⁹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d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d 또는 '인정') ⁴⁰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훈련

HEBREWS 12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a엄매는 죄를 벗어나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쉽게 빛나게 하는') ²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³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⁴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⁵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b"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b 잠 3:11, 12(칠십인역))

⁶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⁷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⁸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⁹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¹⁰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¹¹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¹²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¹³c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기는 다리로 하여금 빠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c 잠 4:26(칠십인역))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¹⁴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¹⁵d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돌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

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d 신 29:18(칠십인역)) ¹⁶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 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¹⁷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e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e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¹⁸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 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¹⁹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²⁰f"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 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f 출 19:12, 13) ²¹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g"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g 신 9:19) ²²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²³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 인의 영들과 ²⁴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 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²⁵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 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 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²⁶그 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h"내가 한 번 더, 땅뿐 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h 학 2:6, 21(칠십인역)) ²⁷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²⁸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²⁹i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i 신 4:2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HEBREWS 13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²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³감옥 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⁴a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 을 것입니다.(a 또는 '모두에게 혼인은 귀하니,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⁵돈을 사랑함 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b"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b 신 31:6, 8; 창 28:15; 수 1:5) ⁶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c"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c 시 118:6, 7(칠십인역))

⁷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⁸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⁹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d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d 그, '음식으로가 아니라')

¹⁰○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¹¹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¹²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¹³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니다. ¹⁴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¹⁵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¹⁶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¹⁷○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¹⁸○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¹⁹내가 여러분에게 좀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복과 작별 인사

²⁰○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²¹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e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에게')

²²○^f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짧막하게 썼습니다.(^f 그, '형제들') ²³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²⁴○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⁵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g(^g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Hebrews 1:12 ([Back](#))

[\[1\]](#) **1:12** Some manuscripts omit *like a garment*

Footnote from Hebrews 2:7 ([Back](#))

[\[1\]](#) **2:7** Some manuscripts insert *and set him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Footnote from Hebrews 2:11 ([Back](#))

[\[2\]](#) **2:11** Greek *all are of one*

Footnote from Hebrews 2:11 ([Back](#))

[\[3\]](#) **2:11**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 12

Footnote from Hebrews 3:1 ([Back](#))

[\[1\]](#) **3: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2

Footnote from Hebrews 3:2 ([Back](#))

[\[2\]](#) **3:2** Greek *his*; also verses 5, 6

Footnote from Hebrews 3:6 ([Back](#))

[\[3\]](#) **3:6** Some manuscripts insert *firm to the end*

Footnote from Hebrews 4:2 ([Back](#))

[\[1\]](#) **4:2** Some manuscripts *it did not meet with faith in the hearers*

Footnote from Hebrews 4:8 ([Back](#))

[\[2\]](#) 4:8 Greek *he*

Footnote from Hebrews 5:7 ([Back](#))

[\[1\]](#) 5:7 Greek *he*

Footnote from Hebrews 6:2 ([Back](#))

[\[1\]](#) **6:2** Or *baptisms* (that is, cleansing rites)

Footnote from Hebrews 6:15 ([Back](#))

[\[2\]](#) 6:15 Greek *he*

Footnote from Hebrews 7:5 ([Back](#))

[\[1\]](#) 7:5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Hebrews 7:25 ([Back](#))

[\[2\]](#) **7:25** That is, completely; or *at all times*

Footnote from Hebrews 8:2 ([Back](#))

[1] 8:2 Or *tabernacle*; also verse 5

Footnote from Hebrews 8:6 ([Back](#))

[\[2\]](#) 8:6 Greek *he*

Footnote from Hebrews 8:8 ([Back](#))

[\[3\]](#) **8:8** Some manuscripts *For finding fault with it he says to them*

Footnote from Hebrews 9:2 ([Back](#))

[1] 9:2 Or *tabernacle*; also verses 11, 21

Footnote from Hebrews 9:2 ([Back](#))

[2] 9:2 Greek *the presentation of the loaves*

Footnote from Hebrews 9:3 ([Back](#))

[\[3\]](#) **9:3** Greek *tent*; also verses 6, 8

Footnote from Hebrews 9:9 ([Back](#))

[\[4\]](#) **9:9** Or *which is symbolic for the age then present*

Footnote from Hebrews 9:11 ([Back](#))

[\[5\]](#) **9:11** Some manuscripts *good things to come*

Footnote from Hebrews 9:13 ([Back](#))

[\[6\]](#) **9:13** Or *For if the sprinkling of defiled persons with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with the ashes of a heifer sanctifies*

Footnote from Hebrews 9:14 ([Back](#))

[\[7\]](#) **9:14** Some manuscripts *your*

Footnote from Hebrews 9:15 ([Back](#))

[\[8\]](#) **9:15** The Greek word means both *covenant* and *will*; also verses 16, 17

[\[1\]](#) 10:5 Greek *he*

Footnote from Hebrews 10:12 ([Back](#))

[\[2\]](#) 10:12 Greek *this one*

Footnote from Hebrews 10:19 ([Back](#))

[\[3\]](#) **10:19**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Hebrews 11:37 ([Back](#))

[\[1\]](#) **11:37** Some manuscripts add *they were tempted*

Footnote from Hebrews 12:23 ([Back](#))

[\[1\]](#) 12:23 Or *church*

Footnote from Hebrews 13:21 ([Back](#))

[\[1\]](#) **13:21** Some manuscripts *you*

Footnote from Hebrews 13:22 ([Back](#))

[\[2\]](#) **13:22** Or *brothers and sisters*

야고보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ames 1](#) • [James 2](#) • [James 3](#) • [James 4](#) • [James 5](#)

야고보서

인사

JAMES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시험, 인내, 믿음, 지혜

2 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a 그, '형제들')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6**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8**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요함

9 비천한 b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b 그, '형제') **10** c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c 사 40:6-7(칠십인역)) **11**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련과 극복

12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13**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d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d 그, '악한 것들, 악한 일들') **14**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6 나의 사랑하는 a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a 그, '형제들') **17**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18**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실행함

19○사랑하는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a 그, '형제들') **20**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22○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5**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e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e '행한 일로'로 번역할 수도 있음)

26○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경고함

JAMES 2 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a 그, '형제들') **2**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3**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b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b 그,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4**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사랑하는 a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a 그, '형제들') **6**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7**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8**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c"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c 레 19:18) **9**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10**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11**d"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e"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d 출 20:14; 신 5:18 e 출 20:13; 신 5:17) **12**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13**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4○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a 그, '형제들') **15**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 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16**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8○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9**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씁니다. **20**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그래서 f"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f 창 15:6; 사 41:8; 대하 20:7) **24**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JAMES 3 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a 그, '형제들') **2**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3**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4**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5**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6**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b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c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b 또는 '출생의 바퀴' 또는 '자연의 순환')(c 지옥 불) **7**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8**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걸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10**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a 그, '형제들') **11**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12**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a 그, '형제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13○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4**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16**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17**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세상과 벗함

JAMES 4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2**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6**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

a"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a 잠 3:34(칠십인역)) **7**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8**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9**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b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b 그, '형제들') **12**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허망한 생각을 경고함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에게 주는 경고

JAMES 5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2**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4**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는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6**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기도

7 그러므로 a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a 그, '형제들') **8**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9** a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a 그, '형제들') **10** a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a 그, '형제들') **11**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12 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a 그, '형제들')

13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14**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15**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¹⁸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¹⁹○나의 a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a 그, '형제들') ²⁰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Footnotes

Footnote from James 1:1 ([Back](#))

[\[1\]](#) **1:1**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James 1:2 ([Back](#))

[\[2\]](#) **1:2**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s 16, 19

Footnote from James 1:10 ([Back](#))

[\[3\]](#) **1:10** Or *a wild flower*

Footnote from James 1:17 ([Back](#))

[\[4\]](#) **1:17** Some manuscripts *variation due to a shadow of turning*

Footnote from James 2:1 ([Back](#))

[\[1\]](#) **2:1**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5, 14

Footnote from James 2:16 ([Back](#))

[\[2\]](#) 2:16 Or *benefit*

Footnote from James 3:6 ([Back](#))

[\[1\]](#) 3:6 Or *wheel of birth*

Footnote from James 3:6 ([Back](#))

[\[2\]](#) 3:6 Greek *Gehenna*

Footnote from James 3:10 ([Back](#))

[3] 3:10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 12

Footnote from James 4:1 ([Back](#))

[\[1\]](#) **4:1** Greek *pleasures*; also verse 3

Footnote from James 4:1 ([Back](#))

[\[2\]](#) **4:1** Greek *in your members*

Footnote from James 4:4 ([Back](#))

[\[3\]](#) 4:4 Greek *You adulteresses!*

Footnote from James 4:11 ([Back](#))

[\[4\]](#) **4:11**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James 5:7 ([Back](#))

[\[1\]](#) **5:7** Or *brothers and sisters*; also verses 9, 10, 12, 19

Footnote from James 5:16 ([Back](#))

[\[2\]](#) **5:16** Or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power*

베드로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Peter 1](#) • [1 Peter 2](#) • [1 Peter 3](#) • [1 Peter 4](#) • [1 Peter 5](#)

베드로전서

인사

1 PETER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산 소망

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a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a 또는 '희망') **4**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5**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6**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8**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11**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12**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심에 따르는 거룩한 생활

13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4**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15**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성경에 기록하기를 b"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b 레 11:44, 45; 19:2; 20:7)

17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

십시오. ¹⁸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¹⁹흙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²⁰하나님께서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²¹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²²○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c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d뜨겁게 사랑하십시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성령(그, '영')을 통하여'가 더 있음 d 또는 '변함없이' 또는 '깊게') ²³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e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e 또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²⁴f"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f 사 40:6-8(칠십인역))

²⁵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살아 있는 돌과 거룩한 국민

1 PETER 2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²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³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⁴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에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⁵살아 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⁶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a 사 28:16(칠십인역))

⁷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b"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b 시 118:22(칠십인역))

⁸또한

c"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c 사 8:14)

9o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d 사 43:20; 출 19:5-6; 사 43:21)

10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11o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12**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3o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14**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15**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17**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18o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19**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o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2e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e 사 53:9)

23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25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남편

1 PETER 3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
다. **3**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4**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5** 전에 하나님께 a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a 또는 '희망')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
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
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7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
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8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
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b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b 시 34:12(칠십인역)) ¹¹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¹²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¹³○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¹⁴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c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혼
들리지 마십시오.(c 또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 8:12) ¹⁵다만 여
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¹⁶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
하게 될 것입니다. ¹⁷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¹⁸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d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e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고난을 받으신'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들')

¹⁹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서
선포하셨습니다.

²⁰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
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²¹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f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
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f 또는 '침례') ²²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서서 하나님의 오
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

1 PETER 4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a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을 위하여')² 이제부터는, b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b 이 세상에서의 삶)³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 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⁴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⁵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⁶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⁷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⁸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⁹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¹⁰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¹¹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¹²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¹³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¹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c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d(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영광과 능력의'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편에서 보면 그가 모욕을 받지만, 여러분의 편에서 보면 그는 영광을 받습니다'가 첨가되어 있음)¹⁵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¹⁶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¹⁷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¹⁸ e"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e 잠 11:31(칠십인역))

¹⁹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십시오

1 PETER 5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²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a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b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가 있음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없음) ³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⁴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⁵◦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c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d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c 또는 '장로들에게' d 잠 3:34(칠십인역))

⁶◦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⁷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⁸◦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e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두루 다닙니다.(e 그, '훼방자') ⁹믿음에 굳게 서서, e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f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e 그, '훼방자' f 그, '형제의 관계') ¹⁰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¹¹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작별 인사

¹²◦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¹³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g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g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로마를 가리킴) ¹⁴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h(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1 Peter 1:13 ([Back](#))

[\[1\]](#) **1:13** Greek *girding up the loins of your mind*

Footnote from 1 Peter 2:7 ([Back](#))

[\[1\]](#) **2:7** Greek *the head of the corner*

Footnote from 1 Peter 2:13 ([Back](#))

[\[2\]](#) **2:13** Or *every institution ordained for people*

Footnote from 1 Peter 2:13 ([Back](#))

[\[3\]](#) **2:13** Or *king*; also verse 17

Footnote from 1 Peter 2:16 ([Back](#))

[\[4\]](#) **2:16**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1 Peter 3:7 ([Back](#))

[\[1\]](#) **3:7** Some manuscripts *since you are joint heirs*

Footnote from 1 Peter 3:18 ([Back](#))

[\[2\]](#) **3:18** Some manuscripts *died*

Footnote from 1 Peter 3:19 ([Back](#))

[\[3\]](#) **3:19** Or *the Spirit, in whom*

Footnote from 1 Peter 3:19 ([Back](#))

[\[4\]](#) 3:19 Or *preached*

Footnote from 1 Peter 3:20 ([Back](#))

[\[5\]](#) **3:20** Or *when*

Footnote from 1 Peter 4:1 ([Back](#))

[\[1\]](#) **4:1** Some manuscripts add *for us*; some *for you*

Footnote from 1 Peter 4:14 ([Back](#))

[\[2\]](#) **4:14** Some manuscripts insert *and of power*

Footnote from 1 Peter 4:18 ([Back](#))

[\[3\]](#) **4:18** Greek *where will the ungodly and sinner appear?*

Footnote from 1 Peter 5:2 ([Back](#))

[\[1\]](#) **5:2** Some manuscripts omit *exercising oversight*

Footnote from 1 Peter 5:2 ([Back](#))

[\[2\]](#) **5:2** Some manuscripts omit *as God would have you*

베드로후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Peter 1](#) • [2 Peter 2](#) • [2 Peter 3](#)

베드로후서

인사

2 PETER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a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몬') **2**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선택하심

3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4**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6**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9**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0**그러므로 b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b 그, '형제들') **11**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실 것입니다.

12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13**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c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c 또는 '죽을 때가') **15**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자의 말

16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임을 알려 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7**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d"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d 마 17:5; 막 9:7; 눅 9:35) **18**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19**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

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²⁰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²¹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유 4-13)

2 PETER 2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²많은 사람이 a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a 거짓 교사들) ³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⁴○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b지옥에 던져서, c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b 그, '타르타루스(지하 세계)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구덩이에 가두어') ⁵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 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일곱 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⁶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d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릴 일의') ⁷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⁸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⁹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아십니다. ¹⁰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e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e 또는 '천사들'. 그, '영광을') ¹¹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¹²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¹³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 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¹⁴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¹⁵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샅을 사랑한 f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브올') ¹⁶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¹⁷○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¹⁸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¹⁹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²⁰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²¹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²²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g"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g 잠 26:11)

재림의 약속

2 PETER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²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³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⁴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a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b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a '어디 있느냐?', '어찌 되었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 b 또는 '죽은') ⁵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⁶또 물로 그 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⁸o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c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c 시 90:4) ⁹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¹⁰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d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든 것은 타버릴') ¹¹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¹²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¹³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¹⁴o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¹⁵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¹⁶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¹⁷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

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8**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Footnotes

Footnote from 2 Peter 1:1 ([Back](#))

[\[1\]](#) **1:1** Some manuscripts *Simon*

Footnote from 2 Peter 1:1 ([Back](#))

[\[2\]](#) **1:1**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Footnote from 2 Peter 1:3 ([Back](#))

[\[3\]](#) 1:3 Or *by*

Footnote from 2 Peter 1:3 ([Back](#))

[\[4\]](#) **1:3** Or *virtue*

Footnote from 2 Peter 1:5 ([Back](#))

[\[5\]](#) **1:5** Or *excellence*; twice in this verse

Footnote from 2 Peter 1:8 ([Back](#))

[\[6\]](#) **1:8** Greek *these things*; also verses 9, 10, 12

Footnote from 2 Peter 1:10 ([Back](#))

[\[7\]](#) **1:10**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2 Peter 1:13 ([Back](#))

[\[8\]](#) **1:13** Greek *tent*; also verse 14

Footnote from 2 Peter 1:17 ([Back](#))

[\[9\]](#) 1:17 Or *my Son, my* (or *the*) *Beloved*

Footnote from 2 Peter 2:4 ([Back](#))

[\[1\]](#) 2:4 Greek *Tartarus*

Footnote from 2 Peter 2:4 ([Back](#))

[\[2\]](#) 2:4 Some manuscripts *pits*

Footnote from 2 Peter 2:6 ([Back](#))

[\[3\]](#) 2:6 Some manuscripts *an example to those who were to be ungodly*

Footnote from 2 Peter 2:9 ([Back](#))

[\[4\]](#) 2:9 Or *temptations*

Footnote from 2 Peter 2:10 ([Back](#))

[\[5\]](#) **2:10** Greek *who go after the flesh*

Footnote from 2 Peter 2:13 ([Back](#))

[\[6\]](#) **2:13** Some manuscripts *love feasts*

Footnote from 2 Peter 2:19 ([Back](#))

[\[7\]](#) **2:19**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2 Peter 3:9 ([Back](#))

[\[1\]](#) **3:9** Some manuscripts *on your account*

Footnote from 2 Peter 3:10 ([Back](#))

[\[2\]](#) **3:10** Or *elements*; also verse 12

Footnote from 2 Peter 3:10 ([Back](#))

[\[3\]](#) **3:10** Greek *found*; some manuscripts *will be burned up*

요한**1**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1 John 1](#) • [1 John 2](#) • [1 John 3](#) • [1 John 4](#) • [1 John 5](#)

요한1서

생명의 말씀

1JOHN 1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 **2**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입니다. **4**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a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빛이시다

5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8**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1JOHN 2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3**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5**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6**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 계명

7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8**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⁹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a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a 그, '형제') ¹⁰자기 a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a 그, '형제') ¹¹자기 a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a 그, '형제')

¹²자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¹³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¹⁴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b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1Jo 2: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b 하나님을 가리킴)

¹⁵○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b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b 하나님을 가리킴) ¹⁶세상에 있

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라는 모두 하늘 b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b 하나님을 가리킴) ¹⁷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

¹⁸○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¹⁹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²⁰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c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은 모두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²¹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²²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d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d 또는 '메시아') ²³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²⁴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²⁵이것은 그가 친히 e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에게')

²⁶○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²⁷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f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f 또는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자녀

²⁸○그러므로 자녀 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²⁹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1 JOHN 3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²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디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³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⁴○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⁵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⁶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⁷자녀 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⁸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⁹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¹⁰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a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a 그, '형제')

서로 사랑하라

¹¹○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¹²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¹³b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b 그, '형제들') ¹⁴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¹⁵자기 a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a 그, '형제') ¹⁶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b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b 그, '형제들') ¹⁷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a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a 그, '형제') ¹⁸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

¹⁹○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²⁰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²²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²³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²⁴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

1JOHN 4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3**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4**자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5**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3○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4**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15**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8**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우리가 a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를' 또는 '하나님을'이 첨가됨) **20**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b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b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b 그, '형제') **21**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b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b 그, '형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

1JOHN 5 예수가 a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a 또는 '메시아') **2**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3**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들에 관해서 증언함

6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7b**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b 몇몇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8**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습니다. 곧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8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9**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10**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c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들을')

11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

13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16누구든지 d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d 그, '자기의 형제')

17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18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므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19**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20**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자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e(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1 John 1:4 ([Back](#))

[\[1\]](#) 1:4 Some manuscripts *your*

Footnote from 1 John 2:8 ([Back](#))

[1] 2:8 Or *that*

Footnote from 1 John 2:10 ([Back](#))

[\[2\]](#) 2:10 Or *it*

Footnote from 1 John 2:16 ([Back](#))

[\[3\]](#) 2:16 Or *pride in possessions*

Footnote from 1 John 2:20 ([Back](#))

[\[4\]](#) **2:20** Some manuscripts *you know everything*

Footnote from 1 John 2:25 ([Back](#))

[\[5\]](#) **2:25** Some manuscripts *you*

Footnote from 1 John 3:2 ([Back](#))

[\[1\]](#) **3:2** Or *when it appears*

Footnote from 1 John 3:9 ([Back](#))

[\[2\]](#) 3:9 Greek *his*

Footnote from 1 John 3:13 ([Back](#))

[\[3\]](#) **3:13**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s 14, 16

Footnote from 1 John 3:24 ([Back](#))

[\[4\]](#) 3:24 Greek *him*

Footnote from 1 John 3:24 ([Back](#))

[\[5\]](#) 3:24 Greek *he*

Footnote from 1 John 4:20 ([Back](#))

[\[1\]](#) **4:20** Some manuscripts *how can he*

Footnote from 1 John 5:16 ([Back](#))

[\[1\]](#) 5:16 Greek *he*

요한**2**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2 John](#)

요한2서

인사

2JOHN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a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a 그, '부인') **2**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3**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b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

4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5**a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a 그, '부인') **6**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8**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c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여러분이') **9**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

12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13**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d(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Footnotes

Footnote from 2 John 8 ([Back](#))

[\[1\]](#) **8** Some manuscripts *you*

요한**3**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3 John](#)

요한3서

인사

3JOHN 1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2**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 a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a 그, '형제들') **4**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협동과 방해

5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a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a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a 그, '형제들') **6**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7** 그들은 b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b 그, '이름을') **8**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a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a 그, '형제들') **11**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뵈지 못한 사람입니다.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작별 인사

13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14**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15**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Footnotes

Footnote from 3 John 3 ([Back](#))

[\[1\]](#) **3**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also verses 5, 10

유다서

[\(return to table of contents\)](#)

[Jude](#)

유다서

인사

JUDE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a**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b**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a** 그, '형제'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거룩하게 해주시고') **2**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벧후 2:1-17)

3○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5○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c**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6**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7**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탄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d**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d** 또는 '천사들을') **9**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10**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인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11**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샅을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12**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13**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14○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e**"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e** 창 5:18, 21-24) **15**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16**이들은 불만에 싸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훈계와 권면

17○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18**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f"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f 벰후 3:3) **19**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20**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1**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22**g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g 22-23절은 그리스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함) **23**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달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축복

24○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25**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Footnotes

[\[1\]](#) **1** Or *slave* (for the contextual rendering of the Greek word *doulos*, see [Preface](#))

[\[2\]](#) 1 Or *by*

[\[3\]](#) 5 Some manuscripts *although you fully knew it, that the Lord who once saved*

Footnote from Jude 7 ([Back](#))

[\[4\]](#) 7 Greek *other flesh*

Footnote from Jude 12 ([Back](#))

[\[5\]](#) 12 Or *are blemishes*

Footnote from Jude 18 ([Back](#))

[\[6\]](#) 18 Or *Christ, because they*

Footnote from Jude 23 ([Back](#))

[\[7\]](#) **23** Greek *chiton*, a long garment worn under the cloak next to the skin

요한계시록

[\(return to table of contents\)](#)

[Revelation 1](#) • [Revelation 2](#) • [Revelation 3](#) • [Revelation 4](#) • [Revelation 5](#) • [Revelation 6](#) • [Revelation 7](#) • [Revelation 8](#) • [Revelation 9](#) • [Revelation 10](#) • [Revelation 11](#) • [Revelation 12](#) • [Revelation 13](#) • [Revelation 14](#) • [Revelation 15](#) • [Revelation 16](#) • [Revelation 17](#) • [Revelation 18](#) • [Revelation 19](#) • [Revelation 20](#) • [Revelation 21](#) • [Revelation 22](#)

요한계시록

표제와 인사

REVELATION 1 이것은 a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 주셨습니다.(a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³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⁴○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b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c해방하여 주셨고,(b 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요'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씻어')⁶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⁷d"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e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d 단 7:13, e 속 12:10)

⁸○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⁹○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f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f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¹⁰주님의 날에 내가 g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 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g 그, '영')¹¹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¹²○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 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¹³그 촛대 한가운데 d'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d 단 7:13)¹⁴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¹⁵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

소리와 같았습니다. **16**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17○그를 뵈을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8**살아 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h**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h** 그, '하데스') **19**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i**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i** 또는 '천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REVELATION 2 "에베소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 낸 것도, 알고 있다. **3**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4**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5**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6**그런데 네게는 잘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b**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b** 겔 28:13; 31:8, 9(칠십인역))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8○"서머나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a** 또는 '천사')

9○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10**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c**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c** 그, '월계관') **11**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12○"버가모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a** 또는 '천사')

13○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

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18 ◦ "두아디라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a 또는 '천사')

19 ◦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20**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21**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22**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3**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26**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7 d「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d 시 2:9(칠십인역))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셋별을 주겠다. **29**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데 교회에 보내는 말씀

REVELATION 3 "사데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a 또는 '천사') **2**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 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

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⁶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⁷○"빌라델비아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달을 사람이 없고
달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a 또는 '천사')
⁸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⁹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¹⁰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 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¹¹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b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b 그, '월계관') ¹²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¹³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¹⁴○"라오디게아 교회의 a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c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a 또는 '천사' c 또는 '기원' 또는 '근원')
¹⁵○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¹⁶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¹⁷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¹⁸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¹⁹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²⁰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²¹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²²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늘의 예배

REVELATION 4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²나는 곧 a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a 그, '영') ³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⁴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스물네 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스물네 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⁵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⁶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⁷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⁸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⁹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¹⁰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b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b 그, '월계관')

¹¹"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두루마리와 어린 양

REVELATION 5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²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³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⁴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⁵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6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8**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0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a 또는 '땅 위에서')

11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REVELATION 6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a"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a 또는 '가거라!') **2**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3○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a"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a 또는 '가거라!') 4그 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5○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a"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a 또는 '가거라!') 6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 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b품삿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b품삿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b 그, '데나리온')

7○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a"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a 또는 '가거라!') 8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c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써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c 그, '하데스')

9○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10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11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d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d 그, '형제들')

12○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13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14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15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16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

인치심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REVELATION 7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4○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5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6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므낏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7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8스불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9○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1**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2"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 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13○그 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14**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15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6^a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찌지 않을 것입니다. (a 사 49:10)

17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b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c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b** 시 23:2; 사 49:10 **c** 사 25:8)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REVELATION 8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뿜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2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소리

6그 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8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10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 위에 덮였습니다. **11**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12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13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REVELATION 9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a**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a**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2**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3**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4**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⁵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⁶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⁷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⁸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⁹쇠로 된 가슴막이와 같은 가슴막이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달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¹⁰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¹¹그것들은 a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b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c아볼루온입니다.(a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b '파멸' c '파괴자')

¹²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¹³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d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뿔들') ¹⁴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¹⁵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¹⁶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이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¹⁷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막이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¹⁸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¹⁹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²⁰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²¹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REVELATION 10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²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³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⁴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⁵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⁶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⁷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8○하늘로부터 들려 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9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10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11그 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두 증인

REVELATION 11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2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3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4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쏫대 두 개입니다. 5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6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7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a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a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8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기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9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0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b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b 또는 '영이') 12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c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내게로') 13바로 그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칠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15○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d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d 또는 '메시아')

16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도 옆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8 모든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다. 그 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
졌습니다.

여자와 용

REVELATION 12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2** 이 여자는 아이를 배고 있
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
다. 머리 일곱 개와 뿔 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
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
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a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
이로 만국을 b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
려 올라갔고, (a 시 2:9 b 또는 '보살필')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천이백
육십 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7 그 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
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9**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

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10○그 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c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d동료들을 혈뜰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혈뜰는 자가
내쫓겼다. (c 또는 '메시아' d 그, '형제들')

11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2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3○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e쫓아갔습니다.(e 또는 '박해하였다') 14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15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 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6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 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17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18○f그 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f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때에 나는')

짐승 두 마리

REVELATION 13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2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a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a 그, '죽음의 재앙이') 4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⁵○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⁶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7b}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7절 상반절이 없음) ⁸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c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c 또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⁹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d}"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d 렘 15:2; 43:11)

¹¹○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¹²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e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e 그, '죽음의 재앙') ¹³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¹⁴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미끼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f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f 또는 '칼의 재앙을 받았다가도') ¹⁵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g생기를 넣어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g 또는 '영') ¹⁶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¹⁷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¹⁸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h육백육십육입니다.(h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육백십육')

십사만 사천 명이 부른 노래

REVELATION 14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²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³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그들은 여자

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⁵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말

⁶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⁷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⁸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빛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⁹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¹⁰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¹¹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¹²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¹³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확

¹⁴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a'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a 단 7:13) ¹⁵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들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¹⁶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¹⁷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¹⁸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¹⁹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²⁰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달고, 거의 b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b 약 300킬로미터)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REVELATION 15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²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³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a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만세의')

⁴b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b 렘 10:7)

⁵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⁶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c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돌') ⁷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⁸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노의 대접

REVELATION 16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²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³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⁴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⁵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6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
다. **9**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
다.

10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11**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
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해 돋는 곳에
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13**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
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a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a 그, '자기 옷을 지키다') **16** 그 세 영
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
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18**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
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19** 그리고 그 큰 도시
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20**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1**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
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
다.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

REVELATION 17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
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 주겠다. **2**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
니다. **3** 그리고 그 천사는 a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
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
고, 머리 일곱과 빨 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a 그, '영') **4**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

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⁵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
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⁶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⁷그 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
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⁸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b아비소
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
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b '밀바닥이 없
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⁹○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
한 일곱 왕이다. ¹⁰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
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¹¹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
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
다. ¹²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¹³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
게 내줄 것이다. ¹⁴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
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¹⁵○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
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¹⁶그리고 네가 본 그 열 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
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¹⁷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
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
이다. ¹⁸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바빌론의 패망

REVELATION 18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
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²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³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4^o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5^o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달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6^o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7^o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 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8^o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9^o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0^o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
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 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11○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2**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13**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a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a 또는 '사람과 몸과 영혼입니다')

14네가 마음 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네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네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5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16**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17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18**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19**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20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21○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2거문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b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네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b '너'는 '도시'를 가리킴)

23 등불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b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고, (b '너'는 '도시'를 가리킴)

24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REVELATION 19 이 일이 있는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3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4**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앞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5○그 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6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7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8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9○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10그 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a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b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a 그, '형제들' b 또는 '예수께 대한 증언은')

흰 말을 타신 분

11○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4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5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c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c 또는 '돌볼') 16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8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¹⁹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²⁰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향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²¹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천 년 왕국

REVELATION 20 나는 또 한 천사가 a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²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a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³a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⁴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⁵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⁶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패망

⁷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⁸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⁹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b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¹⁰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향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 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¹¹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¹²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¹³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c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c 그, '하데스') ¹⁴ 그리고 사망과 c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c 그, '하데스') ¹⁵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REVELATION 2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²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³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a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b (a 그, '장막' b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가 첨가되어 있음)

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⁵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⁶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⁷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⁸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새 예루살렘

⁹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¹⁰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¹¹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¹²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¹³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¹⁴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¹⁵○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¹⁶그 도성은 네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 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c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c 약 2,200킬로미터) ¹⁷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니, 사람의 치수로 d백사십사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d 약 65미터) ¹⁸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¹⁹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²¹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²²○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²³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²⁴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²⁵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²⁶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²⁷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VELATION 22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²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³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⁴하나님의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⁵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⁶○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⁷'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⁸○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⁹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a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a 그, '형제들') ¹⁰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¹¹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12○"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13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14○생명 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겹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15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17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18○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20○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1○주 예수의 은혜가 b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c아멘.(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성도에게' c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아멘'이 없음)

Footnotes

[\[1\]](#) **1:1**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1:1 ([Back](#))

[\[2\]](#) **1:1** Greek *bondservant*

[\[3\]](#) 1:7 Or *mourn*

[\[1\]](#) 2:9 Greek *blasphemy*

Footnote from Revelation 2:13 ([Back](#))

[\[2\]](#) **2:13** Or *your faith in me*

Footnote from Revelation 2:20 ([Back](#))

[\[3\]](#) **2:20**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4:5 ([Back](#))

[\[1\]](#) 4:5 Or *voices*, or *sounds*

Footnote from Revelation 6:6 ([Back](#))

[\[1\]](#) **6:6** Greek *choenix*, a dry measure equal to about a quart

Footnote from Revelation 6:6 ([Back](#))

[\[2\]](#) **6:6**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laborer

Footnote from Revelation 6:11 ([Back](#))

[\[3\]](#) **6:11** Greek *fellow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6:11 ([Back](#))

[\[4\]](#) **6:11** Or *brothers and sisters*. The plural Greek word *adelphoi* (translated “brothers”) refers to siblings in a family. In New Testament usage, depending on the context, *adelphoi* may refer either to men or to both men and women who a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family, the church

Footnote from Revelation 6:15 ([Back](#))

[\[5\]](#) **6:15** Or *servant*; Greek *bondservant*

[\[1\]](#) 7:3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8:5 ([Back](#))

[\[1\]](#) **8:5** Or *voices*, or *sounds*

Footnote from Revelation 8:11 ([Back](#))

[\[2\]](#) **8:11** *Wormwood* is the name of a plant and of the bitter-tasting extract derived from it

Footnote from Revelation 9:1 ([Back](#))

[\[1\]](#) **9:1** Greek *the abyss*; also verses 2, 11

Footnote from Revelation 9:11 ([Back](#))

[\[2\]](#) **9:11** *Abaddon* means *destruction*; *Apollyon* means *destroyer*

Footnote from Revelation 9:17 ([Back](#))

[\[3\]](#) **9:17** Greek *hyacinth*

[\[1\]](#) 10:7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11:7 ([Back](#))

[\[1\]](#) **11:7** Or *the abyss*

Footnote from Revelation 11:8 ([Back](#))

[\[2\]](#) 11:8 Greek *spiritually*

Footnote from Revelation 11:18 ([Back](#))

[\[3\]](#) **11:18** Greek *bondservants*

Footnote from Revelation 11:19 ([Back](#))

[\[4\]](#) **11:19** Or *voices*, or *sounds*

Footnote from Revelation 12:10 ([Back](#))

[\[1\]](#) **12:10** Or *brothers and sisters*

Footnote from Revelation 12:17 ([Back](#))

[\[2\]](#) **12:17** Some manuscripts *And I stood*, connecting the sentence with 13:1

Footnote from Revelation 13:6 ([Back](#))

[\[1\]](#) 13:6 Or *tabernacle*

Footnote from Revelation 13:7 ([Back](#))

[\[2\]](#) **13:7** Some manuscripts omit this sentence

Footnote from Revelation 13:12 ([Back](#))

[\[3\]](#) **13:12** Or *on its behalf*

Footnote from Revelation 13:14 ([Back](#))

[\[4\]](#) **13:14** Or *on behalf of*

Footnote from Revelation 13:16 ([Back](#))

[\[5\]](#) **13:16**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Revelation 13:18 ([Back](#))

[\[6\]](#) **13:18** Some manuscripts *616*

Footnote from Revelation 14:8 ([Back](#))

[\[1\]](#) 14:8 Or *wrath*

Footnote from Revelation 14:12 ([Back](#))

[\[2\]](#) **14:12** Greek *and the faith of Jesus*

Footnote from Revelation 14:20 ([Back](#))

[\[3\]](#) **14:20** About 184 miles;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Revelation 15:3 ([Back](#))

[\[1\]](#) 15:3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Revelation 15:3 ([Back](#))

[\[2\]](#) **15:3** Some manuscripts *the ages*

Footnote from Revelation 15:5 ([Back](#))

[\[3\]](#) 15:5 Or *tabernacle*

Footnote from Revelation 16:5 ([Back](#))

[\[1\]](#) **16:5** Greek *angel of the waters*

Footnote from Revelation 16:9 ([Back](#))

[\[2\]](#) **16:9** Greek *blasphemed*; also verses 11, 21

Footnote from Revelation 16:18 ([Back](#))

[\[3\]](#) **16:18** Or *voices*, or *sounds*

Footnote from Revelation 16:21 ([Back](#))

[\[4\]](#) **16:21** Greek *a talent in weight*

[\[1\]](#) 17:6 Greek *the witnesses to Jesus*

Footnote from Revelation 17:8 ([Back](#))

[\[2\]](#) 17:8 Greek *the abyss*

Footnote from Revelation 17:15 ([Back](#))

[\[3\]](#) 17:15 Greek *he*

Footnote from Revelation 18:3 ([Back](#))

[\[1\]](#) **18:3** Some manuscripts *fallen by*

Footnote from Revelation 18:13 ([Back](#))

[2] **18:13** Or *and slaves, and human lives*

Footnote from Revelation 19:2 ([Back](#))

[\[1\]](#) **19:2**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5

Footnote from Revelation 19:9 ([Back](#))

[\[2\]](#) 19:9 Greek *he said*

Footnote from Revelation 19:10 ([Back](#))

[\[3\]](#) **19:10** Greek *fellow bondservant*

Footnote from Revelation 19:13 ([Back](#))

[\[4\]](#) **19:13** Some manuscripts *sprinkled with*

Footnote from Revelation 19:18 ([Back](#))

[\[5\]](#) **19:18** Greek *bondservant*

Footnote from Revelation 19:20 ([Back](#))

[\[6\]](#) **19:20** Or *on its behalf*

Footnote from Revelation 20:1 ([Back](#))

[\[1\]](#) **20:1** Greek *the abyss*; also verse 3

Footnote from Revelation 20:9 ([Back](#))

[\[2\]](#) **20:9** Some manuscripts *from God, out of heaven*, or *out of heaven from God*

Footnote from Revelation 21:3 ([Back](#))

[\[1\]](#) **21:3** Or *tabernacle*

Footnote from Revelation 21:3 ([Back](#))

[\[2\]](#) **21:3** Some manuscripts *peoples*

Footnote from Revelation 21:3 ([Back](#))

[\[3\]](#) **21:3** Some manuscripts omit *as their God*

Footnote from Revelation 21:16 ([Back](#))

[\[4\]](#) **21:16** About 1,380 miles; a *stadion* was about 607 feet or 185 meters

Footnote from Revelation 21:17 ([Back](#))

[\[5\]](#) **21:17** A *cubit* was about 18 inches or 45 centimeters

[1] 22:1 Greek *he*

Footnote from Revelation 22:2 ([Back](#))

[\[2\]](#) **22:2** Or *the Lamb*. *In the midst of the street of the city, and on either side of the river, was the tree of life*

Footnote from Revelation 22:3 ([Back](#))

[\[3\]](#) **22:3** Greek *bondservants*; also verse 6

Footnote from Revelation 22:9 ([Back](#))

[\[4\]](#) **22:9** Greek *fellow bondservant*

Footnote from Revelation 22:14 ([Back](#))

[\[5\]](#) **22:14** Some manuscripts *do his commandments*

Footnote from Revelation 22:21 ([Back](#))

[\[6\]](#) **22:21** Some manuscripts *all the saints*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Robert Murray M'Cheyne 목사가 성 베드로교회의 성도들의 성경읽기를 위해 만든 것이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함을 발견하여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1899-1981)와 존 스토틀(1921-현재)를 들 수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가정과 개인별로 1년에 구약은 1회, 시편과 신약은 2회 통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경읽는 방법

- 1. 먼저 매일 성경을 읽겠다는 결심하십시오.
- 2. 매일 각 월별로 해당 날짜의 성경구절을 읽으십시오.
- 3. 매일 성경을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미루면 산더미처럼 불어난 성경구절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 4. 통독은 묵상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깊게 묵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January 01				
날 짜	가정		개인	
1일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2일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3일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4일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5일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사도행전 5장
6일	창세기 6장	마태복음 6장	에스라 6장	사도행전 6장
7일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사도행전 7장
8일	창세기 8장	마태복음 8장	에스라 8장	사도행전 8장
9일	창세기 9~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10일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0장	에스라 10장	사도행전 10장
11일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
12일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
13일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14일	창세기 15장	마태복음 14장	느헤미야 4장	사도행전 14장
15일	창세기 16장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
16일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17일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	사도행전 17장
18일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18장
19일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
20일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사도행전 20장
21일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
22일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22장	느헤미야 12장	사도행전 22장
23일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3장	느헤미야 13장	사도행전 23장
24일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4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
25일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5장	에스더 2장	사도행전 25장
26일	창세기 27장	마태복음 26장	에스더 3장	사도행전 26장
27일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
28일	창세기 29장	마태복음 28장	에스더 5장	사도행전 28장
29일	창세기 30장	마가복음 1장	에스더 6장	로마서 1장
30일	창세기 31장	마가복음 2장	에스더 7장	로마서 2장
31일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

February 02				
날 짜	가정		개인	
1일	창세기 33장	마가복음 4장	에스더 9~10장	로마서 4장
2일	창세기 34장	마가복음 5장	욥기 1장	로마서 5장
3일	창세기 35~36장	마가복음 6장	욥기 2장	로마서 6장
4일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
5일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
6일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
7일	창세기 40장	마가복음 10장	욥기 6장	로마서 10장
8일	창세기 41장	마가복음 11장	욥기 7장	로마서 11장
9일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
10일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
11일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욥기 10장	로마서 14장
12일	창세기 45장	마가복음 15장	욥기 11장	로마서 15장
13일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
14일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1~38	욥기 13장	고린도전서 1장
15일	창세기 48장	누가복음 1:39~80	욥기 14장	고린도전서 2장
16일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
17일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17장	고린도전서 4장

18일	출애굽기 1장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고린도전서 5장
19일	출애굽기 2장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6장
20일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6장	욥기 20장	고린도전서 7장
21일	출애굽기 4장	누가복음 7장	욥기 21장	고린도전서 8장
22일	출애굽기 5장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고린도전서 9장
23일	출애굽기 6장	누가복음 9장	욥기 23장	고린도전서 10장
24일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
25일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26장	고린도전서 12장
26일	출애굽기 9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7장	고린도전서 13장
27일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
28일	출애굽기 11~12:1~21	누가복음 14장	욥기 29장	고린도전서 15장

March 03				
날 짜	가정		개인	
1일	출애굽기 12:22~51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
2일	출애굽기 13장	누가복음 16장	욥기 31장	고린도후서 1장
3일	출애굽기 14장	누가복음 17장	욥기 32장	고린도후서 2장
4일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고린도후서 3장
5일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고린도후서 4장
6일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
7일	출애굽기 18장	누가복음 21장	욥기 36장	고린도후서 6장
8일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욥기 37장	고린도후서 7장
9일	출애굽기 20장	누가복음 23장	욥기 38장	고린도후서 8장
10일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
11일	출애굽기 22장	요한복음 1장	욥기 4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일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장	욥기 4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일	출애굽기 24장	요한복음 3장	욥기 4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일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
15일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
16일	출애굽기 27장	요한복음 6장	잠언 3장	갈라디아서 2장
17일	출애굽기 28장	요한복음 7장	잠언 4장	갈라디아서 3장
18일	출애굽기 29장	요한복음 8장	잠언 5장	갈라디아서 4장
19일	출애굽기 30장	요한복음 9장	잠언 6장	갈라디아서 5장
20일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
21일	출애굽기 32장	요한복음 11장	잠언 8장	에배소서 1장

22일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2장	잠언 9장	에배소서 2장
23일	출애굽기 34장	요한복음 13장	잠언 10장	에배소서 3장
24일	출애굽기 35장	요한복음 14장	잠언 11장	에배소서 4장
25일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에배소서 5장
26일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에배소서 6장
27일	출애굽기 38장	요한복음 17장	잠언 14장	빌립보서 1장
28일	출애굽기 39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15장	빌립보서 2장
29일	출애굽기 40장	요한복음 19장	잠언 16장	빌립보서 3장
30일	레위기 1장	요한복음 20장	잠언 17장	빌립보서 4장
31일	레위기 2~3장	요한복음 21장	잠언 18장	골로세서 1장

April 04				
날 짜	가정		개인	
1일	레위기 4장	시편 1~2편	잠언 19장	골로세서 2장
2일	레위기 5장	시편 3~4편	잠언 20장	골로세서 3장
3일	레위기 6장	시편 5~6편	잠언 21장	골로세서 4장
4일	레위기 7장	시편 7~8편	잠언 22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일	레위기 8장	시편 9편	잠언 23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일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일	레위기 10장	시편 11~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일	레위기 11~12장	시편 13~14편	잠언 2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일	레위기 13장	시편 15~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일	레위기 14장	시편 17편	잠언 28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일	레위기 15장	시편 18편	잠언 29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일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
13일	레위기 17장	시편 20~21편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2장
14일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15일	레위기 19장	시편 23~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
16일	레위기 20장	시편 25편	전도서 3장	디모데전서 5장
17일	레위기 21장	시편 26~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18일	레위기 22장	시편 28~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
19일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20일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
21일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
22일	레위기 26장	시편 33편	전도서 9장	디도서 1장

23일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
24일	민수기 1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
25일	민수기 2장	시편 36편	전도서 12장	빌레몬서
26일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 1장	히브리서 1장
27일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 2장	히브리서 2장
28일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 3장	히브리서 3장
29일	민수기 6장	시편 40~41편	아가 4장	히브리서 4장
30일	민수기 7장	시편 42~43편	아가 5장	히브리서 5장

May 05

날 짜	가정		개인	
1일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 6장	히브리서 6장
2일	민수기 9장	시편 45편	아가 7장	히브리서 7장
3일	민수기 10장	시편 46~47편	아가 8장	히브리서 8장
4일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9장
5일	민수기 12~13장	시편 49편	이사야 2장	히브리서 10장
6일	민수기 14장	시편 50편	이사야 3~4장	히브리서 11장
7일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8일	민수기 16장	시편 52~5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
9일	민수기 17~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10일	민수기 19장	시편 56~57편	이사야 8~9:1~7	야고보서 2장
11일	민수기 20장	시편 58~59편	이사야 9:8~10:4	야고보서 3장
12일	민수기 21장	시편 60~61편	이사야 10:5~34	야고보서 4장
13일	민수기 22장	시편 62~63편	이사야 11~12	야고보서 5장
14일	민수기 23장	시편 64~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
15일	민수기 24장	시편 66~6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
16일	민수기 25장	시편 68편	이사야 15장	베드로전서 3장
17일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
18일	민수기 27장	시편 70~71편	이사야 17~18장	베드로전서 5장
19일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20장	베드로후서 1장
20일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후서 2장
21일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
22일	민수기 31장	시편 75~76편	이사야 23장	요한1서 1장
23일	민수기 32장	시편 77편	이사야 24장	요한1서 2장
24일	민수기 33장	시편 78:1~37	이사야 25장	요한1서 3장

25일	민수기 34장	시편 78:38~72	이사야 26장	요한1서 4장
26일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1서 5장
27일	민수기 36장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요한2서
28일	신명기 1장	시편 81~82	이사야 29장	요한3서
29일	신명기 2장	시편 83~84	이사야 30장	유다서
30일	신명기 3장	시편 85편	이사야 31장	요한계시록 1장
31일	신명기 4장	시편 86~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
June 06				
날 짜	가정		개인	
1일	신명기 5장	시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
2일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
3일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요한계시록 5장
4일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이사야 36장	요한계시록 6장
5일	신명기 9장	시편 92~93편	이사야 37장	요한계시록 7장
6일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
7일	신명기 11장	시편 95~96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
8일	신명기 12장	시편 97~98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9일	신명기 13~14장	시편 99~101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
10일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일	신명기 1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요한계시록 13장
12일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일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
14일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일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
16일	신명기 21장	시편 108~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17일	신명기 22장	시편 110~111편	이사야 49장	요한계시록 19장
18일	신명기 23장	시편 112~113편	이사야 50장	요한계시록 20장
19일	신명기 24장	시편 114~115편	이사야 51장	요한계시록 21장
20일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
21일	신명기 26장	시편 117~118편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1장
22일	신명기 27:1~28:19	시편 119:1~24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
23일	신명기 28:20~68	시편 119:25~48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
24일	신명기 29장	시편 119:49~72	이사야 56장	마태복음 4장
25일	신명기 30장	시편 119:73~96	이사야 57장	마태복음 5장

26일	신명기 31장	시편 119:97~120	이사야 58장	마태복음 6장
27일	신명기 32장	시편 119:121~144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
28일	신명기 33~34장	시편 119:145~176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8장
29일	여호수아 1장	시편 120~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30일	여호수아 2장	시편 123~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

July 07

날 짜	가정		개인	
1일	여호수아 3장	시편 126~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
2일	여호수아 4장	시편 129~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
3일	여호수아 5:1~6:5	시편 132~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
4일	여호수아 6:6~27	시편 135~136편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14장
5일	여호수아 7장	시편 137~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6일	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7일	여호수아 9장	시편 140~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
8일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
9일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
10일	여호수아 12~13장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
11일	여호수아 14~15장	시편 146~147편	예레미야 7장	마태복음 21장
12일	여호수아 16~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
13일	여호수아 18~19장	시편 149~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
14일	여호수아 20~21장	사도행전 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15일	여호수아 22장	사도행전 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16일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17일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
18일	사사기 1장	사도행전 5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19일	사사기 2장	사도행전 6장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
20일	사사기 3장	사도행전 7장	예레미야 16장	마가복음 2장
21일	사사기 4장	사도행전 8장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
22일	사사기 5장	사도행전 9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23일	사사기 6장	사도행전 10장	예레미야 19장	마가복음 5장
24일	사사기 7장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
25일	사사기 8장	사도행전 12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26일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27일	사사기 10:1~11:11	사도행전 14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28일	사사기 11:12~40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29일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30일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31일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예레미야 27장	마가복음 13장
August 08				
날 짜	가 정		개 인	
1일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
2일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3일	사사기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31장	마가복음 16장
4일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2편
5일	사사기 19장	사도행전 23장	예레미야 33장	시편 3~4편
6일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6편
7일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8편
8일	룻기 1장	사도행전 26장	예레미야 36~37장	시편 9편
9일	룻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10편
10일	룻기 3~4장	사도행전 28장	예레미야 39장	시편 11~12편
11일	사무엘상 1장	로마서 1장	예레미야 40장	시편 13~14편
12일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	예레미야 41장	시편 15~16편
13일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시편 17편
14일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	예레미야 43장	시편 18편
15일	사무엘상 5~6장	로마서 5장	예레미야 44장	시편 19편
16일	사무엘상 7~8장	로마서 6장	예레미야 45장	시편 20~21편
17일	사무엘상 9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46장	시편 22편
18일	사무엘상 10장	로마서 8장	예레미야 47장	시편 23~24편
19일	사무엘상 11장	로마서 9장	예레미야 48장	시편 25편
20일	사무엘상 12장	로마서 10장	예레미야 49장	시편 26~27편
21일	사무엘상 13장	로마서 11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28~29편
22일	사무엘상 14장	로마서 12장	예레미야 51장	시편 30편
23일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	예레미야 52장	시편 31편
24일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14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시편 32편
25일	사무엘상 17장	로마서 15장	예레미야 애가 2장	시편 33편
26일	사무엘상 18장	로마서 16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시편 34편
27일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 애가 4장	시편 35편
28일	사무엘상 20장	고린도전서 2장	예레미야 애가 5장	시편 36편

29일	사무엘상 21~22장	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
30일	사무엘상 23장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 2장	시편 38편
31일	사무엘상 24장	고린도전서 5장	에스겔 3장	시편 39편
September 09				
날 짜	가정		개인	
1일	사무엘상 25장	고린도전서 6장	에스겔 4장	시편 40~41편
2일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43편
3일	사무엘상 27장	고린도전서 8장	에스겔 6장	시편 44편
4일	사무엘상 28장	고린도전서 9장	에스겔 7장	시편 45편
5일	사무엘상 29~30장	고린도전서 10장	에스겔 8장	시편 46~47편
6일	사무엘상 31장	고린도전서 11장	에스겔 9장	시편 48편
7일	사무엘하 1장	고린도전서 12장	에스겔 10장	시편 49편
8일	사무엘하 2장	고린도전서 13장	에스겔 11장	시편 50편
9일	사무엘하 3장	고린도전서 14장	에스겔 12장	시편 51편
10일	사무엘하 4~5장	고린도전서 15장	에스겔 13장	시편 52~54편
11일	사무엘하 6장	고린도전서 16장	에스겔 14장	시편 55편
12일	사무엘하 7장	고린도후서 1장	에스겔 15장	시편 56~57편
13일	사무엘하 8~9장	고린도후서 2장	에스겔 16장	시편 58~59편
14일	사무엘하 10장	고린도후서 3장	에스겔 17장	시편 60~61편
15일	사무엘하 11장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18장	시편 62~63편
16일	사무엘하 12장	고린도후서 5장	에스겔 19장	시편 64~65편
17일	사무엘하 13장	고린도후서 6장	에스겔 20장	시편 66~67편
18일	사무엘하 14장	고린도후서 7장	에스겔 21장	시편 68편
19일	사무엘하 15장	고린도후서 8장	에스겔 22장	시편 69편
20일	사무엘하 16장	고린도후서 9장	에스겔 23장	시편 70~71편
21일	사무엘하 17장	고린도후서 10장	에스겔 24장	시편 72편
22일	사무엘하 18장	고린도후서 11장	에스겔 25장	시편 73편
23일	사무엘하 19장	고린도후서 12장	에스겔 26장	시편 74편
24일	사무엘하 20장	고린도후서 13장	에스겔 27장	시편 75~76편
25일	사무엘하 21장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28장	시편 77편
26일	사무엘하 22장	갈라디아서 2장	에스겔 29장	시편 78:1~37
27일	사무엘하 23장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시편 78:38~72
28일	사무엘하 24장	갈라디아서 4장	에스겔 31장	시편 79편
29일	열왕기상 1장	갈라디아서 5장	에스겔 32장	시편 80편

30일	열왕기상 2장	갈라디아서 6장	에스겔 33장	시편 81~82편
October 10				
날 짜	가정		개인	
1일	열왕기상 3장	에배소서 1장	에스겔 34장	시편 83~84편
2일	열왕기상 4~5장	에배소서 2장	에스겔 35장	시편 85편
3일	열왕기상 6장	에배소서 3장	에스겔 36장	시편 86~87편
4일	열왕기상 7장	에배소서 4장	에스겔 37장	시편 88편
5일	열왕기상 8장	에배소서 5장	에스겔 38장	시편 89편
6일	열왕기상 9장	에배소서 6장	에스겔 39장	시편 90편
7일	열왕기상 10장	빌립보서 1장	에스겔 40장	시편 91편
8일	열왕기상 11장	빌립보서 2장	에스겔 41장	시편 92~93편
9일	열왕기상 12장	빌립보서 3장	에스겔 42장	시편 94편
10일	열왕기상 13장	빌립보서 4장	에스겔 43장	시편 95~96편
11일	열왕기상 14장	골로새서 1장	에스겔 44장	시편 97~98편
12일	열왕기상 15장	골로새서 2장	에스겔 45장	시편 99~101편
13일	열왕기상 16장	골로새서 3장	에스겔 46장	시편 102편
14일	열왕기상 17장	골로새서 4장	에스겔 47장	시편 103편
15일	열왕기상 18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에스겔 48장	시편 104편
16일	열왕기상 19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니엘 1장	시편 105편
17일	열왕기상 20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다니엘 2장	시편 106편
18일	열왕기상 2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니엘 3장	시편 107편
19일	열왕기상 22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니엘 4장	시편 108~109편
20일	열왕기하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다니엘 5장	시편 110~111편
21일	열왕기하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니엘 6장	시편 112~113편
22일	열왕기하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다니엘 7장	시편 114~115편
23일	열왕기하 4장	디모데전서 1장	다니엘 8장	시편 116편
24일	열왕기하 5장	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 9장	시편 117~118편
25일	열왕기하 6장	디모데전서 3장	다니엘 10장	시편 119:1~24
26일	열왕기하 7장	디모데전서 4장	다니엘 11장	시편 119:25~48
27일	열왕기하 8장	디모데전서 5장	다니엘 12장	시편 119:49~72
28일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호세아 1장	시편 119:73~96
29일	열왕기하 10장	디모데후서 1장	호세아 2장	시편 119:97~120
30일	열왕기하 11~12장	디모데후서 2장	호세아 3~4장	시편 119:121~144
31일	열왕기하 13장	디모데후서 3장	호세아 5~6장	시편 119:145~176

November 11

날 짜	가정		개인	
1일	열왕기하 14장	디모데후서 4장	호세아 7장	시편 120~122편
2일	열왕기하 15장	디도서 1장	호세아 8장	시편 123~125편
3일	열왕기하 16장	디도서 2장	호세아 9장	시편 126~128편
4일	열왕기하 17장	디도서 3장	호세아 10장	시편 129~131편
5일	열왕기하 18장	빌레몬서 1장	호세아 11장	시편 132~134편
6일	열왕기하 19장	히브리서 1장	호세아 12장	시편 135~136편
7일	열왕기하 20장	히브리서 2장	호세아 13장	시편 137~138편
8일	열왕기하 21장	히브리서 3장	호세아 14장	시편 139편
9일	열왕기하 22장	히브리서 4장	요엘 1장	시편 140~141편
10일	열왕기하 23장	히브리서 5장	요엘 2장	시편 142~143편
11일	열왕기하 24장	히브리서 6장	요엘 3장	시편 144편
12일	열왕기하 25장	히브리서 7장	아모스 1장	시편 145편
13일	역대상 1~2장	히브리서 8장	아모스 2장	시편 146~147편
14일	역대상 3~4	히브리서 9장	아모스 3장	시편 148편
15일	역대상 5~6장	히브리서 10장	아모스 4장	시편 149~150편
16일	역대상 7~8장	히브리서 11장	아모스 5장	누가복음 1:1~38
17일	역대상 9~10장	히브리서 12장	아모스 6장	누가복음 1:39~80
18일	역대상 11~12장	히브리서 13장	아모스 7장	누가복음 2장
19일	역대상 13~14장	야고보서 1장	아모스 8장	누가복음 3장
20일	역대상 15장	야고보서 2장	아모스 9장	누가복음 4장
21일	역대상 16장	야고보서 3장	오바댜 1장	누가복음 5장
22일	역대상 17장	야고보서 4장	요나 1장	누가복음 6장
23일	역대상 18장	야고보서 5장	요나 2장	누가복음 7장
24일	역대상 19~20장	베드로전서 1장	요나 3장	누가복음 8장
25일	역대상 21장	베드로전서 2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26일	역대상 22장	베드로전서 3장	미가 1장	누가복음 10장
27일	역대상 23장	베드로전서 4장	미가 2장	누가복음 11장
28일	역대상 24~25장	베드로전서 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29일	역대상 26~27장	베드로후서 1장	미가 4장	누가복음 13장
30일	역대상 28장	베드로후서 2장	미가 5장	누가복음 14장

December 12

날 짜	가정		개인	
-----	----	--	----	--

1일	역대상 29장	베드로후서 3장	미가 6장	누가복음 15장
2일	역대하 1장	요한1서 1장	미가 7장	누가복음 16장
3일	역대하 2장	요한1서 2장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4일	역대하 3~4장	요한1서 3장	나훔 2장	누가복음 18장
5일	역대하 5~6:1~11	요한1서 4장	나훔 3장	누가복음 19장
6일	역대하 6:12~42	요한1서 5장	하박국 1장	누가복음 20장
7일	역대하 7장	요한2서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
8일	역대하 8장	요한3서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9일	역대하 9장	유다서	스바냐 1장	누가복음 23장
10일	역대하 10장	요한계시록 1장	스바냐 2장	누가복음 24장
11일	역대하 11~12장	요한계시록 2장	스바냐 3장	요한복음 1장
12일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개 1장	요한복음 2장
13일	역대하 14~15장	요한계시록 4장	학개 2장	요한복음 3장
14일	역대하 16장	요한계시록 5장	스가랴 1장	요한복음 4장
15일	역대하 17장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 2장	요한복음 5장
16일	역대하 18장	요한계시록 7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17일	역대하 19~20장	요한계시록 8장	스가랴 4장	요한복음 7장
18일	역대하 21장	요한계시록 9장	스가랴 5장	요한복음 8장
19일	역대하 22~23장	요한계시록 10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20일	역대하 24장	요한계시록 11장	스가랴 7장	요한복음 10장
21일	역대하 25장	요한계시록 12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22일	역대하 26장	요한계시록 13장	스가랴 9장	요한복음 12장
23일	역대하 27~28장	요한계시록 14장	스가랴 10장	요한복음 13장
24일	역대하 29장	요한계시록 15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4장
25일	역대하 30장	요한계시록 16장	스가랴 12~13:1	요한복음 15장
26일	역대하 31장	요한계시록 17장	스가랴 13:2~8	요한복음 16장
27일	역대하 32장	요한계시록 18장	스가랴 14장	요한복음 17장
28일	역대하 33장	요한계시록 19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29일	역대하 34장	요한계시록 20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30일	역대하 35장	요한계시록 21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31일	역대하 36장	요한계시록 22장	말라기 4장	요한복음 21장

Revised Common Lectionary - Year A

대림절기

#01	대림절 첫 번째 주일 (11월 27일-12월 3일)	이사야 2:1-5	시편 122	로마서 13:11-14	마태복음 24:36-44
#02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월 4일-12월 10일)	이사야 11:1-10	시편 72:1-7, 18-19	로마서 15:4-13	마태복음 3:1-12
#03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 11일-12월 17일)	이사야 35:1-10	시편 146:5-10 <i>or</i> 누가복음 1:46b-55	야고보서 5:7-10	마태복음 11:2-11
#04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월 18일-12월 24일)	이사야 7:10-16	시편 80:1-7, 17-19	로마서 1:1-7	마태복음 1:18-25

성탄절기

#05	Christmas, Proper I (A, B, C) 25일	이사야 9:2-7	시편 96	디도서 2:11-14	누가복음 2:1-14, (15-20)
#06	Christmas, Proper II (A, B, C) 25일	이사야 62:6-12	시편 97	디도서 3:4-7	누가복음 2:(1-7), 8-20
#07	Christmas, Proper III (A, B, C) 25일	이사야 52:7-10	시편 98	히브리서 1:1-4, (5-12)	요한복음 1:1-14
#08	성탄절 첫 번째 주일 1월 1일	이사야 63:7-9	시편 148	히브리서 2:10-18	마태복음 2:13-23
#09	Holy Name of Jesus (Mary, Mother of God) (A, B, C) 1월 1일	민수기 6:22-27	시편 8	갈라디아서 4:4-7 <i>or</i> 빌립보서 2:5-11	누가복음 2:15-21
#10	New Year's Day (A, B, C) 1월 1일	잠언 3:1-13	시편 8	요한계시록 21:1-6a	마태복음 25:31-46
#11	성탄절 두 번째 주일 (A, B, C) 1월 2일-1월 5일	예레미야 31:7-14	시편 147:12-20	에베소서 1:3-14	요한복음 1:(1-9), 10-18

주현절기

#12	주현절 (A, B, C) (1월 6일)	이사야 60:1-6	시편 72:1-7, 10-14	에베소서 3:1-12	마태복음 2:1-12
#13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 주님의 수세 주일 (1월 7일 - 1월 13일 사이의)	이사야 42:1-9	시편 29	사도행전 10:34-43	마태복음 3:13-17

	주일)				
#14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1월 14일 - 1월 2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49:1-7	시편 40:1-11	고린도전서 1:1-9	요한복음 1:29-42
#15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1월 21일 - 1월 27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9:1-4	시편 27:1, 4-9	고린도전서 1:10-18	마태복음 4:12-23
#16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1월 28일 - 2월 3일 사이의 주일)	미가 6:1-8	시편 15	고린도전서 1:18-31	마태복음 5:1-12
#17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2월 4일 - 2월 1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58:1-9a (9b-12)	시편 112:1-9 (10)	고린도전서 2:1-12 (13-16)	마태복음 5:13-20
#18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2월 11일 - 2월 17일 사이의 주일)	신명기 30:15-20	시편 119:1-8	고린도전서 3:1-9	마태복음 5:21-37
#19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 (2월 18일 - 2월 24일 사이의 주일)	레위기 19:1-2, 9-18	시편 119:33-40	고린도전서 3:10-11, 16-23	마태복음 5:38-48
#20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 (2월 25일 - 2월 29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49:8-16a	시편 131	고린도전서 4:1-5	마태복음 6:24-34
#21	주현절 후 아홉 번째 주일 (3월 1일 - 3월 7일 사이의 주일)	신명기 11:18-21, 26-28	시편 31:1-5, 19-24	로마서 1:16-17, 3:22b-28, (29-31)	마태복음 7:21-29
#22	산상 변모 주일	출애굽기 24:12-18	시편 2 <i>or</i> 시편 99	베드로후서 1:16-21	마태복음 17:1-9
사순절기					
#23	참회의 수요일 (A, B, C)	요엘 2:1-2, 12-17 <i>or</i> 이사야 58:1-12	시편 51:1-17	고린도후서 5:20b-6:10	마태복음 6:1-6, 16-21
#24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창세기 2:15-17; 3:1-7	시편 32	로마서 5:12-19	마태복음 4:1-11
#25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창세기 12:1-4a	시편 121	로마서 4:1-5, 13-17	요한복음 3:1-17

					<i>or</i> 마태복음 17:1-9
#26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17:1-7	시편 95	로마서 5:1-11	요한복음 4:5-42
#27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사무엘상 16:1-13	시편 23	에베소서 5:8-14	요한복음 9:1-41
#28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에스겔 37:1-14	시편 130	로마서 8:6-11	요한복음 11:1-45
#29	종려 주일		시편 118:1-2, 19-29		마태복음 21:1-11
#30	수난 주일	이사야 50:4-9a	시편 31:9-16	빌립보서 2:5-11	마태복음 26:14-27:66 <i>or</i> 마태복음 27:11-54

성주간

#31	성 월요일 (A, B, C)	이사야 42:1-9	시편 36:5-11	히브리서 9:11-15	요한복음 12:1-11
#32	성 화요일 (A, B, C)	이사야 49:1-7	시편 71:1-14	고린도전서 1:18-31	요한복음 12:20-36
#33	성 수요일 (A, B, C)	이사야 50:4-9a	시편 70	히브리서 12:1-3	요한복음 13:21-32
#34	성 목요일 (A, B, C)	출애굽기 12:1-4, (5-10), 11-14	시편 116:1-2, 12-19	고린도전서 11:23-26	요한복음 13:1-17, 31b-35
#35	성 금요일 (A, B, C)	이사야 52:13-53:12	시편 22	히브리서 10:16-25 <i>or</i> 히브리서 4:14-16; 5:7-9	요한복음 18:1-19:42
#36	성 토요일 (A, B, C)	욥기 14:1-14 <i>or</i> 예레미야 애가 3:1-9, 19-24	시편 31:1-4, 15-16	베드로전서 4:1-8	마태복음 27:57-66 <i>or</i> 요한복음 19:38-42

부활절기

#37	부활 전야	구약 성경 독서와 시편 (A, B, C) 창세기 1:1-2:4a and 시편 136:1-9, 23-26 창세기 7:1-5, 11-18; 8:6-18; 9:8-13 and 시편 46 창세기 22:1-18 and 시편 16			
-----	-------	---	--	--	--

		출애굽기 14:10-31; 15:20-21 and 출애굽기 15:1b-13, 17-18 이사야 55:1-11 and 이사야 12:2-6 잠언 8:1-8, 19-21; 9:4b-6 and 시편 19 에스겔 36:24-28 and 시편 42, 43 에스겔 37:1-14 and 시편 143 스가랴 3:14-20 and 시편 98 신약 성경 독서와 시편 (A, B, C) 로마서 6:3-11 and 시편 114 복음서 마태복음 28:1-10			
#38	부활 주일	사도행전 10:34-43 <i>or</i> 예레미야 31:1-6	시편 118:1-2, 14-24	골로새서 3:1-4 <i>or</i> 사도행전 10:34-43	요한복음 20:1-18 <i>or</i> 마태복음 28:1-10
#39	부활 주일 저녁 (A, B, C)	이사야 25:6-9	시편 114	고린도전서 5:6b-8	누가복음 24:13-49
#40	활절 두 번째 주일	사도행전 2:14a, 22-32	시편 16	베드로전서 1:3-9	요한복음 20:19-31
#41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사도행전 2:14a, 36-41	시편 116:1-4, 12-19	베드로전서 1:17-23	누가복음 24:13-35
#42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사도행전 2:42-47	시편 23	베드로전서 2:19-25	요한복음 10:1-10
#43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7:55-60	시편 31:1-5, 15-16	베드로전서 2:2-10	요한복음 14:1-14
#44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17:22-31	시편 66:8-20	베드로전서 3:13-22	요한복음 14:15-21
#45	승천일 (A, B, C)	사도행전 1:1-11	시편 47 <i>or</i> 시편 93	에베소서 1:15-23	누가복음 24:44-53
#46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사도행전 1:6-14	시편 68:1-10, 32-35	베드로전서 4:12-14; 5:6-11	요한복음 17:1-11
#47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사도행전 2:1-21 <i>or</i> 민수기 11:24-30	시편 104:24-34, 35b	고린도전서 12:3b-13 <i>or</i> 사도행전 2:1-21	요한복음 20:19-23 <i>or</i> 요한복음 7:37-39
오순절 후 주일					
#48	삼위일체 주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창세기 1:1-2:4a 시편 8		고린도후서 13:11-13	마태복음 28:16-20
#49	Proper 3 (8)	이사야 49:8-16a		고린도전서 4:1-5	마태복음

	(5월 24일-5월 28일 사이의 주일)	시편 131			6:24-34
#50	Proper 4 (9) (5월 29일-6월 4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6:9-22; 7:24; 8:14-19 시편 46	신명기 11:18-21, 26-28 시편 31:1-5, 19-24	로마서 1:16-17; 3:22b-28, (29-31)	마태복음 7:21-29
#51	Proper 5 (10) (6월 5일-6월 11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12:1-9 시편 33:1-12	호세아 5:15-6:6 시편 50:7-15	로마서 4:13-25	마태복음 9:9-13, 18-26
#52	Proper 6 (11) (6월 12일-6월 18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18:1-15, (21:1-7) 시편 116:1-2, 12-19	출애굽기 19:2-8a 시편 100	로마서 5:1-8	마태복음 9:35-10:8, (9-23)
#53	Proper 7 (12) (6월 19일-6월 25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1:8-21 시편 86:1-10, 16-17	예레미야 20:7-13 시편 69:7-10, (11-15), 16-18	로마서 6:1b-11	마태복음 10:24-39
#54	Proper 8 (13) (6월 26일 - 7월 2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2:1-14 시편 13	예레미야 28:5-9 시편 89:1-4, 15-18	로마서 6:12-23	마태복음 10:40-42
#55	Proper 9 (14) (7월 3일 - 7월 9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4:34-38, 42-49, 58-67 시편 45:10-17 <i>or</i> 아가 2:8-13	스가랴 9:9-12 시편 145:8-14	로마서 7:15-25a	마태복음 11:16-19, 25-30
#56	Proper 10 (15) (7월 10일 - 7월 16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5:19-34 시편 119:105-112	이사야 55:10-13 시편 65:(1-8), 9-13	로마서 8:1-11	마태복음 13:1-9, 18-23
#57	Proper 11 (16) (7월 17일 - 7월 23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8:10-19a 시편 139:1-12, 23-24	이사야 44:6-8 시편 86:11-17	로마서 8:12-25	마태복음 13:24-30, 36-43
#58	Proper 12 (17) (7월 24일 - 7월 30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29:15-28 시편 105:1-11, 45b <i>or</i> 시편 128	열왕기상 3:5-12 시편 119:129-136	로마서 8:26-39	마태복음 13:31-33, 44-52
#59	Proper 13 (18)	창세기 32:22-	이사야 55:1-5	로마서 9:1-5	마태복음

	(7월 31일 - 8월 6일 사이의 주일)	31 시편 17:1-7, 15	시편 145:8-9, 14-21		14:13-21
#60	Proper 14 (19) (8월 7일 - 8월 13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37:1-4, 12-28 시편 105: 1-6, 16-22, 45b	열왕기상 19:9-18 시편 85:8-13	로마서 10:5-15	마태복음 14:22-33
#61	Proper 15 (20) (8월 14일 - 8월 20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45:1-15 시편 133	이사야 56:1, 6-8 시편 67	로마서 11:1-2a, 29-32	마태복음 15: (10-20), 21-28
#62	Proper 16 (21) (8월 21일 - 8월 27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1:8- 2:10 시편 124	이사야 51:1-6 시편 138	로마서 12:1-8	마태복음 16:13-20
#63	Proper 17 (22) (8월 28일 - 9월 3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3:1- 15 시편 105:1-6, 23-26, 45b	예레미야 15:15-21 시편 26:1-8	로마서 12:9-21	마태복음 16:21-28
#64	Proper 18 (23) (9월 4일 - 9월 10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12:1- 14 시편 149	에스겔 33:7- 11 시편 119:33- 40	로마서 13:8-14	마태복음 18:15-20
#65	Proper 19 (24) (9월 11일 - 9월 17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14:19-31 시편 114 <i>or</i> 출애굽기 <i>15:1b-11, 20-21</i>	창세기 50:15- 21 시편 103:(1- 7), 8-13	로마서 14:1-12	마태복음 18:21-35
#66	Proper 20 (25) (9월 18일 - 9월 24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16:2- 15 시편 105:1-6, 37-45	요나 3:10-4:11 시편 145:1-8	빌립보서 1:21-30	마태복음 20:1-16
#67	Proper 21 (26) (9월 25일 - 10월 1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17:1- 7 시편 78:1-4, 12- 16	에스겔 18:1-4, 25-32 시편 25:1-9	빌립보서 2:1-13	마태복음 21:23-32
#68	Proper 22 (27) (10월 2일 - 10월 8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20:1- 4, 7-9, 12-20 시편 19	이사야 5:1-7 시편 80:7-15	빌립보서 3:4b-14	마태복음 21:33-46
#69	Proper 23 (28) (10월 9일 - 10월 15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32:1- 14 시편 106:1-6, 19-23	이사야 25:1-9 시편 23	빌립보서 4:1-9	마태복음 22:1-14

#70	Proper 24 (29) (10월 16일 - 10월 22일 사이의 주일)	출애굽기 33:12-23 시편 99	이사야 45:1-7 시편 96:1-9, (10-13)	데살로니가전서 1:1-10	마태복음 22:15-22
#71	Proper 25 (30) (10월 23일 - 10월 29일 사이의 주일)	신명기 34:1-12 시편 90:1-6, 13-17	레위기 19:1-2, 15-18 시편 1	데살로니가전서 2:1-8	마태복음 22:34-46
#72	Proper 26 (31) (10월 30일 - 11월 5일 사이의 주일)	여호수아 3:7-17 시편 107:1-7, 33-37	미가 3:5-12 시편 43	데살로니가전서 2:9-13	마태복음 23:1-12
#73	Proper 27 (32) (11월 6일 - 11월 12일 사이의 주일)	여호수아 24:1-3a, 14-25 시편 78:1-7	아모스 5:18-24 시편 70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마태복음 25:1-13
#74	Proper 28 (33) (11월 13일 - 11월 19일 사이의 주일)	사사기 4:1-7 시편 123	스가랴 1:7, 12-18 시편 90:1-8, (9-11), 12	데살로니가전서 5:1-11	마태복음 25:14-30
#75	Proper 29 (34) (11월 20일 - 11월 26일 사이의 주일)	에스겔 34:11-16, 20-24 시편 100	에스겔 34:11-16, 20-24 시편 95:1-7a	에베소서 1:15-23	마태복음 25:31-46
Special Days					
#76	Presentation of the Lord (A, B, C) 2월 2일	말라기 3:1-4	시편 84 or 시편 24:7-10	히브리서 2:14-18	누가복음 2:22-40
#77	Annunciation of the Lord (A, B, C) 3월 25일	이사야 7:10-14	시편 45 or 시편 40:5-10	히브리서 10:4-10	누가복음 1:26-38
#78	Visitation of Mary to Elizabeth (A, B, C) 5월 31일	사무엘상 2:1-10;	시편 113	로마서 12:9-16b	누가복음 1:39-57
#79	Holy Cross (A, B, C) 9월 14일	민수기 21:4b-9;	시편 98:1-5 or 시편 78:1-2, 34-38	고린도전서 1:18-24	요한복음 3:13-17
#80	All Saints 11월 1일	요한계시록 7:9-17	시편 34:1-10, 22	요한1서 3:1-3	마태복음 5:1-12
#81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주 목요일	신명기 8:7-18	시편 65	고린도후서 9:6-15	누가복음 17:11-19

Revised Common Lectionary - Year B

대림절기

#01	대림절 첫 번째 주일 (11월 27일-12월 3일)	이사야 64:1-9	시편 80:1-7, 17-19	고린도전서 1:3-9	마가복음 13:24-37
#02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월 4일-12월 10일)	이사야 40:1-11	시편 85:1-2, 8-13	베드로후서 3:8-15a	마가복음 1:1-8
#03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 11일-12월 17일)	이사야 61:1-4, 8-11	시편 126 <i>or</i> 누가복음 1:46b-55	데살로니가전서 5:16-24	요한복음 1:6-8, 19-28
#04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월 18일-12월 24일)	사무엘하 7:1-11, 16	누가복음 1:46b-55 <i>or</i> 시편 89:1-4, 19-26	로마서 16:25-27	누가복음 1:26-38

성탄절기

#05	Christmas, Proper 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9:2-7	시편 96	디도서 2:11-14	누가복음 2:1-14, (15-20)
#06	Christmas, Proper I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62:6-12	시편 97	디도서 3:4-7	누가복음 2: (1-7), 8-20
#07	Christmas, Proper II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52:7-10	시편 98	히브리서 1:1-4, (5-12)	요한복음 1:1-14
#08	성탄절 첫 번째 주일 12월 26일-1월 1일	이사야 61:10-62:3	시편 148	갈라디아서 4:4-7	누가복음 2:22-40
#09	Holy Name of Jesus (Mary, Mother of God) (A, B, C) 1월 1일	민수기 6:22-27	시편 8	갈라디아서 4:4-7 <i>or</i> 빌립보서 2:5-11	누가복음 2:15-21
#10	New Year's Day (A, B, C) 1월 1일	잠언 3:1-13	시편 8	요한계시록 21:1-6a	마태복음 25:31-46
#11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예레미야 31:7-14	시편 147:12-	에베소서 1:3-	요한복음 1:

	(A, B, C) 1월 2일-1월 5일		20	14	(1-9), 10-18
주현절기					
#12	주현절 (A, B, C) (1월 6일)	이사야 60:1-6	시편 72:1-7, 10-14	에베소서 3:1-12	마태복음 2:1-12
#13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 주님의 수세 주일 (1월 7일 - 1월 13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1:1-5	시편 29	사도행전 19:1-7	마가복음 1:4-11
#14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1월 14일 - 1월 20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3:1-10, (11-20)	시편 139:1-6, 13-18	고린도전서 6:12-20	요한복음 1:43-51
#15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1월 21일 - 1월 27일 사이의 주일)	요나 3:1-5, 10	시편 62:5-12	고린도전서 7:29-31	마가복음 1:14-20
#16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1월 28일 - 2월 3일 사이의 주일)	신명기 18:15-20	시편 111	고린도전서 8:1-13	마가복음 1:21-28
#17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2월 4일 - 2월 1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40:21-31	시편 147:1-11, 20c	고린도전서 9:16-23	마가복음 1:29-39
#18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2월 11일 - 2월 17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하 5:1-14	시편 30	고린도전서 9:24-27	마가복음 1:40-45
#19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 (2월 18일 - 2월 24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43:18-25	시편 41	고린도후서 1:18-22	마가복음 2:1-12
#20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 (2월 25일 - 2월 29일 사이의 주일)	호세아2:14-20	시편 103:1-13, 22	고린도후서 3:1-6	마가복음 2:13-22
#21	주현절 후 아홉 번째 주일 (3월 1일 - 3월 7일 사이의 주일)	신명기 5:12-15	시편 81:1-10	고린도후서 4:5-12	마가복음 2:23-3:6
#22	산상 변모 주일	열왕기하 2:1-12	시편 50:1-6	고린도후서 4:3-6	마가복음 9:2-9
사순절기					
#23	참회의 수요일 (A, B, C)	요엘 2:1-2, 12-17 <i>or</i> 이사야 58:1-12	시편 51:1-17	고린도후서 5:20b-6:10	마태복음 6:1-6, 16-21

#24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창세기 9:8-17	시편 25:1-10	베드로전서 3:18-22	마가복음 1:9-15
#25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창세기 17:1-7, 15-16	시편 22:23-31	로마서 4:13-25	마가복음 8:31-38 <i>or</i> 마가복음 9:2-9
#26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20:1-17	시편 19	고린도전서 1:18-25	요한복음 2:13-22
#27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민수기 21:4-9	시편 107:1-3, 17-22	에베소서 2:1-10	요한복음 3:14-21
#28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레미야 31:31-34	시편 51:1-12 <i>or</i> 시편 119:9-16	히브리서 5:5-10	요한복음 12:20-33
#29	종려 주일		시편 118:1-2, 19-29		마가복음 11:1-11 <i>or</i> 요한복음 12:12-16
#30	수난 주일	이사야 50:4-9a	시편 31:9-16	빌립보서 2:5-11	마가복음 14:1-15:47 <i>or</i> 마가복음 15:1-39, (40-47)

성주간

#31	성 월요일 (A, B, C)	이사야 42:1-9	시편 36:5-11	히브리서 9:11-15	요한복음 12:1-11
#32	성 화요일 (A, B, C)	이사야 49:1-7	시편 71:1-14	고린도전서 1:18-31	요한복음 12:20-36
#33	성 수요일 (A, B, C)	이사야 50:4-9a	시편 70	히브리서 12:1-3	요한복음 13:21-32
#34	성 목요일 (A, B, C)	출애굽기 12:1-4, (5-10), 11-14	시편 116:1-2, 12-19	고린도전서 11:23-26	요한복음 13:1-17, 31b-35
#35	성 금요일 (A, B, C)	이사야 52:13-53:12	시편 22	히브리서 10:16-25 <i>or</i> 히브리서 4:14-16; 5:7-9	요한복음 18:1-19:42

#36	성 토요일 (A, B, C)	욥기 14:1-14 <i>or</i> 예레미야 애가 3:1-9, 19-24	시편 31:1-4, 15-16	베드로전서 4:1-8	마태복음 27:57-66 <i>or</i> 요한복음 19:38-42
-----	---------------------------------	---	------------------	-------------	---

부활절기					
----------------------	--	--	--	--	--

#37	부활 전야	구약 성경 독서와 시편 창세기 1:1-2:4a and 시편 136:1-9, 23-26 창세기 7:1-5, 11-18; 8:6-18; 9:8-13 and 시편 46 창세기 22:1-18 and 시편 16 출애굽기 14:10-31; 15:20-21 and 출애굽기 15:1b-13, 17-18 이사야 55:1-11 and 이사야 12:2-6 잠언 8:1-8, 19-21; 9:4b-6 and 시편 19 에스겔 36:24-28 and 시편 42, 43 에스겔 37:1-14 and 시편 143 스가랴 3:14-20 and 시편 98 신약성경 독서와 시편 로마서 6:3-11 and 시편 114 복음서 마가복음 16:1-8			
#38	부활 주일	사도행전 10:34-43 <i>or</i> 이사야 25:6-9	시편 118:1-2, 14-24	고린도전서 15:1-11 <i>or</i> 사도행전 10:34-43	요한복음 20:1-18 <i>or</i> 마가복음 16:1-8
#39	부활 주일 저녁 (A, B, C)	이사야 25:6-9	시편 114	고린도전서 5:6b-8	누가복음 24:13-49
#40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사도행전 4:32-35	시편 133	요한1서 1:1-2:2	요한복음 20:19-31
#41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사도행전 3:12-19	시편 4	요한1서 3:1-7	누가복음 24:36b-48
#42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사도행전 4:5-12	시편 23	요한1서 3:16-24	요한복음 10:11-18
#43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8:26-40	시편 22:25-31	요한1서 4:7-21	요한복음 15:1-8
#44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10:44-48	시편 98	요한1서 5:1-6	요한복음 15:9-17
#45	승천일 (A, B, C)	사도행전 1:1-11	시편 47 <i>or</i> 시편 93	에베소서 1:15-23	누가복음 24:44-53

#46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사도행전 1:15-17, 21-26	시편 1	요한1서 5:9-13	요한복음 17:6-19
#47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사도행전 2:1-21 <i>or</i> 에스겔 37:1-14	시편 104:24-34, 35b	로마서 8:22-27 <i>or</i> 사도행전 2:1-21	요한복음 15:26-27; 16:4b-15
오순절 후 주일					
#48	삼위일체 주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이사야 6:1-8 시편 29		로마서 8:12-17	요한복음 3:1-17
#49	Proper 3 (8) (5월 24일-5월 28일 사이의 주일)	호세아2:14-20 시편 103:1-13, 22		고린도후서 3:1-6	마가복음 2:13-22
#50	Proper 4 (9) (5월 29일-6월 4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3:1-10, (11-20) 시편 139:1-6, 13-18	신명기 5:12-15 시편 81:1-10	고린도후서 4:5-12	마가복음 2:23-3:6
#51	Proper 5 (10) (6월 5일-6월 11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8:4-11, (12-15), 16-20, (11:14-15) 시편 138	창세기 3:8-15 시편 130	고린도후서 4:13-5:1	마가복음 3:20-35
#52	Proper 6 (11) (6월 12일-6월 18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15:34 - 16:13 시편 20	에스겔 17:22-24 시편 92:1-4, 12-15	고린도후서 5:6-10, (11-13), 14-17	마가복음 4:26-34
#53	Proper 7 (12) (6월 19일-6월 25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17:(1a, 4-11, 19-23), 32-49 시편 9:9-20 <i>or</i> 사무엘상 17:57-18:5, 18:10-16 시편 133	욥기 38:1-11 시편 107:1-3, 23-32	고린도후서 6:1-13	마가복음 4:35-41
#54	Proper 8 (13) (6월 26일 - 7월 2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1:1, 17-27 시편 130	예레미야 애가 3:22-33 시편 30	고린도후서 8:7-15	마가복음 5:21-43
#55	Proper 9 (14) (7월 3일 - 7월 9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5:1-5, 9-10 시편 48	에스겔 2:1-5 시편 123	고린도후서 12:2-10	마가복음 6:1-13
#56	Proper 10 (15) (7월 10일 - 7월 16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6:1-5, 12b-19 시편 24	아모스 7:7-15 시편 85:8-13	에베소서 1:3-14	마가복음 6:14-29
#57	Proper 11 (16) (7월 17일 - 7월 23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7:1-14a 시편 89:20-37	예레미야 23:1-6 시편 23	에베소서 2:11-22	마가복음 6:30-34, 53-56

#58	Proper 12 (17) (7월 24일 - 7월 30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11:1-15 시편 14	열왕기하 4:42-44 시편 145:10-18	에베소서 3:14-21	요한복음 6:1-21
#59	Proper 13 (18) (7월 31일 - 8월 6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11:26 - 12:13a 시편 51:1-12	출애굽기 16:2-4, 9-15 시편 78:23-29	에베소서 4:1-16	요한복음 6:24-35
#60	Proper 14 (19) (8월 7일 - 8월 13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18:5-9, 15, 31-33 시편 130	열왕기상 19:4-8 시편 34:1-8	에베소서 4:25-5:2	요한복음 6:35, 41-51
#61	Proper 15 (20) (8월 14일 - 8월 20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2:10-12; 3:3-14 시편 111	잠언 9:1-6 시편 34:9-14	에베소서 5:15-20	요한복음 6:51-58
#62	Proper 16 (21) (8월 21일 - 8월 27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8:(1,6,10-11), 22-30, 41-43 시편 84	여호수아 24:1-2a, 14-18 시편 34:15-22	에베소서 6:10-20	요한복음 6:56-69
#63	Proper 17 (22) (8월 28일 - 9월 3일 사이의 주일)	아가 2:8-13 시편 45:1-2, 6-9	신명기 4:1-2, 6-9 시편 15	야고보서 1:17-27	마가복음 7:1-8, 14-15, 21-23
#64	Proper 18 (23) (9월 4일 - 9월 10일 사이의 주일)	잠언 22:1-2, 8-9, 22-23 시편 125	이사야 35:4-7a 시편 146	야고보서 2:1-10, (11-13), 14-17	마가복음 7:24-37
#65	Proper 19 (24) (9월 11일 - 9월 17일 사이의 주일)	잠언 1:20-33 시편 19	이사야 50:4-9a 시편 116:1-9	야고보서 3:1-12	마가복음 8:27-38
#66	Proper 20 (25) (9월 18일 - 9월 24일 사이의 주일)	잠언 31:10-31 시편 1	예레미야 11:18-20 시편 54	야고보서 3:13-4:3, 7-8a	마가복음 9:30-37
#67	Proper 21 (26) (9월 25일 - 10월 1일 사이의 주일)	에스더 7:1-6, 9-10; 9:20-22 시편 124	민수기 11:4-6, 10-16, 24-29 시편 19:7-14	야고보서 5:13-20	마가복음 9:38-50
#68	Proper 22 (27) (10월 2일 - 10월 8일 사이의 주일)	욥기 1:1, 2:1-10 시편 26	창세기 2:18-24 시편 8	히브리서 1:1-4, 2:5-12	마가복음 10:2-16
#69	Proper 23 (28) (10월 9일 - 10월 15일 사이의 주일)	욥기 23:1-9, 16-17 시편 22:1-15	아모스 5:6-7, 10-15	히브리서 4:12-16	마가복음 10:17-31

	주일)		시편 90:12-17		
#70	Proper 24 (29) (10월 16일 - 10월 22일 사이의 주일)	욥기 38:1-7, (34-41) 시편 104:1-9, 24, 35c	이사야 53:4-12 시편 91:9-16	히브리서 5:1-10	마가복음 10:35-45
#71	Proper 25 (30) (10월 23일 - 10월 29일 사이의 주일)	욥기 42:1-6, 10-17 시편 34:1-8, (19-22)	예레미야 31:7-9 시편 126	히브리서 7:23-28	마가복음 10:46-52
#72	Proper 26 (31) (10월 30일 - 11월 5일 사이의 주일)	룻기 1:1-18 시편 146	신명기 6:1-9 시편 119:1-8	히브리서 9:11-14	마가복음 12:28-34
#73	Proper 27 (32) (11월 6일 - 11월 12일 사이의 주일)	룻기 3:1-5; 4:13-17 시편 127	열왕기상 17:8-16 시편 146	히브리서 9:24-28	마가복음 12:38-44
#74	Proper 28 (33) (11월 13일 - 11월 19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상 1:4-20 사무엘상 2:1-10	다니엘 12:1-3 시편 16	히브리서 10:11-14, (15-18), 19-25	마가복음 13:1-8
#75	Proper 29 (34) (11월 20일 - 11월 26일 사이의 주일)	사무엘하 23:1-7 시편 132:1-12, (13-18)	다니엘 7:9-10, 13-14 시편 93	요한계시록 1:4b-8	요한복음 18:33-37
Special Days					
#76	Presentation of the Lord (A, B, C) 2월 2일	말라기 3:1-4	시편 84 or 시편 24:7-10	히브리서 2:14-18	누가복음 2:22-40
#77	Annunciation of the Lord (A, B, C) 3월 25일	이사야 7:10-14	시편 45 or 시편 40:5-10	히브리서 10:4-10	누가복음 1:26-38
#78	Visitation of Mary to Elizabeth (A, B, C) 5월 31일	사무엘상 2:1-10;	시편 113	로마서 12:9-16b	누가복음 1:39-57
#79	Holy Cross (A, B, C) 9월 14일	민수기 21:4b-9;	시편 98:1-5 or 시편 78:1-2, 34-38	고린도전서 1:18-24	요한복음 3:13-17
#80	All Saints 11월 1일	이사야 25:6-9	시편 24	요한계시록 21:1-6a	요한복음 11:32-44
#81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주 목요일	요엘 2:21-27	시편 126	디모데전서 2:1-7	마태복음 6:25-33

Revised Common Lectionary - Year C

대림절기

#01	대림절 첫 번째 주일 (11월 27일-12월 3일)	예레미야 33:14-16	시편 25:1-10	데살로니가전서 3:9-13	누가복음 21:25-36
#02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월 4일-12월 10일)	말라기 3:1-4	누가복음 1:68-79	빌립보서 1:3-11	누가복음 3:1-6
#03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 11일-12월 17일)	스가랴 3:14-20	이사야 12:2-6	빌립보서 4:4-7	누가복음 3:7-18
#04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월 18일-12월 24일)	미가 5:2-5a	누가복음 1:46b-55 or 시편 80:1-7	히브리서 10:5-10	누가복음 1:39-45, (46-55)

성탄절기

#05	Christmas, Proper 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9:2-7	시편 96	디도서 2:11-14	누가복음 2:1-14, (15-20)
#06	Christmas, Proper I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62:6-12	시편 97	디도서 3:4-7	누가복음 2: (1-7), 8-20
#07	Christmas, Proper III (A, B, C) 12월 24-25일	이사야 52:7-10	시편 98	히브리서 1:1-4, (5-12)	요한복음 1:1-14
#08	성탄절 첫 번째 주일 12월 26일-1월 1일	사무엘상 2:18-20, 26	시편 148	골로새서 3:12-17	누가복음 2:41-52
#09	Holy Name of Jesus (Mary, Mother of God) (A, B, C) 1월 1일	민수기 6:22-27	시편 8	갈라디아서 4:4-7 or 빌립보서 2:5-11	누가복음 2:15-21
#10	New Year's Day (A, B, C) 1월 1일	잠언 3:1-13	시편 8	요한계시록 21:1-6a	마태복음 25:31-46
#11	성탄절 두 번째 주일 (A, B, C) 1월 2일-1월 5일	예레미야 31:7-14	시편 147:12-20	에베소서 1:3-14	요한복음 1: (1-9), 10-18

주현절기

#12	주현절 (A, B, C)	이사야 60:1-6	시편 72:1-7,	에베소서 3:1-12	마태복음
-----	-------------------------------	----------------------------	----------------------------	-----------------------------	----------------------

	(1월 6일)		10-14		2:1-12
#13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 주님의 수세 주일 (1월 7일 - 1월 13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43:1-7	시편 29	사도행전 8:14-17	누가복음 3:15-17, 21-22
#14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1월 14일 - 1월 2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62:1-5	시편 36:5-10	고린도전서 12:1-11	요한복음 2:1-11
#15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1월 21일 - 1월 27일 사이의 주일)	느헤미야 8:1-3, 5-6, 8-10	시편 19	고린도전서 12:12-31a	누가복음 4:14-21
#16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1월 28일 - 2월 3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1:4-10	시편 71:1-6	고린도전서 13:1-13	누가복음 4:21-30
#17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2월 4일 - 2월 1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6:1-8, (9-13)	시편 138	고린도전서 15:1-11	누가복음 5:1-11
#18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2월 11일 - 2월 17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17:5-10	시편 1	고린도전서 15:12-20	누가복음 6:17-26
#19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 (2월 18일 - 2월 24일 사이의 주일)	창세기 45:3-11, 15	시편 37:1-11, 39-40	고린도전서 15:35-38, 42-50	누가복음 6:27-38
#20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 (2월 25일 - 2월 29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55:10-13	시편 92:1-4, 12-15	고린도전서 15:51-58	누가복음 6:39-49
#21	주현절 후 아홉 번째 주일 (3월 1일 - 3월 7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8:22-23, 41-43	시편 96:1-9	갈라디아서 1:1-12	누가복음 7:1-10
#22	산상 변모 주일	출애굽기 34:29-35	시편 99	고린도후서 3:12-4:2	누가복음 9:28-36, (37-43a)
사순절기					
#23	참회의 수요일 (A, B, C)	요엘 2:1-2, 12-17 or 이사야 58:1-12	시편 51:1-17	고린도후서 5:20b-6:10	마태복음 6:1-6, 16-21
#24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신명기 26:1-11	시편 91:1-2, 9-16	로마서 10:8b-13	누가복음 4:1-13
#25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창세기 15:1-12, 17-18	시편 27	빌립보서 3:17-4:1	누가복음 13:31-35 or

					누가복음 9:28-36, (37-43a)
#26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사야 55:1-9	시편 63:1-8	고린도전서 10:1-13	누가복음 13:1-9
#27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여호수아 5:9-12	시편 32	고린도후서 5:16-21	누가복음 15:1-3, 11b-32
#28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이사야 43:16-21	시편 126	빌립보서 3:4b-14	요한복음 12:1-8
#29	종려 주일		시편 118:1-2, 19-29		누가복음 19:28-40
#30	수난 주일	이사야 50:4-9a	시편 31:9-16	빌립보서 2:5-11	누가복음 22:14-23:56 or 누가복음 23:1-49

성주간

#31	성 월요일 (A, B, C)	이사야 42:1-9	시편 36:5-11	히브리서 9:11-15	요한복음 12:1-11
#32	성 화요일 (A, B, C)	이사야 49:1-7	시편 71:1-14	고린도전서 1:18-31	요한복음 12:20-36
#33	성 수요일 (A, B, C)	이사야 50:4-9a	시편 70	히브리서 12:1-3	요한복음 13:21-32
#34	성 목요일 (A, B, C)	출애굽기 12:1-4, (5-10), 11-14	시편 116:1-2, 12-19	고린도전서 11:23-26	요한복음 13:1-17, 31b-35
#35	성 금요일 (A, B, C)	이사야 52:13-53:12	시편 22	히브리서 10:16-25 or 히브리서 4:14-16; 5:7-9	요한복음 18:1-19:42
#36	성 토요일 (A, B, C)	욥기 14:1-14 or 예레미야 애가 3:1-9, 19-24	시편 31:1-4, 15-16	베드로전서 4:1-8	마태복음 27:57-66 or 요한복음 19:38-42

부활절기

#37	부활 전야	구약 성경 독서와 시편 창세기 1:1-2:4a and 시편 136:1-9, 23-26 창세기 7:1-5, 11-18; 8:6-18; 9:8-13 and 시편 46			
-----	-----------------------	--	--	--	--

		창세기 22:1-18 and 시편 16 출애굽기 14:10-31; 15:20-21 and 출애굽기 15:1b-13, 17-18 이사야 55:1-11 and 이사야 12:2-6 잠언 8:1-8, 19-21; 9:4b-6 and 시편 19 에스겔 36:24-28 and 시편 42, 43 에스겔 37:1-14 and 시편 143 스가랴 3:14-20 and 시편 98 신약 성경 독서와 시편 로마서 6:3-11 and 시편 114 복음서 누가복음 24:1-12			
#38	부활 주일	사도행전 10:34-43 or 이사야 65:17-25	시편 118:1-2, 14-24	고린도전서 15:19-26 or 사도행전 10:34-43	요한복음 20:1-18 or 누가복음 24:1-12
#39	부활 주일 저녁 (A, B, C)	이사야 25:6-9	시편 114	고린도전서 5:6b-8	누가복음 24:13-49
#40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사도행전 5:27-32	시편 118:14-29 or 시편 150	요한계시록 1:4-8	요한복음 20:19-31
#41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사도행전 9:1-6, (7-20)	시편 30	요한계시록 5:11-14	요한복음 21:1-19
#42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사도행전 9:36-43	시편 23	요한계시록 7:9-17	요한복음 10:22-30
#43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11:1-18	시편 148	요한계시록 21:1-6	요한복음 13:31-35
#44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사도행전 16:9-15	시편 67	요한계시록 21:10, 22-22:5	요한복음 14:23-29 or 요한복음 5:1-9
#45	승천일 (A, B, C)	사도행전 1:1-11	시편 47 or 시편 93	에베소서 1:15-23	누가복음 24:44-53
#46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사도행전 16:16-34	시편 97	요한계시록 22:12-14, 16-17, 20-21	요한복음 17:20-26
#47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사도행전 2:1-21 or	시편 104:24-34, 35b	로마서 8:14-17 or	요한복음 14:8-17, (25-

오순절 후 주일

#48	삼위일체 주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잠언 8:1-4, 22-31 시편 8		로마서 5:1-5	요한복음 16:12-15
#49	Proper 3 (8) (5월 24일-5월 28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55:10-13 시편 92:1-4, 12-15		고린도전서 15:51-58	누가복음 6:39-49
#50	Proper 4 (9) (5월 29일-6월 4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18:20-21, (22-29), 30-39 시편 96	열왕기상 8:22-23, 41-43 시편 96:1-9	갈라디아서 1:1-12	누가복음 7:1-10
#51	Proper 5 (10) (6월 5일-6월 11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17:8-16, (17-24) 시편 146	열왕기상 17:17-24 시편 30	갈라디아서 1:11-24	누가복음 7:11-17
#52	Proper 6 (11) (6월 12일-6월 18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21:1-10, (11-14), 15-21a 시편 5:1-8	사무엘하 11:26-12:10, 13-15 시편 32	갈라디아서 2:15-21	누가복음 7:36-8:3
#53	Proper 7 (12) (6월 19일-6월 25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상 19:1-4, (5-7), 8-15a 시편 42 and 43	이사야 65:1-9 시편 22:19-28	갈라디아서 3:23-29	누가복음 8:26-39
#54	Proper 8 (13) (6월 26일 - 7월 2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하 2:1-2, 6-14 시편 77:1-2, 11-20	열왕기상 19:15-16, 19-21 시편 16	갈라디아서 5:1, 13-25	누가복음 9:51-62
#55	Proper 9 (14) (7월 3일 - 7월 9일 사이의 주일)	열왕기하 5:1-14 시편 30	이사야 66:10-14 시편 66:1-9	갈라디아서 6:(1-6), 7-16	누가복음 10:1-11, 16-20
#56	Proper 10 (15) (7월 10일 - 7월 16일 사이의 주일)	아모스 7:7-17 시편 82	신명기 30:9-14 시편 25:1-10	골로새서 1:1-14	누가복음 10:25-37
#57	Proper 11 (16) (7월 17일 - 7월 23일 사이의 주일)	아모스 8:1-12 시편 52	창세기 18:1-10a 시편 15	골로새서 1:15-28	누가복음 10:38-42
#58	Proper 12 (17) (7월 24일 - 7월 30일 사이의 주일)	호세아 1:2-10 시편 85	창세기 18:20-32 시편 138	골로새서 2:6-15, (16-19)	누가복음 11:1-13
#59	Proper 13 (18) (7월 31일 - 8월 6일 사이의 주일)	호세아 11:1-11 시편 107:1-9, 43	잠언 1:2, 12-14; 2:18-23 시편 49:1-12	골로새서 3:1-11	누가복음 12:13-21

#60	Proper 14 (19) (8월 7일 - 8월 13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1:1, 10-20 시편 50:1-8, 22-23	창세기 15:1-6 시편 33:12-22	히브리서 11:1-3, 8-16	누가복음 12:32-40
#61	Proper 15 (20) (8월 14일 - 8월 20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5:1-7 시편 80:1-2, 8-19	예레미야 23:23-29 시편 82	히브리서 11:29-12:2	누가복음 12:49-56
#62	Proper 16 (21) (8월 21일 - 8월 27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1:4-10 시편 71:1-6	이사야 58:9b-14 시편 103:1-8	히브리서 12:18-29	누가복음 13:10-17
#63	Proper 17 (22) (8월 28일 - 9월 3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2:4-13 시편 81:1, 10-16	잠언 25:6-7 시편 112	히브리서 13:1-8, 15-16	누가복음 14:1, 7-14
#64	Proper 18 (23) (9월 4일 - 9월 10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18:1-11 시편 139:1-6, 13-18	신명기 30:15-20 시편 1	빌레몬서 1:1-1:21	누가복음 14:25-33
#65	Proper 19 (24) (9월 11일 - 9월 17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4:11-12, 22-28 시편 14	출애굽기 32:7-14 시편 51:1-10	디모데전서 1:12-17	누가복음 15:1-10
#66	Proper 20 (25) (9월 18일 - 9월 24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8:18-9:1 시편 79:1-9	아모스 8:4-7 시편 113	디모데전서 2:1-7	누가복음 16:1-13
#67	Proper 21 (26) (9월 25일 - 10월 1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32:1-3a, 6-15 시편 91:1-6, 14-16	아모스 6:1a, 4-7 시편 146	디모데전서 6:6-19	누가복음 16:19-31
#68	Proper 22 (27) (10월 2일 - 10월 8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애가 1:1-6 예레미야 애가 3:19-26 or 시편 137	하박국 1:1-4; 2:1-4 시편 37:1-9	디모데후서 1:1-14	누가복음 17:5-10
#69	Proper 23 (28) (10월 9일 - 10월 15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29:1, 4-7 시편 66:1-12	열왕기하 5:1-3, 7-15c 시편 111	디모데후서 2:8-15	누가복음 17:11-19
#70	Proper 24 (29) (10월 16일 - 10월 22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31:27-34 시편 119:97-104	창세기 32:22-31 시편 121	디모데후서 3:14-4:5	누가복음 18:1-8
#71	Proper 25 (30) (10월 23일 - 10월 29일 사이의 주일)	요엘 2:23-32 시편 65	예레미야 14:7-10, 19-22	디모데후서 4:6-8, 16-18	누가복음 18:9-14

			시편 84:1-7		
#72	Proper 26 (31) (10월 30일 - 11월 5일 사이의 주일)	하박국 1:1-4, 2:1-4 시편 119:137-144	이사야 1:10-18 시편 32:1-7	데살로니가후서 1:1-4, 11-12	누가복음 19:1-10
#73	Proper 27 (32) (11월 6일 - 11월 12일 사이의 주일)	학개 1:15b-2:9 시편 145:1-5, 17-21 or 시편 98	욥기 19:23-27a 시편 17:1-9	데살로니가후서 2:1-5, 13-17	누가복음 20:27-38
#74	Proper 28 (33) (11월 13일 - 11월 19일 사이의 주일)	이사야 65:17-25 이사야 12	말라기 4:1-2a 시편 98	데살로니가후서 3:6-13	누가복음 21:5-19
#75	Proper 29 (34) (11월 20일 - 11월 26일 사이의 주일)	예레미야 23:1-6 누가복음 1:68-79	예레미야 23:1-6 시편 46	골로새서 1:11-20	누가복음 23:33-43
Special Days					
#76	Presentation of the Lord (A, B, C) 2월 2일	말라기 3:1-4	시편 84 or 시편 24:7-10	히브리서 2:14-18	누가복음 2:22-40
#77	Annunciation of the Lord (A, B, C) 3월 25일	이사야 7:10-14	시편 45 or 시편 40:5-10	히브리서 10:4-10	누가복음 1:26-38
#78	Visitation of Mary to Elizabeth (A, B, C) 5월 31일	사무엘상 2:1-10;	시편 113	로마서 12:9-16b	누가복음 1:39-57
#79	Holy Cross (A, B, C) 9월 14일	민수기 21:4b-9;	시편 98:1-5 or 시편 78:1-2, 34-38	고린도전서 1:18-24	요한복음 3:13-17
#80	All Saints 11월 1일	다니엘 7:1-3, 15-18	시편 149	에베소서 1:11-23	누가복음 6:20-31
#81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	신명기 26:1-11;	시편 100	빌립보서 4:4-9	요한복음 6:25-35